킹제임스 흠정역

성 경 전 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큰 글자 성경)

2003년 11월 30일 초판 발행
2008년 8월 1일 제2판 발행
2011년 9월 1일 제3판 발행(본문 5판, 400주년 기념판)
(1611년 5월 2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기념)

번　　역 : 그리스도 예수안에
발 행 인 : 정 동 수
발 행 소 : 그리스도 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87-30
등록번호 238
인 쇄 소 : 에스피티 (주)

문　　의 : (032) 872-1184(Tel)
(032) 232-0129(FAX)
웹사이트: http://www.KeepBible.com
E-mail: webmaster@KeepBible.com
ISBN 89-951587-4-3 03230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온 인류의 생사화복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啓示)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이나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만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시19:1-6, 롬1:18-32). 사람이 이런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계시는 결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둠밈, 천사, 예수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 외의 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죽은 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전(主前) 1500년부터 주후(主後)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왕, 정치가,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목자, 사도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 밑에서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예비'(豫備)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예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영감'(靈感)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감이란 단어는 '숨을 내쉬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성경은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벧후1:21)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내쉬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총체적 축자 영감'(verbal

plenary inspiration)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자필 원본(自筆 原本)이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존'(保存)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마다 친히 숨을 내쉬셔서 완전하게 만드신 뒤에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시지 않는다면 영감의 단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는 '완전한 영감'이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속성 역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감을 '일차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이차적인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보존에 대하여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40:8)고 확증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의 보존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대부분의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신약성경 전체를 그 당시 온 세상의 공통어이던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보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단계를 통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경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번역'(飜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후 100년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수많은 역본(譯本)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자필 원본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개개인을 구원시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번역의 단계 역시 영감이나 보존의 단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을 위한 대본(臺本)입니다.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필사(筆寫)한 사본(寫本)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신구약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本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볼 때 번역을 위한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그것을 찍어 내는 틀이 어떠하냐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본 역시 본문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경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존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이 마소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欽定譯) 성경」(*King James Version*, KJV)의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1937년에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Rudolph Kittel)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20 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를 편찬했으며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트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는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20,000 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하며 또한 「신국제역본」(*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과 「신미국표준역본」(*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 등 모든 현대 역본이 「BHS」를 근거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경우 「흠정역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신약 교회가 거의 1,900 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교인들이 한결같이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소수 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신성, 대속, 삼위일체 및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교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으며 바로 이 두 사본에 근거해서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공인 본문」을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개시킨 단어는 무려 9,970 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140,521 개 단어의 7%나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 1898년에는 네슬레가 티센도르프의 제8판과 위마우스의 제3판과 함께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이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의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흠정역 성경」의 내용과 다른 모든 현대 역본의 내용은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새로운 역본으로 인한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역본이 출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자기 뜻에 맞는 역본을 선정하고 있으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비치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구절은 이 역본이 좋고 저 구절은 저 역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흠정역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자신의 말씀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공통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로 인한 현시대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군에 의해 무참히 패배를 당한 후 보잘것없던 섬나라 영국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를 통해 두 가지 일 즉 자신의 선민인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일과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합쳐진 성경전서가 나오게 되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지배하의 암흑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이 나오게 되었으며, 산업 혁명 등을 통해 인류의 복지 증진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어 중심의 세계 판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이제는 영어 자체가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지난 400 년간 영어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해 오셨으며 지금도 번역본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되 특별히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된 영어로 기록된 「흠정역 성경」을 표준 척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영어 성경이 여럿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읽혀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주신 성경이라는 호칭 즉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 AV)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흠정역 성경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8, 19세기 미국 및 영국의 부흥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The Holy Bible*)하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우수성에 대해 「톰슨대역 한영성경」 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평을 했습니다.

>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pp.4, 1989).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믿을 터인데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육적, 영적 모든 활동의 표준이 되는 척도이며 따라서 이런 표준 척도는 시대에 따라, 사람의 눈이 밝아짐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논쟁이 크리스천들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100 종이 넘는 책들이 소위 '성경'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말에 미국성서공회는 「새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Good News For A New Age*)이라는 뉴에이지 성경도 버젓이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 윤리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지난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성도들의 표준 척도가 되어 온 「흠정역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본 성경의 번역에는 총 8년이 소요되었으며 목사,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신학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번역과 교정 작업에 참여하고 아낌없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본 성경의 출간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의 보상으로 충만히 갚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성경의 출간을 위해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많은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특히 반세기 이상 복음이 가려진 북녘 땅에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이미 믿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욱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죽어 가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작업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하신 모든 긍휼의 아버지와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원히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혜와 판단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을 대신하여

제임스 왕께 드리는 글

본 성경의 번역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군주이시고
믿음의 옹호자이신 제임스 왕
곧 지극히 높으시고 강력하신 통치자
제임스 왕께 이 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존엄하신 주권자(主權者)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곧 모든 긍휼의 아버지께서 고귀하신 폐하를 보내시어 우리 영국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사오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참으로 크고 많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구 세계의 빛나는 별이시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서거(逝去)하신 후 우리나라의 안녕(安寧)을 바라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야말로 두텁고 짙은 어둠의 구름이 이 땅을 뒤덮어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불안한 국가를 누가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폐하께서 힘찬 태양처럼 나타나사 그러한 모든 억측(臆測)의 안개를 말끔히 일소(一掃)하시고 그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안위(安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고한 칭호를 힘입어 폐하께서 세우신 정부와 폐하의 황태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평화와 안녕과 더불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참으로 큰 안위가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다는 복(福)보다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부(富)를 능가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니 이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높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하의 고명(高名)하신 전임자께서 물려주신 이 나라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유지하며 이를 원근 지방에 확산시키는 일에서 사람들이 확신과 결의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폐하께 충성을 다하는 경건한 모든 백성의 마음과 폐하를 굳게 결합시켜 주는 원동력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폐하의 존함(尊啣)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고귀하게 되며 그들이 위로 받는 가운데 폐하를 바라보고 폐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창시자(創始者)가 되시며 거룩한 일꾼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 것입니다.

실로 백성들의 이러한 만족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늘어나 힘을 얻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폐하의 열심(熱心)이 줄어들거나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져서 기독교계의 저 먼 곳에서까지도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사 (그 글로 저 죄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해 회복 불능으로 만드셨으며) 또 날마다 집에서 경건하고 식견(識見)이 높은 연설을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자주 들러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며 그곳의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사 양육하시는 아버지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주는 증거가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 곧 우리 번역자들이 겸손하게 폐하께 바치는 성경을 완성하고 출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보여 주신 뜨겁고도 지속적인 열망(熱望)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사려 깊은 판단 하에 우리보다 앞서간 훌륭한 분들이 우리말과 다른 외국어로 이루어 놓은 여러 성경들을 비교해 가면서 거룩한 원어에서 더 정확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며, 그 이후에는 그 작업을 맡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그 일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하셨고 이처럼 중요한 일에 마땅히 요구되는 매우 품위 있는 방식으로 그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지속된 노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교회가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크게 바라하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시며 이 작업을 창시하시고 주관하신 폐하께 이 성경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살펴볼 때 늘 이런 종류의 일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에 만족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우리는 폐하와 같이 식견이 높고 현명하신 군주께서 이 일을 인정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감히 바라는 바입니다. 폐하께서 우리의 수고를 승인하고 받아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예와 위로가 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혹독한 비판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害惡)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 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만에 차서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는 형제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틀을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는 진리와 선한 양심의 순결함을 힘입어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서처럼 단순하고도 순전한 길들로 걸으며 평안히 거할 것이며 또 외적으로는 폐하의 은혜와 호의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같이 폐하께서 보호해주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수고와 노력에 힘을 북돋아 주어 거친 비판과 무자비한 비난을 이겨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께서 많은 행복한 날로 폐하께 복을 주시고 자신의 천상(天上)의 손을 펴사 놀랍고도 비상(非常)한 은혜로 폐하를 부요(富饒)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행복과 지고한 복락(福樂)으로 인해 온 세상이 놀라는 기묘자(奇妙者)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로써 이 일이 우리의 주(主)시요, 유일한 구원자(救援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성 경 개 관

● 성경의 정의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1:1에서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말 'Biblos'에서 유래되었으며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History)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 이 기록한 '한 책'(One book)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마21:42; 벧후1:20), '거룩한 성경 기록들'(롬1:2), '율법'(요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 등으로 부른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니다.

●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1:1–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이다(신6:17; 시119:89; 잠30:5–6; 렘23:29; 마5:17–19; 마22:29; 막13:31; 행17:11; 롬10:17; 딤후3:15–17; 벧전1:23–25; 벧후1:20–21; 계22:18–19).

● 성경의 구성

성경은 66개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성경으로 나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 영어 단어(구약 609,247단어, 신약 179,011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과 에스더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과 요한복음 11장 35절이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2절인데 그중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구약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렘10:11; 단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율법: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 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3) 거룩한 기록들: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신약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절과 장의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테판)는 신약성경에 절을 붙였으며 그 후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 성경의 주제와 내용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요20:30–31; 요일5:20).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준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 책이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요14:1–9).

●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

(1)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a)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b)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준다. (c)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 준다.

(2)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하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4:4).

(3)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시12:6–7).

(4)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5)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 성경 기록의 정경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다.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한다. 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다. 신약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인쇄되어 나왔고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매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후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같은 현대 역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고 특히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이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 성경의 영향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쳐 왔다.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런 경전이 없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다. 볼테르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의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막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작자 미상

성경전서목차

구약성경(The Old Testament)

신약성경(The New Testament)

일 러 두 기

1. 1611년에 발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신성한 사문자 YHWH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출20:7) 여호와로 표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려 주신 대로(시110:1; 마22:44; 막12:36; 눅20:42) 또 전 세계 대부분 성경의 표기대로 LORD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본 성경에서도 YHWH를 나타내는 LORD를 진한 고딕체의 주로 표기했습니다.

2. 1611년에 발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을 표기하면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나타낼 때는 the Holy Ghost를, 내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체를 나타낼 때는 the Spirit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본 성경에서는 the Holy Ghost는 성령님으로, the Spirit은 *성령*으로 표기했습니다.

3. 1611년에 발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쉼표와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 등으로 인용문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본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원칙을 따라 직접 인용문의 앞뒤에만 쉼표를 써서 구분을 했으며 인용문이 물음표나 느낌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물음표와 느낌표 자체를 쉼표로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단락도 1611년에 발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 표를 사용하여 구분했고 또한 성경 66권 각 권의 첫 장에 있는 문양 및 이니셜체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4. 인명과 지명 등은 고딕체로 나타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主) 등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첫 자가 대문자로 표기된 것도 고딕체로 표기했습니다. 단 앞에 나온 인명이나 지명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그대로 대명사로 번역하면 혼동이 생길 경우 그 대명사를 앞에 나온 인명이나 지명 등으로 다시 받되 명조체로 표기하여 원래의 것과 구분하였습니다(창21:7의 아브라함, 마1:16의 마리아, 고후5:21의 하나님 참조). 또한 단어나 구 전체가 대문자로 표기된 것도 진한 고딕체로 표기했으며 번역 과정에서 단어를 첨가해야만 말이 되는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했습니다.

5. 인명, 지명 및 성경 각 권의 제목은 기존의 것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구약에서 애굽, 바로, 앗수르, 바벨론 등을 각각 이집트, 파라오, 아시리아, 바빌론 등으로 신약에서 가이사, 아구스도, 요단 등을 각각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요르단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어의 경우 신구약에서 예언과 나라를 각각 대언(prophecy)과 왕국(kingdom)으로, 구약에서 소제, 전제, 속죄제, 속건제 등을 각각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등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과 대비되는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로,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과 대비되는 하늘의 왕국(the kingdom of heaven)으로 원어 및 영어에 있는 대로 알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창 세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315년(어셔의 연대기),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롬15:4; 고전10:11)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Genesis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기원'을 뜻한다. 따라서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 주는 책이다. 주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3:15, 21; 22:8; 마20:28; 요1:29; 갈4:4-5)
내용: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 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을 담고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1:20-28) 사망으로 끝난다(50:26). 창세기는 50장, 1,533절, 38,26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창조), 12장(아브라함을 부르심)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으며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처음(시작)
핵심 구: "처음에"(1:1), 창세기의 그리스도: 1. 여자의 씨(3:15; 마1:18-25; 갈4:4), 2. 아브라함의 씨(12:1-2; 갈3:29), 3.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49:10; 요16:33; 롬5:1), 4. 이스라엘의 돌이신 목자(49:24; 요10:11)
영적 교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눅1:37; 요15:5)

제 1 장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창2:4-9; 욥38:4-11)

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
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
니라.
3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
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
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
시고
5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
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
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
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7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
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
이더라.
9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
로 되니라.
10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
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
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
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
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
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
라.
13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
라.
14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의 궁창에 광체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年)들을 나타내
라.
15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
고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17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
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
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
라.
20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
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21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
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
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
더라.
24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
로 되니라.
25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
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
시기에 좋았더라.
26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
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
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
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
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
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
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29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
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
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제 2 장

안식일 제정

1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2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
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
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
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
이더라.

하나님의 사람 창조 방법

4 ¶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5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
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
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
며
6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
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에덴동산

8 ¶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
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
를 거기 두셨으며
9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
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
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
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
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12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니
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
라.
15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
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
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
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여자 창조

18 ¶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
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
라, 하시니라.
19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
라.
21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22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
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
르리라, 하니라.
24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
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25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더라.

제 3 장

사탄의 시험과 사람의 타락
(롬5:12 – 21)

1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
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3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
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
셨느니라, 하매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6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
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
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7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
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8 그들이 그 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
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9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
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11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
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
니
12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
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13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
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
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14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
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
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
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
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
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
라.
18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
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
으며
19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
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
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21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
라.
22 ¶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
라, 남자가 우리 중의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
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23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
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
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
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 4 장

가인과 아벨

1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
라.
2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
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3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
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5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
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6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7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
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8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
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9 ¶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
매
10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
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11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12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
이 자기 효력을 네게 내지 아니할 것이

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13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
다.
14 보소서, 주께서 이 날 지면으로
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
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
겠나이다, 하매
15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가족

16 ¶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17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
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
니라.
18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
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두
사엘을 낳고 므두사엘은 라멕을 낳았
더라.
19 ¶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
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
의 이름은 실라더라.
20 아다가 야발을 낳으매 그는 장
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
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22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
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匠人)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
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23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
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
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
년을 죽였느니라.
24 가인을 위해 일곱 배로 복수할
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일흔일
곱 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새로 얻은 아들 셋

25 ¶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
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
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6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
하였더라.

제 5 장

아담의 세대들(대상1:1－4)

1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
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2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
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3 ¶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4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팔백 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딸들을 낳
았더라.
5 아담이 산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6 셋은 백오 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7 에노스를 낳은 뒤 팔백칠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8 셋의 전 생애는 구백십이 년이었
으며 그가 죽으니라.
9 ¶ 에노스는 구십 년을 살며 게난
을 낳았고
10 게난을 낳은 뒤 팔백십오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1 에노스의 전 생애는 구백오 년
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2 ¶ 게난은 칠십 년을 살며 마할
랄레엘을 낳았고
13 마할랄레엘을 낳은 뒤 팔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4 게난의 전 생애는 구백십 년이
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5 ¶ 마할랄레엘은 육십오 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16 야렛을 낳은 뒤 팔백삼십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17 마할랄레엘의 전 생애는 팔백구
십오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8 ¶ 야렛은 백육십이 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19 에녹을 낳은 뒤 팔백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0 야렛의 전 생애는 구백육십이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21 ¶ 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며 므
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뒤 삼백 년 동
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3 에녹의 전 생애는 삼백육십오
년이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26 라멕을 낳은 뒤 칠백팔십이 년
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27 므두셀라의 전 생애는 구백육십
구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28 ¶ 라멕은 백팔십이 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29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
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
리라, 하였더라.
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오백구
십오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더
라.
31 라멕의 전 생애는 칠백칠십칠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32 노아는 오백 세가 되어 셈과 함
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 6 장

사람들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심판

1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
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
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
니라.
3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
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
니라.
4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
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
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5 ¶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
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
을 보시고
6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
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
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

9 ¶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10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11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
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12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
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
기 때문이라.
1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
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
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
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주 준비

14 ¶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
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15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
하니 방주의 길이는 삼백 큐빗이요,
너비는 오십 큐빗이며 높이는 삼십
큐빗이니라.
16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
서부터 일 큐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
라.
17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
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19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두 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
컷이어야 하리라.
20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기
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
다 두 마리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것
들을 살아남게 하라.
21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을 네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제 7 장

노아의 대홍수

1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
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일곱 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두 마리씩 취하
며
3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일곱 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4 이제 이레 뒤에 내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5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
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6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육백 세더라.
7 ¶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
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9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노아에
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 이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11 ¶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12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13 바로 그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
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
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14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
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
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
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
고
15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
체 중에서 둘씩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가니
16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
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17 홍수가 땅 위에 사십 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
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18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
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
갔으며
19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20 물들이 불어서 십오 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
21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
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
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23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
승이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24 물들이 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제 8 장

노아가 구출됨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
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
었고
2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
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
아가고 백오십 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
이 줄어들어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
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5 또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6 ¶ 사십 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7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
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8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
들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
려 하였으나
9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
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10 또 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
매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
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
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12 또 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
는 그에게 또 돌아오지 아니하였더
라.
13 ¶ 제육백일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14 둘째 달 곧 그 달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15 ¶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
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17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
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18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
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갔고
19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
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
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20 ¶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
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21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
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
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
라, 하시니라.

제 9 장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
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
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
라.
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
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
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
노라.
4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
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5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
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
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7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8 ¶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9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
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10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 있
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
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
까지니라.
11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
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2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
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

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
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
의 증표가 되리라.
14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
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
의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 있는 창조
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
하리라.
17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
되,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
라, 하셨더라.

노아의 아들들

18 ¶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
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19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
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
라.
20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21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
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
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
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
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
기의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
이 될 것이니라, 하고
26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27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
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
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
라.
28 ¶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삼백오
십 년을 사니라.
29 노아의 전 생애가 구백오십 년
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제 10 장

노아의 후손들이
땅의 민족들을 형성함(대상1:5－27)

1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요,
3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
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5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
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
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6 ¶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
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
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
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8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
라.
9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
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10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였으

며
11 그 땅에서 앗수르가 나아가 니느
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12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
하빔과 납두힘과
14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
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이 나왔더라.)
15 ¶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
과 헷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
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
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19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
서부터 네가 그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며 또 네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20 이들은 함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
들과 민족들대로 *함의 아들들*이니라.
21 ¶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
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
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22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
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
과 마스이며
24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25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
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26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
벳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
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더
라.
30 그들이 거하는 곳은 네가 동쪽
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메사에서
부터 시작되었더라.
31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
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니라.
32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
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
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제 11 장

바벨 탑에서의 반역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였더라.
2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
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3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4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
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
더라.
5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
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
라.
6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
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
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

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
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
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
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셈의 세대들(대상1:17－27)

10 ¶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에 곧 홍수 뒤 이 년이 지났
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 아르박삿을 낳은 뒤 오백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12 아르박삿은 삼십오 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13 살라를 낳은 뒤 사백삼 년을 살
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14 살라는 삼십 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15 에벨을 낳은 뒤 사백삼 년을 살
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16 에벨은 삼십사 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뒤 사백삼십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18 벨렉은 삼십 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19 르우를 낳은 뒤 이백구 년을 살
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20 르우는 삼십이 년을 살며 스룩
을 낳았고
21 스룩을 낳은 뒤 이백칠 년을 살
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22 스룩은 삼십 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23 나홀을 낳은 뒤 이백 년을 살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24 나홀은 이십구 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25 데라를 낳은 뒤 백십구 년을 살
며 아들딸들을 낳았으며
26 데라는 칠십 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세대들

27 ¶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
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28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
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
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이
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그러나 사래는 수태하지 못하
므로 아이가 없더라.
31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
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
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32 데라의 생애는 이백오 년이었
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제 12 장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1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
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4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
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래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
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
가니라.

6 ¶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
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7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
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떠나 벧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
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9 아브람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감

10 ¶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
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
였기 때문이더라.
11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래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12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
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
려 두리니
13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
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
라, 하니라.
14 ¶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15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
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16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선대하므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
었더라.
17 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로 인
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매
18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
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
냐?
19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
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
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네
길로 가라, 하며
20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
더라.

제 13 장

아브람이 가나안을 상속함

1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
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
는데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
히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벧
엘에 이르러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처음
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4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
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
라. 아브람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
니라.
5 ¶ 아브람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6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
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7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
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
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10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
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11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
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
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13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14 ¶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
라.
15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16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17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
도 걸어 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
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
니
18 그때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 14 장

롯이 포로가 되었다가 구출됨

1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
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
의 왕 디달의 시대에
2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염해에
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4 저들이 열두 해 동안 그돌라오멜
을 섬기다가 열세째 해에 반역을 일으
키매
5 열넷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
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
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
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7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세손다말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치매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
으니
9 곧 이 다섯 왕이 네 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과 싸웠더라.
10 싯딤 골짜기에는 진흙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매
11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
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12 소돔에 거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
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13 ¶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
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
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람과 동
맹을 맺었더라.
14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
나 훈련을 받은 종 삼백십팔 명을 무장
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15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
지 그들을 쫓아가서
16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
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17 ¶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
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
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
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
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니라.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
라, 하매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23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
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
여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 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
려 함이라.
24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하니라.

제 15 장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1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니라, 하시니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
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
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
이니이다, 하고
3 또 아브람이 이르되, 보소서, 주
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4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5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
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
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
온 주니라, 하시매
8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
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9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송아지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라.
10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
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
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11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
려올 때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내
었더라.
12 해가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

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13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
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
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14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
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
을 가지고 나오리라.
15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
나
16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
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
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18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
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
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
라*, 하시니라.

제 16 장

하갈과 이스마엘

1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
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
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
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
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
이다,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
편 아브람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였더라.
4 ¶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
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
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
을 멸시하므로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
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6 그러나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
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7 ¶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 샘 옆에
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8 이르되, 사래의 하녀 하갈아, 네
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
매
9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
서 복종하라, 하고
10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
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11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
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
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
라 하라.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
니라.
12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

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
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
라.
13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
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
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뵈었
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14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
라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15 ¶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
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팔십육 세더라.

제 17 장

언약의 재확인

1 아브람이 구십구 세였을 때에 주
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
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
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2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
시니
3 아브람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4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
이 될지니라.
5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
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
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6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
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
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례의 표적(출12:32－13:2)

9 ¶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
킬지니 곧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10 너희 가운데 사내아이는 다 할
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12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네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13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
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
라.
14 포피의 살을 베어 내지 아니하
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
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15 ¶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
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16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
로부터도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
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
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17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오? 구십 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오? 하고
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

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
이다! 하매
19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
이 되게 하리라.
20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열두 통
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
로 만들리라.
21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22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
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
가시니라.
23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 냈더라.
24 아브라함은 구십구 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십삼 세
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
라.
26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
라.

제 18 장

약속의 아들

1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
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2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3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4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
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5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
하라, 하니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
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
루 삼 세아를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
고
7 아브라함이 또 소 떼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
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8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
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9 ¶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
매
10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
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
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
에 있던 장막 문에서 그것을 들었더
라.
11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
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12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主)도 늙었
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매
13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
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14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
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5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
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함

16 ¶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17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18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19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
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20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
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
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
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
니라.
22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
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
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23 ¶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
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혹시 그 도시 안에 쉰 명의 의로
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쉰 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
나이까?
25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
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
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
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
니하리이까? 하매
26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
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쉰 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27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혹시 쉰 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다섯 명이 부족하면 다섯 명이 부족하
므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
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가 거기서 마흔다섯 명을 찾으면 그곳
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9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
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마흔 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흔 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
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오
리이다. 혹시 거기서 서른 명을 찾으
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
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서른 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
시니라.
31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서
스무 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
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무 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2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
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
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열 명을 찾으
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
서 이르시되, 내가 열 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라.
33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제 19 장

소돔의 사악함

1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
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
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主)
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
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
가 거리에서 온밤을 지내리라, 하니
라.
3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
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4 ¶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5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
되, 이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
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6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7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8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
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
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9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
게 밀치고 가까이 나아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10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11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
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됨

12 ¶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네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것은 무엇이
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
라.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14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
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
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
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
라.
15 ¶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
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
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16 그가 망설이매 그 남자들이 그
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
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17 ¶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네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
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네가 소

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19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
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
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20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
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
이까?) 하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
즉 네가 말한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
리니
22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네
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23 ¶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
가 땅 위에 솟았더라.
24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
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
라에 내리사
25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
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26 ¶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
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
이 되었더라.
27 ¶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
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29 ¶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
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
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
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의 후손: 암몬과 모압

30 ¶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
워하여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31 맏*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
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
다.
32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
자, 하고는
33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
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
지 알지 못하였더라.
34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딸*에
게 이르되, 보라, 어제 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
는
35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
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
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36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
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니
라.
37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
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
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38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
름을 벤암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 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제 20 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
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

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
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
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3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
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
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4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
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
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
려 하시나이까?
5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
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
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
이다, 하매
6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
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
노라.
7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
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
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8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
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
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매 그 사람
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9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
로 네게 죄를 지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
르되,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
이라.
12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
라.
13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
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
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
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
라.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
며
15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
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천 개를 주었은즉, 보
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
개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
가 비난을 받았더라.
17 ¶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
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
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18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제 21 장

이삭의 출생

1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
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
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
으니
3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
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4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
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
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5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백 세더라.
6 ¶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
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
다, 하고
7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
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의 아브
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

9 ¶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
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10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
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
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11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
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
라.
12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르시되, 그 아이나 네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네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3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 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매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16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
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였
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
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17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
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
니라.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
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
주시매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
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
라.
20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하시
매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22 ¶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
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
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는도다.
23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
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
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

러 온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
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
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
멜렉을 책망하매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
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
노라*, 하니라.
27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
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28 아브라함이 양 떼에서 어린 암
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
되, 네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30 그가 이르되, 네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받을 것이
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31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
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32 그들이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
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33 ¶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제 22 장

아브라함의 믿음 재확인

1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
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
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
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의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3 ¶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
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두 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
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4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
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5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
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
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
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
는
6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
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7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
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
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9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
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
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10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
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11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
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
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
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
제 아노라, 하니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
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
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
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날까지 *사람
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15 ¶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17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
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
하리라.
18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
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
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
게로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
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20 ¶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
을 낳았다, 하니라.
21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
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
과 브두엘이며
23 브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여덟 명을 낳았더라.
24 그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
가를 낳았더라.

제 23 장

사라의 죽음

1 사라는 백이십칠 세였는데 이것
이 사라가 누린 삶의 햇수더라.
2 사라는 기럇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3 ¶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
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
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5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
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6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
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
의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
다, 하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8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
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
론에게 간청하여
9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0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
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
여 이르되,
11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
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
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12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
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네가
그것을 줄진대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
라. 내가 그 밭 값을 네게 주리니 내게
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
며 그에게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
서. 그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
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이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
서, 하니라.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
게 주니라.
17 ¶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
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18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
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19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
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20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
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제 24 장

이삭의 신부

1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2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
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3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4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
라, 하니
5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
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매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7 ¶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
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네가 거
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
지니라.
8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9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 ¶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열 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
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11 저녁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
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
라.

12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
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13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곁에 섰
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
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
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
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
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15 ¶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
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
에게 태어났더라.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
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
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
오므로
17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
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18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
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19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으리이다,
하며
20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
고 다시 물을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
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으
므로
21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
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22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 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한 개와 그녀
의 손에 끼워 줄 십 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취하고
23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
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24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
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25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
에게 짚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26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
배하고
27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
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
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
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
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
게 하셨도다, 하니라.
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
기 어머니 집의 사람들에게 고하였더
라.
29 ¶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
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라.
30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
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
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
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
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31 그가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이 있
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32 ¶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짚과 여물
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
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무

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
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34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
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 떼와 소 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
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
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
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
이다.
37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
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38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39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
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
면 어찌 하리이까? 한즉
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으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
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네 길을 형통하
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41 그러면 네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에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
요,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
라도 네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나이다.
42 내가 이 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
기를,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대
43 보소서, 내가 이 우물곁에 섰다
가 처녀가 물을 길러 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 항아리의 물
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에
44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
들을 위해서도 길으리이다, 하면 바
로 그녀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여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마치
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
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긷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
를, 원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라, 한즉
46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
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시매 그녀
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47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한즉 그녀가 이
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 주며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워
주고
48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
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
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
다.
49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
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
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
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50 그때에 라반과 브두엘이 응답하
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
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51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
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
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53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옷을 가져

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54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
서, 하니
55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
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
가 갈 것이니라, 하매
5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
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
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57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
고
58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
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
더라.
59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60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
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
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61 ¶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
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62 이삭이 라해로이 우물 길에서 왔
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
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65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
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이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
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66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67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
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제 25 장

아브라함과 그두라

1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
라.
2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
았고
3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
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
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더라. 이들
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5 ¶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6 아브라함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
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
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
더라.

아브라함의 죽음

7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
이 이러하니 곧 백칠십오 년이더라.
8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
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10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

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11 ¶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
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이삭이 라해로이 우물 곁에 거하였더
라.

이스마엘의 가족(대상1:29－31)

12 ¶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
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
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
하니라.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
바욧이요,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
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들과 성채
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열두 통치자더라.
17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햇수가
이러하니 곧 백삼십칠 년이더라. 그
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18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
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네가 아시리
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
더라.

이삭의 세대들

19 ¶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
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아내
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아람의 시
리아 사람 브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21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
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22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
께 싸우므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23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胎) 속에 있노라. 두 종
류의 백성이 네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
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
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
니라.
24 ¶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
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
라.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 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
라 하였고
26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
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육십 세더
라.
27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
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팖

29 ¶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
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
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이 날 형의 장자
권을 내게 팔라, 하니
32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33 야곱이 이르되, 이 날 내게 맹세
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
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34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
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제 26 장

이삭과 아비멜렉
1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
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
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
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2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 줄 땅에 거하라.
3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
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
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4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
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
이 복을 받으리라.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
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
라, 하시니라.
6 ¶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7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
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
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
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
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우므로 그곳 사
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
하노라, 하였더라.
8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
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9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네 아내이거늘 어
찌 네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
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
라.
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우리
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의 하나가 네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
올 뻔하였도다, 하고
11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
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12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백 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시므로
13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
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14 그가 양 떼를 소유하고 소 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15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
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
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17 ¶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
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18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
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
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20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
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
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
라 하였더라.
21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22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
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

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
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
리라, 하였더라.
23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24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
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
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
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를 번성하
게 하리라, 하시매
25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26 ¶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친
구 중 하나인 아후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
로 가매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나를 미워하므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게 왔느냐? 하니
28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
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
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
라, 하니라.
30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
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32 바로 그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
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33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 날까지
브엘세바니라.
34 ¶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
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제 27 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

1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2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3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네 무기
곧 네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4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
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5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
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
라.
6 ¶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8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
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
라.
9 이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들 중에서 좋은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
로 네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
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지

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11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
인즉
12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
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
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13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하매
14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
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
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15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
죽을 그의 손과 및 그의 목의 민숭민숭
한 곳에 붙여 주고
17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
라.
18 ¶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
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19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
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
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
매
20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
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
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 주셨나이다, 하니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
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
라.
22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
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
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
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
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
하니이다, 하매
25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
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
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
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
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
이 네게 절하리니 *네가* 네 형제들의
주(主)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서가 소망을 잃음

30 ¶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
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
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31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
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
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
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33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
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
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
라, 하니라.
34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
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
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
리하소서, 하니
35 이삭이 이르되, 네 동생이 간교
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36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
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
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
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
나이까? 하니라.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主)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38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
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
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
고 소리 높여 우니
39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
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40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네 동
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네 목에서 그의 멍에
를 끊어 버리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함

41 ¶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
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
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
리라, 하거늘
42 *어떤 이가*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
의 이 말들을 그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아들 야곱
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43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44 네 형의 격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45 네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
지고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
버리거든 그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한 날에 또한 너희 둘을 잃으랴?
하고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
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
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
요? 하였더라.

제 28 장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냄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
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
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3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4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주시되 너
와 및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5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
비더라.

에서가 마할랏과 결혼함

6 ¶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
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
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
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7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게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갔더라.
8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
므로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
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야곱이 벧엘에서 서원함

10 ¶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
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
기서 온밤을 지내려고 그곳의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12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
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
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
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
락하더라.
13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
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14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
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15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
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6 ¶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17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
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
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
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
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21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
님이 되시고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
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
더라.

제 29 장

야곱이 라헬을 만남

1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
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2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
고 또, 보라, 그 곁에 양 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3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
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
라, 하매
5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
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
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
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7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
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
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8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
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9 ¶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
았더라.
10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
고 가까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며
11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12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
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
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에게 고하매
13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
을 라반에게 고하매
14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
으로 내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

15 ¶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
가 내 형제이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네 품
삯이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하니
라.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17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18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므로 이르
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칠 년 동안 섬기리이
다, 하매
19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네게 주
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칠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1 ¶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
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
다, 하매
22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을 함
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23 저녁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
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
로 들어가니라.
24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
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25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
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
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
셨나이까? 하니
26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
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27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우
리가 이 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다른 칠 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
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29 그가 또 자기 하녀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
므로
30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
고 또 다른 칠 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
하며 섬기니라.

야곱의 아이들: 레아의 아이들

31 ¶ 주께서 레아가 미움 받는 것
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
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32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
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33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
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
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
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
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
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
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
라.

제 30 장

야곱의 아이들: 빌하의 아이들

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
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
으리라, 하니
2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
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3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 주리니 그러
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
리라, 하고
4 자기 여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5 빌하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
을 낳으매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
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수태하
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8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야곱의 아이들: 실바의 아이들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
게 아내로 주었더니
10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
들을 낳으매
11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
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
며
12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13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
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
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
였더라.

야곱의 아이들: 레아의 아이들

14 ¶ 밀을 수확할 때에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환채를 찾아 자기 어머
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

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
의 합환채를 내게 달라, 하매
15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
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
리라, 하니라.
16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
니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매 그 밤에 그
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17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
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
게 다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삯을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19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
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야곱의 아이들: 라헬의 아들

22 ¶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
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
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23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
주셨다, 하고
24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
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
시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약속을 맺음

25 ¶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
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네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
고
28 또 이르되, 내게 네 품삯을 정하
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29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
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
의 가축과 함께하였는지 외삼촌이 아
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
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
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
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
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
도 예비하리이까? 하니라.
31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네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
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
촌의 양과 염소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
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
소 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33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
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34 라반이 이르되, 보라, 네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
진 숫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
이 되게 벌려 놓으매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 떼를 치니라.
37 ¶ 야곱이 녹색 포플러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
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38 양 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 떼 앞에 물구
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39 양 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
하므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으매
40 야곱이 어린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 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 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 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41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
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42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
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
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43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
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제 31 장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함

1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
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
더라.
2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
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
상들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
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
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부르고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
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
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6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
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
게 하셨으며
8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9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
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라.
10 가축이 수태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숫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11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눈
을 들어 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숫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네게 행하
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13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
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

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
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
이까?
15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
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
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
다.
16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
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17 ¶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
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18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밧단아람에서 얻은 가
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19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
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20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21 이와 같이 그가 자기의 모든 소
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
나서 강을 건너고 길르앗 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라반이 야곱을 추격함

22 셋째 날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
식이 라반에게 들리므로
23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
의 뒤를 따라 이레 길을 가서 그들이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니
24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
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25 ¶ 그때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으니라. 이제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으므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
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
은 포로같이 몰래 끌고 갔으니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27 내가 희락과 노래와 작은북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
여 네가 은밀히 도주하여 몰래 나를
떠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28 또 내가 내 아들딸들에게 입 맞
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제 네가 그
리함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29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하므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하매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내가 이르기를, 혹시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
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였나이다.
32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이다. 외삼
촌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외삼촌의
것이 내게 있는지 분별하시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
은 라헬이 그것들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며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
하고 이에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
의 장막에 들어가니라.
34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
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으니라.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35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
되, 내게 여인들의 관례가 임하여 내
가 내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불쾌히 여기지 마소서, 하니
라. 그가 뒤졌으나 형상들을 찾지 못
하니라.
36 ¶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나무

라며 라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범법이 무엇이니이까? 내 죄가 무엇
이기에 외삼촌께서 이같이 분개하여
내 뒤를 따라오셨나이까?
37 외삼촌께서 내 모든 물건을 뒤
지셨으나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
의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세워 두고 이로써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
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
삼촌의 양 떼의 숫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
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
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
셨나이다.
40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
이 이십 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동안 또 외삼촌
의 가축을 위하여 육 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바꾸셨나이다.
42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
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
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
나이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43 ¶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날 내가 이 내 딸들이
나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44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네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매
45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
로 세우고
46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여, 돌
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매 그들이 거기서 무더
기 위에서 먹으니라.
47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사하두
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이라 불렀더라.
48 라반이 말하기를, 이 날 이 무더
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느니
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
이라 하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더라. 이는 그
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보시
기를 원하노니
50 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
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해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거
가 되시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
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 둔 이 무더기
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
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로써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이 무더
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
지 아니할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
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
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54 그때에 야곱이 산에서 희생물
을 드리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온밤을 지내니라.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기 아들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
라.

제 32 장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옴

1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
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
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
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6 ¶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사백 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
다, 하매
7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8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 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9 ¶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
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 돌아가
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
나이다.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
으나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
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
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
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12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
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 ¶ 그가 그 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14 암염소가 이백 마리요, 숫염소
가 스무 마리요, 암양이 이백 마리요,
숫양이 스무 마리요,
15 젖내는 낙타 서른 마리와 그것
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마흔 마리
요, 황소가 열 마리요, 암나귀가 스무
마리요, 나귀 새끼가 열 마리더라.
16 그가 그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
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
가고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17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
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네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
든
18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떼
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
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20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
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
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21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 갔
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
라.

브니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

22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 여울을 건넜더라.
23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
더라.
24 ¶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
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
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27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
이니이다, 하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
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겨룰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29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
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
를 축복하므로
30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
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
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31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32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
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
손이 이 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
하느니라.

제 33 장

야곱이 에서를 만남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
서가 사백 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
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게 맡기되
2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
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일곱 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
게 가까이 가니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
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6 그때에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
이 가까이 나아와 절하고
7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
이 나아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
이 가까이 나아와 절하니라.
8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
든 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
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
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
매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네가 가지
라, 하거늘
10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
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
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갈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11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
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
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그
가 받으니라.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
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하매
13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 떼와 소 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
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
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
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의 몇 명을 네게 남겨
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
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16 ¶ 이처럼 그 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17 야곱은 이동하여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
을 숙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옴

18 ¶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와
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
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19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
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백 개로 사서
20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 34 장

디나 사건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2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
히니라.
3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4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
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더라.
5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
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6 ¶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7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
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
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
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
라.
8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
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9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
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로 취하며
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
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
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11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
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
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12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
로 내가 주리라, 하매
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14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
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
라.
15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
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16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
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18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
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19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
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20 ¶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
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21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
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
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22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
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
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
이 되리라.
23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
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
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
하리라, 하니라.
24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
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
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
니라.
25 ¶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
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
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
고 밖으로 나왔더라.
27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 당한 자
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
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
혔기 때문이더라.
28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
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것들과 아내들을 포
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하매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
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
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
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이
까? 하더라.

제 35 장

야곱이 벧엘로 돌아감

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2 그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들
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

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
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
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
라, 하매
4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
들을 세겜 옆의 상수리나무 밑에 숨겼
더라.
5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
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
지 못하였더라.
6 ¶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벧엘에 이르렀으며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
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
문이더라.
8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녀를 벧엘 아래에 있는 상수
리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9 ¶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
에게 복을 주시고
10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네 이름
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
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
시며
11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
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네게 주고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
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14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
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라헬의 죽음

16 ¶ 그들이 벧엘을 떠나 이동하
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17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18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이
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
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
더라.
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
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20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
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 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21 ¶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
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
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열두
명이더라.
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
갈과 스불론이요,
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이며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
과 아셀이더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

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
들이니라.

이삭의 죽음

27 ¶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
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28 이삭의 생애는 백팔십 년이더
라.
29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
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
를 묻으니라.

제 36 장

에서의 세대들(대상1:35-42)

1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2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3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4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
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5 아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
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
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딸들
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
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7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
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또한 그들
이 나그네로 거하던 땅이 그들의 가축
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
라.
8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 산에 거하
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9 ¶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10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
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
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
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
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
더라.
13 르우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니라. 이들
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더
라.
14 ¶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
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에서 가족의 추장들

15 ¶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추장
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맏아들 엘리
바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추장 데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그나스,
16 추장 고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
렉이 *있었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추장들이요, 아
다의 아들들이더라.
17 ¶ 에서의 아들인 르우엘의 아들
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나핫, 추장
세라, 추장 삼마, 추장 밋사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르우엘에게서 나온 추
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들이니라.
18 ¶ 에서의 아내 아홀리바마의 아
들들은 이러하니 곧 추장 여우스, 추장
얄람, 추장 고라라. 이들은 아나의 딸
이요, 에서의 아내인 아홀리바마에게
서 나온 추장들이더라.
19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 이러하
며 그들의 추장들이 이러하니라.

세일의 아들들

20 ¶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21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라. 이들

은 에돔 땅에 있던 세일의 자손들로
호리 족속의 추장들이요,
22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더라.
23 소발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알
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
요,
24 시브온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아야와 아나이니라. 이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먹일 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한 자더라.
25 아나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디
손과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더라.
26 디손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헴
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27 에셀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빌한
과 사아반과 아간이요,
28 디산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우
스와 아란이니라.
29 호리 족속에게서 나온 추장들
은 이러하니 곧 추장 로단, 추장 소발,
추장 시브온, 추장 아나,
30 추장 디손, 추장 에셀, 추장 디산
이라. 이들은 세일 땅에 있던 그들의
추장들 가운데 호리에게서 나온 추장
들이니라.

에돔의 왕들

31 ¶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32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통
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딘하
바더라.
33 벨라가 죽으매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
치하였고
34 요밥이 죽으매 데만 족속의 땅
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
였으며
35 후삼이 죽으매 브닷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그
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
의 이름은 아빗이더라.
36 하닷이 죽으매 마스레가의 삼라
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37 삼라가 죽으매 강 옆의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38 사울이 죽으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39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으매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바우요, 그의 아내
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더라. *그녀는* 메
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40 에서에게서 나온 추장들의 이
름은 그들의 가족들과 거처들과 이름
들에 따라 이러하니 곧 추장 딤나,
추장 알바, 추장 여뎃,
41 추장 아홀리바마, 추장 엘라, 추
장 비논,
42 추장 그나스, 추장 데만, 추장
밉살,
43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이라. 이
들은 에돔의 추장들로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따른 *추장들
이니라*.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니라.

제 37 장

요셉의 꿈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
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
라.
2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
셉이 십칠 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 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
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
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3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
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
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
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4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5 ¶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7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
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
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
이다, 하매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
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
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9 ¶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
더이다, 하니라.
10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
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
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11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
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림

12 ¶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일 때에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
게로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
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
하노니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
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5 ¶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
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
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
며
19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
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
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21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
들의 손에서 건져 내며 이르되, 우리
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23 ¶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
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
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25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
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
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몰약
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
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26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
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27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
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붙이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
족해하더라.
28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
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스무 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
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29 ¶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
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
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30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
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니라.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
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32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
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33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
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
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34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35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
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
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
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
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
라.

제 38 장

유다와 다말

1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
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
라.
2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3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
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5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
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십에 있었더라.
6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
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7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하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
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네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
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10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
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11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
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
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
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
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12 ¶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
내 곧 수아의 딸이 죽으매 유다가 위로
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13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
르기를, 보라,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딤낫으로 올라
간다, 하므로
14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
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딤낫으로 가는 길 곁의 트인 곳에 앉았
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

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15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
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
로 여기고
16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
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
거늘
17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 주리라, 하
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
내 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
까? 하니
18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
을 네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
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
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
였더라.
19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
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
니라.
20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
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21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
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 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
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
니라, 하매
22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
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
느니라, 하더라, 하니
23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
를 보내었으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24 ¶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
에게 고하여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
이 창녀 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
하여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25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
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
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
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
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27 ¶ 그녀가 해산할 때에 보니 그
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28 그녀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매었더
라.
29 그가 손을 도로 넣으매,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
되, 어찌 네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
짐이 네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
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30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제 39 장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감

1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
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
를 사니라.
2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므로 그
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
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3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
어 그를 섬기매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
를 그의 손에 맡기니
5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
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
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
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
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6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
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
더라.
7 ¶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
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
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8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
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9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
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
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니라.
10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
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12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
매
13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14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
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
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15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16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17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
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18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
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20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
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21 ¶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
시매
22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
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23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
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
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
게 하셨더라.

제 40 장

파라오의 신하들의 꿈

1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主)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2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의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
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3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
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 둔 곳이더라.
4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
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5 ¶ 감옥에 묶여 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
하므로
7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
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
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
까? 하매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
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
이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
소서, 하니라.
9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10 그 포도나무에 가지 세 개가 있
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11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하니라.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
이다.
13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
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
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
게 되리이다.
14 오직 당신이 잘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
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
서 나를 빼내 주소서.
15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16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
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
구니 세 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17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
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
라.
18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
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바구니는 사흘
이니이다.
19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
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라.
20 ¶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
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
들 가운데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
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21 파라오가 잔 맡은 *자들의* 우두
머리를 잔을 맡는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22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
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
한 것과 같았더라.
23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

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 41 장

파라오의 꿈

1 만 이 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2 보라, 잘생기고 살진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3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
들 곁에 섰는데
4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
기고 살진 암소 일곱 마리를 먹으므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5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
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일곱 개가 나오더라.
6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일곱 개가
솟아 나오더니
7 그 가는 이삭 일곱 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일곱 개를 삼키므로 파라오
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8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하므로 그
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
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
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9 ¶ 그때에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
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10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노하사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를 다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에
11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
로 꿈을 꾸었나이다.
12 그곳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
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13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
어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
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하니
라.
14 ¶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
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
라.
15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
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
한다 하는도다, 하매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
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
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
라, 내가 꿈에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18 보라, 살지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19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20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
음의 살진 암소 일곱 마리를 먹었으며
21 그것들이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
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
라. 이에 내가 깨니라.
22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
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일곱 개가
나오더라.
23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일곱
개가 솟아 나오더니
24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일

곱 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
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
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25 ¶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
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
에게 보이셨나이다.
26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
요, 또 좋은 이삭 일곱 개도 일곱 해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27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일곱
개도 기근이 드는 일곱 해니
28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
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29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일곱 해 큰 풍년이 들겠고
30 그 뒤에 일곱 해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
며
31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
하므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32 파라오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
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
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33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
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34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
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
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오분의 일을 취하시고
35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
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
오의 손 밑에 쌓아 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36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
여 이집트 땅에 임할 일곱 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
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라.

요셉이 권좌에 앉음

37 ¶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38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
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
요? 하고
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 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
다.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
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41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42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
의 손에 끼워 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43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
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
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44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
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
라, 하고
45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
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
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46 ¶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삼십 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47 그 일곱 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48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일곱
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49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
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
기 때문이더라.
50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
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51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
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
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
다, 하였기 때문이요,
52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
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 받는 땅에서 다산하
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53 ¶ 이집트 땅에 있던 그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54 요셉이 말한 것 같이 일곱 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
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55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하므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
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
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57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
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제 42 장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감

1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
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
냐? 하며
2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
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거기
서 사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3 ¶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이집트에
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에게 재
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
더라.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
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
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6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
7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며 그
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
매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
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하니라.
8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
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더
라.
9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의 드러
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
을 사러 왔나이다.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
서 진실한 자들이오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니라.
12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니
13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열
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
의 아들들이니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 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하매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
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니라.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말을*
입증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아
가지 못하리라.
16 너희 중의 한 사람을 보내어 너
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
에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입증
하여 너희 속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
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
탐꾼이니라, 하고
17 그들을 다 사흘 동안 함께 감금
하였더라.
18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
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이같
이 하여 살지니라.
19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의 한 사람만 너희 감옥 집에
서 결박당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기근을 면하
라.
20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로 데려오라. 그리하여야 너희 말이
입증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 ¶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
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
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
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
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
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
도다, 하니라.
23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
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
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
라.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
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
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
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감

25 ¶ 그때에 요셉이 명령하여 곡
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
에게 주게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
와 같이 행하매
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
기를 떠났더라.
27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의 자루
를 풀고는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돈이 그의 자루 아귀에 있더라.
28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므로 그들
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였더라.
29 ¶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
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30 그 땅의 주(主) 그 사람이 우리
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우리를 그 나라
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31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
다.
32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로서 열두 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이 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
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 그 나라의 주(主) 그 사람이 우
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
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라. 너희

형제들 중의 한 사람을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기근을 면하고
34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
요,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이에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건네주리니 너
희가 *이* 땅에서 거래를 하리라, 하였
나이다, 하더라.
35 ¶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
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
워하더라.
36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
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
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
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거늘
37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
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
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
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
리이다, 하매
38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만일 너희
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
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로다,
하니라.

제 43 장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내려감

1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2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
을 다 먹으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
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3 유다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
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
리라, 하였은즉
4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
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
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
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
였나이다, 하매
6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하여 너희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였느냐? 하니
7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
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
직 살아 있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
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뜻에
따라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가 말
하기를,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
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
으리이까? 하니라.
8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
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
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것들
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
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두 번째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
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
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몰약
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12 또 너희 손에 두 배의 돈을 가지
고 가되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혹시 그것을 못 보았을 수도
있느니라.
13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
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
식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니
라.
15 ¶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
고 두 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
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16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17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
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
니라.
18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
되므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
을 때 우리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
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
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19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20 이르되, 오 선생이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왔나
이다.
21 그런데 우리가 여관에 이르러
우리 자루를 풀어 보니,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곧 우리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손에 도로 가져왔
고
22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
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능히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
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
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
을 그들에게로 데려오니라.
24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
로 그들이 발을 씻으매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25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빵
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
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26 ¶ 그가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27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
던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하매
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
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
하니라.
29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
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
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
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0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
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는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
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매
32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
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
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
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33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맏*아들*
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아들*은
그의 연소함대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
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다섯
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 44 장

요셉의 잔

1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
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며
2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의 곡식
값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이른 말대로 하고
3 아침이 밝으매 곧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4 그들이 도시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
냐?
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하였도
다, 하라, 하니라.
6 ¶ 그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 말들을 그대로 하니
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
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
까? 주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8 보소서, 우리 자루의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
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
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
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하매
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또한
너희 말대로 하리라. 누구에게서 그
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
요, 너희는 책망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1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자
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루를
푸니
12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
까지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
에서 발견되니라.
13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
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오니라.
14 ¶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
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러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매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점을 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
니
16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어라 고하리
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
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
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매
17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
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
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
갈지니라, 하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중보함

18 ¶ 그때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
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
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19 전에 내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시기
에
20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
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요, 또 그
의 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것이 있는
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그만 남았기에 그의 아버지
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
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 내
가 내 눈으로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
에
22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그 아이
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
지가 죽으리이다, 하였나이다.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
시되,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24 우리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
였나이다.
25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 오라, 하시
기에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
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내려가리니 우
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하매
27 주의 종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그는 갈기갈
기 찢겼다, 하였고 그 이후로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
여 가고 만일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로다, 하였나이
다.
30 그런즉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
이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31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
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죽으리니 그러
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
뜨리리이다.
32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사
오니
33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
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
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34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
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내 아버지에
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
나이다, 하였더라.

제 45 장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림

1 그때에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2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3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
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
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4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
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
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5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
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6 또 *이* 땅에 이 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오 년이 남아 있어 그때
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7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
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8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
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主)
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9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
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
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
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主)로 세우
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
소서.
10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
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
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
리이다.
11 아직도 오 년 동안 기근이 있으
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
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소서.
12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
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13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
는 모든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내 아버
지를 모시고 여기로 내려오소서, 하
며
14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
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15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
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16 ¶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그 소문이 파라오의 집에 들리매 파라
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곧 너희 짐승에 싣고 가서 가나
안 땅에 이르거든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
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
집트 땅의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 이제 네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
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
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의 어린것
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20 또한 너희 물건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집트 온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21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그대로 하
였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
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며
22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
개와 옷 다섯 벌을 주었고
23 그가 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
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마리에 이집
트의 좋은 물품들을 싣고 암나귀 열
마리에는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었더라.
24 이같이 그가 자기 형들을 보내
매 그들이 떠나갔더라. 그가 그들에
게 이르되,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
라, 하였더라.
25 ¶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
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
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
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제 46 장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감

1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
을 드리니
2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
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
아, 야곱아,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
라.
4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
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5 야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
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
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것
들과 아내들을 태웠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취하여 이집트로 갔으니
7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8 ¶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과
9 르우벤의 아들들 곧 하녹과 발루
와 헤스론과 갈미요,
10 ¶ 시므온의 아들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 ¶ 레위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12 ¶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
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더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또 베레스의 아들들 곧 헤스론과 하물
이요,
13 ¶ 잇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이요,
14 ¶ 스불론의 아들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
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딸들의 모든
혼이 서른셋이더라.
16 ¶ 또 갓의 아들들 곧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
와 아렐리요,
17 ¶ 아셀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
수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
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곧 헤
벨과 말기엘이니
18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
에게 이들을 낳았으니 곧 열여섯 혼이
더라.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더라.
20 ¶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
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21 ¶ 베냐민의 아들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
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릇이니
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열넷이니라.
23 ¶ 또 단의 아들들 후심이요,
24 ¶ 납달리의 아들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니라.
25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
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
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을 낳았더
라. 모든 혼이 일곱이더라.
26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
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의 모든 혼이 예순
여섯이더라.
27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
들들은 두 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일흔
혼이었더라.

야곱이 고센에 정착함

28 ¶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
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29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
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동안 울매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
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
다, 하니라.
31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
버지 집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
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
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
다, 하리니
33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
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34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
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
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
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제 47 장

야곱이 파라오를 만남

1 그때에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부
터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 자기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 곧
다섯 사람을 취하여 파라오에게 그들
을 보이니
3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
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매 그들
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주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니이다, 하고
4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이
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 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러 왔사오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5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
되,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네게 왔은
즉
6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네가 알거든 그들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
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
오를 축복하매
8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

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9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
례 길의 햇수의 날이 백삼십 년이니이
다.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10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
오 앞에서 나오니라.
11 ¶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되
그 땅의 가장 좋은 곳 즉 라암셋 땅에서
소유를 주며
12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
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빵으로 부양하
되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리하였더
라.

요셉이 기근 문제를 해결함

13 ¶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빵이 없었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14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
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오니라.
15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
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
진 연고로 주 앞에서 죽어야 하리이
까? 하매
16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
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
과 바꾸어 너희에게 주리라, 하니
17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
게 끌어오매 요셉이 말과 양 떼와 소
떼의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빵으로 그들을 먹이
니라.
18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그들
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
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
리의 돈이 소진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
의 가축 떼도 취하셨사오니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몸과 땅뿐이니이다.
19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이
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빵으로 사소
서.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20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이집트
온 땅을 샀으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
기 땅을 팔았더라. 이와 같이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21 백성으로 말하건대 그가 이집트
경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옮겨 도시들에 두었으나
22 제사장들의 땅만은 그가 사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정해 준 몫을 가졌고 또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몫을 먹었으므
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
라.
23 그때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
되, 보라, 이 날 내가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보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릴지니라.
24 또 너희는 늘어난 것 중에서 오
분의 일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취하여 들의 씨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으며 또 너희 집안
에 속한 자들과 어린것들의 양식으로
도 삼으라, 하매
25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
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
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
라.
26 요셉이 이집트 땅에 관하여 법을
세우매 이 날까지 이르렀으니 곧 파라
오가 오분의 일을 취하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 하였으므로 그것이 파
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27 ¶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의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를 취하고 자라나서 크게 번성하
였더라.
28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십칠 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백사십칠 세더라.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서약함

29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
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
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
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30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
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
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
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니라.
31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매 이스라엘
이 침상 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제 48 장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

1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병들었
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2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
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
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
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
나 내게 복을 주시며
4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
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 ¶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
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
들이 내 것이 되리라.
6 그들 다음에 네가 낳을 자들이
네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7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
서 올 때에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
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
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하니라.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
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9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
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
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
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
라.
10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
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1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네 씨도 보여 주셨도다, 하니라.
12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
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
여 엎드려 절하며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
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
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14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
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15 ¶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
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 날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16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7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
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
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18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
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
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
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19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
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
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
라, 하고
20 그 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
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
라.
21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
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
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22 또한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제 49 장

야곱의 마지막 말들

1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
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
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
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
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3 ¶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
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4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
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
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5 ¶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
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6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
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7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므로 그것
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
므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8 ¶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
양할 자니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자식
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10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笏)이 유
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11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귀를 포
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
의 피에 빨았도다.
12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
로다.
13 ¶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
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에까지 미치
리로다.
14 ¶ 잇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
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16 ¶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
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
렸나이다.
19 ¶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
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20 ¶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
다.
21 ¶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
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22 ¶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의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23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
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24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
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
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
다.)
25 *그것은*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
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
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
의 복과 아래 놓인 깊음의 복과 젖가슴
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26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
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에까지 이르렀도다. 그
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
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27 ¶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
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
로다.
28 ¶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죽음

29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
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헷 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
라.
30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
레 앞의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
이 이 밭을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
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묻었노라.
32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33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
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
지니라.

제 50 장

야곱의 매장

1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
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
고
2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
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매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
으니라.
3 그를 위하여 사십 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
람들이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
니라.
4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

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
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
하여 이르기를,
5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
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
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
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
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
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 파라오가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7 ¶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
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
들과
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것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9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
라.
10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
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애곡하였더라.
11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
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
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더
라.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
라.
12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
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13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
이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14 ¶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15 ¶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
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
게 갚으리라, 하고
16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
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
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네 형들의 범법 곧 그들
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
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18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
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
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
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
리이까?
20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
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
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
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두게 하셨나니
21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
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들의 어린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
하였더라.

요셉의 죽음

22 ¶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백십
년을 살았으며
23 에브라임의 자손을 삼대까지 보
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24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
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
라, 하고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
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
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
였더라.
26 이렇게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
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
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탈출이라 하는 모세의 둘째 책

출 애 굽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율법, 기간: 약 216년(어셔)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탈출과 시내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성도(롬15:4; 고전10:11), 이름: Exodus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엑소더스'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탈출'을 뜻한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 주며 영적으로는 사람이 죄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여 준다. 주제: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 및 하나님께 대한 관계(6:6–8; 19:4–8; 24:1–7) 목적: 사람의 구속의 당위성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엡2:1–10)

내용: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기는 1장 6–7절로 간략히 기술되고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절박한 상황을 기술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한때 파라오와 요셉의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구속하기 위해 활동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능에 의한 이집트 탈출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속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 되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예비하신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고난,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을 통한 해방, 광야에서의 성막 예배 규례 등이 중요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마귀의 왕국인 영적 이집트를 떠나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며 승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더불어 이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본다. 출애굽기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무 그리고 은혜 등을 가리키는 예표가 많이 있다. 출애굽기는 40장, 1,213절, 32,685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2장(유월절), 핵심 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12:23), 핵심 단어: 구속(대속). 출애굽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구속받은 자녀들도 계속해서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핵심 구: "너희를 넘어가리라."(12:13)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1. 하나님(3:14, 요8:58 참조), 2.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12:5, 고전5:7 참조), 3. 만나(16:14–22, 요6:35 참조), 4. 반석(17:1–7, 고전10:4 참조), 영적 교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나오라."

제 1 장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

1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
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
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5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
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일흔 혼이더라.
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음

7 ¶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
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
더라.
8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9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
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10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
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
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
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11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
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12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
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
여 근심하였더라.
13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14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
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
라.
15 ¶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
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십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아더
라.
16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
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
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17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
니라.
18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
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었
느냐? 하니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
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20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
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
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21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
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
주셨더라.
22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
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
두라, 하였더라.

제 2 장

모세의 출생

1 레위의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2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4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
더라.
5 ¶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
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6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
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의 하나로다, 하
니
7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
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
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8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9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삯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
니라.
10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
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
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 내었기 때문이라, 하
였더라.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함

11 ¶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
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의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12 그가 이쪽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
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
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므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
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14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
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탄로났도다, 하니라.
15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
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
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
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16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긷
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
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니
라.
18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
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가 이르되, 너
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
왔느냐? 하니
19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
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20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
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
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21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22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
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3 ¶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
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
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24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
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
사
2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
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
을 가지시니라.

제 3 장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봄

1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2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3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4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5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7 ¶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8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9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10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11 ¶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하매

12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15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16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

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
면
18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
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
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
서, 하라.
19 ¶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
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
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20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
를 가게 하리라.
21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
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
할 것이요,
22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
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제 4 장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기적들

1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
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
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
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
매
2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
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3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
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4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
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5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
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
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6 ¶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
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7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다
시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
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
럼 되었더라.
8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
으리라.
9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취하는 물
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10 ¶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
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
다, 하매
11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12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네게 가르치리

라.
13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
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14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
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
에게 가르치리라.
16 그가 백성을 향해 네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네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17 너는 이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감

18 ¶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
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
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
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
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
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
라, 하시니
20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
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
기 손에 잡았더라.
2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
음을 강퍅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22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
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23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24 ¶ 주께서 길 옆의 여관에서 그
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25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
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26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
니라.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
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7 ¶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
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28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
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
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29 ¶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30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31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
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
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5 장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남

1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
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
을 지키게 하라, 하니
2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
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
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
리라, 하매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
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
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4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
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
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5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6 파라오가 바로 그 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
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8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효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
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
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
라, 하였더라.
10 ¶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
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
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
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
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매
12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두
루 널리 흩어져 짚 대신에 곡초 그루터
기를 거두니라.
13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
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14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
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마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
으며 이르되,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
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16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
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
이 매를 맞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
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17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
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18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
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효의 벽돌을 넘겨주
어야 하리라.
19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
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효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
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20 ¶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에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
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
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
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
기를 원하노라, 하니
22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
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
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
내셨나이까?
23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
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 내지 아니하셨나이

다, 하니라.

제 6 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갱신함

1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
라, 하시고
2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
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
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4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
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5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
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
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
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
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7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
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
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
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9 ¶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10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11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
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12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
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
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
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13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
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
고 나오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14 ¶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
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
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의 가족들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
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
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니라.
16 ¶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의
햇수는 백삼십칠 년이었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
들에 따라 립니와 시미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
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이 누
린 삶의 햇수는 백삼십삼 년이었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
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
의 가족들이니라.
20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
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햇수는 백삼십칠 년이었더
라.
21 ¶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
사반과 시드리더라.

23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
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
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라.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
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
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
고 그녀가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았더
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
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이니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
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그
아론과 모세요,
27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
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모세의 대언자 아론

28 ¶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
게 말씀하시던 그 날에
29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
게 고하라, 하시니
30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
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대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리이까? 하였더라.

제 7 장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
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
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
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4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5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
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6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
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
하였더라.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
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
더라.

아론의 기적의 막대기

8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9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
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네 막
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10 ¶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
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11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
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
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
였으니
12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
지매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
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
을 삼키니라.
13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
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됨

14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퍅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너는 강둑
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
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
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7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18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
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이다, 하라.
19 ¶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
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네 막대기를
잡고 네 손을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웅
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20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
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
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
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
든 물이 피로 변하며
21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
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22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
오의 마음이 강퍅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
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23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
하매
24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강의 사방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주께서 강을 치신 뒤에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개구리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
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
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2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네가 거부
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네 온 지경
을 치리라.
3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네 집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들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빵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4 개구리들이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오리라, 하라.
5 ¶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네 막대기를 잡고
네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
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
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6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
트 땅을 덮으니
7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
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
을 내었더라.
8 ¶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
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9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
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거늘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11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집과 왕
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 나
가서 주께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개구
리들로 인해 모세가 그분께 부르짖으
니라.
13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매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
죽으니
14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모아 무
더기로 쌓으매 땅이 악취를 내었더
라.
15 그러나 잠시 연기된 것을 파라
오가 보고는 자기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
더라.

셋째 재앙: 이

16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네 막대기를 내밀
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시니
17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
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의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
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18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더라.
19 그때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
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퍅
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
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
라.

넷째 재앙: 파리

20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
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네 신하들
과 네 백성과 네 집에 파리 떼를 보내
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 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
하리라.
22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
라, 하라, 하시고
24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
심한 파리 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렀
고 파리 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25 ¶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매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
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
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
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
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
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매
28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
하라, 하매
29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
을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 떼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
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떠나려니와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
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마소서, 하니라.
30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매
31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리 떼를 제거하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
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
하였더라.

제 9 장

다섯째 재앙: 가축의 병

1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
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2 만일 네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
하고 그들을 여전히 잡아 두면
3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
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
리라.
4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
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
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5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
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
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
도 죽지 아니하니라.
7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
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
퍅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
하였더라.

여섯째 재앙: 종기

8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재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
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9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매
10 그들이 화로의 재를 취해 파라
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
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
라.
11 그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
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
게 생겼기 때문이더라.
12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
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
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일곱째 재앙: 우박

13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14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
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에게
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15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
으로 너와 네 백성을 치리니 네가 땅에
서 끊어지리라.
16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
여 네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18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
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19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들에 있는 네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
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
으나
21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
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
더라.
22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이집트 온 땅에 곧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시니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
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 나가더
라.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
리시니
24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
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25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
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
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
만 우박이 없었더라.
27 ¶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
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
다.
28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
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
라, 하매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도
시에서 나가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아니하리
이다.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로 말
하건대 당신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
다, 하더라.
31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
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
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32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
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
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3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치
매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퍅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35 파라오의 마음이 강퍅해져서 그
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
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 10 장

여덟째 재앙: 메뚜기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
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였
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 주려 함이며
2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들
을 네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
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4 만일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네 지경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오리니
5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메뚜기들
이 우박을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 있는
것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
를 먹고
6 또 네 집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
니 그것은 네 조상들이나 네 조상들의
조상들이 땅에 존재한 날로부터 이
날까지 보지 못한 것이리라, 하고 그
가 몸을 돌이켜 파라오를 떠나 나가니
라.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
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
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
고
8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
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9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
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딸과 양 떼와 소 떼와 함께 가겠나
이다, 하매
10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
희와 너희의 어린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11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
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
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12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내밀어 메뚜기
들을 데려오고 그것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채소 곧
우박이 남겨 놓은 모든 것을 먹게 하
라, 하시니라.
13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막
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그 온 낮과 그 온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
을 몰아오매
14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이
르러 이집트의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들 전에도 없었고 그
것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이더라.
15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매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 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
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
였더라.
16 ¶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
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
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18 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
께 간구하매
19 주께서 강하고 강력한 서풍을
일으키시니 그것이 메뚜기들을 가져
다가 홍해에 던져 넣으매 이집트의 온
지경 내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
하니라.
20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홉째 재앙: 어둠

21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
니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
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
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23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 ¶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
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 떼와 소 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
라, 하니
25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
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셔야 할 터인즉
26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
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 둘 수 없나
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27 ¶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
음을 강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니라.
28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하매
29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
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또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제 11 장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을 선포함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
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2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
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3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
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또 이집
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백성의 눈앞에서 심
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4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
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
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6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
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
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
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8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
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
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나가리이다, 하
고 그가 심히 분노하여 파라오를 떠나
나가니라.
9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
오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의 이적들
이 많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
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나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 12 장

유월절 제정
(민9:1－14; 신16:1－8; 겔45:21－25)

1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
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3 ¶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4 그 어린양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5 너희의 어린양은 흠이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6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
하였다가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7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
고
8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9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
을 불에 구우라.
10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 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
라.
11 ¶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
라.
12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
하리라. 나는 주니라.
13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
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
지 아니하리라.
14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
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15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
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
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
리라.
16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
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
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
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
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
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
지니라.
18 ¶ 첫째 달 곧 그 달 십사일 저녁
부터 그 달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19 이레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
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
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
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
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20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
라.
21 ¶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
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22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
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23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
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
라.
24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
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
요,
25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
라.
26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
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
나이까? 하면
27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
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
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
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
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열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

29 ¶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
의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매
30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
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
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탈출

31 ¶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
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32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 떼와
소 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
라, 하고
33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
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
내려 하였으므로
34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
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메니라.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
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36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
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37 ¶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숙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육십만 명이었으며
38 섞인 무리와 양 떼와 소 떼와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
더라.
39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
으니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
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
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40 ¶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
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더라.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때에 바
로 그 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42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
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유월절 규정(출12:1－13)

43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르시되, 유월절 어린양에 관한 규례
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
지 못할 것이나
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것을 먹을
것이며

45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46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47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
지니라.
48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
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
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
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49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
50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
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51 바로 그 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
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제 13 장

처음 난 것을 성별함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
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
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교절(출12:14－20)

3 ¶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
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
지 말라.
4 아빕 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느니
라.
5 ¶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
가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6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라.
7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네게서 보이지 아니하
게 하며 또 네 모든 지역에서도 네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8 ¶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
여 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
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9 그것을 너를 위해 네 손 위의 표적
과 네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10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
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처음 난 것에 대한 법

11 ¶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12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
은 주의 것이 되리라.
13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14 ¶ 이후에 네 아들이 네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거
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
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15 그때에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매 주께서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
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의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16 *너는* 그것을 네 손 위의 표와
네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
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광야 길

17 ¶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
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
셨기 때문이라.
18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
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19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
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
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
였더라.
20 ¶ 그들이 숙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치니라.
21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
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
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
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22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
더라.

제 14 장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넘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
가에 진을 칠지니
3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
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
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
이 그대로 행하니라.
5 ¶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
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
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
가? 하고는
6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
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7 선정된 병거 육백 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
을 취하였더라.
8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
을 강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
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
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9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10 ¶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
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
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
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12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
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
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
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
라.
13 ¶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
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 주실 그분
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14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
니라.
15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
로 나아가게 하되
16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
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17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
의 마음을 강퍅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
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
여 영예를 얻으리니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
라, 하시니라.
19 ¶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
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
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20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
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
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
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
였더라.
21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
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
니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
해 벽이 되었더라.
23 ¶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
로 들어오매
24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
럽게 하시며
25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
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
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
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26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
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27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
밀매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
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
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
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
시매
28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
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
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30 그 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
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
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31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
들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
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 장

모세의 노래(시78:12-14)

1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
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
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
다.
2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
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
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3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
이로다.
4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
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5 깊음들이 그들을 덮으매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 앉았도다.
6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
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7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
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
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시매 그
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
나이다.
8 주의 콧구멍의 거센 바람에 물들
이 함께 모이되 큰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깊음들이 바다의 심
장부에서 엉겼나이다.
9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좇아
가서 따라잡고 노략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
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
았나이다.
11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
신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
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12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
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
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
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
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14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
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
으리니
15 그때에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16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치매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
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
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
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
리이다.
17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재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
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
리로다, 하였더라.
19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
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
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
이더라.

미리암의 노래

20 ¶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
암이 손에 작은북을 잡으매 모든 여인
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북을
잡고 춤을 추니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
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
였더라.

마라의 쓴 물

22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
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23 ¶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
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
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
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25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
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 주시므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
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26 이르시되,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
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
라, 하시니라.
27 ¶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열두 개가 있었고 종려나
무 일흔 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
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제 16 장

만나: 하늘에서 내린 빵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
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
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십오일 되는 때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
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
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
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4 ¶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
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
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
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
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두 배가 되리
라, 하시니라.
6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
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
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
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
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
라.
9 ¶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
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매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
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11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
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14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
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15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
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
라.
16 ¶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
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일 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
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그것을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
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
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
니라.
21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
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
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
라.
22 ¶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두 배
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치리자가 와
서 모세에게 고하매
2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
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
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
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
라.
24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
침까지 그것을 모아 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
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
리라.
26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
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
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27 ¶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
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28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29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라, 하시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1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
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32 ¶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
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
것을 일 오멜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
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
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느
니라, 하고
3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
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일 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매
34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
게 하니라.
35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
는 땅에 이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36 이제 일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
니라.

제 17 장

반석의 물(민20:1－13)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
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
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2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
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
니라.
3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
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
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
냐? 하니
4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
다, 하매
5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
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6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
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맛사와 므리
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
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
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말렉을 무찌름

8 ¶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
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
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
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10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
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
갔는데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
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
더라.
12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
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14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
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
시니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
름을 여호와닛시라 하였으니
16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
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
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 18 장

이드로의 조언(신1:9－18)

1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2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3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4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6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7 ¶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 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8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 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9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10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 내셨도다.

11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13 ¶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14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 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15 모세가 자기 장인(丈人)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편과 저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18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19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20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 주며

21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천 명의 치리자와 백 명의 치리자와

쉰 명의 치리자와 열 명의 치리자로
삼아
22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
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
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
에게 쉬우리라.
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
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
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
라, 하니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25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
머리 곧 천 명의 치리자와 백 명의
치리자와 쉰 명의 치리자와 열 명의
치리자로 삼으매
26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
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
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
라.
27 ¶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
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제 19 장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이름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 날에 그들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2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
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
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3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
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
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4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
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
라.
5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6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
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
하니라.
7 ¶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
매
8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
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
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9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
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네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
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10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
의 옷을 빨게 하고
11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
계를 정해 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
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
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라.
13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
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
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
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
라.
14 ¶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
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15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
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
라, 하니라.
16 ¶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
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
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18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
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
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19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
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20 주께서 시내 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
라가매
2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
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
가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
하노라.
22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
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
라, 하시니
23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
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
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24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
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
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
니라.
25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
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제 20 장

열 가지 명령: 율법(신5:1－22)

1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
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
라.
3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4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
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
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
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
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
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
느니라.
7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
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하리라.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라.
9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
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 ¶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13 너는 살인하지 말라.
14 너는 간음하지 말라.
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16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함

18 ¶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
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
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
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
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
하나이다, 하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
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
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
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
라.
21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제단에 대한 법

22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
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
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24 ¶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
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25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
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네가 돌 위로 네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26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
지 말지니 이것은 네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
니라.

제 21 장

종들에 대한 법(신15:12-18)

1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4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
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
겠노라, 하면
6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
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7 ¶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8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
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9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
를 대할 것이요,

10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11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
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폭행에 대한 법

12 ¶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3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네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
라.
14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
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15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
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
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19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
어 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20 ¶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
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나 이틀을 살아 있으면 형벌을 면하리
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
니라.
22 ¶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밴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
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
니라.
23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
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26 ¶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의 눈으
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27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
로이 가게 할지니라.

악한 짐승 규제를 위한 법

28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
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
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
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
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30 그에게 일정액의 돈을 부과하
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
라.
31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32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
으면 그가 은 삼십 세겔을 그들의 주인
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33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
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
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
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35 ¶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
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것의 돈을 나누
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
는 줄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제 22 장

재물에 대한 책임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
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
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3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
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
할 것이니라.
4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
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 배로 갚을지니
라.
5 ¶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
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
어 곡식 낟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
할 것이요,
8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9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
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
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
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
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
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
면
11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
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
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2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맞았으
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
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
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4 ¶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
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
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
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세를 주고 빌린 것이면 세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윤리와 의식에 대한 법

16 ¶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
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
지니라.
18 ¶ 너는 마녀를 살려 두지 말지
니라.

19 ¶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
라.
21 ¶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
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
서 나그네였느니라.
22 ¶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23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
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
짖음을 들을 것이요,
24 내 진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
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25 ¶ 네가 만일 네 곁에 있는 가난
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
라.
26 네가 어떻게든 네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27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
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
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28 ¶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네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 너는 네 익은 과일과 네 즙의
처음 것 드리기를 더디 하지 말며 네
아들들 중의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
라.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은 그것을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31 ¶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
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제 23 장

공의에 대한 법

1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2 ¶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
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
라.
3 ¶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4 ¶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5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6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7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네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
다 하지 아니하리라.
8 ¶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느니라.
9 ¶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
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안식에 대한 법

10 너는 여섯 해 동안 네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11 일곱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
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네 백성 중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
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
는 네 포도원과 올리브 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12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네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네 여종
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

라.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
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세 명절에 대한 법
(출34:18-26; 신16:1-17)

14 ¶ 너는 한 해에 세 번 나를 위하
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15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빕 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
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
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 네가 밭에 뿌린바 네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네가 밭에
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들
인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17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18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
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
라.
19 너는 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
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천사와 약속들

20 ¶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
가게 하리니
21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
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22 그러나 네가 참으로 그의 목소
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네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23 내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
들을 끊어 버리리니
24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
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25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
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네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네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26 ¶ 네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
요, 내가 네 날수를 채우리라.
27 내가 나의 두려움을 네 앞에 보
내어 네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네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네게
로 돌리게 하리라.
28 또 내가 말벌들을 네 앞에 보내
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
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
라.
29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
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
하므로 내가 일 년 내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 네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
내리라.
31 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
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
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
니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
라.
32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
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33 그들은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네게
올무가 되리라.

제 24 장

이스라엘이 언약을 확증함
1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
와 멀리서 경배하라.
2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아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라, 하시니라.
3 ¶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
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4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
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며
5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
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
로 드리게 하니라.
6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7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
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
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8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
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
라, 하니라.

모세와 동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
9 ¶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칠십 명이
올라가서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11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
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
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12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
라. 내가 기록한 돌 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
매
13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
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
라가며
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
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
이 너희와 함께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
라, 하고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
을 덮었더라.
16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
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
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
의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18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제 25 장

성소를 위한 헌물(출35:4－9)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
라.
3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4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
운 아마와 염소 털과

5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6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7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9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증언 궤(출37:1－9)

10 ¶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반, 너비가 일 큐빗 반, 높이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11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12 궤를 위해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네 귀퉁이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두 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달지니라.

13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14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15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16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17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반, 너비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18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19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20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21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출37:10－16)

23 ¶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너비가 일 큐빗, 높이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하며

24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25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26 상을 위해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의 네 발 위에 있는 네 귀퉁이에 달되

27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28 또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29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30 너는 그 상 위에 보여 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순금 등잔대(출37:17－24)

31 ¶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32 여섯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에

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33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세 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세 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34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네 개가
있게 하며
35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
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36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
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
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
지니라.
37 너는 등잔대의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
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38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게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39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일 달란트로 만들되
40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
여 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제 26 장

성막(출36:8－38)

1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 *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열 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
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
들을 만들지니
2 한 앙장의 길이는 이십팔 큐빗이
요, 한 앙장의 너비는 사 큐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
라.
3 또 다섯 앙장을 서로 함께 연결하
고 또 다른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4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둘째 것의 연결한 것의 다른 앙장 맨
끝단에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5 너는 한 앙장에 고리 쉰 개를 만들
고 둘째 것의 연결한 것의 앙장 끝단에
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고리들이 서로
를 붙들게 할지니라.
6 너는 금으로 걸쇠 쉰 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7 ¶ 너는 염소 털로 앙장들을 만들
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열한
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8 한 앙장의 길이는 삼십 큐빗, 한
앙장의 너비는 사 큐빗으로 하고 열한
개의 앙장을 다 한 치수로 하며
9 너는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여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되 여섯째
앙장은 성막의 맨 앞에서 겹치게 할지
니라.
10 너는 연결한 것의 가장 바깥쪽
의 앙장 끝단에 고리 쉰 개를 만들고
둘째 것을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쉰 개를 만들며
11 놋으로 걸쇠 쉰 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을 그 고리들에 넣어 장막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며
12 장막의 앙장들에서 남아 있는
남은 부분 즉 남아 있는 반쪽 앙장은
성막의 뒤에 늘어뜨리고
13 장막의 앙장들의 길이에서 남
은 부분은 이쪽에서 일 큐빗, 저쪽에
서 일 큐빗씩 내어 성막의 양쪽으로
늘어뜨리되 이쪽저쪽으로 늘어뜨려
그것을 덮게 할지니라.
14 너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
라.
15 ¶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
되
16 한 널빤지의 길이는 십 큐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일 큐빗 반으로
하며
17 한 널빤지에 촉 두 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
니라.
18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
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스무 개를 만들고
19 그 스무 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
로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두 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
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두
개를 만들지니라.
20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
해 북쪽 면에 널빤지 스무 개를 만들고
21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두 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
도 밑받침 두 개를 만들지니라.
22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
에 쓰기 위해 널빤지 여섯 개를 만들고
23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
에 쓰기 위해 널빤지 두 개를 만들어서
24 그것들을 밑에서 함께 연결하
고 그것의 머리 위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것들 두 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들고 그것들이 두 모서리가 되게
할지니라.
25 그것들은 널빤지 여덟 개와 은
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열여섯
개인데 이 널빤지 밑에 밑받침 두 개,
저 널빤지 밑에 밑받침 두 개가 있을지
니라.
26 ¶ 너는 시팀나무로 가로 막대
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면의 널빤
지들에 쓰기 위해 다섯 개,
27 성막의 저쪽 면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다섯 개, 서쪽을 향한 두
면을 위해, 성막의 면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다섯 개를 만들지니라.
28 또 *너는* 널빤지들 한가운데 있
는 중간 가로 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29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
로 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
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30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성막
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31 ¶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32 너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
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33 ¶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 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 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34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 궤 위
에 긍휼의 자리를 두고
35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36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
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37 시팀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
둥 다섯 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에 쓰기 위해 밑받
침 다섯 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
라.

제 27 장

번제 헌물 제단(출38:1-7)

1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오 큐빗, 너비를 오 큐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
의 높이는 삼 큐빗으로 하며
2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3 제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
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
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
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4 너는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
에 놋 고리 네 개를 만들며
5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
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6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팀나
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으로
입히며
7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
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
되 산에서 네게 보여 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성막의 뜰(출38:9－20)

9 ¶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한 면의 길이가 백 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10 그것들의 기둥 스무 개와 기둥
들의 밑받침 스무 개는 놋으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
로 만들고
11 북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백 규빗 되는 현수막
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스무 개와 기둥
들의 밑받침 스무 개는 놋으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
로 만들지니라.
12 ¶ 서쪽 면에 뜰의 너비에 오십
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들의 기
둥이 열 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열
개가 되게 하며
13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서 뜰의
너비는 오십 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14 문 이편의 현수막들이 십오 규
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세 개, 밑받
침이 세 개가 될 것이요,
15 또 저편에 현수막들이 십오 규
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세 개, 밑받
침이 세 개가 될 것이니라.
16 ¶ 뜰 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바느질
을 해서 만든 이십 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네 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네 개이며
17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
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놋으로
만들지니라.
18 ¶ 뜰의 길이는 백 규빗, 너비는
어디나 오십 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
실로 꼬아 만들어 오 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놋으로 만들고
19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에 쓰
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놋으로 만들
지니라.

등잔대 관리(레24:1－4)

20 ¶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네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21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
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
가 될지니라.

제 28 장

제사장의 의복(출39:1－7)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취할지니라.
2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
로 삼을지니라.
3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

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
를 섬기리라.
4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
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
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에봇

5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을 취할지니
라.
6 ¶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에봇을 만들되
7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8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
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
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지니라.
9 너는 줄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것
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
을 새기되
10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
의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
지 다른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
며
11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
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12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13 ¶ 너는 금으로 장식 핀들을 만
들고
14 양 끝에 순금으로 사슬 두 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 꼰 사슬들을
장식 핀들에 달지니라.

판결의 흉패(출39:8－21)

15 ¶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
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
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며
16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반듯
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17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네 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18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
어와 다이아몬드로,
19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
정으로,
20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것들의 틀
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21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
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열두 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
니 즉 그것들이 각각 그 열두 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
라.
22 ¶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23 또 흉패 위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며
24 흉패의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
에 금으로 꼰 두 개의 사슬을 달고
25 그 두 개의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장식 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들에 달지니라.
26 ¶ 너는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리
에 흉패의 두 끝에 달고
27 또 다른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앞쪽으로 에봇 밑의 양쪽에 달
되 그것의 다른 연결부의 맞은편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달며

28 청색 끈과 함께 흉패의 고리들
과 에봇의 고리들을 써서 흉패를 묶어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하고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
지지 않게 할지니라.
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
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지니고 들
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지
니라.
30 ¶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
엘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제사장의 다른 의복(출39:22－31)

31 ¶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
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32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것의 꼭
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
처럼 그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33 ¶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
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
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34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35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의 성소에 들
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의 소리가 들리
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
하리라.
36 ¶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37 그 패를 청색 띠 위에 놓아 그것
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38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
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39 ¶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
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40 ¶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
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41 너는 그것들을 네 형 아론과 그
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
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42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
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
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
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4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
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나
아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
을지니 그리하여야 그들이 불법을 담
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
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제 29 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됨(레8)

1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네가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
린 수소 한 마리와 흠 없는 숫양 두
마리를 취하고
2 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취하라.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어
3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
니에 담은 채 그 수소와 숫양 두 마리
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
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
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6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7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
지니라.
8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들에게 옷을 입히고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
를 띠워 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
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
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10 너는 수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
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11 너는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이고
12 그 수소의 피를 취해 네 손가락
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
를 제단 밑에서 옆에 쏟을 것이요,
13 또 내장을 덮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
되
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15 ¶ 또 너는 숫양 한 마리를 취하
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16 너는 그 숫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
고
17 그 숫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
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
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18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
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19 ¶ 너는 다른 숫양을 취하고 아
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20 그 뒤에 너는 그 숫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
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리고
21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
에 쓸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그리
하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
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이 거룩하게 되리라.
22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꼬리
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할지니 이는 그것이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이기 때문이니라.
23 또 *너는* 주 앞에 있는 바구니
곧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개와 기름 바른 빵 한 조각과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24 모두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
들의 손에 놓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주 앞에 요제 헌물로 삼을 것이며
25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로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
라.
26 너는 아론을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의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네 몫이
되리라.
27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
한 숫양 곧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에서
취하여 흔드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
즉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28 그것은 거제 헌물이므로 영원

한 법규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게 할지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에게서 취한 거제 헌물 곧 그들이 화평
헌물로 드리는 희생물 중에서 취한
헌물로서 주께 드리는 그들의 거제
헌물이 될지니라.
29 ¶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
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
니 *그들이* 그것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들 안에서 거룩히 구분되리
라.
30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거룩
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레 동안 그것들
을 입을지니라.
31 ¶ 너는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의 고기를
삶고
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바구
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33 그들은 속죄하는 데 쓰는 그것
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그것들이 거룩하므
로 낯선 자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라.
34 거룩히 구분하는 고기나 빵이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너
는 남은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
은 거룩한즉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35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
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레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36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
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
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
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매일 드리는 헌물
(민28:1－8)

38 ¶ 이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일 년 된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리라.
39 너는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
고 다른 어린양은 저녁에 드리며
40 어린양 한 마리에 밀가루 십분
의 일 *에바*와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사분
의 일 힌을 드리며
41 다른 어린양은 저녁때에 드리
되 아침의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42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
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44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
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
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45 ¶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
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
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제 30 장

분향 제단(출37:25－28)

1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2 그것의 길이를 일 큐빗, 너비를
일 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반듯하
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이 큐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3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를지니라.
4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테
밑의 두 귀퉁이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
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5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
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6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 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7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
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8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9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
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
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10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
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
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대속물

11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
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
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3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 세겔을 바칠지
니 (일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반 세겔
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14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 곧
스무 살이 넘는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15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
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 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
은 덜 내지 말지니라.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
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
하리라.

놋 물두멍

17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
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
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20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
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
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
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
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거룩한 기름

22 ¶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3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
하되 순수한 몰약 오백 세겔과 그 절반
만큼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
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24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오백
세겔과 올리브기름 일 힌을 취하여
25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
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
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26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 궤에 바르고
27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
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 제단과
28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29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
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3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31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
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
니
32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
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
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33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
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낯선
자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한 향

34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
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
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36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
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
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37 네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
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네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
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
라.
38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
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
게서 끊어지리라.

제 31 장

성막 제작 기술자(출35:30-36:1)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
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엘을 지명
하여 부르고
3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
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4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
과 놋으로 일하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
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6 또, 보라, 내가 그와 함께 단 지파
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주었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으니
7 곧 회중의 성막과 증언 궤와 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와 성막의 모든
비품과
8 상과 그것의 비품과 순금 등잔대
와 그것의 모든 비품과 분향 제단과
9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비품과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10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에 입
는 섬김의 예복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
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과
11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성소를
위한 향기로운 향이라. 그들은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
라.

안식일 법(출35:1-3)

12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
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
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
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
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
라.
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
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
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
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
이니라.
17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
기 때문이니라, 하라.
18 ¶ 그분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
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 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 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제 32 장

금송아지(신9:6-29)

1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
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
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
라, 하니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3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
니라.
4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
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
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
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
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
니라, 하므로
5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
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6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
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
나서 뛰놀더라.
7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
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
라, 하였도다.
9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
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11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
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
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13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

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
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
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
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14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
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
라.
15 ¶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
려오는데 두 증언 판이 그의 손에 있었
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16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17 백성이 소리치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18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
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
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19 ¶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
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
라.
20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
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
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
성이 네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
냐? 하니
22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
니이다.
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
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
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
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25 ¶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
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
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26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27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
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
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
하매 그 날 백성 중에서 삼천 명가량이
죽으니라.
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
하면 그분께서 이 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30 ¶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
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31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32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
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
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
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33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

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34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35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
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제 33 장

주께서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령함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3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
게 하려니와 나는 네 한가운데서 올라
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
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4 ¶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
지 아니하니라.
5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
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
간에 네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
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네게서 장식품
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무
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
이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
라.

모세가 주님을 만남

7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
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8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9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 문에 섰으며 주께
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10 온 백성은 성막 문에 구름 기둥
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더라.
11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
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
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
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을 약속함

12 ¶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데
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셨나
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
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
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13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
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
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14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앞
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15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
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
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
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
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

시는 것이 아니니이까? 그리하여 우
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
매
17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18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소서, 하매
19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
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20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
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1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
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
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
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
니라.

제 34 장

모세가 새 돌 판들을 만듦(신10:1-5)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으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2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
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네
자신을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 떼나 소 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
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 판 두
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 올라가
니
5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
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
시니라.
6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
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
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7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
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
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8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9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
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시옵소서.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
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
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
서, 하니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함
(출23:14-19; 신7:1-6; 16:1-17)

10 ¶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
라.
11 너는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노니
12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들
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네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13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
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 낼지니라.
14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
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
하는 하나님이니라.
15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
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
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
이 너를 부르면 네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16 또 네가 네 아들들을 위하여 그
들의 딸들을 취하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네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
라.
17 너는 너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
을 만들지 말지니라.
18 ¶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빕 월 그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네가 아빕 월에 이집트에서 나왔
기 때문이니라.
19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네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
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20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들 중의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
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21 ¶ 너는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
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을 갈 때에
나 거둘 때에나 안식할지니라.
22 ¶ 너는 칠칠절 곧 밀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23 ¶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24 내가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고 네 경계를 넓히리니 네가 한 해에
세 번 주 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
라.
25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
26 너는 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네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
의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27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
이 뜻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
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28 모세는 주와 함께 밤낮으로 사
십 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열 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의 얼굴이 빛남

29 ¶ 모세가 그 두 증언 판을 모세
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
라.
30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
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하
기를 두려워하였더라.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
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
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
라.
34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
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
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
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 35 장

안식일 규정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2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
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3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
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성막을 위한 헌물 (출25:1-9; 39:32-43)

4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
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
를,
5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
니 곧 금과 은과 놋과
6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
운 아마 *실*과 염소 털과
7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8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
과 및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9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의 재료

10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11 곧 성막과 그것의 장막과 덮개
와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가로 막대기
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12 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긍휼의
자리와 덮는 휘장과
13 상과 그것의 막대들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보여 주는 빵과
14 또 빛을 내는 등잔대와 그것의
비품과 등잔들과 등잔 기름과
15 분향 제단과 그것의 막대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의 입구 문에 거는 현수막과
16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놋 그
물과 막대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17 뜰의 현수막들과 그것의 기둥
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뜰 문의
현수막과
18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
과 그것들의 줄들과
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 곧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에 제사장 아론이 입는 거룩한 의복
들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의복들이니
라.

이스라엘이 성막 헌물을 드림

20 ¶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21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
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22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
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
니라.
23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과 염소 털과 숫양의 붉은
가죽과 오소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오고
24 은과 놋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
도 다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며 섬기는
일에 필요한 시팀나무가 있는 자도
다 그것을 가져오고
25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
은 손수 실을 잣고 자기들이 자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을 다 가져왔으며
26 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
든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잣고
27 치리자들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28 등불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과 향료를 가져
왔으니
29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
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
라.

성막 제작 기술자(출31:1－11)

30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엘을 지
명하여 부르시고
31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
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32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고
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
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34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
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
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 주셨으며
35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
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 36 장

성막의 제작

1 그때에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
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백성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옴

2 모세가 브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
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
니라.
3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
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
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
을 가져오므로
4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
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5 ¶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
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
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6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
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
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
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
을 삼갔으니
7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
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
더라.

성막 제작(출26)

8 ¶ 성막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
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가늘게
꼰 아마 *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앙장 열 개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
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드니
라.
9 한 앙장의 길이는 이십팔 큐빗이
요, 한 앙장의 너비는 사 큐빗이며
앙장들이 다 한 크기더라.
10 그가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
고 또 다른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11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
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
고 둘째 것의 연결한 것의 다른 앙장

맨 끝단에도 그와 같이 하니라.
12 그가 한 앙장에 고리 쉰 개를
만들고 둘째 것의 연결한 것의 앙장
끝단에 고리 쉰 개를 만들매 그 고리들
이 한 앙장과 다른 앙장을 붙드니라.
13 그가 금으로 걸쇠 쉰 개를 만들
어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서로 연결하
니 이로써 그것이 한 성막이 되니라.
14 ¶ 그가 염소 털로 앙장들을 만
들어 성막을 덮는 장막이 되게 하였으
니 곧 그가 열한 개의 앙장을 만들었더
라.
15 한 앙장의 길이는 삼십 큐빗,
한 앙장의 너비는 사 큐빗이며 열한
개의 앙장이 한 크기더라.
16 그가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
고 또 여섯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17 연결한 것의 앙장 맨 끝단에 고
리 쉰 개를 만들고 둘째 것을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쉰 개를 만들며
18 놋으로 걸쇠 쉰 개를 만들어 장
막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니라.
19 그가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
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
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드니라.
20 ¶ 또 그가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
니
21 한 널빤지의 길이는 십 큐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일 큐빗 반이더
라.
22 그가 한 널빤지에 촉 두 개를
내되 서로에게서 같은 간격으로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그와 같이 만들
었더라.
23 그가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
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스무 개를 만들고
24 그 스무 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
로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두 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
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두
개를 만들었더라.
25 그가 성막의 다른 면 곧 북쪽
모퉁이를 향한 면에 쓰기 위해 널빤지
스무 개를 만들고
26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두 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
도 밑받침 두 개를 만들었더라.
27 그가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
에 쓰기 위해 널빤지 여섯 개를 만들고
28 두 면에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
에 쓰기 위해 널빤지 두 개를 만들어서
29 그것들을 밑에서 연결하고 그
것의 머리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
여 그 두 모서리에 있는 그 두 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드니라.
30 거기에 널빤지 여덟 개가 있었
고 은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열여
섯 개가 있었으니 각 널빤지 밑에 밑받
침 두 개가 있었더라.
31 ¶ 그가 시팀나무로 가로 막대
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면의 널빤
지들에 쓰기 위해 다섯 개,
32 성막의 저쪽 면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다섯 개, 서쪽을 향한 면들
을 위해 성막의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다섯 개를 만들었더라.
33 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빤
지들을 가로지를 중간 가로 막대기를
만들고
34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
로 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 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
을 금으로 입히니라.
35 ¶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
아 그것을 만드니라.
36 그가 그것을 위해 시팀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들을 위하여 밑받침
네 개를 은으로 부어 만드니라.
37 ¶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바느질
을 해서 성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38 그것의 기둥 다섯 개와 그것들
의 갈고리들을 만들며 그것들의 기둥
머리와 띠들을 금으로 입혔으나 그것
들의 밑받침 다섯 개는 놋으로 만들었
더라.

제 37 장

증언 궤 제작(출25:10－22)

1 브살레엘이 시팀나무로 궤를 만
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반, 너비
가 일 큐빗 반, 높이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하니라.
2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
팎으로 입히고 그것에 돌아가며 금테
를 두르고
3 궤를 위해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네 귀퉁이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두 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다니라.
4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
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5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궤를 나르게 하니라.
6 ¶ *그가*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반,
너비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하며
7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드니라. 그가 긍휼의 자
리로부터 나오는 그룹들을 그것의 양
끝에 만들었더라.
9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
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었으
며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았으
니 곧 그룹들의 얼굴이 긍휼의 자리를
향하였더라.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 제작
(출25:23－30)

10 ¶ *그가* 또 시팀나무로 상을 만
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너비가
일 큐빗, 높이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하며
11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
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12 또 거기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
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
가며 금테를 두르고
13 상을 위해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상의 네 발에 있는 네 귀퉁이에
달되
14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
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
가 되게 하니라.
15 또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혀 상을
나르게 하니라.
16 *그가* 상 위의 기구들 곧 상의 접시
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
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순금 등잔대 제작(출25:31－40)

17 ¶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
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
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18 여섯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
오게 하되 등잔대의 세 가지는 등잔대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등잔대의 저쪽에서 나오게 하
며
19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세 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세 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가
그리되게 하니라.
20 또 *그가*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
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네 개가 있게 하며
21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
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니라.
22 *그가*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

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되 그것
전부를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
드니라.
23 또 그가 등잔대의 등잔 일곱 개
와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불똥 그릇들
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24 곧 등잔대와 등잔대의 모든 기
구를 순금 일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분향 제단 제작(출30:1－5)

25 ¶ 그가 시팀나무로 분향 제단
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를 일 큐빗,
너비를 일 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이 큐빗
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드니라.
26 그가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
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27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테 밑의
두 귀퉁이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어서 제단을 나르
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하였더라.
28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
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기름과 향 제조(출30:22－38)

29 ¶ 또 그가 약제사의 제조법대
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
고 또 향기로운 향료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제 38 장

번제 헌물 제단(출27:1－8)

1 그가 시팀나무로 번제 헌물 제단
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를 오 큐빗,
너비를 오 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삼 큐빗
으로 하였으며
2 제단의 네 귀퉁이에 제단의 뿔들
을 만들되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혔으
며
3 제단의 모든 기구 곧 솥들과 부삽
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었더라.
4 그가 제단을 위해 놋 그물을 만들
어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5 그 놋 그물 네 끝에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하며
6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
것들을 놋으로 입히고
7 그 막대들을 제단의 양쪽에 있는
고리들에 끼워 제단을 나르게 하였으
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
더라.

놋 물두멍 제작

8 ¶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
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성막의 뜰을 만듦(출27:9－19)

9 ¶ 그가 뜰을 만들었는데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든 뜰의 휘장막들이 있더라. *그것*
들은 백 큐빗이더라.
10 그것들의 기둥이 스무 개요, 놋
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이 스무
개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이
은이더라.
11 북쪽 면에 달 휘장막들이 백 큐
빗이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스무 개
요, 놋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이
스무 개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이 은이더라.
12 서쪽 면에 달 휘장막들이 오십
큐빗이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열 개
요, 그것들의 밑받침이 열 개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이 은이더
라.
13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도 오십
큐빗이더라.
14 문 이편의 휘장막들이 십오 큐
빗이고 그것들의 기둥이 세 개, 밑받
침이 세 개였으며
15 뜰 문 저편에는 이편과 저편에

십오 큐빗의 현수막들이 있었고 그것
들의 기둥이 세 개, 밑받침이 세 개
있더라.
16 뜰 둘레의 모든 현수막은 가늘
게 꼰 아마 *실*로 만들었으며
17 기둥들의 밑받침들은 놋이요,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이며
그것들의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입혔
고 또 뜰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둘렀더라.
18 뜰 문의 현수막은 청색과 자주
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으며 길이는 이
십 큐빗이요, 높이는 너비 방향으로
뜰의 현수막들과 같이 오 큐빗이더라.
19 그것들의 기둥은 네 개며 그것
들의 밑받침 네 개는 놋이요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이며 그것들의 기둥머
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입혔더라.
20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말뚝들은 놋이더라.

성막의 재료

21 ¶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은 레위 사람들
의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니라.
22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
리의 아들 브살레엘이 주께서 모세에
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그는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정교한
기술자로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로 수를 놓는 자더
라.
24 성소의 모든 작업에서 작업을
위해 쓰인 금 곧 헌물로 드린 모든
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이십구 달란
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25 회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낸 은
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더라.
26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
간 자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일 베가
곧 반 세겔씩 냈더라.
27 은 백 달란트로 성소의 밑받침
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
는데 밑받침 하나에 일 달란트씩 백
달란트로 백 개의 밑받침을 만들었으
며
28 또 그가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기둥의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기둥머리들을 입히며 띠로 둘렀더라.
29 헌물로 드린 놋은 칠십 달란트
와 이천사백 세겔이더라.
30 그가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 문
밑받침들과 놋 제단과 놋 제단에 쓸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
으며
31 또 뜰 둘레의 밑받침들과 그 뜰
문의 밑받침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제 39 장

제사장의 의복을 만듦(출28)

1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
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에봇을 만듦

2 그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3 그들이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으
로 만들고 그것을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
색 *실*과 고운 아마 *실*에 섞어 짰더라.
4 그들이 에봇에 쓰려고 어깨 조각
들을 만들어 그것을 함께 연결하되
그 두 끝에서 함께 연결하고
5 그의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
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

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6 ¶ 그들이 줄마노들을 깎아 금
장식 핀들에 넣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
고
7 그가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들에
달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기념 보
석이 되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흉패를 만듦

8 ¶ 그가 정교한 솜씨로 흉패를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
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었더
라.
9 그것은 네모반듯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이며
그것은 두 겹이더라.
10 그들이 흉패에 보석 네 줄을 달
았는데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이더라. 첫째 줄이 이러하더
라.
11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
어와 다이아몬드요,
12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
정이요,
13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이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그것들
의 틀에 넣고 금 장식 핀들에 물렸더
라.
14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열두 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었
고 각 보석이 그 열두 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녔더라.
15 그들이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들을 만들고
16 또 금 장식 핀 두 개와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며
17 흉패의 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
에 금으로 꼰 두 개의 사슬을 달고
18 그 두 개의 꼰 사슬의 두 끝을
두 개의 장식 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
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들에 달았더라.
19 또 그들이 금 고리 두 개를 만들
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
리 위에 흉패의 두 끝에 달고
20 또 다른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앞쪽으로 에봇 밑의 양쪽에 달
되 그것의 다른 연결부의 맞은편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달며
21 청색 끈과 함께 흉패의 고리들
과 에봇의 고리들을 써서 흉패를 묶어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하여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
지지 않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다른 의복을 만듦

22 ¶ 그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
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며
23 겉옷의 한가운데에 사슬갑옷의
구멍과 같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
에 돌아가며 띠를 두어 그것이 찢어지
지 않게 하였더라.
24 그들이 겉옷 단에 청색과 자주
색과 주홍색 *실*과 꼰 아마 *실*로 석류들
을 만들고
25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어 겉
옷의 단 위의 석류들 사이에 달되 돌아
가며 석류들 사이에 달고
26 섬기러 들어갈 때 입는 그 겉옷
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
더라.
27 ¶ 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을 위하여 고운 아마로 짜서 속옷을
만들고
28 고운 아마로 관을, 고운 아마로
좋은 모자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반바지를
29 가늘게 꼰 아마 *실*과 청색과 자
주색과 주홍색 *실*로 허리띠를 만들되
바느질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
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0 ¶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관
의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글을
쓰고
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묶어 관
위에 높이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든 일이 완성됨(출35:10－19)

32 ¶ 이와 같이 회중의 장막의 성
막의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스라엘 자
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33 ¶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장막과 그것의 모든
비품과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가로 막
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34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덮개와
오소리 가죽 덮개와 덮는 휘장과
35 증언 궤와 그것의 막대들과 긍
휼의 자리와
36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보여
주는 빵과
37 순금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
곧 가지런히 놓인 등잔들과 등잔대의
모든 기구와 등잔 기름과
38 금 제단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
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 문의 현수막과
39 놋 제단과 그것의 놋 그물과 막
대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과
40 뜰의 현수막들과 그것의 기둥
들과 밑받침들과 뜰 문의 현수막과
그것의 줄들과 말뚝들과 회중의 장막
을 위해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쓸 모든
기구와
41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 곧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때에 제사장 아론이 입는 거룩한 의복
들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의복들이
라.
42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
든 일을 행하매
43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
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
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제 40 장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우고 모임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의 성막을 세우고
3 또 그 안에 증언 궤를 들여 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4 또 상을 들여 놓고 그 위에 가지런
히 놓을 것들을 가지런히 놓고 등잔대
를 들여 놓고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켜고
5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증언
궤 앞에 두고 성막에 문의 현수막을
달고
6 또 번제 헌물 제단을 회중의 장막
의 성막 문 앞에 놓고
7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물을 담고
8 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달고
9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10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
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
룩한 제단이 되리라.
11 너는 또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
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
고
12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
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13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
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
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14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15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
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
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하시매
16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
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17 ¶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의
밑받침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널빤지
들을 세우고 그것의 막대기들을 끼우
고 그것의 기둥들을 세우며
19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0 ¶ 그가 또 증언을 취하여 궤
속에 넣고 막대들을 궤에 끼우고 긍휼
의 자리를 그 궤 위에 두고
21 또 그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
놓고 덮는 휘장을 쳐서 그 증언 궤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과 같았더라.
22 ¶ 또 그가 회중의 장막 안에
상을 놓되 북쪽을 향한 성막 쪽에 휘장
밖에 놓고
23 또 주 앞에서 그 상 위에 빵을
가지런히 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4 ¶ 그가 또 회중의 장막 안에
등잔대를 놓되 남쪽을 향한 성막 쪽에
놓아 상을 마주보게 하고
25 또 주 앞에서 등잔들에 불을 켜
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6 ¶ 그가 또 금 제단을 회중의
장막 안에 휘장 앞에 두고
27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
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8 ¶ 그가 또 성막 문에 현수막을
달고
29 또 회중의 장막의 성막 문 옆에
번제 헌물 제단을 두고 그 위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리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0 ¶ 그가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
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31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되
32 그들이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
더라.
33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
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의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
치니라.

구름과 영광(민9:15－23)

34 ¶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
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
라.
35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
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
하지 아니하였으니
38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
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
라.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이라 하는 모세의 셋째 책

레 위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율법
수신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주께서 부르셨다'(The LORD called)라고 불렀다. Leviticus는 레위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레위티콘'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을 뜻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주로 레위의 제사장 체계, 제사장들의 섬김, 희생 율법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는 것
목적: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고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 주는 것(엡1:7; 히10:19–22)
내용: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와 비슷하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기록으로서 구속받은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초를 놓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의 기초 위에 이 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쌓는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산에서 말씀하시지만 레위기에서는 자신이 친히 거하며 자신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막에서 말씀하신다. 레위기의 내용은 전적으로 율법적이며 이 안에는 시민법, 의식법, 윤리법, 종교법, 정결례 등에 관한 법규가 들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은 종교법과 의식법이다. 레위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희생과 명절과 의식과 예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성령님이 영감을 주신 레위기 주석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두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예표와 실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영적인 복을 기대할 수 있다. 레위기는 27장, 859절, 24,541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6장(속죄일), 핵심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19:2)
핵심 단어: 거룩함(152회), 핵심 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11:44), 레위기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히4:14), 영적 교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제 1 장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

1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
서 곧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3 만일 그의 헌물이 소 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
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4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
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
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5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6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7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
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8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
니와
9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
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10 ¶ 만일 그의 헌물이 떼 곧 양이
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
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11 제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서 그
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12 그는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
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
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
니와
13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가져
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
니라.
14 ¶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
이 날짐승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
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15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
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
16 그는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털
을 뽑고 그것을 제단 옆의 동편에 재
버리는 곳 옆에 버릴지니라.
17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
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의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
니라.

제 2 장

음식 헌물

1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
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2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거기에
서 곧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
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라.
3 그 음식 헌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
히 거룩한 것이니라.
4 ¶ 네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
의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
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
여야 할지니라.
5 ¶ 네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할지니라.
6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
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7 ¶ 네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 판에
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할지니라.
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
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

다가
9 그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
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
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
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10 그 음식 헌물의 남은 것은 아론
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
히 거룩한 것이니라.
11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
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12 ¶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
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
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13 너는 네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
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네 음식 헌물
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14 네가 네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의 푸른 *첫* 이삭
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찧은 곡식을 네 첫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15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
니라.
16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 즉
그것의 찧은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와 그것의 모든 유향을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제 3 장

화평 헌물
1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 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
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2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
고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
며
3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4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5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
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6 ¶ 만일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
로 드리는 그의 헌물이 양과 염소 떼에
서 취한 것이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
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7 만일 그가 자기의 헌물로 어린양
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
니
8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
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9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 낸 꼬리 전부와 내장
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10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11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12 ¶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13 그는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
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
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14 그는 그중에서 자기의 헌물 즉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
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15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가져갈 것이요,
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17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
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
지니라.

제 4 장

죄 헌물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
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4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 문으
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6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일곱 번 뿌릴 것이며
7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8 또 그는 그 죄 헌물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9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되
10 화평 헌물의 희생물 수소에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11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12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의
재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
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13 ¶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
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
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14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수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15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에
가서
17 자기 손가락을 그 피의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8 또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곧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들
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19 또 그는 그 수소에서 모든 기름
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20 죄 헌물의 수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21 그는 그 수소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째 수소를 태운 것 같이 태울지니 그것은 회중을 위한 죄 헌물이니라.

22 ¶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23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 없는 숫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24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25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으며

26 그것의 모든 기름은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27 ¶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28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29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30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31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32 그가 만일 어린양을 죄 헌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33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34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35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제 5 장

범법 헌물

1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2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3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4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

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5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6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
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그가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
이 없거든 자기가 범한 범법으로 인하
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8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죄 헌물로 삼
은 것을 드리되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고 그것을 아주 나누지
말며
9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
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요,
10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 헌물
로 드릴지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제사
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11 ¶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일 에바의 십분
의 일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
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불로 예비하
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13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남
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배상과 함께 드리는 헌물

14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네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
하는 흠 없는 숫양을 양 떼에서 가져다
가
16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
를 갚되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17 ¶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
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
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18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 떼에
서 흠 없는 숫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
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19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
실히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제 6 장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죄 헌물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
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
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
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
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3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
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4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
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
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5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
주고 또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6 그는 또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 떼에서 흠 없는 숫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7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의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
라.

번제 헌물에 대한 법

8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
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
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
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10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11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
복들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의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
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
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13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
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음식 헌물에 대한 법

14 ¶ 음식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
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드리되
15 그가 음식 헌물의 밀가루와 그
것의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음식
헌물 위에 놓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헌물의
기념물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16 그것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
중의 성막 뜰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17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불로 예비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
노라. 그것은 죄 헌물과 범법 헌물같
이 지극히 거룩하니
18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
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
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들
에 관한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
리라.
19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고운 밀가루 일
에바의 십분의 일을 영속하는 음식
헌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1 기름과 함께 그것을 납작한 판
에서 만들어 구울 것이요, 너는 그것
을 안으로 가져다가 음식 헌물의 구운
것들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
니라.
22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
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지니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
23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헌물
은 전부를 태울지니라.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죄 헌물에 대한 법

24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
니라.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26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
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27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
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옷에
든지 그것의 피가 튀면 너는 그 피가
튄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28 그러나 그것을 질그릇에 삶았
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놋그
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또 물에 씻을지니라.
29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
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지니라.
30 죄 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
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제 7 장

범법 헌물에 대한 법

1 마찬가지로 범법 헌물에 관한 법
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
하니
2 그들은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범법 헌물을 잡을 것이요, 그
는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3 또 그것에서 그것의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꼬리와 내장을 덮는 기름
과
4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고
5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
로 삼을지니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
니라.
6 제사장들 가운데 남자마다 그것
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
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7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은 마찬가
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그
헌물로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것이요,
8 어떤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번제 헌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니라.
9 화덕에서 구운 모든 음식 헌물과
납작한 판이나 납작한 튀김 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
의 것이 될지니
10 모든 음식 헌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아들
들이 서로 같은 양을 가질 것이니라.

화평 헌물에 대한 법

11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
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12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
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13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14 그 전체 봉헌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
장의 것이 될지니라.
15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
는 바로 그 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
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
16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
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의 남
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17 그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셋

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18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
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
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
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혼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19 부정한 물건에 닿은 고기는 먹
지 말고 불로 태울지니라. 고기에 관
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20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
이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
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21 또한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
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무엇이든
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만지고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는 혼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기름과 피를 먹으면 안 됨

22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이요,
24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
로 쓰려니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25 사람들이 불로 예비하여 주께
헌물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26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
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27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
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

28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리
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자기의 봉헌물을 취하여 주께
가져오되
30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
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31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32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
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의 희생물
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33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
라.
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
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규
에 따라 주었느니라.
35 ¶ 이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몫이니
그가 그들을 주께 드려 제사장의 직무
로 섬기게 한 날
36 곧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이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이것을 그들에게 주게 하셨더라.
37 이것은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
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과 거룩히 구분
하는 것과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이니
38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봉헌물을 주께 드리
라고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시내
산에서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더
라.

제 8 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됨
(출29:1－37)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
과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죄 헌물의 수소와 숫양 두 마리와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취하고
3 너는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 문에
함께 모으라, 하시니
4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
신 대로 행하매 집회 무리가 회중의
성막 문에 함께 모이니라.
5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
려다가 물로 씻기고
7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띠워 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
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워 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8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며
9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 패를 붙이
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
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0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11 또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일
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12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
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
히 구별하니라.
13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
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
를 띠워 주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4 그가 또 죄 헌물로 수소를 가져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헌물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매
15 그가 그 소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
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
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
서 화해를 이루니라.
16 또 그가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을
취하고 모세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웠으나
17 그 수소와 그것의 가죽과 고기
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
더라.
18 ¶ 또 그가 번제 헌물로 숫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19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20 그 숫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
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우며
21 물로 내장과 다리들을 씻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니 그것
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향기로운 냄
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
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과 같았더라.
22 ¶ 또 그가 다른 숫양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숫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
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
매
23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며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니라.
25 또 그가 그 기름과 꼬리와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

며
26 주 앞에 있던 바구니 곧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바른 빵 한 조각
과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고
27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
들의 손에 두며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28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
을 취해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 위에서
태우니 그것들은 향기로운 냄새로 거
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헌물이더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29 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았더
라. 그것은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에
서 모세가 차지한 몫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0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려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31 ¶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들에게 이르되,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거룩히 구별하는 헌물
이 담긴 바구니의 빵과 함께 그곳에서
먹되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으라, 한 것
같이 먹고
32 고기와 빵 중에서 남는 것은 너
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33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는 날들
이 끝날 때까지 이레 동안은 너희가
회중의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희를 이레 동안 거룩히
구분하시리라.
34 그분께서 이 날 행하신 것은 곧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주
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으니
35 그러므로 너희는 이레 동안 낮
과 밤에 회중의 성막 문에 거하며 주의
책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
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 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
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제 9 장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함

1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
고
2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 없는
송아지를 죄 헌물로 취하고 흠 없는
숫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일 년 된 송아지
와 어린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4 또 화평 헌물로 주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소와 숫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
라.
5 ¶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
이 가까이 나아와 주 앞에 서매
6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
라, 하고
7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
으로 가서 네 죄 헌물과 네 번제 헌물
을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
8 ¶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에 가서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송아지를 잡으
니
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그 피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았으나
10 그 죄 헌물의 기름과 콩팥들과
간 꺼풀은 제단 위에서 태웠으니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1 그가 그 고기와 가죽을 진영 밖
에서 불로 태우니라.
12 또 아론이 번제 헌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
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13 그들이 또 번제 헌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오
매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우며
14 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 위에서 그것들을
태우니라.
15 ¶ 그가 또 백성의 헌물을 가져
오고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잡아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해 드리고
16 또 번제 헌물을 가져와 관례대
로 드리며
17 또 음식 헌물을 드리되 그중에
서 한 움큼을 취해 아침의 태우는 희생
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18 또 백성을 위한 화평 헌물의 희
생물 수소와 숫양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것을 뿌리
니라.
19 그들이 또 그 수소와 숫양의 기
름과 꼬리와 내장을 덮는 것과 콩팥들
과 간 꺼풀을 가져다가
20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그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21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여 주 앞에 요제 헌물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
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매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24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 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제 10 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
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2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
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3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
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
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
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4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
게 이르되, 가까이 나아와 너희 형제
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르
라, 하니
5 이에 그들이 가까이 나아와 모세
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힌 채로
진영 밖으로 나르매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
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
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
라.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께서 불붙여 타 죽게 하신
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7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즉 너희는 회중의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
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

8 ¶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9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
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
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
라.
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
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11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
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
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12 ¶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
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
되,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으라.
13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희
생물 중에서 네 몫과 네 아들들의 몫인
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내가 그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
라.
14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
깨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네 몫과
네 아들들의 몫으로 주셨느니라.
15 그들이 들어 올리는 어깨와 흔
드는 가슴을 불로 예비하는 기름의
헌물과 함께 가져다가 주 앞에서 흔들
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주께서 명령
하신 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것이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16 ¶ 모세가 죄 헌물의 염소를 부
지런히 찾은즉, 보라, 이미 그것을
태웠으므로 그가 아론의 살아남은 아
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
여 이르되,
17 그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
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
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여오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
에서 먹었어야만 하였느니라, 하매
19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 날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주 앞에 드렸어도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죄 헌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하매
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하
더라.

제 11 장

먹는 짐승에 관한 규정
(신14:3－21)

1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3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
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
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
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
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
정하며
6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
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
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 ¶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
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
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되
10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속에
서 살아 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
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
라.
11 그것들은 너희에게 심지어 가
증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가증히 여길지니라.
12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
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
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13 ¶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
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
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14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15 모든 까마귀 종류와
16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17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와
18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19 황새와 왜가리 종류와 댕기물
떼새와 박쥐니라.
20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
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21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
서 이것들 곧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22 곧 그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
레 종류와 베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
려니와
23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부정한 짐승

24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부
정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의 일
부라도 옮기면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6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아
니하는 것의 사체는 너희에게 부정하
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27 네 발로 다니는 온갖 종류의 짐
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
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8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
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
29 ¶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30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
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31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
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
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32 그것들이 죽어서 그중에 어느
것이 어떤 것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리니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의
복이든 가죽이든 부대든 혹은 일을
하는 데 쓰는 무슨 그릇이든 반드시
그것을 물에 담글지니라. 그것은 저
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와 같이 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33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질그
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부정하리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34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런 물이 스며든 것은 부정하며 그런
그릇으로 마시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
고

35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어느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
리니 그것이 화덕이든지 솥을 놓는
바닥이든지 그것들을 깨뜨릴지니라.
그것들은 부정하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
이 있는 샘이나 구덩이는 정결하리니
그것들의 사체에 닿는 것만 부정하리
라.
37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뿌려
야 할 씨 곧 어떤 뿌리는 씨에 떨어지
면 그것은 정결하려니와
38 물이 씨에 묻고 그것들의 사체
중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39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
었을 때에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
이며 그것의 사체를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
라.
41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42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
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라.
43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
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라.
44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
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
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
히지 말지니라.
45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
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
는 거룩할지니라.
46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
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
니
47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제 12 장

출산 이후의 의식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아이
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3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4 그 뒤에 그 *여인은* 삼십삼 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5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
면 그녀의 분리 *기간*과 같이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육십육 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지니라.
6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일 년 된 어린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를 죄 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으
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
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8 그녀가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
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
리라.

제 13 장

나병에 관한 법

1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
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3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
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
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
이요,
4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5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
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
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
어 둘 것이며
6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
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
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
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
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7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
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8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
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9 ¶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10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의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
면
11 그것은 그의 살 피부의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
두지는 말지니라.
12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
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13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
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
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14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
면 그는 부정하리라.
15 제사장은 생살을 보고 그를 부
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
하므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16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게 되
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17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18 ¶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았는데
19 그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
나 희고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
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 것이
요,
20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얕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부
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21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
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22 그것이 피부에 매우 넓게 퍼지
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지니 그것은 병이니라.
23 그러나 그 반점이 여전히 제 자
리에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
은 심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24 ¶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
에 데었는데 그 덴 생살에 약간 불그스
름하거나 흰,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
면
25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반점의 털이 희게 되고 그것
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
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26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
보니, 보라,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다른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
레 동안 가둘 것이며
27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
펴보고 만일 그것이 피부에 넓게 퍼졌
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28 만일 반점이 여전히 제 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인즉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
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화상의 염
증이니라.
29 ¶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
에 병이 있으면
30 제사장은 그 병을 볼지니, 보
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
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
언할지니라. 그것은 마른버짐이요,
머리에나 수염에 생긴 나병이니라.
31 제사장이 버짐병을 살펴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
면 제사장은 그 버짐병 가진 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32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으며 그 버짐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33 그는 털을 밀되 버짐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버짐병 가진 자
를 또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34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버짐
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
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정
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35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36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
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
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부정하니라.
37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버짐
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났으면 그 버짐은 나았으며 그는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38 ¶ 또 남자나 여자의 살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39 제사장은 볼지니, 보라, 그들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
은 피부에 자라는 기미니라. 그는 정
결하니라.
40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
지만 정결하고
41 얼굴 쪽 머리 부분에 털이 빠진
자는 이마 대머리지만 정결하니라.
42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
에 희고 불그스름한 헌데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기
는 나병이니라.
43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
볼지니, 보라,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데의 종기가 희고

불그스름하여 나병이 살의 피부에 나
타나는 것과 같으면
44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
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
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
느니라.
45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
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나병이 있는 옷에 대한 법

47 ¶ 또 양털 옷이든 아마 옷이든
의복에 나병이 있을 때에
48 그것이 아마나 양털의 날실에
나 씨실에나 혹은 가죽이나 어떤 가죽
물건에 있되
49 의복에나 가죽에나 혹은 날실
에나 씨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있는 그 병이 푸르거나 불그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지니라.
50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그
병이 있는 물건을 이레 동안 넣어 두었
다가
51 일곱째 날에 그 병을 살펴볼지
니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에나 씨실
에나 가죽에나 혹은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병은 좀 먹는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52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그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씨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 먹는 나병이니
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53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에나 씨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퍼지지 아니하였으
면
54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빨게 하고 또 그는
이레 동안 그것을 더 넣어 두었다가
55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
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
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것이 겉에서 벗
겨졌든지 속에서 벗겨졌든지 그것은
속으로 좀 먹은 것이니라.
56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이 약간 거무스름
하면 그는 그 의복에서든지 그 가죽에
서든지 그 날실에서든지 그 씨실에서
든지 그 부분을 찢어 낼지니라.
57 그런데 그것이 의복의 날실에
나 씨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퍼지는 병이니 너는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
라.
58 네가 빨 의복의 날실에서나 씨
실에서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서나
그 병이 떠났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59 이것은 양털 옷에나 아마 옷에
나 혹은 날실에나 씨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생긴 나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
에 관한 법이니라.

제 14 장

병이 나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
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
이 나았으면
4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
를 가져오게 하고
5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6 살아 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
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 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7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
곱 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
니라.
8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9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10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일 로그를 취할 것이
요,
11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12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
름 *일* 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
로 삼으며
13 그 어린양은 거룩한 곳 즉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
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
히 거룩하니라.
14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
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15 제사장은 또 그 *일* 로그 기름에
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
에 붓고
16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의 기름
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17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
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18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
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19 또 제사장은 죄 헌물을 드려서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20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21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만큼을
구할 수 없으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위해 속죄할 범법 헌물로 어린양 한
마리와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
의 일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일 로그를 취하고
22 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23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여덟째 날에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곧 주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24 제사장은 범법 헌물의 어린양
과 기름 *일* 로그를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25 또 그는 범법 헌물의 어린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
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26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의 왼
쪽 손바닥에 붓고
27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의 기
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28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
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가 있는 곳에 바를 것이며
29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
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30 그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31 곧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음식
헌물과 함께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이
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32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
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나병이 있는 집에 대한 법

33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34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
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
게 하거든
35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
게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기
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36 제사장은 그 병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37 그가 그 병을 살펴볼 때에, 보
라, 그 집 벽에 그 병과 더불어 푸르스
름하거나 불그스름하고 오목한 부분
이 있어 그 부분이 보기에 벽보다 얕으
면
38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
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이레 동안
닫아 두었다가
39 일곱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
것이요, 보라, 그 병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40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41 또 그 집 안의 사면을 긁게 하며
그 긁은 흙을 도시 밖의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42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 그 돌
들 대신 놓고 다른 회반죽을 취해 그
집에 바를지니라.
43 그가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
내고 회반죽을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44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
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
니 부정하니라.
45 그는 그 집을 헐되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의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니라.
46 또 그 집을 닫아 둔 동안에 들어
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 그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48 그 집을 *회반죽*으로 바른 뒤에
제사장이 와서 그 집을 살펴보니, 보
라, 그 병이 그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
으면 병이 나았은즉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49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
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50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
과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그것들을 담가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52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
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
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되
53 그 살아 있는 새는 도시 밖의
빈 들판에 놓아주어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집이 정
결하게 되리라.
54 이것은 온갖 종류의 나병에 관
한 법으로서 곧 버짐과
55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56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57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
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제 15 장

몸의 유출에 대한 법

1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3 그의 유출로 인한 그의 부정함이
이러하리니 곧 그의 살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혹은 그의 살에서 유출
이 멈추었든지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
니라.
4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하
리니
5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 유출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
지 부정하리라.
8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
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 유출이 있는 자가 타는 안장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10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 있던 것
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들 중의 하나라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
지 부정하리라.
11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
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
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13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
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스스로 정결하
게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이레를
센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
게 되리라.
14 그는 여덟째 날에 자기를 위하
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곧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들
을 줄 것이요,
15 제사장은 그것들을 드리되 하
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
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
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16 어떤 남자에게서 교접의 씨가
나가면 그는 자기의 온 살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7 교접의 씨가 묻은 모든 옷과 모
든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그것은* 저녁
까지 부정하리라.
18 또 남자와 함께 눕는 여자에게
교접의 씨가 묻거든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
리라.
19 ¶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를 이레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
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눕
는 것은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할 터인즉
21 누구든지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
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2 또 누구든지 그녀가 앉았던 것

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
이며
23 그녀의 침상 위에나 그녀가 앉
는 것 위에 있는 것에 닿는 자도 저녁
까지 부정하리라.
24 어떤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워
그녀의 생리의 유출물이 그에게 묻으
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그가 눕는 모든 침상도 부정하리
라.
25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리 기간
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
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 기간이 지났는
데도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함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분리하는
날들과 같아서 그녀가 부정할 터인즉
26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
안에 그녀가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에
게 그녀의 분리 *기간*의 침상과 같고
그녀가 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의
분리 *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리
라.
27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터인즉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
리라.
28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유출에
서 정결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이레
를 셀 것이요, 그 뒤에야 정결하게
되리니
29 그녀는 여덟째 날에 자기를 위
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가져
갈 것이요,
30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
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녀의
부정함의 유출로 인해 그녀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31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2 이것은 유출이 있는 자와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와
33 생리를 앓는 여인과 남자와 여
자 중에서 유출이 있는 자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누운 자에 관한 법이니
라.

제 16 장

속죄일

1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의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
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
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
라.
3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수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4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
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염소 새끼 두 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7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
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
지니라.
8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9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

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10 제비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
는 산 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12 주 앞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
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13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
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
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일곱 번 뿌릴지
니라.
15 ¶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
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16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
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
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
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17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
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
며
18 그는 주 앞의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소
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19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
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20 ¶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
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 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
라.
21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
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
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
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
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
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23 아론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 의복
들을 벗어 거기에 두고
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살을
씻고 자기 의복들을 입고 나와서 자기
의 번제 헌물과 백성의 번제 헌물을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5 죄 헌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태
울 것이요,
26 염소를 속죄 염소로 놓아준 자
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27 죄 헌물의 수소와 죄 헌물의 염
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
였은즉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
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은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
라.
28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
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29 ¶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
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
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
지 그리할지니라.
30 그 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
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31 그 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
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
라.
32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
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의 직무로 섬길 제사장은 속죄를 하되
아마 옷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33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
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
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34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
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 17 장

피의 신성함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러하니라, 하고 이르되,
3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양이나 염소를 진
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4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
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
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5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
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들을 가
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
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6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
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7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
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
가 될지니라, 하라.
8 ¶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
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9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
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
라.
10 ¶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
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
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11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
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
나니
13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의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14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
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
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
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
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
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
라.

15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혼은 너희 나라 사람이
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
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와
16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
나 자기 살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
을 담당하리라.

제 18 장

성적 윤리에 대한 법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라.
3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
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4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5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
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
는 주니라.
6 ¶ 너희 중의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
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7 너는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
라. 그녀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
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8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
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아버
지의 벌거벗음이니라.
9 너는 네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
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네 아버지
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
라.
10 너는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벌
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
지 말라. 그들의 벌거벗음은 네 자신
의 벌거벗음이니라.
11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
에게서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녀
의 벌거벗음 곧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
지 말라.
12 너는 네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
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아버지의 가
까운 친족 여인이니라.
13 너는 네 이모의 벌거벗음을 드
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어머니의 가
까운 친족 여인이니라.
14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에게 다가가서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
내지 말라. 그녀는 네 숙모니라.
15 너는 네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아들의 아
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
내지 말라.
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
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형제
의 벌거벗음이니라.
17 너는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또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여 그녀의 벌거
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은 그녀
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 그것은 악행
이니라.
18 너는 한 여인이 살아 있을 동안
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녀
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19 또 너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부
정함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을 때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벌거벗음
을 드러내지 말라.
20 또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육체
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네 자신
을 더럽히지 말라.
21 너는 결코 네 씨 중의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22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
한 것이니라.
23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24 너희는 이것들 중의 어느 하나
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
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25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
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
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중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27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
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28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 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
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9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중의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
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
리라.
30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
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니라.

제 19 장

윤리와 의식 법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
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3 ¶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
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4 ¶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
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
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
이니라.
5 ¶ 너희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릴 때에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6 그 희생물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
는 바로 그 날과 다음 날에 먹되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받지 아니
하리라.
8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9 ¶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수확물 중에서 떨어
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
지 말고 네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둘지니라. 나는 주 너
희 하나님이니라.
11 ¶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
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12 ¶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
세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
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13 ¶ 너는 네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14 ¶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15 ¶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
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16 ¶ 너는 네 백성 가운데서 소문
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네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17 ¶ 너는 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네 이웃
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
게 하라.
18 ¶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는 주니라.
19 ¶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
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
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네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20 ¶ 누구든지 아직 속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채 한 남편
에게 정혼된 노예 여종 여자와 육체적
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아
니하리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라.
21 그는 자기의 범법 헌물 곧 범법
헌물의 숫양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께 가져올 것이요.
22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해
그 범법 헌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가 용서되리라.
23 ¶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
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처음 세 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리니 그것으로 주를 찬
양할 것이며
25 다섯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
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26 ¶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
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27 너희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
며 네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
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29 ¶ 네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
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
라.
30 ¶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
라.
31 ¶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
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
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32 ¶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
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33 ¶ 나그네가 너와 함께 너희 땅
에 머물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34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
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
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35 ¶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
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36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
정한 에바와 공정한 힌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37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
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제 20 장

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
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3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
이니라.
4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감아 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
리라.
6 ¶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
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7 ¶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8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
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
니라.
9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
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10 ¶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
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
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
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12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
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
들에게 돌아가리라.
13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14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
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 함이
니라.
15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
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
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
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
라.
17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
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
니라. 그들이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
음을 드러내었은즉 자기 불법을 담당
하리라.
18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
면 그는 그녀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
은즉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19 너는 네 이모나 고모의 벌거벗
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는 자기의 가
까운 친족을 벌거벗기느니라. 그들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20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

면 그가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
내었은즉 그들이 자기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
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
즉 그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22 ¶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
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
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
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아니하리라.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
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
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
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
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
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
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
라.
25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
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
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
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
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26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
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
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
할지니라.
27 ¶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남자
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
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
라.

제 21 장

제사장의 행동 지침 규정

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
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
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
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
히지 말 것이로되
2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
이나 형제나
3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
까운 자기의 처녀 누이로 인하여서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4 그러나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
게 하지 말지니라.
5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
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
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
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
이므로 거룩할지니라.
7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
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
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8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
할지니 이는 그가 네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네게 거룩
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9 ¶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 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
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
지니라.
10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 부
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
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11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12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자기 하
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

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
라.
13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
을 것이요,
14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
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
로 삼아
15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16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
든지 네 씨 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서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다가오지 못할지니라.
18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다가
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19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20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
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
니라*.
21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나아와 불로 예비
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
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아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
라.
22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
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
나
23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또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
니라.
24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그것을 고
하였더라.

제 22 장

주의 헌물은 모두 거룩함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
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
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3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씨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
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그 혼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4 아론의 씨 중에서 나병 환자나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에 닿는 자나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나
5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함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는
자
6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7 그는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되어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니
라.
8 또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
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주
니라.
9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
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
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
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
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10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1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12 또 제사장의 딸이 낯선 자에게 출가하였으면 거룩한 것들의 헌물을 먹지 못할 것이로되

13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되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낯선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 ¶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의 오분의 일을 그것에 더하여 그것을 그 거룩한 것과 함께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15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 곧 자기들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16 또한 그들이 그들의 거룩한 것들을 먹을 때에 범법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게 할지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주께서 받는 헌물과 받지 않는 헌물

17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온 자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려 하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 하거든

19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20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21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22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23 수소나 어린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는 드리려니와 서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24 너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서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25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것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26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레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에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그것을 주께 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28 너희는 암소든 암양이든 그것과 그것의 새끼를 하루에 잡지 말지니라.

29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30 바로 그 날에 그 희생물을 먹으며 그중 아무것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주니라.

31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32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
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
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
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33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제 23 장

주의 명절들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
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안식일

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 날
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유월절(민28:16－25)

4 ¶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
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5 첫째 달 십사일 저녁은 주의 유월
절이요,
6 같은 달 십오일은 주를 위한 무교
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7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
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8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불로 예비
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
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실절

9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
라.
12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숫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13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
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쓸지니라.
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 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
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
라.

칠칠절: 오순절(민28:26－31)

15 ¶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
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
일을 채우고
16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17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두 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
는 첫 열매니라.
18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
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9 또 너희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일 년 된 어린양
두 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
시킬 것이요,
20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

린양 두 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
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
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21 바로 그 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
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
고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
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22 ¶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모퉁이를 수확하
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네 수확물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둘지
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팔절(민29:1－6)

23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
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
회 *날*이니라.
25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
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속죄일(민29:7－11)

26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 또한 이 일곱째 달의 십일은 속
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
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28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
니 그 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29 어떤 혼이든지 그 날에 괴로움
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30 또 어떤 혼이든지 그 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31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
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32 그 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
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 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장막절: 초막절(민29:12－40)

33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이 일곱째 달의 십오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35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
을지니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36 너희는 이레 동안 불로 예비하
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
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
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
*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
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38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
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39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십오일부터 이레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
요,
40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
라.
41 너희는 한 해에 이레 동안 그것
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

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
라.
42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
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
는 초막에 거할지니
43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44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제 24 장

등잔불 관리(출27:20－21)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3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4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
라.

보여 주는 빵

5 ¶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열두 개를 굽되
빵 하나에 십분의 이 *에바*를 쓰고
6 주 앞의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
라.
7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8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
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
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9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라.

신성모독 죄의 형벌

10 ¶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갔는데 이
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11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하므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
의 딸 슬로밋이더라.)
12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
각을 알고자 하더라.
13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14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
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
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
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
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
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17 ¶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19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
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
게 행할 것이니
20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
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
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21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
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
일 것이니라.

22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라.

23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
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5 장

안식년(신15:1－11)

1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3 너는 육 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며 육 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4 일곱 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거
나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
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6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
라.

희년

8 ¶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일곱 안식
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사십구 년이
되리라.

9 그때에 너는 일곱째 달 십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10 너희는 그 오십째 해를 거룩하
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
에게 돌아갈지니라.

11 그 오십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
이 되리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
를 거두지 말라.

12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것은 너
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
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14 네가 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네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
라.

15 희년 이후의 햇수대로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
을 햇수대로 네게 팔 것인즉

16 햇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햇수가 적은 대로 그것
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파느니라.

17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
지 말고 오직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안식년의 양식

18 ¶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
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
히 거할 것이요,

19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
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
라.

20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
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

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21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22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
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
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
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
을 먹으리라.

소유물을 무르는 방법

23 ¶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24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
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25 ¶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
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무르려거
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는 그것을 판 햇수를 세어 자
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
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하는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 지 한 해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
려니와
30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의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의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
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
라.
31 그러나 사방에 성벽이 없는 마
을의 집들은 나라의 밭처럼 간주되어
무를 수 있으며 희년에 돌아갈 것이니
라.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
들의 도시들과 그들이 소유한 도시들
의 집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느니라.
33 어떤 사람이 레위 사람들에게
서 샀으면 그 팔린 집과 그의 소유
도시는 희년에 돌아갈지니 레위 사람
들의 도시들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니라.
34 그러나 그들의 도시들의 주변
지역의 밭은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이
므로 팔지 못하리로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 주는 것

35 ¶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
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
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
와 함께 살도록 하고
36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
라.
37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네
양식을 빌려 주지 말라.
38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
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
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
이니라.

노예들에 관한 규정

39 ¶ 네 옆에 거하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40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
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
게 할지니라.
41 그때에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
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자기의 가족에
게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
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

지 아니하리로다.
43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
고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44 네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
예는 다 너희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남자 노
예와 여자 노예를 살지니라.
45 또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
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낳은 가족들 중에서도 그
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들을 위한 상속물로 취하고
소유로 그들을 상속할지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너희 노예가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서로 엄
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47 ¶ 네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
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네 옆의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
의 가문에게 팔리면
48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중의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49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
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50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
에게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세어
그 햇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품꾼의 기간
에 따라 그것을 정할 것이니라.
51 만일 남은 햇수가 많으면 그는
그 햇수대로 자기가 팔린 값에서 자기
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적
으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세어 자기의
햇수대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줄 것이며
53 그 사람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
는 품꾼같이 여길 것이요, 네 눈앞에
서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할지니
라.
54 만일 그가 이 해들에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나가되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나가리니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
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제 26 장

축복과 저주의 약속
(신7:12－24)

1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
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2 ¶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
라.
3 ¶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4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5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
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7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
라.
8 너희 중 다섯 명이 백 명을 쫓고
너희 중 백 명이 만 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9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
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
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니
10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
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
라.
11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
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12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
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3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
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
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14 ¶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15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
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
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16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
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
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
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17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
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좇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18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벌하리라.
19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 같게 하리니
20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
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
리라.
21 ¶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
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22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
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
의 큰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23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
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
여 걸을진대
24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일곱
배나 벌하리라.
25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
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
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26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
러뜨릴 때에 여인 열 명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굽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7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28 나도 격노 중에 너희를 대적하
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일곱 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29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
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30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
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31 또 내가 너희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아니하
고
32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
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리라.
33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로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
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34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
라. 바로 그때에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35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
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
라.
36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게는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
듯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리라.
37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
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
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요,
38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멸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삼키리라.
39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
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
서 쇠약해지며 또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서 그 조상들과 함께 쇠약해지
리라.
40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으므로
41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
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에 자기들
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
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
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
하며 그들의 혼이 내 법규를 몹시 싫어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에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
하리라.
44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
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45 오직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
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
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46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법들이니라.

제 27 장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과 물건을 무르는 방법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
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네가 정한 값대
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
라.
3 네가 정한 값 곧 스무 살에서 예순
살까지의 남자에게 네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이면 네가 정한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다섯 살에서 스무 살까지의 남자
이면 네가 정한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6 *난 지* 한 달에서 다섯 살까지의

남자이면 네가 정한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네가 정한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예순 살이 넘은 남자이면 네가
정한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
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
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
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9 사람들이 주께 드리려고 헌물로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거룩하리니
10 그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
요, 혹시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
면 그것과 또 그것을 대체한 것이 거룩
하게 되리라.
11 그것이 부정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짐승이면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12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
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인
네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정해질 것이니라.
13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라.
14 ¶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히 구
별하여 주께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
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설 것이니라.
15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
이 그 집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돈의
오분의 일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리라.
16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얼마
를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그 밭의
씨에 따라 네가 정한 값을 매기되 보리
씨 일 호멜은 은 오십 세겔로 그 값을
매길 것이며
17 그가 자기 밭을 희년부터 거룩
히 구별하였으면 그 값이 네가 정한
값대로 설 것이로되
18 그 밭을 희년 이후에 거룩히 구
별하였으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네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을 줄일 것이
니라.
19 밭을 거룩히 구별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정한
돈의 오분의 일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확정되리
라.
20 그가 그 밭을 무르려 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
는 그것을 무르지 못하리라.
21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
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할 터이므로 그 밭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22 어떤 사람이 사기는 했으나 자
기의 소유가 아닌 밭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23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네가 정
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정한 값을 그 날에 주께
드려 거룩한 것으로 삼을 것이며
2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25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
겔에 따라 결정하되 이십 게라를 일
세겔로 할지니라.
26 ¶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즉 아무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27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네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무르
되 거기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무를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
거든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
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29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
니라.
30 땅의 모든 십일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십일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31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일
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무르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
요,
32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의 십일조
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
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
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은 무르지 못할지니라.
34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
령하신 명령들이니라.

백성의 수라 하는 모세의 넷째 책

민 수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9년(어셔) 수신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둘째 세대의 이스라엘, 이름: Numbers는 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책명 ‘아리스모이’에서 나와 라틴어 ‘누메리’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많은 종류의 수를 보여 주는 책’을 뜻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여러 종류의 수 –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계(1:20–46), 레위의 몇몇 가족의 수(3:14–51), 이스라엘 족장들의 통계(26:5–51), 행사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의 수(28:1–29:23), 미디안 사람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의 수(31:32, 52) 등 – 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의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에 근거를 둔 이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인 ‘광야에서’가 의미하듯이 인구 조사가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간 것이 핵심이다.
주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목적: 사람이 믿음을 통해 시험의 장소에서 복의 장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수기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민수기는 이전의 모세의 세 책과 더불어 신자의 경험을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 준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을, 출애굽기는 구속을, 레위기는 경배와 교제를, 그리고 민수기는 섬김의 여정을 보여 준다.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의 마지막 19일부터(1:1; 10:11) 이집트 탈출 뒤 40년이 되는 해에 요르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22:1; 26:3; 33–36:13). 민수기에는 몇 장에 걸쳐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1–4장, 26장) 책의 대부분은 율법과 규례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인구 조사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시내 산에서 이루어졌고 둘째 것은 약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요르단 강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민수기를 양분한다. 1–21장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고 26–36장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몇 달 전까지의 역사를 말해 준다. 이 둘을 나누는 거짓 대언자 발람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닌다. 민수기는 36장, 1,288절, 32,89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4장(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신), 핵심 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33:1), 핵심 단어: 여정, 핵심 구: “여정이 이러하니라.”(33:1) 민수기의 그리스도: 1. 반석(20:11; 고전10:4), 2. 별 – 통치자(24:17; 계22:16)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곳에 서 있으라.”

제 1 장

첫째 인구 조사

1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
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
하라.
3 이스라엘 안에서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4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
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
여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5 ¶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
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
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6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7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8 잇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
다네엘이요,
9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
리압이요,
10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에게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에
게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11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
들 아비단이요,
12 단에게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
히에셀이요,
13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
기엘이요,
14 갓에게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요,
15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
히라니라, 하시니라.
16 이들은 회중에서 명성 있는 자
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더라.
17 ¶ 모세와 아론이 지명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
의 집과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
들의 혈통을 밝히되 스무 살 넘은 자들
이 이름 수에 따라 자기들의 머릿수대
로 혈통을 밝히매
19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라.
20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
손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
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이름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
대로 *계수하니*
21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르우
벤 지파에 속한 자가 사만 육천오백
명이더라.
22 ¶ 시므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이름 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니
23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시므
온 지파에 속한 자가 오만 구천삼백
명이더라.
24 ¶ 갓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
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25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갓
지파에 속한 자가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더라.
26 ¶ 유다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27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칠만 사천육백 명이
더라.
28 ¶ 잇사갈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29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잇사
갈 지파에 속한 자가 오만 사천사백
명이더라.
30 ¶ 스불론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31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스불론
지파에 속한 자가 오만 칠천사백 명이
더라.
32 ¶ 요셉 자손 중에서 즉 에브라
임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
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33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에브
라임 지파에 속한 자가 사만 오백 명
이더라.
34 ¶ 므낫세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35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므낫
세 지파에 속한 자가 삼만 이천이백
명이더라.
36 ¶ 베냐민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37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베냐
민 지파에 속한 자가 삼만 오천사백
명이더라.
38 ¶ 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
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39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단
지파에 속한 자가 육만 이천칠백 명이
더라.
40 ¶ 아셀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41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아셀
지파에 속한 자가 사만 천오백 명이더
라.
42 ¶ 납달리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 수에 따라 *계수하니*
43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납달
리 지파에 속한 자가 오만 삼천사백
명이더라.
44 계수된 자들은 이러한데 이들
은 모세와 아론과 열두 명의 이스라엘
의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조상들의
집을 대표하는 자가 계수한 자들이더
라.
45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스무
살이 넘은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안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가 계수되
었는데
46 곧 계수된 자가 모두 육십만 삼
천오백오십 명이더라.
47 ¶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
의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48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기를,
49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
50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
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
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51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
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52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
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53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
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
라, 하셨더라.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제 2 장

열두 지파와 우두머리들

1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旗)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
에서 멀리 칠지니라.
3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4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칠만 사천육백 명이니라.
5 그 옆에 진 칠 자들은 잇사갈 지파
라. 잇사갈 자손의 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6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오만 사천사백 명이며
7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8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오만 칠천사백 명이니
9 유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십팔만 육천사
백 명이니라. 이들은 먼저 출발할지
니라.
10 ¶ 남쪽 편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르우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11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사만 육천오백 명이며
12 그 옆에 진 칠 자들은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대장은 수리샷
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13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오만 구천삼백 명이며
14 또 갓 지파라. 갓의 아들들의
대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15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사만 오천육백오십 명이니
16 르우벤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
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십오만 천사
백오십 명이니라. 그들은 둘째 줄에
서 출발할지니라.
17 ¶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이 레
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
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18 ¶ 서쪽 편에는 에브라임 진영
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
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대장은 암미
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19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사만 오백 명이며
20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대장은 브다술
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21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삼만 이천이백 명이며
22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의 아
들들의 대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
단이요,
23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삼만 오천사백 명이니
24 에브라임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
대로 두루 계수된 자는 모두 십만 팔천
백 명이니라. 그들은 셋째 줄에서 앞
으로 나아갈지니라.
25 ¶ 북쪽 편에는 단 진영의 군기
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샷대의 아들 아히
에셀이요,
26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육만 이천칠백 명이며

27 그 옆에 진 칠 자들은 아셀 지파
라. 아셀 자손의 대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28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사만 천오백 명이니라.
29 ¶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
손의 대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30 그의 군대 곧 그들 중에서 계수
된 자가 오만 삼천사백 명이니
31 단 진영에서 계수된 자는 모두
십오만 칠천육백 명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군기와 함께 맨 뒤에 갈지니
라, 하시니라.
32 ¶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니 여러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
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더라.
33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
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
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자기들의 군기 옆에 진을 치고 또 그들
이 각각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
라.

제 3 장

아론의 아들들(레10:1-7)

1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
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
한 이러하니라.
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
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과 이다말이니라.
3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니
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
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니라.
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드리다가 주 앞에
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섬김

5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6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
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7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
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8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라.
9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그에게 준 자들
이니라.
1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
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
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1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12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
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
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13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
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
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레위 사람 인구 조사

14 ¶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
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
되 *난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16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
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니
라.
17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
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요,
18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
의 가족들에 따라 이러하니 립니와
시므이요,
19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
에 따라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20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
들에 따라 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이니라.
21 게르손에게서는 립니 족속의 가
족과 시므이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22 *난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칠천오
백 명이더라.
23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은 성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24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게르손
족속의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라.
25 게르손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
에서 맡을 책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것
의 덮개와 회중의 성막 문 현수막과
26 뜰의 현수막들과 및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문에 칠
휘장과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그것
의 줄들이 되리라.
27 ¶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속의
가족과 이스할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웃시엘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이
니라.
28 *난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가 팔천육백으로 *이들이* 성소의 책
무를 맡을 것이며
29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
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칠 것이요,
30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 가족들의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
가 될 것이니라.
31 그들이 맡을 책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32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또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33 ¶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므라리의 가족들이니라.
34 *난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육천이백 명이며
35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
리 가족들의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이들은 성막의 북쪽 편에
진을 칠 것이니라.
36 므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
을 책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
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37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 되리라.
38 ¶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해 곧 회중의 성막 앞에서 동쪽으로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
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책무
를 맡을 것이며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39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
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이만
이천 명이더라.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을 봉헌함

40 ¶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
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 지*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 수를 세라.

41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
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
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42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
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니
43 *난 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처음 난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이만 이천이
백칠십삼 명이더라.
44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
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4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이백칠십삼
명 더 많은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47 너는 머릿수대로 오 세겔씩 취
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일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48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49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대속하
는 돈을 받았으니
50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더
라.
51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
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
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 4 장

고핫의 아들들의 의무

1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3 곧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4 고핫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길
일은 이러하니라.
5 ¶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덮는 휘장
을 걷어 내리고 그것으로 증언 궤를
덮고
6 그 위에 오소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전체가 청색인 보자기를 편 뒤에
그것의 막대들을 끼우고
7 또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
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두고
또 항상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두고
8 주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
고 바로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그것의 막대들을 끼우고
9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빛을
발하는 등잔대와 등잔대의 등잔들과
부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및 그들이
등잔대를 위해 사용하는 등잔대의 모
든 기름 기구를 덮고
10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가로 막대
기 위에 두고
11 또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의 막대들을 끼우고
12 또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쓰
는 기구 곧 섬기는 데 쓸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고 가로 막대기 위에
둘지니라.
13 또 그들이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14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

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덮개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의 막대
들을 끼울지니라.
15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
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짐이니라.
16 ¶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의 직무는 등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과 기름 부음
에 쓸 기름을 *맡는 것*이며 또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와 그것
의 모든 기구를 감독하는 것이라.
17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18 너희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족속 가족들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되
19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에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
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 곧 아론
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섬길 일과 나를 짐을
정해 줄지니라.
20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에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
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의무

21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그들
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23 너는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
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24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 섬길
일과 나를 짐은 이러하니
25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
중의 성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것 위에
있는 오소리 가죽 덮개와 회중의 성막
문의 현수막을 나르며
26 또 뜰의 현수막들과 또 성막 옆
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바깥문의
문에 칠 현수막과 그것들의 줄들과
그들이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것들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나를지
니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27 게르손 족속의 아들들이 섬길
모든 일 곧 그들의 모든 짐과 섬기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맡을
모든 짐을 그들에게 책무로 정해 줄지
니라.
28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회
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서 이루어질지니라.

므라리의 아들들의 의무

29 ¶ 므라리의 아들들에 관하여
는 네가 그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
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되
30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중의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31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짐으로
맡은 책무가 이러하니 곧 성막의 널빤
지들과 그것의 가로 막대기들과 기둥
들과 밑받침들과
32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
구와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책무로 맡은
기구들을 이름대로 셀지니라.
33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
다말의 손 밑에서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니
라.

레위 사람들 인구 조사

34 ¶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
머리들이 고핫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
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니
35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
갈 모든 자
36 곧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이천칠백오십 명
이더라.
37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 중에
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
한 자들이더라.
38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
에 따라 계수된 자는
39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
갈 모든 자니
40 곧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
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이천육백삼십 명이더라.
41 이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
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
이니라.
42 ¶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43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하여 섬기러 들어
가는 모든 자니
44 곧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삼천이백 명이더
라.
45 이들은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
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곧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손으
로 계수한 자들이니라.
46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모
든 자 곧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
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한 자
47 즉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중
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섬기며 또
짐을 맡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온 모든
자
48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팔
천오백팔십 명이더라.
49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저마
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으니 곧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에 의해 그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제 5 장

부정한 자들을 격리함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3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
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
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
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4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
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
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죄의 자백과 배상(레6:1-7)

5 ¶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
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7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
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8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돌려줄 수 없거든
그 범법한 것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돌려줄지니 *이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

할 때 쓸 속죄의 숫양 외의 것이니라.
9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
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
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10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
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신실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법

11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
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13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체적으
로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
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
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그런 종류*의*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14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
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
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
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15 그때에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
해 보리 음식 일 에바의 십분의 일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
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
게 하는 헌물 곧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니라.
16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17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
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속에 넣고
18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
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 그녀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
고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
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또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
한 데로 탈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
를 일으키는 이 쓴 물에서 네가 자유로
운 몸이 되리라.
20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이 아닌 다
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네 몸을
더럽혔으면
21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주께서 네 넓적다리를
썩게 하고 네 배를 붓게 하사 너를
네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와 맹세거
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2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네 창
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23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책
에 쓰고 그 쓴 물로 그것들을 지우고
24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
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25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
에서 질투 헌물을 취하여 그 헌물을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 위에 드리되
26 그 헌물 중에서 그것의 기념물
로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
고 그 뒤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27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물을 마
시게 했을 때에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
히고 자기 남편에게 범법한 적이 있으
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부으
며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
가 될 것이니라.
28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씨를 수태하리라.
29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이니 아
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몸을 더럽힌 때나
30 혹은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
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향해 질투하고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울 때에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집행할지니
라.
31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에서 무
죄가 될 것이요, 이 여인은 자기 불법
을 담당하리라.

제 6 장

나사르 사람에 대한 법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3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
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4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
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5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
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
게 할 것이며
6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
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
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
8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9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그가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머리
를 더럽히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10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
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
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죽은
자로 인해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날에 그의 머리
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12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일 년
된 어린양을 가져다가 범법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은즉 이전의 날들은 잃
으리라.
13 ¶ 나사르 사람의 법은 이러하
니라. 그를 구별한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 그는 주께 자기의 헌물을 드리
되 번제 헌물로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평 헌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와
15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 과자와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릴 것이요,
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
져다가 그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17 또 그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숫양과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주께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
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릴 것이니
라.
18 또 나사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
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
헌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
것이며

19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민 뒤에 제사장은 그 숫양의
삶은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사람의 두
손에 두고
20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
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것은 그 흔
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
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
니라. 그 뒤에는 나사르 사람이 포도즙
을 마실 수 있느니라.
21 이것은 서원한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이요, 또 그가 자기를 구별한
것으로 인해 주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이니라. 이 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한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축복 기도

22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
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
되,
24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네게 빛
을 비추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고
26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 7 장

통치자들의 헌물

1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그
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
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
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2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그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
는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라.
3 그들이 가져다가 주 앞에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통치자 두 명에게 수레가
한 대씩이요, 각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에 가져오니라.
4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5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
에게 주되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6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
위 사람들에게 주었더라.
7 그가 게르손의 아들들에게는 그
들이 섬기는 일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주었고
8 므라리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일에 따라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 있게 하였으나
9 고핫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
한 일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기 때문이더라.
10 ¶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
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
를, 통치자들은 각 사람이 맡은 날에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자기의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 ¶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
손이더라.
13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14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15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16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17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더라.
18 ¶ 둘째 날에는 잇사갈의 통치
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드렸는
데
19 그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
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를 헌물
로 드렸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20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21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22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23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드린 헌물이더라.
24 ¶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통치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
는데
25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26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27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28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29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헌물이더라.
30 ¶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통치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
렸는데
31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32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33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34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35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헌물이더라.
36 ¶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
의 통치자인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
엘이 드렸는데
37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38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39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40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41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이 드린 헌물이더라.
42 ¶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통
치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
렸는데
43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44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45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46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47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헌물이더라.
48 ¶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
손의 통치자인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
마가 드렸는데
49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50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51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52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53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헌물이더라.
54 ¶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
의 통치자인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이 드렸는데
55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56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57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58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59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헌물이더라.
60 ¶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
의 통치자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이 드렸는데
61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62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63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64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65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헌물이더라.
66 ¶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통치
자인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
렸는데
67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68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69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70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71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이 드린 헌물이더라.
72 ¶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통치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
렸는데
73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74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75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76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77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헌물이더라.
78 ¶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
의 통치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는데
79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
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
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
고
80 *또* 향이 가득 담긴 십 세겔 나가
는 금 숟가락 하나와
81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한 마리와
82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83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두 마
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다섯 마리더
라.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헌물이더라.
84 이것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드린 제
단의 봉헌물이더라. 은 쟁반이 열두
개요, 은 대접이 열두 개요, 금 숟가락
이 열두 개인데
85 은 쟁반은 각각 무게가 백삼십
세겔이요, 은 대접은 각각 칠십 세겔이
더라. 모든 은그릇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이천사백 세겔이요,
86 또 향을 가득 담은 금 숟가락이
열두 개인데 성소의 세겔에 따라 각각
무게가 십 세겔이더라. 그 숟가락들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겔이더라.
87 또 번제 헌물로 쓸 소로는 수소
가 모두 열두 마리요, 숫양이 열두
마리요, 일 년 된 어린양이 열두 마리
요, 또 그것들의 음식 헌물이 있었으
며 죄 헌물로 염소 새끼가 열두 마리이
고
88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쓸 소로
는 수소가 모두 스물네 마리요, 숫양
이 예순 마리요, 숫염소가 예순 마리
요, 일 년 된 어린양이 예순 마리더라.
이것은 *그들이* 제단에 기름을 바른
뒤에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89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
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
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
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 8 장

등잔 배치(출25:31－40)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네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3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의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
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
었으며 그것의 대에 이르기까지, 그
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
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레위 사람들의 정결례와 봉헌

5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6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
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
라.
7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8 또 그들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그것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취하고
9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10 레위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
게 안수하게 하라.
11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
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12 레위 사람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며
13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
들 앞에 세워 주께 헌물로 드릴지니
라.
14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
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
라.
15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
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니라.
모든 태를 여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
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로 취하였나니
17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거룩히 구별
하였노라.
18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19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게 예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
라엘 자손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
소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
라.
21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22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의 섬기는 일을 행하니
라.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
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저들에게
행하였더라.
23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
러하니 곧 스물다섯 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25 쉰 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되
26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
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
리라.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
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
라.

제 9 장

둘째 유월절(출12:1-20)

1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
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유월절의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3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 달 십사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
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
지니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5 그들이 첫째 달 십사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
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6 ¶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어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7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
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었
거니와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물러나
게 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
데서 그것의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
어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 보리
라, 하더라.
9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11 둘째 달 십사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양*을 누
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12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
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
을 지킬 것이니라.
13 그러나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
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
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것의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
은즉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
니라.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
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
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 한 규례를 취할지니라.

불과 구름(출40:34-38)

15 ¶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
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16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
이 있었더라.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
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18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서 안식하고
19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
라.
20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간 머무
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
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21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
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에 그들이 이동하되 낮
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
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
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
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
동하였으니
23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
라.

제 10 장

두 개의 은 나팔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너는 너를 위해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
을 사용하여 집회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3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에는 온
집회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에서 모여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4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
자들이 모여 네게로 나아올 것이니
라.
5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6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
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7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8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
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
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라.
9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
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
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
리라.
10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
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
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시내에서 떠남

11 ¶ 둘째 해 둘째 달 이십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13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
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
라.
14 ¶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
하고

15 잇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
의 아들 느다네엘이 지휘하며
16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
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17 성막을 걷어 내리매 게르손의
아들들과 므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앞으로 나아갔더라.
18 ¶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
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
하고
19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
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지휘하며
20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
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하였더라.
21 고핫 족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
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22 ¶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
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
데 그의 군대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
마가 지휘하고
23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며
24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
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하였더라.
25 ¶ 단 자손 진영의 군기가 앞으
로 나아갔는데 그 진영은 두루 그들의
군대에서 모든 진영의 후위대더라.
그의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
셀이 지휘하고
26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
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하며
27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
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하였더라.
28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군대대로 이와 같이 이동
하니라.
29 ¶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
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
나이다, 하매
30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
리라, 하니
31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
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
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32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
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
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33 ¶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
흘 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 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34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
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
라.
35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
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
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
고
36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
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
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 11 장

백성이 불평함

1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
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
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4 ¶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5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
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6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7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8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
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찧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
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 맛 같았더라.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10 ¶ 그때에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
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
하지 아니하여
11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
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
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
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12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
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
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네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
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
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14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
이다.
15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
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
서, 하니라.

장로 칠십 인

16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네가 백성
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칠십 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
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
고 네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
지 아니하리라.
18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
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
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너희가 먹게
하시리라.
19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것이 아니
라
20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
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
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21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육십만 명이온
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22 그들을 위해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오며 그들을 위
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족하오리이까? 하매
23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
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
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24 ¶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
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칠십

명을 모아 성막의 주위에 세우매
25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해 칠십 명의 장로들에게 주시
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
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
라.
26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
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더라. 그들 위에 그 영이 머무
니라.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있었
으나 성막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므로
27 한 청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고
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나이다, 하매
28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
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
소서, 하니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
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자신
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0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
영으로 돌아왔더라.

주께서 메추라기를 보냄

31 ¶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
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곧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
서 이 큐빗쯤 되었더라.
32 그 날에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온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가장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을 거두니라. 그들이 자
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
을 다 널리 펼쳐 놓았더라.
33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34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핫다
아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35 백성이 기브롯핫다아와에서 이
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
하니라.

제 12 장

아론과 미리암의 불화

1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
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
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2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
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
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3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
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
더라.*)
4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
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5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
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므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
라.
6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
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7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
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
라.
8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
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
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9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
며 그분께서 떠나시매
10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
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
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11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
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
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13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
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14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
를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
니
15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16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부터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 13 장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보냄
(신1:19–33)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
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
라, 하시니라.
3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
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4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
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5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6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7 잇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8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9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10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11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12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13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이요,
14 납달리 지파에서는 봅시의 아들
나비요,
15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
엘이니
16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
니라.
17 ¶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18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
지, 적은지 많은지
19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
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
인지 강한 요새인지
20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
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21 ¶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
들이 하맛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 광야에서부터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고
22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낙의 아이들인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있더라. (그런

데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 년
먼저 세워졌더라.)
23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
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
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
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
라 불렀더라.
25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사십 일 뒤에 돌아오니라.
26 ¶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
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
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
를 보여 주며
27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
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
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
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
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
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
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
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31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
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
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
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33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
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
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제 14 장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를 거부함

1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
라.
2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
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
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
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3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
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4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
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5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6 ¶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
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8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
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
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
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
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
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함
11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
여 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
냐?
12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
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
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
라, 하시니라.
13 ¶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
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
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14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
이다.
15 ¶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16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
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
다, 하리이다.
17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
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18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
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
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
셨나이다.
19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
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20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
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
으로 충만할 터인즉
22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
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23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
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
요, 또 나를 격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25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
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반역자들에게 죽음이 선포됨
26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27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
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
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
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
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
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
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32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33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
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
라.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
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35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
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
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
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
리라, 하시니라.
36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
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
게 한 사람들
37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
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38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
분네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헛된 침략 시도(신1:41-45)

39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
게 이 말들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
하니라.
40 ¶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
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
다, 하매
41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
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42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
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
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
게 하려 함이라.
43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
기에서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
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44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
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 그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
더라.

제 15 장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법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
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3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에 곧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
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
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4 자기의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올지니
라.
5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
린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예비할 것이요,
6 숫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어 예비하고
7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삼분의
일 힌을 드려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8 네가 번제 헌물로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9 그 수소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
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10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힌을 가
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11 수소 한 마리나 숫양 한 마리나
어린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
게 이같이 행하되
12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 곧 그
들의 수에 따라 각각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13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에 이 관례대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요,
14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
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하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
15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
지니
16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
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17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
희가 들어가거든
19 그 땅의 빵을 먹을 때에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
20 곧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릴지니
라.
21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
에서 너희 대대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비의도적인 죄에 대한 법

22 ¶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
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
되
23 곧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
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
24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온
회중은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
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리고 관례
에 따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을 드리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지니라.
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
받으리니 이는 그 일이 알지 못한 일이
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알
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죄
헌물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26 온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
데 머무는 타국인이 용서받으리라.
27 ¶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일 년 된 암염소를
죄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
28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
를 지을 때에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
29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
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하여 한 법을 적용할지니
라.

자기 뜻대로 행한 죄에 대한 형벌

30 ¶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
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
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
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
니라.
31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
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
로 돌아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

32 ¶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
하고
33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
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34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
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
라.
35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36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
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의복의 술

37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39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
행하곤 하였느니라.
40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
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41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니라.

제 16 장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1 이제 이스할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
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2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
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이백오십
명의 통치자들이더라.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
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
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
려 하느냐? 하매
4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5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
이 나아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6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7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에 주께
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
게 행하는도다.
8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
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9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
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
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10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
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
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
냐?
11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
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

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니라.
12 ¶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
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
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13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
려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네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
려 하느냐?
14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
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5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아뢰
되,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서 나
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
다, 하고
16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아오되
17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
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
로는 이백오십 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매
18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
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
문에 서니라.
19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
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20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1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
키려 하노라, 하시니
22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
나이까? 하니라.
23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
변에서 떠나라, 하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26 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소멸
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27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
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
문에 서매
28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
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
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9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30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
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
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격노하게 하였음을 너
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31 ¶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매
그들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32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
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33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이 산 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34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
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
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
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
라.
35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린
이백오십 명을 소멸시켰더라.
36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7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게 명령하여 그가 불붙는 것 중에서
향로들을 취하게 하고 너는 그 불을
저쪽으로 흩을지니 그것들이 거룩하
게 되었느니라.
38 이 죄인들의 향로들이 그들의
혼을 대적하였은즉 *사람*들이 그것들
을 취해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게 하라. 그들이 그것들을 주 앞
에 드렸으므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
었으니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시니라.
39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향을 드릴 때 사용한 놋 향로들을 취하
여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
어
40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
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론의 씨가 아닌
낯선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가 고라
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
더라.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백성이 또 불평함

41 ¶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
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
였도다, 하고
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
적할 때에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
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43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앞
에 이르렀더라.
44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
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
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매 그들이 얼
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46 ¶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
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
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
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
작되었느니라, 하니
47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
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
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
니 재앙이 그치니라.
49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
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더라.
50 아론이 회중의 성막 문으로 모
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재앙이 그쳤더
라.

제 17 장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남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
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
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열두 개를 취하
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3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
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
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4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
들을 둘지니라.
5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

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
라.
6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
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
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
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열두 막대기더
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7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
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8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
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
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
더라.
9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
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10 ¶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
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
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
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
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
라, 하시니
11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
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
였더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13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이까? 하니라.

제 18 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의무

1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네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
지니라.
2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네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
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
니라.
3 그들은 네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
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
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
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5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
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
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
리라.
6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
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
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7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
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
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제사장을 위한 헌물

8 ¶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의 책무를 네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
로 인하여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에
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노라.
9 이것 즉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
서 불사르지 않고 남겨 둔 것은 네
것이 되리라. 그들이 내게 바칠 그들
의 모든 봉헌물과 모든 음식 헌물과
모든 죄 헌물과 모든 범법 헌물은 너와
네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니
10 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네게 거룩하리라.
11 또 네 것은 이러하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의 거제 헌물이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은즉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12 그들이 주께 드릴 것들의 첫 열매 곧 기름의 가장 좋은 것 전부와 포도즙과 밀의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내가 네게 주었은즉
13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네 것이 되리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가 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14 이스라엘 안에서 전적으로 봉헌된 것은 다 네 것이 되리라.
15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 될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대속할지니라.
16 너는 *난 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네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오 세겔의 돈으로 대속할지니 일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17 그러나 너는 암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은 태워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18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네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가 네 것이 되리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 ¶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요, 네 상속 재산이니라.

레위 사람을 위한 십일조

21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십분의 일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23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24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십일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25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27 *내가* 너희의 이 거제 헌물을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틀의 충만한 것같이 여기리니

28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
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받는 너희의
모든 십일조에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고 그중에서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되
29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
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30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
라. 너희가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
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터인즉
31 너희와 너희 집안사람들이 모
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
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32 너희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을 취해 들어 올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
죄를 떠맡지 말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
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제 19 장

정결하게 하기 위한 법

1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
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
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3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
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4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
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
서 똑바로 그것의 피를 일곱 번 뿌리며
5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
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6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
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7 그 뒤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
갈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
라.
8 그것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을 것이
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
를 거두어 진영 밖의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
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
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
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10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
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
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
가 되리라.
11 ¶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2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
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일
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
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
라.
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
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
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
라.
14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 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니라.
16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
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7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
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
의 재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 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
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
하면 그가 저녁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20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
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21 그것은 그들에게 영속하는 법
규가 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
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거룩
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
지 부정하리라.
22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
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
는 혼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시
니라.

제 20 장

가데스에서 모세가 실수함
(출17:1－7)

1 그때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
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2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
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
니라.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
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
도다!
4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
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
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6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 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
나니라.
7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8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
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
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9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
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
라.
10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
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11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
니라.
12 ¶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
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
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
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
되셨으므로 이것은 므리바의 물이니
라.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토 통과를 거부함

14 ¶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
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
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
니와
15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
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
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
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므로
16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
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
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도시 가데스
에 있사오니
17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
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
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18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
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
라, 하매
19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
되, 우리가 큰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
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20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
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
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
니라.
21 에돔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
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론의 죽음

22 ¶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호르 산에 이르
렀더니
23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옆의 호
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
니라. 이르시되,
24 너희가 므리바의 물에서 내 말
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
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는 내가 이스
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
리라.
25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
리고 호르 산에 올라가
26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
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라.
27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28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
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
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을 위해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 21 장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함

1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
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
라.
2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
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
멸하리이다, 하매
3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
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
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
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놋 뱀

4 ¶ 그들이 호르 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
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
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
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
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
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6 주께서 불 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
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7 ¶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
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
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
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
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8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
라, 하시니라.
9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 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호르에서 모압까지 이동함

10 ¶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
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11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
뜨는 편 광야의 이예아바림에 진을 치
니라.
12 ¶ 그들이 거기서 움직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13 또 거기서 움직여 아모리 족속
의 지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
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
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모
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14 그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에 일
렀으되,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
서 행하였고
15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는 시내들
의 개울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16 그들이 거기서 브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
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17 ¶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
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
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18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
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
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
서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으며
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
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으며
20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
못에서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
의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시혼을 멸함(신2:26－37)

21 ¶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22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
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
지 왕의 큰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
나
23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
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
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우므로
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25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
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
더라.
26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의 도시더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까지 이르는 그의 온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27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
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
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
족들을 소멸시켰도다.
29 모압아,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망하게 되었
도다. 그가 도망한 자기의 아들딸들
을 내주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30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메드
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31 ¶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더라.
32 또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셀
을 정탐하게 하매 그들이 그것의 마을
들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
을 몰아내었더라.

옥을 멸함(신3:1-22)

33 ¶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
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
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라.
34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
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
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35 이처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
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살아남지 아니하게 하
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제 22 장

발락이 발람을 부름

1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2 ¶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3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
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
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4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이 무리
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
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5 그러므로 그가 브올의 아들 발람
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의 브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
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
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
편에 거하노라.
6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
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
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
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7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
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
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
람과 함께 머무니라.
9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
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11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
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
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12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
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
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14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
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15 ¶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
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
늘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
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
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
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
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19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
라, 하더라.
20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과 나귀와 천사

22 ¶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
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
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23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
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24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
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
라.
25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
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
르매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26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
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27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
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28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
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
이 세 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29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
으리라.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 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
니이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
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
라.
31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
시매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
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32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가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이
나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34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
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
나이다, 하니
35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
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
과 함께 가니라.
36 ¶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
락이 나가서 맨 끝 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37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
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
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
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38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
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
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
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39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후
솟에 이르매
40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
과 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에게 보내
니라.
41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매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 부분을 바라보니
라.

제 23 장

발람의 첫째 대언

1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
해 여기에 일곱 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예비
하소서, 하매
2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니라.
3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
게 고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4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
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5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
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6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
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7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
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8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
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
리요?
9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
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
하리로다.
10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
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매
11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
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
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
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12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
까? 하매
13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
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
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 부분
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람의 둘째 대언

14 ¶ 발락이 그를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일곱 제
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니
15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니라.
16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
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
라.
17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섰고 모압
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
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
씀을 하시더냐? 하니
18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
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
다.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
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
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
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
리요?
20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21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
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
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
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22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23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
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
셨느냐! 하리로다.
24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
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
다, 하니라.
25 ¶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
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
라, 하였으나
26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
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
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
이까? 하니라.

발람의 셋째 대언

27 ¶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
로 데려가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28 발락이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브
올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29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일곱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30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행하
여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니라.

제 24 장

발람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예고함

1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
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
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2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

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3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4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
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
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5 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네 장막들
이 얼마나 좋은가!
6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
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7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
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8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
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
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9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
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돋우
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10 ¶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
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
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이나 그들
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11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
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
매
12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
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13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
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
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4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
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 드리리이
다, 하더라.

발람의 넷째 대언

15 ¶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16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
노라.
17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
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笏)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
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
로다.
18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
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19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 있는 자를 멸하리
로다, 하더라.
20 ¶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
리로다.
21 또 그가 겐 족속을 바라보며 비
유를 지어 이르되, 네 거처가 견고하
며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소멸되리니 마침내 앗수르가 너를 포
로로 잡아가리로다, 하고
23 또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때에 누가 살리요!
24 깃딤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하니라.
25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
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
라.

제 25 장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음행함

1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
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
니라.
2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3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
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4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
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5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연
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 ¶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로 오니라.
7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
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
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
라.
9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더라.
10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
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
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
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13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
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
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
리였더라.
16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
들을 치라.
18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
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브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브올
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
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
느니라.

제 26 장

이스라엘의 둘째 인구 조사

1 그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
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
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스무 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
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
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
라, 하니라.
5 ¶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
이니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족속의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
루 족속의 가족과
6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족속의 가
족이니라.
7 이들은 르우벤 족속의 가족들이
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사만 삼천
칠백삼십 명이더라.
8 발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9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
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
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
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
하여 싸우매
10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키므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에 불이 이백오십 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
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2 ¶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의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
긴 족속의 가족과
13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
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족속의 가족이
니라.
14 이들은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로
서 이만 이천이백 명이니라.
15 ¶ 갓 자손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족속의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족속의 가
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족속의 가족
과
16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족속의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족속의 가
족과
17 아롯에게서 난 아롯 족속의 가족
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족속의 가
족이니라.
18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사만
오백 명이니라.
19 ¶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
더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
고
20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
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
속의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
속의 가족이며
21 또 베레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
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족속의 가족이
니라.
22 이들은 유다의 가족들로서 그
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칠만
육천오백 명이니라.
23 ¶ 잇사갈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
라 족속의 가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아
족속의 가족과
24 야숩에게서 난 야숩 족속의 가
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족속의
가족이니라.
25 이들은 잇사갈의 가족들로서 그
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육만
사천삼백 명이니라.
26 ¶ 스불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
렛 족속의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족속의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
엘 족속의 가족이니라.
27 이들은 스불론 족속의 가족들로
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육만 오백 명이니라.
28 ¶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

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9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길에
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이니
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
게서 길르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30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
에셀에게서 난 예에셀 족속의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족속의 가족과
31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족
속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족속
의 가족과
32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족속의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
족이니라.
33 ¶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
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슬로브핫의 딸
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더라.
34 이들은 므낫세의 가족들이니 그
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오만 이천칠
백 명이니라.
35 ¶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족속의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족속의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
한 족속의 가족이며
36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
란에게서 난 에란 족속의 가족이니라.
37 이들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가
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삼만 이천오백 명이니라. 이들
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
들이니라.
38 ¶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
라 족속의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
스벨 족속의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족속의 가족과
39 수밤에게서 난 수밤 족속의 가
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족속의 가족
이며
40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
이더라. 아릇에게서 아릇 족속의 가족
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족속의 가족
이 났으니
41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베냐민의 아들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육백 명이더
라.
42 ¶ 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
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족
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단의 가족들이니라.
43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
른 수함 족속의 모든 가족이 육만 사천
사백 명이더라.
44 ¶ 아셀의 자손들에게서 그들
의 가족대로 난 자가 *이러하니* 임나에
게서 난 임나 족속의 가족과 예수이에
게서 난 예수이 족속의 가족과 브리아
에게서 난 브리아 족속의 가족이며
45 또 브리아의 아들들 중에서 헤벨
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과 말기엘
에게서 난 말기엘 족속의 가족이며
46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47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가족들
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오만 삼천사백 명이더라.
48 ¶ 납달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야세엘에게서 난
야세엘 족속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족속의 가족과
49 예셀에게서 난 예셀 족속의 가
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족속의 가족
이니라.
50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납달리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
수된 자가 사만 오천사백 명이더라.
51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더라.
52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 이들에게 이름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할지
니라.
54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는 상속 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
비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
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
받게 할 것이요,
56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라.
57 ¶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게르
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의 가족과 고
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의 가족과 므라
리에게서 난 므라리 족속의 가족이니
라.
58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러하
니 립니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
의 가족과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59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
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
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
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60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
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61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62 그들 중에서 *난 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모든 남자가 이만 삼천 명이더
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
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준 상속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63 ¶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여
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64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을 계수할 때에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의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65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
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
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의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27 장

상속에 관한 법

1 그때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사대 손인 슬로
브핫의 딸들이 나아오니라. 그의 딸
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말라와 노
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
2 그들이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통치자들
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
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
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4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
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이
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매
5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 앞으로
가져가니라.
6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7 슬로브핫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 재산의 소유
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8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
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9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10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
에게 줄 것이요,

11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
라, 하라.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법
규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됨
(신31:1-8)

12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
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 그 땅을 본 뒤에는 네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14 신 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
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신 광야
의 가데스에 있는 므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15 ¶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16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
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17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
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
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18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
게 안수하고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
게 책무를 주고
20 네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
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22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
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
고
23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
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 28 장

매일 드리는 헌물(출29:38-46)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
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헌물 곧
내 빵을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
라.
3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일 년 되고 점
없는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
4 너는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5 또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음식 헌물
로 드릴지니
6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시내 산에
서 정하신 것이며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니라.
7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사분의 일 힌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8 저녁에는 다른 어린양을 드리되
아침의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같이 너는 그것을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로 드릴
지니라.

안식일 헌물

9 ¶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점 없

는 어린양 두 마리와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10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
제 헌물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
니라.

매월 드리는 헌물

11 ¶ 너희는 너희의 달들이 시작
되는 때에 어린 수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점 없는 어린양
일곱 마리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
되
12 수소 한 마리에는 밀가루 십분
의 삼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
을, 숫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13 어린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십
분의 일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
을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 헌물
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
물로 드릴 것이며
14 그것들의 음료 헌물은 수소 한
마리에 포도즙 반 힌이요, 숫양 한
마리에 삼분의 일 힌이요, 어린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니 이것은 한
해의 달들 내내 달마다 드릴 번제 헌물
이며
15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
라.

유월절 헌물(레23:5－14)

16 첫째 달 십사일은 주의 유월절
이며
17 또 이 달 십오일은 명절이니 이
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18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
일 것이요,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
도 하지 말지니라.
19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두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일곱 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 없는 것으로 취해 주께 번제 헌물
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드릴 것
이며
20 그것들의 음식 헌물은 밀가루
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너희는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드리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며
21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요,
22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숫염
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23 아침에 드리는 번제 헌물 곧 항
상 드리는 번제 헌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24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레 동
안 날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25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니라.

칠칠절 헌물(레23:15－22)

26 ¶ 또 너희의 이레(週)들이 지
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
동도 하지 말지니라.
27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두 마리
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일곱 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28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드리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며
29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요,
30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31 너희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 없는 것으로 취해) 드릴지
니라.

제 29 장

나팔절 헌물(레23:23－25)

1 일곱째 달에는 그 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날은 너희
를 위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2 너희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일곱 마리를 취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3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드리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며
4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마
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요,
5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6 그 달의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고 그것들의 관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예비하
는 희생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속죄일 헌물(레23:26－32)

7 ¶ 이 일곱째 달 십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너희 혼을 괴롭
게 하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8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일곱
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 없는
것으로 취해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9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드리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며
10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요,
11 속죄의 죄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
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장막절 헌물(레23:33－44)

12 ¶ 일곱째 달 십오일에는 너희
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주를 위하여 명절
을 지킬 것이니라.
13 너희는 번제 헌물 곧 불로 예비
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
물을 드리되 어린 수소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양 열네
마리를 너희를 위하여 흠 없는 것으로
취할 것이며
14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열세 마리에는 수소마다 십분의 삼
*에바*를 드리고 숫양 두 마리에는 숫양
마다 십분의 이 *에바*를 드리며
15 어린양 열네 마리에는 어린양
마다 십분의 일 *에바*를 드릴 것이요,
16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17 ¶ 둘째 날에는 너희가 어린 수
소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점 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18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양
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19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20 ¶ 셋째 날에는 수소 열한 마리
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21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양
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22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23 ¶ 넷째 날에는 수소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24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양
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25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26 ¶ 다섯째 날에는 수소 아홉 마
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점
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27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양
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28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29 ¶ 여섯째 날에는 수소 여덟 마
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30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양
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31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32 ¶ 일곱째 날에는 수소 일곱 마
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33 그 수소들과 숫양들과 어린양
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34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35 ¶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엄숙
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6 오직 너희는 번제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일곱 마리를 드리고
37 그 수소와 숫양과 어린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38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
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
라.
39 너희는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에
주를 위해 너희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로 이것들
을 행할지니라.
40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제 30 장

서원에 대한 법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
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
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라.
2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
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3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
지 집에 있을 때에 주께 서원하여 자기
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
데
4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
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

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5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
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
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6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
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
을 때에
7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
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8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
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
라.
9 그러나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
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10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
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에
11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
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
리라.
12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
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
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
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
를 용서하시리라.
13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
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
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14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
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
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
들을 확정하였느니라.
15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
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
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
라.
16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

제 31 장

미디안에 대한 복수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
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네가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
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
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
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4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
파에서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5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넘겨주니 만 이천
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6 모세가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
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

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7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8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다섯 왕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모든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것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노략하며
10 그들이 거하던 그들의 모든 도
시와 모든 좋은 성채를 불로 태우고
11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략한 모
든 것과 탈취한 모든 것을 취하니라.
12 그들이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
략한 것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13 ¶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
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갔다가
14 모세가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15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 두었느냐?
16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
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브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
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
라.
17 그러므로 이제 어린것들 가운
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18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
자를 알지 아니한 모든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지니라.
19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거
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
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할 것이
며
20 너희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21 ¶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러
하니라.
22 오직 금, 은, 놋, 쇠, 주석, 납
등
23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
결하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
게 할 것이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
라.
24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된 뒤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전리품 분배

25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은 빼앗아 탈취한
것 즉 사람과 짐승의 총수를 조사하고
27 그 탈취한 것을 둘로 나누어 전
쟁에 나가 싸움을 했던 자들에게 *주고*
또 온 회중에게 *주며*
28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
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공물로
드리라.
29 또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
을 취하여 주의 거제 헌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30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나 온갖 종류의 짐승의 오십 분의
일 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32 그 전리품 곧 군사들이 취한 탈
취물 중 남은 것은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요,
33 소가 칠만 이천 마리요,
34 나귀가 육만 천 마리요,
35 또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여자가 모두 삼만
이천 명이더라.
36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
의 몫은 수로 세어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며
37 주께 공물로 드린 양이 육백일
흔다섯 마리더라.
38 소는 삼만 육천 마리인데 그중
에서 주께 공물로 드린 것은 일흔두
마리며
39 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인데 그
중에서 주께 공물로 드린 것은 예순한
마리며
40 사람은 만 육천 명인데 그중에
서 주께 공물로 드린 자는 서른두 명이
더라.
41 모세가 공물 곧 주의 거제 헌물
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주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
라.
42 모세가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
서 취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
43 (곧 이제 회중에게 속한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요,
44 소가 삼만 육천 마리요,
45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요,
46 사람이 만 육천 명이더라.)
47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그 절반에
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 분의
일 몫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8 ¶ 군대의 수천을 다스리는 직
무 수행자들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4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이 우리의 책무를 맡은 군사들의 총수
를 조사한즉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50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 패물 곧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
리와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우리의 혼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매
5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
에게서 금 곧 모든 패물을 취한즉
52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주께 드린 헌물의 금이 모두 만 육천칠
백오십 세겔이더라.
53 (군사들이 각각 자기를 위하여
노략하였더라.)
54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서 금을 취
하여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와 주 앞에
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
았더라.

제 32 장

요르단 동쪽에 지파들이 정착함
(신3:12－22)

1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
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3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
온
4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
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
이다, 하고
5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
서, 하니라.
6 ¶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7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
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
냐?
8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
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
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
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10 바로 그때에 주의 분노가 타올
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11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스무 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
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
이니라.
12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
라, 하시고
13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
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14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
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
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15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 다시 그들을 광야
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16 ¶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
아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
되
17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스스로 무장하
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
의 어린것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거할 것이
오며
18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19 우리가 요르단 이편 곧 동편에
서 우리의 상속 재산을 얻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요르단 저편에서나 그
앞에서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20 ¶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
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시므로
22 그 땅이 주 앞에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
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
희 소유가 되리라.
23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
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24 너희는 너희의 어린것들을 위
하여 도시들을 건축하고 너희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하니라.
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
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명령하
시는 대로 주의 종들이 행하리이다.
26 우리의 어린것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거기에 길르앗의
도시들에 두려니와
27 주의 종들은 내 주께서 말씀하
시는 대로 각각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이다, 하매
28 이에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
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에게 명령하니라.

2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각각 무장하
고 너희와 함께 요르단을 건너가 주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
게 되면 너희가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로되
30 만일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가
나안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하니
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응답하
여 이르되,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32 우리가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
나안 땅으로 건너가 요르단 이편에 있
는 우리 상속 재산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게 하리이다, 하매
33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
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주되 곧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땅의 도시들과 주변
에 있는 그 지방의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니라.
34 ¶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35 아드롯과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
와
36 벧니므라와 벧하란과 성벽을 두
른 도시들을 건축하고 또 양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며
37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
레와 기랴다임과
38 느보와 바알므온을 건축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고쳤으며) 또 십마
를 건축하고 자기들이 건축한 도시들
에게 다른 이름을 주었더라.
39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에 가서 그것을 빼앗고 그 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매
40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니 그가 그 안에 거하니
라.
41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것
의 작은 고을들을 빼앗고 그것들을
하봇야일이라 불렀으며
42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것의 마
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그것
을 노바라 불렀더라.

제 33 장

이집트 탈출 여정 회고

1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
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
니라.
2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
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
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3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십오일
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유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
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
으니
4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
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
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
을 집행하셨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움
직여 숙곳에 진을 쳤고
6 숙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7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8 비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
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들어가 마라에
진을 쳤고
9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이르렀
는데 엘림에는 물 샘 열두 개와 종려나
무 일흔 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10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11 홍해에서 움직여 신 광야에 진
을 쳤고

12 신 광야에서 이동하여 돕가에
진을 쳤고
13 돕가에서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
고
14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에 진
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15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
야에 진을 쳤고
16 시내 사막에서 움직여 기브롯핫
다아와에 진을 쳤고
17 기브롯핫다아와에서 떠나 하세
롯에 진을 쳤고
18 하세롯에서 떠나 릿마에 진을 쳤
고
19 릿마에서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
을 쳤고
20 림몬베레스에서 떠나 립나에 진
을 쳤고
21 립나에서 움직여 릿사에 진을
쳤고
22 릿사에서 이동하여 그헬라다에
진을 쳤고
23 그헬라다에서 가서 사벨 산에 진
을 쳤고
24 사벨 산에서 움직여 하라다에
진을 쳤고
25 하라다에서 움직여 막헬롯에 진
을 쳤고
26 막헬롯에서 움직여 다핫에 진을
쳤고
27 다핫에서 떠나 다라에 진을 쳤고
28 다라에서 움직여 밋가에 진을
쳤고
29 밋가에서 가서 하스모나에 진을
쳤고
30 하스모나에서 떠나 모세롯에 진
을 쳤고
31 모세롯에서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고
32 브네야아간에서 움직여 홀하깃
갓에 진을 쳤고
33 홀하깃갓에서 가서 욧바다에 진
을 쳤고
34 욧바다에서 움직여 에브로나에
진을 쳤고
35 에브로나에서 떠나 에시온가벨
에 진을 쳤고
36 에시온가벨에서 움직여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고
37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 산에 진을 쳤더라.
38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
대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
데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가 백이십삼 세였더라.
40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
는 것을 들었더라.
41 그들이 호르 산에서 떠나 살모나
에 진을 쳤고
42 살모나에서 떠나 부논에 진을
쳤고
43 부논에서 떠나 오봇에 진을 쳤
고
44 오봇에서 떠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예아바림에 진을 쳤고
45 이임에서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고
46 디본갓에서 움직여 알몬디블라
다임에 진을 쳤고
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움직여 느
보 앞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고
48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진을
쳤으니
49 그들이 요르단 옆 곧 모압 평야
의 벧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정

50 ¶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
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

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53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
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54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
을 제비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주고 수가 더 적은 *가족*에게
더 적은 상속 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 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
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55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
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
요,
56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
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 34 장

가나안 땅의 경계 규정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이 땅은 너희에게 상
속 재산으로 떨어질 땅이니 곧 가나안
땅과 그것의 지경이라.)
3 너희의 남쪽 영토는 에돔의 지경
옆을 따라 신 광야에서부터며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의 맨 끝
지경이 될 것이요,
4 너희 경계가 남쪽에서부터 아크
랍빔의 올라가는 비탈로 돌아서 신을
지나리니 거기로 가는 길은 남쪽에서
부터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5 그 경계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
집트의 강에 이르고 나가서 바다에까
지 이르리로다.
6 서편 경계로 말하건대 너희가 대
해를 경계로 두리니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되리라.
7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리라.
너희는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너
희를 위해 지정하고
8 호르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
지 너희 경계를 지정하라. 그 경계는
나아가서 스닷에 이르리로다.
9 ¶ 또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고
나가서 하살에난에 이르리니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가 되리라.
10 너희는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
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동쪽 경계를
지정하라.
11 그 지경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의 동쪽 편에 이르고
또 그 경계는 내려가서 동쪽의 긴네렛
해변에 이르며
12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고 나가서
염해에 이르리니 너희 땅과 그것의
주변 지경이 이러하리라.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하여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
아 상속할 땅이니라. 주께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
하셨나니
14 르우벤 자손 지파는 그들의 조
상들의 집에 따라 또 갓 자손 지파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 지파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느니라.
15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동쪽으
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그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느니라.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지도자들

16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17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
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르
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18 또 너희는 상속 재산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 지파마다 통치자 한 명씩

을 취하라.
19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요,
20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
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2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
들 엘리닷이요,
22 단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요글
리의 아들 북기요,
23 요셉 자손의 통치자 곧 므낫세
자손 지파에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
요,
24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25 스불론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26 잇사갈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앗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27 아셀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슬로
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28 납달리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시니
라.
29 이들은 주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 재산
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 35 장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

1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
들에게 도시로 주어
3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
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4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
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
터 밖으로 사방 천 큐빗이 되리라.
5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
시의 밖에서부터 동쪽 편으로 이천
큐빗, 남쪽 편으로 이천 큐빗, 서쪽
편으로 이천 큐빗, 북쪽 편으로 이천
큐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을 위
하여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
라.
6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
들 가운데서 여섯 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
는 그 도시들 외에 마흔두 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7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
게 줄 모든 도시가 마흔여덟 개니 너희
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
도 줄지니라.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
서 취해 도시들을 줄 *때에* 많이 가진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지니
각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는 상속 재산
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레위 사람
들에게 줄지니라.

도피 도시들(신19:1－13)

9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 도
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
라.
12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
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
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13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
에서 여섯 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14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

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15 이 여섯 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16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
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18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
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
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20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
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
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22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
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23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
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24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
에 따라 재판하여
25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
람을* 죽인 자를 건져 내고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28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 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29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
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
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30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31 또 너희는 죽을죄를 진 살인자
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32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
기의 도피 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
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
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34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
라.

제 36 장

여자 상속자의 결혼 규정

1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
앗 자손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
이 가까이 나아와 모세와 통치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아버지
들 앞에서 말하여
2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
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주게 하셨고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
게 주게 하셨나이다.
3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시집
가면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
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
지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비뽑
은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4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이를 때
에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을 받아들
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질 터인
즉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떠나리이다,
하니
5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
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잘 말하였도다.
6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하여 주께
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
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
각하는 사람에게로 시집가려니와 오
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로
만 시집갈지니라.
7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
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
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8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 중에
서 상속 재산을 소유하는 딸은 다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
가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9 그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 속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상속 재산을 지키게 되리로
다, 하니라.
10 슬로브핫의 딸들이 주께서 모세
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1 슬로브핫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
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자기들
의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갔더라.
12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
들들의 가족들에게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의 아버지
가족 지파에 남게 되었더라.
13 이것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
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판단의 법도니라.

반복의 율법이라 하는 모세의 다섯째 책

신 명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율법, 기간: 약 40년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말씀들'(The Words)이라고 불렀다. Deuteronomy는 신명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듀테로노미온'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두 번째 율법'을 뜻한다.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율법을 받았음을 뜻하지 않고 다만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주석이 주어짐을 뜻한다. 한글 성경의 '신명기'는 '명령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라는 뜻으로 신명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회고, 새 땅에서의 이스라엘을 안내하기 위한 교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목적: 신자의 믿음의 시련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며 동시에 현 세대에서의 삶의 원리와 미래의 소망을 알려 주는 것, 내용: 신명기는 시내 산에서 처음에 주어진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새 세대의 출현과 이들이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새 땅의 정복과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이들이 지켜야 할 새 의무의 필요 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여기에서 모세는 새 세대에게 과거에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 번 복습시키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 준다. 잠시 뒤에 그들을 떠날 모세는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진지하게 갈구하면서 잠시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이 율법이야말로 그들이 지켜야 할 순종의 잣대요 또 행복의 열쇠였다. 그래서 모세는 구세대의 불순종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미리 경고를 주며 특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준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궤계를 격퇴시키셨고(마4:1-11) 또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셨다(마22:37). 신약성경의 27권 책 중에서 17권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다. 신명기는 34장, 959절, 28,35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9장(팔레스타인 언약), 핵심 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6:5), 핵심 단어: 1. 순종, 2. 기억하라
핵심 구: "지켜 행하라."(12:1), 신명기의 그리스도: 대언자(18:15-19; 행3:22-23; 7:37), 영적 교훈: "멈추어 서서 기억하라."

제 1 장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이전의 명령

1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곧 바란
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
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
니라.
2 (호렙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세일 산의 길을 따라 열하루 길이니
라.)
3 사십 년째 되는 해 십일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
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는
데
4 이때는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
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죽이고 에드레

이의 아스다롯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을
죽인 뒤더라.
5 모세가 요르단 이편의 모압 땅에
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6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
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
즉
7 돌이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
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8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
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라, 하셨느
니라.

지파들의 치리자들을 임명함 (출18:13-27)

9 ¶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10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
성하게 하셨으므로, 보라, 너희가 이
날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니
11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천 배나 더 많게 하시
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에
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2 그런즉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
의 다투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
랴?
13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
로 삼으리라, 한즉
14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
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로서
는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하니라.
15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
머리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되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과 오십인 대장과 십인 대장과
직무 수행자들로 삼고
16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
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니
라.
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
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
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
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
것을 들으리라, 하였고
18 너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모든
일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
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함(민13)

19 ¶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온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바
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
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
리 족속(族屬)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
나니
21 보라, 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앞에 두셨은즉 주 네 조상들의 하나
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22 ¶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
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
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23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취하매
24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
하고
25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
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
이라, 하였느니라.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
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
의 명령을 거역하며
27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
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
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
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
셨도다.
28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
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 하기에
2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
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
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라.
31 광야에서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
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네 하나님께
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
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라, 하였으나
32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
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신 분이시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형벌
(민14:20-45)

34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
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
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
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
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37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
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
가지 못하리라.
38 그러나 네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
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39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것들과 그 날에 선악
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
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
라.
40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
는 돌이켜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광야
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라.
41 그때에 너희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
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
가 싸우리이다, 하고는 너희 각 사람
이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
게 말하기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도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
하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할
까 염려하노라, 하시기에
43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
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매
44 그 산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이

너희와 싸우러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따라가며 세일에서 너희를 멸하고 호
르마에까지 이르렀으므로
45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들으
려 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46 이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거기
거한 날수대로니라.

제 2 장

광야 유랑 생활

1 그때에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동하여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돌았더니
2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은즉 돌이켜 북쪽으로 가라.
4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
기를,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너희 형
제 곧 에서 자손의 지경을 지나갈 터인
즉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
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고
5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그
들의 땅을 결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 산을 에서
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6 너희는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양
식을 사서 먹고 또 돈을 주고 그들에게
서 물을 사서 마시라.
7 주 네 하나님이 네 손의 모든 일에
서 네게 복을 주었고 네가 이 큰 광야
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 네
하나님이 이 사십 년 동안 너와 함께하
였으므로 네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8 우리가 세일에 거하던 우리 형제
곧 에서 자손을 비켜 지나가고 엘랏과
에시온가벨에서 시작되는 평야 길을
통과할 때에 돌아서 모압의 광야 길로
지나가니라.
9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 족속
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네
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르
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10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
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11 *사람들이* 그들 또한 아낙 족속
처럼 거인으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불렀으며
12 예전에 호리 족속도 세일에 거하
였으나 에서 자손이 그들 앞에서 그들
을 멸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그 땅에 거하였으니 그것은 마치 이스
라엘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자기
소유의 땅에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13 내가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일
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매 우
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은즉
14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삼십팔 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에*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
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15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므
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느니라.
16 ¶ 이처럼 모든 군사가 백성 가
운데서 끊어져 소멸되고 죽은 뒤에
17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18 네가 이 날 모압의 지경인 아르
를 지나리니
19 암몬 자손의 맞은편에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네게 조금도 소유로 주지 아니하
리니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20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
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곳 또한 거인들
의 땅으로 여겼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
을 삼숨 족속이라 불렀느니라.
21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

속처럼 키가 컸으나 주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
속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거하
였으니
22 그것은 마치 그분께서 세일에
거하던 에서 자손을 위하여 그들 앞에
서 호리 족속을 멸하신 것과 같았느니
라. 그들이 호리 족속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이 날까지 거하였으며
23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족속이,
하세림에 거하며 앗사에까지 이른 아
비 족속을 멸하고 그들 대신 거하였느
니라.)
24 ¶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
르논 강을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은즉 그와 전쟁하며 싸워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라.
25 이 날 내가 온 하늘 아래 민족들
로 하여금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
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소문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시혼을 멸함(민21:21－32)

26 ¶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화평의
말로 이르기를,
27 내가 네 땅을 지나가게 하라.
내가 큰길을 따라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 너는 돈을 받고 내게 양식을 팔
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내게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29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
르에 거하는 모압 족속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마침내 내가
요르단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
으나
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
니라. 이 날에 드러난 것과 같이 주
네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겨주시
려고 그의 영을 강퍅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31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시혼과 네 앞에 있는 그의 땅을
네게 주기 시작하였노니 너는 그의
땅을 상속하기 위해 소유하기 시작하
라, 하시니라.
32 그때에 시혼이 자기의 온 백성
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웠는데
33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앞에서 넘겨주시므로 우리가 그와 그
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쳤으며
34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
를 점령하고 각 도시에서 남자와 여자
와 어린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
고 진멸하였으며
35 다만 가축과 또 우리가 빼앗은
도시들에서 노략한 것은 우리의 탈취
물로 삼았느니라.
36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과 그 강
옆에 있는 도시로부터 길르앗에 이르
기까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며 주 우리 하나
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
셨느니라.
37 오직 암몬 자손의 땅과 얍복 강
지역과 산지에 있는 도시들과 또 어느
것이든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하신 것에는 네가 가지 아니하였느
니라.

제 3 장

옥을 멸함(민21:33－35)

1 그때에 우리가 돌아서 바산에 이
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
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니라.
2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
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
지니라, 하시고
3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시매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
라.
4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를
빼앗았으니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
지 아니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느니
라. *그 도시들은* 예순 개며 아르곱의
온 지방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도시들이니라.
5 이 모든 도시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문과 빗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성벽 없는 고을이 매우 많았느
니라.
6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도시들을 진멸하되 각 도시
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진멸하였
으며
7 다만 모든 가축과 그 도시들에서
노략한 것은 우리의 탈취물로 삼았느
니라.
8 그때에 우리가 요르단 이편에 있
던 땅을 아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몬 산
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는데
9 (그 헤르몬을 시돈 사람은 시룐이
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부
르느니라.)
10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야의 모
든 도시와 온 길르앗과 온 바산으로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도시 살가와
에드레이까지니
11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
서 남아 있던 자가 오직 바산 왕 옥뿐이
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 틀은
쇠 침상 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랍바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
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구 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사 큐빗이
니라.

요르단 동쪽 땅을 나눔

12 그때에 우리가 소유한 이 땅 곧
아르논 강 옆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
앗 산의 절반과 그것의 도시들을 내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주었고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나
니 곧 온 바산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방이라. 이곳은 *사람들이* 거인들의
땅이라 부르던 곳이라.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
과 마아가 족속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들을 바산하봇야일
이라 부르니 이 날까지 이르느니라.
15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강까지 골짜
기의 반을 주었는데 그 경계는 암몬
자손의 경계인 얍복 강까지니라.
17 또 평야와 요르단과 그것의 지
경이니 곧 긴네렛에서부터 평야의 바
다 즉 동쪽으로 아스돗비스가 밑의 염
해까지의 지역이니라.
18 ¶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
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사 소유하게 하셨
은즉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무장하
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19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도시들
에 머무르라.
20 마침내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
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
을 주사 마침내 그들 또한 요르단 건너
편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 너희
각 사람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
라.
21 ¶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이 보았거니와 네가 지나가는
모든 왕국에도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
시리니
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막힘

23 그때에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
르기를,
24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
게 보여 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
나 땅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25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
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
되
26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
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
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
면 네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
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28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우며 그를 강건
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 그들로 하여금 네가 볼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 그러므로 우리가 벧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제 4 장

모세가 순종을 명령함

1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
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
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
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2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
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3 주께서 바알브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되
4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 날 모두 살아 있느니라.
5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
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
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
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
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
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
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
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
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8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
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9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네 혼을 지키라. 네 눈이 본 일을 네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평생 동
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
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10 특히 네가 호렙에서 주 네 하나
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
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
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
라, 하셨으므로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
으로 덮였느니라.
12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13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
에게 밝히 보여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
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열
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 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14 ¶ 그때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
사 너희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
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15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
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16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
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
지,
17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
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18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
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
기의 모습이든지 만들까 염려하노라.
19 또 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
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네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
니라.
20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
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 날의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
느니라.
21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
게 분노하사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과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셨은
즉
22 오직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
고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
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소유하리니
2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
를 위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
까 염려하노라.
24 주 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
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5 ¶ 네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
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
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26 내가 이 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
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그
곳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27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
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
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
며
28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29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네
하나님을 찾으면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
라.
30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31 (주 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
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
고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

라.
32 이제 네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
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
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34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
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취하여 낸
적이 있었느냐?
35 그것을 네게 보여 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
36 그분께서 네게 교훈을 주시려
고 너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 자신의
큰 불을 네게 보여 주시매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
었느니라.
37 그분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셨
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
고 나오시며
38 너보다 크고 힘이 강한 민족들
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을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려 하심이 이 날과
같으니라.
39 그런즉 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
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
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40 그런 까닭에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
을 지키라. 그리하여야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네 하나님
께서 영원토록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요르단 동쪽의 도피 도시들

41 ¶ 그때에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세 도시를 구별하였
으니
42 이것은 과거에 미워한 적이 없
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이웃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
며 *그가*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43 즉 *하나는* 광야 곧 평야 지방에
있는 베셀로 르우벤 족속에게 속한 곳
이요, *하나는* 길르앗에 있는 라못으로
갓 족속에게 속한 곳이요, *하나는* 바산
에 있는 골란으로 므낫세 족속에게 속
한 곳이었더라.

하나님의 법 소개

44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둔 율법이 이러하니라.
45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
온 뒤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46 *이것들은* 곧 요르단 이편 벧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말한 것이라.* 그
땅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라.* 모세와 이스
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그
를 쳐서
47 그의 땅과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 거하였더라.
48 *그 땅은* 아르논 강둑 옆의 아로
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 *산*까지
요,
49 요르단 이편 곧 동편의 온 평야
즉 비스가 샘 밑에 있는 평야의 바다까
지니라.

제 5 장

열 가지 명령 복습(출20:1-17)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

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 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
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
니라.
2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
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3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
과 맺지 아니하시고 우리 곧 이 날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
느니라.
4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
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매
5 (그때에 너희가 불로 인해 무서
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 주었노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6 ¶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
라.
7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8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
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
지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
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
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
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
푸느니라.
11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
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하리라.
12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
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13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
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너뿐만 아니
라 네 남종이나 네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15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네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
느니라.
16 ¶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
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
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네가
잘되리라.
17 너는 살인하지 말라.
18 너는 간음하지 말라.
19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20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21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22 ¶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 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두려워함(출20:18－21)

23 (산이 불에 타므로) 너희가 어
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24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
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
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

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 있음을 이 날 우리가 보았나이
다.
25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
다.
26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
까?
27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
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
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
느니라.
28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
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들
이 잘 말하였도다.
29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노라!
30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31 오직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규
와 판단의 법도를 네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32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
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
우치지 말며
33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되
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제 6 장

가장 큰 명령

1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
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2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
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
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3 ¶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
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가 잘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
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
라.
4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5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
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
라.
6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
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7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
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
의 표로 삼으며
9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
지니라.

불순종에 대한 경고

10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
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네
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
들을 네게 주시며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네가 먹고 배부르
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13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
니라.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
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네 하나님
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네 하나
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16 ¶ 너희가 맛사에서 주 너희 하
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
지 말라.
1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게 명령하신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18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
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되
고 주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19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앞에
서 네 모든 원수를 내쫓으리라.
20 이후에 네 아들이 네게 물어 이
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
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
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
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22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
며
23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
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
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24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
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
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
라.
25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제 7 장

선정된 백성(출34:10－16)

1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
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을 내쫓
으실 때에
2 즉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
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3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
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
라.
4 그들이 네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
리라.
5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
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
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6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
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8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
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므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
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
서 구속하셨나니
9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
시되
10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
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11 그런즉 너는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
를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의 복(레26:1-13; 신28:1-14)

12 ¶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
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
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네게 긍휼
을 베푸시리라.
13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네
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
하신 땅에서 네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네 땅의 열매와 네 곡식과 포도
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 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14 네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15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네게서 제
거하사 네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네게 두지 아니하시
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
을 두시리라.
16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넘
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네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17 네가 만일 마음속으로 이르기
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
오? 하거든
18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 네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
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
하라. 주 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써서
너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와 같
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요,
20 또한 주 네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네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
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22 주 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시리
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네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23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까지 강한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며
24 또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겨
주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네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니 마침내 네가
그들을 멸하리라.
25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
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26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
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그
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할
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라.

제 8 장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1 너희는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것을 소유하리라.
2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
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
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
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3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
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
4 이 사십 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5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
하듯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
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6 그러므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7 주 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
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8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9 *또 그곳은* 네가 먹을 빵이 부족하
지 않은 땅이요, 네게 아무것도 모자
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네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10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11 너는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
다.
12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13 또 네 소 떼와 양 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 모든 소유
가 크게 늘어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
서 데리고 나오시며
15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 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
며
16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
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
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17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18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
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
을 이 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
라.
19 네가 만일 주 네 하나님을 완전
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
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
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20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

시는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제 9 장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 회고(출32)

1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날 네
가 요르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며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도시들과
2 크고 키가 큰 백성 곧 네가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리라.
그들에 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
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
요! 하느니라.
3 그러므로 이 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네 하나님은 네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
같이 그들을 멸하사 네 얼굴 앞에 쓰러
지게 하실 터인즉 주께서 네게 말씀하
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4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의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
여 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
느니라.
5 네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네 의나 네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
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
은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6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이 좋은 땅을 소유
로 주시는 것은 네 의 때문이 아니니
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7 ¶ 네가 광야에서 주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
하라. 네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
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였으며
8 호렙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
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
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9 내가 돌 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
로 쓰신 두 돌 판을 넘겨주셨는데 그것
들 위에는 집회의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글이* 기록되었느니라.
11 밤낮으로 사십 일이 끝난 뒤에
주께서 내게 두 돌 판 곧 언약의 돌
판들을 주시고
12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네
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
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13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로다.
14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고 너로부터 그들
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
시기에
15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
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 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16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
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주께서 너희에
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기에
17 내가 그 두 돌 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느니
라.
18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으로 사십 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
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
라.
19 주께서 너희에게 노하사 너희
를 멸하려 하셨을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
하였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20 주께서 또 아론에게 심히 분노
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바로 그때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
고
21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
를 취하여 불로 태워 빻고 아주 작게
즉 티끌같이 작게 갈아 그것의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
라.
22 너희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주의 진노를 일으켰느
니라.
23 또한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
아에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올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
라, 하셨으되 그때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
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
이지 아니하였나니
24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25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
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
처럼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26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
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
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
소서.
27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
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 그 땅 곧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그 땅이 말하기를, 주가 그들
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므로 광야
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까 염려하나이다.
29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
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이로소이다, 하였
노라.

제 10 장

둘째 돌 판들(출34:1-9)

1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아오고
또 너를 위해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2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
3 내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
음 것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서
그것들을 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열 가지
명령을 쓰시되 처음에 쓰신 것 같이
그 판들에 쓰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에
5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는데 주께
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들이 거기
있느니라.
6 ¶ 이스라엘 자손이 야아간 자손
의 브에롯에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
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니라.
7 또 그들이 거기서 이동하여 굿고
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이동하여 욧
바스 곧 물 많은 강들이 있는 땅에
이르렀느니라.
8 ¶ 그때에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주의 언약 궤를 메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사 이 날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9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고
주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시느니라.
10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사
십 일 동안 산에 거하였더니 그때에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11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그들이 내
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
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
하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의 요약

12 ¶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
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
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13 내가 이 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14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네 하나님의
것이나
15 오직 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 날과 같으니
라.
16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17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
요, 주(主)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
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18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
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
느니라.
20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
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 그분은 네 찬양이시요, 네 하나
님이시니 그분께서 네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
셨느니라.
22 이집트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칠십 명이었으나 이제 주 네 하나님께
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
니라.

제 11 장

사랑과 순종은 보상을 받음

1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사랑
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 너희는 이 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
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
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3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
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과 행적들과
4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에 그분께서 홍해 물
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 날까지 이른
것과
5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그분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
게 하사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을 삼키게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
였거니와*

7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날 너희
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
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9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
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10 ¶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
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
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
와
11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을 흡수하는 땅이요,
12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
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 ¶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
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14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네가 네 곡식
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15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
리라.
16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
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는 스스로 조심하라.
17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
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
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18 ¶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
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으며
19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
하라.
20 또 너는 네 집의 문기둥과 네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21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
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22 ¶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23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
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
고
24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
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
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
라.
25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
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26 ¶ 보라, 내가 이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 너희가 만일 내가 이 날 너희에
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
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28 너희가 만일 내가 이 날 너희에
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
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29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
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 복을 두고 에발
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30 그 산들은 요르단 저편 곧 해
지는 곳에 있는 길 즉 길갈 맞은편
모레의 평야 옆 평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1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
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
32 너희는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제 12 장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 지정

1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라.
2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
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3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
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
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4 **주** 너희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고
5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서 택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찾아서
거기로 가서
6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
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의 서원 헌물과 너희의
자원 헌물과 너희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낳은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
고
7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즉 **주** 네 하나님께
서 네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8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 날 여기에
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9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
시는 안식과 상속 재산에 너희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
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상속하
게 하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곧 그분
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너희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게 하사 너희가 안전히 거하게 될 때에
11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
가 주께 서원하는 최상의 모든 서원
헌물을 가지고 가서
12 너희와 너희 아들딸들과 남종
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
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할지니* 그는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
이 없느니라.
13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보
는 모든 곳에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14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네게 명령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네 하나님
께서 네게 주신 복에 따라 네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네 모든 성문
안에서 *그것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수노
루와 수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
니와

16 오직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7 ¶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
름의 십일조와 네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낳은 것과 네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네 자원 헌물과 네 손의
거제 헌물을 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18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네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19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땅에 사
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지니
라.
20 ¶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
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뒤에 네
혼이 고기를 먹고자 하므로 네가 이르
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고기를
먹어도 되리라.
21 만일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주께서 네게 주신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에서 잡아 네 혼이 무엇을 원하
든지 네 성문 안에서 먹되
22 수노루와 수사슴을 먹듯이 그
것들을 먹으며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그것들을 먹으려니와
23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
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네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24 너는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25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자손들이
잘되리라.
26 오직 너는 네게 있는 거룩한 것
들과 네 서원 헌물을 주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 너는 네 번제 헌물 곧 그 고기와
피를 주 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릴
것이요, 네 희생물의 피는 주 네 하나
님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
니라.
28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을 지키고 들으라. 이로써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되리라.

거짓 신들을 조심하라

29 ¶ 네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끊어 버리
시므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에
30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
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
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
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
라.
31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
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
니라.

제 13 장

배도의 형벌

1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
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네게 보이
고
2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
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네가 알
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3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

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
니라.
4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
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5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
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
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며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걸으라고 명령하
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네 한가
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6 ¶ 네 형제나 네 어머니의 아들이
나 네 아들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네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네 친구가 은밀
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 곧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
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8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 주지 말며
9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10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네 하나님으로
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11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12 ¶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신 네 도시들 중 하나에서
네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13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
리알의 자손들이 나가서 자기들 도시
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
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부지
런히 물어보되, 보라, 그것이 사실이
며 그 일이 확실하여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15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
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16 또 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략
물을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모으고
주 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곳
의 모든 노략물을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 더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17 *너는* 저주받은 물건에 조금도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네
게 긍휼을 베푸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
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니
18 곧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
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주 네
하나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그와 같이 하시리라.

제 14 장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애곡

1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
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너희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2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먹을 수 있는 짐승(레11)

3 ¶ 너는 어떤 가증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4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 수사슴과 수노루와 회갈색 사슴

과 들염소와 큰 영양과 들소와 영양이
니라.
6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서 갈라
진 조각이 두 개의 발톱 속으로 들어가
고 되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다 너희가
먹을지니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산토
끼와 토끼라. 그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나니 그러므
로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
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
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의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9 ¶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
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지느러미
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
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11 ¶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
으려니와
12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
수리와
13 새매와 솔개와 대머리수리 종
류와
14 모든 까마귀 종류와
15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16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와 백
조와
17 펠리컨과 수리와 가마우지와
18 황새와 왜가리 종류와 댕기물
떼새와 박쥐라.
19 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
은 다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 것이나
20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느니라.
21 ¶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먹
지 말지니라. 너는 네 성문 안에 거하
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
나 이방 사람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십일조 원리

22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네 씨
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
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를 먹고 또 네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
셨을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네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네게 너무 길어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
실 곳으로 가서
26 네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
이나 독주나 네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
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서 네가 먹고 너와 네 집안이 기뻐할지
니라.
27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
라.
28 ¶ 너는 삼 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29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
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 장

면제년 규정
(출21:1－11; 레25:1－7)

1 너는 칠 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
지니
2 면제의 관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꾸어 주는 채권
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
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니라.
3 외국인에게는 네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네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네 손으로 면제하되
4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네게 큰 복을
주시리니
5 오직 네가 주의하여 주 네 하나님
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6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나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되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함

7 ¶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
지 네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강퍅하
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네 손을 접지 말며
8 그에게 네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꾸어 주라.
9 *너는* 조심하여 네 악한 마음속에
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
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
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
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노예에 대한 규정

12 ¶ 네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서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일곱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13 네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떼에서와 *타작*마당에서
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때에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
라.
15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네게 명령하노라.
16 그가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
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네게 이르기
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
라, 하거든
17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
원히 네 종이 되리니 너는 네 여종에게
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18 그가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길
때에 품꾼의 두 배의 가치가 있었은즉
너는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
게 할 때에 그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

라.

처음 태어난 짐승에 관한 규정

19 ¶ 너는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
서 나오는 처음 난 모든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네 하나님께 드릴지니 곧
네 수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며
20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즉 주 네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너와 네 집안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것 안에 흠이 있어서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네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22 네 성문 안에서 그것을 먹되 부
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수노루와 수사
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니와
23 오직 그것의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 16 장

유월절

(출12:1－20; 23:14－19; 34:18－26)

1 아빕 월을 준수하여 주 네 하나님
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빕 월에 주
네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 떼와
소 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
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네 하나
님께 유월절 어린양을 희생물로 드리
되
3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
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네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 이레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내에
서 누룩 있는 빵이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때에 네가
희생물로 드린 고기 중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온밤이 지나도록 남겨 두지
말며
5 유월절 어린양을 주 네 하나님께
서 네게 주시는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6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에 해
질 때에 거기서 드리며
7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돌아서서
네 장막들로 갈 것이니라.
8 너는 엿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네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이며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칠칠절

(레23:15－21; 민28:26－31)

9 ¶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이레를
셀지니 네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
는 때로부터 일곱 이레를 세기 시작하
여
10 주 네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되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주 네 하나님께 바치는 네 손의
자원 헌물을 공물로 드려서 지키고
11 너와 네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
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주 네 하나님께
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
니라.
12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너
는 기억하고 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
지니라.

장막절

(레23:33－43; 민29:12－40)

13 ¶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을 거
두어들인 뒤에 이레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14 너와 네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
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네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15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

레 동안 주 네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16 ¶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17 각 사람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공의롭게 재판해야 함

18 ¶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네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네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
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
라.
19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
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
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
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
리라.
21 ¶ 네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22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
시느니라.

제 17 장

여러 가지 규정

1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
나 양은 주 네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
지 말라. 그것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
한 것이니라.
2 ¶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주 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
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것에게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4 *어떤 이가*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고 부지런히 물어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확실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가증한 일
이 이루어졌으면
5 너는 그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
나 그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되
6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
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
지 말 것이며
7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
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8 ¶ 네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
에 네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네 하나님께
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
9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네게 보여 주리
라.
10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
들이 네게 보여 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네게 알려 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칠 법의 판
결에 따라 그들이 네게 알려 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여
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
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12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

고 거기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
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
거할지니라.
13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
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왕에 대한 규정

14 ¶ 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같이 나를 다스
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15 반드시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
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
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
니라.
16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馬)
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
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
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17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
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18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
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
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
로 한 권 필사하여
19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
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
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
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
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
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
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제 18 장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몫

1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몫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2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형제들 가
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3 ¶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리는 자
들 곧 백성에게서 마땅히 받을 것은
이러하니 희생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들이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
게 줄 것이요,
4 또 네가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의 첫 열매와 네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5 이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으
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6 ¶ *마음에* 온갖 소원을 둔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가 머물던 곳 즉 온
이스라엘의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에
서 나와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르면
7 그는 거기서 주 앞에 서는 자기의
모든 레위 사람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것이
요,
8 그들은 자기의 상속 재산을 팔아
서 생기는 것 외에도 먹기 위한 것으로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 것이니라.

악한 풍습을 피해야 함

9 ¶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
지 말며
10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11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
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
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
라.
12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주 네 하나님께 대해 완전
할지니라.
14 네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너에 관하여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와 같은 대언자

15 ¶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
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
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니라.
16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네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
니 곧 네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
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17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
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
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19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
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20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
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
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
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22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
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
지니라.

제 19 장

세 개의 도피 도시
(민35:9－28)

1 주 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
버리시고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에
2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네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세 도시를 구별하며
3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
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
하게 할지니라.
4 ¶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
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5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도끼*머
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
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
여 살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
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
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세 도시를
구별하라, 하노라.

8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시고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네게 주시든지
9 혹은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지키고 행하며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 세
도시 외에 세 도시를 더하여
10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
산으로 주시는 네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네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
라.
11 ¶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
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
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12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13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네가 이스라엘에
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되리
라.

상속 유업의 경계

14 ¶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네
상속 재산이 될 네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네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증인에 대한 법

15 ¶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
니라.
16 ¶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
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17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
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
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
였거든
19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
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
할지니라.
20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
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
라.
21 네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
니라.

제 20 장

전쟁에 대한 규정

1 네가 나가서 네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
오신 **주**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
느니라.
2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
아, 들으라. 너희가 이 날 너희 원수들
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
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시니라, 할지니라.
5 ¶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
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
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
할까 염려하노라.
6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7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
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할까 염려
하노라, 하고
8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낙심하
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
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
라, 하라.
9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기를 마친 뒤에 군대의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할지니라.
10 ¶ 네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
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11 만일 그 도시가 네게 화평의 회
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게 조공
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
요,
12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히 지
내려 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
것이며
13 주 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네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치고
14 오직 여자들과 어린것들과 가
축과 그 도시의 모든 것 즉 그 도시에
서 노획한 모든 것은 네게로 취할지니
너는 네 원수들에게서 노획한 것 즉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을 먹을
지니라.
15 네게서 멀리 떨어진 모든 도시
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도시
들에게는 네가 이같이 행하려니와
16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
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서
는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 두지
말지니라.
17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
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
멸할지니
18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
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
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19 ¶ 네가 어느 도시를 빼앗으려
고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것과 싸움을
할 때에 도끼를 써서 그곳의 나무들을
멸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들의 나무가
사람의 생명이니) 너는 그것들을 베
어 내어 에워싸는 데 이용하지 말지니
라.
20 오직 네가 알기에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들은 네가 멸하고 베어 내어
너와 싸우는 그 도시를 향한 보루로
만들어 그 도시를 정복할 때까지 *쓸지
니라*.

제 21 장

해결되지 않은 살인의 처리 규정

1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소유
하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죽어서 들에
쓰러진 자를 발견했으나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지 못하거든
2 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아가
서 죽임 당한 자의 사방에 있는 도시들
까지의 거리를 잴 것이요,
3 그 죽임 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
운 도시 곧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았고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
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4 그 도시의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
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
를 끌고 가서 거기서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칠 것이니라.
5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가
까이 올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

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
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6 그 죽임 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
운 그 도시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
에서 머리가 잘린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7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8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
임으로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들이
그 피에 대해 용서받으리니
9 너는 이와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지니라.

포로 여인에 대한 규정

10 ¶ 네가 나아가서 네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
을 네 손에 넘겨주시므로 네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뒤에
11 포로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
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려는 소원이
있어서 그녀를 네 아내로 삼고자 하거
든
12 그녀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
요, 그녀는 자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
여 한 달 동안 애곡할지니 그 뒤에
네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의 남편
이 되고 그녀는 네 아내가 되리라.
14 그 뒤에 만일 네가 그녀를 기뻐
하지 아니하거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
였은즉 그녀를 상품취급하지 말지니
라.

맏아들의 상속 권리

15 ¶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
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
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
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
이거든
16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
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
다 앞세우지 말고
17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
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
가 그에게 있느니라.

반역하는 아들에 대한 규정

18 ¶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
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
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거든
19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
게 나가
20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
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
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
정뱅이라, 하거든
21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하리라.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에 대한 규정

22 ¶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
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날에 그를 묻어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제 22 장

여러 가지 윤리 법
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다시 줄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그것을 되돌려줄지니
3 그의 나귀도 그리하고 그의 의복
도 그리하며 네 형제가 잃어버렸으나
네가 발견한 것 즉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그리하고 너는 숨지 말라.
4 ¶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
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5 ¶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6 ¶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네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 새와 새끼
를 함께 취하지 말고
7 어미 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
를 취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8 ¶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피가 네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
9 ¶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네
가 뿌린 네 씨의 열매와 네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10 ¶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11 ¶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12 ¶ 너는 너를 위해 네 몸을 덮는
데 쓰는 네 의복의 네 귀에 술을 만들
지니라.

성적 윤리에 대한 법
13 ¶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간 뒤에 그녀를 미워하
여
14 그녀를 비방하는 말을 만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
라, 하면
15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
니는 그 젊은 여자가 처녀임을 보여
주는 표들을 취하여 성문에 있는 도시
의 장로들에게로 가지고 가서
16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
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그녀를 미워하
며
17 그녀를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이르기를, 내가 네 딸이 처녀임을 보
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보라, 내
딸이 처녀임을 보여 주는 표들이 이것
이라, 하고 그들이 그 옷을 도시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니
18 그러면 그 도시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붙잡아 징계하고
19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
을 씌운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서 은
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
의 아버지에게 줄지니라.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지니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20 그러나 이 일이 참되어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임을 보여 주는 표들이
없거든
21 그들이 그 젊은 여자를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
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 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
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
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지니라.
22 ¶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
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
니라.
23 ¶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
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
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25 ¶ 그러나 만일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강제
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젊은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
하지 말지니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음
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치려고 일어
나서 그를 죽인 경우와 같으니라.
27 그가 들에서 그녀를 만났으므
로 그 정혼한 젊은 여자가 소리 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
28 ¶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29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
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평생
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30 ¶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를 취하여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어내지 말지니라.

제 23 장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1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
리라.
2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심지어 십 대에 이르기
까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
지어 십 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4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서 브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
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네 하나님
께서 너를 사랑하셨으므로 주 네 하나
님께서 발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시고 주 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키사 네게 복이 되게 하셨나니
6 너는 네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이
나 형통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지니
라.
7 ¶ 너는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
지 말라. 그는 네 형제니라. 너는 이집
트 사람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 너는
그의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8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그들의
삼 대째에 주의 회중에 들어올지니라.

진영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함

9 ¶ 군대가 네 원수들을 치러 나아
갈 때에 너는 모든 사악한 일을 하지
말지니라.
10 ¶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
에 우연히 생긴 부정함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거든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이
요,
11 저녁때에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진 뒤에 진영에 다시 들어올지니라.
12 ¶ 너는 또한 진영 밖에 한 장소
를 두고 거기로 밖으로 나아가되
13 네 무기 위에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 밖에서 네 몸을 편하게 할 때에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네게
서 나오는 것을 덮을지니

14 이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건
져 내시고 네 원수들을 네 앞에서 넘겨
주시려고 네 진영 한가운데서 거니시
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네 진영은
거룩할지니라. 그리하면 네게서 부정
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 가지 법

15 ¶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네게
로 도망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겨주
지 말고
16 그가 네 성문들 중 하나에서 가
장 좋아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거기서
너와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말지니라.
17 ¶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
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
에 남색 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18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
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네 하나님
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19 ¶ 너는 네 형제에게 꾸어 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
어 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
라.
20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 주고 이
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네 형제에게는
꾸어 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
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21 ¶ 네가 주 네 하나님께 서원하
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 하지 말지
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22 그러나 네가 서원을 하지 아니
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
라.
23 너는 네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
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헌물은 주 네
하나님께 네가 서원하여 네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24 ¶ 네가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
어갈 때에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
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
요,
25 또 네 이웃의 베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에 네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네 이웃의 베지 않은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 24 장

이혼에 대한 법

1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
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
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
요,
2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3 그런데 나중의 남편도 그녀를 미
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의 남편이 죽었으면
4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
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
게 할지니라.

여러 가지 법

5 ¶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
거든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집에서 자유롭게
거하며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 ¶ 아무도 맷돌의 아래 판이나
위 판을 담보 잡지 말라. 그가 한 사람
의 생명을 담보 잡느니라.
7 ¶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라. 너는 너희 가운
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8 ¶ 너는 나병에 대해 조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
칠 모든 것에 따라 부지런히 지키고
또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9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주
네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
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10 ¶ 네 형제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네게 줄 것이며
12 그 사람이 가난하거든 너는 그
의 담보물을 가진 채 잠을 자지 말고
13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
리니 그 일이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네게
의가 되리라.
14 ¶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네
형제든지 네 땅의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의 품삯을 그가 *일한* 날에 주
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말게 할지니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에 마음을
두느니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16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
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17 ¶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
18 오직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노
예였던 것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지니 그
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19 ¶ 네가 네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 단 하나를 밭에서 잊어버렸
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
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
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
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20 네가 네 올리브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거둔
뒤에 나중에 그 남은 것을 주워 모으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22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
라.

제 25 장

재판에 대한 규정

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
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2 사악한 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거든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따라 정한 수효대로
자기 얼굴 앞에서 때리게 할지니라.
3 마흔 대까지는 때리게 하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
을 넘겨 많은 매로 그를 이보다 더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비천한 자로
여길까 염려하노라.
4 ¶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죽은 형제의 씨를 일으키기 위한 규정

5 ¶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
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6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
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
든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
로들에게로 올라가 말하기를, 내 남
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
제에게 이름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
여 내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 그의 도시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
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하며 말하기를, 그녀를 취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
라, 하거든
9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
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
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
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10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
니라.

여러 가지 법

11 ¶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건져 내려고 가까
이 가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붙잡거든
12 너는 그녀의 손을 자를 것이요,
네 눈이 그녀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
라.
13 ¶ 너는 네 가방에 서로 다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14 네 집에 서로 다른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며
15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
를 두고 완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
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리니
16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
곧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함

17 ¶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
하라.
18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
하고 피곤할 때에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
느니라.
19 그러므로 주 네 하나님께서 네
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
는 땅에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
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네 모든 원수로
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에 너는 아말렉
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
니라.

제 26 장

첫 열매와 십일조 헌물

1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
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2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
는 네 땅에서 네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네 하나님께
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
3 그 당시의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
게 이르기를, 내가 이 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
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
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
이요,
4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5 너는 또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말하
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

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
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6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하므로
7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
받는 것을 보시며
8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9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
다.
10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
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
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네 하나
님 앞에 두고 주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 주 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
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12 ¶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 드리
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
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네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3 그때에 너는 주 네 하나님 앞에
서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들
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
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
다.
14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
지 아니하고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사오니
15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
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
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

특별한 백성

16 ¶ 이 날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네 마음
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
고 행하라.
17 네가 이 날 주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
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를 지키
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확언하였고
18 주께서도 네게 약속하신 대로
이 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네가 자신의 모든 명령
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은즉
19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
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되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
리라.

제 27 장

돌에 새겨진 율법

1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
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지니라.
2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네 하나
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3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리라.

4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거든 너는 내가 이 날 너희에게 *세우라*
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
고 그것들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5 또 거기서 주 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네 하나님
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네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며
7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
니라.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
라.
9 ¶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
울이라. 이 날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니
10 그러므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이 날 네게 명령
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행할지니
라.

에발 산에서 저주를 말함

11 ¶ 모세가 바로 그 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되,
12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
들 곧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
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13 이들 곧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
하여 에발 산에 설지니라.
14 ¶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
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이르
기를,
15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
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
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
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
라.
19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
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
멘, 할지니라.
20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
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
낸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1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그것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2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
이나 어머니의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
은, 아멘, 할지니라.
23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는 저
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4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
은, 아멘, 할지니라.
25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
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28 장

순종의 복
(레26:1－13; 신7:12－24)

1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
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2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3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서도 복을 받으며
4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 떼가 복을 받고
5 네 바구니와 네 쌓아 둔 것이 복을
받으며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7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
수들을 네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
라.
8 주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내리
시고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9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
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
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10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
워하리라.
11 또 주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
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
를 위해 재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12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네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13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
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
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14 너는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의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
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불순종의 저주(레26:14－46)

15 ¶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
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16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17 네 바구니와 네 쌓아 둔 것이
저주를 받고
18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 떼가 저주를
받으며
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
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 네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
여 네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
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
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21 주께서 네게 역병이 붙게 하사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22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
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3 또한 네 머리 위의 네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24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네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
이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
라.
25 주께서 너로 하여금 네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26 네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

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으리라.
27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
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28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마음의 놀라는 것으로 치시
리니
29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
요, 네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
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30 네가 아내와 정혼하나 다른 사
람이 그녀와 함께 누우며 네가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네가
포도원을 세우나 그것의 포도를 거두
지 못하며
31 네 소를 네 눈앞에서 잡으나 네
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네 나귀를 네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네 양들을 네 원수들에게
빼앗길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 줄 자가
네게 없으리라.
32 네 아들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네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
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네 손에
힘이 없으며
33 네 땅의 열매와 네 모든 수고*의*
*열매*를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34 이러므로 네가 볼 것 즉 네 눈으
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
라.
35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로 네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네 발바닥
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36 주께서 너와 또 네가 네 위에
세울 네 왕을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네
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37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
게 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38 네가 많은 씨를 들에 가져갈지
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으므로 적게
거두며
39 네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
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으므로 포도즙
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40 네 모든 지경 내에 네게 올리브
나무가 있을지라도 네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므로 네가 기름을 네 몸에 바르
지 못하리라.
41 네가 아들딸들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가 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42 네 모든 나무와 네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 치우며
43 네 안에 거하는 타국인은 너보
다 훨씬 높게 되고 너는 매우 낮게
되며
44 그는 네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
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45 또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네
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
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
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 그것들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
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47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네가 기
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네 하나님
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48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기되 주리고 목마르
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 멍에를 네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49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
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50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
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
리라.

51 그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
름이나 네 암소의 번식이나 네 양 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
라.
52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
워싸고 마침내 네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네 온 땅에서 헐며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온 땅의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53 네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
고 *너를* 에워싸며 곤경에 빠뜨릴 때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몸의 열매 곧 네 아들딸들의 살을 먹으
리라.
54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유순하
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기
자식들 중의 남은 자들에게 눈을 악하
게 뜨고
55 자기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
을 그들 중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리
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에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56 또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
한 부녀 곧 연약하고 유순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 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딸
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57 또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
린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뜨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에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
하고 이로써 주 네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
지 아니하면
59 주께서 네가 당할 재앙과 네 씨
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
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60 또한 그분께서 네가 두려워하
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
다가 네 몸에 붙게 하시며
61 또 주께서 이 율법 책에 기록되
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네가 멸망하리로
다.
62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
을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적으리라.
63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
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
를 기뻐하시리니 네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
라.
64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
리니 네가 거기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65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평
안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
을 주시리니
66 네 생명이 네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네가 밤낮으로 두
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
라.
67 네가 두려워하게 될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게 될 것 즉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
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68 또 주께서 너를 배에 실어 전에
내가 네게 말한 길 곧,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또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을 통해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시

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
게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릴 터이
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 29 장

모압에서 언약을 새롭게 함

1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
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
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2 ¶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
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눈앞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 곧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을 네 눈이 보았느니라.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 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 내가 사십 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
지 아니하고 네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
였으며
6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7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치려고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
고
8 그들의 땅을 취하여 르우벤 족속
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나니
9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
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
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10 ¶ 이 날 너희 즉 너희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서되 곧 너희
지파들의 대장들과 장로들과 직무 수
행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11 너희의 어린것들과 아내들과
네 진영에 있는 나그네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가
섰나니
12 이것은 네가 주 네 하나님과 함
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또 주 네
하나님께서 이 날 너와 맺으시는 그분
의 맹세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며
13 또 그분께서 전에 네게 말씀하
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친히 오늘 너
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친히 네게 하나님이 되고
자 하심이니라.
14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
와만 맺지 아니하고
15 이 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또한 이
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
도 맺나니
16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어
떻게 거하였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
지 너희가 알며
17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
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 즉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
니라.)
18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
족이나 지파가 이 날 주 우리 하나님으
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
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
까 염려하노라.
19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
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
리니
20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
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
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시고
21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22 그리하면 너희 뒤에 일어날 너
희 자손들에게서 나올 세대와 먼 땅에
서 오는 타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신 질병들을 보며
말하기를,
23 거기의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
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
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
다, 할 것이요
24 심지어 모든 민족들이 말하기
를, 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 큰 분노의 열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리니
25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것은* 그들이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
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26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
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라.
27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
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28 또 주께서 분노와 진노와 큰 격
노 중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
사 다른 땅에 던져 버리심이 이 날과
같다, 하리라.
29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
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
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
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30 장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축복

1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주 네 하나
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2 너와 네 자손들이 주 네 하나님께
로 돌아와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3 주 네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
아가게 하실 것이요,
4 네게 속한 자 중의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5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네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
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네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6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네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
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가 살게 하시며
7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두시리니
8 네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
하고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9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의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네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되게 하시리라.
10 다만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네 마음
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께
로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하라

11 ¶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12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
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
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
요,
13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
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
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
리라.
14 오직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
라.
15 ¶ 보라, 내가 이 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 그런즉 내가 이 날 네게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
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
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
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
면
18 내가 이 날 너희에게 선언하나
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네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19 내가 이 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
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20 그리하면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
은 네 생명이시요, 또 네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네가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제 31 장

새 지도자 여호수아
(민27:12－23)

1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2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날 백이십 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
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
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 주 네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
게 하시리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4 주께서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5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
워하지 말라. 주 네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
하시리라, 하니라.
7 ¶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
라. 네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
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
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8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칠 년마다 공개적으로 율법을 읽어야 함
9 ¶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 궤를 메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에게 넘겨주고
10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칠
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의 엄숙한
때에 장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
라.
12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
들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13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
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
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고함

14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죽어야 할 날들이 다가오
나니 여호수아를 불러 회중의 성막 안
에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책무를 주리라, 하시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회중의 성막
안에서 자신들을 보이매
15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성
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성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16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
와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
게 될 자들의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17 그리하면 그 날에 내 분노가 그
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
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 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
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리라.
18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
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
라.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
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
로 맹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
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격노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21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
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
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22 ¶ 그러므로 바로 그 날에 모세
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
에게 가르쳤더라.
23 그분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
한 땅으로 데려가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24 ¶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
을 끝낸 뒤에
25 주의 언약 궤를 메는 레위 사람
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 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

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 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
가 지금까지 주께 거역하였거늘 하물
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28 ¶ 너희 지파들의 모든 장로들
과 너희 직무 수행자들을 내게로 모으
라.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리라.
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
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마지막 날
들에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하
니라.

모세의 노래

30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제 32 장

1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
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2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
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
리니
3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
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4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
바르시도다.
5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
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
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
다.
6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
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
냐? 그분은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7 ¶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의 햇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
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보여 줄 것이
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8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
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9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10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
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
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
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업는 것 같이
12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13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
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
을 빨게 하시고
14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숫양과 염소
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15 ¶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
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16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
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17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
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

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
도다.
18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19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격노케 하였기 때문이
라.
20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
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
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22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
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
들도 불붙게 하리라.
23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무더기
로 쌓으며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쏘리
로다.
24 그들이 굶주림으로 불타며 뜨
거운 열기와 쓴 파멸로 삼켜지리로
다. 또 내가 짐승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25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두려
움이 청년과 처녀와 젖먹이와 백발노
인까지 멸하리로다.
26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구
석구석으로 흩어 사람들 가운데서 그
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27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였노
라. 그들의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
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높은 까닭이
요,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
였다, 할까 염려하였노니
28 그들은 분별없는 민족이며 그
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29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
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
을진대 어찌 한 사람이 천 명을 뒤쫓으
며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하게 하리
요?
31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
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33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
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34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 속
에 밀봉된 채 있지 아니한가?
35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
이 속히 일어나리라.
36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
판하시며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
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신
의 종들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
기 때문이라.
37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
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 그들의 희생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음료 헌물의 포도즙을 마신
자들 곧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 낼 자가 없도다.
40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
니

41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
응하리라.
42 내가 내 화살들로 하여금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로 하여금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그 원수에게 복수하
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 당한 자들과
포로 된 자들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하시리로다.
43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
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
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44 ¶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라.
45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
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
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모세가 느보 산에서 죽게 됨

48 바로 그 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
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네가 올라가는 산에서 네가 죽어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51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므리바가
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
데서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여 이스라
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52 네가 네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
기는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게 주는 땅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
리라, 하시니라.

제 33 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

1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
이 이러하니라.
2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
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
며 바란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
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 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3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
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
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5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
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6 ¶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
노라.
7 ¶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
라. 그가 이르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
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오시며 또 그의 손이 그에게 충분
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사
그가 그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
소서.
8 ¶ 레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
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
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의 물
들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9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
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
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10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
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
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11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치려
고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2 ¶ 베냐민에 관하여는 그가 이
르되,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
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13 ¶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
되, 원하건대 그의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밑에
누운 깊음과
14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
이 내는 귀한 것과
15 옛 산들의 으뜸가는 것과 오래
지속되는 작은 산들의 귀한 것과
16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
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
신 뜻을 내리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 그의 영광은 그의 수소의 첫 새
끼 같으며 그의 뿔들은 유니콘들의
뿔들 같도다. 그가 이 뿔들로 백성을
함께 밀어내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
니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므낫세의 수천이로다.
18 ¶ 스불론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
되, 스불론이여,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네 장막들을 기
뻐하라.
19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
게 하고 거기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리
니 그들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진 보물을 빨아들이리라.
20 ¶ 갓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의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21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첫 부분을
예비하였으니 그가 법을 주는 자의
몫 안에 자리를 잡았도다. 그가 백성
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의 정의
를 집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였도다.
22 ¶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
나오리로다, 하니라.
23 ¶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
르되, 오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24 ¶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
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
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25 네 신은 쇠와 놋이 되리니 네
날들이 어떠함같이 네 힘이 그러하리
로다.
26 ¶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
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
에 나타내시는도다.
27 영원한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
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
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28 그때에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29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뛰어남의 칼이시
로다. 네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제 34 장

모세가 느보 산에서 죽음

1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 산
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
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 주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
세의 땅과 맨 끝 바다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3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 주시며
4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
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
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
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
라, 하시니라.
5 ¶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
라.
6 그분께서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
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 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7 ¶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이
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
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
라.
8 ¶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
서 모세를 위해 삼십 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끝나니라.
9 ¶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10 ¶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
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
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11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
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12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
서 보여 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여 호 수 아 기

기록자: 여호수아, 기록 시기: 주전 143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6년
수신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 성경 제목 'Joshua'는 히브리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뜻한다.
주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지파 별로 배분하는 것
목적: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자신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여호수아기는 모세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며 족장들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두 지파를 약속의 땅에 정착시킴으로 생겨난 신정 국가를 보여 준다(11:23; 21:43-45).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을 맡았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국가가 정착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서 지파 별로 땅을 배분하는 일은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오래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된다. 또한 여호수아기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잘 드러난다. 이 책에서 입증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의 히브리말 즉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뜻하며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투쟁과 승리와 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보여 준다(엡1:3; 2:6; 6:12). 그러므로 여호수아기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에베소서와 신약 성도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원수의 권능을 무찌르고 승리의 삶을 사는 현장의 예표로 이해될 수 있다. 여호수아기는 24장, 658절, 18,85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심), 핵심 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21:45)
핵심 단어: 소유하라, 핵심 구: "하나님의 신실하심"(1:3; 21:45), 여호수아기의 그리스도: 구원의 대장(5:14; 히2:10), 영적 교훈: "네 소유물을 소유하라."

제 1 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줌

1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
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
에게 주었나니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
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5 네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네 앞
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
하리니
6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
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
어 주리라.
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
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
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 너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
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
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
라.
9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
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
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요르단을 건너야 함

10 ¶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
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
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
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
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12 ¶ 또 여호수아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
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
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 너희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
축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
게 준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강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
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15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
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너희에
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
니라, 하니라.
16 ¶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
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
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
가 가리이다.
17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
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던 것 같
이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8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
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
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
니라.

제 2 장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김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
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
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
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
라.
2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
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
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

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6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 놓은 아마 줄기
로 그들을 숨겼더라.
7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
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
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8 ¶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9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
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
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10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
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11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
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13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 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서 건져 내라, 하니
14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
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
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매
15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 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
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16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
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
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
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
라, 하매
17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18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 내린 창에 주홍
색 실로 된 이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
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
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
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
로 돌아오려니와
20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
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21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
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
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매어 두니
라.
2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추격
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거하매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온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
니라.
23 ¶ 이에 그 두 사람이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
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
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해 있나
이다, 하였더라.

제 3 장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건넘
1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
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팀
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
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2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
를 두루 다니며
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 궤와 그
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
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
를 재서 이천 큐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
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
니라.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
리라, 하고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
하여 이르되, 언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 궤
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7 ¶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
되, 이 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
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 너는 언약 궤를 메는 제사장들에
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
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
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9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
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10 또 이르되, 살아 계신 하나님께
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
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 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
나니
12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취하라.
13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14 ¶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에 제사장
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 궤를 메니라.
15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
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넘치므로) 궤
를 멘 자들이 요르단에 이르매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
라.
16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평야의 바다 곧
염해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
어지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
보며 건넜더라.
17 주의 언약 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제 4 장

요르단 통과 기념비
1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
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취하고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
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
에 두라, 하라, 하시니
4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열두 사람을 불러
5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
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건너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
의 지파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
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
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
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7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
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 궤 앞에
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言約) 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
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
라, 하매
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
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
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
파 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
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 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
이 이 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10 ¶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
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
에 따라 끝날 때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
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은 서둘
러 건넜더라.
11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
서 건넜으며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13 사만 명가량이 전쟁을 하려고
예비한 채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르니라.
14 ¶ 그 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
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
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15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증언 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서 올라오
게 하라, 하시니라.
17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
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 주의 언약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둑에서 넘쳤더
라.
19 ¶ 백성이 첫째 달 십일에 요르
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
는 길갈에 진을 치매
20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
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
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22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
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23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
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
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24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
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
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제 5 장

둘째 세대가 할례를 받음

1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
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
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
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
더라.
2 ¶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
를 행하라, 하시매
3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포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
를 행하니라.
4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
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으
며
5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
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
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6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곧 군사
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
엘 자손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걸었
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 땅 곧 주께
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친히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더라.
7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
킨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
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길에서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
더라.
8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
에 있는 자기들의 처소에 거하니라.
9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
를 떼 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
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 날까지 길갈
이라 하니라.
10 ¶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
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 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 ¶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
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
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주의 군대의 대장

13 ¶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
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
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
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
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
이까? 하매
15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
게 이르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
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 6 장

여리고 정복

1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
라.
2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
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4 일곱 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
시를 일곱 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 제사장들이 숫양의 뿔 나팔을 길
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
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라.
6 ¶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
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 궤
를 메고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가라, 하고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 ¶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
를 마치매 일곱 명의 제사장이 숫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 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9 ¶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
을 불었더라.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
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
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
이 오면 그때에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11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
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12 ¶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
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메니라.
13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
에서 숫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
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
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
서 나팔을 불었더라.
14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
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
이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15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샐 무
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
를 일곱 번 에워쌌는데 그 날에만 그들
이 도시를 일곱 번 에워쌌더라.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
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
니라.
17 ¶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
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18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
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
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
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19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
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
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들일지니
라, 하니
20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
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
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
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21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
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
라.
22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
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23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
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24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
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의
보고에 두었더라.
25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두었으므로 그녀가 이 날까
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
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
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26 ¶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의 기초
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27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제 7 장

아이에서의 패배

1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
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
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벧엘 동
쪽 편에 있는 벧아웬 옆의 아이로 사람
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
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
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
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
서, 하므로
4 이에 백성 중에서 삼천 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
서 도망하매
5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서른
여섯 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
서 그들을 치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서 물같이 되니라.
6 ¶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
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
에 흙을 끼얹고 저녁때까지 있다가
7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저*
기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
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
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간의 죄

10 ¶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
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
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
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
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
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13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
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네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
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
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네가 네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아오라. 주가 뽑는 지파
는 가족들대로 나아오고 주가 뽑을
가족은 집안대로 나아오며 주가 뽑을
집안은 남자끼리 나아올지니라.
15 또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를 불로 태우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가 주
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
리석은 짓을 행하였느니라, 하시느니
라, 하라.
16 ¶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
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
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17 또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아오
게 하여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아오
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18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아오
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
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
하며 네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
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이렇게 행
하였나이다.
21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이
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22 ¶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장막에 달려가니,
보라,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으므로
23 그들이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
서 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
든 자손에게로 가져와 주 앞에 놓으니
라.
24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
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
이와 그의 아들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
서 이 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26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
아 이 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
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
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제 8 장

아이의 함락

1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
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나니
2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
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
되 오직 거기서 노략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
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3 ¶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삼
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
라, 너희는 그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도시에서 너무 멀
리 가지 말며 모두 예비하고 있으라.
5 나와 또 나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도시로 다가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
이 우리를 치려고 나아오리라. 그때
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6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아올 터
이므로) 마침내 그들을 도시에서 끌
어내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
서 도망하리니
7 그때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
어나 도시를 점령하라. 주 너희 하나님
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
라.
8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도
시를 불살라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
라, 하니라.
9 ¶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의
서쪽 편 곧 벧엘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
으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서 머무니라.
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의 수를 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11 온 백성 곧 그와 함께하며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 편에 진을
치니 이제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
기가 있더라.
12 그가 또 오천 명가량을 취하여
도시의 서쪽 편 곧 벧엘과 아이 사이에
두고 매복시켰더라.
13 그들이 백성을 배치하되 도시
의 북쪽에는 온 군대를 두고 도시의
서쪽에는 복병들을 두니 *그때에* 여호
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
가니라.
14 ¶ 아이 왕이 그것을 보매 그들
이 신속히 일찍 일어나고 도시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나가서 평야
앞에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으나 그는 도시 뒤에 자기를 치는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고 광야 길로
도망하매
16 아이에 있던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 그들을 추격하려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서 떠나
니
17 아이나 벧엘에서 이스라엘을 따
라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도시를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8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
되, 네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
라.
19 그가 손을 내밀매 즉시 복병들
이 자기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그 도시
로 달려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서둘
러 도시에 불을 놓았더라.
20 아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바라보며 보니, 보라, 도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들이 힘을 잃
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백성은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이켰더라.
21 복병들이 도시를 점령한 것과
도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여호수
아와 온 이스라엘이 보고는 다시 돌아
서서 아이 사람들을 죽였고
22 다른 이들도 도시에서 나와 그
들을 치매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들게 되어 얼마는 이편에 얼마
는 저편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저들을
쳐서 저들 중의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
하지 못하게 하고
23 아이 왕을 산 채로 사로잡아 여
호수아에게로 끌어 왔더라.
24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들에

서 죽이기를 마치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다 칼날에 쓰러지게 한 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그것을 치매
25 그 날에 아이의 모든 사람이 쓰
러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만 이천
명이더라.
26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27 이스라엘이 주께서 여호수아에
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오직 가축과 그 도시에서 노략
한 물건만 탈취물로 취하였더라.
28 또한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우
고 그것을 영원토록 무더기로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이 날까지 이르게 하였
으며
2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 질 때에 곧바로
명령하여 그들이 그의 사체를 나무에
서 내려 도시의 문 어귀에 던지게 하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이 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언약을 새롭게 함

30 ¶ 그때에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 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31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
라.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더라.
32 ¶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
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33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 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뿐 아니라 타국인
까지 서니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
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
산 맞은편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것과 같았더라.
34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
는데
35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
인들과 어린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
던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 9 장

기브온 사람들과의 동맹

1 요르단 이편의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맞은편 대해의 온 지경에 있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을 듣고
2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여호수아
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더라.
3 ¶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
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4 교묘히 행하되 가서 마치 자기들
이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즙 부대들을
나귀에 싣고
5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모든
빵을 양식으로 예비하니라.
6 그들이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나
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
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
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
는 듯하니 어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랴? 하거늘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
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
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

냐?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
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
으며
10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
나이다.
11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
하여 이르되, 여행을 위해 양식을 취
하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
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그런즉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
서, 하라, 하였나이다.
12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
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한
것인데,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으며
13 또 우리가 포도즙을 담은 이 부
대들도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
들이 찢어졌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매우 긴 여행으로 인해 낡아졌나이
다, 하니라.
14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
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15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
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
였더라.
16 ¶ 그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뒤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
의 이웃이요,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도시들에 이르렀는데 이
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그비라
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더라.
18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
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매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
하였으나
19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
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
으로 인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염려하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와 같
이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살 것이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될지니
라, 하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
게 약속한 것과 같았더라.
22 ¶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그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말
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나이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
냐?
23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하
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온 땅을 당신
들에게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을 당신
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25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
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행하소서, 하
므로
26 이에 그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

게 하니라.
27 그 날에 여호수아가 회중을 위하
며 또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 있을 그분
의 제단을 위하여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로
삼았더라.

제 10 장

해가 멈춤

1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
되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다
는 것과 또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
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으니라.
2 *그때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
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
보다 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강하
였기 때문이더라.
3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
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
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
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브
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
하였으니 우리가 그것을 치자, 하니
라.
5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니라.
6 ¶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
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
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하매
7 이에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 ¶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
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의 한 사람도 네 앞에 서지 못하리
라, 하시니라.
9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
하니
10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큰 살
육으로 죽이시며 벧호론으로 올라가
는 길에서 추격하사 아세가와 막게다
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시니라.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
여 벧호론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
들을 그들 위에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
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
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 ¶ 그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
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
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
매
13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
라.
14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
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
이더라.
15 ¶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
께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처형함

16 그러나 이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으므로

17 *어떤 이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매
18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리고 사람들을 그것 옆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며
19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
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방을 쳐서
그들이 그들의 도시들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심
히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기를 마치
매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고 그들
중에서 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로 들어갔으므로
21 온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에 있
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
르렀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
라.
22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굴에서 다섯 왕을 끌어내
어 내게 데려오라, 하매
23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오니라.
24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희
와 싸우는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 주께
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
서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그들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27 해가 내려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
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고 굴 어귀
를 큰 돌들로 막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남쪽 지역을 정복함

28 ¶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고 칼날로 그것을 치며 그것의
왕과 그들을 쳤으며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
하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막게다 왕에게 행하였더라.
29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과 함께 막게다를 지나 립나로 가서
립나와 싸우매
30 주께서 립나와 그것의 왕도 이스
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칼
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쳐서 한 사람도 그 안에 남기지 아니하
였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것
의 왕에게 행하였더라.
31 ¶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립나를 지나 라기스로 가서 그것
을 치려고 진을 치고 그것과 싸웠는데
32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
에 넘겨주시므로 이스라엘이 둘째 날
에 그것을 빼앗고 립나에 행한 모든
것대로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쳤더라.
33 ¶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
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므로 여호수
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
라.
34 ¶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를 지나 에글론으로 가니
라.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진을 치고
그것과 싸워
35 그 날에 그것을 빼앗고 라기스
에 행한 모든 것대로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그 날에
진멸하였더라.
36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함
께 에글론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올라
가서 그것과 싸워
37 그것을 빼앗고 그것과 그것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에글론에
행한 모든 것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진멸하였더라.
38 ¶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
께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그것과 싸
워
39 그것과 그것의 왕과 그것의 모
든 도시들을 빼앗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헤브론에 행한 것처럼 드빌과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으며 또 립나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였더라.
40 ¶ 이처럼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지
와 남쪽과 골짜기와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그것들의 모든 왕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숨 쉬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더라.
41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또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고센의 모든
지방을 치매
42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
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
리고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돌아왔더
라.

제 11 장

북쪽 지역을 정복함

1 하솔 왕 야빈이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 또 산지의 북쪽과 긴네롯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르의 경
계에 있던 왕들과
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
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
르몬 밑에 *거하던* 히위 족속에게 *사람*
을 보내매
4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
느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5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서 이스
라엘과 싸우려고 나아와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6 ¶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
되,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
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라, 하시니라.
7 이에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메롬 물가에 있던
그들을 치려고 갑자기 와서 그들을
덮치거늘
8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레봇마임까지 추
격하며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
지 추격하여 그들 중에서 하나도 남
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치니라.
9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
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10 ¶ 하솔이 예전에는 그 모든 왕
국들의 머리였으므로 그때에 여호수
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치니라.
11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숨 쉬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하솔을 불태웠으며
12 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도시와 그것들의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니라.
13 그러나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
던 도시들로 말하건대 여호수아가 불
태운 하솔을 빼고는 이스라엘이 그 도
시들 중의 하나도 불태우지 아니하였
으며

14 이 도시들에서 취한 모든 노략
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을 위해 탈취물로 취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여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5 ¶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
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가 행하지 않은 채 남겨
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의 정복지 요약

16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과 산지와 온 남쪽 지방과 고센의 온
땅과 골짜기와 평야와 이스라엘의 산
과 바로 그 산의 골짜기를 점령하였으
니
17 곧 세일에 이르는 할락 산에서부
터 헤르몬 산 밑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까지라. 그가 그들의 모든 왕들을
잡아 쳐서 죽였으며
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
동안 싸웠더라.
19 기브온 거주민들인 히위 족속 외
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며 다른 모든 도시들은
그들이 싸워 점령하였으니
20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
여 싸우러 오게 하려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사 그
들이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
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21 ¶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
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
낙 족속을 멸절시켰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
였으므로
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
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
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 12 장

모세가 정복한 왕들

1 이스라엘 자손이 해 돋는 요르단
저편 땅 곧 아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땅과 동쪽의 모든 평야에서
왕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는
데 이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2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 그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과 강의 중간과 길르앗의 절반
에서부터 암몬 자손의 경계인 얍복 강
까지 다스렸으며
3 또 동쪽의 긴네롯 바다에 이르는
평야에서부터 평야의 바다 곧 동쪽의
염해와 벧여시못으로 가는 길까지와
남쪽에서부터 아스돗비스가 밑에까
지 다스렸더라.
4 ¶ 또 거인들 중의 남은 자들에
속한 자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의 지경이라.
5 *그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헤르몬 산과 살가
와 온 바산에서 통치하였으며 또 헤스
본 왕 시혼의 경계인 길르앗의 절반을
통치하였더라.
6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주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7 ¶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 이편 곧 서쪽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에 이
르는 할락 산까지의 지역을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지
역을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그들에게 소유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골짜기와 평야와 샘과

광야와 남쪽 지방 즉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9 ¶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벧엘 옆에 있는 아이 왕이요,
10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
는 헤브론 왕이요,
11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12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13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
델 왕이요,
14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15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
둘람 왕이요,
16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벧엘 왕이요,
17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18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
사론 왕이요,
19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
솔 왕이요,
20 하나는 시므론메론 왕이요, 하
나는 악삽 왕이요,
21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22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느암 왕이요,
23 하나는 도르의 지경에 있는 도
르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민족들의
왕이요,
24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
른한 명의 왕이더라.

제 13 장

정복해야 할 땅

1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
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 있도다.
2 아직 남은 땅은 이러하니 곧 블레
셋 사람들의 온 경계와 온 그술
3 즉 이집트 앞의 시홀에서부터 가
나안 족속에게 속한 북쪽의 에그론의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
족 곧 가자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에스
갈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
과 또 아비 사람*의 땅과*
4 남쪽에서부터는 가나안 족속의
온 땅과 시돈 사람들 옆의 므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지경인 아벡까지와
5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쪽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밑의 바알갓에
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와
6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레봇마임
까지의 산간 지방의 모든 거주민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
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뽑아 나누
어 상속 재산으로 주라.
7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
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상속
재산으로 주라, 하셨더라.

요르단 동쪽에서 나누어 준 땅

8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
속과 갓 족속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
서 모세로부터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는데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니라.*
9 곧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
서부터 강의 중간에 있는 도시와 디본
에까지 이르는 메드바의 온 평야와
10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족
속의 왕 시혼의 모든 도시 즉 암몬
자손의 경계에까지 이른 도시들과
11 길르앗과 또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
지의 온 바산
12 곧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 있던 자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
이에서 통치한 자 곧 바산에 있던 옥의
온 왕국이니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
내었더라.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 족속과 마
아가 족속이 이 날까지 이스라엘 사람
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가 상
속 재산을 주지 아니하였고 불로 예
비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
는 희생물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
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르우벤의 땅

15 ¶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
게 그들의 가족대로 상속 재산을 주었
는데
16 그들의 지경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강의 중간에 있
는 도시와 메드바 옆에 있는 온 평야와
17 헤스본과 평야에 있는 그것의
모든 도시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벧바
알므온과
18 야하사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19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산
에 있는 사렛사할과
20 벧브올과 아스돗비스가와 벧여
시못과
21 평야의 모든 도시와 헤스본에서
통치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왕국이더라. 모세가 시혼을 치면서 그
지역에 거하던 시혼의 추장들 곧 미디
안의 통치자들인 에비와 레겜과 수르
와 훌과 레바를 함께 *쳤더라*.
22 ¶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
일 때에 브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었
더라.
23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것의 경계니 이것은 르우벤 자손의
상속 재산으로서 그들의 가족대로 받
은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갓의 땅

24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도 그들의 가족대로 상속 재산을 주었
는데
25 그들의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도시와 암몬 자손의 땅의 절반
즉 랍바 앞의 아로엘까지와
26 헤스본에서부터 라맛미스바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부터 드빌
의 경계까지와
27 골짜기에 있는 벧아람과 벧니므
라와 숙곳과 사본 즉 헤스본 왕 시혼의
왕국의 남은 땅인 요르단과 그것의
경계에서부터 동쪽으로 요르단 저쪽
의 긴네렛 바다의 끝단까지더라.
28 이것은 갓 자손의 상속 재산으
로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므낫세 반 지파의 땅(동쪽)

29 ¶ 또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
게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므낫세 자손
의 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소유는 이러하니라.
30 그들의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
터 온 바산 즉 바산 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곧 예순
개 도시들이며
31 길르앗 절반과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도시 아스다롯과 에드레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속하되 곧 그들의 가족대로 마길의
자손 절반에게 속하니라.
32 여리고 옆 즉 동쪽으로 요르단
저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상
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들이 이와
같았으나
33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 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더라.

제 14 장

요르단 서쪽에서 나누어 준 땅

1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한 지역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
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
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은
이러하니라.
2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3 이는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가운
데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
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위 사람
들에게 아무 몫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만
주었으니
5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
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상속함

6 ¶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바네아에
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
나이다.
7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
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
을 때에 내가 사십 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
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
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
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
지로 이 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
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12 그러므로 이제 그 날 주께서 말
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
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
와 함께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
매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니라.
14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
어 이 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
기 때문이더라.
15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아르
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
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더라.

제 15 장

유다의 땅

1 그때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
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
곧 남쪽 지경의 맨 끝 부분은 남쪽으로
신 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2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해안
과 남쪽을 바라보는 만(灣)에서부터
3 남쪽 편으로 나아가 마알레아그
랍빔에 이르고 신을 지나 남쪽 편에서
가데스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
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
르고
4 거기서 아스몬 쪽으로 나아가 이
집트의 강까지 나가며 그 지경이 나가
서 바다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지경이 되리라.
5 동쪽 경계는 염해니 곧 요르단

끝까지요, 북부 지역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르단 맨 끝 부분 바다의 만에
서부터니
6 그 경계가 벧호글라로 올라가 벧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
한의 돌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7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 쪽
으로 올라가되 이같이 북쪽으로 올라
가서 그 강의 남쪽 편에 위치한 아둠밈
비탈 앞쪽의 길갈을 향하였더라. 또
그 경계가 엔세메스 물들 쪽으로 가서
더 나아가 엔로겔에 이르며
8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
가서 여부스 족속의 남쪽 편에 이르렀
는데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이니라. 그
경계가 또 힌놈의 골짜기 앞에 서쪽으
로 놓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곳은 북쪽으로 거인들의 골짜기의
끝에 있느니라.
9 또 그 경계가 이 산의 꼭대기에서
부터 넵도아의 물 샘에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도시들에까지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여아림에 이르며
10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
이켜서 세일 산에 이르러 북쪽 편의
여아림 산 곧 그살론 옆을 지나고 또
벧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11 또 북쪽으로 에그론 옆으로 나
가서 식그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을 지
나 얍느엘에 이르렀나니 그 경계가
나가서 바다에 이르렀더라.
12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것의 해
변까지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
로 얻은 사방의 지경이 이러하니라.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차지함(삿1:11-15)

13 ¶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
의 도시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가운데
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몫으로 주
었더라.
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냈고
15 거기서 올라가 드빌의 거주민들
에게 이르렀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럇세벨이더라.
16 ¶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
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
니
17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
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8 그녀가 그에게 갈 때에 그를 움
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
이 그녀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원
하느냐? 하매
19 그녀가 대답하되, 내게 복을 주
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
셨으니 물 샘도 내게 주소서, 하매
그가 위 샘과 아래 샘을 그녀에게 주었
더라.

유다의 도시들

20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
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은 이러하니
라.
21 유다 자손의 지파의 맨 끝 도시
들 곧 남쪽으로 에돔의 지경을 향한
도시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22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23 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
24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25 하솔과 하닷다와 그리옷과 헤스
론 곧 하솔과
26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27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벧발렛과
28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요댜와
29 바알라와 이임과 아셈과
30 엘도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31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32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
니 모두 스물아홉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33 골짜기에는 에스다올과 소레아
와 아스나와
34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35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
세가와
36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곧 열네 도시와 그것
들의 마을들이며
37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38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39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40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41 그데롯과 벧다곤과 나아마와 막
게다니 곧 열여섯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42 립나와 에델과 아산과
43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44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곧 아
홉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45 에그론과 그것의 고을들과 마을
들과
46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
돗 옆의 모든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
이며
47 아스돗과 그것의 고을들과 마을
들과 가자와 그것의 고을들과 마을들
이니 곧 이집트의 강과 대해와 그것의
경계에 이르기까지더라.
48 ¶ 산지에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
와
49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50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51 고센과 홀론과 길로니 곧 열한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52 아랍과 두마와 에세안과
53 야눔과 벧답부아와 아베가와
54 훔다와 기랏아르바 즉 헤브론과
시올이니 곧 아홉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55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56 예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57 가인과 기브아와 딤나니 곧 열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58 할훌과 벧술과 그돌과
59 마아랏과 벧아놋과 엘드곤이니
곧 여섯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60 기럇바알 즉 기럇여아림과 랍바
니 곧 두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61 광야에는 벧아라바와 밋딘과 스
가가와
62 닙산과 소금 도시와 엔게디니 곧
여섯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63 ¶ 예루살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으로 말하건대 유다 자손이 그들
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
속이 이 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
살렘에 거하느니라.

제 16 장

에브라임과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1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
고 옆 요르단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여
리고 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벧
엘 산을 지나 위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며
2 벧엘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지경에 이르러 아래쪽 벧호론의 지경
과 게셀에 이르며 거기서 나가 바다에
이르느니라.
4 이와 같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상속 재산을 얻
었더라.

에브라임의 땅

5 ¶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
대로 *얻은* 경계는 이러하니라. 동쪽
편에서 그들의 상속 재산의 경계는
아다롯앗달이며 위쪽 벧호론에까지
이르렀더라.
6 또 그 경계가 바다 쪽으로 나가서
북쪽 편의 믹므다에 이르며 동쪽으로
가서 다아낫실로에 이르고 그 옆을 지
나 동쪽으로 야노아에 이르며
7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랏
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며 요르단
으로 나가고
8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
나 강에 이르며 거기서 나가 바다에
이르렀나니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

이러하고
9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한 도
시들 곧 모든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
들이 므낫세 자손의 상속 재산 가운데
있더라.
10 그들이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
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
안 족속이 이 날까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
느니라.

제 17 장

요르단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1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으
므로 그의 지파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으니 즉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 곧
길르앗의 아버지를 위해 *제비를 뽑았
더라.* 그는 전사이므로 그런 까닭에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더라.
2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
을 위해서도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
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
을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 이들은 그
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의 남자 자손이더라.
3 ¶ 그러나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
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
세의 사대 손인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
고 딸뿐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
러하니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
가와 디르사라.
4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통치자들 앞에 나아
와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속 재산을 주라고 하셨나이다, 하
니라. 그런즉 그가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
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으므로
5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길르앗과 바
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열 몫이 돌아갔
으니
6 이는 므낫세의 딸들이 그의 아들
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얻었기 때문
이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니라.
7 ¶ 므낫세의 지경은 아셀에서부
터 세겜 앞에 놓인 믹므다까지였으며
또 그 경계가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
아의 거주민들에게 이르렀더라.
8 이제 므낫세가 답부아 땅을 차지
하였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
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9 또 그 지경이 가나 강으로 내려가
서 그 강의 남쪽에 이르렀더라. 에브라
임의 이 도시들은 므낫세의 도시들 가
운데 있느니라. 므낫세의 지경도 그
강의 북쪽 편에 있었으며 그 지경이
나가서 바다에 이르렀더라.
10 그것은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
였으며 바다가 그의 경계가 되었더
라. 그것들은 북쪽에서 아셀에서 함께
만나고 동쪽에서는 잇사갈에서 함께
만났더라.
11 또 므낫세에게는 잇사갈과 아셀
에도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벧스안과
그것의 고을들과 이블르암과 그것의
고을들과 도르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또 엔돌의 거주민들과 그것
의 고을들과 다아낙의 거주민들과 그
것의 고을들과 므깃도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 곧 세 지역이라.
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
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
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
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
으나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
하였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이 모자람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
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
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몫만 상속 재산으로 주셨나이까?

하매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
되, 네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네게 너무 좁을진대 나무가 많은 지역
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 내라, 하니
16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
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는 벧스안과 그것의 고을들에 거하는
자든지 예스르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
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매
17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
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
의 몫만 갖지 말라.
18 그 산도 네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삼림인즉 네가 베어 내야 하리라. 그
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네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쫓아
낼지니라, 하니라.

제 18 장

남은 땅의 분배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
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
되었으나
2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도 일
곱 지파가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으므로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가기를 늦추려느냐?
4 너희 가운데서 각 지파를 위해
세 사람씩 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
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
며 자기들의 상속 재산에 따라 그것을
묘사한 뒤 내게로 돌아오리라.
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
되 유다는 남쪽으로 자기 지경 안에
거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으로 자기
지경 안에 거하리니
6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묘사한 뒤 그 묘사한 것을 이곳
으로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
데 몫이 없나니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니라. 갓과 르우벤
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이미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나니 그것은 주의 종 모세가 그들
에게 준 것이니라, 하니라.
8 ¶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묘사하러 가는 자
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묘사한 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 앞에서 제비를 뽑으
리라, 하니라.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지나가며 그 땅을 도시 별로 책에다
일곱 몫으로 묘사하고 실로에 있던
군대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
니라.
10 ¶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
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배분
에 따라 그 땅을 그들을 위하여 나누었
더라.

베냐민의 땅

11 ¶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
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뽑은 땅의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들었더라.
12 북쪽 편의 그들의 경계는 요르
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북쪽 편의 여리
고 옆으로 올라가며 서쪽으로 산지를
지나 올라가고 또 거기서 나가 벧아웬
광야에 이르며
13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
로 나가서 남쪽으로 루스 옆에 이르렀
는데 루스는 곧 벧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앗달로 내려가서 아래쪽 벧호

론의 남쪽 편에 놓인 산에 가까이 이르
고
14 거기서 뻗어 나와 벧호론 앞에
남쪽으로 놓인 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바다의 모퉁이를 돌고 거기서 나가
유다 자손의 도시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서부 지
역이더라.
15 남부 지역은 기럇여아림의 끝에
서부터 시작되며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가서 넵도아 우물에 이르고
16 북쪽으로 거인들의 골짜기에
있는 산 곧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며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여부스
옆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17 또 북쪽에서부터 뻗어 나와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
편의 글릴롯 쪽으로 나아가 르우벤의
아들인 보한의 돌이 있는 곳까지 내려
가며
18 북쪽을 향해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19 또 그 경계가 북쪽으로 벧호글라
옆을 지나고 나가서 요르단 남단에
있는 염해의 북쪽 만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남쪽 지경이더라.
20 동쪽 편에서 그것의 경계는 요
르단이더라.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의 사방
지경에 따른 *그들의* 상속 재산이더
라.
21 이제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들의 가족대로 얻은 도시들은 여리고
와 벧호글라와 그시스 골짜기와
22 벧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벧엘과
23 아빔과 바라와 오브라와
24 그발암모나이와 오브니와 가바
니 곧 열두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
며
25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26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27 레겜과 이르베엘과 다랄라와
28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즉 예루살
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곧 열네 도시
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니라.

제 19 장

시므온의 땅

1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2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브엘세
바 혹은 세바와 몰라다와
3 하살수알과 발라와 아셈과
4 엘도랏과 브둘과 호르마와
5 시글락과 벧말가봇과 하살수사와
6 벧르바옷과 사루헨이니 곧 열세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7 아인과 렘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곧 네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8 또 남쪽의 라맛 곧 바알랏브엘에
까지 이르는 이 도시들 사방의 모든
마을이니 이것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
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
니라.
9 시므온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몫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
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산 안에서 얻었
기 때문이더라.

스불론의 땅

10 ¶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
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릿에
이르렀더라.
11 그들의 경계는 바다 쪽으로 올
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바셋에 이
르며 욕느암 앞의 강에 이르고
12 사릿에서부터 돌아서 동쪽으로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다볼의 경
계에 이르며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
아로 올라가고
13 또 거기서 동쪽으로 깃다헤벨을
지나 잇다가신에 이르며 렘몬므도알과

네아로 나가서
14 북쪽 편에서 돌아 한나돈에 이
르고 나가서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며
15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
달라와 베들레헴이니 곧 열두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16 이것이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니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잇사갈의 땅

17 ¶ 넷째로 잇사갈 곧 잇사갈 자
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18 그들의 경계는 예스르엘을 향하
고 그술롯과 수넴과
19 하바라임과 시혼과 아나하랏과
20 랍빗과 기시온과 아베스와
21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벧바
세스이며
22 그 지경이 다볼과 사하시마와 벧
세메스에 이르고 그들의 경계가 나가
서 요르단에 이르렀으니 곧 열여섯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23 이것이 잇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니
곧 그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
라.

아셀의 땅

24 ¶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
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25 그들의 경계는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26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스알이며
서쪽으로 갈멜에 이르고 시홀립낫에
이르며
27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벧다곤에
이르고 스불론에 이르며 벧에멕과 느
이엘의 북쪽 편을 향한 입다엘 골짜기
에 이르고 왼쪽에서 가불로 나가
28 헤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까지 이르며
29 또 그 지경이 돌아서 라마와 견
고한 도시 두로에 이르고 또 그 지경이
돌아서 호사에 이르며 그것이 나가서
악십에 이르는 지경으로부터 바다에
이르느니라.
30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곧
스물두 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
라.
31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니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
라.

납달리의 땅

32 ¶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
하여 곧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33 그들의 지경은 헬렙과 알론에서
부터 사아난님과 아다미와 네겝과 얍느
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또 그것이 나가
서 요르단에 이르고
34 또 그 지경이 서쪽으로 돌아 아
스놋다볼에 이르며 거기서 나가 후곡
에 이르러 남쪽 편에서는 스불론에
닿고 서쪽 편에서는 아셀에 닿으며
해 뜨는 쪽에서는 요르단 위의 유다에
닿고
35 성벽을 두른 도시들은 짓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36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37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38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벧아낫
과 벧세메스니 곧 열아홉 도시와 그것
들의 마을들이더라.
39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니
곧 그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
라.

단의 땅

40 ¶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
는데
41 그들의 상속 재산의 지경은 소
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42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예들라와
43 엘론과 딤나다와 에그론과
44 엘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랏과
45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46 메얄곤과 락곤과 얍보 맞은편 경

계까지더라.
47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
무 적게 뻗어나갔으므로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그것을 빼앗되
칼날로 쳐서 그것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며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부르니라.
48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들
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 재산이니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여호수아의 몫

49 ¶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대로 상속 재산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상속 재산을 주되
50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요구한
도시 곧 에브라임 산에 있는 딤낫세라
를 그에게 주매 그가 도시를 짓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
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
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실로에서, 회
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서 상속 재산
으로 제비뽑아 나눈 상속 재산이 이러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제 20 장

도피 도시들
(민35:9－28; 신19:1－13)

1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
한 도피 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
여
3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
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
라. 그 도피 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 줄 피난처
니라.
4 그 도시들 중의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의 문어귀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 안으로 자기들
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
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고
5 피의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추격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다가 자
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
라.
6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의 대제
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
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7 ¶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
고
8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
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
을 지정하였더라.
9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을 위하
여 지정한 도시들이었으니 이것은 누
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
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제 21 장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
(대상6:54－81)

1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
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
게 나아와
2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우리가 거할 도시들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우리에게
주도록 명령하셨나이다, 하매
3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상속 재산에서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
게 주니라.
4 고핫 족속의 가족들을 위하여 제
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시
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세 도시를 얻었고
5 고핫 자손의 남은 자들은 에브라
임 지파의 가족들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 도시를
얻었으며
6 게르손 자손은 잇사갈 지파의 가
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
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세 도시를 얻었더라.
7 므라리 자손은 그들의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에서 열두 도시를 얻었더라.
8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
위 사람들에게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9 ¶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그들이 여기에서
이름을 언급한 이 도시들을 주었는데
10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족속의
가족들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것들을 차지하였
더라.
11 그들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유다의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
론 도시와 그것의 사방의 주변 지역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12 오직 그 도시의 밭과 그것의 마
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13 ¶ 이와 같이 그들이 제사장 아
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 도시 헤브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요, 또 립나와 그것의 주
변 지역이며
14 얏딜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에스
드모아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15 홀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드빌
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16 아인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윳다
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벧세메스와 그
것의 주변 지역이니 그 두 지파에서
아홉 도시를 주었고
17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게바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18 아나돗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알몬과 그것의 주변 지역으로 네 도시
니
19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얻
은 도시는 모두 열세 도시요, 또 그것
들의 주변 지역이었더라.
20 ¶ 고핫 자손 중에서 남은 레위
사람들 곧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제비
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시들을
얻었는데
21 그들이 그들에게 준 것은 곧 *사
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 도시로 에브
라임 산의 세겜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
요, 또 게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22 깁사임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벧호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네
도시요,
23 또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
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깁브돈과 그것
의 주변 지역과
24 아이얄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가드림몬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네 도시요,
25 또 므낫세 반 지파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가드림몬
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두 도시더
라.
26 고핫 자손 중에서 남은 가족들
을 위한 도시는 모두 열 도시요, 또
그것들의 주변 지역이었더라.
27 ¶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
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다른 므낫세 반
지파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
도시로 바산의 골란과 그것의 주변 지

역을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니 곧 두 도시요,
28 잇사갈 지파에서는 기손과 그것
의 주변 지역과 다바레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29 야르뭇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엔간님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
니 곧 네 도시요,
30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압돈과 그것의 주변 지역
과
31 헬갓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르홉
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니 곧
네 도시요,
32 납달리 지파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도피 도시로 갈릴리의 게데
스와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고 또
함못도르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가르
단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니
곧 세 도시더라.
33 게르손 족속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도시는 모두 열세 도시요, 또
그것들의 주변 지역이었더라.
34 ¶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
들 곧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에서 욕느암과 그것
의 주변 지역과 가르다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35 딤나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나
하랄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네
도시요,
36 르우벤 지파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야하사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37 그데못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메
바앗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곧 네
도시요,
38 갓 지파에서 준 것은 *사람을* 죽
인 자를 위한 도피 도시로 길르앗의
라못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요, 또 마하
나임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39 헤스본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야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이니 모두
네 도시더라.
40 이처럼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얻은
모든 도시는 열두 도시였더라.
41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안에서
레위 사람들의 도시는 모두 마흔여덟
도시요, 또 그것들의 주변 지역이었
더라.
42 이 도시들은 각각 그것들의 사
방에 주변 지역이 있었는데 이 모든
도시들이 그러하였더라.

주의 약속이 성취됨

43 ¶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게 주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
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
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44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
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
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의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
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45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
하신 선한 일 중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제 22 장

요르단 동쪽의 지파들이 돌아감

1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족속
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2 그들에게 이르되,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서 내 음성에 순종하여
3 이 날까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를 지
켰도다.
4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는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의 땅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5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
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
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6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
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갔더라.
7 ¶ 이제 므낫세 지파의 한쪽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이미 바산에서 소
유를 주었으나 그것의 다른 반 지파에
게는 여호수아가 요르단 이편 서쪽에
서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소유를
주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
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
고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많은
재물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놋과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
로부터 노략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니라.
9 ¶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모세의 손으로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들이 소유
한 땅 곧 자기들 소유의 길르앗 지방으
로 돌아가니라.

요르단 옆의 제단

10 ¶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
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요르단
경계에 이르러 거기서 요르단 옆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11 ¶ 이스라엘 자손이 들으니 이
르기를,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맞은편
요르단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니
는 길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더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
께 모여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고자
하더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
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내되
14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각의 주요 집안에서 통치자 한 명씩
을 취해 통치자 열 명을 그와 함께
가게 하였는데 각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천 명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더라.
15 ¶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
되,
16 주의 온 회중이 이같이 말하기
를, 너희가 이 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
한 이 범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가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이 날
주께 반역하였도다.
17 브올의 불법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것이냐? 주의 회중 안에 재앙이
있었으나 이 날까지 우리가 그 불법에
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18 그런데 너희가 이 날 주를 따르
는 일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오늘 주께
반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
소유의 땅이 부정하거든 너희는 주의
성막이 거하는 주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를 취하
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
으로 주께 반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말라.
20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
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불법 가운데
서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21 ¶ 이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22 주 곧 신들의 하나님, 주 곧 신들
의 하나님 그분께서 아시나니 이스라
엘도 알게 되리라. 그 일이 만일 주께
반역하는 것이거나 범법하는 것이거
든 (*주께서는* 이 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 함이거나 혹
은 그 위에 번제 헌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평
헌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주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친히 벌하시옵소서.
24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이르기를, 이후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되,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르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아무 몫도 없느니라, 하여 이처럼 너
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주
두려워하기를 그치게 할까 염려하노
라, 하였기 때문이라.
26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
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한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자, 하였나니 *그것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요,
27 다만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의 뒤를 이을 우리의 세대들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쌓은 것이라.* 그
리하여야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번제 헌물과 희생물과 화평 헌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으리니 이것은 이후
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
를, 너희는 주 안에서 아무 몫도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 이런 까닭에 우리가 말하였거
니와 만일 그들이 이후에 우리에게나
우리의 세대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면
우리가 다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
이 만든 주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그것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
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요, 다만 우리
와 너희 사이에 증거일 뿐이라, 하리
라.
29 우리가 번제 헌물이나 음식 헌
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분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주께 반역
하고 이 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
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니
라.
30 ¶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
께한 회중의 통치자들 곧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이 르우벤 자손
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로 인해 기뻐하였더
라.
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
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를 대적
하며 이러한 범법을 행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우리가 이 날 주께서 우리 가운
데 계신 줄을 아노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손에서 건져 내
었느니라, 하니라.
32 ¶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
하스와 통치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러 그들에게 말을 다시 전하매
33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을 기뻐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하는 땅을 멸하기 위해 가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
단이 우리 사이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심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리라 하였으
므로 그것을 엣이라 불렀더라.

제 23 장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1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
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게 하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

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매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
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
과 직무 수행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3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
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
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이시니
라.
4 보라, 요르단에서부터 서쪽의 대
해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이 민족들
과 내가 이미 멸한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나누어서 너
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하였
느니라.
5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사 너희 눈앞에
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 하나
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6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
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7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
고
8 오직 너희가 이 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9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로 말하건대 이 날까지 아무도 능히
너희 앞에 서지 못하였느니라.
10 너희 중의 한 사람이 천 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
니라.
11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2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
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13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의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
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14 보라, 이 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의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중의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
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15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
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
라.
16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
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
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
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
라.

제 24 장

세겜에서의 언약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
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
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
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2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
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
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
을 섬겼으나
3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
으며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
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5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
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그것*
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6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너희가 바다에 이
르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
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7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
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8 내가 또 너희를 요르단 저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
니 그들이 너희와 싸우므로 내가 그들
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9 그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
고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10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
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처럼 내가 너희
를 그의 손에서 건져 내었노라.
11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
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12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
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
라.
13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
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밭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도다, 하시느니라.
14 ¶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
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
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
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15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
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
를 위해 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
겠노라, 하매
16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17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
로 그분이시니이다.
18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
니이다, 하니라.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
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

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20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
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
다, 하매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
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
나이다, 하니라.
23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로 향하게 하라, 하니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
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
므로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
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
와 규례를 세우니라.
26 ¶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
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
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
리나무 밑에 세우며
27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 이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
가게 하매 각 사람이 자기의 상속 재산
으로 돌아가니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29 ¶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30 그들이 그를 딤낫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었는데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에 있으며 가
아스 산 북쪽 편에 있느니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
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
여 행하신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
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32 ¶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백 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
더라.
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묻었는데 이 산은 에브라임
산에서 그에게 준 것이었더라.

사 사 기

기록자: 사무엘(탈무드), 기록 시기: 주전 110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05년(어셔), 수신자: 하나님이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 성경 제목 'Judges'는 사사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크리타이'에서 나온 말로서 '재판관들'을 뜻한다. 우리말의 사사기는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가리키는 사사(士師)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 사이에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 혹은 구원자를 뜻하는 '쇼페팀'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은 영어나 우리말의 재판관이 나타내는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고대 국가에서 이 말은 문관(文官)이나 국가의 수뇌를 묘사할 때 사용되곤 하였다.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재판관이 나오며 아비멜렉은 스스로 권력을 빼앗아서 재판관 노릇을 한 사람이다.
주제: 하나님께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판관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목적: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 주며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것, 내용: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의 죽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공한다. 사사기에는 재판관들의 생애와 활동과 직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정 정치를 통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였다. (1)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2) 이스라엘의 권리와 자유를 유지시켜야 할 때; (3)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여 적군을 치게 할 때; (4) 공의를 수행할 때. 재판관들은 왕들과는 달랐으며 그래서 그들의 직무는 지속되거나 다음 세대로 이양되지 않았다. 이 책은 타협과 더불어 시작되며 무정부 상태로 끝을 맺는다. 사사기는 21장, 618절, 18,96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이스라엘의 배도의 시작), 핵심 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21:25), 핵심 단어: 건져 내다 혹은 구출하다(28회), 핵심 구: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1:27; 29; 30 등)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원수들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분적인 승리가 임한 것을 보여 준다. 사사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출자(3:9), 영적 교훈: "우리의 경계를 주의해서 살펴보라."

제 1 장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함
(수15:13-19)

1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
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
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이까? 하
니
2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3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
르되, 내가 제비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
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뽑은 땅
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
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4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그들이 베섹에서 그들
중에서 만 명을 죽이고

5 또 베섹에서 아도니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을 죽이되
6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므로 그들
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 아도니베섹이 이르기를, 전에 칠
십 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
가락이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8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
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
를 불사르니라.
9 ¶ 그 뒤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과 싸웠으며
10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그런데 전에 헤브
론의 이름은 기럇아르바더라.)
11 그가 거기로부터 가서 드빌의
거주민들을 쳤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
은 기럇세벨이더라.
12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
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4 그녀가 그에게 갈 때에 그를 움
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
이 그녀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원
하느냐? 하매
15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복
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
을 주셨으니 물 샘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 샘과 아래 샘을 그녀에
게 주었더라.
16 ¶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
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
서 올라가 아랏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
데 거하니라.
17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도
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니라.
18 유다가 또 가자와 그것의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것의 지경과 에그론과
그것의 지경을 점령하였고
19 주께서 유다와 함께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 병거(兵車)
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
였더라.
20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헤브론
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21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
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
니하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 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
니라.
22 ¶ 요셉의 집도 벧엘을 치러 올
라갔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니
라.
23 요셉의 집이 *사람을* 보내어 벧
엘을 정탐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전
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더라.)
24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
되, 원하노니 도시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매
25 그 사람이 그들에게 도시의 입
구를 보여 주므로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
은 놓아주니라.
26 그 사람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
라 하였더니 이것이 이 날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27 ¶ 므낫세도 벧스안과 그것의 고
을들의 거주민들과 다아낙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이블르암과 그
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므깃도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
지 아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28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
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
더라.
29 ¶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가
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
하였더라.
30 ¶ 스불론도 기드론의 거주민들
과 나할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
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
라.
31 ¶ 아셀도 악고의 거주민들과
시돈의 거주민들과 알랍과 악십과 헬
바와 아빅과 르홉의 거주민들을 쫓아
내지 아니하고
32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
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
였기 때문이더라.
33 ¶ 납달리도 벧세메스의 거주민
들과 벧아낫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벧세메스와 벧아낫의 거주민
들이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34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그들이 골짜기에 내려
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려 하지 아니
하였더라.
35 아모리 족속이 아이얄론에 있는
헤레스 산과 사알빔에 거하려 하였으
나 요셉의 집의 손이 이겼으므로 그들
이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36 아모리 족속의 지경은 아그랍빔
으로 올라가는 비탈 곧 그 바위에서부
터 위쪽이더라.

제 2 장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

1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
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
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
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2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
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
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3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
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
손에게 이 말씀들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5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여호수아의 죽음(수24:29－31)

6 ¶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
고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
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
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8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
십 세에 죽으매
9 그들이 그를 딤낫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아
스 산 북쪽 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
라.
10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

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
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음

11 ¶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
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
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
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
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13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
다롯을 섬기니라.
14 ¶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
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략한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
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
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매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
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매 그들이 노략
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냈으나
17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
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
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
셨기 때문이더라.
19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
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
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
였더라.
20 ¶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
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
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
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21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
리니
22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
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나 걷지 아니하
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 두셨
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
지 아니하셨더라.

제 3 장

가나안 땅에 남은 민족들

1 이제 주께서 남겨 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
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
심이요,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
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3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
들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라.
4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
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
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재판관 옷니엘

5 ¶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

데 거하면서
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
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
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7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
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
겼더라.
8 ¶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
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
의 손에 파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라.
9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
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 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
의 아들인 옷니엘이더라.
10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
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
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 그 땅에 사십 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
더라.

재판관 에훗

12 ¶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
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을 치게 하시매
13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
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팔 년 동안 섬기니라.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
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16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일 큐빗이
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차
고
17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
갔는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18 에훗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
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 자기는 길갈 옆의 돌 뜨는 곳에
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
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
서 물러가므로
20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
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
다, 하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21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
서 그의 배를 찌르매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기므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오더라.
23 그때에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
오고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24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
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겼음
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25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
래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들
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열쇠를
취하여 문들을 여니, 보라, 자기들의
주(主)가 땅에 쓰러져 죽었더라.
26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랏으
로 도망하니라.
27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
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 가며
28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
단의 여울을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
지 못하게 하고
29 그때에 모압 사람 만 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
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 이처럼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의 손 밑에 굴복하매 그 땅에 팔십
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재판관 삼갈

31 ¶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
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
채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 내었더라.

제 4 장

재판관 드보라

1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
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2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
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
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3 그에게는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었
고 그가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4 ¶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
라.
5 그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벧엘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
에게로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6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
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
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
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만 명을 거느리
고 다볼 산으로 다가가라.
7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8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9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
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정이 네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
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
로 가니라.
10 ¶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
데스로 불러 자기 발밑에 만 명을 거느
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1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족속 헤벨이 자신을 분리하
여 겐 족속을 떠나 게데스 옆의 사아나
임 평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
에 오른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알리
매
13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로셋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함께 모으니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
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
보다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라.
15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16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
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
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
더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
어서 도망하여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18 ¶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
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들어오소
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녀에게로 돌이
켜 장막에 들어가니 그녀가 겉옷으로
그를 덮으니라.
19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
마르니 원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하매 그녀가 우유 부대
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
니
20 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네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
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21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취
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
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
니라.
22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
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사람
을 네게 보이리라, 하매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
은 채 누워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
이에 박혀 있더라.
23 이같이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
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
하게 하셨으므로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제 5 장

드보라의 노래

1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그 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2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
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3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
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
하리로다.
4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
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
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5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시내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6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
의 시대에 큰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
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7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
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
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8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
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 안에서 있었
으나 이스라엘 안의 사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
송하라.
10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
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11 물 긷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
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
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
다. 그때에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
려가리로다.
12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너 아비노암

의 아들이여, 네가 포로로 잡은 자들
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13 그때에 그분께서 남아 있는 자
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
도다.
14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
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네 백성 가운
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마길
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15 잇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곧 잇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
짜기로 가도록 보내어졌도다. 르우벤
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16 네가 어찌하여 양 떼의 우는 소
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
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17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
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배들에 머무르
느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18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
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의 왕들이 므깃도 물가의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
였도다.
20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
라와 싸웠도다.
21 기손 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손 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오 내 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
다.
22 그때에 말들이 달리므로 곧 그
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하므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23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
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24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
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25 그가 물을 구하매 그녀가 그에
게 우유를 주되 곧 버터를 귀한 그릇에
담아 가져다주었고
26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
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쇠망치
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27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
며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그 구부러
진 곳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도
다.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
라보며 격자 창에서 부르짖기를, 그
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
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지체하는
가? 하매
29 그녀의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
녀에게 대답하였고 참으로 그녀도 스
스로 대답하기를,
30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
랴? 탈취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으
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
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탈취하였으
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전리품이
리로다. 그것은 곧 양쪽에 수놓은 채
색 옷이리니 탈취한 자들의 목에 맞는
것이리로다, 하였으리라.
31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
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사십
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제 6 장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학대함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
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
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
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3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
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
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
와서
4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네가 가자
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
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
하였으니
5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
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
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
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
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6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
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7 ¶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
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므로
8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
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
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
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9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
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10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
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
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
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
니라.

재판관 기드온
11 ¶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
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
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12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
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
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
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
해 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
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
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14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
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5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
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
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16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한 사람
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
늘
17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
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 주는 표적
을 내게 보이소서.
18 원하건대 내가 내 예물을 가지
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
니 그가 이르되,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니라.
19 ¶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일
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다가 드리매
20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
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
라, 하시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21 ¶ 그때에 주의 천사가 자기 손
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에 주의 천사는 그에
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22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23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
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
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샬롬이
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 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25 ¶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버
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의 작은 숲을 베어 내고
26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네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베어
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27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
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
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
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멸함

28 ¶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
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의 작은 숲은 베어졌
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수소를 드렸으므로
29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
어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30 그때에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
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의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하매
31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
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
가 신일진대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
이라, 하니라.
32 그러므로 그 날에 그가 기드온
을 여룹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
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
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
였더라.
33 ¶ 그때에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건너와서 예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34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35 그가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
며 또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양털의 표적

36 ¶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
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의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
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
나이다, 한즉
38 그대로 되니라. 다음 날 기드온
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다 같이 눌러
양털에서 이슬을 짜매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더라.
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
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
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
서, 한즉
40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
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제 7 장

기드온의 삼백 용사

1 그때에 여룹바알 곧 기드온과 그
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2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
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
고 자기를 치켜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
노라.
3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더라.
4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
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
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
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
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
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라.
5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
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6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7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가 *물을* 핥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
하며 미디안 족속을 네 손에 넘겨주리
니 다른 백성은 다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자기들의 나
팔을 손에 들매 그가 이스라엘의 나머
지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사람의 장막으
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밑에 있던
골짜기 안에 있더라.
9 ¶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
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0 그러나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종 부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
하면 그 뒤에 네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12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
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
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13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
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
는데, 보라, 보리 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
으매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14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
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15 ¶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
니라, 하고는
16 삼백 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17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
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
도 그리하여
18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
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
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19 ¶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그들이 나팔을 불
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
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
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21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
기 자리에 서매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
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시므로 군대
가 도망하여 스레랏의 벧싯다에 이르
렀고 또 답밧과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
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24 ¶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
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벧
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
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벧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25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
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
석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
라.

제 8 장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함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
되, 네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투므로
2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
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3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
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4 ¶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삼백
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
라.
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청하
건대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내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노
라, 하니라.
6 ¶ 숙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기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빵을 주어
야 한단 말이냐? 하니
7 기드온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주
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
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더라.
8 ¶ 그가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즉 브누엘
사람들도 숙곳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
한 것처럼 대답하므로
9 그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하
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10 ¶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
과 함께한 군대 곧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만
오천 명가량과 함께 갈골에 있었으니
이는 칼을 뺀 자 십이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11 ¶ 그 군대가 안전히 거하고 있
었으므로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
쪽에서 장막에 거하던 자들의 길로
올라가 그 군대를 치니라.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으므
로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무찌르니라.
13 ¶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
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오다가
14 숙곳 사람들에게 속한 한 청년
을 잡아 물으매 그가 그에게 숙곳의
통치자들과 그곳의 장로들 칠십칠 명
에 대해 묘사해 주므로
1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네 사람
들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는
16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숙
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17 브누엘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
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18 ¶ 그때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
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
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
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
라, 하매
19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
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가 만일 그들을 살려 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0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
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더라.
21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
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기드온의 에봇

22 ¶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
디안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
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
니라.
24 ¶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
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
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
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25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
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
를 그 안에 던지니

26 그가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
가 금으로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
던 자주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
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
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사십 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죽음

29 ¶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가
서 자기 집에 거하니라.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
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 ¶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33 기드온이 죽으매 곧바로 이스라
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
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 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
하며
35 또 기드온이라 하는 여룹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
더라.

제 9 장

아비멜렉의 음모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의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2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모든 아들
곧 칠십 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라.
3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에 관
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
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
고 아비멜렉을 따랐더라. 그들이 이르
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였더라.
4 그들이 바알베릿의 집에서 은 칠
십 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
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니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룹바알의 막
내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으
니라.
6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요담의 나무 비유

7 ¶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
매 그가 그리심 산의 꼭대기로 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8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고 올리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
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9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
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
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
서리요? 하니라.
12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
라, 하니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
라, 하니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
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
느니라.
16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
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느냐? 또한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잘 대우하여 그
의 손이 대접받을 만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냐?
17 (내 아버지가 전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거늘
18 너희가 이 날 일어나 내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는 이유로 그
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
느니라.)
19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 날 여룹
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하였으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
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하려
니와
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
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
킬 것이니라, 하고
21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
려워하여 달려서 도망하고 브엘로 가
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의 패망

22 ¶ 아비멜렉이 삼 년 동안 이스
라엘을 통치하더라.
23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
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
였으니
24 이것은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에게 행한 잔인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
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
가게 하려 하심이더라.
25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그를 엿보게 하였
는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자기들 곁으
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였으므
로 *어떤 이가*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
하니라.
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
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니라.
27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
어 밟으며 기뻐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
멜렉을 저주하니
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
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는 여룹바
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직무 수행
자는 스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
하여 그를 섬기리요?
29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더라
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기를, 네 군대
를 늘려 나오라, 하니라.
30 ¶ 그 도시의 치리자 스불이 에
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는 분노하
여

31 비밀리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게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
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
렀는데, 보소서, 그들이 도시를 강화
하여 당신을 대적하나이다.
32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함께한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33 아침에 해가 뜨거든 곧바로 일
찍 일어나 그 도시를 공격하소서. 그
러면, 보소서, 그와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
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
서, 하니라.
34 ¶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밤에 일어나 네 무리로 나누어
세겜을 마주보며 매복하였고
35 에벳의 아들 가알은 나와서 그
도시의 문 입구에 섰더라.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으므로
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
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
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는도다, 하거늘
37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
라, 백성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므오느님 평야를 따라
오는도다, 하니라.
38 그때에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
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였
는데 그렇게 말하던 네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네가 업신여기던 백
성이 아니냐? 이제 청하건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매
39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
서 아비멜렉과 싸우더라.
40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므로 그
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고 쓰러
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
라.
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
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그들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
라.
42 다음 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43 그가 백성을 취하여 세 무리로
나누고 밭에서 매복한 채 바라보니,
보라, 백성이 도시에서 나오므로 그
가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4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도시의 문 입구에
서고 다른 두 무리는 밭에 있던 온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45 아비멜렉이 그 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46 ¶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릿 신의 집의 요새로
들어갔더니
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
께 모인 것을 *어떤 이가* 아비멜렉에
게 고하매
48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
성이 살몬 산에 오르니라.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어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것을 취해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내
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빨리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하매
49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나
뭇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
에 놓고 그것들 위에서 요새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 천 명이더
라.
50 ¶ 그때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니라.
51 그러나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
대가 있었으므로 그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 곧 모든 남자와 여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52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

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싹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53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
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54 그때에 그가 자기의 병기 드는
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니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
가니라.
56 ¶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57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
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
에게 임하였더라.

제 10 장

재판관 돌라

1 아비멜렉 이후에 잇사갈 사람 도
도의 손자요, 부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의 사밀에 거하며
2 이십삼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
하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히니라.

재판관 야일

3 ¶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
판하니라.
4 그에게 아들 서른 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린 나귀 서른 마리를 탔고
그들에게 서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이
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리느니라.
5 야일이 죽어서 가몬에 묻히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학대를 받음

6 ¶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
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7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
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
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
매
8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십팔 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
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
손을 *학대하였고*
9 또한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
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였
더라.
10 ¶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
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
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시되,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
게서 너희를 건져 내지 아니하였느
냐?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학대할 때에 너희
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내었거늘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 내지 아니하리라.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
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
이 너희를 건져 내게 하라, 하시니라.
15 ¶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아뢰
되,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매 무엇이
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
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
옵나니 이 날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
서, 하며
16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
하였더라.
17 그때에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
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18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
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
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제 11 장

재판관 입다

1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
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
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
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
라, 하니라.
3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
와 함께 나다니더라.
4 ¶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
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7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
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에 어
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매
8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
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네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이것은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네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
늘
9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
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
되, 우리가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
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
를 원하노라, 하니라.
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
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
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
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
니라.
12 ¶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매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
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부터 얍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매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
라올 때에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17 그때에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
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네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
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18 그 뒤에 그들이 광야를 따라서
가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
갔으며 모압 땅의 동쪽 편으로 와서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치되 모압의 경
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
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라.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
신의 땅을 통과하여 내 처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
니하여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
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야하스에서 진을 치고 이스
라엘과 싸우므로
21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혼
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지방의 거주민들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소유하되
22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
야에서부터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아
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소유하였느니
라.
23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소유
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소유하지 아니하
겠느냐?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
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냐? 그
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
었느냐? 혹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었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
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
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삼백 년이 되었거늘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7 그런즉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
니하였거늘 네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
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 날 이스라
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
실지니라, 하였으나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
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입다의 서약과 승리

29 ¶ 그때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
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게로 가며
30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
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
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
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33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네가 미니
스에 이를 때에 보는 스무 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입다의 딸

34 ¶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
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북을 잡고 춤추며 나아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
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35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
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도
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36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
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
셨을진대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

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7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
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두 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38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
로 인하여 애곡하고
39 두 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
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
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
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일
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제 12 장

에브라임이 입다와 다툼

1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
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
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하매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의 손에서 건져 내지 아니하므로
3 너희가 나를 건져 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4 그때에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
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
라.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
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
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
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
라.
5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들보다 먼저 요르단의 통로를 점령하
고는 도망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
하기를, 내가 지나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
일 말하기를, 아니라, 하면
6 그들이 그에게, 이제 쉽볼렛을 말
해 보라, 하고 그가 능히 그것을 바르
게 발음하여 말하지 못하므로 십볼렛
이라 하면 그들이 곧 그를 붙잡아 요르
단의 통로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
라임 사람들 중에서 쓰러진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7 입다가 육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
판하였고 그때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도시들 중의 하나에
묻히니라.

재판관 입산, 엘론, 압돈

8 ¶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
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9 그에게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다른 곳으
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
서 딸 서른 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칠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10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
니라.
11 ¶ 입산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십 년 동
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
론 지방 아이얄론에 묻히니라.
13 ¶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
니라.
14 그에게 아들 마흔 명과 손자 서
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
일흔 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팔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히니라.

제 13 장

삼손의 출생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
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 ¶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
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
더라.
3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네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4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
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
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5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
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
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6 ¶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
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
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
므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
지 아니하였나이다.
7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
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
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더
이다, 하니라.
8 ¶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9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
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10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르되, 보소
서, 다른 날에 내게 왔던 남자가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라.
11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
신 사람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거늘
12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하매
13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
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그녀가 주의하여
14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
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니라, 하더라.
15 ¶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
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매
16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
되, 네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네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네가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주께 드릴
지니라, 하니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17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
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18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

라.
19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
리와 음식 헌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주께 드리니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
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
보더라.
20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
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22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
다, 하였으나
23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
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
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
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
라.
24 ¶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25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제 14 장

삼손의 블레셋 아내

1 삼손이 딤낫에 내려가 딤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의 한 여자를
보고
2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딤낫에서 블레
셋 사람들의 딸들 중의 한 여자를 보았
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
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3 그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가
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에 결코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
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
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
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
소서, 하였더라.
4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
였고 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
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
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5 ¶ 그때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딤낫에 내려가 딤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6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
시매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
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
더라.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
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
라.
8 ¶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
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9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
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
지는 아니하였더라.
10 ¶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
하곤 하였더라.
11 그들이 그를 보고 서른 명의 동
무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하게 하니
라.
12 ¶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
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3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내
게 밝히 보이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
되, 네 수수께끼를 내어 우리가 듣게
하라, 하매
1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
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
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15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
내에게 이르되, 네 남편을 꾀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렀
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매
16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는 그것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도
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대에게
알려 주리요? 하였으나
17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
가 이레 동안 그 앞에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하므로 일곱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 주매 그녀가 수수
께끼를 자기 백성의 아이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18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그 도시
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
하겠느냐?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
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
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
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19 ¶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
매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
에서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
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20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
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제 15 장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름

1 그러나 얼마 뒤 밀을 수확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
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하였
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2 이르되, 나는 진정 네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
러므로 그녀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
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욱 아
름답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그녀 대
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3 ¶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
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
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
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붙는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에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5 그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우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베지 않은 곡식밭
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곡식 단과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
게 하니라.
6 ¶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매 그들
이 대답하되, 딤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
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니
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니라.

7 ¶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8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니라.
9 ¶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지매
10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
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
니라.
11 이에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
라, 하거늘
12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
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새 줄 두 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
니라.
14 ¶ 그가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
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
시매 그의 팔 위의 줄들이 불탄 아마같
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
서 떨어지니라.
15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
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
로 천 명을 죽이고
16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
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17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
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부르니라.
18 ¶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
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이까? 하니라.
19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의 우
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
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 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20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제 16 장

삼손과 들릴라

1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
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니
2 *어떤 사람*이 가자 사람들에게 고
하여 이르되,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
매 그들이 그를 에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
였더라.
3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
밤중에 일어나 그 도시의 바깥문의
문짝들과 두 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의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4 ¶ 그 뒤에 그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매
5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녀
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
을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를 네게 주리라, 하더
라.
6 ¶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
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
는지 내게 고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매
7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일곱 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
라, 하니
8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
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일곱 개를 그녀에게로 가져오매 그녀
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9 이제 사람들이 매복하여 그녀와
함께 방에 머무르고 있더라. 그녀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마치
삼실이 불에 닿아 끊어지는 것 같이
끊었으므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
하니라.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
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
말을 하였도다.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고하라, 하니
11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라.
12 그러므로 들릴라가 새 줄을 취
하여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라. 사
람들이 방에 매복하여 머무르고 있더
라. 그가 자기 팔 위의 줄을 실같이
끊으매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
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일곱 타래
를 엮으면 되리라, 하매
14 그녀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베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가니라.
15 ¶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
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17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
어 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
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
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18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 놓
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
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
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
니라.
19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
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20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
가 예전의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
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

더라.
21 ¶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
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 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22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
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라.
23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
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
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4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
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
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
를 위해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 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
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
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
대도록 허락하라, 하니라.
27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삼천
명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
들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
라.
28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
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
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29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 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30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
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31 그때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
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
에 묻으니라. 그가 이십 년 동안 이스
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제 17 장

미가의 우상숭배

1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2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천백 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
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
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그가 은 천백 세겔을 자기 어머니
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
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
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
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네게 도로 주리라, 하니라.
4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
에게 도로 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이백 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
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

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7 ¶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유
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8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유다를 떠나 이동하
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
에 이르매
9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
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
되, 나는 베들레헴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하매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
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십 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11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의 하나
같이 되었더라.
12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하므로
13 그때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
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
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제 18 장

단 지파가 미가의 우상숭배를 채택함
1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
고 또 그때에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
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 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
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
더라.
2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역 곧 소라
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다섯 사람의 용사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
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의 집
에 이르러 거기 머무니라.
3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
고 거기로 돌이켜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네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여
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
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
노라, 하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
거늘
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7 ¶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서 라이
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
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
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
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
지 아니하였더라.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제
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어
라 말하려느냐? 하니
9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
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
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10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
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니라, 하니라.
11 ¶ 거기서부터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임명을 받은 육백 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
나
12 올라가서 유다의 기럇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이 날까
지 마하네단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느니라.
13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4 ¶ 전에 라이스 지방을 탐지하
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때에 자기 형제
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집들 안
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
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는
15 그들이 그쪽을 향해 돌이켜서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인사하니
16 단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육
백 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17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
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
상을 취할 때에 그 제사장은 임명을
받아 전쟁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더라.
18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
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
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
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의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20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
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
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
라.
21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
며 어린것들과 가축과 물품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22 ¶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 미가의 집에 가까이 있
던 집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 자손
을 따라잡고
23 단 자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므
로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네가 이 무리와 함께 오느냐? 하매
24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
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너희가
나더러,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
매
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성난 자들이 네게 달려들므로
네가 네 생명과 네 집안사람들의 생명
을 잃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26 단 자손이 자기들의 길로 가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가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것을 보고는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라이스에 정착함

27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한 뒤 라이스에 이르
러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
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되
28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 도시가 벧르홉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시돈에서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
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29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
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30 ¶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
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제 19 장

레위 사람의 첩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
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
이 베들레헴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
데
2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
짓을 행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유다
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
서 넉 달을 보내니라.
3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
게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종 하나와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녀를 따라 *거기로* 가니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거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만나
서 기뻐하니라.
4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
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사흘 동안
그와 함께 거하였으며 이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 머물렀더라.
5 ¶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이 아침
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가 떠나려고
일어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사위에게 이르되, 빵 한 조각을
먹고 그대의 마음을 위로한 뒤에 너희
길로 가라, 하니라.
6 그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으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흡족
히 여기고 온밤을 머무르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더라.
7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떠나려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머물렀더라.
8 다섯째 날 아침에 그가 떠나려고
일찍 일어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
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므로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이 함께 먹으니라.
9 그 사람이 자기 첩과 종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
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 가니 청하건대 온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저물어 가느니라. 여기에
머무르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너희의 길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나
10 그 사람이 그 밤에 머무르려 하
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스는 곧 예
루살렘이라.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
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11 그들이 여부스 옆에 이르렀을
때에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르되, 오소서, 원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족속의 이 도시
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러야 하리이
다, 하니
12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
리가 여기에서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
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넘어가
서 기브아로 가리라, 하고
13 또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두 곳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밤을 지내자, 하니라.
14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
로 가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위로 해가 지므로
15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머물려고
거기로 돌이키니라. 그가 들어가서
도시의 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하는 자가 없었
기 때문이더라.
16 ¶ 보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
역시 에브라임 산 출신으로 기브아에
머물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
민 족속이더라.
17 그가 눈을 들어 도시의 거리에
여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니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어디로 가느
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매

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베
들레헴유다에서 에브라임 산 쪽으로
지나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왔으며 베들레헴유다에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받아들
여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나이
다.
19 그러나 우리의 나귀들을 위해
짚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청년을 위해
빵과 포도즙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부
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매
20 노인이 이르되, 그대에게 평안
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게 맡기고 다만 거리
에서 자지는 말라, 하며
21 이처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
로 들어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기브아의 범죄

22 ¶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
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집에 들어온 남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23 집주인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
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 남자
의 첩이 있은즉 이제 내가 그들을 밖으
로 데려가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
고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에게는 그런 수치
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25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
울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취하여 그들에게로 내보내니라.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
기 시작할 때에 놓아주니라.
26 그때에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
기 주인이 머물고 있던 집 곧 그 사람
의 집 문에 이르러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27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서 집 문을 열고 자기 길로 가고자
하였는데, 보라, 그 여인 곧 그의 첩은
집 문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더라.
28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라. 우리가 가자, 하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 사람
이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29 ¶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의 시체를 붙들고 그녀
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열두 조각으
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30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
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하니라.

제 20 장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싸움

1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
바에 이르기까지 길르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주께로 함께
모이니라.
2 온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
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
님의 백성의 집회에서 자기들을 보이
니 칼을 뺀 보병이 사십만 명이더라.
3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
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매
4 레위 사람 곧 죽임 당한 여자의
남편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

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무
르려고 갔는데
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
고 일어나 밤에 내가 거한 집을 에워싸
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으므로
6 내가 내 첩을 취한 뒤에 그녀*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이
상속한 온 지역에 두루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탕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
라.
7 보라,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
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니라.
8 ¶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서 이르되, 우리 중의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9 오직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
할 일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제비뽑아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10 우리가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
파 중에서 백 명에 열 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해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저들이 이스라
엘 안에서 행한 모든 어리석은 일대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11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들이 한 사람같이 연합하여 그 도시를
치려고 함께 모였더라.
12 ¶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
기를,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사
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13 그런즉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
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
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으
나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14 도리어 베냐민 자손이 도시들에
서 나와 기브아에 함께 모여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하더라.
15 그때에 도시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이만 육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주민들 *중에*
서 택하여 계수된 자가 칠백 명이더
라.
16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
손잡이 칠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릿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
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
라.
17 베냐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사십만 명이었는데 이들
은 다 전사들이더라.
18 ¶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
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
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
갈지니라, 하시니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진을 치니라.
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
우려고 나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
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
추매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멸하여 땅에 쓰러뜨렸으나
22 그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기들이 첫째
날 전열을 갖춘 곳에서 다시 전투대형
을 갖추니라.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주 앞
에서 저녁때까지 울며 주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그를
치라, 하시니라.)
24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
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갔더니
25 베냐민도 둘째 날에 그들을 치
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또 다시 이스라
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멸하여 땅에
쓰러뜨렸는데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이더라.
26 ¶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
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주 앞에 앉아
그 날 저녁때까지 금식하고 번제 헌물
과 화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며
27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으
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거
기 있었고
28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
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혹은 그만두리
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
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
리라, 하시므로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방에 복병
들을 두니라.
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
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다른 때와
같이 기브아를 마주보며 전열을 갖추
니
31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치려고
나오다가 유인을 받아 그 도시에서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 곧 한편은 하
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다른
한편은 들에서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다른 때와 같이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였
더라.
32 베냐민 자손이 이르기를, 그들
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하였
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
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그 도시
로부터 큰길로 유인하자, 하니라.
33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전열
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
기들의 처소 곧 기브아의 초원에서
나왔더라.
34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나왔고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으나 그들은 자기들에
게 화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지 못하였
더라.
35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을 치시매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족속 중에서 이만 오천백 명을
멸하였는데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
이더라.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스라엘 사람
들이 자기들이 기브아 옆에 둔 복병들
을 믿고 베냐민 족속에게 자리를 내주
매
37 복병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
격하고 나아가면서 칼날로 온 도시를
쳤더라.
38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 약정한 표적이 있었는데 그것
은 곧 그들이 그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큰 불꽃이 치솟게 하자는 것이더라.
39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에서 물
러가고 베냐민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에서 삼십 명가량을 쳐서 죽이기 시작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분
명히 그들이 처음 싸움에서처럼 우리
앞에서 패하였다, 하였기 때문이더
라.
40 그러나 불꽃이 연기 기둥과 함
께 그 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베냐민 족속이 자기들의 뒤를 바라보
매, 보라, 도시의 불꽃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41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
설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
에게 임한 것을 보았으므로 놀라니
라.
42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
으나 그들에게 싸움이 닥칠 때에 이스
라엘 사람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
을 그 도시들 한가운데서 멸하니라.
43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 족속
을 에워싸고 추격하여 해 뜨는 쪽의
기브아 맞은편에서 그들을 쉽사리 짓
밟으매
44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었더라. 이들은 다 용사들

이더라.
45 그들이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
하여 림몬 반석에 이르렀는데 이스라
엘 사람들이 큰길에서 또 그들 중에서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맹렬히 그들
을 추격하여 기돔에 이르러 또 그들
중에서 이천 명을 죽이니라.
46 이로써 그 날에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모든 자는 칼을 뺀 이만 오천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더라.
47 그러나 육백 명은 돌아서서 광
야로 도망하여 림몬 반석에 이르러
림몬 반석에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48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을 칼날로 치
되 모든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과 손에
닥치는 모든 것을 칼날로 치고 또 자기
들이 다다른 모든 도시를 불살랐더
라.

제 21 장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 아내를 제공함

1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서는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거
기서 저녁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
며 소리를 높여 심히 슬프게 울고는
3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 곧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4 다음 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라.
5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
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누가 회중과
더불어 주께 올라오지 아니하였느
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바로
올라와 주께 이르지 아니한 자에 관하
여 크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그는 반
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기 때문
이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
민으로 인하여 뉘우치며 이르되, 이
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
다.
7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 주리요? 우리가 전에 주
를 두고 맹세하여 우리 딸들을 그들에
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
다.
8 ¶ 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어떤 자가 미스바로
올라와 주께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보니 야베스길르앗에서는 한 사
람도 진영에 이르러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
9 백성의 수를 세매, 보라, 거기에
야베스길르앗 거주민 중에서 하나도
없었더라.
10 회중이 가장 용감한 사람 만 이
천 명을 거기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
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길르앗 거주
민들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
라.
11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곧
너희는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함께
누운 모든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라.
12 그들이 야베스길르앗 거주민들
가운데서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얻었는
데 그들은 아직 남자와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더라. 그
들이 그들을 실로에 있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이곳은 가나안 땅에 있느
니라.
13 온 회중이 몇 사람을 보내어 림
몬 반석에 있던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
게 하고 평화로이 그들을 부르게 하매
14 그때에 베냐민이 다시 오므로
그들이 야베스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 둔 자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에게 부족하므로
15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쳤

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
운데 한 지파를 깨뜨리셨기 때문이더
라.
16 ¶ 그때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
르되,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멸절되었
은즉 우리가 남아 있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아내를 얻어 줄까? 하고는
17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서 도피
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속 재산이 있어
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아니하리라.
18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
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니
라.
19 그때에 그들이 이르되, 보라,
벧엘 북쪽 편, 르보나 남쪽, 벧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의 동쪽 편에
있는 한 장소에서, 실로에서 해마다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 그러므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
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서 숨어
기다리며
21 살펴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
이 춤추면서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각 사람이 실로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붙들어서
베냐민 땅으로 가라.
22 만일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형
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불평하면 우리
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
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우리가
전쟁 중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
를 남겨 두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번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
노라, 하매
23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
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수대
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는 가서 자기들
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 도시들을
복구하고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24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서 떠나 각 사람이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갔더라.
25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
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룻 기

기록자: 사무엘(탈무드), 기록 시기: 주전 107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0년(어셔), 수신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름: 룻기는 이 책의 여주인공 즉 남편이 죽은 뒤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룻은 다윗 왕(룻4:18－22)과 예수님(마1:1, 5)의 조상이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Ruth는 히브리어 책명인 '루트'에서 유래되었다. 성경에서 룻기와 에스더기는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을 딴 책이다.
주제: 메시아가 나올 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목적: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것(1:16; 요4:22)
내용: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파들 간의 쟁투와 이방 세력의 압제로 말미암아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특별히 이집트 탈출 당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심은 우상숭배로 인해 약화되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재판관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상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의 경건한 가정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보며 또 사사기 18－20장에 드러난 극도의 배도와 불안 속에서도 보아스와 같이 여전히 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이루는 사람을 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방 여인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과 충절을 보여 주었다. 룻은 자기의 첫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가 나올 민족을 세우게 하셨는데 바로 이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가족이 룻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 룻기는 4장, 85절, 2,57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룻의 결심), 핵심 절: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 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4:14), 핵심 단어: 친족(2:1)
핵심 구: "가까운 친척"(2:20), 룻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구속자(2:1)
영적 교훈: "곡식을 수확하라."(시126:6)

제 1 장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감

1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유다의 에브랏 사람들
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4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
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
들이 거기서 십 년쯤 거하였을 때에
5 말론과 기룐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룻과 함께 되돌아옴

6 ¶ 그때에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
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
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7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
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
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8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
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9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
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
이 소리 높여 울며
10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
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11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
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
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
느냐?
12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
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
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13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
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
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으므로
15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
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
가라, 하매
16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
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
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
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18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
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
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 ¶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
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20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
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
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
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
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
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
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
라.

제 2 장

룻이 보아스를 만남

1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
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
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
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
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

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
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
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3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
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4 ¶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
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
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
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
하나이다, 하거늘
5 그때에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
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6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
의 젊은 여자이온데
7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
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
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8 그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
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9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
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
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
니라, 하니
10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
이까? 하매
11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12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
노라, 하거늘
13 그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
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
절히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14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
사할 때에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
며 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베는 자들 옆에 앉으매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15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
하여 이르되,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
서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16 또 그녀를 위해 손에 쥔 것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것
들을 남겨 두어 그녀가 줍게 하며 그녀
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이처럼 그녀가 밭에서 저녁까
지 줍고 자기가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일 에바쯤 되었더라.
18 ¶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
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
리매
19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어디에서 주웠느
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
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매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

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
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
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
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매
22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
니라, 하니
23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제 3 장

보아스가 룻을 대속할 것을 약속함

1 그때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
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
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
리를 까부르리라.
3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
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네 자신을 알리지 말며
4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
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하니
5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
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6 ¶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
거울 때에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
고 누웠더라.
8 ¶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9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
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
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
지 아니함으로 네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11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12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13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
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네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
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14 ¶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
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15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
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
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이워 주매 그녀가 도시
로 들어가니라.
16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
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17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
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
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18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 4 장

보아스가 룻을 대속함

1 그때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
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
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
서 앉더라.
2 또 그가 도시의 장로 열 명을 데려
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3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
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4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
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 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
가 그것을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
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무를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무르리라,
하니
5 그때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
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
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6 ¶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무를 수 없나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그것
을 무를 수 없노라, 하니라.
7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
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
었더라.
8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
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9 ¶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
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 날 증인이 되었고
10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
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11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
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
니 주께서 네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
라. 네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
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12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네
게 씨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와 룻의 후손들(마1:2-6)

13 ¶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시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 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
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

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 그가 네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
며 네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네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16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17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
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
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18 ¶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
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
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
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
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
윗을 낳았더라.

왕들에 관한 첫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첫째 책

사 무 엘 기 상

기록자: 사무엘 등, 기록 시기: 주전 106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15년(어셔)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사무엘기상·하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명칭은 사무엘기상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말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를 뜻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기상·하는 한 권으로 '사무엘의 책들'이라 불렸으며 사무엘의 일생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후에 이 둘은 라틴어 성경에서 '왕들에 관한 첫째 책과 둘째 책'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관한 셋째 책과 넷째 책'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으로 말미암은 왕정 통치 제도를 확립하신 것, 목적: 대언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창22:17)
내용: 사무엘기상은 재판관 시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보여 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언자와 재판관으로 부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사무엘은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시기 즉 이집트 탈출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회와 종교의 통일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는 또 대언자 직분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그것을 제사장직과 왕권의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대언자들은 민족의 영적 생활을 지속시키고 백성을 각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통치자와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통일 왕국 및 분단 왕국의 혼돈 상태에 대한 완전한 역사를 보여 준다. 사무엘기상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의 교육,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의 비극적 생애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고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기상은 31장, 810절, 25,04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8장(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
핵심 절: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10:25; 8:7-18 참조)
핵심 단어: 왕과 왕국, 핵심 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3:9)
사무엘기상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롬1:3-4)
영적 교훈: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타도록 하라."(3:3; 마5:14-16)

제 1 장

엘가나의 가족

1 이제 에브라임 산의 라마다임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랏 사람
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
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숩의 사대 손
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
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
은 브닌나더라.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
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3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
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4 ¶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딸들

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5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
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
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
셨더라.
6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
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
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7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브닌나
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
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
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
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
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
냐? 하니라.

한나의 서약

9 ¶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10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
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
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
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12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13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
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14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네
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17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
기 원하노라, 하니
18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
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
더라.

사무엘이 태어나고 봉헌됨

19 ¶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
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20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
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22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3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
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
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
하시기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인
이 머무르며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
지 그에게 젖을 주니라.
24 ¶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일 에바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
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26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
신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
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
드렸으며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제 2 장

한나의 노래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
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
하므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2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3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
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
보시는도다.
4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
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5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주리지 않게 되었
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6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
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
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7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
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
기도 하시는도다.
8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
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
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
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9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
다.
10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
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
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
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엘리의 사악한 아들들
12 ¶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
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13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
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
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14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
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
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15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
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
라, 하다가
1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
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

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
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
라.
17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무엘의 소년 시절 사역

18 ¶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
더라.
19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
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
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주었더
라.
20 ¶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
으로부터 네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
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
로 돌아가매
21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엘리의 집을 향한 대언

22 ¶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
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24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
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25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
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
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26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27 ¶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
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28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
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
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비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었
느냐?
29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
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
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30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
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
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31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네
팔과 네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32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
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33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약
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
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34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네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
이 둘 다 한 날에 죽으리라.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
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36 네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내
게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
라, 하니라.

제 3 장

사무엘의 첫째 대언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
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
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4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
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
가 가서 누우니라.
6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
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
늘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8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
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
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
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
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
니라.
10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
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11 ¶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
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12 그 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
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13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
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
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
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15 ¶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
라.
16 그때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
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7 그가 이르되, 주께서 네게 말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
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만일 그분
께서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
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
노라, 하니

18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
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
매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
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
니라, 하니라.
19 ¶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
와 함께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
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
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21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
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제 4 장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
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옆
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
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그들이 함께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니 그들이 들에 있던 군대
중에서 사천 명가량을 죽이니라.
3 ¶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
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
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
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4 이에 백성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
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 궤를 거기
서 가져오고자 함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
약 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5 주의 언약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다시 울리므로
6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
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
에서 이같이 큰 소리로 외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7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
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
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
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
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
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9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
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10 ¶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매 이스
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
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살육
이 있었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삼만 명이 쓰러졌더라.
11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죽음

12 ¶ 바로 그 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 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13 그가 이를 때에, 보라, 엘리가
길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
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그 일을 고하매 온 도시
가 부르짖으므로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
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
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15 이제 엘리는 구십팔 세더라. 그
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
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
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매
17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
하였고 또 백성 가운데는 큰 살육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
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
나이다, 하니라.
18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
문이라. 그가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가봇

19 ¶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
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
였기 때문이더라.
20 그녀가 죽을 때에 그녀의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
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
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21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22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
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 5 장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궤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
으로 가져가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
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3 ¶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
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
에 두었더라.
4 그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
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
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서 문지
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 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6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
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
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시매
7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된 것을 보
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
게 임하는도다, 하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한즉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
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겨갔
더니
9 그들이 그 궤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를
치니라.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시므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니라.
10 ¶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
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
람들의 모든 귀족을 함께 모으고 이르
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
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
였기 때문이더라.
12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
을 종기로 치시매 그 도시의 부르짖음
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제 6 장

주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옴

1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에 일곱 달 동안 머무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
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
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
엇으로 그것을 그것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매
3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
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
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
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매
4 그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
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 종기
다섯 개와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
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
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
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
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
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멘 적이 없는 젖내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
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 내어
집으로 보내라.
8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
드리는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9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벧세메스로 가
면 그분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
난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10 ¶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내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
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주의 궤와 금 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매
12 암소들이 벧세메스 길로 향하는
곧은길을 택하여 큰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가고 오른쪽
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것들을 따라 벧세메스의 경계까지 가
니라.
13 벧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더라.
14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
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15 레위 사람들은 주의 궤와 그 궤
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 날에 벧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16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7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
물로 돌려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
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
을 위하여 하나이며
18 금 쥐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
과 시골 마을들 곧 그 다섯 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도시들* 수와
같았더라. 그 돌이 벧세메스 사람 여호
수아의 밭에 이 날까지 남아 있느니
라.
19 ¶ 벧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
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
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오만 칠십 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
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20 벧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
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주의 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무름

21 ¶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
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
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로 가져가라, 하니라.

제 7 장

1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2 그 궤가 기럇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이십 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함

3 ¶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
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
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
리라, 하니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6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
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하여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
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
소서, 하더라.
9 ¶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으매 주
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10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
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 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
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므로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12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
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
니라.
13 ¶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
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
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
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
매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
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
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
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었
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16 그가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
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
엘을 재판하고
17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 8 장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

1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2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
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
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
니라.
3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
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
라.
4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
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
하게 하소서, 하니라.
6 ¶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
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7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
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
느니라.
8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이 그런 일들로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
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
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10 ¶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
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
여
11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
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
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12 또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 대장
들과 오십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
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
라.
13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
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14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
리브 밭을 취하되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15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십분의
일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16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
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17 너희 양의 십분의 일을 취하리
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18 그 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
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
을 터이나 주께서 그 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
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
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
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
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
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매
22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
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제 9 장

사울이 왕으로 선정됨

1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
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
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
요, 아비아의 사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
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
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의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
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매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
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4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더
라.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
니라.
5 그들이 숩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
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
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
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7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
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
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
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8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일 세겔
의 사분의 일이 손에 있으니 내가 그것
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겠나이
다, 하니라.
9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
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
더라.)
10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
르되,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가니라.

11 ¶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
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
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12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
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오
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리므
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13 당신들이 도시로 들어가면 그
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즉시
그를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가 희생물
을 축복하므로 그 뒤에야 초청 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소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나리이다, 하니라.
14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도시
에 들어갈 때에, 보라, 사무엘이 산당
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나오
더라.
15 ¶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
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
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니라.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한 사
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18 그때에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
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
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네게 말하리라.
20 사흘 전에 잃은 네 나귀들에 관
하여는 네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
라.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이스라엘
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
와 네 아버지의 온 집에게 있지 아니하
냐? 하니
21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이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이
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안내
하여 객실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초청 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초청 받은 자들
은 삼십 명가량이더라.
23 사무엘이 요리하는 자에게 이르
되, 내가 네게 주며 네 옆에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하니
24 요리하는 자가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매
사무엘이 이르되, 남겨 둔 저것을 보
라!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말하기
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다, 한 때부
터 너를 위하여 이때까지 그것을 남겨
두었느니라, 하니 이처럼 그 날에 사
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 ¶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도
시로 들어간 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의 지붕에서 대화하니라.
26 그들이 일찍 일어나니라. 동이
틀 무렵에 사무엘이 집의 지붕으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곧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니라.
27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
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되
(그가 앞서 가더라.) 너는 잠깐 서 있으
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알려
주리라, 하니라.

제 10 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
1 그때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
니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셀사
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
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
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보라, 네 아버
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셨으나 너희
로 인해 슬퍼하며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그 뒤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평야에 이르면 하나님께 가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빵 세 개를 가지고 가며 또 다른 사람
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빵 두 개를
네게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
을 받으리라.
5 그 뒤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
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
대가 있느니라. 네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
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
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6 또 주의 영께서 네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7 이런 표적들이 네게 임하거든 너
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8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의 희생
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네게 보여 줄
때까지 너는 이레 동안 기다리라, 하
니라.
9 ¶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
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날에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10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
하시매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11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
이 보니, 보라,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
서 대언을 하므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
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
들 가운데 있느냐? 하고
12 같은 장소의 한 사람은 대답하
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
담이 되어,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13 그가 대언하기를 마치고 산당
으로 가니라.
14 ¶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
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
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귀들을 찾다
가 그것들이 아무 데도 없음을 우리가
보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매
15 사울의 삼촌이 이르되, 원하노
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것을 내게
고하라, 하매
16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르되,
그가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
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니
라.

사울이 왕으로 선포됨
17 ¶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미스바
로 주께로 함께 오게 하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이집트 사람
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
니라, 하시거니와
19 이 날 너희는 너희의 모든 곤경
과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친히 구원하
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께
이르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하였도다. 그
런즉 이제 너희 지파들대로 수천 명씩
너희 자신을 주 앞에 보이라, 하고
20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가 뽑혔고
21 또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
리의 가족이 뽑혔으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22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
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
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23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
려오매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그는
백성 중의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
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24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
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국왕 폐하 만세, 하니라.
25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
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26 ¶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
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
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
라.
27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
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
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 11 장

사울이 야베스길르앗을 구원함

1 그때에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
와서 야베스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
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
니
2 암몬 족속 나하스가 그들에게 응
답하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
거리로 두리라는 조건 하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거늘
3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
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의 유예 기간
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네게로 나가
리라, 하니라.
4 ¶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
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
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5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 떼를
따라 오다가 말하되,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매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
게 고하니라.
6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
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가 크게 분노하여
7 한 겨리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
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아와 사울
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
이 한마음으로 나오니라.
8 그가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9 그들이 *거기* 도착한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베스길르앗 사람들

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해가 뜨
거울 때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라, 하니 사자들이 와서 야베스 사람
들에게 그 일을 알리매 그들이 기뻐하
니라.
10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
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가리
니 너희는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니라.
11 이처럼 다음 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그들이 새벽
경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이
매 남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중 두
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하였더라.
12 ¶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
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
매
13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
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14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
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15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
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
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제 12 장

사무엘의 연설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
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서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2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세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
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날까지 너
희 앞에서 걸었노라.
3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
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
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
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
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
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
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5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
날 증인이니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
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니
라.
6 ¶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
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
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니
7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
신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
리라.
8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으매 그때
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그
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
고 나와 이곳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9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
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
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
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우매
10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
롯을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면 우

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 주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
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
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거하였느니라.
12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
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
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
리이다, 하였도다.
13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보라, 주께
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
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15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
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16 ¶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일을 보
라.
17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
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18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
서 그 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
니라.
19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
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
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
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
이다, 하니라.
20 ¶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21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
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
져 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
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22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
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
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
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
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24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25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
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제 13 장

사울의 불법으로 희생물을 드림

1 사울이 일 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에
2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였
는데 그중의 이천 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벧엘 산에 있었고 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
더라.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각각
각 사람의 장막으로 보내니라.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
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
이 그 일을 들으니라. 사울이 온 땅에
두루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
들은 들으라, 하니
4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
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들에게 가증히 여겨진 것을 온 이스라
엘이 듣고 백성이 부름을 받아 길갈로
함께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
대요, 기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벧아웬에서 동쪽으로 믹마스
에 진을 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
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
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으니
라. (백성이 곤란을 당하였더라.)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
울로 말하건대 그는 아직 길갈에 있었
고 온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8 ¶ 그가 사무엘이 정해 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
이 자기를 떠나 흩어지므로
9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
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10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마치
매,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
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
니라.
11 ¶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
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
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
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
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
니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
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
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
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14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
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
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
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
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니
육백 명가량이더라.

군대에 무기가 없음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
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
에 머물렀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
스에 진을 쳤더라.
17 ¶ 노략하는 자들이 블레셋 사
람들의 진영에서 세 무리로 나와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 쪽으로 돌아
서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18 다른 무리는 길을 돌아서 벧호
론으로 향하였으며 다른 무리는 광야
쪽의 스보임 골짜기를 바라보는 경계
의 길로 돌아섰더라.
19 ¶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
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
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
다, 하였기 때문이라.
20 다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각
각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
게로 내려갔더라.
21 그들은 줄이 있어서 곡괭이와
날과 쇠스랑과 도끼와 가시 채를 벼렸
더라.
22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
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
더라.
23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
서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더라.

제 14 장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김

1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
되,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하
였으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
니하였더라.
2 사울은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렀
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육백 명가량이
더라.
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
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
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
더라.
4 ¶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
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려
하였더라.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
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고 저쪽에
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더라.
5 한 바위의 맨 앞은 믹마스를 마주
보며 북쪽으로 놓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보며 남쪽으로 놓였으
므로
6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
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
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
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
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7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에게 이르
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오며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
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하나이다, 하니라.
8 그때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9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말
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
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장소
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
지 아니할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
에 넘겨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
적이 되리라, 하고
11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
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
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
온다, 하고
12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
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
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
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
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
느니라, 하고는
13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
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
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14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 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살육한
자가 이십 명가량이더라.
15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략하는 자
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16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보라, 많은 *사람*
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
라.
17 그때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
던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수를 세어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
므로 그들이 수를 세니, 보라, 거기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없더라.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
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였으
니 하나님의 궤가 그때에 이스라엘 자
손과 함께 있었더라.

19 ¶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내의 소리가
계속 나면서 커지므로 사울이 제사장
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니라.
20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
이 모인 뒤 그들이 싸우러 갔는데,
보라,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매 거기에 크게 쳐부수는 일이 있더
라.
21 또한 그 때 전에 블레셋 사람들
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즉 사방의
지역에서 저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영
에 들어온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
람들과 함께하고
22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에 숨었
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는 싸
우면서 그들을 거세게 추격하였더라.
23 이와 같이 주께서 그 날에 이스
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벧아
웬으로 넘어갔더라.

사울이 경솔히 맹세함

24 ¶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맹
세시켜 이르기를, 저녁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하였으므로 백성 중 아
무도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하니라.
25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숲에 들어
갔는데 땅에 꿀이 있었으며
26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보
라, 꿀이 떨어지더라. 그러나 백성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자기 손을
입에 대지 아니하니라.
27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
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손에 든
막대기 끝을 내밀어 벌집에 그것을
담그고 자기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28 그때에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며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
기를, 이 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
를 받을지어다, 하셨으므로 백성이
기진하였나이다, 하니
29 이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
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청하
건대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으므로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이 노략하여 얻
은 것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리하였겠느냐? 이제 블레셋 사
람들 가운데 더 큰 살육이 있지 아니하
였겠느냐? 하니라.
31 그 날에 그들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
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심히 기진하였
더라.
32 백성이 노략한 물건으로 날아
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땅에서 잡아 그것들을 피째 먹었더
라.
33 ¶ 그때에 그들이 사울에게 고
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피째
먹어 주께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지었도다. 이
날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34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말하
기를, 각 사람이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이리로 내게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그
것들을 잡아 먹되 피째 먹어서 주께
죄를 짓지 말라, 하매 그 밤에 온 백성
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36 ¶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이든지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우리가 여기로 하나
님께로 가까이 가사이다, 하매

37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 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38 사울이 이르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아,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오라. 이 날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온 백성 가운데서 그에게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40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한 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41 그러므로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완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매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벗어났으므로

42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43 그때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거늘

44 사울이 응답하되,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매

45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이 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나이다, 하여 백성이 이렇게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46 이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처소로 가니라.

계속되는 사울의 전쟁

47 ¶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취한 뒤에 사방에 있던 자기의 모든 원수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라. 그가 몸을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48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더라.

49 이제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멜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더라.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요,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더라.

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더라.

52 사울의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제 15 장

사울이 아각을 살림

1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
매
4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
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이십
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더라.
5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니라.
6 ¶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
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
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7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네가 이
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
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8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 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
하니라.
9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
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
라.

사울의 왕권이 거부됨

10 ¶ 그때에 주의 말씀이 사무엘
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
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주
께 부르짖으니라.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
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
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
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
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매
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
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15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
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
하였나이다, 하매
16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
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
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고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
되, 말씀하소서, 하니라.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
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
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
지 아니하셨나이까?
18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
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
다.
19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
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
였나이까? 하니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
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
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
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
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
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
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22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
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
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
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
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24 ¶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
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25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
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
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
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그가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으매 그것
이 찢어지므로
28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
서 이 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
나이다.
29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
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
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30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
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31 이에 사무엘이 되돌아서서 사울
을 따라가매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32 ¶ 그때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
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
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33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
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네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34 ¶ 그때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
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35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
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
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제 16 장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음

1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
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느 때까
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
을 네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2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
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
고
3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
라. 네가 행할 일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니 너는 내가 네게 지명하는 자에
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
시니라.
4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이르되,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
까? 하니

5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느니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은즉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나와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자, 하고는 그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을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니라.

6 ¶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7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8 이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매 그가 이르되,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9 그때에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매 그가 이르되,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다시 이새가 자기의 일곱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13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 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힘

14 ¶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16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니

17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위해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

18 그때에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19 ¶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들과 함께 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0 이새가 나귀를 취해 빵과 포도즙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싣고 자기 아들 다윗의 손으로 그것들을 사울에게 보내니

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매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드는 자로 삼고

22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그가 내 눈앞에서 호의를 얻었느니라, 하니라.

23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제 17 장

다윗과 골리앗

1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
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
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
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
매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
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대형을 갖
추더라.
3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으며 그들 사
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4 ¶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
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
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육 큐빗 한
뼘이더라.
5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더라.
6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7 그의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고
그의 창 촉의 무게는 쇠 육백 세겔이더
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
찌하여 나와서 전투대형을 갖추었느
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
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
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
로 내려오게 하라.
9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
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라, 하고
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 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
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12 ¶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유다의
그 에브랏 사람 곧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여덟 아들이 있
었으며 그 사람은 사울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13 이새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
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
*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
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14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
은 세 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15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
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
을 먹이더라.
16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사십 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
라.
17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
되, 이제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일 에바와 이 빵 열 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
들의 천인 대장에게 주며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
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19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20 ¶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아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
르더라.
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
투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
하였더라.
22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
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23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
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4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25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
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니라.
26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
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 계시는 하나
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27 백성이 이 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
에게는 그렇게 대우하리라, 하니라.
28 ¶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
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
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
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무례함
을 아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하매
29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
라.
30 ¶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
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31 *그들이* 다윗이 말한 말들을 듣
고 그것들을 사울 앞에 고하였으므로
그가 그를 부르니라.
32 ¶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
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
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
과 싸우리이다, 하매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34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
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 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 내었고 그것
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
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
다.
36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
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도 그 짐승들 중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
다, 하고
37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8 ¶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
을 무장시키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 주며 또 쇠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39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
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
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 보다가 사울에
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40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
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
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릿매
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
이 가니라.
41 그 블레셋 사람이 나아와 다윗에
게로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서 가더라.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
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43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
되,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
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44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45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
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46 이 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 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
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
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47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
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
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
시리라, 하니라.
48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
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
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
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49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무릿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
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
니라.
50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릿매와 돌
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
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므로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
나 소리를 지르며 네가 골짜기와 에그
론 성문들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
들을 좇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으로 가는 길 곧 가드
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서 쓰러졌더
라.
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
을 좇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들을
노략하였고
54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병기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5 ¶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
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
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매 아브넬
이 이르되, 오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6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
라.
57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
고 돌아올 때에 아브넬이 그를 안내하
여 사울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의 손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58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
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
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 장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함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3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
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
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
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 ¶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매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
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
니라.
6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아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북과 악
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
하더라.
7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
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
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8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
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
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9 그 날 이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
하였더라.
10 ¶ 그 다음 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
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
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11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
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
였더라.
12 ¶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
니라.
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그를 천인 대장
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14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
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
께 계시니라.
15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
워하였으나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
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
를 사랑하였더라.

다윗이 미갈과 결혼함

17 ¶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라.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
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하였기 때
문이더라.
18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니이까? 이스라엘 안에서 내 삶
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라.
19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
게 주어야 했을 때에 *그가* 그녀를 므홀
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니라.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
매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므로 그가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21 이르되,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
어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
라, 하고는 그런 까닭에 다윗에게 이
르되, 이 날 네가 그 둘 중의 하나로
말미암아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 ¶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
령하여 이르되, 다윗과 은밀히 대화하
며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
시고 그의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하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그 말들을 다윗
의 귀에 말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하찮
은 사람이라, 하니라.
24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더이
다, 하매
25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
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런 지
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니
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
였더라.
26 그의 신하들이 이 말들을 다윗
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니라. 날들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27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이백
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를 채워 왕에게 드림으로 왕의 사위
가 되려 하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 ¶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30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
들이 나아왔는데 그들이 나아온 뒤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
롭게 행동하므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제 19 장

사울이 다윗을 핍박함

1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
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2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
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
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
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3 내가 나가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
지와 대화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그것
을 네게 고하리라, 하더라.
4 ¶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
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
이 매우 선하였나이다.
5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
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
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
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6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
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
을 그에게 알려 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니 그가 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앞에 있었더라.
8 ¶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
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
을 크게 살육하매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하니라.
9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므로 다윗이 손으로 *하프*
를 탈 때에
10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그는 창을 벽에 박으니
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매
11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므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
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
니라.
12 ¶ 이처럼 미갈이 창을 통해 다
윗을 밑으로 내리매 그가 가서 도망하
여 피하니라.

13 미갈이 형상 하나를 취하여 침
상에 누이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 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그것을 덮었
더라.
14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그녀가 이르되, 그가 병
들었느니라, 하니라.
15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게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
에 둔 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니라.
16 사자들이 들어가니, 보라, 침상
에 형상 하나가 있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 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17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이고 내 원수
를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하
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
하여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하더이
다, 하니라.
18 ¶ 이와 같이 다윗이 도망하여
피하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
러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였고 그와 사무엘이 가서
나욧에 거하였더라.
19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여 이
르되, 보소서, 다윗이 라마의 나욧에
있나이다, 하매
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
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대언자들의 무
리가 대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임명을
받아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사자
들에게 임하시매 그들도 대언을 하니
라.
21 *어떤 이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
하매 그가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대언을 하니라.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
는데 그들도 대언을 하므로
22 이에 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말하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
한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그들이
라마의 나욧에 있나이다, 하니라.
23 그가 라마의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의 나욧에 이르기까지 가면
서 대언을 하였으며
24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사무
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언을 하며
그 날 온 낮과 온밤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
를,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라.

제 20 장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함

1 다윗이 라마의 나욧에서 도망하
여 가서 요나단 앞에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
냐?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
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니
2 그가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
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아버지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려 주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매
3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네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요나단이 근심
할까 염려가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 계심과 네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
라.
4 이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하니
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보
라,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반드시 왕
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할 터이나 부디
나를 가게 하여 내가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 네 아버지가 만일 나를 섭섭히

생각하거든 그때에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도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위
해 내게서 떠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
사오니 *그들이*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하
여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나이다*, 하
라.
7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좋
다, 하면 네 종에게 평강이 있으려니
와 그가 만일 심히 노하면 그가 악을
결심한 줄을 확실히 알지니
8 그런즉 너는 네 종에게 친절히
대하라. 네가 네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안으로 이끌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법이 있거든 네가
직접 나를 죽이라. 어찌하여 네가 나
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하겠느
냐? 하매
9 요나단이 이르되, 그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가
네게 악이 임하도록 결심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 내가 그것을 네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10 그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
되, 누가 그것을 고하겠느냐? 혹은
네 아버지가 네게 거칠게 대답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더라.
11 ¶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그들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일
아무 때나 혹은 셋째 날에 내 아버지를
자세히 살필 때에, 보소서, 다윗을 위
하여 선한 일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면
13 주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
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
나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는 것을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을 네게 알려
주고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리
라. 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14 너는 내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15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
서 모두 끊어 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네 친절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실
지어다, 하니라.
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
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18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
되, 내일은 월삭인데 네 자리가 빌
터이므로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19 너는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을 착수하던 때에
네가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돌 옆에
머무르라.
20 내가 마치 과녁을 쏘려 하는 것
같이 화살 셋을 그 곁에 쏠 것이요,
21 또, 보라, 내가 아이를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화살들을 찾으라, 하
며 내가 일부러 그 아이에게 이르기
를, 보라, 화살들이 네 이편에 있으니
그것들을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올지
니라.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
거니와 네게 평강이 있으며 해가 없으
리라.
22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젊은이에
게 이같이 말하기를, 보라, 화살들이
네 너머에 있다, 하거든 네 길로 가라.
주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23 너와 내가 말한 일에 관하여는,
보라,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
록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4 ¶ 이에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 왕은 다른 때처럼 자기 자리 곧
벽 옆의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일어
섰으며 아브넬은 사울의 옆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쳐서 그가 부정하게 되었도
다. 확실히 그가 부정하게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7 다음 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사울이 자
기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매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려고 내게서 떠
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29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가게 하
라. 우리 가족이 그 도시에서 희생물
을 드리려 하므로 내 형이 내게 거기에
올 것을 명령하였나니 이제 내가 네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내가 떠나가서
원하건대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
으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오지 아니하
나이다, 하니라.
30 이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
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네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네 어머니를 벌거
벗기는 혼란을 가져온 줄을 내가 알지
못하랴?
31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
나 네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로 끌어 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니
32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무슨 이유로 그가
죽어야 하리이까? 그가 무엇을 행하
였나이까? 하매
33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 하니 이로써 요나단이 자기 아버
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 이에 맹렬히 분노하여 식탁에
서 일어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
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그가 다윗으
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35 ¶ 아침에 요나단이 조그만 아
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
36 자기의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
가서 이제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으
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그가
화살을 그 아이 너머로 쏘니라.
37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
는 곳에 이를 때에 요나단이 아이를
따라가며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너
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38 요나단이 아이를 따라가며 또
외치되, 빨리 서두르고 머무르지 말
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들을
주워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왔으
나
39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
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0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자기의
아이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것
들을 가지고 도시로 가라, 하니라.
41 ¶ 아이가 가매 곧 다윗이 남쪽
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세 번 절한 뒤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더니 마침내
다윗이 더 심히 *울었더라*.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
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
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
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네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
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
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오니라.

제 21 장

다윗과 거룩한 빵

1 그때에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
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
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3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안에 무엇
이 있나이까? 빵 다섯 개나 무엇이든
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4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내 손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
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
면 *주리라*, 하매
5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며 그
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
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
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 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
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
다, 하니
6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
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 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
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
라.
7 이제 그 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
데 그의 이름은 도엑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
서 가장 으뜸가는 자였더라.
8 ¶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
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
나이다, 하매
9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
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을 보라. 그것이 여기에 에봇 뒤에 있
는 보자기에 싸여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 말고
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다윗이 가드로 도망함

10 ¶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
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
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
니이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
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12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
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
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체하며 바깥
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
에 흘리매
14 그때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
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
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치광이가 필요하여 너
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제 22 장

다윗과 그의 사백 명 군사

1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
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
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
라.
2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
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
께한 사백 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3 ¶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
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
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
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4 그들을 모압 왕 앞으로 데려갔더

니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줄곧
그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5 ¶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에 다윗
이 떠나서 하렛 숲에 이르니라.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임

6 ¶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울이 들으니라.
(이제 사울은 기브아에서 라마에 있던
나무 밑에 머무르며 손에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주위에
섰더라.)
7 그때에 사울이 자기 주위에 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
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으로 삼겠느냐?
8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
모를 꾸몄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또 너희 중에서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 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라.
9 ¶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을 다스
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엑이 응답
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
을 내가 보았는데
10 그가 그를 위하여 주께 묻고 그
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하니라.
11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
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
버지의 온 집 곧 놉에 있던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즉 그들 모두가 왕에게
이르니라.
12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둡의 아
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응답하
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
매
13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
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네가 그에
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께 물어서 그가 이 날에라도 매복하였
다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게 하려 하였
느냐? 하니
14 그때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
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이니이다.
15 내가 그때에야 비로소 그를 위
하여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나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
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적든 많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16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
의 온 집이 그러하리라, 하니라.
17 ¶ 왕이 자기 주위에 선 보병들
에게 이르되,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
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
께하고 또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
느니라,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
기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
려 하지 아니하므로
18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
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엑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
쳐 그 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19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20 ¶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
들들 중에서 하나가 도피하였는데 *그
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더라. 그가 다윗
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21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
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리매

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족속 도엑이 거기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23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
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네가 나
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 23 장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

1 그때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와 싸우고 타작마당들을 강탈하
나이다, 하니
2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
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
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3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
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
리이까?* 하니라.
4 그때에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
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
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
라, 하시므로
5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
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
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하니라.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
라로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자기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7 ¶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
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고을에
들어감으로 갇혔도다, 하고
8 사울이 싸우려고 온 백성을 함께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
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였더라.
9 ¶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제사장 아비아
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
라, 하고
10 그때에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로 인해 그일
라로 내려와 도시를 멸하려 한다는
것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
에 넘겨주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
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오 주 이스
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12 그때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
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
시니라.
13 ¶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니 다윗
이 그일라를 떠나 피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그가 가기를 그치니
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머무름

14 다윗이 광야에서 강한 요새에
머물렀고 또 십 광야에 있는 산에 거하
였더라.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15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으므로 다윗이
십 광야에 있는 숲에 있었더라.
16 ¶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
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17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
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
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

라, 하니라.
18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
고 다윗은 숲에 머물며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 ¶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
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
는 하길라 산 숲의 강한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20 그러하온즉, 오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전적으로 원하
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
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리이
다, 하매
21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불
쌍히 여겼으니 주께 복 받기를 원하노
라.
22 *어떤 이가* 내게 고하기를 그가
매우 교묘히 행한다고 하니 청하건대
너희는 가서 여전히 예비하고 그가
드나드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23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숨어 있
는 모든 은신처를 보고 안 뒤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그 땅에 있으
면 내가 유다의 수천 곳을 모두 두루
다녀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니
라.
24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
저 십으로 갔으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야 곧 마온
광야에 있었더라.
25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찾
으러 가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매
그런 까닭에 그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더니 사울이 그것을 듣
고는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니
라.
26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
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
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
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27 ¶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
아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
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니
28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
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
을 셀라하마르곳이라 하였더라.
29 ¶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
디의 강한 요새에 거하니라.

제 24 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 줌

1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
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
에 있나이다, 하니
2 그때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
로 가니라.
3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
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
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 있더
라.
4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
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리
니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
라, 하시며 언급한 그 날을 주목하소
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
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5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
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6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
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라, 하고
7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
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

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
라.
8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
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9 ¶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
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
을 들으시나이까?
10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
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 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
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11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
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
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12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13 옛 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
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14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좇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
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
쫓나이다.
15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16 ¶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말
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
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 악
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
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18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 날 네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
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네
가 이 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네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
하노라.
20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21 그런즉 네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
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
들은 요새로 올라가더라.

제 25 장

사무엘의 죽음

1 사무엘이 죽으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
니라.

다윗과 아비가일

2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삼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
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3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
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

라.
4 ¶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다는 것을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라.
5 다윗이 청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
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
이 말하기를, 네게 평강이 있으라.
네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네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하라.
7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
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8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
게 알려 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
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9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
름으로 나발에게 그 모든 말대로 말하
고 멈추니라.
10 ¶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
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
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11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
느냐? 하니라.
12 이에 다윗의 청년들이 자기들의
길을 돌이켜 다시 가서 돌아와 그 모든
말들을 그에게 고하매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
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사백 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이백 명은 물건
들 옆에 머무니라.
14 ¶ 그러나 청년들 중의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이
르되,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내
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욕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으며 그
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
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
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였으
니
16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
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
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
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
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18 ¶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이
백 개와 포도즙 두 부대와 이미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오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이백 덩이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19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
라, 하였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20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외진
곳으로 내려갔는데, 보라, 다윗과 그
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며 내려오
매 그녀가 그들을 만나니라.
21 그런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소유
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22 내가 동틀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소변보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 두면 하나님께서 다윗
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24 그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
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
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
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
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 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
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
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
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고
28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29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
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
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무릿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
이다.
30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
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에
31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
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니라.
32 ¶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
되, 이 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33 또 네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
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
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
더라면 동틀 때에 담에다 소변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 있지 아니
하였으리라, 하니라.
35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
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
가라. 보라, 내가 네 음성에 귀를 기울
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하니라.
36 ¶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
는데, 보라,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
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였으므로
나발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하
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동틀 때까
지는 적든 많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
지 아니하니라.
37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
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38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
시매 그가 죽으니라.
39 ¶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
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
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
리 위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
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매
40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
가일에게 이르러 그녀에게 말하여 이

르되,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
으려고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하니
41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42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라간 자기의 소녀 다섯
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니라.
43 다윗이 또한 예스르엘의 아히노
암을 취하니 그들 두 사람도 그의 아내
가 되니라.
44 ¶ 그러나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
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제 26 장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 줌

1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
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여시몬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2 그때에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
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
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
3 여시몬 앞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
을 치니라.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
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것을 보았고
4 그런 까닭에 정탐꾼들을 보내어
참으로 사울이 온 것을 깨달았더라.
5 ¶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곧
그의 군대 대장 아브넬이 누운 곳을
바라보았는데 사울은 참호 안에 누웠
고 백성은 그를 둘러싸고 진을 쳤더
라.
6 그때에 다윗이 헷 족속 아히멜렉
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
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
되,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니라.
7 이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갔는데, 보라, 사울은 참호
안에서 누워 자며 그의 창은 그의 베개
옆 땅에 꽂혀 있더라. 그러나 아브넬과
백성이 그를 둘러싸고 누웠으므로
8 그때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
되, 하나님께서 이 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
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쳐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
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
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
하리라.
11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
시나니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의
베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리라, 하고
12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
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
도 그것을 보거나 알지 아니하였고
또 깨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13 ¶ 이에 다윗이 다른 쪽으로 가
서 멀리 있는 산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더라.
14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
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브넬
아, 네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
게 소리를 지르는 너는 누구냐? 하매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
가 용맹한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서 누가 너와 같으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
였느냐?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16 네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
하도다.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라.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이르
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
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 또 그가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
여 이같이 주의 종을 뒤쫓으시나이
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
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주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이셨으
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이다.
하오나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이면 주 앞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
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 날 나를 쫓아
내어 주의 상속 재산 안에 머물지 못하
게 하였나이다.
20 그런즉 이제 주의 얼굴 앞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
서. 사람이 산에서 자고새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하
니라.
21 ¶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
오라. 이 날 네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
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하매
22 다윗이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창을 보소서! 청년들 중의 한 명을
오게 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소서.
23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
움과 신실함을 갚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
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 하지 아니하였나
이다.
24 보소서, 이 날 내 눈이 왕의 생명
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매
25 그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
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
어다. 네가 큰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
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제 27 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연합함

1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
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
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
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
하리라, 하고
2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
던 육백 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안사람들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
와 함께 거하였으며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
께 거하였더라.
4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그가 다시는
그를 또 찾지 아니하니라.
5 ¶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제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그들이 지방에 있는 어떤 고을에서
한 처소를 내게 주게 하여 내가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
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이

까? 하니
6 이에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 날까
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느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일 년 사 개월이었더
라.
8 ¶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서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
적부터 그 땅 곧 네가 수르로 즉 이집트
땅으로 갈 때에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
었더라.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
나 살려 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
와 낙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10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다윗
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여라므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
이다, 하니라.
11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 두
지 아니하여 가드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
관해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
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행하리라, 할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
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철저히 싫어하게 하였은즉 그
가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하니라.

제 28 장

1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
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므로 아기스가 다윗
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니라, 하매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
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
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너
를 영원토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
리라, 하니라.

사울이 영매의 도움을 구함

3 ¶ 이제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
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
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
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
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
을 치니라.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
게 떨리므로
6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7 ¶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
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
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
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
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
다, 하니라.
8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9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 버린 것을 아나니 그런즉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매
10 사울이 주를 두고 그녀에게 맹
세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11 그때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
구를 네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
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
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매
13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
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
나이다, 하매
14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
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
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 ¶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
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
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
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 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16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
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네 손에서 찢으사 네 이웃에게 곧 다윗
에게 주셨느니라.
18 네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
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
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
서 이 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19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
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20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그가 온 낮과 온밤
에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더라.
21 ¶ 그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
서 그가 심히 고통 받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여종이
왕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였사오니
22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서도 왕의 여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사 내가 왕 앞에 빵 한 조각을 놓게
하소서.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거늘
23 그가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
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신하
들과 여인이 함께 강권하매 그가 그들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땅에
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4 여인에게는 집에 살진 송아지
가 있었으므로 그녀가 급히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취해 반죽하여 그것으
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워
25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
오니 그들이 먹고 그 뒤에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제 29 장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거부함

1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함께 모았고 이스
라엘 사람들은 예스르엘에 있는 샘 옆
에 진을 쳤더라.
2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후위대에서
나아갔더니
3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
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서 무엇을 하나이까? 하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에게 이르
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이
여러 날 혹은 이 여러 해 동안 있었으
되 그가 내게로 넘어온 날부터 이 날까
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니
4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
에게 노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자를 돌려
보내어 그가 왕이 그를 위해 정해 준
그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게 하지
말지니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대적
이 될까 염려하나이다. 그가 무엇으
로 자기 주인과 화해하리이까? 이 사
람들의 머리가 아니니이까?
5 그들이 춤추며 서로 노래하여 이
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
윗은 수만이로다, 하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라.
6 ¶ 이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분명히 네가 올바
르며 네가 내게 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내가 네게서 악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네가 나와 함께 군대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내 눈앞에서는 좋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네게 호감을 갖지 아니하니
7 그런즉 이제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노엽
게 하지 말라, 하니라.
8 ¶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
러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이 날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
이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매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네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
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
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
러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10 그런즉 이제 너와 함께 온 네
주인의 신하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
나 밝거든 곧 떠나라, 하매
11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
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
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
은 예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제 30 장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침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
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2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
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
들의 길로 가니라.
3 ¶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
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딸들은 포
로가 되었으므로
4 그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
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6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
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
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
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8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
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

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9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10 다윗과 사백 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이백 명이 너무 기진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11 ¶ 그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찾아내어 다윗에게로 데려와
그에게 빵을 주니 그가 먹으매 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12 또 무화과 덩이에서 뗀 덩이 하
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더라. 그
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
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먹은
뒤에 그의 정신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
더라.
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
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이집트 청년이
요, 아말렉 족속의 종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매 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
다.
14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
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
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하매
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
를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
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가리이다, 하더라.
16 ¶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
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
앗은 온갖 큰 노략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므로
17 다윗이 황혼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
한 청년들 사백 명 외에는 그들 중의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의 두 아내를
구출하였으며
19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략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
취했던 것이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되찾았고
20 또 모든 양 떼와 소 떼를 탈취하
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
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하였더라.
21 ¶ 다윗이 이백 명에게로 갔는
데 이들은 너무 기진하여 다윗을 따르
지 못하므로 저들이 또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을 맞이하려 나오
므로 다윗이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문안하니
22 그때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
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
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 중에서 아무것
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만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어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리
라, 하니라.
23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
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
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
리라.
24 이 일에서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직 싸우러 내려가
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머무르는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
눌 것이니라, 하고
25 그 날부터 그가 그것을 이스라
엘을 위해 법규와 규례로 삼았더니
그것이 이 날까지 그리 되니라.
26 ¶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유다
장로들 곧 자기 친구들에게 노략물을
보내며 이르되,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중에서 너희를 위해 마련
한 예물을 보라, 하고

27 벧엘에 있던 자들과 남쪽 라못에
있던 자들과 얏딜에 있던 자들과
28 아로엘에 있던 자들과 십모스에
있던 자들과 에스드모아에 있던 자들
과
29 라갈에 있던 자들과 여라므엘 족
속의 도시들에 있던 자들과 겐 족속의
도시들에 있던 자들과
30 호르마에 있던 자들과 고라산에
있던 자들과 아닥에 있던 자들과
31 헤브론에 있던 자들과 또 다윗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자주 가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 31 장

사울의 비극적 죽음(대상10)

1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
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
고
3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히매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
라.
4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
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
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
지매
5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7 ¶ 골짜기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
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도시
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
이 와서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8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9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알리게 하며
10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몸은 벧산 성벽에 묶어 두니
라.
11 ¶ 야베스길르앗 거주민들이 블
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
고
12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밤
새도록 가서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
의 몸을 벧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
로 돌아와 거기서 그 몸들을 불태우고
13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
였더라.

왕들에 관한 둘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둘째 책

사 무 엘 기 하

기록자: 나단(전승) 등, 기록 시기: 주전 101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8년(사울의 사망으로부터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
목적: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복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무엘기하에는 다윗의 통치의 시작과 그의 타락과 그것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되는 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후반부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사무엘기상이 엘리와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 사람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반면에 사무엘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질서를 회복시키고 왕정 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을 부각시킨다. 또한 이 책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삼하5:6–12), 시온이 종교적 중심지로 확립되는 것을 보여 준다(삼하5:7; 6:1–17). 질서가 확립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의 계통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다(7:8–17). 사무엘기하는 24장, 695절, 20,60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장(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함)
핵심 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5:12), 핵심 단어: 왕, 핵심 구: "주 앞에"(6:17)
사무엘기하의 그리스도: 다윗의 주님(7:4–17)
영적 교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르라."

제 1 장

사울의 죽음이 보고됨

1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와서 이
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2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
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
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
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경의
를 표하매
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
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
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
나이다, 하거늘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
게 되었느냐? 원하노니 내게 고하라,
한즉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
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5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6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
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
고, 보소서,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7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나
를 보고는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
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
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9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
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 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10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
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
으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
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
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때까지 그
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
니라.
13 ¶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
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 출신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
으로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거늘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
찌 네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
였느냐? 하고
15 청년들 중의 하나를 불러 이르
되, 가까이 가서 그를 덮치라, 하니
그가 그를 치매 그가 죽으니라.
16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니 네 입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도다, 하더라.

다윗의 애가: 활의 노래

17 ¶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
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18 (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
니,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
어 있느니라.)
19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
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20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 알리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21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
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헌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마치 사
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거기서 강력한 자의 방패 곧 그의 방패
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도다.
22 죽은 자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
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빈 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 있을 때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
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
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
보다 강하였도다.
24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
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주홍색 옷
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달아
주었도다.
25 어찌 강력한 자들이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
여, 네가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네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네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
도다.
27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
며 전쟁 무기가 멸망하였는가!

제 2 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1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의 하
나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주께서 그
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
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2 이에 다윗이 자기의 두 아내 곧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데리고 거기

로 올라갈 때에
3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곧 각 사람
과 그의 집안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
을 헤브론의 도시들에 거하게 하니라.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
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으며 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야베스길르앗 사람들
이 사울을 묻었나이다, 하였더라.
5 ¶ 다윗이 야베스길르앗 사람들
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같은 친절을 베풀어 그를 묻었으니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6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
시기 원하며 나도 이 친절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
게 하고 용맹스럽게 할지어다.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의 집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

8 ¶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 그를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예스
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
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
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였으며 그가 이 년 동안 통치하
니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르
더라.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
다의 집을 다스린 기간은 칠 년 육
개월이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12 ¶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
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가고
13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
하들은 나가서 기브온 연못가에서 함
께 만나니라. 그들이 앉되 한 쪽은
연못 이편에, 다른 쪽은 연못 저편에
앉았더라.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
제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
게 하자, 하니 요압이 이르되, 그들이
일어나게 하라, 하매
15 그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게 속한 베냐민의 열두 명과 다윗의
신하 중의 열두 명이 수효대로 일어나
서 나아가더라.
16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의 머리
를 잡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매
그들이 함께 쓰러졌으므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핫수림이라 하였더
라.
17 그 날 싸움이 매우 심하였고 아
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
하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18 ¶ 거기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
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
사헬은 발이 들노루같이 가볍더라.
19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며 갈
때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
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좇으니
라.
20 이에 아브넬이 자기 뒤를 바라
보며 이르되, 네가 아사헬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매
21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
서 청년들 중의 하나를 붙잡고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
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좇으니
22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
되, 너는 치우쳐서 나를 좇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지
게 하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에게 얼굴을 들겠느냐? 하
되
23 그가 치우치기를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치니 창이 그의 등 뒤로
나가므로 그가 거기에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아사헬이 쓰러
져 죽은 곳에 이른 많은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추격
하였는데 그들이 기브온 광야의 길옆
기아 앞에 있는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더라.
25 ¶ 베냐민 자손이 함께 모여 아
브넬을 따라서 한 떼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26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을 부르며
이르되, 칼이 영원토록 삼키겠느냐?
마지막 끝에는 그것이 쓰라림이 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네
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 하매
27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
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백성이
아침에 각각 자기 형제 쫓기를 그만두
고 올라갔으리라, 하더라.
28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백성이 가만히 서고 더 이상 이스라
엘을 추격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싸우
지 아니하니라.
29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 온
밤에 걸어서 평야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온 비드론을 지나서 마하나임
에 이르니라.
30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윗
의 신하들 중에서 열아홉 명과 아사헬
이 없더라.
31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베냐민
과 아브넬의 사람들을 치매 삼백육십
명이 죽었더라.
32 ¶ 그들이 아사헬을 취해 베들레
헴에 있던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동이 틀 때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제 3 장

1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다윗의 아들들

2 ¶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
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예스르
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라.
3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
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르압이요, 셋
째는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4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요,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댜요,
5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은 이드르엠이더라. 이들이 헤
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나니라.

아브넬이 다윗과 연합함

6 ¶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자신을 강하게 하니라.
7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이야의 딸 리스바더라. 이스
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갔느
냐? 하니
8 그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
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고
이 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
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하는도다.
9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10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
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
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
에 다윗의 왕좌를 세우는 것이라, 하
매
11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다시
한 마디도 그에게 응답하지 못하니
라.
12 ¶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하고 또 이
르되,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어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데려가리
이다, 하더라.
13 ¶ 그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
와 동맹을 맺으려니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곧 네가 내 얼굴을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
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라, 하고
14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기라.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로 정혼한
자니라, 하니
15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
를 그녀의 남편 곧 라이스의 아들 발디
엘에게서 취하매
16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울면서 그녀와 함께 바후림까지 갔더
니 그때에 아브넬이 그에게, 가라. 돌
아가라, 하매 그가 돌아가니라.
17 ¶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과 대화하여 이르되, 지나간 때에 너
희가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구하였으니
18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주께
서 다윗에 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들
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
라, 하셨느니라, 하고
19 아브넬이 또 베냐민의 귀에 말
하며 또 이스라엘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가니라.
20 이처럼 아브넬이 스무 명과 함
께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에게로 모아 그들이 왕과 동맹을
맺게 할 것이요, 또 왕의 마음이 원하
는 모든 것을 왕께서 통치하게 하리이
다, 하니라.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함

22 ¶ 그런데, 보라, 다윗의 신하들
과 요압이 한 무리를 추격하다가 크게
노략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다윗
이 이미 아브넬을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으므로 그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3 요압과 그와 함께한 온 군대가
돌아오매 그들이 요압에게 고하여 이
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었
는데 왕이 그를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
24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르
되,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 왕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
시거니와 그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며 또
왕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
이다, 하고
26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사자들
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
니 그들이 시라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리고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그와 함께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성문에서 곁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인해 거기서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이니
라.
28 ¶ 그 뒤에 다윗이 그 일을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나와 내 왕국은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니
29 그것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
버지의 온 집에게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유출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넘어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끊어
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같
이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그가 기브
온에서의 싸움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
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애곡함

31 ¶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
께 있던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고 다윗 왕이 친
히 관을 따라가니라.
32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으
니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온 백성도 우니라.
33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듯
이 죽었는가?
34 네 손을 결박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을 차꼬에 채우지도 아니하였거
늘 사람이 사악한 자들 앞에 쓰러지는
것 같이 네가 쓰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위해 슬피 우니라.
35 아직 낮이었을 때에 온 백성이
나아와 다윗이 음식을 먹게 하매 다윗
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해
지기 전에 빵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36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
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왕이 무
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
으므로
37 그 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
서 비롯되지 않은 줄을 깨달았더라.
38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통치자요, 위대한 사람이 이 날 이스라
엘에서 쓰러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
느냐?
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
라도 이 날 약하며 이 사람들 곧 스루야
의 아들들이 내게 너무 강하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 4 장

이스보셋이 살해됨

1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이 들을 때에 그의
손이 연약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
람이 근심하니라.
2 사울의 아들에게 무리의 대장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
더라. *이들은* 베냐민 자손에 속하였으
며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에게 속한 것으로 간
주되었더라.
3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
망하여 이 날까지 거기 머물렀더라.)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
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스르
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에 그가 다섯 살이었더라. 그의 유
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
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더
라.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가서 날이 뜨거울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가 한
낮에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6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체하고
거기로,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다
섯째 갈빗대 밑을 치고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도망하니라.
7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
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벤 뒤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야를 지나 도망하여
8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
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가서 왕에게
이르되, 왕의 생명을 찾던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소
서. 주께서 이 날 사울과 그의 씨에게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
니라.

9 ¶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
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응답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혼을 모든
역경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하노라.
10 전에 한 사람이 내게 고하여 이
르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생각하
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나니 그는 자기의 소식으로 인해
내가 자기에게 보상을 주리라고 생각
하였느니라.
11 그런데 하물며 사악한 사람들
이 의로운 자를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즉 이제 내가 그의 피를 너희 손에서
요구하여 너희를 땅에서 없애지 아니
하겠느냐? 하고
12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
을 베어 헤브론에 있는 연못에 매다니
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돌
무덤에 묻으니라.

제 5 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함 (대상11:1－3)

1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말
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
육이니이다.
2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
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
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
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
으니라.
4 ¶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삼십 세였으며 그가 사십 년
동안 통치하되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
였더라.

예루살렘 정복(대상11:4－9; 14:1－7)

6 ¶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이르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
하여 이르되, 네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
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
이 다윗의 도시니라.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
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 곧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9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
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하고 밀로에
서부터 또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 쌓으
니라.
10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
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11 ¶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
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
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
니
12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
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
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13 ¶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

하였으므로 거기서 아들딸들이 여전
히 다윗에게 태어났는데
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
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
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15 또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
비아와
16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발
렛이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패배(대상14:8－17)

17 ¶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
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
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
로 내려가니
18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르바임 골
짜기에 퍼지니라.
19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
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
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
겠나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
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
시니
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
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주께서 물
을 터뜨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
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
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 그것들을 불태우니라.
22 ¶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
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지므로
23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24 뽕나무 수풀 꼭대기에서 *누군
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
이라. 그때에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
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25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
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부터 네가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제 6 장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감
(대상13; 15:25－16:3)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삼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2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
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
의 아들들인 웃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
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
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
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북과 코넷과 심벌즈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6 ¶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르렀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7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를 거기서 치시매 그가 거기서 하나님
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8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으므로 다
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웃사라 하니 이
날까지 이르니라.
9 그 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
요? 하고
10 이에 주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

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
로
11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벧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더
라.
12 ¶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
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벧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
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
져갈 때에
13 주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
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진 것들로 희생
물을 드리고
14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
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
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16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
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
겼더라.
17 ¶ 그들이 주의 궤를 가지고 들
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성막
의 한가운데 곧 그것의 처소에 두매
다윗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니라.
18 다윗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곧바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19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
게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
게 빵 한 덩이와 상당한 양의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주매 이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 ¶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사
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
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찮은 것
없는 자들 중의 하나가 염치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매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
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분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으니 그러므
로 내가 주 앞에서 놀리라.
22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들에게서는, 그들에
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
라.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
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제 7 장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대상17:1－15)

1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2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3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
라.
4 ¶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위
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
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7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

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의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
마디라도 말하였느냐?
8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
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
로 삼았고
9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원수를 네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었노라.
10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
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
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11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
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네 모든 원수로부
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
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고 네게 말하노라.
12 ¶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
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
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
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
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
리라.
15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
하리라.
16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의 감사(대상17:16－27)

18 ¶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
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
나이까?
19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
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
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
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20 주 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이까?
21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마
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
다.
22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
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23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
을 내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위해,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셨사오니
24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굳게 세우사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
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오며 또 주께
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
록 크게 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27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
을 세우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28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
나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사오니
29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
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라.

제 8 장

다윗의 추가 정복(대상18:1－13)

1 이 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2 그가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내던지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
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와 같이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3 ¶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에 다윗이 또 그를 쳐서
4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모든 병거
의 말은 다리의 힘줄을 끊되 다만 그것
들 중에서 백 대의 병거에 쓸 것만
남겼더라.
5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구조하러 왔을 때
에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6 그 뒤에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에
수비대를 두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
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
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에게
있던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
로 가져오고
8 또 하닷에셀의 도시 베다와 베로
대에서 다윗 왕이 심히 많은 놋을 빼앗
으니라.
9 ¶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
셀의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10 그때에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그를 축복하
게 하였으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전쟁을 하던 때에 그가 하닷에셀과 싸
워 그를 쳤기 때문이더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왔으
므로
11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
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
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12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취한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
게서 취한 노략물과 함께 봉헌하니
라.
13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만 팔천 명을 치고 돌아올 때에
이름을 떨치니라.

다윗의 행정부(대상18:14－17)

14 ¶ 그가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
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
시니라.
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16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다
스리는 자가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
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17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

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
라야는 서기관이 되며
18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
자가 되니라.

제 9 장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풂

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
직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
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
라, 하니라.
2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
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
되, 왕의 종이 그로소이다, 하거늘
3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
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저나이
다, 하매
4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 ¶ 그때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어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6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
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얼
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
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
다! 하니라.
7 ¶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
을 먹을지니라, 하니
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 ¶ 그때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10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음식
이 있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
리라, 하니라. 이제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 명이 있었고 또 종 스무 명이
있었더라.
11 그때에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
다, 하니라. 므비보셋에 관하여는 왕
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의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
더라.
12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
의 집에 거하던 모든 자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 이처럼 므비보셋이 계속해서 왕
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
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제 10 장

암몬 족속과 시리아 사람들의 패배(대상19)

1 이 일 뒤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
하니라.
2 그때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
스의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베풀되 그
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자기 신하들의 손으로
보내어 그의 아버지로 인해 그를 위로
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3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자기들
의 주 하눈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왕에
게 조문객들을 보낸 줄로 생각하시나
이까? 다윗이 도시를 엿보고 탐지하
여 정복하려고 자기 신하들을 왕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4 그러므로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
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
기가 있는 데까지 도려내고 그들을
내보내니라.
5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니
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
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뒤에 돌아오라,
하니라.
6 ¶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내었음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벧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
바의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이만 명과
또 마아가의 왕에게서 천 명과 이스돕
에서 만 이천 명을 고용하니라.
7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
들의 온 군대를 보내매
8 암몬 자손은 나아와 성문 입구에
서 전투대형을 갖추고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돕과 마아가는
따로 들에 있더라.
9 요압이 자기를 치려고 앞뒤에 전
투의 최전선이 놓인 것을 보고는 이스
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었
더라.
10 또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
기 동생 아비새의 손에 넘겨주어 그가
암몬 자손을 향해 전열을 갖추게 하고
11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려니와 만일 암몬 자손이
네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
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
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
고
13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시리
아 사람들을 향하여 싸우려고 가까이
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14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암몬 자손이 보고 자기들도 아비새 앞
에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가매 이에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돌이켜서 예
루살렘으로 오니라.
15 ¶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함께
모이니라.
16 하닫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 사람들을 데려오
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고 하닫에셀
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서
갔더라.
17 *어떤 이가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
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요르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니라. 시리
아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전열을 갖추
고 그와 싸웠는데
18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서 도망하므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의 병거 칠백 대의 사람들과 기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
을 치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19 하닫에셀의 종이었던 모든 왕들
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
을 보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
을 섬기니 이러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기를 두려워하
였더라.

제 11 장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야

1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
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
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
히 머물러 있었더라.
2 ¶ 저녁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
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

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
다우므로
3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
니니이까? 하니라.
4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
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
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니라.
5 그 여인이 수태하매 *사람을* 보내
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
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6 ¶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어 이르기를, 헷 족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
게로 보내니
7 우리아가 그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
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싸움은
잘 되어 가는지 다그쳐 묻고
8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네 발을 씻으라, 하
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
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르니
라.
9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10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
되,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
에게 이르되, 네가 여행에서 돌아오
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궤
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
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 계심
과 왕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
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
나이다, 하니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
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내일은 내
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하매 이에
우리아가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
렘에서 머무니라.
13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
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 ¶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15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
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
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던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니
17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
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
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헷 족속 우리아
도 죽으니라.
18 ¶ 이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
며
19 사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친 뒤에
20 혹시 왕이 진노하여 네게 말씀
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때에 어찌하
여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
들이 성벽에서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21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
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
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
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종 헷 족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니라.

22 ¶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알게
한 모든 것을 알리니라.
23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
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
렀더니
24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
의 신하들을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
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헷 족속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라.
25 그때에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
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
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
기를 북돋우라, 하니라.
26 ¶ 우리야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27 애곡하는 일을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
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
하시니라.

제 12 장

나단의 비유와 다윗의 회개

1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
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
이다.
2 그 부유한 자는 양 떼와 소 떼가
심히 많았으나
3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
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4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
게 오매 그가 자기 양 떼와 소 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
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의 어린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
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5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
니라.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양을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7 ¶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냈으며
8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
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느니
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
으리라.
9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
냐? 네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야를 죽이
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
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
라.
10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1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들을 네 눈앞에
서 가져다가 네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12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

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
다.
14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
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윗의 아이가 죽음

15 ¶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시매 아이가
심히 앓더라.
16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
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되 금식하고 안
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
니
17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
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18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
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
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왕에게 말하여
도 왕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려 하지 아니하셨거늘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그분께 고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리요? 하였
기 때문이라.
19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
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
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20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
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
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가 요구하
매 그들이 그 앞에 빵을 차려 놓으니
그가 먹으므로
21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르되,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왕께
서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왕께서 일어나서
빵을 드시니 도대체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니이까? 하매
22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리요?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23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
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솔로몬의 출생

24 ¶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25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시
매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
디야라 하니라.

랍바 점령(대상20:1-3)

26 ¶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니라.
27 요압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
어 이르되, 내가 랍바와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사오니
28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
들을 함께 모아 도시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소서. 내가 도시를 점
령하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염려하나이다, 하니라.
29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랍
바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워 그곳을 점령
하고
30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는 금 일 달란
트요, 보석들이 거기에 달려 있더라.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니라. 또 그
가 그 도시에서 노략한 물건을 심히
많이 가져오고

31 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데려다
가 톱과 쇠써레와 쇠도끼 밑에 두고
벽돌 가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그가
암몬 자손의 모든 도시에 이같이 행하
고 이처럼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
으로 돌아오니라.

제 13 장

암논과 다말

1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
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
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
하나
2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
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
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서 병이 드니라.
3 그러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
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더라.
4 그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들
인 네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위어 가느
냐? 너는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노
라, 하매
5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침
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음식을
차리게 하여 내가 그것을 보며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
6 ¶ 이에 암논이 누워서 병든 체하
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
서 내 눈앞에서 납작한 빵 두 개를
만들게 하사 내가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니
7 그때에 다윗이 *사람을* 집으로,
다말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이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
여 음식을 차리라, 하므로
8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워 있더라. 그녀
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
빵들을 굽고
9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았으나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며 이
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
라, 하니 그들이 각각 그를 떠나 나가
니라.
10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
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11 그에게 먹이려고 그것들을 가지
고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
게 이르되, 내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하매
12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되, 아니
니이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오라버니
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13 나 곧 내가 내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오라버니로 말하
건대 오라버니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
리석은 자들 중의 하나같이 되리이
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말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
되
14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세므
로 그녀를 강제로 *욕보여*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15 ¶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처럼 그가 그녀
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암
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매
16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이유가
없나이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악은

오라버니가 내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크나이다, 하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17 그때에 자기를 섬기던 자기 종
을 불러 이르되, 이제 이 여자를 내게
서 내보내고 그녀를 보낸 뒤에 문을
빗장으로 잠그라, 하니라.
18 그녀가 채색 옷을 입었으니 처
녀인 왕의 딸들은 그런 옷을 입었더
라. 그때에 그의 종이 그녀를 끌어내
고 그녀를 보낸 뒤에 문을 빗장으로
잠그니라.
19 ¶ 다말이 자기 머리에 재를 뒤
집어쓰고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20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
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
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그는
네 오라비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매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21 ¶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쁘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

23 ¶ 만 이 년 뒤에 에브라임 옆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자
들을 모으니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24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이제 보
소서, 주의 종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왕의 신하
들을 거느리시고 주의 종과 함께 가사
이다, 하매
25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
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필요
가 없나니 우리가 네게 누를 끼칠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그가 그에게 간
청하였으나 그가 가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게 복을 빌므로
26 이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리하
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되
27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므로 그
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라.
28 ¶ 이제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
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
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잘 보았다가 내가 너희
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
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
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29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이 명령
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그때에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서 각각 자기 노새
를 타고 도망하니라.
30 ¶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
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그들
중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
는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매
31 이에 왕이 곧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눕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고 옆에 서니라.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는 그
들이 그 모든 청년들 곧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
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
었나이다.
33 그러하온즉 이제 내 주 왕께서
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왕의
모든 아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
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하니
라.

압살롬이 도주함

34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를 보던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자기 뒤에서 산허리 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35 요나답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

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니라.
36 그가 말을 마치매, 보라, 즉시
왕의 아들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우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비통
하게 우니라.
37 ¶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훗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로 인
해 애곡하니라.
38 이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
로 가서 거기서 삼 년 동안 거하니라.
39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로
나아가기를 열망하였으니 이는 암논
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그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제 14 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1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2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녀
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곡하는 자처
럼 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같이 하고
3 왕에게 들어가 그분에게 이런 식
으로 말하라, 하며 이처럼 말들을 그
녀의 입에 넣어 주니라.
4 ¶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말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의를 표하며
이르되,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니
5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매 그녀가 대
답하되, 나는 참으로 과부 여인이니
이다. 내 남편은 죽었고
6 왕의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
데 그들 둘이 들에서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떼어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
으므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나이다.
7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일어
나 왕의 여종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자를 넘겨주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상속자도 멸하리
라, 하오니 이처럼 그들이 남아 있는
내 숯을 꺼서 내 남편을 위하여 이름이
나 남은 자를 땅 위에 남겨 두지 아니
하려 하나이다, 하매
8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
로 가라. 내가 너에 관하여 명을 내리
리라, 하니라.
9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그 불법은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임할 터인즉 왕과 왕의
왕위는 무죄하리이다, 하매
10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조
금이라도 말하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
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
리라, 하니라.
11 이에 그녀가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 다시는 멸하지 못하
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
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2 이에 여인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여종이 한 말씀만 내 주 왕께
말하게 하소서, 하거늘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13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
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는 자신의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오지 아니하심으로써 허물 있는
사람같이 이 일을 말씀하시나이다.
14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
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
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15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백성들
이 나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이니이

다.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왕께 말하리니 그리하면 혹시 왕께서
자기 여종의 요청하는 것을 시행하시
리라.
16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을 하나님의 상속 재산에서 끄집어내
어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부
터 왕의 여종을 건져 내리라, 하였나
이다.
17 이에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로
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18 그때에 왕이 그 여인에게 응답
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내가 네게 묻
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거늘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이제 말씀
하옵소서, 하매
19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
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시여, 왕의 혼이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하건대 아무도 내 주 왕께
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
으로나 왼쪽으로나 옮기지 못하리이
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으니
20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
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
나이다. 내 주께서는 지혜롭되 하나님
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
니라.
21 ¶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
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
라, 하매
22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
려 절하며 왕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르
되,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요청한
것을 왕께서 이행하셨사오니 오늘 왕
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아나이다, 하고
23 이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
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
니라.
24 왕이 이르되, 그가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이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함

25 ¶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
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26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그가 머
리를 깎되 해마다 연말에 깎았더라.)
그가 머리를 깎을 때에 그의 머리털을
달아 보니 왕의 무게로 이백 세겔이었
더라.
27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
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
더라.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
더라.
28 ¶ 이처럼 압살롬이 만 이 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얼굴
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9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
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두 번째
보내되 그가 오려 하지 아니하므로
30 그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
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
에 불을 놓으라, 하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으니라.
31 그때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에
게로,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이르
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하매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네게로 *사람을* 보내어 이
르기를, 여기로 오라, 하였나니 이것
은 내가 너를 왕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그술에서 오게
하였나이까?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게 무슨 불법이 있거든 그분
이 나를 죽이게 하라, 하니라.
33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왕에
게 고하매 그가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
니라.

제 15 장

압살롬의 반역

1 이 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
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오십 명을 예비하니라.
2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
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하여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의 하
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3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
라, 네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네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4 압살롬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
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5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 하면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6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
음을 도둑질하니라.
7 ¶ 사십 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사
오니 원하건대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서원을 갚게 하소서.
8 왕의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렀을 때에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
시 데려가시면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매
9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라, 하니 이에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 ¶ 그러나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두루 보
내어 이르되,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
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
서 통치한다, 하라, 하니라.
11 초청 받은 이백 명이 예루살렘에
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그들은
단순히 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
라.
12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
서 데려오니라.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
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
가 커졌더라.

다윗의 피신

13 ¶ 사자가 다윗에게 나아와 이
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
롬을 따르나이다, 하므로
14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
라. 빨리 떠나가자. 그가 갑자기 우리
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하
니
15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
든지 왕의 종들은 행할 각오가 되었나
이다, 하더라.
16 왕이 나가매 그의 온 집안이 그
를 따르더라. 왕이 열 명의 여인 곧
첩들을 남겨 두어 집을 지키게 하니
라.
17 왕이 나아가매 온 백성이 그의
뒤를 따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무
니

18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옆으
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그를 따라 가드에서 온
육백 명의 모든 가드 사람들이 왕 앞으
로 지나가니라.
19 ¶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
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타국인이요, 또
추방당한 자니 네 처소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르라.
20 너는 단지 어제 왔거늘 내가 이
날 너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리요? 내가 정처 없이 가
나니 그러므로 너는 돌아가고 또 네
형제들도 데려가라.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21 잇대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또 내 주 왕께
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그곳에 있겠
나이다, 하매
22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건너가니라.
23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
를 건너가고 온 백성이 건너서 광야
길로 향하니라.
24 ¶ 보라, 또한 사독과 그와 함께
하며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멘 모든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더라. 아비아달이 올라
오고 마침내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더라.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
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26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
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
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지로다.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
되,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을 데리고 평안히 도시로 돌아가라.
28 보라, 너희로부터 내게 알리는
말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평야에서
머무르리라, 하니
29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
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
가고 거기에 머무니라.
30 ¶ 다윗이 올리벳 산의 오르막
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
이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31 ¶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
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
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
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
서, 하니라.
32 ¶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에,
보라, 아렉 사람 후새가 자기 옷을 찢
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를 맞으
러 오므로
3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
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짐이 되리
라.
34 그러나 네가 만일 도시로 돌아
가서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오 왕이
여,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까
지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또한 왕의 종이 되리이
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으리라.
35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너
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
로 네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그것
을 고할지니라.
36 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는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 편으로 내게 보낼지니라, 하매
37 이에 다윗의 친구 후새가 도시로
들어가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
어갔더라.

제 16 장

므비보셋의 종

1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에, 보라,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
장을 얹은 두 마리 나귀에 빵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즙 한 부대를 싣고 그를 맞이
하므로
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
들로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매 시바
가 이르되, 나귀들은 왕의 집안사람
들이 타게 하고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
들이 먹게 하며 포도즙은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
다, 하니
3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매 시바가 왕에게 이
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
고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
엘의 집이 오늘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리라, 하였나이다, 하
매
4 이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보
라, 므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하거늘 시바가 이르되, 내
가 왕에게 겸손하게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므이의 저주

5 ¶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
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여전히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에*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
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
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8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
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9 ¶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
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
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10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
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
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
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
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배 속에
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
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
를 내버려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12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
니 이 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니라.
1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
탈을 따라 가면서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
을 날리더라.
14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
니라.

아히도벨의 조언

15 ¶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
도벨이 그와 함께하니라.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갈 때에 압살롬에게 말하

기를, 국왕 폐하 만세, 국왕 폐하 만
세, 하니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
것이 네 친구에게 베푸는 네 친절이
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
렇지 아니하니이다. 오직 나는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 거하
리이다, 하고
19 또,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내가 그의 아들의 앞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
지의 앞에서 섬긴 것 같이 왕의 앞에
있으리이다, 하니라.
20 ¶ 이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
희 가운데서 조언을 내라, 하니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
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
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니
라.
22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
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23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조
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
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제 17 장

1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
되, 이제 내가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2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3 온 백성을 왕에게 다시 데려오리
니 왕이 찾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
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니이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매
4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더라.

후새의 조언

5 그때에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아
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마찬가
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오매 압살롬
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매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
도벨이 베푼 조언이 이때에는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이르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
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들이
니이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자기
새끼들을 빼앗긴 것 같이 마음속으로
화가 나 있고 왕의 아버지는 전사인즉
백성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9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구덩이
에나 혹은 다른 장소에 숨어 있으리니
혹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먼저 거꾸
러지면 누구든지 그 일을 듣는 자는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
데 살육이 있다, 하리이다.
10 그러면 비록 용감하여 마음이
사자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
히 녹으리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아버지는 용사요, 그와 함께한 사람
들도 용맹한 자들인 줄 알기 때문이니
이다.
11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노니 단
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에게로 총체적으로 모으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소서.
12 이처럼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습격하되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내려앉아 그와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13 또 만일 그가 어느 도시에 들어
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
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거기에 작은 돌 하나
라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
다, 하매
14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
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후새가 다윗에게 피신하라고 경고함

15 ¶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
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
이러하게 조언하였고 나도 이러이러
하게 조언하였으니
16 그러므로 이제 빨리 *사람을* 보
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
밤에 광야의 평원에서 머무르지 마시
고 빨리 건너가소서, 하라. 왕과 그분
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질까 염려
하노라, 하니라.
17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도
시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
지 아니하려고 엔로겔 옆에 머물렀으
므로 어떤 하녀가 가서 그들에게 고하
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고하니
라.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하였으나
그 두 사람이 빨리 도망하여 바후림에
있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뜰에 있던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19 여인이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찧은 곡식을 그 위에 펴
놓으매 그 일이 알려지지 아니하니
라.
20 압살롬의 종들이 여인에게로,
그 집으로 와서 이르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물 있는 시
내를 건너고 있느니라, 하매 그들이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
렘으로 돌아가니라.
21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그들이 우
물에서 올라와 가서 다윗 왕에게 고하
고 다윗에게 이르되, 일어나 빨리 물
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치려고 이같이 조언하였나이다, 하매
22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일어나서 요르단을 건넜더
니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23 ¶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
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24 그때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
렀고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
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르단을 건
너니라.
25 ¶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는데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더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
비가일에게로 들어갔는데 *아비가일
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
라.
26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
르앗 땅에 진을 치니라.
27 ¶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랍바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28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콩과
29 꿀과 버터와 양과 암소의 치즈
를 가져다가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다, 하였기 때문이더
라.

제 18 장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1 이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의 수를 세고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
들을 그들 위에 세우며
2 백성의 삼분의 일은 요압의 손
밑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손 밑에, 삼분
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손 밑에
주어 내보내니라. 왕이 백성에게 이
르되, 나도 반드시 직접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였으나
3 백성이 응답하되, 왕은 나아가지
마소서. 만일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
들이 우리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를 상관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왕은
우리 만 명과 다름없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도시에서 나와 우리를
구조하시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하매
4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장 선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
라, 하고 문 옆쪽에 서니 온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나갔더라.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청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매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에게 명을
내릴 때에 온 백성이 들으니라.
6 ¶ 이처럼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
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
더라.
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매 그 날
그곳에서 큰 살육이 있어 이만 명이
죽었더라.
8 거기서 온 지역의 지면 위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날 숲에서 멸망
당한 자가 칼로 멸망당한 자보다 더
많았더라.
9 ¶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
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무성한 가지
들 밑으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
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고 그 밑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으므로
10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
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압살롬
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매
11 요압이 자기에게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그를 보았을진대
어찌하여 거기서 그를 쳐서 땅에 떨어
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십 세겔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
니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
손에 은 천 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손을 내밀어 왕의 아들을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듣는 데서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
여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
나이다.
13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생명을 대적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
였어야만 하리니 왕에게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으며 또 당신이 친히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라.
14 그때에 요압이 이르되, 내가 이
처럼 너와 함께 늑장을 부릴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세 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나무 한가
운데서 살아 있을 때에 그것들로 그의
심장을 찌르니
15 요압의 병기를 나르던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그를
죽이니라.
16 요압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이스
라엘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오
니라. 요압이 백성을 거두어들였더
라.
17 그들이 압살롬*의 몸을* 가져다가
숲에 있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
라엘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니
라.
18 ¶ 이제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
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따라 그 기둥을 불렀으며
그 기둥이 이 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느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들음

19 ¶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
스가 이르되, 이제 내가 달려가서 주
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 갚은 소식
을 왕에게 전하게 하소서, 하니
20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날에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지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이 날에는 네가 소식을 전하지 말지니
라, 하고
21 그때에 구시에게 이르되,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시
가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가니라.
22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가 여전히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원
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시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매 요
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네게는 예비
된 소식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달려
가려 하느냐? 하되
23 그가 말하기를, 아무쪼록 내가
달려가게 하소서, 하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라, 하니 이에 아히마
아스가 평야 길로 달려가서 구시를 앞
지르니라.
24 *그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
았더라. 파수꾼이 문 위 지붕으로 가
서 성벽에 이르러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이 보이므로
25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고하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느니라, 할 때에 그가
빨리 와서 가까이 다가오니라.
26 파수꾼이 보니 다른 사람이 달
려오므로 파수꾼이 문지기를 부르며
이르되, 보라, 다른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오느니라, 하매 왕이 이르되, 그
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거늘
27 파수꾼이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하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하는 것과
같으니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
니라, 하니라.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아뢰
되, 다 잘 되고 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
되, 주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소이
다. 자기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
니
29 왕이 이르되, 청년 압살롬이 무
사하냐? 하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
되,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음을 내가 보았
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
다, 하니
30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옆으로 물
러나 여기 서 있으라, 하매 그가 옆으
로 물러나 가만히 서 있더라.
31 보라, 구시가 와서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이 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
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
매
32 왕이 구시에게 묻되, 청년 압살
롬은 무사하냐? 하니 구시가 대답하
되,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또 왕을 치려
고 일어나 왕을 해하려 하는 모든 자들
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
다, 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애곡함

33 ¶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
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
가 갈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
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 장

1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
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2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
다 함을 그 날에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 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3 그 날에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4 그러나 왕이 얼굴을 덮고 큰 소리
로 외치되,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매
5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이
르러 아뢰되, 왕께서 이 날 왕의 생명
과 왕의 아들딸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
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6 왕께서 왕의 원수들은 사랑하시
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시며 통치자
들과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
시는 것을 이 날 밝히 드러내셨나이
다. 이 날 내가 깨달은즉 만일 압살롬
이 살고 이 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기뻐하셨으리이다.
7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
나니 왕께서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
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
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에게 더 나쁘리이다,
하니
8 이에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으
매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
되,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온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각 자기 장막으
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9 ¶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두
루 온 백성이 다투어 이르되, 왕이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
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으나 이제 압살롬으
로 인해 이 땅에서 도피하셨도다.
10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
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으
니 그런즉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11 ¶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고 왕
의 집에까지 이른 것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왕의 집으로 도로 모셔
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12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
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오는 일에
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하고
13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말하기
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
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대장
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
라, 하라, 하니라.
14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
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리매 그들
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이르되,*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소
서, 하므로
15 이에 왕이 돌아와서 요르단에
이르매 유다가 왕을 맞으러 가서 왕이
요르단을 건너도록 안내하려고 길갈
로 오니라.

다윗이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풂

16 ¶ 바후림에서 나온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
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17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과 함께 요르단
을 지나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18 왕의 집안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며 또 왕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
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가니라. 왕
이 요르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 왕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는 불
법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에 왕의 종이 그릇되게 행한 것을 기억
하지 마시오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
서.
20 내가 죄를 지은 줄을 왕의 종이
아나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이 날
요셉의 온 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와서
내려가 내 주 왕을 맞이하나이다, 하
였으나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응답하
여 이르되,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
매
22 다윗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 날 나의 대적이 되려
하느냐? 이 날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
을 죽여야 하겠느냐? 내가 이 날 이스
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23 그런 까닭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므비보셋을 만남

24 ¶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
와서 왕을 맞았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
라.
25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와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므비보
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
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26 그가 대답하되, 오 내 주 왕이
여, 주의 종은 *발을* 절므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에게 가리라, 하였는
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 주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
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
의 천사 같으시온즉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28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은 내
주 왕 앞에서 단지 죽은 자나 다름없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왕
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은 자들
가운데 두셨사온즉 내게 오히려 무슨
권리가 있어서 더 이상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매
29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하여 네 일을 더 말하느냐? 내가 이르
기를, 너와 시바는 땅을 나누라, 하였
느니라, 하매
30 므비보셋이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자신의 집에 돌아오
시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바르실래에게 친절을 베풂

31 ¶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
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는데
32 이제 바르실래는 매우 늙은 사
람으로 나이가 팔십 세더라. 그가 매
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
나임에 거할 때에 왕에게 양식을 제공
하였더라.
33 왕이 바르실래에게 이르되, 너
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니
34 바르실래가 왕에게 이르되, 내
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 이 날 내가 팔십 세니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
리이까? 주의 종이 먹거나 마시는 것
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사오리이
까? 그런즉 어찌하여 주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리이까?

36 주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르단
을 건너 조금 가려 하거늘 왕께서 어찌
하여 이 같은 보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 청하건대 주의 종을 돌려보내시
옵소서. 내가 내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려
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종 김함을 보소
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매
38 왕이 응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
께 건너가리니 네게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겠고 또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니라.
39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매 왕
이 건너가서 바르실래의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
가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을 두고 다툼

40 그때에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가니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
을 안내하니라.
41 ¶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들이 왕에게 나아와 왕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
까? 하매
42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해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경비에서 조금
이라도 먹었느냐? 그분께서 우리에
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니
43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 열 몫을 가졌으므로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우
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서 우리의 권고
를 먼저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20 장

세바의 반역

1 마침 거기에 세바라는 이름의 벨
리알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
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
다. 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
로 돌아가라, 하매
2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
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유다 사람들
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
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3 ¶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전에 그 집을 지키게 하려
고 남겨 둔 열 명의 여인들 곧 자기
첩들을 데려다가 가두는 곳에 두고
먹을 것을 주며 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매 그들이 이와 같이 죽는 날까
지 갇혀서 과부로 사니라.
4 ¶ 그때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
되, 나를 위하여 사흘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에 있으
라, 하니
5 이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
집하러 갔으나 그가 그에게 정해 준
약정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무니라.
6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
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리니 너는
네 주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를 추격
하라. 그가 성벽을 두른 도시에 들어
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
매
7 요압의 사람들과 그렛 족속과 블
렛 족속과 모든 용사들이 그를 따라
나가며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
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가

8 기브온에 있는 큰 돌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오니라.
요압이 자기가 입은 의복을 졸라매고
그 위에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왔더라.
9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
제여, 건강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
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
려 하였으나
10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던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그
가 칼로 그의 다섯째 갈빗대를 치매
그의 창자가 땅에 흘러 나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이처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11 요압의 사람들 중의 하나가 그
의 옆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
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였더라.
12 아마사가 큰길 한가운데서 피
속에 뒹굴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는 아마사
를 큰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기고 또
그의 옆으로 온 자마다 멈추어 선 것을
보고는 그 위에 옷을 덮으니라.
13 그를 큰길에서 옮긴 뒤에 온 백
성이 요압을 따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니라.
14 ¶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지나며 아벨과 벧마아가와 온 베
리 족속에게 이르니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르더라.
15 그들이 가서 벧마아가의 아벨에
서 그를 에워싸고 그 도시를 향하여
둑을 쌓으니 그 둑이 도랑 위에 있더
라.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허물어뜨리려 하였더라.
16 ¶ 그때에 그 도시에서 한 지혜
로운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
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라.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하노라, 하라, 하니라.
17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매 여
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의 말을 들으소서, 하거늘 그가 응답
하되, 내가 듣느니라, 하매
18 이에 그녀가 말하여 이르되, 옛
날에 그들이 흔히 말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일을 끝
내었나이다.
19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
실하게 *사는* 자들 중의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
머니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주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 하시
나이까? 하매
20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
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그렇
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
려 하지 아니하노니
21 그 일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단
지 에브라임 산에서 나온 자 곧 이름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 곧 다윗을 치고자 하였나
니 그만 넘겨주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
가리라, 하매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
되, 보소서, 성벽 너머로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하고
22 이에 여인이 지혜롭게 온 백성
에게 가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므로
그가 나팔을 불매 그들이 그 도시에서
물러나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이르니라.

다윗의 신하들

23 ¶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
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을 다스리는 자가 되며
24 아도람은 공세를 감독하는 자가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관이 되며
25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며

26 또 야일 족속 이라는 다윗을 보
좌하는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니라.

제 21 장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음
1 그때에 다윗 시대에 해를 이어
삼 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것
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
로 그와 및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2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에 속한 자들이
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
다 자손을 향해 열심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
니라.
3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
을 하랴?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야
너희가 주의 상속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하매
4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한
왕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서 사람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니 그
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말하는 것, 그것을 행하리라, 하매
5 그들이 왕에게 응답하되, 우리를
소멸시킨 사람 곧 우리를 멸하여 이스
라엘 지역의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대적하며 계략을 꾸민
사람
6 즉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
를 위해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
이 이르되,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니
라.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
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하여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아끼니
라.
8 다만 왕이 아이아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
니와 므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의 다섯 아들 곧 그녀가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
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9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
겨주니 그들이 그들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므로 그들 일곱 명이 다 함께
쓰러져 수확하는 때 곧 보리를 수확하
기 시작하는 때의 첫 무렵에 죽으니
라.
10 ¶ 아이아의 딸 리스바가 수확하
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물이 그들
위에 쏟아질 때까지 굵은 베를 가져다
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낮에
는 그들 위에 공중의 새들이 앉지 못하
게 하며 밤에는 들의 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11 *어떤 이가* 아이아의 딸 리스바
곧 사울의 첩이 행한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12 ¶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취하였는데 전에 블레
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이
고 그들을 벳산의 거리에 매달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뼈들을
훔쳐왔더라.
13 그가 거기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들이 매달린 자들의 뼈를 모아
1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방 셀라에서 그의 아버
지 기스의 돌무덤에 묻고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니라. 그 뒤에야 하
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
시니라.

블레셋 거인들의 멸망(대상20:4－8)
15 ¶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시 싸움을 하매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라. 다윗이 기진하게
되매
16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무게
가 놋으로 삼백 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
려 하였으나
17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
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
여 이르되, 왕께서 다시는 우리와 함
께 싸움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18 이 일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후
사 사람 십브개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더라.
19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
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더라.
20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
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여섯 개요, 발
마다 발가락이 여섯 개로 개수가 스물
네 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 태어났
더라.
21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
를 죽이니라.
22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
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제 22 장

다윗이 하나님의 구출을 찬양함(시18)

1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
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
라.
2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
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
요,
3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
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
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
시나이다.
4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경
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
게 하였으며
6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
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
다.
7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자신
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8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
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
로다.
9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
도다.
10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
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11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시매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12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창공
의 짙은 구름들로 자신의 주변에 어둠
의 천막을 삼으셨으니
13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불타는 숯이 피었도다.
14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15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
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16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
멍의 숨의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
초들이 드러났도다.
17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
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18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
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19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20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건지셨도다.
21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
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22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
였기 때문이라.
23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
었나니 그분의 법규들로 말하건대 내
가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24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올바르
며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
니
25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 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도
다*.
26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
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
을 보이시며
27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28 고난 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
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29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
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31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
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나
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
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32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
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33 하나님은 내 능력과 권능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34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
며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고
35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
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36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사오며
37 주께서 내 밑의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8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멸
하였사오며 그들을 소멸시키기 전에
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39 내가 그들을 소멸시켜 상처를
입혔더니 그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
였으며 참으로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
졌나이다.
40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
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
이다.
41 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
게 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42 그들이 둘러보았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를 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
셨도다.
43 그때에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
같이 잘게 부수고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밟아서 넓게 퍼뜨렸도다.
44 또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
에서 건지시고 또 나를 지키사 이교도
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
요, 그들이 듣고는 곧 내게 순종하리
로다.
46 낯선 자들이 쇠약해지고 자기
들의 밀폐된 처소에서 나와 무서워하
리로다.
47 주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
님을 높일지어다.
48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 주
시고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
며
49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 위로 나를 높이
드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
나이다.
50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구
원의 망대이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
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제 23 장

다윗의 마지막 말

1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
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
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2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
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
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
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4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5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영
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
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
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
라.
6 ¶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이는 그
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로
다.
7 다만 그것들을 만질 자는 반드시
쇠와 창 자루로 둘러싸여야 하리니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철저히 불살라
지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대상11:10－47)

8 ¶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
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
을 들어 팔백 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
을 죽였더라.
9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
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하나더라. 블레셋 사람들
이 싸우려고 함께 모이매 이스라엘 사
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에 그들이 저
들에게 도전하였고
10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
을 쳤더라. 그 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
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
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이매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
였으나
12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
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13 또 서른 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세 사람이 내려가 수확하는 때에 아둘
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
에 진을 쳤더라.
14 다윗은 그때에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에 베
들레헴에 있었더라.
15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
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하매
16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
에 있던 우물의 물을 긷고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
고 그것을 주께 부어 드리며
17 이르되, 오 주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
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
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그런 까
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
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하
였더라.
18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인데 *그는* 세 사람 가운데 우두
머리더라. 그가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쳐서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19 그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
한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으나 첫째 세 사람
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0 또 갑스엘 출신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인데 그는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사자 같
은 모압 사람 두 명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구덩이 한가운데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21 또 잘생긴 이집트 사람을 죽였
는데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
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가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고
23 그 서른 명보다 더 존귀하였으
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
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자기의 호위
대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24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서른 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
가와
26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27 아네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
람 므분내와
28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
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
내의 힛대와
31 아르밧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벳과
32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 중의 *하나인* 요나단과
33 하랄 사람 삼마와 하랄 사람 사랄
의 아들 아히암과
34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하스
배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길로 사람 아
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 갈멜 사람 헤스래와 아랍 사람
바아래와
36 소바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족속 바니와
37 암몬 족속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곧 브에롯 사람
나하리와
38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
렙과
39 헷 족속 우리야더라. 모두 서른
일곱 명이었더라.

제 24 장

다윗의 인구 조사(대상21:1－6)

1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
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

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
니라.
2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단에서
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
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
라, 하니
3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
서 백성에게 백 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
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
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
였으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
압과 군대의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요
압과 군대의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의 수를 세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
나가니라.
5 ¶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 아로엘
에 진을 치되 갓에게 속한 강의 한가운
데 놓인 *이* 도시의 오른쪽에 야셀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6 그 뒤 그들이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홋시 땅에 이르며 또 단야안에 이
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7 두로의 강한 요새에 이르고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에
이르고 유다의 남쪽으로 가서 브엘세
바에까지 이르니라.
8 이처럼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
고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9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
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팔십만 명이 있었으며 유다
사람은 오십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대상21:7－17)

10 ¶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
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
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
나이다, 하니라.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
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있던 대언
자 갓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세 가지
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의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라.
13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
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서 칠 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임하리이
까? 아니면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아니면 왕의 땅
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
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 주소서, 하
매
14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
노라, 하니라.
15 ¶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
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
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
기까지 백성 중에서 칠만 명이 죽으니
라.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멸하려 할 때에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
하다.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그때에 주의 천사가 여부스 족속 아라
우나의 타작 장소 옆에 있더라.
17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주께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였사오나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
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타작마당의 제단(대상21:18－27)

18 ¶ 그 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
을 쌓으소서, 하매
19 다윗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갓의 말에 따라 올라가니라.
20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는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
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하매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친히 좋게 보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태우는 희
생물로는 여기 소들이 있으며 나무로
는 타작 기구와 소들을 부리기 위한
다른 기구가 있나이다, 하니라.
23 아라우나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고 또 아라우나가 왕
에게 이르되,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
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네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
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
고 이에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마
당과 소들을 사고
25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
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
시매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
라.

흔히 왕들에 관한 셋째 책이라 하는
왕들에 관한 첫째 책

열 왕 기 상

기록자: 예레미야 혹은 에스라(전승), 기록 시기: 주전 58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18년(다윗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을 때까지),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열왕기상·하라는 이름은 '왕들'을 뜻하는 히브리말 '멜라킴'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열왕기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업적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 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하나님께서 대언자 엘리야 시대까지 솔로몬과 분단 왕국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목적: 왕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지혜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복을 누리게 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열왕기상에는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와 우상숭배와 죽음,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 왕국이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것, 성전의 건립과 극도의 우상숭배, 대언자 엘리야와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대결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정치적 교훈이나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의 준수에 따른 왕국과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타락과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 바알 예배에 극력 반대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적이 자세히 기록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이 책은 마태가 기록한 메시아의 족보를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은 22장, 816절, 24,51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2장(종교통합 – 아합과 여호사밧)
핵심 절: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11:13)
핵심 단어: 왕권, 핵심 구: "그의 아버지 다윗"(2:12)
열왕기상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을 왕의 자리에 앉혀라."

제 1 장

아도니야가 왕권을 빼앗으려 함
1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
니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가 온기를 얻지 못하더라.
2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그녀가 왕 앞에 서며
왕을 보살피고 왕의 품에 누워 내 주
왕이 온기를 얻게 하리이다, 하고
3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서 두루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
왔는데
4 그 처녀는 매우 아리땁더라. *그
녀가* 왕을 보살피며 섬겼으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5 ¶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
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
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
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오십 명을 예비하니라.
6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
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
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7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매 그들
이 그를 따라서 도왔으나
8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대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
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
야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9 아도니야가 엔로겔 옆에 있는 소
헬렛의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가축
을 잡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나
10 대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
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
였더라.
11 ¶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
신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통치한
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12 그런즉 이제 오소서. 원하건대
당신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베풀게 허락하
소서.
13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
가 그분께 아뢰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좌에 앉으리
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
찌하여 아도니야가 통치하나이까? 하
소서.
14 보소서, 당신이 거기서 여전히
왕과 이야기하실 때에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
리이다, 하니라.
15 ¶ 밧세바가 침실로 들어가 왕
에게 이르렀는데 왕이 매우 늙었으므
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 왕을 섬기더라.
16 밧세바가 몸을 구부려 왕에게
경의를 표하니 왕이 이르되, 네가 무
엇을 원하느냐? 하매
17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왕께서 전에 주 왕의 하나님을 두고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
거늘
18 이제, 보소서, 아도니야가 통치
하여도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19 그가 소와 살진 가축과 양을 많
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
아달과 군대 대장 요압을 불렀으나 왕
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
다.
20 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눈이 왕 위에 있사온즉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의 왕좌에 앉을지 왕께서
그들에게 알려야만 하리이다.
21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로 여겨지리
이다, 하니라.
22 ¶ 보라, 그녀가 여전히 왕과
이야기할 때에 또한 대언자 나단이
들어오므로
23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대언자 나단을 보소서,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서 절하며
24 이르되, 오 왕이여,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야가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
나이까?
25 그가 이 날 내려가서 소와 살진
가축과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과 군대의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을 불렀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아도니
야 국왕 폐하 만세, 하였나이다.
26 그러나 나 곧 왕의 종 나와 제사
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
였사오니
27 이것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이
니이까? 왕께서는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의 왕좌에 앉을지 왕의 종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함
(대상29:22－25)

28 ¶ 이에 다윗 왕이 응답하여 이
르되, 밧세바를 내게로 부르라, 하매
그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왕 앞에
서므로
29 왕이 맹세하여 이르되, 모든 고
난에서 내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30 내가 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을 두고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
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좌에 앉으리
라, 하였으니 내가 이 날 반드시 그와
같이 하리라, 하매
31 그때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
고 절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르
되, 내 주 다윗 왕은 영원토록 사시옵
소서, 하니라.
32 ¶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
들 브나야를 내게로 부르라, 하니 그들
이 왕 앞에 오매
33 왕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혼
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34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솔로몬 국왕 폐하 만
세, 하라.
35 그 뒤에 너희가 그를 따라 올라
올지니 이로써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으리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과 유다를 다스릴 치리자가 되게 하였
느니라, 하니
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
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 곧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
하시기 원하오며
37 또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
던 것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좌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8 이에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
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내려가서 솔로몬
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혼
으로 데리고 가서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
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 폐하 만세, 하니
라.
40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
해 떠나가니라.
41 ¶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모
든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그것을
들으니라.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도시에서 나는 이
소리가 몹시 떠들썩하냐? 하더라.
42 아직 그가 말할 때에, 보라, 제
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므
로 아도니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오
라. 너는 용맹한 자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하매
43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응답하
여 이르되,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
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44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그와 함께 보내셨
는데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에 태우고
45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이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들이 거기서 올라오며 기뻐하
므로 도시가 또 다시 울렸으니 당신들
이 들은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46 솔로몬도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고
47 또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낫게 하시고 그의 왕좌를 왕의 왕좌

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구부리고
48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이
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분께서 이 날 내 왕좌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49 아도니야와 함께 있던 모든 손
님들이 무서워서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가니라.
50 ¶ 아도니야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
을 잡으매
51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
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
다, 하였나이다, 하매
52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
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내 보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
견되면 그가 죽으리라, 하고
53 이에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
내니 그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
니라.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 2 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시함

1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
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2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
임을 보이고
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네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
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
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네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4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말씀하
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
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
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라.
5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 군대의 두 대장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 그러므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의 흰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7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
이 네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
망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내게 나아왔
느니라.
8 또 보라,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지독한 저주의 말로 나를 저주하
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내려와 요르단
에서 나를 맞이하기에 내가 주를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
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
라.
9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로운 사
람인즉 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느
니라. 오직 너는 그의 흰머리가 피를
흘리고 무덤에 내려가게 하라, 하니
라.

다윗의 죽음(대상29:26－28)

10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11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
이 사십 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칠 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을 통치하였더라.
12 ¶ 그때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
지 다윗의 왕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크게 굳게 서니라.

솔로몬이 아도니야를 처형함

13 ¶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
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네가 평화롭게 오느
냐? 하매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나
이다, 하고
14 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아뢸
것이 조금 있나이다, 하니 그녀가 이
르되, 말하라, 하매
15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거니
와 왕국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내가 통치하게
하려 하였으나 왕국이 돌려져서 내
동생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것이
주로부터 나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
이니이다.
16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청
원을 하려 하오니 내 말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
되, 말하라, 하니
17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아뢰어 왕이 수넴 여인 아비삭
을 내게 아내로 주게 하소서. (왕이
당신에게, 아니라, 하지 아니하리이
다), 하매
18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
를 위해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라.
19 ¶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야
를 위해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
매 왕이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
에게 절한 뒤에 자기의 왕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베풀게
하니 그녀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더
라.
20 그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청원을 왕에게 구하오니
원하건대 내게, 아니라, 하지 마소서,
하매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어머
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에
게, 아니라,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21 그녀가 이르되, 수넴 여인 아비
삭을 왕의 형 아도니야에게 아내로 주
소서, 하매
22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어머니께
서 아도니야를 위해 수넴 여인 아비삭
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내 형이오니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옵소서. 심지
어 그를 위해 구할 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
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3 그때에 솔로몬 왕이 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아도니야가 이
말을 하고도 자기 생명에 해를 입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
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24 그러므로 이제 나를 굳게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오르게 하시
고 또 친히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이 날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25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
나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내매 그가
그를 덮치므로 그가 죽으니라.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리함

26 ¶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아나돗으로, 네 밭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
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
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
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
더라.
28 ¶ 그때에 소식이 요압에게 이
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돌이켜서 압살
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

야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
으니라.
29 *어떤 이가* 솔로몬 왕에게 고하
되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는
데, 보소서, 그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하므로 이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
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를
덮치라, 하니라.
30 브나야가 주의 성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여기
서 죽겠노라, 하니 브나야가 왕에게
다시 그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압이
이같이 말하고 내게 이같이 대답하더
이다, 하매
31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묻을지니
이것은 네가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라.
32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니 그가 자기보다 더 의
롭고 더 선한 사람 둘을 덮쳐서 그들
곧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예델의 아
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느니라. 그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33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씨의 머리로 되돌
아갈 터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왕좌에는 주로부터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니라.
34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던 자기 집에 묻히니라.
35 ¶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
우니라.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함

36 ¶ 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
이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예루살
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 거하
며 거기에서 어디로든 나가지 말라.
37 너는 분명히 알지니 곧 네가 나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매
38 시므이가 왕에게 이르되, 그 말
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
고 시므이가 여러 날을 예루살렘에 거
하니라.
39 삼 년이 끝날 때에 시므이의 종
들 중의 두 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으므로
그들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
라, 네 종들이 가드에 있노라, 하매
40 시므이가 자기 종들을 찾으려고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더라. 시므이
가 가서 자기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
더니
41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되돌아온 일을 *어떤 이가* 솔로
몬에게 고하므로
42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
금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네게 단언
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어디서든 밖에서 다니는 날에
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
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
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느
니라.
43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주를 두
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44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
마음에 은밀히 있는 모든 악 곧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를 네가
아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45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좌는 영원히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고
46 이에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
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쳐서 죽게 하매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굳게 서니라.

제 3 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대하1:2-13)

1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
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
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2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
더라.
3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
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
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
하였더라.
4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
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를 드리니
라.
5 ¶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
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
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
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6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
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
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 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
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
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8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9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
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
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11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원수
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
을 구하였은즉
12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
니라. 보라, 내가 네게 지혜롭고 깨닫
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
라.
13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14 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
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15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
라.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언약
궤 앞에 서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며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16 ¶ 그때에 창녀인 두 여자가 왕
에게 나아와 그 앞에 서고
17 한 여자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그녀도 함께
있었나이다.
18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뒤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
었고 집에 있던 우리 둘 외에는 집에
우리와 함께한 낯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이다.
19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자기 아
이 위에 누우므로 그 아이가 죽으니
20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옆에
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누였나이다.
21 아침에 내가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났는데, 보소서, 그가 죽
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자세
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
요, 살아 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라.
23 그때에 왕이 이르되, 한 *여자*는
말하기를, 살아 있는 이것은 내 아들
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살아 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
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
오매
25 왕이 이르되,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26 그때에 그 살아 있는 아이의 어
머니 되는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에게 아
뢰어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
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
하기를, 그것이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나누게 하라, 하므로
27 그때에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
니니라, 하매
28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
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
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
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제 4 장

솔로몬의 행정부

1 이렇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을 다스릴 왕이 되니라.
2 그에게 있던 통치자들이 이러하
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
요,
3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
밧은 기록관이요,
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를 다스리는 자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5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직무 수행
자들을 다스리는 자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으뜸가는 직무 수행자이며 또
왕의 친구요,
6 아히살은 집안을 다스리는 자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공세를 맡은
자더라.
7 ¶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다
스릴 열두 명의 직무 수행자를 두매
이들이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 음식물
을 예비하되 각 사람이 일 년 중 자기
가 맡은 달에 양식을 예비하였는데
8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
라임 산에는 훌의 아들이요,
9 마가스와 사알빔과 벧세메스와 엘
론벧하난에는 데겔의 아들이요,
10 아룹봇에는 헤셋의 아들인데 소
고와 헤벨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으며
11 도르의 온 지역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
내로 얻었으며
12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인데 다아
낙과 므깃도와 예스르엘 아래 사르다나
옆의 온 벧스안 곧 벧스안에서부터 아
벨므홀라까지와 심지어 욕느암 너머
에 있는 곳까지 그에게 속하였으며
13 라못길르앗에는 게벨의 아들인

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
의 고을들이 그에게 속하였고 또 바산
에 있는 아르곱 지역 곧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큰 도시 육십 개가 그에게
속하였으며
14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
임을 소유하였고
15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인데 그
는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으며
16 아셀과 알롯에는 후새의 아들 바
아나요,
17 잇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
사밧이요,
18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요,
19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지방이던 길르앗 지방에는 우
리의 아들 게벨인데 그 땅에서는 오직
그만 직무 수행자가 되었더라.

솔로몬 통치의 형통함과 그의 지혜

20 ¶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21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
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
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
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22 ¶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삼십 고르와 굵은 가루 육십
고르와
23 살진 소 열 마리와 초장의 소
스무 마리와 양 백 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진 날
짐승이 있었더라.
24 그가 딥사에서부터 앗사에 이르
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25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
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
라.
26 ¶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
의 외양간 사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만 이천 명이 있었고
27 그 직무 수행자들은 각각 자기
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상에 이른 모든 자를 위해 양식을 예비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책무에 따
라 말과 단봉낙타에게 먹일 보리와
짚을 직무 수행자들이 있던 곳으로
가져왔더라.
29 ¶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
가의 모래 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
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
보다 뛰어났더라.
31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
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
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
들 가운데 있었더라.
32 그가 삼천 개의 잠언을 말하였
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었으며
33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
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 다니
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
로
34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제 5 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함(대하2)

1 그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그에게 보내었으니 이
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
이라.

2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어 이르되,
3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
이 자기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
곧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나이
다.
4 그러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대
적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5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대신 네 왕좌
에 세울 네 아들 곧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 하오니
6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
리사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들
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할 것이요, 또
당신이 지정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가
당신의 종들의 삯을 당신에게 주리이
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들처럼 재목을 잘 벨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7 ¶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 날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지
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큰 백성을 다스
리게 하셨도다, 하고
8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
어 구한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였고
백향목 재목과 전나무 재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9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
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겠고 내가 그것
들을 바다를 통해 뗏목으로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며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내 집안을
위해 양식을 주소서, 하고
10 이처럼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
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
매
11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집안의
양식으로 밀 이만 고르와 순수한 기름
이십 고르를 주되 해마다 히람에게 그
와 같이 주었더라.
12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
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매 히람과 솔로
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13 ¶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삼만 명이더라.
14 그가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
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두 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
을 다스렸더라.
15 또 솔로몬에게 짐 나르는 자 칠
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다듬는 자
팔만 명이 있었으며
16 이 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자 삼천삼백 명이 있었는데 이들
이 그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
렸더라.
17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그 집의 기초를 놓았더라.
18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
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
이 그 돌들을 다듬었고 이처럼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재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 6 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
(대하3:1-14)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사 년
이 되는 해 시브 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2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육십 큐빗이요, 너비가

이십 큐빗이요, 높이가 삼십 큐빗이었
으며
3 그 집의 전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
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이십 큐빗이
요, 그것의 너비는 집 앞에서 십 큐빗
이었더라.
4 *그가* 그 집을 위해 *폭이* 좁은 채광
창들을 만들었더라.
5 ¶ 또 *그가* 그 집의 벽에 맞대어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되 돌아가며 그
집의 벽 곧 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는 곳의 벽에 맞대어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더라.
6 맨 아래층 방의 너비는 오 큐빗이
요, 가운데 *층 방*의 너비는 육 큐빗이
며 셋째 *층 방*의 너비는 칠 큐빗이었으
니 이것은 *그가* 그 집의 벽 바깥쪽에
폭이 좁아지는 받침대들을 돌아가며
만들어 그 집 벽에 들보들을 고정시키
지 아니하려 함이더라.
7 그 집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
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
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8 가운데 층 방의 문은 그 집의 오른
쪽에 있었으며 그들이 나선식 계단으
로 가운데 층 방으로 올라갔고 가운데
*층 방*에서 셋째 *층 방*으로 올라갔더
라.
9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마치니라. 그가 백향목 들보와 널빤
지로 그 집을 덮었고
10 그 뒤에 온 집을 향해 높이가
오 큐빗 되는 방들을 돌아가며 건축하
되 백향목 재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 집 위에 얹어 놓았더라.
11 ¶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
하니라. 이르시되,
12 네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으로
말하건대 만일 네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
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네게 행할 것이요,
13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
니하리라, 하셨더라.
14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집을 건
축하여 완성하고
15 그 집 내부 벽 곧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을 백향목 널빤지로 지으니
라. 그가 그것들의 내부는 나무로 덮
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로
덮었으며
16 또 그 집의 옆면에 마루와 벽들
이십 큐빗을 백향목 널빤지로 짓되
곧 내부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
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들
을 지으니라.
17 그 집 곧 *그것* 앞의 전은 길이가
사십 큐빗이었으며
18 그 집 내부의 백향목에는 둥근
꽃받침과 핀 꽃들을 새겼더라. 모든
것이 백향목이고 돌을 볼 수 없었더
라.
19 또 그가 주의 언약 궤를 두기
위해 그 집의 내부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는 곳을 예비하였는데
2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은 길이가 이십 큐빗이요, 너비
가 이십 큐빗이요, 높이가 이십 큐빗이
더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입혔더라.
21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
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히며
22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니라. 그가 또 *하나님께
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던 제단을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23 ¶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
시는 곳 안에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높이가 십 큐빗이
더라.
24 그룹의 한 날개는 오 큐빗이요,
그룹의 다른 날개도 오 큐빗이니 한
날개의 맨 끝에서부터 다른 *날개*의

맨 끝까지 십 규빗이며
25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치수, 한 크기더라.
26 한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다른 그룹의 높이도 마찬가지더라.
27 그가 안쪽 집 안에 그룹들을 두
매 그들이 그룹들의 날개들을 펼쳐
놓아 한 그룹의 날개는 한 쪽 벽에
닿게 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게 하니 그것들의 날개들이
그 집 한가운데서 서로 닿았더라.
28 또 그가 금으로 그룹들을 입혔
으며
29 집의 사면 모든 벽에는 안팎으
로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들의 새긴
형상을 새겼고
30 그 집의 마루를 안팎으로 금으
로 입혔더라.
31 ¶ 또 그가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입구로 만들었는데 *그 문들의* 인방과
양옆 기둥이 벽의 오분의 일을 차지하
였더라.
32 그가 그 두 문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으며 또 그것들에 그룹과 종려
나무와 핀 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룹과 종려나무들에
금을 깔았더라.
33 또한 그가 이와 같이 전의 문을
위하여 올리브나무로 기둥들을 만들
었는데 그것들이 벽의 사분의 일을
차지했으며
34 또 그가 그 두 문을 전나무로
만들었더라. 또 *그가* 한 문의 두 문짝
을 접히게 하였고 다른 문의 두 문짝도
접히게 하였으며
35 그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들을 새기고 그 새긴 곳에 맞게 그것
들을 금으로 덮었더라.
36 ¶ 또 그가 다듬은 돌 세 줄과
백향목 들보 한 줄로 안뜰을 건축하였
더라.
37 ¶ 제사년 시브 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이고
38 제십일년 불 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
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
니 그가 이와 같이 칠 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제 7 장

솔로몬의 다른 건물들

1 그러나 솔로몬이 십삼 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2 ¶ 또한 그가 레바논 숲에서 *나무
를* 취해 집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오십 규빗
이며 높이는 삼십 규빗이더라. *그 집
은* 네 줄의 백향목 기둥들 위에 놓였으
며 그 기둥들 위에는 백향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3 또 그 집은 마흔다섯 개 기둥들
위에 놓인 들보들 위에서 백향목으로
덮였는데 *그것들은* 한 줄에 열다섯
개씩 있었더라.
4 또 창문이 세 줄로 있었는데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 보더라.
5 또 모든 문과 기둥을 창문들과
함께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 보더라.
6 ¶ 또 그가 기둥들로 주랑을 만들
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오십 규빗이요,
너비는 삼십 규빗이더라. 그 주랑이
그것들 앞에 있었고 또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
라.
7 ¶ 그 뒤에 그가 재판을 하기 위
해 왕좌를 두는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
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덮되
마루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그리하
니라.
8 ¶ 그가 거하던 그의 집에는 주랑
안에 다른 뜰이 있었는데 그 뜰 역시
같은 식으로 만드니라. 또한 솔로몬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집을 짓되 이 주랑과 같이 지으니
라.
9 이 모든 것들은 다듬은 돌의 치수

에 따라 톱으로 켜서 만든 비싼 돌로
안과 밖을 짓되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
까지와 밖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였으며
10 그 기초는 값비싼 돌들 즉 큰
돌들 곧 십 큐빗 되는 돌들과 팔 큐빗
되는 돌들로 만들었더라.
11 그 위에는 다듬은 돌들의 치수
에 따라 값비싼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었으며
12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줄과 백향목 들보 한 줄을 놓았는데
그것은 주의 집의 안뜰과 그 집의 주랑
에 쓰기 위한 것이더라.

기술자 히람(대하2:13－14)

13 ¶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14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
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
람으로 놋 대장장이더라. 그는 놋을
다루는 모든 일에서 일을 하도록 지혜
와 명철이 충만하며 솜씨가 좋더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성전의 놋 기둥들(대하3:15－17)

15 그가 놋 기둥 두 개를 부어 만들
었는데 그 높이는 각각 십팔 큐빗이
요, 십이 큐빗 되는 줄이 그것들 중
하나의 주위를 둘렀더라.
16 또 그가 놋을 부어 기둥머리 두
개를 만들어 기둥들 꼭대기에 두었는
데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오 큐빗이
요,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오 큐빗
이었으며
17 또 *그가*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
던 기둥머리들을 위해 바둑판 모양의
그물들과 사슬 모양의 화환 장식들을
만들되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 다른
기둥머리에 일곱 개를 만들었더라.
18 또 그가 기둥들을 만들었으며
또 그물 하나에 돌아가며 석류로 두
줄을 만들어서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덮게 하였고 다른 기둥머리
에도 그리하였더라.
19 또 *그가*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
던 기둥머리들을 주랑 안에 백합 모양
으로 사 큐빗 되게 만들었더라.
20 그 두 기둥들 위의 기둥머리들
에는 그물 옆의 볼록한 부분 맞은편에
또한 위로 석류들이 있었으니 석류
이백 개가 다른 기둥머리 위에 돌아가
며 줄을 지어 있었더라.
21 또 그가 그 기둥들을 *성*전의 주
랑 앞에 세우니라. 그가 오른쪽 기둥
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며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
을 보아스라 하니라.
22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는 백합
모양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기둥들
을 만드는 일이 완성되니라.

바다와 소들

23 ¶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
는데 한 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
자리까지가 십 큐빗이더라. 그것은 사
방으로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오 큐빗
이요, 삼십 큐빗 되는 줄이 그것을 돌
아가며 둘렀더라.
24 그것의 가장자리 밑에는 돌아
가며 둥근 장식들이 일 큐빗마다 열
개씩 있어서 그것을 두르고 돌아가며
그 바다를 둘렀더라. 그 둥근 장식들
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든 것이더라.
25 그것은 열두 마리 소 위에 서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며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더라. 그 소들 위에 바다를
놓았고 그 소들의 뒷부분은 다 안으로
향하게 하였더라.
26 그것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
였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
리같이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었으
며 그것은 이천 바스를 담았더라.

받침대들과 물두멍들

27 ¶ 또 그가 놋으로 받침대 열
개를 만들었는데 한 받침대의 길이는
사 큐빗이요, 너비는 사 큐빗이며 높이
는 삼 큐빗이더라.
28 받침대들의 작업이 이러하였으

니 받침대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가로대들 사이에 있었
더라.
29 가로대들 사이의 테두리들 위
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었고 또
가로대들 위에 받침대가 있었으며 사
자와 소들 밑에는 얇게 만들어 단 어떤
것이 있었더라.
30 또 각 받침대에는 놋 바퀴 네
개와 놋 판들이 있었고 받침대의 네
모서리에는 지지대들이 있었는데 이
지지대들은 물두멍 밑에 *그 얇게 만들*
어 단 모든 것 옆에 부어 만들었더라.
31 그것의 아가리는 머리 안에서
위로 일 큐빗 높이로 나와 있었으나
그 입구는 받침대를 만드는 일과 같이
일 큐빗 반 되게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또 그것의 입구의 위에는 네모반듯하
고 둥글지 아니한 조각한 것들이 그것
들의 테두리들과 함께 있었더라.
32 테두리들 밑에는 네 바퀴가 있
었고 바퀴들의 축은 받침대에 연결되
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일 큐빗 반이
었으며
33 바퀴를 만드는 일은 병거 바퀴
를 만드는 일과 같아서 그것들의 축과
통과 테와 살을 다 부어 만들었더라.
34 한 받침대의 네 모서리에는 네
개의 지지대가 있었는데 이 지지대들
은 받침대 자체와 *하나로* 되어 있었고
35 받침대 위에 높이가 반 큐빗 되
는 둥근 테두리가 있었으며 또 받침대
위에는 그것의 가로대들과 테두리들
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
36 그가 그것의 가로대들의 판들
과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 그룹과 사자
와 종려나무를 새기되 각각의 크기에
따라 새기고 또한 돌아가며 부가적인
것들을 새겼더라.
37 이런 식으로 그가 받침대 열 개
를 만들었으니 곧 그것들 모두를 한
금형과 한 치수와 한 크기로 부어 *만들*
었더라.
38 ¶ 그 뒤에 그가 물두멍 열 개를
놋으로 만들어 한 물두멍에 사십 바스
를 담았으며 각 물두멍을 사 큐빗으로
하고 열 개의 받침대 위에 각각 물두멍
을 한 개씩 놓으니라.
39 또 그가 받침대 다섯 개는 그
집의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그 집의
왼쪽에 두었으며 그 집의 오른쪽에
동쪽으로 남쪽을 향해 바다를 두었더
라.

성전의 장식(대하4:11－18)

40 ¶ 히람이 또 물두멍들과 부삽
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
이 히람이 자기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해 만든 모든 일을 마쳤으
니
41 곧 기둥 두 개와 그 두 기둥 꼭대
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과 또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을 가리는
그물 두 개와
42 또 이 두 개의 그물을 위해 만든
사백 개의 석류 곧 기둥들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을 가리기
위해 한 그물에 두 줄씩 만든 석류들과
43 또 받침대 열 개와 받침대들 위
의 물두멍 열 개와
44 바다 한 개와 또 바다 밑에 있던
소 열두 마리와
45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이더
라.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해 솔로몬 왕에
게 이 모든 기구를 빛나는 놋으로 만들
었더라.
46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숙곳과 사
르단 사이의 진흙땅에서 그것들을 부
어 만들었더라.
47 기구들이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
이 그것들을 다 달지 아니한 채 두었으
며 그 놋의 무게를 알 수 없었더라.
48 또 솔로몬이 주의 집에 속한 모
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보여 주는 빵을 놓는 금상과
49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
에서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씩 둘 순금 등잔대들과 또 금으로
된 꽃들과 등잔들과 부집게들과
50 또 순금으로 된 대접들과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
과 향로들과 또 안쪽 집 즉 지성소의
문들과 그 집 곧 전(殿)의 문들에 달
금 돌쩌귀들이더라.
51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주의 집
을 위해 수행한 모든 작업을 마치니
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
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
다가 주의 집의 보고 가운데 두었더
라.

제 8 장

주의 궤를 성전으로 가져옴
(대하5:2－6:2)

1 그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
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
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왕에
게로 모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언약
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함이더라.
2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의 명절에 솔로몬 왕에
게로 모이고
3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리니라.
4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올라가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5 솔로몬 왕과 그에게로 모인 이스
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
라.
6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 궤를 궤의
처소로 들여오되 곧 그 집의 *하나님께
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즉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오니라.
7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자기
들의 두 날개를 펴서 궤와 그것의 막대
들을 위에서 덮었더라.
8 또 그들이 막대들을 빼내었으므
로 그 막대들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는 곳 앞의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
들이 이 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9 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
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
라.
10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11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
기 때문이더라.
12 ¶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
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
고 말씀하셨사오나
13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
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로소이다, 하
고
14 왕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라. (*이때에* 이스
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솔로몬의 성전 봉헌 연설
(대하6:3－11)

15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
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
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
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도
다. 이르시기를,
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
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도시도 택하
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17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더니
18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
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마음에 품었은즉 네가

그 일을 마음에 품어 잘하였도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
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20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
을 이행하셨고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
나 이스라엘 왕좌에 앉고 또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
하였으며
21 또 내가 거기에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
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을 넣은 궤를 두기 위해 한 처소를
마련하였노라, 하니라.

솔로몬의 봉헌 기도(대하6:12-39)

22 ¶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23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
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
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
나이다*.
24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 날과
같으니이다.
25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에게 약속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들
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 같이 내 앞에
서 걸으면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
이 내 눈앞에서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
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그
에게 지키시옵소서.
26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제 원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옵
소서.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
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
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이
까?
28 그럼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
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
울이시옵소서.
29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31 ¶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
에게 범법하였으므로 그가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고 그 서약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32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
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정죄하
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
옵소서.
33 ¶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
거든
34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
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
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 ¶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
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
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36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

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
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
옵소서.
37 ¶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름병이나 곰팡이나 메뚜
기가 있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
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38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
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
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를 드리거든
39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
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
시옵소서.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40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
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하여는
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에 대해 들을
터이므로)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
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
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옵소
서.
44 ¶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주께서 보내실 곳으
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5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4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
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시매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원
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47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
로로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
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
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
다, 하고
48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
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
들의 땅을 향하여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
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50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
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며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
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그들
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1 그들은 주께서 쇠 용광로 한가
운데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 재산이니이
다.
52 원하건대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향해 여사 그들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소
서.
53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사 주의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더라.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함

54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
나

55 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56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57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기를 원하고

58 또 우리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사 자신의 모든 길로 걷게
하시며 친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
신 자신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
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고

59 내가 주 앞에서 간구하면서 말
한 나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사 친히 자
신의 종의 사정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
엘의 사정을 언제나 일이 필요로 하는
대로 돌아보시고

60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
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
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 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
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함
(대하7:4－11)

62 ¶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온 이스
라엘이 주 앞에 희생물을 드리니라.

63 솔로몬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가 주께 드린 것은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
더라. 이와 같이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주의 집을 봉헌하니라.

64 바로 그 날에 왕이 주의 집 앞에
있던 뜰의 한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
고 거기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주 앞에 있던 놋 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의
기름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
라.

65 그때에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까지의 큰 회중이 이레와
이레 동안 곧 열나흘 동안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니라.

66 여덟째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
보내매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마음속
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제 9 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남(대하7:12－22)

1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
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
자 하던 것 즉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끝마친 때에

2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

3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드린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네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
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

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
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왕국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려니와
6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
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7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
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
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8 또 이 집이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이 집으로 인해 놀라
고 비웃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9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에게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하셨더
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시들을 줌

10 ¶ 이십 년이 끝난 뒤에 솔로몬
이 두 집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
하고
11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그에게 백향목과 전나
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
이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 스무 개를
히람에게 주니라.
12 히람이 두로에서 나아와 솔로몬
이 자기에게 준 도시들을 보고는 그것
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13 말하기를,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도시들
이냐? 하고 그것들을 가불의 땅이라
부르니 이 날까지 이르니라.
14 히람이 금 백이십 달란트를 왕에
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의 다른 업적(대하8:3-16)

15 ¶ 솔로몬 왕이 일꾼들을 모집
한 까닭은 이러하니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
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고자 하
였기 때문이라.
16 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탈취하여 불태우고 그 도시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죽이며 그 도시
를 자기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
로 주었더라.
17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쪽 벧호론
을 건축하고
18 또 바알랏과 그 땅의 광야에 있
는 다드몰과
19 솔로몬이 소유한 모든 저장 도
시와 자신의 병거 도시들과 기병 도시
들을 건축하였으며 또 솔로몬이 예루
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지배하던 온
땅에서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건축하
였더라.
20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에서
남아 있던 모든 백성들
21 곧 그들의 뒤를 이어 그 땅에
남아 있던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진멸하지 못한 자들, 그
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로서 조공을
바치게 하여 이 날까지 이르게 하되
2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
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통치
자와 대장과 그의 병거를 다스리는
자와 기병이 되었더라.
23 솔로몬의 작업을 감독하던 직무
수행자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 곧
오백오십 명이더라. 그들이 그 작업
에서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 ¶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
의 도시로부터 올라와 자기 집 곧 솔로
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 ¶ 솔로몬이 자기가 주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한 해에 세 번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고 또 주 앞에 있던 제단에서 분향하니라.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완성하니라.

26 ¶ 솔로몬 왕이 에돔 땅의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27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를 아는 뱃사람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들에 실어 보내매

28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 10 장

세바의 여왕(대하9:1－28)

1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2 심히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매

3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4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5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6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7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8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9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10 그녀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11 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도 오빌에서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오매

12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집과 왕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이 날까지 보지도 못한 것이더라.

13 솔로몬 왕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또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 즉 그녀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솔로몬의 재물

14 ¶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는데

15 *이것은 그*가 상인들과 향료 상품을 무역하는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에게 받은 것 외의 것이더라.

16 ¶ 솔로몬 왕이 두들긴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으며

17 또 그가 두들긴 금으로 작은 방

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삼 마네가 들었더라. 왕이 그것들
을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에 두었
더라.
18 ¶ 또 왕이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
더라.
19 그 왕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었
고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
이가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 있었더라.
20 또 거기에 사자 열두 마리가 그
여섯 계단의 이쪽과 저쪽에 섰는데
어떤 왕국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
더라.
21 ¶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
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
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22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
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삼 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23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
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24 ¶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원하였더라.
25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
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26 ¶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함께 모으매 그가 소유한 병거가 천사
백 대요, 기병이 만 이천 명이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27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
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의 돌무
화과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 ¶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 실을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 실을 받았으며
29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은 한 마리에 백오십 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왔더라. 이와
같이 헷 족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 수단껏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제 11 장

솔로몬의 마음이 주를 떠남

1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
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
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2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
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
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
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
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
더라.
3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4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
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
하였으니
5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
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
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6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
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7 그때에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
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8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

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
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
물을 드렸더라.
9 ¶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
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
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
국을 네게서 빼앗아 찢어서 네 신하에
게 주리라.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찢으려니와
13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
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
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대적들

14 ¶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
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
라.
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던 모든
남자를 친 뒤에 가서 그 죽은 자들을
묻었는데
16 (요압이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끊어 버릴 때까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섯 달 동안 거기 머물렀더라.)
17 하닷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중에서 몇몇 에돔 족속과 함께 이집트
로 가려고 도망하였더라. *그때에* 하닷
은 아직 작은 아이더라.
18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
에 이르렀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
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
게 이르매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해 주며 땅을 주었더
라.
19 하닷이 파라오의 눈앞에서 큰 호
의를 얻었으므로 그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
로 주니라.
20 다브네스의 동생이 그에게 그의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가
파라오의 집에서 그 아이의 젖을 뗐으
므로 그누밧이 파라오의 집안에서 파
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21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 대장 요압
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떠나서 내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하니
22 그때에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
되, 보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네 나라로 가기를
구하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없나
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가 가게 하
소서, 하였더라.
23 ¶ 하나님께서 또 엘리아다의 아
들 르손을 일으켜 그에게 또 다른 대적
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더라.
24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에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한 무리의
대장이 되었으며 그들이 다마스쿠스
로 가서 그 안에 거하고 다마스쿠스에
서 통치하니라.
25 하닷이 끼친 재난 외에도 솔로몬
의 평생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고 시리
아를 통치하니라.

여로보암의 반역

26 ¶ 또 솔로몬의 신하로서 스레다
의 에브랏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
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요, *그녀*
는 과부 여인이더라.
27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
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
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는데

28 *그때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
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
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
라.
29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
던 그때에 실로 사람 대언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새 의복을
입었고 그들 둘만 들에 있었더라.
30 아히야가 자기 위에 걸친 그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31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
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
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
아 찢어서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
32 (다만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소유하리니)
3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
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
게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34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게 하려니와
35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
을 빼앗아 네게 주되 곧 열 지파를
줄 것이요,
36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
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혼
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로되
38 네가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
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
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
라엘을 네게 주리라.
39 내가 이것으로 인해 다윗의 씨
를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니라.
40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
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
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죽음(대하9:29－31)

41 ¶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
의 행적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
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사십 년이더라.
43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
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2 장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
(대하10; 11:1－4)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
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더라.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
집트에 있었을 때에 그 일에 대해 들었
더라. (여로보암은 전에 솔로몬 왕의
앞을 떠나 도망하여 이집트에 거하였
는데)
3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
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
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 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
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
니
5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동
안 떠나갔다가 다시 내게로 오라, 하
매 백성이 떠나가니라.
6 ¶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 있을 때에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
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하니
7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라.
8 그러나 그가 노인들의 권고 즉
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 곧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과 의논하여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떤 권고를
주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
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
라, 하매
10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그에
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
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
를 위해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
은즉 왕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
리니
11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
거운 멍에를 지워 주었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
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12 ¶ 왕이 정하여 이르기를, 셋째
날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였으므로
이에 셋째 날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더라.
13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
며 노인들이 자기에 준 권고를 버리고
14 청년들의 권고를 따라 그들에
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
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15 그런 까닭에 왕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이 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이
것은 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곧 자신의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16 ¶ 이처럼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온 이스라엘
이 보고 백성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다윗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몫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
게 상속 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
아, 너희 장막으로 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처
럼 이스라엘이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가니라.
17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하건대 르호보
암이 그들을 통치하니라.
18 그때에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감독하던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
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니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자기 병
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
였더라.
19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
에 반역을 일으켜 이 날까지 이르렀더
라.
20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
릴 왕으로 삼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아무도 없더
라.
21 ¶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
러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

는데 선정된 자들 곧 용사들이 십팔만
명이더라.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과 싸
워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
암에게 가져오려 하였으나
22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
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또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났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
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

25 ¶ 그때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브느엘을 건축하고
26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
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
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
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
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29 그가 하나는 벧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
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
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31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
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
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
으며
32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
처럼 팔월 곧 그 달 십오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
라. 또 그가 벧엘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
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
들의 제사장들을 벧엘에 두었더라.
33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
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에
자기가 벧엘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
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제 13 장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1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벧
엘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옆
에 서서 분향하므로
2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
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
나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
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3 바로 그 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
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4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있는 제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
암 왕이 들을 때에 그가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이르기를, 그를 잡으라, 하였
는데 *이때에*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였더라.
5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
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므로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
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네 하나님의
얼굴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

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
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
라. 내가 네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9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
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며 물
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
고
10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
가 벧엘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11 ¶ 이제 벧엘에 한 늙은 대언자
가 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
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
게 고하였으므로
12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
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
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13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 하
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에 안장
을 얹으매 그가 그 위에 타고는
14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나무 밑에 앉은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
되, 그러하다, 하매
15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16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
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17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
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서지도 말라, 하
셨느니라, 하매
18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19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
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 ¶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에 주
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
게 임하였으므로
21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
종하지 아니하고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22 돌아와서 주가 네게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사체가 네 조상
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23 ¶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가 자기가 데리고 돌아온
대언자를 위해 즉 그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니라.
24 그 사람이 갈 때에 사자가 길에
서 그를 만나 죽이매 그의 사체는 길에
버려지고 나귀는 그것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섰더라.
25 보라, 사람들이 지나다가 사체
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늙은
대언자가 거하던 도시에 와서 그것을
고하므로
26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

간 대언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런즉 주께서
친히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시매 사자가 그
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
되,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으매
28 그가 가서 그의 사체가 길에 버
려진 것과 나귀와 사자가 그 사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사자가
사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
도 아니하였더라.
29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그 사체를
가지고 돌아오니라. 그 늙은 대언자
가 도시로 들어가 애곡하며 그를 묻고
30 그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들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 슬프다, 내 형제여! 하니라.
31 그가 그 사람을 묻은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
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32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벧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과 또 사마리아
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
라, 하니라.
33 ¶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
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
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
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의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34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 장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

1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가 병들매
2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
되, 원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당신
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대언
자 아히야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
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3 당신은 빵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당
신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려 주리
라, 하니라.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
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으나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굳어져서 보지 못하더라.
5 ¶ 주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그를 위해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러 오나니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 그녀가 들
어올 때에 다른 여인으로 가장하리
라, 하시니라.
6 그녀가 문에서 들어올 때에 아히
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
냐? 내가 엄중한 소식을 *전하라고* 네
게 보내어졌느니라.
7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되, 주 이
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
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가 되게 하고
8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 내어
네게 주었거늘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올바
른 것만 행한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고
9 너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네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어 만든 형상들
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도다.
10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
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보

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 버리되 사
람이 거름을 다 제거하여 가지고 가듯
이 여로보암의 집의 남은 자를 제거하
리라.
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
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
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
나니
12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네 집으
로 가라. 네 발이 도시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1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
하며 그를 묻으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그만 무덤에 들어가리
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
그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라.
14 또한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을 일으키실 터인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
라. 그런데 무슨 말이냐? 곧 지금이니
라.
15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
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16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
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가 죄
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17 ¶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떠나서 디르사로 돌아가 문지방에 이
를 때에 그 아이가 죽으므로
18 그들이 그를 묻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 주께서 친히
자신의 종 대언자 아히야의 손으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여로보암의 죽음

19 보라,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통치
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20 여로보암이 통치한 기간이 이십
이 년이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
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
하여 통치하니라.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대하11:5 – 12:16)

21 ¶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
다에서 통치하였는데 르호보암이 통
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더라. 그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
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22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
하되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
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23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
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
더라.
24 그 땅에 또한 남색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
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25 ¶ 르호보암 왕의 제오년에 이집
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서
26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
물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
이 만든 모든 금 방패들을 빼앗았으므
로
27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의 집 문을 지키는
호위대 우두머리의 손에 맡기매
28 왕이 주의 집에 들어갈 때에 호
위병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다시 호위대 방으로 그것들을 가져갔
더라.
29 ¶ 이제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
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30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평생 동
안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31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
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5 장

아비얌의 유다 통치
(대하13:1－14:1)

1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제십팔년에 아비얌이 유다를 통치하
고
2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통치하
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
의 딸 마아가더라.
3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
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
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
렘에서 등불을 주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
려 하셨으니
5 이는 다윗이 헷 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
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
기 때문이라.
6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
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7 이제 아비얌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비
얌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
라.
8 아비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
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사의 유다 통치(대하14－16)

9 ¶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이
십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10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11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12 남색 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
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
을 제거하며
13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냇가
에서 불태웠으나
14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대해 완전하였으며
15 또 그가 자기 아버지가 봉헌한
물건들과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놓았더라.
16 ¶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
더라.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
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로 들어가거나 나오
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18 이에 아사가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의 보고에 남아 있던 모든 은과
금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의 손에 넘겨
주고 아사 왕이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곧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
몬의 아들인 벤하닷에게 그것들을 보
내며 이르되,
19 나와 당신 사이에 맹약이 있고
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도 있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
엘 왕 바아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20 이에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치려고 예비한 군대 대장들을 보내어
이욘과 단과 아벨벧마아가와 온 긴네렛
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21 바아사가 그것을 듣고는 라마를
건축하기를 그만두고 디르사에 거하
니라.
22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두루
포고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제받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바아사가 건축할
때에 쓰던 라마의 돌과 재목을 취해
가져오므로 아사 왕이 그것들로 베냐
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3 아사의 모든 행적 중 나머지 *행
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도시들은 유다 왕들
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었을 때에
그는 발에 병이 있었더라.
24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
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25 ¶ 유다 왕 아사의 제이년에 여
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통치
하기 시작하여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26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
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었으며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
서 걸었더라.
27 ¶ 잇사갈의 집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깁브
돈에서 그를 쳤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을 에워쌌기 때문
이더라.
28 즉 유다 왕 아사의 제삼년에 바
아사가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29 그가 통치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마침내 그를 멸하고 숨 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
니하되 주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30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과
또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
를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더라.
31 ¶ 이제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32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
에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
라.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

33 유다 왕 아사의 제삼년에 아히야
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
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이십사 년
동안 통치하니라.
34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
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
라.

제 16 장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통치

1 그때에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
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대적하
며 이르시되,
2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였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은즉
3 보라, 내가 바아사의 후손과 그의
집 후손을 제거하여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4 바아사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
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게
속한 자 중에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
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더라.
5 이제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일과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6 이처럼 바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라.
7 또한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대언자 예후의 손으로 바아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여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
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자기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며 또
그를 죽였기 때문이더라.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

8 ¶ 유다 왕 아사의 제이십육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
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이 년 동안
통치하니라.
9 그가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
에 있던 자기 집의 청지기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을 때에 그의
신하 곧 그의 병거들 절반의 대장 시므
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니라.
10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서 죽
이고 유다 왕 아사의 제이십칠년에 그
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11 ¶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자
기 왕좌에 앉고는 곧바로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이되 담에다 소변보는 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하나
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12 시므리가 이같이 바아사의 온 집
을 멸하되 주께서 대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를 대적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
였으니
13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라. 그들이
이 죄들을 짓고 또 그것들을 써서 이스
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14 이제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시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15 ¶ 유다 왕 아사의 제이십칠년
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레 동안 통
치하니라.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깁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
라.
16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가 음모
를 꾸미고 또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 날에 온 이스라엘이 진
영에서 군대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
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매
17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린
채 깁브돈에서 올라오고 그들이 디르
사를 에워쌌더라.
18 시므리가 도시가 점령된 것을
보고 왕의 집 궁궐로 들어가 왕의 집을
태우고 불에 덮여서 죽었으니
19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로 인함이
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를 짓게 하려고 행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20 이제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반역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
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21 ¶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
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따랐
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나
22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니라.
이에 디브니가 죽으매 오므리가 통치
하니라.
23 ¶ 유다 왕 아사의 제삼십일년
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
작하여 십이 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디르사에서 육 년 동안 통치하니라.
24 그가 은 이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한 도시의 이름
을 그 산의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부르니라.

25 ¶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26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
든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
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어 그들의 헛된
것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
를 일으켰더라.
27 이제 오므리가 행한 나머지 행
적과 그가 보여 준 그의 권력은 이스라
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28 이처럼 오므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라.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

29 ¶ 유다 왕 아사의 제삼십팔년
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
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
서 악을 행하였더라.
31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
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32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祭壇)을
쌓으며
33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
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
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34 ¶ 그의 시대에 벧엘 사람 히엘
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
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에 따라 그가 그것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더라.

제 17 장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함

1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
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
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6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
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8 ¶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에,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11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의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
라, 하매
12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
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

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13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
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
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
라.
14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
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
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15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
이 여러 날 먹었으나
16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
라.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림

17 ¶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
로
18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
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19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
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
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20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
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
고
21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
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22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
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
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
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
이 살아 있느니라, 하니라.
24 ¶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
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제 18 장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메시지

1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2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
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3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4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
버릴 때에 오바댜가 대언자 백 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
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5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
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
고는
6 이에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
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 ¶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
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이시니이

까? 하니
8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
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매
9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
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하려 하시나이
까?
10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
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
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거기 없다, 하면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에게 맹세하게 하되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
하게 하였나이다.
11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나
12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
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
로 당신을 데려가시리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그가 당신
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오
직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13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주의 대언자들 중에서 백
명을 *취하여*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 즉 내가
행한 일을 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나
이까?
14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나니 그리
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15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
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16 이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
려고 가니라.
17 ¶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
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18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
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
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19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사백오십 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사백 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매
20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
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
을 갈멜 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엘리야의 갈멜 산 승리

21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
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
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
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22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
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사
백오십 명이로다.
23 그런즉 그들이 수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
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24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
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
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25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런즉 너희
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
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
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매
26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

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
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
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 껑충 뛰더라.
27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
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
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매
28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
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29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
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30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31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열두 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32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 세아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며
33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
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
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34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
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하매
35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흐
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
웠더라.
36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
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
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 날 알게 하소서.
37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
서, 하매
38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
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
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므로
39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
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
시로다, 하니라.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
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
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
서 그들을 죽이니라.

가뭄이 그침

41 ¶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42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
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
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일곱 번
다시 가라, 하니
44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
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
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 그 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

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
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
는데
46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 19 장

엘리야의 피신

1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2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
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의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3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 두니라.
4 ¶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
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
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5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
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
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6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
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8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사십 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계시

9 ¶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
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10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
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11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
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
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
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였으
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
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12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
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13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14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
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15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
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16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
고 또 아벨므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
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

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
라엘 안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
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름

19 ¶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
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열두
겨리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
으며 그 자신은 열두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20 그가 소들을 남겨 두고 엘리야
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 맞추
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21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
게 주니 그들이 먹으매 이에 그가 일어
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제 20 장

아합이 시리아 사람들을 무찌름

1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
대를 함께 모으니 서른두 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
워싸고 그곳을 대적하여 싸움을 하며
2 사자들을 그 도시 안으로 이스라
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
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3 네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
들과 네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매
4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기
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
이다, 하니라.
5 사자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
닷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낼 터인즉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네 눈이 기뻐하
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손에
담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7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이 사
람이 화를 끼치려 하는 줄을 보고 주목
하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은
과 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
으나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
였노라, 하니
8 모든 장로와 온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9 그러므로 그가 벤하닷의 사자들
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사람을* 보내어 주의 종에
게 구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하려니와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떠나가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10 벤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흙이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의 손에 쥐어질 만큼 충분하다
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1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
되, 그에게 고하기를,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
지 말지니라, 하라, 하니라.
12 벤하닷이 왕들과 천막에서 마시
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
게 이르되, 너희는 전열을 갖추라,
하매 그들이 그 도시를 향하여 전열을
갖추니라.
13 ¶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와 이르되, 주가 이
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 온 큰 무리
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 날 그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
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거늘
14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 *그*
리하시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주
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지방의 통
치자들의 청년들을 통해 *그리하리라*,
하매 이에 그가 이르되, 누가 싸움을
지시하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거늘
15 이에 그가 여러 지방의 통치자
들의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이백
삼십이 명이요, 그들을 센 뒤에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를 세니 칠천 명이더라.
16 그들이 정오에 나갔으나 벤하닷
은 왕들 곧 자기를 돕는 서른두 명의
왕과 함께 천막에서 마시고 취하였더
라.
17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
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사람들*
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
더이다, 하매
18 그가 이르되,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그들을 산 채로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산 채로 사로잡으
라, 하니라.
19 이에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이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도시에서 나가
20 그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사람
을 죽이매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므
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니 시리
아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21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
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살육하였더라.
22 ¶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에
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가서 힘을
키우고 왕이 행하는 일을 주목하고
보소서. 해가 돌아오면 시리아 왕이
왕을 치러 올라오리이다, 하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패함

23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
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
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
이다.
24 이 일을 행하소서. 왕들을 곧
각 사람을 그의 처소에서 떠나게 하시
고 그들 대신 대장들을 두시며
25 또 왕께서 전에 잃어버린 군대
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계수하시
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그리
하소서.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
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하매 그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고 그리하니라.
26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시리아
사람들의 수를 세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 이스라엘 자손도 수를 세고 모두
참가하여 그들을 향해 갔더라. 이스라
엘 자손은 그들 앞에서 두 무리의 작은
염소 새끼 떼같이 진을 쳤으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득하였더라.
28 ¶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와 이
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말
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가 이 온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
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29 그들이 이레 동안 서로 마주보
며 진을 치니라. 일곱째 날에 싸움이
붙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십만 명을 죽이니라.
30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아벡으
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니 성벽
이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이만 칠천
명 위에 무너져 내리고 벤하닷은 도망
하여 도시에 이르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벤하닷과 협약을 맺음

31 ¶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
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집 왕들은 긍휼이 많은 왕

들이라 하더이다. 원하건대 우리가
굵은 베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
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게 하
소서.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
주리이다, 하고는
32 이에 그들이 굵은 베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
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
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
니라, 하매
33 이제 그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
슨 말이 나올지 부지런히 살피다가
얼른 그 말을 받아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하니 그때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라. 이에 벤하닷이 그에게 나아오
매 그가 그를 병거에 올라타게 하니
라.
34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
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스쿠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하니 이에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언약을 주며
당신을 보내리라, 하고는 이에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니라.

아합이 정죄를 받음

35 ¶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의 어
떤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자기 이웃에
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였
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거부하므로
36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
은즉, 보라,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곧바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떠나가매 곧바로 사자
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더라.
37 그때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
나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니
라.
38 이에 그 대언자가 떠나서 자기
얼굴에 재를 묻혀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 왕이 지나갈 때에 왕에게 소리
질러 이르되, 왕의 종이 전쟁의 한가
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어찌
되었든지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
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일 달란트를 주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40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
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
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은즉 너에
대한 재판이 그와 같이 될지니라, 하
매
41 그가 급히 자기 얼굴에서 재를
없앤즉 이스라엘 왕이 그를 분별하되
그가 대언자들에 속한 사람인 줄 분별
하니라.
42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
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
한 사람을 네가 네 손에서 놓아주었은
즉 네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네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매
43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기뻐하
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마
리아에 이르니라.

제 21 장

아합이 나봇을 살해함

1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
라. 예스르엘 사람 나봇이 예스르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
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
이 있더라.
2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
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
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

요, 혹시 네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하
매
3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니
4 예스르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
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5 ¶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6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까닭
은 내가 예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며 그에게 이르기를, 돈을 받고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아니면 네가 기
뻐하거든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원
을 네게 주리라, 하였으되 그가 응답
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
지 아니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7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
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
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
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하고는
8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
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
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
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
라.
9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10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
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
였다,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11 그의 도시의 사람들 곧 그의 도
시의 거주민들인 장로들과 고귀한 자
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대로
곧 그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행하여
12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13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
와 그 앞에 앉으니라. 그 벨리알의 사
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를 곧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매 이에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고
14 그 뒤에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
내어 이르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
었나이다, 하니라.
15 ¶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예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
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16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
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
갔더라.

주께서 아합을 정죄함

17 ¶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
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8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
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
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19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
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
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
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피*도 핥으리
라, 하라.
20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21 보라,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네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 버릴 것이요,
22 또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네
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
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
기 때문이니라.
23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르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24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
셨느니라, 하니라.
25 ¶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26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28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
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
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
리라, 하셨더라.

제 22 장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함
(대하18:1－27)

1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삼 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내었더라.
2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3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곳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음
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4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
와 함께 라못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시
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
(馬)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
고
5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6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사백
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
되, 내가 라못길르앗으로 싸우러 가
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
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매
7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
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매
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르되, 아직 한 사람 곧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
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
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을 하지 마소서, 하니
9 이에 이스라엘 왕이 직무 수행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
라.
10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자기들의 의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
문 입구의 빈 곳에서 각각 자기 왕좌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대언을 하더라.
11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

기를 위해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
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것
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12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
언하여 이르기를, 라못길르앗으로 올
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
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13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
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고하니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좋은 것을 말하소서, 하매
14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
라, 하니라.
15 ¶ 이에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치려고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매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
16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
을 내게 고하겠느냐? 하매
17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
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에 흩어
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
게 주인이 없은즉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
이다.
1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르되,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
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
까? 하매
19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20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길르앗에
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
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21 한 영이 나아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22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
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23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
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라.
24 그러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
야가 가까이 나아와 미가야의 뺨을 치
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25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네가 안
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하니라.
26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
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다시 끌고 가서
27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28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대 주께서 나를 통
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그가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아합이 전쟁에서 죽음
(대하18:28-34)

29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니
라.
3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
려 하거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
하고 싸우러 들어가니라.
31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
를 다스리는 서른두 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
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32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
고 이르되,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라, 하고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라.
33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34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
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
은즉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35 그 날에 싸움이 더 커졌으므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
을 막다가 저녁때에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흘렀더
라.
36 해가 질 무렵에 군대에서 두루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각
자기 도시로 각각 자기 본향으로 *돌아
가라*, 하였더라.
37 ¶ 이와 같이 왕이 죽으매 그들
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38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의 연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
라.
39 이제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만든 상아
집과 그가 건축한 모든 도시들은 이스
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40 이렇게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대하20:31－21:1)

41 ¶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
하기 시작하니라.
42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삼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히의 딸 아수
바더라.
43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
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
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
기 때문이더라.
44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
하니라.
45 이제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 준 그의 권력과 또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46 그가 남색 하는 자들 중에서 남
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 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
더라.
47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대리인이 왕이었더라.
48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들을 만
들고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
나 그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부서졌
으므로 가지 못하였더라.
49 그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들이 당신
의 종들과 함께 배들로 가게 하소서,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
하였더라.
50 ¶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하시야의 이스라엘 통치

51 ¶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십칠년
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52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
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
라.
53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
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흔히 왕들에 관한 넷째 책이라 하는
왕들에 관한 둘째 책

열 왕 기 하

기록자: 예레미야 혹은 에스라(전승), 기록 시기: 주전 58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08년(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야긴의 마지막 날까지)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열왕기상 참조
주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배도의 절정과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목적: 성도들에게 배도의 원인과 방법과 결과를 보여 주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걷도록 촉구하는 것
내용: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분열 왕국의 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일을 기록한다. 또한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사역 등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간에는 여러 대언자가 출현하여 이스라엘의 배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은 유다에서 활동했다. 열왕기상·하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의 시작이 있고 솔로몬의 영화가 있으며 순종의 복이 나오고 성전의 건축이 나오며 배도의 진보가 나오고 왕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며 엘리야가 등장하고 주의 인내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열왕기하에서는 바빌론 왕이 멸망시키는 일이 나오고 여호야긴의 수치로 끝이 나며 불순종의 저주가 나오고 성전의 몰락이 나오며 배도의 결과가 나오고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오며 엘리사가 등장하고 주께서 분명하게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 나온다. 열왕기하는 25장, 719절, 23,51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권능), 핵심 절: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10:10) 핵심 단어: 악하다, 핵심 구: “주의 말씀대로”(1:17)
열왕기하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성령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보다 두 배나 임하도록 기도하라.”(2:9)

제 1 장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심판함

1 그때에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
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
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
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
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
라.
3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
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
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
노라.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
오지 못할 것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
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
라.
5 ¶ 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매 그
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
여 지금 돌아왔느냐? 하니
6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한 사람

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되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
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
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
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7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만나려고 올라와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더
냐? 하니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니라.
9 그때에 왕이 오십인 대장과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더라. 보
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았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
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
다, 하니
10 엘리야가 오십인 대장에게 응답
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
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불
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살랐더라.
11 그가 또 다시 다른 오십인 대장
과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2 엘리야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살랐더라.
13 ¶ 그가 다시 셋째 오십인 대장
과 그의 *부하* 오십 명을 보내므로 셋째
오십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내 생명과 당신
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의
눈앞에서 귀히 여기소서.
14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난번의 오십인 대장 두 명과 그들의
부하 오십 명씩을 태웠사오니 그런즉
이제 내 생명을 당신의 눈앞에서 귀히
여기소서, 하매
15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
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그가 일어나 그
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 그에게 말하되, 주가 이같이 말
하노라. 네가 사자들을 보내어 에그론
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였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에 말씀을 여쭐 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
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
지 못할 것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
라, 하니라.
17 ¶ 이처럼 그가 엘리야가 말한
주의 말씀대로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
이년에 통치하니라.
18 이제 아하시야가 행한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제 2 장

엘리야의 승천

1 주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
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
가더라.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
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
를 벧엘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
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
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

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벧엘로
내려가니
3 벧엘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
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
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
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
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
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
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
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
르니
5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
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
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
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6 엘리야가 또 그에게 이르되, 원하
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7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의 오십 명
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더라.
8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
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9 ¶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
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
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두
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10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네게 이루어
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
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1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
는데, 보라,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나타
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
라.
12 ¶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
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
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더
라.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13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
의 둑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
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
너니라.
15 여리고에서 바라보던 대언자들
의 아들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
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하고
가서 그를 만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
더라.
16 ¶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강한 자 오
십 명이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
의 영께서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하나
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너희는 보내
지 말라, 하였으나
17 그들이 그가 민망히 여길 때까
지 그를 재촉하므로 그가, 보내라,
하매 그들이 그런 까닭에 오십 명을
보내니라. 그들이 사흘 동안 찾되 그
를 발견하지 못하고
18 (그가 여리고에 머무르므로) 그
에게 돌아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
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의 기적들
19 ¶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
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니
20 그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
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
매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21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
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
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매
22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
대로 고쳐져서 이 날까지 이르렀더
라.
23 ¶ 그가 거기에서 벧엘로 올라
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어린
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
여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여 올라
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므로
24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
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매 숲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의
마흔두 명을 찢었더라.
25 그가 거기에서 갈멜 산으로 가
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 3 장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함
1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십팔
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
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십이 년 동안 통치하니라.
2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
였으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
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
거하였기 때문이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들에 굳게 붙어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 ¶ 모압 왕 메사는 양 주인이더
라. *그가* 어린양 십만 마리와 숫양
십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
에게 바쳤으나
5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
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6 ¶ 바로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
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의 수를 세
고
7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
람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싸우
러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매 그
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
이다, 하니
8 그가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에돔의 광야를 지나는 길로 *가리이다*,
하니라.
9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가며 그들이 이레 길을
돌아서 이동하였는데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으므
로
10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아 슬프
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니
라.
11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
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하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
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12 여호사밧이 이르되, 주의 말씀
이 그에게 있도다, 하니라. 이에 이스
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
게로 내려가니라.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
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
까?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

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로 가소
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
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함
께 부르셨나이다, 하매
14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
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
밧이 앞에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
더라면 분명히 왕을 바라보지도 아니
하고 왕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5 그러나 이제 음악 하는 자를 내
게로 데려오소서, 하니라. 음악 하는
자가 연주할 때에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
16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
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17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터이나 그럼에도 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18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단지 작
은 일이며 그분께서 모압 족속도 당신
들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즉
19 당신들이 성벽을 두른 모든 도
시와 모든 좋은 도시를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며 모든 우물을 메우고 또
모든 좋은 땅을 돌로 망쳐 놓으리이
다, 하더니
20 아침에 음식 헌물을 드릴 때에,
보라, 물이 에돔 길에서 나와 그 지역
이 물로 가득하였더라.
21 ¶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과
싸우려 한다는 것을 온 모압 족속이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로부터
나아가 그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이 모여
경계에 섰더라.
22 아침에 모압 족속이 일찍 일어
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피처럼 붉게 된 것을 보고는
23 이르되, 이것은 피라. 분명히
그 왕들이 서로를 쳐서 죽였도다. 그
러므로 이제 모압아, 노략하러 가자,
하고
24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니 이스라
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족속을
치매 그들이 저들 앞에서 도망하니
라. 그러나 저들이 앞으로 가서 그들
의 지역에서 모압 족속을 치고
25 도시들을 쳐부수며 또 각 사람
이 모든 좋은 땅에 돌을 던져 그것을
채우고 모든 우물을 메우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오직 길하라셋에서 그곳
의 돌들만 남겼으나 무릿매꾼들이 거
기를 두루 다니며 그곳을 치니라.
26 ¶ 모압 왕이 자기가 감당하기
에 싸움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칠백 명을 거느리고
헤치고 나아가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하지 못하더라.
27 그때에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통치할 자기의 맏아들을 취해 성벽에
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매 이스라엘
을 대적하는 큰 격노가 임하므로 그들
이 그에게서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제 4 장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1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
들 중의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
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
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2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무엇
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3 그때에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네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
려 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4 너는 들어가 너와 네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니
라.
5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
니
6 그릇들이 차므로 그녀가 자기 아
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
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
쳤더라.
7 그때에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
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
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림

8 ¶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
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
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9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
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10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
리이다, 하였더라.
11 하루는 그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12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
를 부르매 그녀가 그 앞에 서니라.
13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말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
데 거하나이다, 하니라.
14 그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
해 무엇을 하리요? 하매 게하시가 대
답하되, 참으로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
거늘
15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문에
서니라.
16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
니 그녀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
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
17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
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 준
그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18 ¶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하루
는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러
19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
리야 내 머리야, 하므로 그의 아버지
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 그가 그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
니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정오
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으니
라.
21 그녀가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
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는 그의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22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
건대 청년들 중의 한 명과 나귀들 중의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
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
리이다, 하니
23 그가 이르되, 월삭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하매 그
녀가 이르되, 잘 되리이다, 하고
24 이에 나귀에 안장을 얹으며 자
기 종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나
아가라. 내가 네게 명하지 아니하거
든 나를 위해 모는 것을 늦추지 말라,
하니라.
25 이처럼 그녀가 가서 갈멜 산으
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니라. 하나

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에
그 수넴 여인이 있도다.
26 원하건대 이제 달려가서 그녀
를 맞이하며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
는 잘 있느냐? 네 남편은 잘 있느냐?
네 아이는 잘 있느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되, 잘 있나이다, 하고
27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으니라. 그러나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
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의 혼이 그녀의 속에서 괴로워하
니 그녀를 가만 두라. 주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
도다, 하니라.
28 그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내
주에게서 아들을 바라더이까? 내가
말하기를, 나를 속이지 마소서,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29 그때에 그가 게하시에게 이르
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네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날지라
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네게 인사할지
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매
30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주
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당신
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가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가니라.
31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것도 없었으므로
그가 돌아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
다, 하니라.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보라,
아이가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
므로
33 그가 들어가 자기들 두 사람 뒤
로 문을 닫은 뒤 그가 주께 기도하고
34 아이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엎드
리고는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니라.
35 이에 그가 돌아서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이 위에 올라가
그 위에 자기 몸을 펴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므로
36 그가 게하시를 불러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이에 그가
그녀를 부르니라. 그녀가 들어가 그
에게 이르니 그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려가라, 하매
37 그때에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 뒤 자기 아들
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독을 없앰

38 ¶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
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대언
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으매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대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 하니라.
39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
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고 그것에
서 야생 박들을 따서 무릎 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죽 끓이는 솥에 그것들
을 썰어 넣었더라.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40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이 먹도
록 부어 주었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
고 그것을 능히 먹지 못하였으나
41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
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지고 이
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
이 먹게 하라, 하매 솥에서 해를 일으
키는 것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백 명을 먹임

42 ¶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스무
개와 또 껍질에 싸인 알찬 곡식을 하나
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
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
라, 하니
43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

이시니이까? 내가 이것을 백 명 앞에
차려야 하리이까? 하매 그가 또 이르
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
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
니라, 하매
44 이에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
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제 5 장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침

1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
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
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
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2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
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3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4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라.
5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
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
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십 달란트
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
니라. 일렀으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
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
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
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
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
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
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
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8 ¶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
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
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
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
을 알리이다, 하니라.
9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
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11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아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
도다.
12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
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
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
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13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아와 그
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
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
이까? 하매
14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15 ¶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
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
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
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16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
매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므로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
건대 두 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
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
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18 이 일에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
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곧 내 주
인께서 림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시므로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힐 때에 주께서
이 일에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19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
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를 떠나
조금 가니라.

게하시의 탐욕과 심판

20 ¶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
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
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21 이에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좇
아가매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다 잘 있느냐?
한즉
22 그가 이르되, 다 잘 있나이다,
하고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
시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의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일 달란
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하매
23 나아만이 이르되, 흡족히 여기
고 이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는 그에게
강권하며 은 이 달란트를 옷 두 벌과
함께 두 주머니에 넣어 묶어 주고 자기
의 두 종에게 그것들을 지워 주매 그들
이 게하시 앞에서 그것들을 지고 가니
라.
24 성채에 이르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니라.
25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
인 앞에 서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26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
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굳게 붙고 네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
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
라.

제 6 장

도끼머리를 물에서 건짐

1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
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
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2 청하건대 우리가 요르단으로 가
서 거기서 각 사람이 재목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하사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되, 너
희는 가라, 하니
3 한 사람이 이르되, 원하건대 흡
족히 여기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하

소서, 하매 그가 응답하되, 내가 가리
라, 하고
4 이에 그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
라.
5 그러나 한 사람이 재목을 벨 때에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
가 외쳐 이르되,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 온 것이니이다, 하니
6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매 그가 그에
게 그곳을 보여 주므로 그가 나뭇가지
를 베어 거기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오르
니라.
7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그것을
네게로 들어 올리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니라.

시리아 군사들을 사로잡음

8 ¶ 그때에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과 싸우며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
에 있으리라, 하였더니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은 조심
하여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
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왔
나이다, 하매
10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를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
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11 이러므로 이 일로 인해 시리아
왕의 마음이 매우 괴롭게 되어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
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을 돕
는지 너희가 내게 알려 주려 하지 아니
하느냐? 하니
12 그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이
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
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
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니라.
13 ¶ 그가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그
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
단에 있나이다, 하매
14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15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
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
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
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
리이까? 하매
16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
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
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17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
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
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를 둘렀더라.
18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
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
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19 ¶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도시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
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데려
가리라, 하였으나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니라.
20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사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
이 보니, 보라,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
가운데 있더라.
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
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그
들을 치리이까? 내가 그들을 치리이
까? 하니
22 그가 대답하되, 그들을 치지 마
소서. 왕께서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
은 저 사람들을 치려 하시나이까? 빵

과 물을 그들 앞에 차려 주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자기들의 주인에게
로 가게 하소서, 하매
23 그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
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신 뒤에 그들
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에게
로 가니라. 이리하여 시리아의 무리들
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
하니라.

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포위함

24 ¶ 이 일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
이 자기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
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여든
개에 팔리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이
은 다섯 개에 팔리더라.
26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
갈 때에 한 여인이 그에게 외쳐 이르
되,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매
27 왕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나는 것으
로 너를 도우랴? 창고 마당에서 나는
것으로 하랴?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나는 것으로 하랴? 하고
28 또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
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
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매
29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
었나이다. 다음 날 내가 그녀에게 이
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
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30 ¶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보니, 보라, 왕이
그의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
31 그때에 그가 이르되, 이 날 사밧
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
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2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
았고 장로들도 그와 함께 앉았더라.
왕이 자기 앞에서부터 *사람을* 보내었
으나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
인자의 이 아들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보라, 사자
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를 문에서 굳게
잡아 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 아직 그들과 이야기할 때에, 보
라, 그 사자가 그에게 내려오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이 재앙이 주에게
서 왔으니 어찌 내가 주를 더 기다리리
요? 하니라.

제 7 장

1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
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문에서 고운 밀가루 일 세아가 일 세겔
에 팔리고 보리 이 세아가 일 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2 그때에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
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네가 네 눈으
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함

3 ¶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
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4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
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
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
아 사람들의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하고

5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
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렀는데, 보
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6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
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
이 우리를 치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
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
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
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8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
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라.
9 그때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
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날
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10 이에 그들이 가서 도시의 문지
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
되,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거기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매
11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
이 안에 있는 왕의 집에 그것을 고하니
라.
12 ¶ 왕이 밤에 일어나 자기 신하
들에게 이르되,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여 주려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진영에서 나가
들에 숨고는 말하기를, 그들이 도시
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그들을 산 채로
사로잡고 도시에 들어가리라, 하였느
니라, 하매
13 그의 신하들 중의 하나가 응답
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몇 사람이 남
겨진 말들 곧 도시에 남아 있는 말들
중의 다섯 마리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
가 *사람을* 보내어 보게 하소서. (보소
서, 그 말들은 도시 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내가 말하거니와 참으로 그 말들은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니라.
14 그러므로 그들이 병거에 쓸 말
두 마리를 취하매 왕이 시리아 사람들
의 군대 뒤로 *사람들을* 보내며 이르기
를, 가서 보라, 하였더니
15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뒤를
따라 요르단에 이른즉, 보라, 그들이
급한 김에 내버린 의복과 기구가 온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와
서 왕에게 고하매
16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의
장막들을 노략하니라. 이에 주의 말
씀대로 고운 밀가루 일 세아가 일 세겔
에 팔리고 보리 이 세아가 일 세겔에
팔리니라.
17 ¶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
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의 책무를
맡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
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18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
리아 성문에서 보리 이 세아가 일 세겔
에 *팔리고* 고운 밀가루 일 세아가 일
세겔에 *팔리리라*, 한즉
19 *그때에*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
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
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
라.
20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

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그가 죽었더라.

제 8 장

수넴 여인이 재산을 되찾음

1 그때에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
시 살려 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네 집안사람들과 함께 네가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무르
라.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나니 기근
이 또한 그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리라,
하매
2 그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의 말대로 행하여 자기 집안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칠 년 동안 머물다가
3 칠 년이 끝나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4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
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원하건대 엘리
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5 엘리사가 죽은 몸을 다시 살린
일을 그가 왕에게 고할 때에, 보라,
엘리사가 전에 다시 살려 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매 게하시가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이 *사람*이 그녀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
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거늘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그녀가
그에게 고하니라. 이에 왕이 그 여인
을 위해 어떤 직무 수행자 하나를 임명
하여 이르되,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
과 그녀가 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
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열매를 돌려주
라, 하였더라.

벤하닷의 죽음

7 ¶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이르
렀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었
더라.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
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
다, 하매
8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
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을 만나고 그를 통해 주께 여쭈어 이르
되,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하
라, 하니라.
9 이에 하사엘이 그를 만나러 가면
서 다마스쿠스의 모든 좋은 물건 중에
서 예물을 취하여 마흔 마리 낙타의
짐으로 싣고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
되, 당신의 아들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10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
시리라, 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보여 주셨느니
라, 하고
11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민망히
여길 때까지 얼굴을 움직이지 아니하
며 울더라.
12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
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
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네가 그
들의 강한 요새들에 불을 놓으며 그들
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자녀
들을 내던지며 아이 밴 그들의 여인들
을 잡아 찢으리라, 하매
13 하사엘이 이르되, 그런데 개와
같은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주께서 네가 시리아를 다스
릴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 주셨느니
라, 하니라.
14 이에 그가 엘리사에게서 떠나
자기 주인에게로 가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
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그가 내게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을 고하더이다,
하고
15 그 이튿날 하사엘이 두꺼운 이
불을 취해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으니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람의 유다 통치(대하21)

16 ¶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의 제오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17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
이가 삼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팔 년 동안 통치하니라.
18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
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같이 행하였으
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19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
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
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
라.
20 ¶ 그의 시대에 에돔이 배반하
여 유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웠으므로
21 이에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
리고 사일로 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족속과 병거의 대장들을
치니 백성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장막
으로 들어갔더라.
22 그럼에도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 날까지 이르렀
으며 또 바로 그때에 립나도 배반하였
더라.
23 요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24 요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
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하시야의 유다 통치(대하22:1-6)

25 ¶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의 제십이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26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이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
의 딸 아달랴더라.
27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
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 사위였기 때문이더라.
28 ¶ 그가 가서 아합의 아들 요람
과 함께 라못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
사엘과 싸웠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
람을 상하게 하므로
29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이
입힌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예스르엘
로 돌아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보려고 예스르엘로
내려갔더라.

제 9 장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

1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
를 손에 가지고 라못길르앗으로 가라.
2 네가 거기에 이르거든 거기서 님
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
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형제
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한 뒤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서
3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
노라, 하고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
며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4 ¶ 이에 그 청년 곧 청년 대언자
가 라못길르앗으로 가니라.
5 그가 이르렀더니, 보라, 군대의
대장들이 앉아 있으므로 그가 이르
되,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용건
이 있나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우
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오 대장이여, 당신
에게 있나이다, 하매

6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즉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
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니
7 너는 네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
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에다 소변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
버리되
9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
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10 예스르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
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11 ¶ 그때에 예후가 자기 주(主)의
신하들에게 나아가매 한 사람이 그에
게 이르되, 다 잘 있느냐? 이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
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
들이 그 사람과 그가 전한 것을 아느니
라, 하매
12 그들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
니라. 이제 우리에게 고하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이렇게 이렇게 내
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
하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
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하더
라.
13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옷
을 취하여 계단의 꼭대기에 곧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
는 왕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

14 이와 같이 님시의 손자요, 여호
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대적하
여 음모를 꾸미니라. (이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 하사엘로 인하
여 라못길르앗을 지켰으나
15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시리아 사람들이 입힌 상처
를 치료받으려고 예스르엘로 돌아왔
더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마음이
그러하거든 아무도 이 도시에서 나가
거나 도망하여 그것을 예스르엘에 알
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16 이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예스르
엘로 가니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더라. 유다 왕 아하시야
가 요람을 보려고 내려 왔더라.
17 예스르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 예후가 올 때에 그가 그의
무리를 탐지하고 이르되, 내가 한 무
리를 보나이다, 하매 요람이 이르되,
기병 하나를 취하여 보내고 그들을
맞이하게 하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게 하라, 하니
18 이에 말 탄 자 하나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한 일이냐? 하시
나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
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
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므로
19 그때에 그가 둘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가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한 일이냐? 하시나이다, 하매 예
후가 응답하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
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20 또 파수꾼이 고하여 이르되, 그
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
거니와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으니 그가 맹렬히
모나이다, 하매
21 요람이 이르되, 예비하라, 하니
그들이 그의 병거를 예비하니라. 이스
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가되 예후를
향해 나가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상속*
물 땅에서 그를 만나매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

후야, 평안한 일이냐? 하매 그가 대답
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으니 무슨 평안이
냐? 하매
23 요람이 손을 돌이켜서 도망하
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오 아하시야
여, 반역이로다, 하니라.
24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매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지므로
25 이에 예후가 자기의 대장 빗갈
에게 이르되, 그를 취하여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상속물* 밭에 던지라. *너*
는 기억하라.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랐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느니라.
26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제 분
명히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하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
되,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네게 갚으
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제 주의 말
씀대로 그를 취하여 이 땅에 던질지니
라, 하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의 죽음(대하22:7-9)

27 ¶ 그러나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것을 보고 동산에 있던 집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좇아가며 이
르되, 그도 병거 안에서 치라, 하매
그들이 이블르암 옆의 구르로 올라가
는 곳에서 그렇게 하니 그가 므깃도
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으므로
28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
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의 도시에
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돌무덤에
그를 묻으니라.
29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십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
였더라.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

30 ¶ 예후가 예스르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
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
다가
31 예후가 문에서 들어오매 그녀가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하니
32 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
매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다보므로
33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지매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34 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
르되,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보고 그녀를 묻으라. 그녀는 왕의 딸
이니라, 하매
35 그들이 가서 그녀를 묻으려 하
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하였으므로
36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예스르엘에 속
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37 이세벨의 사체가 예스르엘에 속
한 그 *상속물* 땅에서 거름같이 밭의
표면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10 장

아합의 일흔 아들들의 죽음

1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 사마리아
에 있더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
아로 보내되 예스르엘의 치리자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이들을 양육한 자
들에게 보내니라. 일렀으되,
2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
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성벽을 두른
도시와 갑옷도 너희에게 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곧바로
3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찾아 그의 아버
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4 그러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보라, 두 왕이 그 앞에서 서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으리
요? 하고
5 그 집을 다스리는 자와 도시를
다스리는 자와 또한 장로들과 그 아이
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사람*
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
이오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당신의 눈
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6 그때에 그가 두 번째 그들에게
편지를 쓰니라. 일렀으되, 만일 너희
가 내 편이 되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들 곧
그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
때에 예스르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
라, 하였더라. 이제 왕의 아들들 칠십
명이 자기들을 양육한 자들 곧 그 도시
의 위대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7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칠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예스르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니
라.
8 ¶ 사자가 와서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
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들을 성문 어귀
에 두 무더기로 쌓아 두라, 하고
9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온 백성에
게 이르되, 너희는 의로울지어다. 보
라, 나는 내 주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였거니와 이 모든 사람
을 죽인 자는 누구냐?
10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하니라.
11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르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남아 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을 죽
였더라.

아하시야의 마흔두 형제들의 죽음

12 ¶ 예후가 일어나 떠나서 사마
리아로 갔더라. 그가 길에서 양털 깎
는 집에 있을 때에
13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
나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매 그들
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
라. 우리가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
녀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니
14 그가 이르되, 그들을 산 채로
사로잡으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산
채로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구덩이에
서 죽이니 곧 사십이 명이더라. 그가
그들 중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
라.

아합의 나머지 가족들의 죽음

15 ¶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
나답을 우연히 만나매 그가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
이 네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네 마음도 그러하냐? 하니 여호나답
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
가 이르되, 그러면 네 손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손을 주매 그가 그를 병거에
끌어올리며
16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17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주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마리아
에서 아합에게 남아 있던 모든 자를
죽여 마침내 그를 멸하였더라.

바알 숭배자들의 죽음

18 ¶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
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
리라.
19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
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

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
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
20 예후가 이르기를,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니 그들
이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21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사람*
을 보내었더니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오므로 오지 않은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매 바알의 집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22 예후가 예복실을 담당하는 자
에게 말하되,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주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니
23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
게 이르되, 살피고 조심하여 바알 숭
배자들만 있게 하며 주의 종은 여기에
한 사람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24 그들이 희생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러 들어간 때에 예후가 밖에 팔십
명을 정하여 두고는 이르되, 내가 너
희 손에 넘겨준 자들 중의 하나라도
도망하면 그를 가게 하는 자로 말하건
대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
하리라, 하니라.
25 예후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마
치고는 곧바로 호위병들과 대장들에
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
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매
호위병들과 대장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밖으로 던지고 바알의 집이 있는
도시로 가서
26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
다가 불태우며
27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
날까지 이르니라.
28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
엘에서 멸하였더라.
29 ¶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들 곧 벧엘과 단에 있던 금송
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
가 내 눈에 올바른 것을 집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네 사대 자손
이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하시니
라.
31 그러나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의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의 하
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려 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
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죽음

32 ¶ 그때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시키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
스라엘 온 지역에서 그들을 치되
33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길르앗 온
땅 곧 갓 족속과 르우벤 족속과 므낫세
족속과 아르논 강 옆의 아로엘에서부
터 길르앗과 바산에 이르기까지 치니
라.
34 이제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
어 있지 아니하냐?
35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들매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으니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
여 통치하니라.
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을 통치한 기간은 이십팔 년이더라.

제 11 장

아달랴의 유다 통치
(대하22:10－12)

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
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
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2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
데서 그를 훔쳐 내니라. 그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게
서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3 그가 그녀와 함께 주의 집에 육
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됨
(대하23:1－11)

4 ¶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
을 보내어 백 명을 다스리는 치리자들
을 대장들과 호위대와 함께 부르고
주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뒤에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
5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중에
서 삼분의 일 곧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왕의 집을 주의하여 지키라.
6 또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너희가 이와 같이 그 집을 주의
하여 지켜 그것이 침범당하지 아니하
게 하라.
7 또 안식일에 나아가는 너희 모든
사람의 두 무리 곧 그들은 왕을 위해
주의 집을 주의하여 지키되
8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사방으로 왕을 에워싸며 구역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죽이고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왕과 함께할지니라, 하
니라.
9 백인 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그들이
각각 안식일에 들어가야 할 자기의
사람들을 안식일에 나와야 할 자들과
함께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10 제사장이 주의 *성*전에 있던 다
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
게 주니라.
11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둘러싸되 *성*전의 오른쪽
모서리에서부터 *성*전의 왼쪽 모서리
까지 제단과 *성*전 옆에 서고
12 그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 *책*을 주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
을 부으며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국
왕 폐하 만세, 하니라.

아달랴의 죽음(대하23:12－21)

13 ¶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란한 소리를 듣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14 보매, 보라, 왕이 관례대로 기둥
옆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
이 왕 옆에 섰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여 나팔을 부니라. 아달랴가 옷
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
이로다, 하였으나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인 대장들
곧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
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녀를 구역 밖
으로 몰아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전에 그 제사
장이 말하기를, 주의 집에서는 그녀
를 죽이지 말라, 하였더라.
16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대매 그
녀가 말들이 왕의 집에 이를 때에 지나
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
더라.
17 ¶ 여호야다가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
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매
18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
로 가서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며 제단
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
니라. 제사장이 주의 집을 지킬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고
19 또 백 명을 다스리는 치리자들
과 대장들과 호위대와 그 땅의 온 백성
을 거느리고 왕을 주의 집에서 모시고
내려와 호위대의 문 길을 통해 왕의
집에 이르매 그가 왕들의 왕좌에 앉으
니라.
20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

도시가 평온해졌더라. 그들이 아달랴
를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였더라.
21 여호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제 12 장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함
(대하24:1－14)

1 예후의 제칠년에 여호아스가 통
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브엘세바의 시비아더라.
2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3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
물을 드리며 분향하니라.
4 ¶ 여호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
르되, 주의 집으로 가져와 봉헌한 물건
들 중에서 모든 돈 곧 계산이 끝난
모든 사람의 돈이나 모든 사람에게
정해 준 돈이나 주의 집에 가져오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정한 모든 돈을
5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가 아는 자
들에게서 취하여 그 집의 어느 곳이든
지 무너진 곳을 발견하거든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하였으나
6 여호아스 왕의 제이십삼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집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 아니하므로
7 여호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
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집의 무
너진 곳을 보수하지 아니하느냐? 그
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그 집의 무너
진 곳을 *보수*하도록 그것을 넘겨주
라, 하니
8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 집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
니라.
9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 하
나를 취하여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사람이 주의 집에 이를 때에 오른
쪽에 있는 제단 옆에 두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의 집에 가져
온 모든 돈을 그 안에 넣었더라.
10 이에 그들이 그 궤 안에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주의 집에서 찾
은 돈을 자루에 넣고 세서
11 그 센 돈을 그 일을 하는 자들
곧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
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그것을 주었
으며
12 또 석공과 돌 다듬는 자들에게
주고 또 주의 집의 무너진 곳을 보수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또 그
집을 위해 그 집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쓰게 하였더라.
13 그러나 *사람들이* 주의 집에 가
져온 돈으로 *그들이* 주의 집을 위해
은 대접들이나 심지 자르는 기구들이
나 대야들이나 나팔들이나 어떤 금
그릇이나 은그릇들을 만들지 아니하
고
14 오직 그 돈을 기술자들에게 주
어 그 돈으로 주의 집을 보수하였으며
15 또한 그 돈을 손에 넘겨받아 기
술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들과 계산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
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더라.
16 *그들이* 범법으로 인한 돈과 죄
로 인한 돈은 주의 집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되었더라.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위협함

17 ¶ 그때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와 싸워 그곳을 점령하
고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얼굴을 고정
하고 올라오려 하였으므로
18 유다 왕 여호아스가 전에 자기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
시야가 봉헌한 모든 거룩한 것과 자기
의 거룩한 것과 또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그
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죽음(대하24:23-27)

19 ¶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20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
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그를 죽였으니
21 그의 신하들인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예호사밧이 그
를 쳐서 죽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3 장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

1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의 제이십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
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
하기 시작하여 십칠 년 동안 통치하며
2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
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
기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3 ¶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평
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
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겨주셨더
라.
4 여호아하스가 주께 간청하매 주
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
므로 그분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5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
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
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의 집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걸었으며 또 사마리아에
도 작은 숲을 남겨 두었더라.)
7 시리아 왕이 백성 중에서 기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 두지 아
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멸하고 타작
하여 티끌같이 되게 하였더라.
8 ¶ 이제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
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
어 있지 아니하냐?
9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
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
으니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
여 통치하니라.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10 ¶ 유다 왕 요아스의 제삼십칠년
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
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
하여 십육 년 동안 통치하며
11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
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걸었더
라.
12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울
때 *보여 준*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
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13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여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으
니라.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
께 사마리아에 묻히니라.

엘리사의 죽음

14 ¶ 이제 엘리사가 죽을병에 걸
려 아프게 되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매
15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니라.
16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

가 손으로 그것을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놓고
17 이르되, 동쪽으로 창을 여소서,
하니 그가 열매 이에 그가 이르되,
쏘소서, 하므로 그가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 받게 하는 화살이
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
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
하니라.
18 또 그가 이르되, 화살들을 취하
소서, 하매 그가 취하니 그가 또 이스
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
매 그가 세 번 치고 멈추므로
19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치셨어야
만 했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시리아를 치되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치셨으리이다. 그러나 이제 왕이 시리
아를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0 ¶ 엘리사가 죽으매 그들이 그
를 묻으니라. *새*해가 되매 모압 족속
의 무리들이 그 땅을 침범하니라.
21 그들이 어떤 사람을 묻을 때에,
보라, 그들이 사람들 한 떼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돌무덤에 던지매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에 소생
하여 자기 발로 일어섰더라.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도시들을 탈환함

22 ¶ 그러나 여호아하스의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라.
23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과 맺은 자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
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며 그
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자신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24 이처럼 시리아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
치하매
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도시
들을 다시 빼앗았는데 이 도시들은
그가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의 손에서 싸움을 통해 빼앗은 것이더
라. 요아스가 그를 세 번 치고 이스라엘
의 도시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4 장

아마샤의 유다 통치
(대하25:1－26:2)

1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하니라.
2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
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호앗단
이더라.
3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요아
스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4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
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 왕국이 자기 손에서 확고히
서매 그가 왕이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신하들을 죽였으나
6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살인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
니하였더라. 그 안에서 주께서 명령
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
니라, 하셨더라.
7 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속
한 자 만 명을 죽이고 또 싸워서 셀라를
점령하고 그것의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이 날까지 이르니라.
8 ¶ 그때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
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

라.
9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
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에게 *전갈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 딸
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 하였더
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0 네가 참으로 에돔을 쳤으므로
네 마음이 너를 높였으니 이것으로
영광을 삼고 집에나 거하라. 어찌하
여 네가 화를 입으려고 간섭함으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느냐? 하였으나
11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므
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에 속한
벧세메스에서 서로 대면하였는데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니
라.
13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벧세메
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요, 여호아스
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을 헐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사백 큐빗을 헐며
14 또 주의 집과 왕의 집의 보고에
서 찾은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5 ¶ 이제 여호아스가 행한 나머
지 행적과 그의 권력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
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16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
아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17 ¶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
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 유다 왕 요아
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오 년을 사니라.
18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냐?
19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가 라
기스로 도망하였더니 그들이 그의 뒤
를 따라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20 그를 말에 실어 오니 그가 예루
살렘에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21 ¶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 대신 왕으
로 삼았는데 *그때에* 그는 나이가 십육
세더라.
22 그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든 뒤에 그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통치

23 ¶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의 제십오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통치
하기 시작하여 사십일 년 동안 통치하
였더라.
24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
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
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밋대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
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
더라.
26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27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28 ¶ 이제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
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력
곧 그가 싸운 일과 다마스쿠스를 회복
한 일과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
라엘을 위해 회복한 일은 이스라엘 왕
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냐?
29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 곧 이스
라엘 왕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사가랴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5 장

아사랴의 유다 통치
(대하26:3－23)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이십
칠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2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
가 십육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골리야
더라.
3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4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
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외딴
집에 거하였고 왕의 아들 요담이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
라.
6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7 이처럼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
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라.

사가랴의 이스라엘 통치

8 ¶ 유다 왕 아사랴의 제삼십팔년
에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가 사마리아
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
며
9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
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
므로
10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대적
하여 음모를 꾸미고는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
하니라.
11 보라, 사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
어 있느니라.
12 주께서 친히 예후에게 하신 말
씀이 이러하니 이르시기를, 네 아들
들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
리라, 하셨더라. 일이 그대로 이루어
지니라.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13 ¶ 유다 왕 웃시야의 제삼십구년
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통치하기 시
작하여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 동안
통치하였으니
14 이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
사에서 올라와 사마리아로 가서 야베스
의 아들 살룸을 사마리아에서 쳐서 죽
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기 때문
이라.
15 보라,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꾸민 음모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
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므나헴의 이스라엘 통치

16 ¶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부터 시작하여 딥사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것의 지경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위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 도시를 치고 그 안에 있던 아이
밴 모든 여인의 *배를* 가르니라.
17 유다 왕 아사랴의 제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을 통
치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십 년
동안 통치하며
18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
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평
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치러
오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그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게 하여 왕국을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려 함이었더라.
20 므나헴이 이스라엘에서 곧 재산
이 많은 모든 강한 자들에게서 각각
은 오십 세겔씩 강제로 돈을 거두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이에 아시리아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거기에 머물
지 아니하였더라.
21 ¶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22 므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그를 대
신하여 통치하니라.

브가히야의 이스라엘 통치

23 ¶ 유다 왕 아사랴의 제오십년
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
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이 년 동안 통치하며
24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
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
나지 아니하였더라.
25 그러나 그의 대장 르말랴의 아
들 베가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
고 사마리아에 있던 왕의 집 궁궐에서
아르곱과 아리에와 또 자기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 오십 명과 함께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26 보라, 브가히야의 나머지 행적
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
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베가의 이스라엘 통치

27 ¶ 유다 왕 아사랴의 제오십이년
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
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이
십 년 동안 통치하며
28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
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
나지 아니하였더라.
29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
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욘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
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
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30 웃시야의 아들 요담의 제이십년
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
들 베가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는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
하니라.
31 보라,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
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요담의 유다 통치(대하27)

32 ¶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제이년에 유다 왕 웃시야의 아
들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33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
이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독의 딸 여루사더
라.
34 그가 자기 아버지 웃시야가 행
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주의 눈앞에
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35 ¶ 그러나 *그가* 산당들을 제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
였더라. 그가 주의 집의 높은 문을
건축하였더라.
36 ¶ 이제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
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37 그때에 주께서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기 시작하
여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38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
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
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6 장

아하스의 유다 통치(대하28)

1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제십칠년
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
하기 시작하니라.

2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
지 아니하고
3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
가게 하고
4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 그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
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싸우려
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에
워쌌으나 그를 이기지 못하니라.
6 그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엘랏을
시리아에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엘
랏에서 쫓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
들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이 날까지 이르렀더라.
7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
랏빌레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
되,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
이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
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8 주의 집과 왕의 집의 보고에서
찾은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
게 예물로 보내매
9 아시리아 왕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다
마스쿠스를 쳐서 점령하고 그곳의 백
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기르로 데려가
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 ¶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
랏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에 갔
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그것을 만드
는 모든 기술과 함께 제사장 우리야에
게 보내었더니
11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
아오는 것에 맞추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
든 것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12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제
단을 보고 제단에 다가가서 그 위에
헌물을 드리되
13 자기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
을 불태우고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화평 헌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14 또 주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옮기
되 그 집의 맨 앞에서 곧 그 제단과
주의 집 사이에서 옮겨 그 제단의 북쪽
편에 두니라.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의 번제 헌물과
저녁의 음식 헌물과 왕의 태우는 희생
물과 그의 음식 헌물과 이 땅 온 백성의
번제 헌물과 그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그 큰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또 번제 헌물의 모든 피와 희생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서 뿌리고 놋 제단은
내가 여쭙는 일에 쓰게 하라, 하매
16 제사장 우리야가 이와 같이 아하
스 왕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
더라.
17 ¶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
의 테두리를 떼어 내고 물두멍을 그
테두리에서 떼어 옮기며 또 바다를
그것 밑에 있던 놋 소들 위에서 내려다
가 돌로 포장한 곳 위에 두고
18 또 안식일을 위해 그들이 그 집
에 건축한 숨는 장소와 밖에 있던 왕의
출입구를 아시리아 왕으로 인하여 주
의 집으로부터 돌려 놓으니라.
19 ¶ 이제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
되어 있지 아니하냐?
20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7 장

호세아의 이스라엘 통치

1 유다 왕 아하스의 제십이년에 엘

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
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구 년
동안 통치하며
2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
으나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3 ¶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그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4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
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
아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서 음모를 보고
그런 까닭에 그를 감옥에 넣어 묶어
두니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5 ¶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삼 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더
라.
6 ¶ 호세아의 제구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
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
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7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
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
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
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
며
8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
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
기 때문이더라.
9 이스라엘 자손이 은밀히 주 자기
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옳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여 파수꾼들의 망대로부
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모든 도시에 자기들을 위해
산당들을 건축하고
10 모든 산 속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우며
11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
내신 이교도들이 행한 것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사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으니
12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
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
13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
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
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
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15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
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
언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
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
라.
16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
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
고
17 자기 아들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
라.
18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분노하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
을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19 유다 또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더라.
20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버리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노략하
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
내시니라.
21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
에서 찢으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여로보
암이 이스라엘을 몰아붙여 주를 따르
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니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
한 그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
니
23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시
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서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
날까지 이르니라.

아시리아가 사마리아에 다시 정착함

24 ¶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
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
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
에 거하니라.
25 그들이 처음 거기에 거할 때에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
니라.
26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
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알지 못하므
로 그가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
매,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사
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매
27 이에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기서 데려온 제사
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로 데려가
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거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그들에
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라.
28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로
잡아 간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벧엘에 거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더
라.
29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
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
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여
30 바빌론 사람들은 숙곳브놋을 만
들고 구드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31 아바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
을 만들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아
이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더
라.
32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
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
으로 삼았더니 이들이 산당들의 집들
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
라.
33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
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
을 섬겼더라.
34 이 날까지 그들이 예전의 관습
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
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 즉 그들의 법규와 그들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
라.
35 전에 주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
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
시되,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
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리

지 말며
36 오직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너희
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
곧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37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법규와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
워하지 말며
38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
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39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
워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
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40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
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대로 행하였더
라.
41 이와 같이 이 민족들이 곧 그들
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
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자기 조
상들이 행한 대로 이 날까지 행하느니
라.

제 18 장

히스기야의 유다 통치
(대하29:1-2)

1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
세아의 제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
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2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
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랴의 딸 아비
더라.
3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
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
른 것을 행하니라.
4 ¶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
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모세가 만든 놋 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
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단이라 하였더라.
5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
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의 유다
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6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
을 지켰더라.
7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8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
것의 경계에까지 이르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
지 이르렀더라.
9 ¶ 히스기야 왕의 제사년 곧 이스
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칠년
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곳을 에워쌌더라.
10 삼 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그것
을 점령하니 히스기야의 제육년 곧 이
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구년에 사마리
아가 점령되니라.
11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
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
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
들에 두었으니
12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
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
하였기 때문이더라.
13 ¶ 히스기야 왕의 제십사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
매
14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
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
아가소서. 왕이 내게 짐 지워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지정해 주니라.
15 히스기야가 주의 집과 왕의 집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은을 주었고
16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산헤립이 주를 대적하여 자랑함
(대하32:9－15; 사36:2－22)

17 ¶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
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
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예루
살렘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올라와 예루
살렘에 이르니라. 그들이 올라올 때에
세탁공의 밭의 큰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곁에 이르러 서니라.
18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아김
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그들에게 나가니라.
19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
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되,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20 네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에 쓸
계략과 능력이 있다, 하나 (그것들은
헛된 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신뢰
하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21 보라, 이제 네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
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
게 그와 같으니라.
22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
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나니
23 그러므로 원하건대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에게 보증금을 내라. 만일
네가 네 편에서 말 이천 마리에 말
타는 자를 태울 수 있거든 내가 그
말들을 네게 넘겨주리라.
24 그러할진대 네가 어찌 내 주인
의 신하들 중의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
을 물리치며 이집트를 신뢰하여 병거
와 기병을 얻고자 하느냐?
25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곳
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
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6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
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
대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
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이야
기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27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
되, 내 주인께서 네 주인과 네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
게도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
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
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28 그때에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
의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말하여 이르
되,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
을 들으라.
29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
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리라.
30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
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31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
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
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각각 자기
물 저장고의 물을 마시라.
32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

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
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
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있는 땅이라. 그리하
여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
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
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33 민족들의 신들 중의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냐?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바의 신
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
를 내 손에서 건져 내었느냐?
35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하시느니라.
36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
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
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37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
을 감독하던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
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자기들
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
게의 말들을 그에게 고하니라.

제 19 장

이사야가 구출을 확증함
(사37:1-7)

1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
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2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아김과 서
기관 셉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
을 굵은 베를 입혀 아모스의 아들 대언
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고
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
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
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이 이사야에게 나아왔더라.
6 ¶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
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네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
워하지 말라.
7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
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
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사37:8-20)

8 ¶ 이에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것을 들었으므
로 돌아가다가 립나를 치려고 전쟁
중에 있던 왕을 만나니라.
9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
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는
데, 보라, 그가 너와 싸우려고 나왔다,
하므로 그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
들을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신뢰하
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
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11 보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네가 들었나니 네가 구출을 받겠
느냐?
12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
산과 하란과 레셉과 또 들라살에 있던
에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
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

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14 ¶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 놓고
15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
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16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산헤
립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
었나이다.
17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
이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멸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
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
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
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19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
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산헤립에 대한 주의 말씀
(사37:21－25)

20 ¶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
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
노라.
21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
하니라. 처녀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
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루살
렘의 딸이 너를 향해 자기 머리를 흔들
었느니라.
22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
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해 네 목소리
를 높이고 네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
도다.
23 네가 네 사자들을 통해 주를 모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그곳의 키 큰 백향목
과 그곳의 최상품 전나무를 베고 그의
경계가 있는 곳에 들어가며 그의 갈멜
숲에 들어가리라.
24 내가 땅을 파서 타국의 물을 마
셨으며 에워싼 곳의 모든 강을 내 발바
닥으로 말렸노라, 하였도다.
25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네가
오래 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
였느냐?*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
게 하였나니 곧 네가 성벽을 두른 도시
들을 피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한 일이니라.
26 그러므로 그 도시들의 거주민
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당황하였나
니 그들은 마치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린 곡식 같았느니라.
27 그러나 내가 너의 거처와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아노니
28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이르렀느
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네 입술에 씌워
네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29 또 이것이 네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셋째 해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의 열매
를 먹으리라.
30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여전히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1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리
라.
32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
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33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
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
가 말하노라.
34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
였더라.

산헤립의 패배와 죽음
(대하32:20－23; 사37:36－38)

35 ¶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
이 되었더라.
36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떠나
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37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
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
니아 땅으로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20 장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됨
(대하32:24－26; 사38:1－8)

1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2 그때에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
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
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
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
기야가 통곡하였더라.
4 이사야가 가운데뜰에 이르기 전
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
시되,
5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
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
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6 내가 네 날들에 십오 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7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
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
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
라.
8 ¶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
되, 주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9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
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에게서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
림자가 앞으로 십 도 나아가리이까,
혹은 뒤로 십 도 물러가리이까? 하매
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가 십 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십 도 물러가게 하소서, 하거늘
11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
매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십
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십 도 물러가
게 하셨더라.

바빌론의 사신들(사39:1－8)

12 ¶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
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
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
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13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
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
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 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
라.
14 ¶ 그때에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
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거늘
15 그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
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스기
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매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17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
들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
지 아니하리라.
18 또 그들이 네게서 나올 네 아들
들 곧 네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19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
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
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대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죽음(대하32:32－33)

20 ¶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또 그가 연못과 수로
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
어 있지 아니하냐?
21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
하여 통치하니라.

제 21 장

므낫세의 통치(대하33:1－20)

1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오십오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
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3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
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
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
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
들을 섬겼더라.
4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
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
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
라, 하신 곳이더라.
5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
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
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의 새긴
형상을 그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
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8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이 내
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직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면 *그리하
리라*, 하신 곳이더라.
9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
니하였고 또 므낫세가 그들을 꾀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
더라.
10 ¶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
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
들을 행하고 또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자기의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
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재앙을 가져올
터인즉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13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
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
기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고 씻어서
뒤집어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
으리라.
14 또 내가 내 상속 *백성* 중의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터인즉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에게 먹이가 되고 탈취물이 되리
니
15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서 나온 때부터 이 날까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하셨더라.
16 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
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17 ¶ 이제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
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그의 죄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18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집의 동산 곧 웃사의 동산
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
하여 통치하니라.

아몬의 통치와 죽음
(대하33:21－25)

19 ¶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이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이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욧바의 하루스의 딸
므슬레멧이더라.
20 그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
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며
21 자기 아버지가 걸은 모든 길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22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
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라.
23 ¶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
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을 그의 집에서
죽이매
24 그 땅의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
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25 이제 아몬이 행한 나머지 행적
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26 *그가* 웃사의 동산에 있는 자기
의 돌무덤에 묻히니 그의 아들 요시야
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22 장

요시야의 유다 통치
(대하34:1－2)

1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팔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
여디다더라.
2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
치지 아니하였더라.

힐기야가 율법 책을 발견함
(대하34:8－28)

3 ¶ 요시야 왕의 제십팔년에 왕이
므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집에 보내며 이르
되,
4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그가 *백성이* 주의 집으로 가져온 은
곧 문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서 거두
어들인 은을 세게 하라.
5 또 그들은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고 그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게 하되
6 곧 목수와 건축자와 석공에게 주

어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하라, 하였더라.
7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하
였으므로 그들의 손에 넘긴 돈을 그들
과 함께 세지 아니하였더라.
8 ¶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
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
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왕에
게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
주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
서 그 책을 낭독하매
11 왕이 율법 책의 말씀들을 듣고
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12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
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
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
령하여 이르되,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
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
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
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
라.
14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
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대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인 살룸의 아내더라. (이
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니라.
15 ¶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고
하되,
1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
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을 가져오리니
17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
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18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주에게
여쭙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그에
게 이같이 말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들은 말
들로 말하건대
19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
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네가 들을 때에 네 마음이 연하여
네가 주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20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네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
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매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제 23 장

요시야가 참 예배를 회복함
(대하34:29 – 35:19)

1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유
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그에게
로 모으니라.
2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
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
라.
3 ¶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
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
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
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으매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4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둘째 서
열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
게 명령하여 바알과 작은 숲과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구를
주의 *성전*에서 내가게 하니라. 그가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밭에서 그것들을
불태우며 그것들의 재를 벧엘로 가져가
고
5 또 전에 유다의 왕들이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
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
라.
6 또 그가 주의 집에서 작은 숲을
끄집어내어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시
내로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
우며 그것을 빻아서 작게 가루를 만들
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손들의 무덤들
에 뿌리고
7 또 주의 집 옆에 있던 남색 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는데 그곳은 여인
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현수막들을 짜
는 장소였더라.
8 또 그가 유다의 도시들에서 모든
제사장을 데려오고 또 그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게바에서부터 브
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게 하며 또
성문들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는데 그
것들은 그 도시의 감독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도시의 문에서 사람의
왼쪽에 있었더라.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의 제
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단
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
더라.
10 또 그가 힌놈의 자손들의 골짜
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니라.
11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馬)들을 제거하였는
데 *이 말들은* 주의 집의 어귀에 곧
그 도시의 주변 지역에 있던 시종장
나단멜렉의 방 곁에 있던 것들이더라.
또 *그가* 태양 병거를 불태우고
12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꼭대기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
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헐고 거기서 그것들을 부수어 그것들
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3 또 예루살렘 앞에 있던 산당들
곧 부패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전에 이스
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
한 것인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가증
한 것인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들이더라.
14 또 그가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
고 작은 숲들을 베어 내며 사람들의
뼈로 그들의 처소들을 채웠더라.
15 ¶ 또한 벧엘에 있던 제단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
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그가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작게 가루
로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16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거기에
그 산에 있던 돌무덤들을 염탐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돌무덤들에서 뼈들
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 그 하나
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사람이
이 말들을 선포하였더라.
17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매 그 도시
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하되, 그것은
왕께서 벧엘의 제단을 향해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하
니
18 그가 이르되, 그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
라, 하매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대언자의 뼈와 함께 그의 뼈를 그대

로 두었더라.
19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의 도시들에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
킨 산당들의 모든 집들도 요시야가
제거하되 자기가 벧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그것들에게 행하고
20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에서 죽인 뒤
사람들의 뼈를 제단들 위에서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1 ¶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2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
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
대에든지 유다 왕들의 시대에든지 이
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23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십팔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을 지켰
더라.
24 ¶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
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와 마술사와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25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
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에 대한 주의 심판이 임박함

2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으니 이
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격노하
게 한 모든 일들 때문이더라.
27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
엘을 옮긴 것 같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옮기고 또 내가 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
과 그 집을 버리리니 이 집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
리라, 한 곳이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죽음(대하35:20－26)

28 이제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
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29 ¶ 그의 시대에 이집트 왕 파라
오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
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으므로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갔는데 그가 요시야를
본 뒤에 므깃도에서 그를 죽이므로
30 그의 신하들이 죽은 그를 병거
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
겨와 그의 돌무덤에 묻으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의 통치와 포로 생활
(대하36:1－4)

31 ¶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
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립나의 예레미
야의 딸 하무달이더라.
32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이 행
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33 파라오느고가 그를 하맛 땅의 리
블라에서 묶고 가두어 그가 예루살렘
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그
땅으로 하여금 은 백 달란트와 금 일
달란트를 공물로 바치게 하였으며
34 또 파라오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
신하여 왕으로 삼고는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잡아갔더니 그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
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의 유다 통치
(대하36:5－8)

35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
게 주니라. 그러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
대로 돈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곧 그가 그 땅의 백성에
게 은과 금을 강요하되 각 사람의 세금

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
을 파라오느고에게 주었더라.
36 ¶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
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마의 브다야
의 딸 스부다더라.
37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제 24 장

유다가 원수들에 의해 정복됨

1 그의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
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2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
하여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주께
서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
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그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라.
3 주의 명령에 따라 확실히 이 일이
유다에 임하였으니 이것은 므낫세의
죄들로 인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
서 옮기려 하심이었더라.
4 또한 *그것은* 그가 흘린 무죄한
피로 인함이었으니 그가 무죄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므로 주
께서 이 일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셨
더라.
5 ¶ 이제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
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6 이처럼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들
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7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땅에서
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빌론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
한 모든 곳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더
라.

여호야긴의 통치와 포로 생활
(대하36:9－10)

8 ¶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십팔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엘나단
의 딸 느후스다더라.
9 그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10 ¶ 그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11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
를 치러 오고 그의 신하들이 그곳을
에워싸더라.
12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
와 신하들과 통치자들과 직무 수행자
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로 나가매
바빌론 왕이 자신의 통치 제팔년에
그를 붙잡으니라.

예루살렘이 포로가 됨

13 그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의 집의 모든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거기서 가져가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
몬이 주의 *성전*에서 만든 모든 금 기구
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14 그가 또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
치자와 모든 강한 용사 곧 만 명의
포로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
로잡아 가매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
하였더라.
15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
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또 그의 직무 수행자들과 그 땅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니라.
16 또 바빌론 왕이 모든 용사 칠천
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
론으로 사로잡아 가되 곧 건강하여
싸움에 능한 모든 자를 사로잡아 가니
라.

시드기야의 유다 통치
(대하36:11–14; 렘52:1–3)

17 ¶ 바빌론 왕이 또 그를 대신하
여 그의 숙부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더라.
18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이십일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십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
의 어머니의 이름은 립나의 예레미야
의 딸 하무달이더라.
19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니
라.
20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
실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과 유다에서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 25 장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대하36:15–21; 렘52:4–30)

1 그의 통치 제구년 시월 곧 그 달
십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
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
으매
2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십일
년까지 포위되었으며
3 사월 구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
라.
4 ¶ 그 도시가 함락되매 모든 군사
가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
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
방에서 그 도시를 쳤으므로) 왕이 평
야를 향한 길로 가니라.
5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
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으
매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
라.
6 이에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에게로 데리고 올라가매
그들이 그를 심판하고
7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
에서 죽이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놋
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
고 갔더라.
8 ¶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 왕의
제십구년 오월 곧 그 달 칠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
의 집을 불태우며
10 또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허니라.
11 또 이제 도시에 남아 있던 백성
의 남은 자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도망자들과 무리의 남은 자들은 호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갔으나
12 호위대장이 그 땅의 가난한 자
들은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3 또 갈대아 사람들이 주의 집의
놋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의 집의
놋 바다를 산산조각 내어 그것들의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14 또 솥들과 부삽들과 심지 자르
는 기구들과 숟가락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던 모든 놋 기구를 가져갔으며
15 호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
들과 대접들을 가져가되 금으로 된
것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은 은으로
가져갔으며
16 또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해 만
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은 무게
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17 한 기둥의 높이는 십팔 큐빗이
요, 그 위의 기둥머리는 놋이더라.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삼 큐빗이며 그 기
둥머리 위에 사방에 있던 땋은 것과
석류들이 다 놋이더라. 둘째 기둥도
이와 같았으며 땋은 것이 있었더라.

18 ¶ 호위대장이 수제사장 스라야
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 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19 군사들을 감독하던 직무 수행
자 한 사람과 또 왕의 앞에 있던 자들
중 도시에서 발견한 다섯 사람과 또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총서
기관 한 사람과 도시에서 발견한 그
땅의 백성 육십 명을 도시에서 붙잡으
니라.
20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붙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에게
로 데려가매
21 바빌론 왕이 하맛 땅의 리블라에
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자기들의 땅에서 사로잡혀 갔
더라.

그달리야가 유다의 치리자가 됨 (렘40:5－41:18)

22 ¶ 유다 땅에 남아 있던 백성으
로 말하건대 그들은 곧 바빌론 왕 느부
갓네살이 남겨 둔 자들이더라. 그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
리야를 그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
더라.
23 바빌론 왕이 그달리야를 총독으
로 삼았다는 것을 군대의 모든 대장과
그들의 사람들이 듣고 느다니야의 아
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
리야에게 이르매
24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
들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
워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며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
리라, 하니라.
25 그러나 칠월에 왕가의 씨에 속
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야의 아
들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대인들과 갈대
아 사람들을 죽이매
26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온 백성과 군대의 대장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남 (렘52:31－34)

27 ¶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삼십칠년째 되는 해 곧 바빌
론 왕 에빌므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 십이월 즉 그 달 이십칠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28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왕좌를 자기와 함께 바빌론에 있던
왕들의 왕좌보다 높이 두고
29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
니 그가 평생토록 계속해서 그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30 또 그의 쓸 것을 왕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되 매일 정해진 비율로 그의
평생토록 날마다 주었더라.

첫째 연대기

역 대 기 상

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41년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름: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들을 연대별로 기록한 글로서 히브리말로는 '그 시대의 말씀들'을 뜻하는 '디브레하야밈'이라 불렸다. Chronicles는 거룩한 역사 연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성경 제목 '크로니코룸 리베르'에서 유래되었다. 역대기상·하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특히 유다 왕국의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원래 역대기상·하는 한 권이었으나 후에 현재와 같이 두 권으로 나뉘었다. 또 최초의 히브리어 정경 배열에서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맨 끝에 위치하였다. 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아담부터 다윗의 등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예배
목적: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 세대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 즉 약속된 왕 메시아의 계보를 알려 주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재건을 준비하게 하는 것, 내용: 열왕기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를 평행으로 보여 주지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와 함께 주로 남 왕국 유다의 사건들을 보여 준다. 특별히 역대기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와 유다 왕국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또 역대기상·하는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주석서라 할 수 있다. 역대기상·하는 종교적이고 제사장과 성전 중심적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리하신다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한 반면에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왕족의 입장에서 왕의 일들을 다루고 왕좌 중심적이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역대기상·하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상은 29장, 942절, 20,365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장(다윗이 왕이 됨)
핵심 절: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15:2), 핵심 단어: 통치하다
핵심 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29:16)
역대기상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가의 계보를 지켜라."

제 1 장

아담의 가족: 셋에서 아브라함까지 (창5; 10; 11:20-16; 눅3:34-38)

1 아담, 셋, 에노스,
2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4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
5 ¶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
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
스요,
6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7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
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8 ¶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
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9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
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
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더라.
10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하였더라.
11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
하빔과 납두힘과

12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
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더라.)
13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4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5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
과
16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17 ¶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앗수르
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
과 게델과 메섹이더라.
18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19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
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
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며
20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
벳과 예라와
21 또한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2 에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23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
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더라.
24 ¶ 셈, 아르박삿, 셀라,
25 에벨, 벨렉, 르우,
26 스룩, 나홀, 데라,
27 아브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아브라함이니라.
28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
스마엘이니라.

이스마엘의 가족(창25:12-16)

29 ¶ 그들의 세대들은 이러하니
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욧이요,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30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31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더라. 이
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니라.

그두라의 가족(창25:1-4)

32 ¶ 이제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
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녀가 시
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
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욕산의 아들
들은 세바와 드단이요,
33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
과 에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더라. 이들
은 다 그두라의 아들들이니라.

이삭의 가족(창36:10-14)

34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으며 이
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
라.
35 ¶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36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
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37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
와 삼마와 밋사요,

세일의 가족(창36:20-28)

38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
요,
39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호맘이
요, 딤나는 로단의 누이더라.
40 소발의 아들들은 알랸과 마나핫
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요,
41 아나의 아들들은 디손이요, 디
손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에스반과 이
드란과 그란이요,
42 에셀의 아들들은 빌한과 사반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
란이더라.

에돔의 왕들(창36:31-43)

43 ¶ 이제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
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
하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인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딘하바
더라.
44 벨라가 죽으매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
치하였고
45 요밥이 죽으매 데만 족속의 땅
에서 온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
였으며
46 후삼이 죽으매 브닷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하닷이 그

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
의 이름은 아빗이더라.
47 하닷이 죽으매 마스레가의 삼라
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48 삼라가 죽으매 강 옆의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며
49 사울이 죽으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50 바알하난이 죽으매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의 도시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더라. *그녀는* 메사합의 손
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51 ¶ 하닷도 죽으니라. 에돔의 추
장들이 *이러하니* 곧 추장 딤나, 추장
알랴, 추장 여뎃,
52 추장 아홀리바마, 추장 엘라, 추
장 비논,
53 추장 그나스, 추장 데만, 추장
밉살,
54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이더라.
이들은 에돔의 추장들이니라.

제 2 장

이스라엘의 가족
(창35:23－26; 46:8－25)

1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라.

유다부터 다윗까지
(룻4:18－22; 마1:2－6; 눅3:31－33)

3 ¶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이 세 사람은 수아의 딸 곧
가나안 족속 여인이 그에게 낳은 자들
이더라. 유다의 맏*아들* 엘은 주의 눈앞
에서 악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
고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그에게 낳았더라. 유다의 아들
들은 모두 다섯이더라.
5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
이요,
6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이며 그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7 갈미의 아들들은 아갈인데 그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여 이스라
엘을 괴롭게 한 자며
8 에단의 아들들은 아사랴더라.
9 또 헤스론의 아들들 곧 그에게
태어난 자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
배더라.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
답은 유다 자손의 통치자 나손을 낳았
더라.
11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
스를 낳았으며
12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
새를 낳았더라.
13 ¶ 이새는 자기의 맏*아들* 엘리압
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심마와
14 넷째 느다네엘과 다섯째 랏대와
15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16 이들의 누이들은 스루야와 아비
가일이더라.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비
새와 요압과 아사헬 세 사람이요,
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족속 예
델이었더라.

헤스론의 가족(창25:12－16)

18 ¶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이들
을 낳았는데 그녀의 아들들은 이러하
니 곧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니라.
19 아수바가 죽은 뒤에 갈렙이 에브
랏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그에게 훌을
낳았고
20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브살
레엘을 낳았더라.
21 ¶ 그 뒤에 헤스론이 육십 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에게 스굽을 낳았으며
22 스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세 도시를 소유하
였더라.

23 그가 그술과 아람과 야일의 고을
들과 그낫과 그것의 고을들 곧 예순
개 도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의 아들들에게 속하였더라.
24 헤스론이 갈렙에브라다에서 죽
은 뒤에 헤스론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
게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을 낳았더
라.

여라므엘의 가족

25 ¶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므엘
의 아들들은 맏*아들* 람과 부나와 오렌
과 오셈과 아히야였으며
26 또 여라므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다라더라.
그녀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27 여라므엘의 맏*아들*인 람의 아들
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28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
요, 삼매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
며
29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
일이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반과 몰릿
을 낳았으며
30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압바
임이더라. 그러나 셀렛은 자식이 없
이 죽었고
31 압바임의 아들들은 이시요, 이
시의 아들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이
들은 알래요,
32 삼매의 형제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자식이 없
이 죽었고
33 요나단의 아들들은 블렛과 사사
더라. 이들은 여라므엘의 아들들이더
라.
34 ¶ 이제 세산은 아들들이 없고
딸들뿐이더라. 세산에게 야르하라는
이름의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으므로
35 세산이 자기 딸을 자기 종 야르
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녀가 그에
게 앗대를 낳았더라.
36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
을 낳고
37 사밧은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38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
랴를 낳고
39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
는 엘르아사를 낳고
40 엘르아사는 시스매를 낳고 시스
매는 살룸을 낳고
41 살룸은 여가미야를 낳고 여가미
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갈렙의 가족

42 ¶ 이제 여라므엘의 형제 갈렙의
아들들은 곧 그의 맏*아들* 메사인데
그는 십의 아버지요, 또 헤브론의 아버
지 마레사의 아들들이며
43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
아와 레겜과 세마더라.
44 세마는 요르고암의 아버지 라함
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더라.
45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더라. 마
온은 벧술의 아버지며
46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
며
47 야대의 아들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더라.
48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고
49 또한 맛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으며 또 막베나의 아버지요, 기브
아의 아버지인 스와를 낳았더라. 갈렙
의 딸은 악사더라.
50 ¶ 에브라다의 맏*아들*인 훌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51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벧가
델의 아버지 하렙이더라.
52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로에와
마나헷 사람들의 절반이며
53 기럇여아림의 가족들은 이델 족
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더라. 그들에게서 사레앗 족속
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으며
54 살마의 아들들은 베들레헴과 느
도바 족속과 아다롯과 요압의 집과 마

나헷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55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 가족
들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인데 이들은 레갑의 집 조상인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니라.

제 3 장

다윗의 가족

1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
난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맏*아들*
은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요, 둘째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
에게서 난 다니엘이요,
2 셋째는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요,
3 다섯째는 아비달에게서 난 스바
댜요,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에게
서 난 이드르암이더라.
4 이 여섯이 헤브론에서 그에게 태
어났더라. *그가*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통치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5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
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났으며
6 또한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블렛
과
7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8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블렛
이 아홉 사람이더라.
9 이들은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요,
이 외에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더라.

솔로몬의 가족(마1:7－11)

10 ¶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
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
요,
11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
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
요,
12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
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
요,
13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
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
요,
14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
들은 요시야며
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
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
와 넷째 살룸이요,
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더라.

여고니야의 가족

17 ¶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앗실과
그의 아들 살라디엘과
18 또한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
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야요,
19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므술
람과 하나냐와 그들의 누이 슬로밋과
20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댜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21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댜와 여
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더라.
22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이니 곧 여섯
*사람*이요,
23 느아랴의 아들들은 엘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이니 곧 세 *사람*
이요,
24 엘료에내의 아들들은 호다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달라야와 아나니니 곧 일곱 *사람*이더
라.

제 4 장

유다의 가족

1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
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더라.
2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
았고 야핫은 아후매와 라핫을 낳았는

데 이들은 소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3 에담의 조상에게서 난 자들은 이
러하니 곧 예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드
바스요,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하슬렐
보니더라.
4 또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
의 아버지 에셀인데 이들은 베들레헴
의 아버지요, 에브라다의 맏*아들*인 홀
의 아들들이니라.
5 ¶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은* 헬라와
나아라더라.
6 나아라가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
과 데므니와 하아하스다리를 낳았더
라. 이들은 나아라의 아들들이더라.
7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
과 에드난이며
8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인 아하헬의 가족들을 낳았더라.
9 ¶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
라.
10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
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
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
을 그에게 주셨더라.
11 ¶ 수아의 형제 글룹이 므힐을
낳았는데 그는 에스돈의 아버지더라.
12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또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
았는데 이들은 레가 사람들이니라.
13 그나스의 아들들은 옷니엘과 스
라야요, 옷니엘의 아들들은 하닷이더
라.
14 므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
라야는 가라심 골짜기의 조상인 요압
을 낳았더라. 그들은 기술자였더라.
15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요, 엘라의 아들
들은 곧 그나스더라.
16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십과 시바
와 디리아와 아사레엘이요,
17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
과 에벨과 얄론이며 그녀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고
18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돌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는
데 이들은 메렛이 취한 파라오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니라.
19 나함의 누이요, 그의 아내인 호
디야의 아들들은 가미 족속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족속 에스드모아며
20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21 ¶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아들
들은 레가의 아버지 엘과 마레사의 아
버지 라아다와 고운 아마포를 짜던
자들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가족들과
22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
스와 모압을 지배하던 사랍과 야수빌레
헴이더라. 이것들은 오래된 일들이니
라.
23 이들은 옹기장이요, 초목들과
산울타리 가운데 거하던 자들로서 그
들이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가족(창25:12-16)

24 ¶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25 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
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더
라.
26 미스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 그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
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더
라.
27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많지 아니하여 그들의 온 가족
이 유다의 자식들처럼 번성하지 못하
였더라.

28 그들이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
살수알과
29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30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31 벧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벧비리
와 사아라임에 거하였는데 다윗이 통
치하던 때까지 이 도시들이 그들의
도시들이 되었으며
32 그들의 마을들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곧 다섯 도시와
33 또 바로 그 도시들 사방에 있던
모든 마을로서 바알까지 이르렀더라.
이 도시들이 그들의 거주지와 계보였
더라.
34 또 메소밥과 야믈렉과 아마시야
의 아들 요사와
35 요엘과 또 요시비야의 아들이
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
인 예후와
36 또 엘료에내와 야아고바와 여소
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37 또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
자요, 여다야의 증손이요, 시므리의
사대 손이요, 스마야의 오대 손인 시사
더라.
38 그들의 이름으로 언급된 이 사
람들은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통치자
들이더라. 그들의 조상들의 집이 크
게 번창하였더라.
39 ¶ 그들이 자기들의 양 떼를 위
하여 초장을 구하려고 그돌의 입구
곧 그 골짜기의 동쪽 편에 이르러
40 기름지고 좋은 초장을 발견하
였는데 그 땅은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
웠더라. 이는 옛적부터 함에게서 나온
자들이 거기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41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이 유
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그들의
장막과 또 거기에서 찾은 거주지를
치고 그들을 진멸하고 이 날까지 이르
렀으며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초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더라.
42 또 그들 중의 얼마 곧 시므온의
아들들 중에서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들인 블라댜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웃시
엘을 자기들의 대장들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43 도피한 아말렉 족속의 남은 자
들을 치고 이 날까지 거기 거하였더
라.

제 5 장

르우벤의 가족

1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
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
*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
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2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
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
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3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맏*아*
*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
와 헤스론과 갈미요,
4 요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
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곡이
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5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6 그의 아들은 브에라인데 아시리아
왕 딜갓빌네셀이 그를 포로로 사로잡
아 갔더라. 그는 르우벤 족속의 통치자
였더라.
7 그들의 세대들에 대한 계보를 계
수할 때에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가족
대로 우두머리였더라. *그들은* 여이엘
과 스가랴와 및
8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
요, 요엘의 증손인 벨라더라. *그가* 아
로엘에 거하며 느보와 바알므온에까
지 이르렀고
9 또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서부터 광야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거
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가축이 길르
앗 땅에서 번성하였기 때문이더라.

10 사울 시대에 그들이 하갈 족속과
싸워 그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쓰러뜨
리고 길르앗 동쪽의 온 땅에서 두루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더라.

갓의 가족

11 ¶ 갓 자손은 그들의 맞은편 바
산 땅에 거하면서 살가에까지 이르렀
더라.
12 그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
은 사밤이요, 또 야내와 바산에 있던
사밧이요,
13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속한 그
들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므술람과 세
바와 요래와 야간과 시아와 헤벨 일곱
사람인데
14 이들은 아비하일의 아이들이니
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
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사대 손이요, 여시새의 오대
손이요, 야도의 육대 손이요, 부스의
칠대 손이더라.
15 또 압디엘의 아들이요, 구니의
손자인 아히가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16 그들이 바산의 길르앗과 그것의
고을들과 또 샤론의 모든 주변 지역에
거하되 자기들의 경계에 거하였더라.
17 이들이 다 유다 왕 요담 시대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계보에
따라 계수되었더라.
18 ¶ 르우벤의 아들들과 갓 족속
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갔
던 용사들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이더라.
19 그들이 하갈 족속과 여둘과 느비
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20 *주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쳤으
므로 하갈 족속과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
짖으며 그분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
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
라.
21 그들이 저들의 가축 곧 저들의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나귀 이천 마리를 빼앗았고 사람 십만
명을 빼앗았으니
22 이는 그 싸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포로로 사
로잡혀 갈 때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더라.

므낫세의 가족(요르단 동쪽)

23 ¶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이 그
땅에 거하며 번창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까지
이르렀더라.
24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
리들은 이러하니 곧 에벨과 이시와 엘
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
야와 야디엘이더라. *이들은* 강한 용사
요, 유명한 자요,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였더라.
25 ¶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
님께 범법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
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26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
시리아 왕 불의 영을 움직이시고 또
아시리아 왕 딜갓빌네셀의 영을 움직
이시매 그가 그들 곧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으로 데
려갔으므로 이 날까지 *그들이 거기
있느니라*.

제 6 장

레위의 가족

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
과 므라리요,
2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
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3 아므람의 자녀들은 아론과 모세
와 미리암이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더라.
4 ¶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5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
웃시를 낳고
6 웃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
는 므라욧을 낳고
7 므라욧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
는 아히둡을 낳고
8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
히마아스를 낳고
9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
랴는 요하난을 낳고
10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는데
(그는 곧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
더라.)
11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
는 아히둡을 낳고
12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
룸을 낳고
13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14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
는 여호사닥을 낳았는데
15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
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가실 때에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16 ¶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고핫과 므라리요,
17 게르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
하니 곧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
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
더라.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 따라 이러하니라.
20 게르솜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립니요, 그의 아들은 야핫이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21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
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래이며
22 고핫의 아들들은 곧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앗실이요,
23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
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앗실
이요,
24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
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웃시야
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며
25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
히못이더라.
26 엘가나로 말하건대 엘가나의 아
들들은 *이러하니* 곧 그의 아들은 소배
요, 그의 아들은 나핫이요,
27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
나며
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바스
니와 아비야며
2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요, 그
의 아들은 립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
요, 그의 아들은 웃사요,
30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
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
라.

주의 집의 음악가들

31 *언약* 궤가 안식을 얻은 뒤에 다
윗이 주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게
한 자들이 이러하니라.
3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의 집을
건축할 때까지 그들이 회중의 성막의
거처 앞에서 노래하며 섬기되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절차에 따라 자기들
의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33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
행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헤만은 노래하는 자더
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스
무엘의 아들이요,
34 *스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
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
의 아들이요,
35 *도아는* 숩의 아들이요, *숩은* 엘
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
들이요, *마핫은* 아마새의 아들이요,
36 *아마새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
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37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
핫은* 앗실의 아들이요, *앗실은* 에비아
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
들이요,
38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
스할은* 고핫의 아들이요, *고핫은* 레위
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
이더라.
39 또 헤만의 형제 아삽이 그의 오
른쪽에 섰는데 *그는* 곧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40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
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41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42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
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
의 아들이요,
43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
핫은* 게르솜의 아들이요, *게르솜은* 레
위의 아들이더라.
44 그들의 형제 곧 므라리의 아들
들은 왼쪽에 섰더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45 *말룩은* 하사비야의 아들이요,
하사비야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
마시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46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
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47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
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더
라.
48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도 하
나님의 집의 성막의 온갖 종류의 섬기
는 일에 지정을 받았더라.

아론의 가족

49 ¶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은 번제 헌물 제단과 분향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지성소의 모든 일에
지정을 받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
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였더라.
50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
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
요,
51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
은 웃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52 그의 아들은 므라욧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둡
이요,
53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
들은 아히마아스더라.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
(수21:1－42)

54 ¶ 이제 그들의 지역 내의 그들
의 성채들에 두루 퍼져 있던 그들의
거처 곧 고핫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한 거처는 이러
하니라. 그 몫이 그들의 것이었더라.
55 그들이 저들에게 유다 땅의 헤
브론과 그것의 사방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나
56 그 도시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
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57 또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유다의 도시들을 주었으니 곧 도피 도
시 헤브론과 립나와 그것의 주변 지역
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것들의 주
변 지역과
58 힐렌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드
빌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59 아산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벧
세메스와 그것의 주변 지역이더라.
60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게바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알레멧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아나돗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그들의 가족들이
두루 얻은 그들의 모든 도시는 열세
도시였더라.
61 고핫의 아들들 곧 그 지파의 가
족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는 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 도시를 주었고

62 게르솜의 아들들에게는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열세 도시를 *주었으며*

63 므라리의 아들들에게는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두 도시를 주었더라.

64 이스라엘 자손이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65 그들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시들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66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의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자기들 경계의 도시들을 얻었으며

67 또 그들이 저들에게 도피 도시들 중에서 주되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그들이 또한 게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68 욕므암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벧호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69 아이얄론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가드림몬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70 또 고핫의 아들들 중의 남은 자들의 가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아넬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빌르암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71 게르솜의 아들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의 가족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아스다롯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고

72 또 잇사갈 지파에서 게데스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다브랏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73 라못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아넴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며

74 아셀 지파에서 마살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압돈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75 후곡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르홉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고

76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함몬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기랴다임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77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림몬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다볼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고

78 또 여리고 옆 요르단 저편 곧 요르단의 동쪽 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에서 그들에게 광야의 베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야사와 그것의 주변 지역과

79 또 그데못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메바앗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으며

80 또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마하나임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81 헤스본과 그것의 주변 지역과 야셀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제 7 장

잇사갈의 가족

1 이제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었으며

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더라.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집 곧 돌라의 집의 우두머리더라. 그들은 대대로 힘센 용사들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그들의 수가 이만 이천육백 명이었더라.

3 웃시의 아들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잇시야 다섯 사람인데 그들은 다 우두머리였으며

4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의 무리로 삼만 육천 명이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아내와 아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5 잇사갈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형제들은 힘센 용사들이었는
데 그들의 계보대로 모두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가족

6 ¶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
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7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웃시
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
인데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요, 강한 용사더라. 그들은
그들의 계보대로 이만 이천삼십사 명
이 계수되었으며
8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
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내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
더라. 이들은 다 베겔의 아들들이니
라.
9 또 그들의 세대대로 그들의 계보
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
리요, 강한 용사인 그들의 수를 세면
이만 이백 명이더라.
10 또한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빌한
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
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
와 아히사할인데
11 여디아엘의 이 아들들은 다 싸움
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강한 용사들로
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만 칠천이백 명의 군사들이더
라.
12 또한 이르의 자손들은 수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들은 후심이더
라.

납달리의 가족

13 ¶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하
의 손자들이더라.

므낫세의 가족(요르단 서쪽)

14 ¶ 므낫세의 아들들은 곧 그녀
가 낳은 아스리엘이더라. (그러나 그
의 첩 아람 여인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을 낳으매
15 마길이 후빔과 수빔의 누이 곧
마아가라는 이름의 그들의 누이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둘째의 이름은
슬로브핫인데 슬로브핫에게는 딸들
이 있었으며
16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
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세레스며 그의 아들들
은 울람과 라겜이요,
17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더라.
이들은 길르앗의 아들들이더라. *길르
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
이며
18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마할라를 낳았고
19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
겜과 릭히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가족

20 ¶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
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
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핫이더라.
21 ¶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었으나 그들이 그 땅에서 태어난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저들의 가축을
빼앗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22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애곡하였으므로 그의 형제들
이 와서 그를 위로하였더라.
23 ¶ 에브라임이 자기 아내에게
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집이 재앙을 받았
기 때문이더라.
24 (그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녀가
아래쪽 위쪽 벧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축하였더라.)
25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또 레
셉이요, 그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
들은 다한이요,
26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
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
마요,
27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
은 여호수아더라.
28 ¶ 그들의 소유와 거주지는 벧

엘과 그것의 고을들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것
의 고을들이며 또 세겜과 그것의 고을
들이요, 가자와 그것의 고을들까지며
29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 곁으로
벧스안과 그것의 고을들과 다아낙과
그것의 고을들과 므깃도와 그것의 고
을들과 도르와 그것의 고을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도
시들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가족

30 ¶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
와와 이수아이와 브리아요, 그들의 누
이는 세라며
31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
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빗의 아버지
니라.
32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고
33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
과 아스밧이니라. 이들은 야블렛의 자
손이니라.
34 사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예후바와 아람이요,
35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소
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36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
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37 베셀과 홋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
란과 브에라요,
38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
바와 아라요,
39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하니엘
과 리시아니라.
40 이들은 다 아셀의 자손들로서
그들의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요, 선
정된 강한 용사요, 통치자들의 우두
머리더라. 전쟁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수를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육천 명이었더라.

제 8 장

베냐민 출신 사울 왕의 가계

1 이제 베냐민이 자기의 맏*아들* 벨
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2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
더라.
3 벨라의 아들들은 곧 앗달과 게라
와 아비훗과
4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5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더라.
6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
들은 게바 거주민들의 아버지들의 우
두머리들로서 그들을 마나핫으로 옮
겼더라.
7 그가 그들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옮겼고 또 웃사와 아히훗을 낳
았으며
8 사하라임은 그들을 보낸 뒤에 모
압 지방에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후심
과 바아라가 그의 아내였더라.
9 그가 자기 아내 호데스로부터 요
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10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를 낳
았더라. 이들은 그의 아들들로서 아
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11 또 그가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
바알을 낳았고
12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
과 사멧인데 그는 오노와 롯과 그것들
의 고을들을 세웠더라.
13 또 브리아와 세마인데 이들은 아
이얄론 거주민들의 아버지들의 우두
머리들이 되어 가드의 거주민들을 쫓
아내었더라.
14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15 스바댜와 아랏과 아델과
16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브리
아의 아들들이요,
17 스바댜와 므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18 또 이스무래와 예슬리아와 요밥
은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19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20 엘리에내와 실대와 엘리엘과
21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
므히의 아들들이요,
22 이스반과 헤벨과 엘리엘과
23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24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25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사삭의 아
들들이요,
26 삼스래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27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더라.
28 이들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이요, 그들의 대대로 으뜸가는 자들
이더라.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
라.
29 기브온의 조상이 기브온에 거하
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더
라.
30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또 수
르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31 그돌과 아히오와 사겔이며
32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더라.
이들도 자기 형제들의 맞은편 예루살
렘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33 ¶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
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
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34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더
라. 므립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35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더라.
36 아하스는 여호아다를 낳고 여호
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37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
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
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더라.
38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곧 아스리
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
바댜와 하난이더라. 이들은 다 아셀의
아들들이며
39 그의 형제 에섹의 아들들은 *이
러하니* 곧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블렛이
더라.
40 울람의 아들들은 강한 용사요,
활 쏘는 자들이더라. 그들에게 아들
과 손자가 많아 백오십 명이었더라.
이들은 다 베냐민의 아들들이니라.

제 9 장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1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
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
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유다는 자기들의 범법으로
인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2 ¶ 이제 자기들의 도시들에서 자
기들의 소유에 거한 첫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거주자들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
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
에 거한 자는
4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서 우대인데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사대 손이며
5 실로 사람들 중에서는 맏*아들* 아
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6 세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우엘
과 그들의 형제 육백구십 명이요,
7 베냐민의 아들들 중에서는 므술
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인 살루요,
8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웃시
의 아들이요, 미그리의 손자인 엘라
요, 스바디야의 아들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이브니야의 증손인 므술람이
요,
9 또 그들의 형제들이더라.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구백오십육 명이더라.
이들은 다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였더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10 ¶ 제사장들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 하나님의 집 치리자 아사랴인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
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사
대 손이요, 아히둡의 오대 손이더라.
12 또 아다야인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
의 증손이더라. 또 마아새인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
요, 므술람의 증손이요, 므실레밋의
사대 손이요, 임멜의 오대 손이더라.
13 또 그들의 형제들 곧 그들의 조
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들 천칠백육십
명인데 *이들은* 매우 능력이 있어 하나
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들

14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므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스마야인데 *그는* 핫숩
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
사비야의 증손이더라.
15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맛
다니야인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
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16 또 오바댜인데 *그는* 스마야의 아
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
손이더라. 또 베레기야인데 *그는* 아사
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더라. 그
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들에 거하였
더라.

레위 사람 문지기들

17 또 문지기들은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
으며 살룸이 우두머리였더라.
18 지금까지 이들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에서 섬겼으며 레위 자손 무리
들 가운데 문지기였더라.
19 또 고레의 아들이요, 에비아삽
의 손자요, 고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온 그의 형제들 곧
고라 족속이 섬기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조상들도 주의 군대를 맡고 들어가는
곳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20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과
거에 그들을 다스린 치리자였는데 주
께서 그와 함께하셨더라.
21 또 므셀레미야의 아들 스가랴는
회중의 성막 문의 문지기가 되었더
라.
22 선정되어 문에서 문지기가 된
이들은 모두 이백십이 명이며 이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
수된 자들이더라. 다윗과 선견자 사무
엘이 전에 그들을 임명하여 그들의
정해진 직무를 맡겼더라.
23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이 순서대로 주의 집 곧 성막 집의
문들을 감독하였더라.
24 그 문지기들이 동서남북을 향
해 네 지역에 있었으며
25 그들의 마을에 있던 그들의 형
제들이 때가 되면 이레가 지난 뒤에
와서 그들과 함께하였더라.
26 이는 문지기들의 우두머리인
이 레위 사람 넷이 자기들의 정해진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집의 방과 보고
들을 맡았기 때문이더라.
27 ¶ 그들이 책무를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집 사방에 거하였으며 아침
마다 그 집의 문을 여는 일이 그들에게
속하였더라.

다른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

28 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섬기
는 데 쓰는 그릇들에 대한 책무를 맡아
수효대로 그것들을 들여가고 내왔으
며
29 또 그들 중에서 얼마는 그릇들
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고운 밀가루와
포도즙과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감독
하도록 임명을 받았더라.
30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얼마는 향료로 향유를 만들었으며
31 고라 족속 살룸의 맏*아들* 곧 레위
사람들 중의 하나인 맛디디야는 냄비
로 만드는 것들을 감독하는 정해진
직무를 맡았고
32 또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곧 고
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이들은
보여 주는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그것
을 예비하였더라.
33 또 노래하는 자들은 이러하니
라. *이들은* 곧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들의 우두머리들인데 그들은 밤낮으
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므로 방들에
남아 있으면서 자유로웠더라.
34 레위 사람들의 이 우두머리 아

버지들은 그들의 대대로 으뜸가는 자
들이었으며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
였더라.

사울 왕의 가족

35 ¶ 기브온의 조상 여히엘이 기브
온에 거하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더라.
36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
은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37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
롯이며
38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더라.
그들도 자기 형제들의 맞은편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거
하였더라.
39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더라.
40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요,
므립바알이 미가를 낳았더라.
41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42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
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43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
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더라.
44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었는
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곧 아
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
와 오바댜와 하난이더라. 이들은 아셀
의 아들들이었더라.

제 10 장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삼상31)

1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
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
고
3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히매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다치니라.
4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
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능욕할까 염려하노
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
로 이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쓰러지매
5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칼 위에
쓰러져 죽으니라.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이 함께 죽었더라.
7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들
의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들에 거하니
라.
8 ¶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9 그를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며
10 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들의
집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전에
묶어 두니라.
11 ¶ 온 야베스길르앗이 블레셋 사
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12 그들 곧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
어나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더라.
13 ¶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
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
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
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
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14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
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제 11 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됨(삼하5:1－3)

1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헤브
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2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왕이었
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
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가 되
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사무엘을 통하
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
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
았더라.

다윗의 도시(삼하5:6－10)

4 ¶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
렘 곧 여부스에 갔는데 그 땅의 거주민
여부스 족속이 거기 있었더라.
5 여부스 거주민들이 다윗에게 이
르되, 네가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
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
성채를 빼앗았는데 그것이 곧 다윗의
도시니라.
6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먼저
여부스 족속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니 이에 스루야
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7 다윗이 그 성채에 거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
라.
8 그가 돌아가며 밀로에서부터 사
방으로 그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남은 부분은 요압이 보수하였더라.
9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
셨으므로 이처럼 그가 점점 더 창대
하게 되었더라.

다윗의 용사들(삼하23:8－39)

10 ¶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우
두머리들은 또한 이러하니라. 이들이
그의 왕국에서 그와 더불어 또 온 이스
라엘과 더불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11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하그몬 사람 야소브암은
대장들의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쳐서 홀로 한 번에 삼백
명을 죽였더라.
12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중의
하나더라.
13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싸웠는데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땅이 있더라.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14 그들이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건져 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
니 주께서 큰 구출로 그들을 구원하셨
더라.
15 ¶ 이제 서른 명의 대장들 중에
서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
을 쳤더라.
16 다윗은 그때에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에 베
들레헴에 있었더라.
17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
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하매
18 그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
에 있던 우물에서 물을 긷고 그것을
취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이 그
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께 부어 드리며
19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

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마시리이까?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강한 이 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20 ¶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쳐서 죽이고 그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21 그 세 사람 중에서 그가 그들의 대장이므로 *다른* 두 사람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2 갑스엘 출신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두 명을 죽였고 또 눈 오는 날에 내려가 구덩이에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23 또 키가 큰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키는* 오 큐빗이더라.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베틀 채 같은 창이 있었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에게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2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그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25 보라, 그가 서른 명 가운데 존귀하였으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자기의 호위대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26 ¶ 또한 군대의 용맹한 자들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베들레헴 출신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7 하롤 사람 삼못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28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안도스 사람 아비에셀과
29 후사 사람 십브개와 아호아 사람 일래와
30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과
31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기브아의 리배의 아들 잇대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32 가아스 시내의 후래와 아르밧 사람 아비엘과
33 바하룸 사람 아스마벳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34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35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36 므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37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배의 아들 나아래와
38 나단의 형제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39 암몬 족속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곧 베롯 사람 나하래와
40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41 헷 족속 우리야와 알래의 아들 사밧과
42 르우벤 족속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족속의 대장 아디나와 그와 함께한 서른 명과
43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44 아스드랏 사람 웃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 사마와 여히엘과
45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형제 디스 사람 요하와
46 마하비 사람 엘리엘과 엘나암의 아들들 여리배와 요사비야와 또 모압 족속 이드마와
47 엘리엘과 오벳과 므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제 12 장

다윗의 군대가 성장함(삼하27:1－2)
1 이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여전히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
으로 그에게 나아온 자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싸움을 돕는 자들로 용사들
가운데 있었더라.
2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써서 돌을 던지며 활로
화살을 쏘는 자들이요, 또 베냐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이더라.
3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
음은 요아스니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
마아의 아들들이요, 또 아스마벳의 아
들들인 여시엘과 블렛과 또 브라가와
안도스 사람 예후와
4 기브온 사람 곧 서른 명 가운데
속한 용사로서 서른 명을 다스린 이스
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
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5 엘루새와 여리못과 브알랴와 스마
랴와 하룹 사람 스바댜와
6 고라 족속 엘가나와 예시야와 아
사르엘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7 그돌 출신의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댜더라.
8 또 갓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
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
이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
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더라. 그
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 같이 빨랐더라.
9 첫째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
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10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11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
리엘이요,
12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
는 엘사밧이요,
13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더라.
14 이들은 갓의 아들들 중에서 나
온 자들이며 군대의 대장들로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하나는 백 명을 다스리
고 가장 큰 자는 천 명을 다스렸더라.
15 첫째 달에 요르단이 그것의 모
든 둑에서 넘칠 때에 이들이 그것을
건너가서 골짜기에 있던 모든 자들을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16 또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 중에서
얼마가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
매
17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만일 너
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
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결합하려니
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원수들에
게 나를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잘못이
전혀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원
하노라, 하매
18 그때에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
머리 아마새에게 임하므로 그가 이르
되,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편이
니 평강이 있기 원하나이다. 당신에
게도 평강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
게도 평강이 있기 원하오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나이다, 하
매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무리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19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대적하며 싸우려
할 때에 므낫세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에게 돌아왔으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
들을 돕지 못하였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상의하고 그를 내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자기 주인 사
울에게 돌아가서 우리의 머리를 위태
롭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20 그가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중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
과 엘리후와 실대인데 *이들은* 므낫세
의 천인 대장들이더라.
21 그들이 다윗을 도와 강도떼를
쳤으니 이는 그들이 다 강한 용사요,
군대에서 대장들이었기 때문이더
라.
22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
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군대

23 ¶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
한 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
와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
게 돌리려 한 무리들의 수는 이러하니
라.
24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유다 자손이 육천팔
백 명이요,
25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
는 강한 용사가 칠천백 명이요,
26 레위 자손 중에서 사천육백 명
이요,
27 여호야다는 아론 족속의 지도자
였으며 그와 함께한 자가 삼천칠백
명이요,
28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아버
지 집 출신의 대장이 이십이 명이요,
29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친족의
대다수가 아직도 사울의 집 직무를
지켰으므로 그들 중에서 *나아온 자가*
삼천 명이요,
30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서 두루 유명한 강한
용사가 이만 팔백 명이요,
31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지명을
받아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한
자가 만 팔천 명이요,
32 잇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
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
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
33 스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대형을 취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
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34 납달리 중에서 대장 천 명과 또
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35 단 족속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만 팔천육백 명이요,
36 아셀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
움을 잘하는 자가 사만 명이요,
37 요르단 저편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온갖 종류의 전쟁 기구를 지고
전쟁에 나가는 자가 십이만 명이었더
라.
38 전투대형을 취할 줄 아는 이 모
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
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
릴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이스라엘
의 남은 모든 자들도 한마음으로 다윗
을 왕으로 삼으려 하여
39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
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
의 형제들이 이미 그들을 위하여 예비
하였기 때문이더라.
40 또한 그들에게 가까이 있던 자
들 곧 잇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
르기까지의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빵을 실어 오고 또 음식과
가루와 무화과 덩이와 건포도 송이와
포도즙과 기름과 소와 양도 많이 가져
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안에 기쁨이 있
었기 때문이더라.

제 13 장

기럇여아림에서 궤를 가져옴
(삼하6:1－11)

1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
들과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2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그 일이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으
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
는 우리 형제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
들의 도시와 주변 지역에 거하는 제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널
리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
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

노라, 하매
4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
므로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
겠다고 말하매
5 이에 다윗이 기럇여아림에서 하
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이집트의 시
홀에서부터 하맛의 입구에 이르기까
지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았더라.
6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가져오려 하였
는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 궤 위에
서 부르느니라.
7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
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8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
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
와 비파와 작은북과 심벌즈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9 ¶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
르렀을 때에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웃
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
더니
10 웃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
서 그를 치시매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으므로 다
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
므로 *그가* 그곳을 베레스웃사라 하니
이 날까지 이르니라.
12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
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곧 내게로 가져오리요?
하고
13 이에 그 궤를 집으로 자기에게
로 곧 다윗의 도시로 가져가지 아니하
고 궤를 옆으로 가져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14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
렀고 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가 소
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제 14 장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섬
(삼하5:11－16)

1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
자들을 보내고 또 백향목 재목과 석공
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
성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높
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이더라.
3 ¶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
을 더 취하고 다윗이 아들딸들을 더
낳았더라.
4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
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발렛과
6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7 엘리사마와 브엘랴다와 엘리발렛
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함(삼하5:17－25)

8 ¶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는 것
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모든 블레
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그들을 치려고
나가니
9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
짜기에 퍼지니라.
10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
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
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11 이에 그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
라가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때에 이르되,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
리듯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
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2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
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
들을 불태우게 하니라.
13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골짜기에 널리 퍼지므로
14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니 하
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따
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이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
하되
15 뽕나무 수풀 꼭대기에서 *누군*
가가 가는 소리를 네가 듣거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느니라, 하
시니라.
16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
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사
람들의 군대를 치니
17 다윗의 명성이 모든 땅에 퍼지고
주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제 15 장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 (삼하6:12-16)

1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
에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2 그때에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
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
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 다윗이 자기가 주의 궤를 위해
예비한 궤의 처소로 궤를 가지고 올라
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으니라.
4 다윗이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
람들을 모으니
5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우리엘과 그의 형제 백이십 명이요,
6 므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
리 아사야와 그의 형제 이백이십 명이
요,
7 게르솜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
리 요엘과 그의 형제 백삼십 명이요,
8 엘리사반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
머리 스마야와 그의 형제 이백 명이요,
9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
리 엘리엘과 그의 형제 팔십 명이요,
10 웃시엘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
리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들 백십이 명
이더라.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들과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궤를 위해 예비
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13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
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15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
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
들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 어깨에 메니
라.
16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
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즈 등의 악기를 울려서 기쁜 소리
를 크게 내게 하매
17 이에 레위 사람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들 중에서 베레기야
의 아들 아삽과 자기들의 형제 므라리
의 아들들 중에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
을 임명하고
18 또 그들과 함께 둘째 등급에 속
한 자기들의 형제들 곧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
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디
디야와 엘리블레흐와 믹네야와 오벳에
돔과 여이엘 곧 문지기들을 임명하니
라.
19 이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임명을 받아 놋 심벌즈로 소리
를 내고
20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빼어나게
비파를 타며
21 맛디디야와 엘리블레흐와 믹네
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빼어나게 하프를 타
고
22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나냐
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하고
노래를 가르쳤더라.
23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를 위해
문을 지키는 자가 되고
24 제사장 세바냐와 여호사밧과 느
다네엘과 아마새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
을 불며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위
해 문을 지키는 자가 되었더라.
25 ¶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
들과 천인 대장들이 가서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 궤를 가
지고 올라왔는데
26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 궤를 멘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헌물로 드렸더라.
27 다윗과 궤를 멘 모든 레위 사람
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한 노래 지도자 그나냐는
고운 아마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28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크게 외치
며 코넷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며 심벌
즈를 치고 비파와 하프로 소리를 내며
주의 언약 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29 ¶ 주의 언약 궤가 다윗의 도시
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
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
더라.

제 16 장

궤를 성막에 둠(삼하6:17－19)

1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의 한가운데 두고 태우는 희생물
과 화평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2 다윗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
을 축복하였으며
3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남자
와 여자를 막론하고 각각 빵 한 개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4 ¶ 또 그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임명하여 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5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요, 그 다음
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
엘과 맛디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이더라. 여이엘은 비파와 하
프를 탔으나 아삽은 심벌즈로 소리를
냈으며
6 또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궤 앞에서 나팔
을 부니라.

다윗의 감사 노래
(시96; 105:1－15; 106:1, 48－47)

7 ¶ 그리고 그 날에 다윗이 먼저
이 시편을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
를,*
8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
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9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
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10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
은 기뻐할지어다.
11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
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12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
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3 오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 야
곱의 자손 곧 그분의 택하신 자들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14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
다.
15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
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16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생각할지니라.
17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
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네게 주리라,
하셨도다.
19 그때에 너희는 단지 몇 사람,
불과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
네였고
20 그때에 그들이 민족에게서 민
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
게로 갔도다.
21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
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
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
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3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며 그분
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24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
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
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25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
양할지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신들
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니
26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
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27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앞에 있
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28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
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29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
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
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30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
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
지 아니하리로다.
31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
워하며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
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
다.
32 바다와 거기의 충만한 것은 외
치며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로다.
33 그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주 앞
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34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
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35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의 구
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모으시며 이교도들로부터 우리
를 건져 내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6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무
궁토록 찬송할지어다, 하매 온 백성
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였더라.

정규 예배 유지

37 ¶ 이처럼 그가 아삽과 그의 형
제들을 거기에 주의 언약 궤 앞에 남겨
두어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필요한 일에 따라 그리하게
하였고
38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육십팔
명과 또한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으며
39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
장들을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서 주의
성막 앞에 *서게 하여*
40 항상 아침저녁으로 번제 헌물
제단 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며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즉 그분께
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게 하였고
41 또 주의 긍휼이 영원하므로 그
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또 선정된
남은 자들 곧 지명을 받은 자들을 세워
그분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으며
42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나팔과 심벌즈와 하나님의 악기로 소
리를 내는 자들로 삼았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을 문지기로 삼았더라.
43 온 백성이 떠나서 각각 자기 집
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려
고 돌아갔더라.

제 17 장

다윗과의 언약(삼하7)

1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앉아서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주의 언약 궤는
휘장 밑에 머무는도다, 하매
2 그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3 ¶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
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
고 장막에서 장막으로, 한 성막에서
다른 성막으로 옮겨 다녔나니
6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중의 어
느 누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한 마디라도 말
하였느냐?
7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8 네가 어디에서 걷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었노
라.
9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
니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
손들이 다시는 처음과 같이
10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
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피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 모든 원수
를 복종시키리라. 또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노
라.
11 ¶ 네 날들이 다해 네가 반드시
네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 곧 네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12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
이요,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
게 세우리라.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14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좌
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16 ¶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17 오 하나님이여, 하오나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니
주께서는 또한 먼 장래에 있을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오
주 하나님이여, 또 나를 높은 등급의
지위를 지닌 자같이 중히 여기셨나이
다.
18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주
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
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이
까?
19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
여 주의 마음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
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0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1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
스라엘과 같으니이까? 하나님께서 가
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의 백성으
로 삼으시고 또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
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친히 크고 무서운 이
름을 얻으셨사오니
22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주의 친 백성으로 삼으셨으
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
셨나이다.
23 그러므로 주여, 이제 주께서 주
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오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 그 일을 굳게 세우시고 *사람들
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의 하
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25 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이미 종에
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기도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26 이제,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니
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
게 약속하셨사오니
27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시오니 그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이다, 하니라.

제 18 장

다윗의 추가 정복
(삼하8:1-14)

1 이제 이 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
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것의 고을들을
빼앗았으며
2 또 그가 모압을 치매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3 ¶ 소바 왕 하달에셀이 유프라테
스 강가에서 자기의 통치권을 굳게
세우러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
에까지 이르렀으며
4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또 모든
병거의 말은 다리의 힘줄을 끊되 다만
그것들 중에서 병거 백 대만 남겼더
라.
5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달에셀을 도우러 왔을 때에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만 이
천 명을 죽이고
6 그 뒤에 시리아다마스쿠스에 수비
대를 두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
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같이 그를
보존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달에셀의 신하들에게
있던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
로 가져오고
8 또 이와 같이 하달에셀의 도시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가져
왔더니 솔로몬이 그 놋으로 놋 바다와
기둥들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9 ¶ 이제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달에셀의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10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달에셀이 도우와 전
쟁을 하던 때에) 그가 하달에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더라. 하도람이 금
과 은과 놋으로 된 온갖 종류의 그릇을
가져오니라.
11 ¶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
헌하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
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이 모든 민족
에게서 자기가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봉헌하니라.
12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 만 팔천 명을
죽이니라.
13 ¶ 그가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같이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의 치리자들(삼하8:15－18)

14 ¶ 다윗이 이같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 가운데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다
스리는 자가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
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16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
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
브사는 서기관이 되며
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 19 장

암몬 족속과 시리아
사람들의 패배(삼하10)

1 이제 이 일 뒤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
하여 통치하니라.
2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가
전에 내게 친절을 베풀었으므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베풀
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아
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게 하니
라.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가서 그를 위로
하려 하였으나
3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하눈에
게 이르되, 왕은 다윗이 왕의 아버지
를 존경하기 때문에 왕에게 조문객들
을 보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땅을 엿보고 정복하며 탐지
하려고 왕에게 오지 아니하였나이
까? 하니
4 그러므로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
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
는 데까지 바싹 도려내고 그들을 돌려
보내니라.
5 그때에 어떤 이들이 가서 그 사람
들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그
가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며 왕이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뒤에 돌아오라,
하니라.
6 ¶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
게 미움 받을 일을 행한 것을 보고
하눈과 암몬 자손이 은 천 달란트를
보내어 자기들을 위해 메소포타미아
와 시리아마아가와 소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니라.
7 이처럼 그들이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
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들로
부터 나와 함께 모여 싸우러 오므로
8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
들의 온 군대를 보내매
9 암몬 자손은 나아와 도시의 문
앞에서 전투대형을 갖추고 *도우러* 온
왕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10 이제 요압이 자기를 치려고 앞
뒤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중에서 택
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었더라.
11 또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
기 동생 아비새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
이 암몬 자손을 향해 전열을 갖추니
라.
12 그가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
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려니와 만일 암몬 자손
이 네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
여 용맹스럽게 행동하자. 주께서 자
신의 눈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14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시리
아 사람들 앞으로 싸우려고 가까이
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15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암몬 자손이 보고 자기들도 그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
가매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오니
라.
16 ¶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보고 사자들
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 사람
들을 데려오매 하달에셀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보다 앞서 가니라.
17 *어떤 이가* 그것을 다윗에게 고
하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르
단을 건너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마주보고 전투대형을 갖추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을 마주보
고 전투대형을 갖추매 그들이 그와
싸우더라.
18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
엘 앞에서 도망하므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병거를 타고 싸우던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 대장 소박을 죽이니라.
19 하달에셀의 종들이 자기들이 이
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보고는 다윗과
화친하고 그의 종이 되었으며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도우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 20 장

랍바를 정복함
(삼하11:1; 12:25–31)

1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매 요압이 군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지방을
피폐하게 하고 또 가서 랍바를 에워쌌
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요압이 랍바를 쳐서 그곳을 멸하매
2 다윗이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그
의 관을 빼앗아 무게를 달아 보니 금
일 달란트더라. 그 안에 보석들이 있
더라.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니라.
그가 또한 그 도시에서 노략물을 심
히 많이 가져오고
3 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쇠써레와 도끼로 그들을 자르니
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도시에
이같이 행하고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
렘으로 돌아오니라.

블레셋 거인들을 정복함
(삼하21:15–21)

4 ¶ 이 일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 자손에 속한
십배를 죽이고 그들을 정복하였더
라.
5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
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더라.
6 여전히 가드에서 다시 싸움이 있
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스물네 개로
손과 발마다 여섯 개씩 있더라. 그도
그 거인의 아들이었더라.
7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
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
단이 그를 죽이니라.
8 이들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
어난 자들인데 그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제 21 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
(삼하24)

1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들
에게 이르되,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
고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3 요압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많게 하시
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내 주 왕이
여, 그들은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
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
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
려 하시나이까? 하였으나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
압을 이겼으므로 요압이 떠나 온 이스
라엘을 두루 다닌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5 ¶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모두 백십만 명이요,
유다는 칼을 뺀 자가 사십칠만 명이었
더라.
6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그들 가운데서 레위와 베
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7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
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매
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
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
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9 ¶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가서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
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의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
하리라, 하라.
11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
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기를, 너는 택하라.
12 삼 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
지 혹은 석 달 동안 네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네가* 네 원수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
게 할 것인지 택하라, 하시나니 그러
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친히 알려
주소서, 하매
13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심히
크니 이제 내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
노라, 하니라.
14 ¶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칠
만 명이 쓰러지니라.
1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
려고 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가 멸할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
에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
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그때에* 주의 천사
가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 옆
에 섰더라.
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주의 천
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밀었으
므로 그때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
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17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
을 내려 백성의 수를 세게 한 자는
바로 내가 아니니이까? 바로 내가 죄
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오나 이 양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 집 위에 두시고 주의 백성 위에
두지 마셔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18 ¶ 그때에 주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
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므
로
19 갓의 말 곧 그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말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0 오르난이 *몸을* 돌이켜서 그 천
사를 보매 그와 함께한 그의 네 아들이
숨었더라. 이제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
고 있더라.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가매 오르난
이 바라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
에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니라.
22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
되, 이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를 내게
넘기라. 내가 그 안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리니 너는 충분한 값을 받고 그것
을 내게 넘길지니라. 그리하면 재앙
이 백성에게서 떠나고 그치리라, 하
매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
께로 그것을 취하소서. 내 주 왕은
왕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
서, 내가 또한 소들은 번제 헌물로
타작 기구는 나무로 밀은 음식 헌물로
삼으시도록 왕에게 드리나니 곧 내가
그것을 다 드리나이다, 하매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가 참으로 충분한 값을 주
고 그것을 사리라. 내가 주께 드리려
고 네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번제 헌물을 드리지
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
고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니라.
26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
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
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27 주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칼을 칼집에 꽂았더
라.
28 ¶ 그때에 다윗이 주께서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
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으니
29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
의 성막과 번제 헌물 제단이 그때에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으나
30 다윗이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워서 감히 그것 앞에 가서 하나님
께 여쭙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제 22 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예비함

1 그때에 다윗이 이르되,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을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라, 하였더
라.
2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던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또 석공
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듬은 돌들을 깎게 하며
3 다윗이 또 바깥문의 문들에 쓸
못과 이음쇠로 쓸 쇠를 풍족히 예비하
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을 예비하며
4 또 백향목을 풍족히 예비하였으
니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
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가져왔더라.
5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지극히 장엄하고 모든
나라에 두루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
처럼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6 ¶ 그때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
몬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
해 집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명하고
7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로 말하건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내게
있었으나
8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
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네가 내 눈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
라.
9 보라, 네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
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
에게 주리라.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
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좌
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
리라, 하셨느니라.
11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형통하
여 그분께서 너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12 오직 주께서 네게 지혜와 명철
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
사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때에 네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
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이루려고 주의를 기울
이면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14 이제, 보라, 내가 고난 중에 주
의 집을 위해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를 예비하고 또 놋과 쇠는
풍족하여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예비
하였으며 또 재목과 돌을 예비하였으
니 너는 거기에 더할지니라.
15 또 기술자가 네게 많이 있나니
곧 돌과 재목을 다듬는 자들과 그것으
로 일하는 자들과 모든 종류의 일에
재주가 있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니
라.
16 금과 은과 놋과 쇠가 수도 없이
많으니 그러므로 일어나 일을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7 ¶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들 솔
로몬을 돕게 하며 이르되,
18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
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분께서 사방
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아니하셨
느냐? 그분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나니 그 땅이 주와
그분의 백성 앞에서 정복되었느니라.
19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
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는
이런 까닭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주의 언약 궤와 하나
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집에 들여 놓을
지니라, 하였더라.

제 23 장

레위 사람들을 나눔

1 그러므로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
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2 ¶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으니라.
3 이제 레위 사람들은 삼십 세 이상
이 계수되었는데 남자별로 그들의 머
릿수에 따른 그들의 수가 삼만 팔천이
더라.
4 그중의 이만 사천 명은 주의 집의
일을 위해 지정된 자들이고 육천 명은
직무 수행자와 재판관이며
5 또 사천 명은 문지기들인데 다윗
이 말하기를,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사천 명이 주를 찬양하였다,
하였더라.
6 다윗이 그들을 레위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가운데서 여
러 계열로 나누었더라.

7 ¶ 게르손 족속 중에서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더라.
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
엘과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
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들은 라단
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며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
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은
시므이의 아들들이더라.
11 야핫이 우두머리이며 시사가 둘
째더라. 그러나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
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집에 따라 하나로 계수되었더
라.
12 ¶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네 사람이
더라.
13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
더라. 아론은 구별되었으니 이것은 그
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
앞에서 분향하고 그분을 섬기며 또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려 함이더라.
14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말하
건대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중에
이름이 올랐는데
15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
에셀이더라.
16 게르솜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브
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7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야더라. 엘리에셀에게 다른 아
들이 없었으나 르하비야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더라.
18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서는 슬로
밋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9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
엘과 넷째 여가므암이 있었으며
20 웃시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미가와 둘째 예시야가 있었더라.
21 ¶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요, 말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더라.
22 엘르아살이 아들들이 없이 딸들
만 두고 죽었더니 그들의 형제들 곧
기스의 아들들이 그들을 취하였으며
23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24 ¶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집
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이니 곧 그들의
머릿수대로 이름 수에 따라 계수되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한, 스무
살이 넘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더라.
25 다윗이 이르기를, 주 곧 이스라
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안
식을 주사 그들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도다.
26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셨은즉 그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곳
에서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기구
중 어떤 것도 나르지 말지니라, 하였
으므로
27 다윗의 마지막 말들에 따라 스
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이 계수되었
으니
28 이는 그들의 직무가 주의 집에
서 섬기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시중
을 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
이 뜰과 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거룩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하니라.
29 *그들이* 보여 주는 빵과 음식 헌
물에 쓸 고운 밀가루와 누룩 없는 납작
한 빵과 냄비에서 구운 것과 튀긴 것을
맡고 또 부피와 크기에 관한 온갖 종류
의 일을 맡았으며
30 아침마다 서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 저녁에도 그리하였
고
31 또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
들에 모든 번제 헌물을 주께 드리되
자기들이 명령받은 규례에 따라 수효
대로 항상 주 앞에 드렸더라.
32 또 그들이 주의 집에서 섬기면
서 회중의 성막의 책무와 성소의 책무
와 자기들의 형제 아론의 아들들의

책무를 맡았더라.

제 24 장

제사장들을 나눔

1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
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
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이가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
서 취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
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
어 주니라.
4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더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
살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조상
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사람*이
요,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그들
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여덟 *사람*이더
라.
5 이같이 그들을 제비 뽑아 한 종류
와 다른 종류로 나누니 성소를 감독하
는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
었더라.
6 레위 사람들 중 하나인 느다네엘
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통치자
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
들*의 이름*을 기록하니라. 엘르아살을
위하여 한 으뜸가는 집안을 취하고
또 이다말을 위하여 한 집안을 취하였
으니
7 이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
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8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
이요,
9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
야민이요,
10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11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
가냐요,
12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
째는 야김이요,
13 열셋째는 훕바요, 열넷째는 예
세브압이요,
14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
는 임멜이요,
15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
째는 아브세스요,
16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
째는 여헤스겔이요,
17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
째는 가물이요,
18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
째는 마아시야더라.
19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섬겼더라.

다른 레위 사람들

20 ¶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
에서는 예드야며
21 르하비야로 말하건대 르하비야
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는 잇시야요,
22 이스할 족속 중에서는 슬로못이
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핫이
요,
23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
째 여가므암이요,
24 웃시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미가
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밀이
요,
25 미가의 형제는 잇시야더라. 잇
시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며
26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
요, 야아시야의 아들들은 브노더라.

27 ¶ 므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야아
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
굴과 이브리요,
28 말리에게서는 엘르아살이 나왔
으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며
29 기스로 말하건대 기스의 아들은
여라므엘이요,
30 무시의 아들들은 또한 말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들은 그들의 조
상들의 집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이더
라.
31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
에서 자기들의 형제들 즉 아론의 아들
들을 향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곧 으뜸
가는 아버지들이 자기들의 어린 형제
들을 향하여 그리하였더라.

제 25 장

음악가들

1 또한 다윗과 군대의 대장들이 아
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매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심벌즈로 연주하며 대언을 하
였는데 일하는 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이러하니라.*
2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인데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손 밑에서 왕의 명령
에 따라 대언을 하였더라.
3 여두둔에게서는 여두둔의 아들 그
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인데 *이들이* 자기
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손 밑에서 하프
를 연주하며 대언을 하고 주께 감사하
며 찬양을 드렸고
4 헤만에게서는 헤만의 아들 북기
야와 맛다니야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
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
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더라.
5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
한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며
뿔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6 이들이 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손
밑에서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
하여 주의 집에서 노래하고 왕이 아삽
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더라.
7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곧
모두 재주가 있어서 주의 노래들을
배운 자들의 수가 이백팔십팔 명이더
라.
8 ¶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스
승이나 배우는 자나 막론하고 분반
별로 서로 제비를 뽑았는데
9 이제 아삽을 향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
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열둘
이요,
10 셋째는 삭굴이니 그와 그의 아
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1 넷째는 이스리니 그와 그의 아
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2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3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4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5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6 아홉째는 맛다니야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7 열째는 시므이니 그와 그의 아
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18 열한째는 아사르엘이니 그와 그
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
요,
19 열두째는 하사비야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0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1 열넷째는 맛디디야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2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와 그
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

요,
23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4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
요,
25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6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7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28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와 그
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
요,
29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요,
30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
요,
31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
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
이었더라.

제 26 장

문지기들

1 문지기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중에서는 아삽의 아들들 중
에서 고레의 아들 므셀레미야더라.
2 므셀레미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
댜와 넷째 야드니엘과
3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
과 일곱째 엘리오에내더라.
4 또한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
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
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네엘과
5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잇사갈
과 여덟째 브울대더라. 하나님께서 그
에게 복을 주셨더라.
6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
이 태어났으며 이들이 자기들의 아버
지 집을 두루 다스렸으니 이는 그들이
강한 용사들이기 때문이더라.
7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
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강한 자더
라.
8 이들은 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
의 형제들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한 자들이더라.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예순두 명이더라.
9 또 므셀레미야에게 아들들과 형
제들 곧 열여덟 명의 강력한 자들이
있었고
10 므라리의 자손 중에서 호사에게
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우두
머리더라.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으
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11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
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모든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12 이들 곧 우두머리 사람들 가운
데서 문지기들을 구분하였는데 그들
이 서로 서로 파수 보는 일을 맡아
주의 집에서 섬겼더라.
13 ¶ 모든 문에 대해 그들이 자기
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큰 자든 작은
자든 제비를 뽑았는데
14 셀레미야는 동쪽으로 뽑혔더
라. 그의 아들 스가랴는 지혜로운 조언
자였는데 그들이 그를 위해 제비를
뽑으매 그는 북쪽으로 뽑혔으며
15 오벳에돔은 남쪽으로 뽑혔고 그
의 아들들은 아수빔의 집을 맡도록
뽑혔으며
16 수빔과 호사는 서쪽으로 뽑혀
위로 올라가는 둑길 옆 살레겟 문에서
분반 별로 서로 파수를 보았더라.
17 동쪽으로 레위 사람 여섯이 있
었으며 북쪽으로 날마다 네 사람, 남
쪽으로 날마다 네 사람, 아수빔 쪽으로
둘씩 둘씩 있었고
18 서쪽의 파르바에는 둑길에 네
사람과 파르바에 두 사람이 있었더라.
19 고라의 아들들과 므라리의 아들
들 가운데서 문지기들의 구분은 이러

하니라.

재무 관리와 다른 의무

20 ¶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히야
는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한 물건
들의 보고를 맡았으며
21 라단의 아들들로 말하건대 *이들
은* 게르손 족속 라단의 아들들이니 곧
게르손 족속 라단에게 속한 우두머리
아버지들은 여히엘리더라.
22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
의 형제 요엘인데 이들은 주의 집의
보고를 맡았더라.
23 아므람 족속과 이스할 족속과 헤
브론 족속과 웃시엘 족속 중에서는 *이
러하니라.*
24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스브엘은 보고를 맡아 관리하는 자며
25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들은 그의 아들 르하비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밋이더
라.
26 이 슬로밋과 그의 형제들은 봉
헌한 물건들의 모든 보고를 맡았는데
이 물건들은 다윗 왕과 우두머리 아버
지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군대의 대장들이 봉헌한 것이더라.
27 그들이 주의 집을 유지하기 위
해 싸움에서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
서 봉헌하였더라.
28 또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봉헌한 모든 것과 또 누가
무엇이든지 봉헌한 것은 다 슬로밋과
그의 형제들의 손 밑에 있었더라.
29 ¶ 이스할 족속 중에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바깥일을
보는 직무 수행자와 재판관이 되었고
30 헤브론 족속 중에서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용사들 천칠백 명은 요르단
이편 서쪽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직무 수행자가 되어 주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으며
31 헤브론 족속 가운데서 여리야는
자기 조상들의 세대들에 따라 헤브론
족속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통치한 지 사십 년이 되던 해에
그들을 구하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길
르앗의 야셀에서 찾은 강한 용사들이
있었더라.
32 그의 형제 용사들은 이천칠백
명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더라.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의 치리자로 삼아 하나
님께 속한 모든 일과 왕의 일들을 하게
하였더라.

제 27 장

군사들을 나눔

1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수
대로 *이러하니* 곧 우두머리 아버지들
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또
여러 조의 모든 일에서 왕을 섬긴 그들
의 직무 수행자들의 *수가 이러하니
라.* 그들은 해마다 모든 달 내내 달별
로 들어오고 나갔는데 각 조에 속한
자가 이만 사천 명이더라.
2 첫째 달 첫째 조를 다스리는 자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조
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3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첫째 달
군대의 모든 대장의 우두머리가 나왔
고
4 둘째 달 조를 다스리는 자는 아호
아 사람 도대요, 또한 미글롯이 그의
조의 치리자가 되었는데 그의 조에도
마찬가지로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
라.
5 셋째 달을 맡은 군대의 셋째 대장
은 수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요,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
라.
6 이 사람은 서른 명 가운데 용사인
그 브나야로서 그 서른 명 위에 있었으
며 그의 조 안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더라.
7 넷째 달의 넷째 대장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
들 스바댜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

이 있었더라.
8 다섯째 달의 다섯째 대장은 이스
라 사람 삼훗이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9 여섯째 달의 여섯째 대장은 드고
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10 일곱째 달의 일곱째 대장은 에
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벨론 사람 헬레
스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
라.
11 여덟째 달의 여덟째 대장은 세
라 족속에게 속한 후사 사람 십브개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12 아홉째 달의 아홉째 대장은 베
냐민 족속에게 속한 아나돗 사람 아비
에셀이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13 열째 달의 열째 대장은 세라 족
속에게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래며 그
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14 열한째 달의 열한째 대장은 에
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비라돈 사람 브
나야며 그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
더라.
15 열두째 달의 열두째 대장은 옷
니엘에게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며 그
의 조에 이만 사천 명이 있었더라.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16 ¶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스리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족속
의 치리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이요, 시므온 족속의 *치리자는* 마아가
의 아들 스바댜요,
17 레위 족속의 *치리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야요, 아론 족속의 *치리자
는* 사독이요,
18 유다의 *치리자는* 다윗의 형들
중의 하나인 엘리후요, 잇사갈의 *치리
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19 스불론의 *치리자는* 오바댜의 아
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치리자는* 아
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20 에브라임 자손의 *치리자는* 아사
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
의 *치리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21 길르앗에 있던 므낫세 반 지파의
치리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
민의 *치리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
이요,
22 단의 *치리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르엘이니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들의 통치자였더라.
23 ¶ 그러나 다윗이 그들 중에서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자들의 수는 세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친히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같이 불어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더
라.
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수를 세기
시작하였으나 끝내지 못하였으니 이
는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 수는 다윗
왕의 연대기 기록에 들어가지 아니하
였더라.

다른 관리들

25 ¶ 한편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
은 왕의 보고를 맡았고 웃시야의 아들
여호나단은 밭과 도시와 마을과 성채
의 저장고를 맡았더라.
26 또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갈기 위해 밭일 하는 자들을 맡았고
27 라맛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
았으며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즙 창고
에 들어갈 포도원의 소출을 맡았더
라.
28 또 게델 사람 바알하난은 낮은
평야의 올리브나무와 돌무화과나무
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
으며
29 샤론 사람 시드래는 샤론에서 먹
인 소 떼를 맡았고 아들래의 아들 사밧
은 골짜기에 있던 소 떼를 맡았더라.
30 또한 이스마엘 족속 오빌은 낙타
를 맡았고 메로놋 사람 예드야는 나귀
를 맡았으며
31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맡
았더라. 이들은 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었더라.
32 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조언자

요 지혜로운 자로서 서기관이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
과 함께하였으며
33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가 되었
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벗이 되었으
며
34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
아달은 아히도벨 다음이 되었고 요압
은 왕의 군대의 대장이 되었더라.

제 28 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함

1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들 곧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조별로
왕을 섬기는 무리들의 대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강력한
자들과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 그때에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
서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백성들
아, 내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주의 언약 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을 둘 안식의 집을 건축할 마음
이 있어서 건축을 위하여 예비하였으
나
3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
느니라.
4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사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
게 하셨나니 그분께서 유다를 택하사
치리자로 삼으시고 유다의 집에서 내
아버지 집을 택하시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를 좋아하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느
니라.
5 (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
고) 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
몬을 택하사 주의 왕국의 왕좌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6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
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7 또 그가 만일 이 날과 같이 내
명령과 내 판단의 법도를 꾸준히 행하
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주의 회중이 보는 데서 또 우리 하나님
께서 들으시는 데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라. 그리하
면 너희가 이 좋은 땅을 소유하고 너희
뒤에 있을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
토록 상속 재산으로 남기리라.
9 ¶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
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
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
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
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
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11 ¶ 그때에 다윗이 주랑과 거기
의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
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
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
한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
13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대하여 말하고*
14 또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 쓰
는 모든 기구들 곧 금으로 된 물건들을
위하여 금을 무게대로 주며 또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들 곧 모든

은 기구들을 위하여 은도 무게대로
주었으니
15 곧 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그
것들의 등잔들 즉 각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을 만들 금을 무게대로 주고
또 은 등잔대들 즉 그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을 만들 은을 각 등잔대 용도에
따라 무게대로 주었더라.
16 또 그가 보여 주는 빵의 상들을
만들 금을 무게대로 주되 각 상을 위하
여 *그리하고* 또 그와 같이 은으로 된
상들을 만들 은도 *그리하였으며*
17 또한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
과 잔들을 만들 순금도 *그리하고* 금
대야들을 만들 금도 무게대로 주되
각 대야를 위해 *그리하였으며* 또 그와
같이 각각의 은 대야를 만들 은을 무게
대로 주었더라.
18 또 *그가* 분향 제단에 쓸 정화된
금을 무게대로 주고 그룹들의 병거의
양식대로 만들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
들은 자기 날개들을 펴서 주의 언약
궤를 덮었더라.
19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
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
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
라.
20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
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도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네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의 계열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세공품
을 만들고 모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
여 솜씨 좋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너와 함께할 것이며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전적으로 네 명령에 따르리
라.

제 29 장

성전 건축 헌물

1 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
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그 일은 크니 이는 그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2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
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놋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놋을, 쇠로 *만들* 것들
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
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종류의 보석
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3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
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
4 즉 오빌의 금에서 금 삼천 달란트
와 정화된 은 칠천 달란트라. 이것으로
그 집들의 벽을 입히며
5 금은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장인
(匠人)의 손으로 만드는 온갖 종류의
일에 쓰게 하였나니 그런즉 이 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
히 구분하겠느냐? 하니라.
6 ¶ 그때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의
일을 치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
되
7 하나님의 집의 섬기는 일을 위하
여 금 오천 달란트와 만 다릭과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8 보석을 가진 자들은 게르손 족속
여히엘의 손을 통하여 주의 집의 보고

에 그것들을 드렸더라.
9 그때에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
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

10 ¶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
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는 영원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
서.
11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
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
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12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
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
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
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
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
다.
13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
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
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
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
다.
15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같
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16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
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
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
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
다.
18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
을 주의 백성의 마음의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
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
서.
19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
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예비한 것으로 전당
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20 ¶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매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됨

21 그 다음 날 그들이 주께 희생물
로 희생을 드리고 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곧 수소 천 마리와 숫양 천
마리와 어린양 천 마리와 또 그것들의
음료 헌물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풍성
한 희생물이더라.
22 그 날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다
윗의 아들 솔로몬을 한 번 더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 드리며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
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
라.
23 그때에 솔로몬이 주의 왕좌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형통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이 그에게 순종하며
24 모든 통치자들과 용사들과 다
윗 왕의 모든 아들도 마찬가지로 솔로
몬 왕에게 복종하매
25 주께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어떤 왕에게도 없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더라.

다윗의 통치가 끝남

26 ¶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27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사십 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칠
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28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
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
여 통치하니라.
29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
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되
30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권력과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모든 왕
국에 임한 시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둘째 연대기

역대기하

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427년(어셔)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름: 역대기상 참조
주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목적: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시119:75; 히12:6－13), 내용: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좌에 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책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이 언급되는 곳은 왕국이 분열되고 북 왕국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록한 부분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유다 왕들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유다가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스1:1－4 참조). 역대기하는 36장, 822절, 26,06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7장(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조건과 약속)
핵심 절: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15:2), 핵심 단어: 굳게 세우다, 핵심 구: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30:19)
역대기하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에게 존귀와 영예를 돌려라."

제 1 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왕상3:1－15)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국
에서 강하게 되었고 주 그의 하나님께
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심히 크게
하셨더라.
2 그때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재판관
들과 온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모든
자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
하고
3 이처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
께 기브온에 있던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 곧 주의
종 모세가 전에 광야에서 만든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더라.
4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
해 전에 예루살렘에 장막을 쳤으므로
다윗이 그 궤를 이미 기랏여아림에서
부터 자기가 그 궤를 위해 예비한 처소
로 올려왔더라.
5 또한 그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엘이 만든 놋 제단을 주
의 성막 앞에 두었더라. 솔로몬과 회중
이 그 성막을 찾아갔더라.
6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 제단 곧 회중의 성막에 있던 그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천 개를 드렸더라.
7 ¶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
니
8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
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즉
9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아
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
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매
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
되, 이것이 네 마음에 있어 네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네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
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12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
으며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네게 주리
니 너 이전의 왕들 중의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
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군사 및 경제 권력
(왕상10:26－29; 대하9:25－28)

13 ¶ 그때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
던 산당으로 여행하던 일을 마치고
회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14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모으
매 그에게 병거 천사백 대와 기병 만
이천 명이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
에게도 두었으며
15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의
돌무화과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6 솔로몬이 말과 아마 실을 이집트
에서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 실을 받았으며
17 그들이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은 한 마리에 백오십 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취하여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헷 족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
아의 왕들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 수단
껏 말들을 가져왔더라.

제 2 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예비함(왕상5)

1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니라.
2 솔로몬이 짐 나르는 자 칠만 명과
산에서 돌 다듬는 자 팔만 명과 그들을
감독할 자 삼천육백 명을 뽑으니라.
3 ¶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사*
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관계를 맺고 그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
서.
4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
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 봉헌
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
며 항상 드리는 보여 주는 빵을 차려
놓고 안식일과 월삭과 주 우리 하나님
의 엄숙한 명절들에 아침저녁으로 번
제 헌물을 드리려 하나니 이것은 이스
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5 내가 건축하는 집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나이
다.
6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겠거늘 누가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오직 그분 앞
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이
다.
7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자주색과 진홍색과 청색
*실*로 일하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로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
한 자들 곧 나와 더불어 유다와 예루살
렘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기는 일을 하게 하고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
와 백단목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들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 벨 수 있나이다. 보소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하리니
9 이것은 곧 나를 위해 재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건
축하려 하는 집은 놀랍게 크리이다.

10 보소서, 내가 당신의 종들 곧
나무 베는 자들에게 찧은 밀 이만 고르
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즙 이만 바스
와 기름 이만 바스를 주리이다, 하였
더라.
11 ¶ 이에 두로 왕 후람이 글을
써서 솔로몬에게 보내어 응답하되, 주
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
도다, 하고
12 후람이 또 이르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
할지로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분별
과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주를 위해 집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시는도
다.
13 내가 이제 명철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 후람을 보내었는데 *그는*
내 아버지에게 속하였던 자니이다.
14 *그는* 단의 딸들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데 *그가*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돌과
나무와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솜씨 있게 일을 하며 또
모든 종류의 새기는 것을 새기고 자기
가 맡을 모든 도안을 찾아내니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15 그런즉 이제 내 주께서 말씀하
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16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필요
로 하는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바다에 띄워 욥바로 당신에게 보내리
니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가소서, 하였더라.
17 ¶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타국인들의
수를 센 것과 같이 그가 그들의 수를
세매 그들이 십오만 삼천육백 명으로
드러나니라.
18 그가 그들 중 칠만 명은 짐 나르
는 자로 지정하고 팔만 명은 산에서
돌 다듬는 자로 지정하며 삼천육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제 3 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왕상6:1－22)

1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
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
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
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
한 곳이더라.
2 그가 자신의 통치 제사년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
라.
3 ¶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 받은 것들은 이러
하니라. *그 집은* 처음에 재던 큐빗으로
길이가 육십 큐빗이요, 너비가 이십
큐빗이더라.
4 그 집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이십 큐빗이요,
높이는 백이십 큐빗이더라. 그가 그것
의 안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5 더 큰 집은 전나무로 붙이고 정금
으로 입히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새겼고
6 또 보석들로 집을 꾸며 아름답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더
라.
7 또 그가 그 집과 들보들과 기둥들
과 그것의 벽들과 문들을 금으로 입히
고 벽들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8 또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
는데 그것의 길이는 집의 너비대로
이십 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도 이십
큐빗이더라. 그가 정금 육백 달란트로
그것을 입혔더라.
9 못들의 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더
라. 그가 다락방들을 금으로 입혔더
라.
10 또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
두 그룹을 형상 작업으로 만들고 금으
로 그것들을 입혔더라.

11 ¶ 그룹들의 날개들은 길이가
이십 큐빗이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오 큐빗으로 그 집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오 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12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오 큐빗으
로 그 집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오 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맞붙
었더라.
13 이 그룹들의 날개들을 펴매 이
십 큐빗이더라. 그것들이 자기들의 발
로 서고 그것들의 얼굴은 안을 향하였
더라.
14 ¶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진
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
고 그 위에 그룹들을 만들었으며
15 또한 그 집 앞에 높이가 삼십오
큐빗인 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것
들 각각의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
는 오 큐빗이더라.
16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한 것 같이 사슬들을 만들어 그
기둥들의 머리에 두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들에 달았더라.
17 또 *그*가 그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우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를 세우고는 오른쪽에 있던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있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더라.

제 4 장

성전 기구들
(왕상6:23－28; 7:13－51)

1 또 *그*가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
데 그것의 길이는 이십 큐빗이요 너비
는 이십 큐빗이며 높이는 십 큐빗이더
라.
2 ¶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
데 *그것의*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
지가 십 큐빗이요, 그 둘레가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오 큐빗이더라. 삼십
큐빗 줄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3 그것 밑에는 소 모양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그것들은* 일 큐빗마다 열
개씩 있어서 그 바다를 돌아가며 둘렀
고 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4 *그가* 바다를 열두 마리 소 위에
세워 놓았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
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며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더라. *그가* 그 소들
위에 바다를 놓았고 그 소들의 뒷부분
은 다 안을 향하게 하였더라.
5 *그가* 바다의 두께를 한 손 너비만
하게 하였으며 그것의 가장자리를 잔
의 가장자리를 만들듯이 백합의 꽃들
과 함께 만들고 바다에 삼천 바스를
받아서 둘 수 있게 하였더라.
6 ¶ 또한 *그*가 물두멍 열 개를 만들
어서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그것들 안에서 씻게
하였더니 그들이 번제 헌물로 드린
것들을 그것들 안에서 씻었더라. 그러
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도
록 하기 위한 *기구*더라.
7 또 *그*가 등잔대의 형태에 따라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되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를 두었더라.
8 *그*가 또한 상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되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를 두었으며 또 금으로 대야
백 개를 만들었더라.
9 ¶ 또 *그*가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 문들을 만들고 놋으로 그것들
의 문들을 입혔으며
10 바다는 동쪽 끝의 오른쪽에 남
쪽을 향하게 두었더라.
11 또 후람이 솥들과 부삽들과 대
야들을 만들었더라. 후람이 솔로몬 왕
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 만들어야 할
것들의 작업을 마쳤으니
12 *그것들은* 곧 기둥 두 개와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과 또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개의 둥근 장식
을 가리는 두 개의 화환 장식과

13 그 두 개의 화환 장식 위에 놓은
사백 개의 석류 곧 기둥들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개의 둥근 장식을
가리기 위해 각 화환 장식 위에 두
줄로 놓은 석류더라.
14 그가 또한 받침대들과 받침대
들 위의 물두멍들과
15 한 바다와 그 바다 밑에 있던
열두 마리 소를 만들었더라.
16 그의 아버지 후람이 주의 집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또한 솥들과 부삽
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를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더라.
17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숙곳과 스
레다다 사이의 진흙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18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
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니 이는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
더라.
19 ¶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
과 보여 주는 빵을 놓는 상들과
20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
시는 곳 앞에서 관례대로 불을 붙여야
할 순금 등잔대들과 그것들의 등잔들
과
21 또 금 곧 완전한 금으로 만든
꽃들과 등잔들과 부집게들과
22 또 순금으로 된 심지 자르는 기
구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
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성소에 둘
그 입구의 안쪽 문들과 성전 집의 문들
이더라. *그것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제 5 장

1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의* 모든 작업을 마치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 즉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의 보고 가운데
두었더라.

궤를 성전으로 가져옴(왕상8:1-13)

2 ¶ 그때에 솔로몬이 주의 언약
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
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
루살렘으로 모으니
3 그러므로 일곱째 달의 명절에 이
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에게 모이고
4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오매 레
위 사람들이 궤를 들어 올리니라.
5 그들이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올라
가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6 또한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7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 궤를 궤의
처소로 들여오되 곧 그 집의 *하나님께
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즉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오니라.
8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자기
날개들을 펴서 궤와 그것의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더라.
9 또 그들이 궤의 막대들을 빼내었
으므로 이 막대들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의 궤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궤가 이 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10 궤 안에는 두 개의 판 외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
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1 ¶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서 나왔으니 (이는 *거기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그
때에는 계열대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2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
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 *옷으로* 차려입
고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던 그들의 아들
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백이십
명도 *그리하였더라.*)
13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
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
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즈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
휼은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에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으므
로
14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
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
기 때문이더라.

제 6 장

1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2 내가 주를 위해 처소의 집을 건축
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거처로소이다, 하고
3 왕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전
체 회중을 축복하였는데 *이때에* 이스
라엘 온 회중은 서 있더라.

작업 완료 후 솔로몬의 연설
(왕상8:14－21)

4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르시기를,
5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
리고 나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두기 위하
여 집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6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
을 거기에 두려 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
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으므로
7 이제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
할 것을 마음에 품었으나
8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
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
할 것을 마음에 품었으니 네가 그 일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잘하였도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네 허리
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10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신 자
신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
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좌에 앉
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
11 또 내가 그 안에 그분께서 이스
라엘 자손과 맺으신 주의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의 봉헌 기도
(왕상8:22－53)

12 ¶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
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니라.
13 솔로몬이 전에 길이가 오 큐빗,
너비가 오 큐빗, 높이가 삼 큐빗인 놋
연단을 만들고 뜰의 한가운데 그것을
두었으므로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
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14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여, 하늘에나 땅에 주와 같은 하나
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
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 날과 같으니
이다.
16 그러므로, 오 주 이스라엘의 하
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
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 같이 내 율법
안에서 걸으면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눈앞에서 네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
*속*을 그에게 지키시옵소서.
17 그런즉,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옵소서.
18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
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
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
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
한 이 집이오리이까!
19 그러므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
이시고 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하
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
옵소서.
20 주께서 전에 말씀하사 친히 주
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21 그런즉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
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
시며 주의 거처에서부터 곧 하늘에서
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22 ¶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
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가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고 그 서약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23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보복
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갚으시고
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
로 그에게 주심으로써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24 ¶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되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
거든
25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
터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옵소서.
26 ¶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
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
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27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
라엘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뒤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주의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 ¶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름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
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의 도시들에
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29 그때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
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 집에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30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
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
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31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
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길들로 걸으리
이다.
32 ¶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타국인에 관하여는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에서 기도하거
든
33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
터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4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
수들과 싸우려고 주께서 보내실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5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
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3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
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들의 원수들 앞에서 넘겨주시매 그들
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37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
로로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
고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땅에
서 돌이키며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
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
였으며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38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땅 곧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
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즉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
터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그들의 기도
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40 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주의 눈을 여시고 이곳에서 드리
는 기도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41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
제 주께서는 일어나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시옵
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
들이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
옵소서.
42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
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제 7 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함
(왕상8:62-66)

1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
과 희생물들을 태워 버렸고 주의 영광
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2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
로 제사장들이 능히 주의 집에 들어가
지 못하였고
3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
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
며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
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니
라.
4 ¶ 그때에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물을 드렸고
5 솔로몬 왕이 희생물로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드렸더
라. 이와 같이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6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직무대
로 섬기고 레위 사람들도 주의 악기들
을 가지고 섬겼는데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로
찬양할 때에 주의 긍휼이 영원하므로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더
라. 제사장들은 그들 앞에서 나팔로
소리를 내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7 또 솔로몬이 주의 집 앞에 있던
뜰의 한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였더
라. 솔로몬이 전에 만든 놋 제단이 번
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기름을 능히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거기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기름을 드렸
더라.
8 ¶ 또한 바로 그때에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까지의 심
히 큰 회중이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고
9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
를 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레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또 이레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더라.
10 일곱째 달 이십삼일에 그가 백
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
성이*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푼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서 즐거워하
였더라.
11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고 솔로몬의 마음속
에 떠올라 주의 집과 자기 집에 만들고
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남(왕상9:1－9)

12 ¶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
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13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
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
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15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16 이는 내가 이제 이 집을 택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
리라.
17 너로 말하건대 네가 만일 네 아
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
를 지키면
18 내가 전에 네 아버지 다윗과 언
약을 맺어 이르기를, 이스라엘에서 치
리자가 될 사람이 네게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한 대로 네 왕국의 왕좌를
굳게 세우려니와
19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너
희 앞에 둔 내 법규와 내 명령들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
에게 경배하면
20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
들을 뿌리째 뽑아내며 내 이름을 위하
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 버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이 속담거리와 웃음거
리가 되게 하리라.
21 높이 솟은 이 집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놀라움이 되리
니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주께서 무
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22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
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
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
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
라, 하셨더라.

제 8 장

솔로몬의 추가 업적
(왕상9:10－28)

1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집을
이십 년 동안 건축하여 마친 뒤에
2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도
시들 곧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거기 거하
게 하니라.
3 솔로몬이 하맛소바에 가서 그곳
을 쳐서 이기고
4 또 광야에 다드몰을 건축하며 모

든 저장 도시 곧 그가 하맛에서 건축한
도시들을 건축하고
5 또 위쪽 벧호론과 아래쪽 벧호론
을 건축하되 벽과 문과 빗장을 갖춘
성벽을 두른 도시들로 건축하며
6 또 바알랏과 솔로몬이 소유한 모
든 저장 도시와 모든 병거 도시와 기병
도시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
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지배하던 온
땅에서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건축하니라.
7 ¶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에서 남아
있던 모든 백성
8 곧 이스라엘 자손이 소멸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그들 뒤에
남아 있던 그들의 자손에 관하여는
솔로몬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
여 이 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자기 일을 위하여
종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들
은 군사와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 되
었더라.
10 이들은 솔로몬 왕의 직무 수행
자들의 우두머리였으며 곧 이백오십
명이었더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
라.
11 ¶ 솔로몬이 다윗의 도시로부터
파라오의 딸을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그녀를 위해 건축한 집에 두었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의 궤가 이른
곳들은 거룩하므로 내 아내가 이스라
엘 왕 다윗의 집에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12 ¶ 그때에 솔로몬이 자기가 주
랑 앞에 만든 주의 제단 위에 주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되
13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정
한 비율로 안식일과 월삭과 한 해에
세 번 지키는 엄숙한 명절들 곧 무교절
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드렸더라.
14 ¶ 또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열들을 정
하여 섬기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책무를 맡기되 날마다 필요한 의무대
로 찬양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게
하고 또한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열대
로 모든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하나님
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
더라.
15 그들이 어떤 일에 관하여 혹은
보고(寶庫)에 관하여 제사장들과 레
위 사람들에게 준 왕의 명령에서 떠나
지 아니하였더라.
16 주의 집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그 집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솔로몬의
모든 일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처럼 주
의 집이 완전하게 되니라.
17 ¶ 그때에 솔로몬이 에시온게벨
과 엘롯 곧 에돔 땅의 바닷가에 이르렀
더니
18 후람이 자기 신하들의 손으로
그에게 배들과 바다에 관하여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
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
오십 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 9 장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함
(왕상10:1－13)

1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심히 큰 무리와 또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
살렘에 와서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시험하려 하였더라. 그녀가 솔로몬에
게 나아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매
2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
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솔로몬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3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4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
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또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그들의 의복과 또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5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6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
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
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당신의 그
큰 지혜의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
였으니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7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
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
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8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자신
의 왕좌에 앉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셨고 또 당신의 하나
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그들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므로 당신
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
고
9 그녀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
같은 향료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더
라.
10 또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백
단목과 보석을 가져오매
11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집과 왕
의 궁에 이르는 계단 길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비파
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것들은 전에
유다 땅에서 보지 못한 것이더라.
12 솔로몬 왕이 세바의 여왕이 왕에
게 가져온 것 외에 또 그녀의 모든
소원대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
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땅으로 갔더라.

솔로몬의 큰 재산
(왕상10:14－29; 대하1:14－17)

13 ¶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
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달란트
였는데
14 *이것은* 행상인과 무역상들이
가져온 것 외의 것이더라. 또 아라비아
의 모든 왕과 그 지역의 총독들이 솔로
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15 ¶ 솔로몬 왕이 두들긴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두들긴 금 육백 세겔이 들었으
며
16 또 그가 두들긴 금으로 작은 방
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삼백 세겔이 들었더라. 왕이 그것들
을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에 두었
더라.
17 또 왕이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
고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18 그 왕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었
고 왕좌에 고정된 금 발받침이 있었으
며 앉는 곳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
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 있었더라.
19 또 거기에 사자 열두 마리가 그
여섯 계단 위에 이쪽과 저쪽에 섰는데
어떤 왕국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
더라.
20 ¶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
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
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21 이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
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삼 년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
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
더라.
22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
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23 ¶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앞에 서기를 원하여

24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
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25 ¶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둘 외
양간 사천 개와 기병 만 이천 명을
소유하여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
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니라.
26 ¶ 또 그가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의 모
든 왕을 통치하였으며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낮은 평야의 돌무
화과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 그들이 솔로몬을 위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죽음(왕상11:41－43)

29 ¶ 이제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
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대언과 느밧
의 아들 여로보암을 향한 선견자 잇도
의 환상 *계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냐?
30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31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
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10 장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
(왕상12:1－19)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
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더라.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
로몬 왕의 앞을 떠나 이집트로 도망하
여 거기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
에서 나와 돌아오매
3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
더라. 이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
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노역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조금 완화해 주소서. 그리하
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
니
5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뒤
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떠나가니라.
6 ¶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 있을 때에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
희는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내게
어떤 권고를 주겠느냐? 하니
7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라.
8 그러나 그가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 곧 자기와 함께하며 자라난 청년
들과 의논하여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떤 조언을
주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
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조금 완화해 주소서, 하였느
니라, 하매
10 그와 함께하며 자라난 청년들
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왕
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조금 가볍게 하소
서, 하였은즉 왕은 이같이 그들에게
대답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
다 굵으리니
11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웠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 얹으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
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12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셋째 날
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였으므로 이

에 셋째 날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더라.
13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
며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권고를 버
리고
14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
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
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이것
은 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의
손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친
히 하신 말씀 곧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
려 하심이더라.
16 ¶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
울이려 하지 아니함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백성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다윗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몫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
게 상속 재산이 전혀 없도다. 오 이스
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가라. 다
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
고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
로 가니라.
17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하건대 르호보
암이 그들을 통치하니라.
18 그때에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감독하던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
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니
라.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급히 자기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
하였더라.
19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을
일으켜 이 날까지 이르렀더라.

제 11 장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의 집에서 선정된 사람
들 십팔만 명을 모았는데 이들은 이스
라엘과 싸울 용사들이더라. 이로써 르
호보암이 왕국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
리려 하였으나
2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
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
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또 너희 형제들과 싸우
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
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일에서 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도시들을 강화함

5 ¶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
면서 유다에 수비하는 도시들을 건축
하니라.
6 그가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
아와
7 벧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 소라와 아이얄론과 헤브론을 건
축하였는데 이것들은 곧 유다와 베냐
민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이니라.
11 그가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고 대장들을 그것들 가운데 두며
양식과 기름과 포도즙을 저장하고
12 각각의 도시에 방패와 창을 두
어 그것들을 심히 강하게 하며 유다와
베냐민을 자기편으로 두었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이동함(왕상14:21－24)

13 ¶ 온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
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그에게 갔더라.
14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
지역과 소유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
렘에 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
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
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15 또 그가 산당들과 마귀들과 자

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16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정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을 구하려는 자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17 이처럼 그들이 삼 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이는
삼 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걸었기 때문이더라.

르호보암의 가족

18 ¶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
못의 딸 마할랏을 취해 아내로 삼았으
며 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
일을 아내로 삼았는데
19 그녀가 그에게 아이들 곧 여우
스와 사마랴와 사함을 낳았더라.
20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
의 딸 마아가를 취하였는데 그녀가
그에게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
밋을 낳았더라.
21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
를 자기의 모든 아내와 첩보다 더 사랑
하였더라. (그가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취하여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더라.)
22 르호보암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
야를 우두머리로 세워 그의 형제들
가운데 치리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하였
기 때문이었더라.
23 그가 지혜롭게 행하여 자기의
모든 아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 곧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두루
흩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후히
주었더라. 그가 아내를 많이 구하였
더라.

제 12 장

이집트의 유다 침공
(왕상14:25－28)

1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
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
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하
였더라.
2 그들이 주께 범법하였으므로 르
호보암 왕의 제오년에 이집트 왕 시삭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3 그에게 병거 천이백 대와 기병
육만 명이 있었으며 또 그와 함께 이집
트에서 나온 백성들 곧 룹 사람과 숙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4 그가 유다에 속한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
5 ¶ 그때에 대언자 스마야가 시삭
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
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
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었느니라,
하니라.
6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
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
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7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
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
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 붓지 아니하리라.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
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리
라, 하셨더라.
9 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
을 치러 올라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빼앗아 가니라. 그가 모
든 것을 취하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으므로
10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의 집 입구를 지키
는 호위대 우두머리의 손에 맡기매
11 왕이 주의 집에 들어갈 때에 호
위병들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다시 호위대 방으로 가져갔더라.
12 그가 스스로 겸손히 행하매 주
께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사 그를
다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
에서도 일들이 좋아지니라.

르호보암 통치의 끝
(왕상14:21－22; 29－31)

13 ¶ 이처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
렘에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통치하
였는데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더라. 그가 예
루살렘 곧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
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
한 도시에서 십칠 년 동안 통치하였더
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14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15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
터 끝까지 대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
자 잇도가 만든 계보에 관한 *책에* 기록
되어 있지 아니하냐? 르호보암과 여로
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더
라.
16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
니라.

제 13 장

아비야의 유다 통치
(왕상15:1－8)

1 이제 여로보암 왕의 제십팔년에
아비야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2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통치하
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기
브아 출신인 우리엘의 딸 미가야더라.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싸움이 있
었는데
3 아비야는 용맹한 군사 곧 택한
사람 사십만 명과 함께 전투대형을
갖추고 여로보암도 강한 용사 곧 택한
사람 팔십만 명과 함께 그를 치려고
전투대형을 갖추니라.
4 ¶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너 여로
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
라.
5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
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6 그러하거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
나 자기 주를 배반하였으며
7 또 허영심 많은 자들과 벨리알의
자손들이 그에게 모여 자기들의 세력
을 강화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을 대적하였는데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8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아들들의
손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적하려고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
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
다.
9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 곧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위하여 다른 땅의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제사장들을 세우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
고 와서 자신을 구분하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신들이 아닌 자들의 제사장
이 될 수 있도다.
10 그러나 우리로 말하건대 주께
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
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요,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시중들며
11 그들이 아침저녁마다 주를 위해
태우는 희생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우
고 또한 깨끗한 상에 보여 주는 빵을
정돈해서 놓으며 또 등잔들이 달린
금 등잔대가 있어 저녁마다 불을 붙이

나니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느니라.
12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
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치려고 나팔을
불어 경고의 소리를 내느니라. 오 이
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
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
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13 ¶ 그러나 여로보암이 복병들을
그들의 뒤로 오게 하였으므로 저들은
유다 앞에 있었고 복병들은 그들 뒤에
있었더라.
14 유다가 뒤를 보니, 보라, 앞뒤에
싸움이 있으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
고 제사장들은 나팔로 소리를 내니
라.
15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
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
망하더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므로
17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저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 이에 이스라엘 중
에서 택한 사람 오십만 명이 죽어 쓰러
지니라.
18 이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로부터 도시들 곧 벧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여사나와 그것의 고을들과
에브라인과 그것의 고을들을 빼앗았
더라.
20 아비야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21 ¶ 그러나 아비야는 강성하게
되었으며 열네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스물두 명과 딸 열여섯 명을 낳았더
라.
22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길들과 그의 말들은 대언자 잇도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제 14 장

1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사의 유다 통치(왕상15:9－15)

2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
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3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
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4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
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
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6 ¶ 그가 유다에 성벽을 두른 도시
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
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7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
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
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
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
고 형통하였더라.
8 아사에게 유다에서 나와 큰 방패
와 창을 잡는 자 삼십만 명과 베냐민에
서 나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
는 자 이십팔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더
라.
9 ¶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
을 치려고 백만 명의 군대와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나아와 마레사에 이르

매
10 그때에 아사가 그를 치려고 나
가니라. 그들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
기에서 전투대형을 갖추고
11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
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
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
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
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12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매 에티오피
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13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랄
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매 에티
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힘을 회복
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주 앞에서
와 또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더
라. 그들이 노략한 물건을 심히 많이
가져가니라.
14 주의 두려움이 그랄 주변의 모
든 도시에 임하므로 그들이 그 도시들
을 치고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노략
하니 그 도시들 안에는 노략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 그들이 또 가축 천막을 친 뒤에
양과 낙타를 많이 사로잡고 예루살렘
으로 돌아왔더라.

제 15 장

아사의 개혁

1 하나님의 영께서 오뎃의 아들 아
사랴에게 임하시매
2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
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
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
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
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 왔으나
4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이스
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
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5 그때에는 나가는 자에게나 들어
오는 자에게 화평이 없었으며 단지
지방들의 모든 거주민 위에 큰 괴로움
이 임하였고
6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멸망하였
으며 또한 도시가 도시로 인해 그러하
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
들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8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
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
임 산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
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으며
9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
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모았는데 그
들이 주 곧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
게로 많이 돌아왔더라.
10 이처럼 아사의 통치 제십오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
이고
11 자기들이 가져온 노략물 중에
서 바로 그때에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주께 드리니라.
12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13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
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
니라.
14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매
15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

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
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
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
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
라.
16 ¶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
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 낸 뒤 짓밟아 기드
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17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
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
라.
18 ¶ 또 그가 자기 아버지가 봉헌
한 물건들과 자기가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집으
로 가져갔더라.
19 아사의 통치 제삼십오년까지 다
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제 16 장

아사가 시리아와 동맹을 맺음 (왕상15:16－22)

1 아사의 통치 제삼십육년에 이스
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로 들어가
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라마
를 건축하였더라.
2 이에 아사가 주의 집의 보고와
왕의 집의 보고에서 은과 금을 가져다
가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
에 맹약이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
에게 은과 금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
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
울이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치려고
자기 군대들의 대장들을 보내니 그들
이 이욘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장 도시를 치니라.
5 바아사가 그것을 듣고는 라마를
건축하기를 그만두고 자기의 일을 그
치니라.
6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를 취하였
고 그들이 바아사가 건축할 때에 쓰던
라마의 돌과 재목을 가져왔으므로 그
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
였더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7 ¶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
였나이다.
8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
이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
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9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
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
이 있으리이다, 하매
10 그때에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 집에 가두었더라.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격노하였
더라. 또 바로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병과 죽음(왕상15:23－24)

11 ¶ 보라,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
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12 아사의 통치 제삼십구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
하였더라.
13 ¶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사십
일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14 그들이 그가 다윗의 도시에 자

기를 위하여 만든 그의 돌무덤에 그를
묻고 또 약제사의 기술로 예비한 향수
와 여러 가지 향료를 가득히 채운 침상
에 그를 두고 또 그를 위하여 심히
크게 *향을* 태웠더라.

제 17 장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1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
하여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며
2 또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
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전에 취한 에브라임의
도시들에 수비대를 두었더라.
3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
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
니하고
4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
였기 때문이더라.
5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
에서 굳게 세우시매 온 유다가 여호사
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그가 많
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였더라.
6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되매 그가 또한 유다에서 산당들
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였더라.
7 ¶ 또 자신의 통치 제삼년에 그가
자기의 통치자들 곧 벤하일과 오바댜
와 스가랴와 느다네엘과 미가야에게 *사
람을* 보내어 유다의 도시들에서 가르
치게 하고
8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즉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
비야와 돕아도니야 등의 레위 사람들
을 보내며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
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10 ¶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에 임하므로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고
11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
아 사람들도 양 떼 곧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그에
게 가져왔더라.
12 ¶ 여호사밧이 심히 창대하게 되
어 유다에 성채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
축하고
13 유다의 도시들에서 많은 일을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군사들 곧 강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14 그들의 수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인 대장들 *중에는* 우두머리 아드나
가 강한 용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고
15 그 다음은 대장 여호하난인데
그가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으며
16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
야인데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주께
드렸더라. 그가 강한 용사 이십만 명
을 거느렸더라.
17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서 강한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 이십만 명을 거느렸고
18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더라. 그
가 싸움을 위해 예비한 자 십팔만 명을
거느렸더라.
19 이들이 왕을 섬겼으며 그들 외
에 또 왕이 두루 온 유다에서 성벽을
두른 도시들에 *군사들을* 두었더라.

제 18 장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함
(왕상22:1－28)

1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
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
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길르앗으
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
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그
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
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하리이
다, 하니라.
4 ¶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
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
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사백 명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
되, 우리가 라못길르앗으로 싸우러 가
랴, 아니면 내가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
니라.
6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
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여기
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나이까? 하매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르되,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를 향해 결코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
고 항상 나쁘게 대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바로 이믈라의 아
들 미가야이니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
서, 하니
8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직무 수행
자들 중의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
라, 하니라.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자기들의 의복을 입고 그들이 각각
자기 왕좌에 앉되 사마리아 성문 입구
의 빈 곳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대언을 하더라.
10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
기를 위해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
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것
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11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
언하여 이르기를, 라못길르앗으로 올
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
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12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
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대언자
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고하
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당신은 좋은 것을 말하소서, 하매
13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
서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
리라, 하니라.
14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
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길르
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내가 삼
가랴? 하매 그가 이르되, 당신들은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그분께서* 그들
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
15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하매
16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
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
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르되, 그가 나를 향해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내
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
까? 하매
18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
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
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19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스라
엘 왕 아합을 꾀어내어 그가 올라가
라못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

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
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20 그때에 한 영이 나아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꾀어내겠나
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21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
시되, 너는 그를 꾀어내겠고 또 이기
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
이다.
22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23 그때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
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24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네가 안
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하니라.
25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되,
너희는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
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다
시 끌고 가서
26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27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대 주께서 나를 통
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모든 백성들아, 너희
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아합의 죽음(왕상22:29－40)

28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니
라.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려니
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
고 그들이 싸우러 가니라.
30 이제 시리아 왕이 자기와 함께한
병거의 대장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말
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
라, 하니라.
31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
고 이르되,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
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둘러싸
고 싸우려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매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
서 떠나게 하시니라.
32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33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
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
은즉 너는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
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34 그 날에 싸움이 더 커졌으나 이
스라엘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저녁때
까지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제 19 장

여호사밧의 추가 개혁
(왕상15:1－8)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
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르니라.
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
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
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
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서 선
한 일들도 발견되었으니 곧 왕이 작은
숲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구하였나이다, 하
였더라.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
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들을 주 그들의 조상들
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니라.
5 ¶ 또 그가 그 땅에서 유다의 성벽
을 두른 모든 도시에 재판관들을 세우
되 도시마다 그리하고
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
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나니 재판할 때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7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
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8 ¶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올 때에 여호사밧이 또한 예루살렘에
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
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의 재판을 행하게
하며 분쟁들을 다루게 하고
9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
희는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
라.
10 자기 도시에 거하고 있는 너희
형제들로부터 피와 피 사이에서 혹은
율법과 명령 및 법규와 판단의 법도
사이에서 무슨 사정이든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주께 범법하지 않게 하고 이
로써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범법하지 아니하리
라.
11 보라, 주께 속한 모든 일에서는
수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위해서는 유다
의 집 치리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
가 *다스리며* 또한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직무 수행자가 되리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하실지로다, 하니라.

제 20 장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패배

1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
므로
2 그때에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
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
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
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매
4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
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
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5 ¶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6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
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
니시니이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
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
이까?
7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이까?
8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9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
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에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
다.
10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
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
지 아니하였거늘
11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
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자 하나이다.
12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
나이다, 하고
13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
라.
14 ¶ 그때에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브나야
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맛다
니야의 사대 손이더라.
15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
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
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
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16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
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
리라.
17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
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열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
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
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
라, 하매
18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
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
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19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
이 찬양하니라.
20 ¶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
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
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
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21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
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
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22 ¶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
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
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
라.
23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
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24 유다가 광야의 파수 망대에 이
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
지 못하였더라.
25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
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에 그 시체
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
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
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
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26 ¶ 넷째 날 그들이 브라가 골짜
기에 모였으니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

로 이 날까지 바로 그곳의 이름은 브라
가 골짜기라 불렸더라.
27 그때에 그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
여 기뻐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을 누르고 기뻐하게 하
셨기 때문이더라.
28 그들이 비파와 하프와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
으로 가니라.
29 그 지역들의 모든 왕국이 주께
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30 이처럼 여호사밧의 영토가 평온
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여호사밧 통치의 끝
(왕상22:41－50)

31 ¶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였
는데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
가 삼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실히의 딸 아수바더라.
32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
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
으나
33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
니 이는 아직까지 백성이 자기 조상들
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더라.
34 보라, 이제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
들 예후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언급되어 있
느니라.
35 ¶ 이 일 뒤에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연합하였
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더라.
36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
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만들
었더니
37 그때에 마레사 출신으로 도다바
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
해 대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
들을 부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배
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 21 장

여호람의 유다 통치
(왕상22:50; 왕하8:16－24)

1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2 그에게 형제들 곧 여호사밧의 아
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사랴와 여
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댜더라. 이들은 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더라.
3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여호람은 맏*아들*이므로 왕국을 그에
게 주었더라.
4 그런데 여호람이 일어나 자기 아
버지의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
라엘 통치자 중의 여러 명을 칼로 죽였
더라.
5 ¶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삼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팔 년 동안 통치하니라.
6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아합의 집이 행한 것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7 그러나 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
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등불을 주
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더라.

8 ¶ 그의 시대에 에돔 족속이 배반
하여 유다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 스스
로 왕을 세웠으므로
9 그때에 여호람이 자기의 통치자
들과 자기에게 있던 모든 병거를 거느
리고 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족속과 병거의 대장들을 쳤더라.
10 이처럼 에돔 족속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 날까지
이르렀으며 바로 그때에 립나도 배반
하여 그의 손 밑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
기 때문이더라.
11 또한 그가 유다의 산들에 산당
들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
금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유다를 억지로
그리하게 하였더라.
12 ¶ 대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글
을 보내어 이르되, 주 곧 네 조상 다윗
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들과 유다 왕
아사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13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아합의 집이 행음한 것 같이
음행의 길로 가게 하고 또 네 아버지
집의 네 형제들 곧 너보다 선한 자들을
죽였으니
14 보라, 주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
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15 또 너는 창자의 질환으로 큰 병
에 걸리고 마침내 그 병으로 인해 날마
다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16 ¶ 또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
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
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사 여호
람을 치게 하시니
17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로 들어와
그곳을 침범하고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재물과 또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
도 데려갔으므로 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
도 결코 그에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18 ¶ 이 모든 일 뒤에 주께서 그를
치사 그의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하셨으므로
19 시간이 흘러 이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인해 빠져나
오매 이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 같이 그를 위해 *향을* 태우지
아니하였더라.
20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
이가 삼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팔 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 가운데 떠났더라.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
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두지는
아니하였더라.

제 22 장

아하시야의 유다 통치
(왕하8:25–29; 9:14–16; 27–29)

1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여호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전에 아라비아 사람
들과 함께 진영에 이른 사람들의 무리
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을 다 죽였
더라. 이처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니라.
2 아하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사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오므리의 딸 아
달랴더라.
3 그 역시 아합의 집의 길들로 걸었
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자
가 되어 악하게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
이라.
4 그러므로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아
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
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들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더
라.
5 ¶ 그가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
람과 함께 가서 라못길르앗에서 시리

아 왕 하사엘과 싸웠는데 시리아 사람
들이 요람을 치므로
6 그가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
가 라마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예스르
엘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병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예스
르엘에서 그를 보려고 내려갔더라.
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써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더라.
그가 갈 때에 주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
기 위해 기름을 부으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치려고 여호람과 함께 나갔더
라.
8 예후가 아합의 집에 심판을 집행
할 때에 유다의 통치자들과 아하시야
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
기던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죽였더
라.
9 그가 아하시야를 찾았더라. (그
가 사마리아에 숨었으므로) 그들이 그
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려가 죽이고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는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던 여호사밧
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처럼 아하시야의 집이 왕국을 그대로
지킬 힘도 없게 되니라.

아달랴의 유다 통치
(왕하11:1－3)

10 ¶ 그러나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
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 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이처럼 여호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이 (그
녀는 아하시야의 누이였더라.) 아달랴
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12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에 육 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제 23 장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됨
(왕하11:4－12)

1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자기 세
력을 강화하고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
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
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
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
리사밧을 취해 자기와 언약을 맺게
하매
2 그들이 유다에서 두루 다니며 유
다의 모든 도시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을 모으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
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
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
하여야 하리라.
4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곧
너희 중에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들
의 삼분의 일은 문지기가 될지니라.
5 또 삼분의 일은 왕의 집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를 둔 문에 있으며
온 백성은 주의 집 뜰에 있을지니라.
6 오직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섬기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주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
은 거룩하므로 들어오려니와 온 백성
은 주를 위해 파수를 볼 것이며
7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사방으로 왕을 에워싸며 누구든
지 그 집에 들어오거든 죽일 것이로되
너희는 왕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왕과
함께할지니라, 하니라.
8 이처럼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대
로 행하여 각각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
에 들어올 자들과 안식일에 나갈 자들
을 취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
가 계열대로 나갈 자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9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집에 있던 다윗 왕의 창들과 큰 방패들
과 작은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넘겨주고
10 또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손
에 병기를 잡고 왕 주위에 서게 하되
*성*전의 오른쪽에서부터 *성*전의 왼쪽
까지 제단과 *성*전 옆에 서게 하니라.
11 그때에 그들이 왕의 아들을 데
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
*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을 때에 여호
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국왕 폐하 만세, 하니
라.

아달랴의 죽음
(왕하11:13－20)

12 ¶ 이제 아달랴가 백성이 달려
가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의
집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13 보매, 보라, 왕이 입구에 있는
자기 기둥 옆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왕 옆에 섰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여 나팔로 소리를
내고 또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
하는 것을 배운 자들은 악기로 연주하
니라. 그때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
매
14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
위에 세운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녀를 구역 밖으로
몰아내고 누구든지 그녀를 따르는 자
는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그 제사장
이 말하기를, 주의 집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 하였더라.
15 이에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대
되 그녀가 왕의 집 옆의 말(馬) 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그녀를 죽였더라.
16 ¶ 여호야다가 자기와 온 백성
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니
17 그때에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
로 가서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며 제단들 앞에
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18 또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 제사장
들의 손으로 주의 집의 직무 수행자들
을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다윗이 전에
주의 집에서 *계열대로* 나누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다윗이 정해 준 대로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던 자들이더라.
19 또 그가 문지기들을 주의 집의
문들에 두어 어떤 것에서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20 백인 대장들과 고귀한 자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주의 집에서부터 왕
을 모시고 내려오니라. 그들이 높은
문을 통해 들어와 왕의 집에 이르러
왕을 왕국의 왕좌에 앉히매
21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니라.
그들이 아달랴를 칼로 죽인 뒤에 그
도시가 평온해졌더라.

제 24 장

요아스의 성전 보수
(왕하11:21－12:16)

1 요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칠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
니의 이름은 또한 브엘세바의 시비아
더라.
2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요
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
하였으며
3 여호야다가 그를 위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가 아들딸들을 낳았더
라.
4 ¶ 이 일 뒤에 요아스가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을 품고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은 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
다의 도시들로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서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집을 보수할
돈을 거두되 주의하여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그 일

을 빨리 하지 아니하므로
6 왕이 우두머리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의 종 모세의 명령과
이스라엘 회중의 *명령*에 따라 증거의
성막을 위해 모은 돈을 유다와 예루살
렘에서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아니하
였느냐? 하였으니
7 이는 저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
들이 하나님의 집을 부수고 또 주의
집의 모든 봉헌물을 바알들에게 바쳤
기 때문이더라.
8 왕의 명령대로 그들이 궤 하나를
만들어 주의 집 문 밖에 두고
9 유다와 예루살렘에 두루 선포하
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
라엘에게 부과한 것 즉 모은 돈을 주께
가져오게 하였더니
10 모든 통치자와 온 백성이 기뻐
하며 끝마칠 때까지 *그것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11 이제 레위 사람들의 손으로 그
궤를 왕의 관청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 많은 돈이 있음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직무 수행
자가 와서 그 궤를 비우고 그것을 취하
여 다시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었더
라. 그들이 날마다 이와 같이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의
집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고 석공과 목수를 고용하여 주의
집을 보수하며 또 쇠와 놋으로 일하는
자들도 고용하여 주의 집을 고치게
하였더니
13 이에 기술자들이 일하여 그 일
을 완전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의 집을 그것의 *원래* 상태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니라.
14 그들이 그 일을 끝마친 뒤에 남
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
으므로 그 돈으로 주의 집에서 쓸 그릇
들을 만들었으니 곧 섬기고 바치는
데 쓰는 그릇들과 또 숟가락들과 금은
그릇들이더라.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의 집에서 항상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요아스의 배도

15 ¶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날
들이 차서 죽으니라.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삼십 세더라.
16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왕
들 가운데 묻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
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17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매 그때에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18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의 집을 버리고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의 이 범법으로 인하
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
라.
19 그럼에도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다시 자신에
게 데려오도록 하셨으므로 대언자들
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들
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20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
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
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
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
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21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22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그의 아
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
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주께
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옵소서, 하니라.

요아스의 죽음(왕하12:19－21)

23 ¶ 그 해가 끝날 때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

성의 모든 통치자를 멸하고 그들에게
서 노략한 모든 물건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로 보내니라.
24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적은
무리의 사람들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이처럼 그들
이 요아스를 치고 심판을 집행하니라.
25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큰
병을 앓는 그를 남겨 두었으므로) 그
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들의 피로 인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의 침상에서 그를 살해하니
그가 죽으니라.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묻
지는 아니하였더라.
26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
들은 이들이니 곧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예호사밧이더라.
27 ¶ 보라, 이제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임한 크고 엄중한 부담들과
하나님의 집을 보수한 일은 왕들에 관
한 책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통
치하니라.

제 25 장

아마샤의 유다 통치 (왕하14:1-6)

1 아마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
에서 이십구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
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호
앗단이더라.
2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 ¶ 이제 왕국이 자기에게 굳게
서매 그가 왕이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신하들을 죽였으나
4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
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
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에돔과의 전쟁(왕하14:7)

5 ¶ 또 아마샤가 유다를 함께 모으
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그들
을 위해 온 유다와 베냐민에 두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으며 또
스무 살이 넘은 자들의 수를 세어 창과
방패를 다루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곧 택한 자 삼십만 명을 얻었고
6 또 은 백 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강한 용사 십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7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
서. 주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8 그러나 왕이 만일 가서 그 일을
하시려거든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강하
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
이다, 하매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르되, 그러나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
에게 준 백 달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대
답하되,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
10 그때에 아마샤가 그들 곧 에브라
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분리
하여 집으로 다시 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분노가 유다를 향해 크게 타오
르매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11 ¶ 아마샤가 자기 세력을 강화
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소금 골짜
기에 가서 세일 자손 만 명을 쳤고
12 유다 자손이 또 살아남은 다른
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

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 바위 꼭대
기에서 그들을 내던지매 그들이 다
산산조각 났더라.
13 ¶ 그러나 아마샤가 자기와 함
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
낸 군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
터 벧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도시
들을 덮치고 그들 중에서 삼천 명을
치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14 ¶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살육하고 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것
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하니라.
15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아마샤를
향해 타오르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
되, 그 백성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
을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 내지 못하였
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
였나이까? 하니라.
16 그가 왕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
에게 이르되, 네가 왕의 조언자가 되
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네가 맞으
려 하느냐? 하매 이에 대언자가 그치
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
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김
(왕하14:8－14)

17 ¶ 그때에 유다 왕 아마샤가 권
고를 받아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
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
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
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에게 *전갈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 딸
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 하였더
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9 보라, 네가 에돔 족속을 쳤다고
말하며 네 마음이 너를 높여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집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네가 화를 입으려고 간섭하
여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
려 하느냐? 하였으나
20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
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
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
게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그
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더
라.
21 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
오매 그들 곧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에 속한 벧세메스에서 서로 대면
하였는데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니
라.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
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
살렘 성벽을 헐되 에브라임 문에서부
터 모퉁이 문까지 사백 큐빗을 헐며
24 또 오벧에돔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서 찾은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그릇
을 취하고 또 왕의 집 보물을 취하며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
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죽음(왕하14:17－20)

25 ¶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
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유다 왕 요아
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오 년을 더 살았
더라.
26 보라, 이제 아마샤의 나머지 행
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
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냐?
27 ¶ 이제 아마샤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킨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
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
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나 그
들이 그를 따라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28 그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
들과 함께 유다의 도시에 묻었더라.

제 26 장

웃시야의 유다 통치
(왕하14:21－22; 15:1－3)

1 그때에 유다의 온 백성이 웃시야
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 대신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나이가 십육
세더라.
2 그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고 유다에 그
것을 복귀시켰더라.
3 웃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십육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오십이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예루살렘의 여
골리아더라.
4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5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6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
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변
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도시들을
건축하매
7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므후님 사람들을 치게 하시
므로
8 암몬 족속이 웃시야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그가 자기 세력을 심히 강
화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
구에까지 널리 퍼졌더라.
9 또 웃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모퉁
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구부러지
는 곳에 망대들을 세워 그것들을 견고
하게 하며
10 또 사막에 망대들을 세우고 많
은 우물을 팠으니 이는 그가 저지대
지방과 평야에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
기 때문이라. 또 *그가* 산들과 갈멜에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었더라*.
그는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11 또 웃시야에게 싸우는 사람들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곧 서기관
여이엘과 치리자 마아세야의 손으로
보고한 수효대로, 왕의 대장들 중의
하나인 하나냐의 손 밑에서 떼를 지어
싸우러 나간 자들이라.
12 강한 용사들의 아버지들의 우
두머리들의 전체 수는 이천육백 명이
요,
13 그들의 손 밑의 군대는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더라.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싸우며 왕을 도와 원수를 쳤더
라.
14 웃시야가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그들을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과 활과 돌을 던지는 무릿매들을 예비
하였고
15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 있는 사람
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멀
리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웃시야의 교만에 대한 형벌
(왕하15:4－7)

16 ¶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
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
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17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 그들이 웃시야 왕을 막으며 그
에게 이르되, 웃시야여, 주께 분향하
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
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
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
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라.

19 그때에 웃시야가 화를 내며 분
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
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20 수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
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
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
내었고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참으
로 그도 속히 나가니라.
21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
부터 차단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
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22 ¶ 이제 웃시야의 나머지 행적
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 이처럼 웃시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왕들에게 속한
매장지 밭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는 나병 환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
하니라.

제 27 장

요담의 유다 통치 (왕하15:32－38)

1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
이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독의 딸 여루
사더라.
2 그가 자기 아버지 웃시야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주의 성전에는 들어
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정
하게 행하였더라.
3 그가 주의 집의 높은 문을 건축하
고 또 오벨의 벽에 많은 것을 건축하며
4 또 유다의 산들에 도시들을 건축
하고 숲 속에 성채들과 망대들을 건축
하니라.
5 ¶ 또한 그가 암몬 족속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바로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그에게 주었고
또 둘째 해와 셋째 해에도 암몬 자손이
그 만큼을 그에게 바쳤더라.
6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
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
하게 되었더라.
7 ¶ 보라, 이제 요담의 나머지 행
적과 그가 치른 모든 전쟁과 그의 길들
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
록되어 있느니라.
8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
가 이십오 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니라.
9 ¶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대신
하여 통치하니라.

제 28 장

아하스의 유다 통치(왕하16:1－4)

1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의 눈앞
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
니
2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걸
었으며 또 바알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었더라.
3 또 그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서 분향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
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
들을 본받아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우고
4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유다를 이김 (왕하16:5－6; 사7:1)

5 그러므로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

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들
이 그를 치고 그들 중에서 큰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끌고
갔으며 또 *그분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
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크게 살육하
며 그를 쳤더라.
6 ¶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
나님을 버렸으므로 르말랴의 아들 베
가가 유다에서 하루에 십이만 명을
죽였는데 이들은 다 용맹한 자들이
더라.
7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
의 아들 마아세야와 그 집을 다스리는
자 아스리감과 왕 다음가는 자인 엘가
나를 죽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들 중
에서 이십만 명을 여인들과 아들딸들
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또 그들
에게서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
아로 그 노략물을 가져가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들을 돌려보냄

9 그러나 거기에 주의 대언자가 있
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뎃이더라. 그가
사마리아에 다다른 군대 앞으로 나가
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
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
셨거늘 너희가 하늘에까지 닿은 격노
로 그들을 죽이고
10 이제 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밑에 두어 너희를 위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으려 하는도
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곧 너희에게
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
냐?
11 그런즉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
가 너희 형제들 중에서 포로로 사로잡
아 온 포로들을 다시 넘겨주라. 주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있느니라,
하니라.
12 그때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
리 중에서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서서 전쟁에서 돌
아온 자들을 막으며
1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포
로들을 여기로 들여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전에 주께 죄를 지었거니와
너희가 이제 우리의 죄들과 범법에
더 더하려 하는도다. 우리의 범법이
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
가 있느니라, 하니라.
14 이에 무장한 사람들이 포로들
과 노략한 물건을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두니
15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이 일어
나서 포로들을 데려가 노략한 물건으
로 그들 가운데 벗은 모든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차려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발라 주고
그들 중에서 연약한 모든 자는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로, 그들의
형제들에게로 데려다 주고 그 뒤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시리아가 유다를 돕기를
거부함(왕하16:7-9)

16 ¶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돕게
하였으니
17 이는 에돔 족속이 다시 와서 유
다를 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이라.
18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저지대
지방과 남부 도시들을 침략하여 벧세
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것의 마을들과 딤나와 그것의 마을들
과 또 김소와 그것의 마을들을 빼앗고
거기 거하였으니
19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
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고 또 주께 크게
범법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더라.
20 아시리아 왕 딜갓빌네셀이 그에
게 이르러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강하
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21 아하스가 주의 집과 왕의 집과
통치자들에게서 일부를 취하여 아시
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그가 그를 돕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스의 배도와 죽음
(왕하16:12－20)

22 ¶ 그는 고난당할 때에 주께 더
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
스 왕이니라.
23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이르되,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
므로 나도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려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4 아하스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
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
을 산산조각 내며 또 주의 집 문들을
닫고 또 자기를 위해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에 제단들을 쌓으며
25 유다의 모든 떨어진 도시에 산
당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
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26 ¶ 보라, 이제 그의 나머지 행적
과 그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
되어 있느니라.
27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도시에 곧 예루살
렘에 묻었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돌무
덤에 들여 놓지는 아니하니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
하니라.

제 29 장

히스기야의 유다 통치(왕하18:1－3)

1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가랴의 딸 아
비야더라.
2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함

3 ¶ 그가 자기의 통치 제일년 첫째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어 그것들을
보수하고
4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
려다가 동쪽 거리로 함께 모은 뒤
5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
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주 너희 조상들
의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
라.
6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
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며 등을 돌리고
7 또 주랑의 문들을 닫으며 등잔들
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께 분향하지 아니하며 또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8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
루살렘에 임하였고 너희가 너희 눈으
로 보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고난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
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9 보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조상
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딸들과
아내가 포로가 되었느니라.
10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
약을 맺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
에게서 돌이키게 하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니
11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 하지
말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
신 앞에 서서 자신에게 봉사하게 하시
고 이로써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향
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12 ¶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
나니 곧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아마새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압디
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
랴와 게르손 족속 중에서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13 엘리사반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
리와 여이엘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와 맛다니야와

14 헤만의 아들들 중에서 여히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스
마야와 웃시엘이더라.
15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모
으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뒤에 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들에 의거
하여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16 제사장들도 주의 집 내부로 들
어가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성전
에서 발견한 부정한 모든 것을 끌어내
어 주의 집의 뜰로 가져가매 레위 사람
들이 그것을 취하여 밖으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17 이제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거룩히 구별하기 시작하여 그 달 팔일
에 주의 주랑에 이르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여드레 동안 주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첫째 달 십육일에 이르러
끝마치고
18 그 뒤에 안으로 들어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우리가 주의
집 전체와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보여 주는 빵을 차려 놓는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하였고
19 또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범
법하며 내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예비하고 거룩히 구별하였나이다. 보
소서, 그것들이 주의 제단 앞에 있나
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회복함

20 ¶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도시의 치리자들을 모으고 주
의 집에 올라가니
21 그들이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숫염
소 일곱 마리를 가져다가 왕국과 성소
와 유다를 위하여 죄 헌물로 삼으니
라. 그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
게 명령하여 주의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게 하니라.
22 이에 그들이 수소들을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 위에
뿌리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숫양들을
잡으매 그들이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
며 또 그들이 어린양들도 잡으매 그들
이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니라.
23 그들이 죄 헌물로 드릴 숫염소
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
이 그것들에게 안수하고
24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제
단 위에 드린 그것들의 피로 화해를
이루며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였
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을 위해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드리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25 그가 레위 사람들을 주의 집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대언자
나단의 명령에 따라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잡게 하였으니 주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이같이 명령하셨
더라.
26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들을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서매
27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 헌물
을 제단 위에 드리게 하니라. 번제
헌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나팔과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한 악기와
더불어 주의 노래가 시작되니라.
28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 헌물 드리는 일을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하니라.
29 그들이 헌물 드리는 일을 마치
매 왕과 및 왕과 함께 있던 모든 자가
엎드려 경배하니라.
30 또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
견자 아삽의 말들로 노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31 그때에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
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
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가까이
나아와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매 회중이 희생
물과 감사 헌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 헌물을 가져오
니라.

32 회중이 가져온 번제 헌물의 수
는 수소가 칠십 마리요, 숫양이 백
마리요, 어린양이 이백 마리였는데
이것들은 다 주께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이었더라.
33 또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것들
은 소가 육백 마리요, 양이 삼천 마리
더라.
34 그러나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어 그들이 그 모든 번제 헌물의 가죽
을 능히 벗기지 못하므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또 다른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을 거룩
히 구별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으니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
기 위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이 올발
랐더라.
35 또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기름과 모든 번제 헌물에 쓸 음료 헌물
이 많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질서 있게 정해지니라.
36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
서 미리 백성을 예비하신 것을 기뻐하
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
기 때문이더라.

제 30 장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킴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2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
의 온 회중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
려고 의논하였으니
3 이는 제사장들이 충분하게 자신
을 거룩히 구별하지 못하였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으므
로 그들이 그때에 그것을 지킬 수 없었
기 때문이더라.
4 왕과 온 회중이 그 일을 기뻐하였
으므로
5 이에 그들이 법령을 제정하고 브
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두루 선포하여 그들이 와
서 예루살렘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그
런 식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 이처럼 파발꾼들이 왕과 그의 통
치자들에게서 편지를 받고 왕의 명령
에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아, 너희는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
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남은
자들 곧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피한
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
7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들같이 되지 말라.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
였으므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분
께서 그들을 황폐함에 넘겨주셨느니
라.
8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같이 목
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거룩
히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 너희가 만일 주께로 다시 돌아오
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그들
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
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
고 긍휼이 많으시므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10 이처럼 파발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
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
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
세와 스불론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
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들에게 한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더라.
13 ¶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
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것은 심히 큰 회중이더라.
14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
던 제단들과 모든 분향 제단들을 제거
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15 그때에 둘째 달 십사일에 유월
절 어린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거룩
히 구별하고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이르러
16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
라 자기들의 관례대로 자기들의 처소
에 서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렸더라.
17 이는 회중 가운데 거룩히 구별
되지 않은 자들이 많으므로 레위 사람
들이 부정한 모든 사람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고 그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책무를 맡았기 때문이더
라.
18 백성의 무리 곧 에브라임과 므낫
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기록된 것과 달리 유월절 어린양을
먹었으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
도하며 이르되, 선하신 주께서 모든
자
19 곧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소의 정결례대로 정결
하게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용서하
시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20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1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
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
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주께 노래하였고
22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명
절 내내 이레 동안 먹으며 화평 헌물을
드리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23 전체 집회가 또 다른 이레를 지
키기 위해 의논하고 그들이 또 다른
이레를 즐겁게 지켰더라.
24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소 천 마
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통치자들이 수소 천 마리와 양 만 마리
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많은 수의 제사
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였더라.
25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타국인
들과 유다에 거한 타국인들이 기뻐하
였으므로
26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의 때로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27 ¶ 그때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
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
한 거처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 31 장

히스기야의 개혁(왕하18:4)

1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유다의 도
시들에 이르러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
고 작은 숲들을 베어 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마침내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뒤에 이스라
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소유
로, 자기의 도시로 돌아갔더라.
2 ¶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
정해 주고 각 사람의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 문들에서 섬기고
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고

3 또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재산 중에서 번제 헌물 곧 아침과 저녁
의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로 쓸 왕의
몫을 지정하고
4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
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니라.
5 ¶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
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
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6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
엘과 유다 자손들에 관한 한 그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의 십일조를 가져와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았는데
7 그들이 셋째 달에 그 무더기들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그것들을 마치매
8 히스기야와 통치자들이 와서 그
무더기들을 보고 주를 찬송하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니라.
9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 무더기들
에 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게 물으니
10 사독의 집에 속한 수제사장 아사
랴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헌물을 주의 집에 가져오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많이
남겼나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남은 것이 이처럼
많이 쌓였나이다, 하니라.
11 ¶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주의 집에 방들을 예비하게 하므로
그들이 방들을 예비하였으며
12 신실하게 헌물과 십일조와 봉
헌한 물건들을 가져왔더라. 레위 사람
고노냐는 그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자
가 되고 그의 동생 시므이는 그 다음이
되며
13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
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히스기
야 왕과 하나님의 집의 치리자 아사랴
의 명령에 따라 고노냐와 그의 동생
시므이의 손 밑에서 감독하는 자가
되니라.
14 또 동쪽 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
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헌물을 맡아 주께 드리는 봉헌물과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으
며
15 그 다음으로 제사장들의 도시
들에서 자기들에게 정해 준 직무를
맡아 자기 형제들에게 계열대로 주되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에게도 준 에덴
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
와 스가냐가 있었더라.
16 *이들이* 세 살이 넘어 계보에 기
록된 남자들 외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계열에 따라 책무를 맡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며*
17 또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
라 계보에 오른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스무 살이 넘어 자기 계열대로 책무
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며*
18 또 온 회중을 두루 거쳐 계보에
오른 그들의 모든 어린것들과 아내들
과 아들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들
이 자기들에게 정해진 직무를 맡아
거룩한 가운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
였기 때문이더라.
19 또 자기들의 도시들의 주변 지
역의 들에 있던, 아론의 아들들인 제
사장들에게는 모든 도시에서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이 제사장들 가운데 모
든 남자와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보대
로 계수된 모든 자에게 몫을 주었더
라.
20 ¶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
이같이 행하되 주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
니
21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
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

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제 32 장

산헤립이 주를 향해 자랑함
(왕하18:13－19:34; 사36:1－22)

1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아시
리아 왕 산헤립이 와서 유다로 들어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향해 진을 치고
자기를 위해 그 도시들을 얻으려고
생각하니라.
2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과 싸우
려고 작정한 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3 도시 밖에 있던 샘물을 막으려고
자기의 통치자들과 용사들과 의논하
매 그들이 그를 돕더라.
4 이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
를 막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아시리아
의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
요? 하니라.
5 또 그가 자기 세력을 강화하며
무너진 모든 성벽을 건축하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높이 쌓고 또 밖으
로 다른 벽을 쌓으며 다윗의 도시에
있던 밀로를 보수하고 작은 창과 방패
를 많이 만들며
6 전투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
리게 하고 도시의 문 거리에서 자기에
게로 그들을 함께 모으며 위로하는
말로 그들에게 이르되,
7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
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8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
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백성이 유
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
니라.
9 ¶ 이 일 뒤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
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었
으나 (자기는 직접 자기의 온 병력과
함께 라기스를 에워싸고 있었더라.)
그가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던 온 유다에게 이르기를,
10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이같이 말
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에워싸
여 있으면서 무엇을 신뢰하느냐?
11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
서 건져 내시리라, 하면서 너희를 넘
겨주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
려고 너희를 설득하지 아니하느냐?
12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
과 그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
희는 한 제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 나와 내 조상들이 다른 땅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땅들의 민족들의
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었느냐?
14 내 조상들이 진멸한 그 민족들
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능히 자기 백성
을 내 손에서 건져 낼 자가 누가 있었
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15 그런즉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너희를 속이거나 설득하지 못
하게 하라. 또 여전히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민족이나 왕국의 신도 능
히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하였더라.
16 또 그의 신하들도 여전히 주 하
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
방하니라.
17 그가 또 편지를 써서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을 비방하
여 이르기를, 다른 땅들의 민족들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리라, 하고

18 그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말로
성벽 위에 있던 예루살렘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도시를 점령하려 하였
는데
19 그들이 땅의 백성들의 신들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비방하듯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산헤립의 패배와 죽음(왕하19:35－37)

20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
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
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니라.
21 ¶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매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
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
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수치스러운 얼
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배 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22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
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산헤립
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
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매
23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
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므로 이후
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춤
(왕하20:1－11; 사38:1－8)

24 ¶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매 그분
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25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
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
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
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
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
라.

히스기야의 재산과 명예
(왕하20:12－21; 사39:1)

27 ¶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재물
과 명예를 소유하였으므로 자기를 위
해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보물을 둘 보고
들을 만들었고
28 또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불
어난 소출을 둘 저장 창고들을 만들었
으며 온갖 종류의 짐승을 둘 외양간들
을 만들고 양 떼를 둘 양 우리들을
만들었더라.
29 또 그가 자기를 위해 도시들을
예비하고 많은 양 떼와 소 떼를 소유하
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심
히 많이 주셨더라.
30 바로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위 물줄기를 막아 그것을 곧게 아래
로, 다윗의 도시 서쪽 편으로 가게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일
에서 형통하였더라.
31 ¶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히스기야의 죽음

32 ¶ 보라, 이제 히스기야의 나머
지 행적과 그의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의 환상 *계시*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
되어 있느니라.
33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의
돌무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
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
여 통치하니라.

제 33 장

므낫세의 유다 통치(왕하21:1－9)

1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서 오십오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2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
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
였더라.
3 ¶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4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
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
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곳이더라.
5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
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
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
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
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7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스라엘의 모든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
리라.
8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을 내
가 너희 조상들에게 정해 준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모세의 손
으로 준 온 율법과 법규와 규례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그들
이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신 곳이더
라.
9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
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
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
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더라.

므낫세의 회개와 회복

10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11 ¶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시
매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
으로 끌고 가니
12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
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13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
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
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을 알았더라.
14 이제 이 일 뒤에 그가 다윗의
도시 밖으로 기혼의 서쪽 편 골짜기에
성벽을 쌓아 물고기 문 입구까지 이르
게 하고 오벨 주변을 에워싸며 그것을
심히 높이 올리고 또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전투 대장들을 두며
15 주의 집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
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주의 집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제*
거하고 그것들을 도시에서 끄집어내
어 버리며
16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평 헌
물과 감사 헌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며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
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
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되 오
직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만 드렸더라.

므낫세의 죽음(왕하21:17－18)

18 ¶ 보라, 이제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자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와 선견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
고
19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범법과 그가 자신을 낮추기
전에 산당들을 짓고 작은 숲들과 형상
들을 세운 곳들이 선견자들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느니라.
20 ¶ 이처럼 므낫세가 자기 조상
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그의
집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몬의 통치와 죽음(왕하21:19－26)

21 ¶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이십이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이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22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
으니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
든 조각한 모든 형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그것들을 섬기며
23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기를
낮춘 것 같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더 범법하였더
라.
24 그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의 집에서 그를 죽이
니라.
25 ¶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아몬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으니라.

제 34 장

요시야의 유다 통치(왕하22:1－2)

1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팔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통치하며
2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
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
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
하였더라.
3 ¶ 그가 아직 어릴 때에 곧 자기
의 통치 제팔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또 제십이
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
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4 그들이 그의 앞에서 바알들의 제
단들을 헐었으며 또 그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달린 형상들을 찍어서 떨어
뜨리고 또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
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며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그것
을 뿌리고
5 또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들 위에서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
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6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심지어 납달리의 도시들에서도 그들
의 곡괭이로 사방에서 그와 같이 행하
였더라.
7 그가 제단들과 작은 숲들을 허물
며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있던 모든 우상
을 찍어 버린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더라.

힐기야가 율법 책을 발견함
(왕하22:3－20)

8 ¶ 이제 그가 자기의 통치 제십팔
년에 그 땅과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주 자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아살리야의 아들 사반과 그 도시의 감
독자 마아세야와 기록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매
9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
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넘겨주
었는데 이 돈은 문들을 지킨 레위 사람
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남아 있는 모든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
민의 손에서 거둔 것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0 주의 집을 감독하던 기술자들
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니 그들이 주의
집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을 보수하여 고치게 하되
11 곧 장인들과 건축자들에게 그
것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하는 나무
를 사며 또 유다 왕들이 헐어 버린
집들의 바닥을 깔게 하매
12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들의 감독자들은 레위 사람
곧 므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과 오
바댜요,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와 므술람이더라. *그들이* 그 일
을 진행시켰으며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자 곧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니라.
13 그들이 또 짐 나르는 자들을 감
독하며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일을 한 모든 자들의 감독이 되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서기관과
직무 수행자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14 ¶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온 돈
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
가 전해 준 주의 율법 책을 발견하고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응답
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그 책을 사
반에게 넘겨주매
16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가
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왕의 종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그들
이 행하였나이다.
17 또 그들이 주의 집에서 찾은 돈
을 함께 모아 감독하는 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
고
18 그때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
게 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매
19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
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
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
아 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
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
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2 힐기야와 왕이 지명한 사람들이
여대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
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인 살룸의 아내
더라. (이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역에 거하
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런 취지
로 말하니라.
23 ¶ 그녀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
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너희는 고하되,
24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
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25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26 또 너희를 보내어 주에게 여쭙
게 한 유다 왕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에
게 이같이 말하되, 네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27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
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네가 들을
때에 네 마음이 연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
노라. 주가 말하노라.
28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
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네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바로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내
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
라, 하라, 하매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요시야가 참 예배를 회복함
(왕하23:1－20)

29 ¶ 그때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30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제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함께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31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
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
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
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32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하
매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하나님 곧 자
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니라.
33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
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
들로 하여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
게 곧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
하였더라.

제 35 장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킴 (왕하23:21－23)

1 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키니 그들이 첫째 달 십사
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라.
2 그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책무
를 맡기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고
3 또 주께 거룩한 자들 곧 온 이스라
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
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에 두라. 그것
이 너희 어깨의 짐이 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지니라.
4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그의 아
들 솔로몬의 글대로 행하여 너희 조상
들의 집들과 너희 계열들대로 너희
자신을 예비하고
5 너희 형제들 곧 백성의 아버지들
의 가족들의 구분에 따라 성소에 서며
또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의 구분대로
서서
6 이처럼 유월절 어린양을 잡고 너
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너희 형제
들을 예비하여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할지니
라, 하니라.
7 요시야가 백성들 곧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린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를 *가축* 떼에서 취해
모두 유월절 헌물로 주고 또 수소 삼천
마리를 주었는데 이것들은 왕의 재물
이었더라.
8 그의 통치자들도 자원하여 백성
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
으니 곧 하나님의 집의 치리자들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
에게 유월절 헌물로 작은 가축 이천육
백 마리와 소 삼백 마리를 주었으며
9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네
엘과 또 하사비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헌물로 작은
가축 오천 마리와 소 오백 마리를 주었
더라.
10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이 예비되
매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자기들
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
의 계열대로 서니라.
11 그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
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의
가죽을 벗기며
12 그 번제 헌물들을 옮겼으니 이
것은 그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 드리기 위해 백성의 가족들의
구분에 따라 주려 함이었더라. 또 그
들이 소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13 또 규례대로 유월절 어린양을
불에 구웠으나 다른 거룩한 헌물들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온 백성 가운
데서 속히 나누어 주고
14 그 뒤에 그들이 자기들과 제사
장들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니 이는 아
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밤에까지

번제 헌물과 기름을 드리느라 바빴으
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위하여 예비하
였기 때문이더라.
15 아삽의 아들들로 노래하는 자들
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처소
에 있었고 문지기들은 모든 문에서
섬겼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일에서 떠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16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의 명령대
로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 헌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기 위해 바로 그 날에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이 예비되었더라.
17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이레 동안 지켰는데
18 대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
라엘에서 그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
루살렘 거주민들이 지킨 것 같은 유월
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19 요시야의 통치 제십팔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의 죽음(왕하23:28－30)

20 ¶ 이 모든 일이 있은 뒤 곧 요시
야가 *성*전을 예비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옆의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를
치려고 나갔으나
21 그가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 날 그대
를 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오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
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
에게서 자기 얼굴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므깃도 골짜기에서 싸우러 가니라.
23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
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
라, 하매
24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데리고 나가고 그가 소유
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태워 예루살렘에
데려오니라. 그가 죽어 그의 조상들
의 돌무덤 중의 하나에 묻히니 온 유다
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로 인하
여 애곡하니라.
25 ¶ 예레미야는 요시야로 인하여
애곡하였으며 또 이 날까지 노래하는
모든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은 애
가로 요시야에 대해 노래하고 그 애가
들을 이스라엘에서 규례로 삼았더라.
보라, 그것들이 애가에 기록되어 있
느니라.
26 이제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주의 율법에 기록된 것에 따른 그의
선한 일과
27 그가 행한 일들은, 보라, 처음
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제 36 장

여호아하스의 통치와 포로 됨 (왕하23:31－33)

1 그때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
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
으로 삼으니라.
2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더라. 그가 예
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였더라.
3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또 그 땅에 형벌을 내려
은 백 달란트와 금 일 달란트를 내게
하였으며
4 또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아

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
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
라 하였더라. 느고가 그의 형제 여호아
하스를 취해 이집트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의 통치와 포로 됨
(왕하23:34-24:7)

5 ¶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더라. 그가 예
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
려고 올라와서 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7 느부갓네살이 또 주의 집의 기구
들을 바빌론으로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전에 두었더라.
8 보라,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
들 여호야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
니라.

여호야긴의 통치와 포로 됨
(왕하24:8-17)

9 ¶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팔 세더라. 그가 예루살렘
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10 그 해가 다 지나갔을 때에 느부
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주의 집의
좋은 기구들과 함께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
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
라.

시드기야의 유다 통치
(왕하24:18-20; 렘52:1-3)

11 ¶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이십일 세더라. 그가 예
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통치하며
12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
한 것을 행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을* 말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
기를 낮추지 아니하였더라.
13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
가 그를 배반하고 오히려 목을 뻣뻣하
게 하며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주 이스
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
였더라.
14 ¶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
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
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멸망
(왕하25:1-21; 렘52:4-30)

15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16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
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
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
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
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17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
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시매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
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
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18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
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
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
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빌론으
로 가져갔더라.
19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
우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곳의 모
든 궁궐을 불태우며 그곳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고
20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
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
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
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21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칠십 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고레스의 선언(스1:1－4)

22 ¶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
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23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
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
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
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
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
갈지니라, 하였더라.

에 스 라

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80년(어셔)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신정 국가를 확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 운동 주도자이며 이 책의 기록자이기도 한 에스라에게서 유래되었는데 에스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를 뜻한다.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간주했으나 라틴어 성경은 이 책을 '에스라의 첫째 책'이라 부르고 느헤미야를 '에스라의 둘째 책'이라고 불렀다. 주제: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제와 복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히12:6－13; 시119:75)
내용: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보호와 도움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와 같은 위대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인도를 통해 마침내 예루살렘에 둘째 성전이 완성되어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다. 에스라서 1－6장까지는 고레스 왕 통치 초기의 2, 3년과 다리오 왕 통치 6년 동안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7－10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초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6장은 성전의 완공과 함께 끝나며 7장은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성전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부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려면 에스더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스라서는 10장, 280절, 7,44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6장(성전 봉헌)
핵심 절: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1:5), 핵심 단어: 건축하다
핵심 구: "주의 말씀"(1:1), 에스라서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주님
영적 교훈: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라."

제 1 장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남
(대하36:22－23)

1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
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
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2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
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
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
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3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
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
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
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4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
라, 하였더라.
5 ¶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
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

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
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
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
나니
6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
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
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7 ¶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8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
드르닷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
게 하고 그것들의 수효를 세어 유다
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9 그것들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금
쟁반이 서른 개요, 은 쟁반이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10 금 대야가 서른 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 대야가 사백열 개요, 다른
그릇이 천 개니라.
11 금 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
잡힌 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
로 데리고 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
고 갔더라.

제 2 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
(느7:6-73)

1 전에 사로잡혀 간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빌론으
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제 이러하니라.
2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
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
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
성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니*
3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
이요,
4 스바댜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
요,
5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이요,
6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 중에서 이천팔백십이 명이요,
7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
요,
8 삿두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이요,
9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요,
10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이
요,
11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이
요,
12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
이요,
13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
이요,
14 비그왜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이
요,
15 아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이
요,
16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요,
17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이
요,
18 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19 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이
요,
20 깁발 자손이 구십오 명이요,
21 베들레헴 자손이 백이십삼 명이
요,
22 느도바 사람이 오십육 명이요,
23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
요,
24 아스마벳 자손이 사십이 명이
요,
25 기럇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
손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육백이십일
명이요,
27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
요,
28 벧엘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이요,
29 느보 자손이 오십이 명이요,

30 막비스 자손이 백오십육 명이
요,
31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32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요,
33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
십오 명이요,
34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
요,
35 스나아 자손이 삼천육백삼십 명
이었더라.
36 ¶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
요,
37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38 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
이요,
39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더
라.
40 ¶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
에 속한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
사 명이요,
41 ¶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이 백이십팔 명이요,
42 ¶ 문지기들의 자손은 살룸 자
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
두 백삼십구 명이었더라.
43 ¶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
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44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
돈 자손과
45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
굽 자손과
46 하갑 자손과 살매 자손과 하난
자손과
47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48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49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50 아스나 자손과 므후님 자손과 느
부심 자손과
51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52 바슬룻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
르사 자손과
53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54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
더라.
55 ¶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56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
델 자손과
57 스바댜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바
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58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
하들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더라.
59 이들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
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씨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
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이지 못하였
더라.
60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
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육백오십이 명
이었더라.
61 ¶ 제사장들의 자손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래는 길르
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62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
으나 그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
로 그들을 더러운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
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64 ¶ 전체 회중이 모두 사만 이천
삼백육십 명이었으며
65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
중에서 거기에 칠천삼백삼십칠 명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 이백 명이 있었더라.

66 그들의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
그들의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
67 그들의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
리,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더라.
68 ¶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세우려고 *예물을* 자유롭게 드
리되
69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그 일의
재정을 위하여 금 육만 천 다릭과 은
오천 마네와 제사장들의 의복 백 벌을
드렸더라.
70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
람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과 노래하
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하였고 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
하였더라.

제 3 장

예루살렘에서 예배 회복

1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
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
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
니
2 그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
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
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
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
더라.
3 그 지역들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그들
이 제단을 그것의 기초에 세우고 그
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되 아침저
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며
4 또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로서 관습에 따
라 수효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리고
5 그 뒤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곧 월삭과 거룩히 구분되고 정해진
주의 모든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
과 또 자원하여 주께 자원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6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
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
였더라.
7 그들이 또한 석공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에서 온 자들과 두로
에서 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 고
레스로부터 허가받은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의 바다까지 가져오
게 하였더라.

성전 회복 시작

8 ¶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뒤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
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형제 제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다
다른 모든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주의
집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니라.
9 그때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
과 유다의 아들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
의 집에서 일꾼들을 독려하니 곧 헤나
닷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
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라.
10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
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벌즈를 들고 이스라
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11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
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
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
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12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13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
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
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치매 그 소리
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제 4 장

성전 건축 저항과 예루살렘 재건 반대

1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
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
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
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2 그때에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이
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앗수
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
나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남은 자
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
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
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
니
4 그때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
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5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 생애 동
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
까지 조언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
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
려 하였으며
6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7 ¶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
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
들 중의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
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
아 말로 번역되었더라.
8 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예루
살렘을 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런 식의 편지를 썼으니
9 그때에 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
와 그들의 동료들 중의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
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
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
대하고 존귀한 아스납발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강 이
편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때에 *편지를
썼더라*.
11 ¶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
니라. 강 이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에
12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
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
의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였
사오니
13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
소서. 곧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
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
이다.
14 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
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
내어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15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 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기
록 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

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
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고 아시
리이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
하였나이다.
16 우리가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
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께
서는 강 이편에서 아무 몫도 소유하지
못하시리이다, 하였더라.
17 ¶ 그때에 왕이 장관 르훔과 서
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
의 동료들 중의 남은 자들과 강 건너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니
일렀으되,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
다.
18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시키고
19 내가 명령하고 찾아보게 하니
옛날에 이 도시가 왕들을 거역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있었으며
20 또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매 *사람들이* 세금
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친 것이
발견되었도다.
21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
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
지 못하게 하라.
22 이제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이
일 행하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어찌
하여 손해가 자라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랴? 하였더라.
23 ¶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을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매 그들이 예루
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르러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24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제 5 장

성전 건축 재개
(학1:1; 슥1:1)

1 그때에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
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
하였더니
2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
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
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
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3 ¶ 바로 그때에 강 이편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
들이 나아와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
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
냐? 하기에
4 그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
에게 이르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들
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라.
5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
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6 ¶ 강 이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
스내와 그의 동료들 곧 강 이편에 있던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7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안에 이같이 기록하기를, 다리오 왕께
문안하오니 다 평안하옵소서.
8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큰
돌로 그 집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놓아
이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기에
9 그때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
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

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
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
고
10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리려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11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회답
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노라.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
하여 세웠으나
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들
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이 집을 헐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
느니라.
13 그러나 바빌론 왕 고레스의 제일
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14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
던 그 *성*전에서 취한 하나님의 집의
금 기구와 은 기구들 곧 *그*가 바빌론의
전에 가져다 둔 그것들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의 전에서 취하여 자기가 세운
총독 즉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건네주고
15 그에게 이르되, 이 기구들을 가
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라, 하매
16 이에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
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집을 건축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
기시거든 거기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고를 찾아보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예루살렘에 건
축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그러한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왕께
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소
서, 하였더라.

제 6 장

다리오의 칙령

1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 집 곧 바빌론에서 보물
들을 쌓아 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2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
에서, 악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
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3 고레스 왕의 제일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
를, 그 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육십 큐빗으로
하며 너비도 육십 큐빗으로 하고
4 또 큰 돌 세 줄과 함께 새 나무
한 줄을 놓으라. 또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5 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 기구와
은 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에 있는 그 *성*전에서 취하여 바빌론으
로 옮긴 기구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
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것의
처소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6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바삭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떠나
7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
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
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게 하라.
8 또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
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
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수소와 숫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
과 포도즙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
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
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11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
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
거나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
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
어다, 하였더라.

성전의 완공과 봉헌

13 ¶ 그때에 강 이편의 총독 닷드
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에 따라 이처럼
신속히 행하니라.
14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15 다리오 왕의 통치 제육년에 있
었던 아달 월 삼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
라.
16 ¶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의 남은 자들이 기쁘
게 하나님의 이 집의 봉헌식을 행하며
17 하나님의 이 집을 봉헌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숫염소 열두 마리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 헌물을 드리
며
18 제사장들을 그들의 구분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계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
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
라.

유월절을 지킴

19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
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되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
들과 자기들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양
을 잡았더라.
21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되돌아
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의 이교도들
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
고 저들에게 돌아와 주 이스라엘의 하
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먹고
22 이레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
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
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들
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제 7 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함

1 이제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
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2 살룸의 사대 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 손이요,
3 아마랴의 칠대 손이요, 아사랴의
팔대 손이요, 므라욧의 구대 손이요,
4 스라히야의 십대 손이요, 웃시의
십일대 손이요, 북기의 십이대 손이
요,
5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
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
오대 손이요, 수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더라.
6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

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에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
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7 아닥사스다 왕의 제칠년에 이스
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
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
으로 올라올 때에
8 그가 그 왕의 제칠년 오월에 예루
살렘에 왔더라.
9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
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
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
렀더라.
10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
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
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11 ¶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
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
이 이러하니라.
12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
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
전한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13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
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
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 네가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
여 여쭈려고 왕과 그의 일곱 조언자들
로부터 보내어졌으니
15 왕과 그의 조언자들이 예루살렘
에 처소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져가고
16 또 네가 온 바빌론 지방에서 얻
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
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
는 자원 헌물을 가져다가
17 이 돈으로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집의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
18 은과 금 중의 남은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와 네 형제
들이 좋게 여기면 그것을 너희 하나님
의 뜻대로 할지니라.
19 또 너는 네 하나님의 집에서 섬
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구들 곧
그것들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넘
겨드리고
20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
한 것이 무엇이든지 네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고 집에서 그것
을 취해 드릴지니라.
21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
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
한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
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
히 그것을 시행하되
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즙은 백 바스까지, 기
름은 백 바스까지 하고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23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어찌
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
를 향하게 하리요?
24 또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
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
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26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
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추
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27 ¶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시고
28 또 왕과 그의 조언자들 앞과 왕
의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주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
노라.

제 8 장

에스라와 함께 온 가족들의 우두머리들

1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
리들이 이러하며 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자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2 비느하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게
르솜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핫두스요,
3 스가냐의 아들들 곧 바로스의 아
들들 중에서는 스가랴며 그와 함께
남자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가 백오
십 명이요,
4 바핫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
라히야의 아들 엘리오에내며 그와 함
께한 남자가 이백 명이요,
5 스가냐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하
시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삼백 명이요,
6 아딘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나단
의 아들 에벳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오십 명이요,
7 또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달
랴의 아들 여사야며 그와 함께한 남자
가 칠십 명이요,
8 또 스바댜의 아들들 중에서는 미
가엘의 아들 스바댜며 그와 함께한 남
자가 팔십 명이요,
9 요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히엘
의 아들 오바댜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백십팔 명이요,
10 또 슬로밋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시비야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
자가 백육십 명이요,
11 또 베배의 아들들 중에서는 베배
의 아들 스가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이십팔 명이요,
12 아스갓의 아들들 중에서는 학가
단의 아들 요하난이며 그와 함께한 남
자가 백십 명이요,
13 또 아도니감의 마지막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엘리블렛과 여이엘과 스마야며 그
들과 함께한 남자가 육십 명이요,
14 비그왜의 아들들 중에서는 우대
와 사붓이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칠십 명이었더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15 ¶ 내가 그들을 아하바로 흐르
는 강으로 함께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거하니라. 내가 백
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뒤 거기에 레위
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16 그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우
두머리 되는 자들 곧 엘리에셀과 아리
엘과 스마야와 엘나단과 야립과 엘나단
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나단을 불
러
17 명령을 주고 그들을 가시비야라
는 곳으로 보내어 우두머리 잇도에게
가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잇도와 그의
형제들 즉 가시비야라는 곳에 거하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게 하
였더니
18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스라엘
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아들
들 중에서 명철한 사람 하나를 우리에
게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
들과 그의 형제들 열여덟 명과
19 또 하사비야와 그와 함께 므라리
의 아들들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
들과 그의 아들들 스무 명을 데려오며
20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레위 사람
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다윗과 통치자
들이 임명한 자들 중에서 이백이십
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들은 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더라.

기도와 금식

21 ¶ 그때에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
와 우리의 어린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
께 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
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
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
문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
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
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성전 건축 예물

24 ¶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의 우
두머리들 중에서 열두 명 곧 세레비야
와 하사비야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형제들 열 명을 구별하고
25 그들에게 왕과 그의 조언자들
과 그의 귀족들과 또 그 당시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집
을 위하여 헌물로 드린 은과 금과 기구
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6 곧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 육백오십 달란트와 은 기구
백 달란트와 금 백 달란트와
27 또 무게가 천 다릭인 금 대야
스무 개와 또 금같이 귀한 좋은 구리
그릇 두 개였더라.
28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께 거룩하며 기구들도 거룩하고 은
과 금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드린 자원 헌물이니
29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집
방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들을 달
때까지 주의하여 그것들을 지키라,
하매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은과 금과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대로 취하니라.

예루살렘 귀환

31 ¶ 그때에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고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
를 건지셨으므로
32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서 사흘 동안 머무니라.
33 ¶ 이제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인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의 손으로 은과 금과 기구
들을 달았더라.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
아살이 그와 함께 하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댜가 그들과 함께 하며
34 모든 것을 수대로 *세고* 무게대
로 *달며* 그때에 모든 무게를 기록하였
더라.
35 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
곧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헌물 즉 온
이스라엘을 위한 수소 열두 마리와 숫
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양 일흔일곱
마리와 또 죄 헌물에 쓸 숫염소 열두
마리를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더라.

36 ¶ 그들이 또 왕의 위임장을 왕
의 부관들과 강 이편의 총독들에게
건네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집
을 도왔더라.

제 9 장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결혼함

1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
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
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
속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
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
니
2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
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
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
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3 내가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
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4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
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
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5 ¶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6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
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
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
까지 이르렀나이다.
7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 날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하였사오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
여 *주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칼에 *죽고* 포로로 사로잡히
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얼굴을 당황
하게 하심이 이 날과 같으니이다.
8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우리에
게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사
오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
이다.
9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
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
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긍
휼을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
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수하게 하시며 유
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10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11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
는 땅은 그 땅들의 백성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땅이
니 그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그것을 채웠느
니라.
12 그런즉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
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
지 말며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
록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
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
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
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
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
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

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14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들을 어
기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들
과 인척관계를 맺으리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사 마침내 우리를 소
멸시키시고 남을 자나 피할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15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피하
여 여전히 남게 된 것이 이 날과 같나
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우리의 범법
가운데서 주 앞에 있나이다, 하니라.

제 10 장

이스라엘이 불법 결혼을 고백함

1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
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
더라.
2 엘람의 아들들 중의 하나인 여히
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
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
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3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
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4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
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
서, 하매
5 그때에 에스라가 일어나 수제사
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이 말대
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6 ¶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
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애곡하였으므로 빵도 먹지 아니
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7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
들의 모든 자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에서 두루 선포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으로 함께 모이게 하고
8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사흘 안에 오려 하지 아니
하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
혀 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
키게 하니라.
9 ¶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
이니 이때는 구월 곧 그 달 이십일이더
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
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
가시켰으니
11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
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
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
니라, 하매
12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
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우리가
능히 밖에 서지 못하며 우리 많은 사람
이 이 일로 죄를 지었으므로 이 일을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없사오니
14 이제 온 회중에서 우리의 치리
자들은 서게 하시고 우리의 도시들에
서 이방 아내를 취한 자들은 다 정한
시간에 각 도시의 장로들과 재판장들
과 함께 오게 하여 마침내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라.
15 ¶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그바의 아들 야하시야만 이 일에 종
사하였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
가 그들을 도왔더라.
16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고 제사장 에스
라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몇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분리되되 그들 모두
가 *분리되어* 이 일을 조사하려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았더라.
17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
러 이방 아내를 취한 모든 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니라.

이교도 아내들을 버림

18 ¶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서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곧 예수아의 아들들 중에서 요사
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
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야더라.
19 그들이 자기 손을 내주며 *맹세*
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또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유죄
가 되었으므로 양 떼에서 숫양 한 마리
를 드렸더라.
20 또 임멜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
나니와 스바댜요,
21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아세
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
야요,
22 바스훌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료
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네
엘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23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
과 시므이와 글라야 (곧 글리다와) 브다
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24 또한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
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25 또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의
아들들 중에서 라미야와 예시야와 말
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26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맛다니
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
과 엘리야요,
27 또 삿두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료
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니야와 여레못
과 사밧과 아시사요,
28 또한 베배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
요,
29 또 바니의 아들들 중에서는 므
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라못이요,
30 또 바핫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드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니야와 브살레엘과 빈누이와 므낫
세요,
31 또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
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32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33 하숨의 아들들 중에서는 맛드내
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블렛과 여레매
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34 바니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아대
와 아므람과 우엘과
35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흐와
36 바니야와 므레못과 엘리아십과
37 맛다니야와 맛드내와 야아사우
와
38 또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39 또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40 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41 아사레엘과 셀레미야와 스마랴
와
42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43 느보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
과 맛디디아와 사밧과 스비나와 야다우
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44 이들이 다 이방 아내를 취하였
으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아내들을
취하고 그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졌더
라.

느 헤 미 야 기

기록자: 느헤미야, 기록 시기: 주전 420년경, 성격: 역사, 자서전, 기간: 약 12년(어셔),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세 번째 귀환할 때 그들을 인도한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를 뜻한다. 에스라서 참조. 주제: 바빌론에서의 세 번째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 목적: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스가랴의 대언과 또 "곤란한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단 9:25)는 다니엘의 대언이 성취됨을 잘 보여 준다. 에스라서는 성전의 재건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느헤미야기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의 재건에 강조점을 둔다. 또 에스라서는 포로들의 귀환과 함께 종교적 측면의 회복을 보여 주며 느헤미야기는 정치적 측면의 회복을 보여 준다. 이 책은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 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알려 준다. 느헤미야기는 13장, 406절, 10,48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이스라엘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핵심 절: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1:8-9), 핵심 단어: 기도하다(1:4), 일하다(6:3), 핵심 구: "일어나 건축하라."(2:20), 느헤미야기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주
영적 교훈: "주를 위해 일할 마음을 품어라."

제 1 장

느헤미야의 기도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
이라. 제이십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었을 때에
2 내 형제들 중의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과 예루
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
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4 ¶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
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5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
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
우신 하나님이여,
6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
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
를 지었나이다.
7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
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

지 아니하였나이다.
8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
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
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로 널리 흩으리라.
9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
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
셨나이다.
10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
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
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
는 자였느니라.

제 2 장

느헤미야가 유다로 보내어짐

1 아닥사스다 왕의 제이십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2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에 슬
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
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
때에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3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
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
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
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
리이까? 하매
4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5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
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
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
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 (*그때에*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
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
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 주고
7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
르게 하시고
8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
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
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9 ¶ 그때에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
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의 대
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
라.
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11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
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봄

12 ¶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 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
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13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가 거름 배출구에 이르
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
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
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14 그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
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
므로
15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
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16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
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
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17 ¶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
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
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
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18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
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19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
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
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
에
20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
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
에서 아무 몫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
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 3 장

성벽을 재건함

1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
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서 그들이 양 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의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
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
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3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
것의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
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4 그들 다음은 고스의 손자요, 우리
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들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
야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보
수하였고
5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
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
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6 또한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호
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보
수하여 그들이 그것의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
으며
7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믈라디
야와 메로놋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
스바 사람들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
라.
8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하였고 또 그 다음
은 약제사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인 하나
냐가 보수하되 그들이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강화하였으
며
9 그들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훌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

하였고
10 그들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
야가 보수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삽니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더라.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
의 아들 하숩이 다른 한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보수하였으며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하였고
13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거
주민들이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며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거름 문까지 성벽 천
큐빗을 보수하니라.
14 그러나 거름 문은 벧학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
야가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
더라.
15 그러나 샘 문은 미스바의 일부
를 치리하는 자,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덮으
며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아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
로부터 내려가는 계단에까지 이르렀
더라.
16 그 다음은 벧술의 절반을 치리
하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돌무덤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며
17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 곧 바니
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하사비
야가 자기 몫 안에서 보수하였더라.
18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곧 그일
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배가 보수하였고
19 그 다음은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보수하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의 병기고로 향
한 비탈 맞은편의 다른 한 부분을 보수
하였고
20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서부터 대제
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까지 이르렀
더라.
21 그 다음은 고스의 손자요, 우리
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끝에까지 이르렀고
22 그 다음은 제사장들 곧 평야에
사는 자들이 보수하였으며
23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숩이 자기
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
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
인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하였더
라.
24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
가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 즉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고
25 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구
부러지는 곳의 맞은편과 왕의 높은
집에서부터 튀어나온 망대 곧 감옥
뜰 곁에 있던 것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보수*
하였더라.
26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물 문을 마주
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수하고* 튀어
나온 망대를 *보수하였더라*.
27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의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
벽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28 말 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고
29 그들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
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또한 보수하였더라.
30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
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
기야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방의 맞은

편을 보수하였더라.
31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의 아들
말기야가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밉갓 문의 맞은편
을 보수하고 모퉁이 비탈까지 *보수하
였으며*
32 모퉁이 비탈에서 양 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
더라.

제 4 장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됨

1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
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
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끝내
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
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3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야는 그의 곁
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4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
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
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5 그들의 불법을 덮어 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
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6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
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
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
이더라.
7 ¶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
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에 심히 분노하여
8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
하기로 하였더라.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
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
데
10 유다는 이르기를, 짐 나르는 자
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11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
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
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
도 못하리라, 하니라.
12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
들이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
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
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13 ¶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14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
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
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15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
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
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16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
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
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17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 나
르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18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
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19 ¶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
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
를,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20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
느니라.
21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
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
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22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
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
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23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
이나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제 5 장

느헤미야가 백성의 학대 문제를 다룸

1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
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
었으니
2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와 우리 아들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
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3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
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4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5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
가 우리 아들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의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
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
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6 ¶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7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
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
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
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
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8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
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
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
겠느냐? 하매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
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9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
교도들이 모욕하므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
지 아니하겠느냐?
10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
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
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11 청하건대 이 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그들
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 그때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리

이다, 하기에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
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
는 맹세를 하게 하고
13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
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
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
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
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느헤미야의 관대함

14 ¶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
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
스다 왕의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
까지 즉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
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
라.
15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
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사십
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
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
였고
16 참으로 또한 이 성벽 일을 계속
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17 또 내 상에는 유대인들과 치리
자들 중에서 백오십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의 이교도들 가운데
서 떠나 우리에게로 나아온 자들이
있었으므로
18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
해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여섯 마리를
예비하며 날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
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
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19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
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제 6 장

느헤미야를 치려는 음모

1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
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내
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
니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
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
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3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일을 하는 중
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
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
냐? 하매
4 그럼에도 그들이 네 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5 그때에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6 그 편지에 쓰기를, 이교도들 가
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네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7 또 네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
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
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
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
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8 그때에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어 이르기를, 네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으
며 네가 네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
내느니라, 하였으니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10 그 뒤에 므헤다벨의 손자요, 들
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
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
기에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
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2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
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
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
하였더라.
13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
라.
14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
과 여대언자 노아댜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
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
하옵소서.

성벽 건축이 완공됨

15 ¶ 이처럼 성벽이 오십이 일 만
에 엘룰 월 이십오일에 완성되매
1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
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
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17 ¶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
한 자들이 도비야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
르렀으니
18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
베레기야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취하
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
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19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니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제 7 장

1 이제 성벽이 건축되매 내가 문짝
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2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
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3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
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
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
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의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귀환한 백성들(스2)

5 ¶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
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그 안에
서 기록된 것을 찾으니
6 전에 사로잡혀 간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자들 중
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7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
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
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왔
더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니
8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
이요,
9 스바댜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
요,
10 아라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이
요,
11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팔 명이요,
12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
요,
13 삿두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이
요,
14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요,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이
요,
16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이
요,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이요,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
이요,
19 비그왜 자손이 이천육십칠 명이
요,
20 아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이
요,
21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요,
22 하숨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이
요,
23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이
요,
24 하립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25 기브온 자손이 구십오 명이요,
26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백팔
십팔 명이요,
27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
요,
28 벧아스마벳 사람이 사십이 명
이요,
29 기럇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이요,
31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
요,
32 벧엘과 아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
이요,
33 다른 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이
요,
34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
사 명이요,
35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요,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
요,
37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
십일 명이요,
38 스나아 자손이 삼천구백삼십 명
이었더라.
39 ¶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
요,
40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41 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
이요,
42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더
라.
43 ¶ 레위 사람들은 호드바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
이요,
44 ¶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이 백사십팔 명이요,
45 ¶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
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백삼십팔 명이
었더라.
46 ¶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
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47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48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
매 자손과
49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50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
다 자손과
51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52 베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53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54 바슬릿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
르사 자손과
55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56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
더라.
57 ¶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58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
델 자손과
59 스바댜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바
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60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
하들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더라.
61 이들은 또한 델멜라와 델하르사
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
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씨와 또 자기들이 이스
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이지 못
하였더라.
62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
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육백사십이 명
이었더라.
63 ¶ 제사장들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
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
라.
64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
으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더러운 자로 여겨 제사장 직무
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
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66 ¶ 전체 회중이 모두 사만 이천
삼백육십 명이었으며
67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
중에서 거기에 칠천삼백삼십칠 명이
있었고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자와 노
래하는 여자 이백사십오 명이 있었더
라.
68 그들의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
그들의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
69 그들의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
리,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더라.
70 ¶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에서 몇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예물을*
드렸고 디르사다는 금 천 다릭과 대야
오십 개와 제사장들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고에 드렸으며
71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에서 몇 사람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이백 마네를 그 일을 위해 보고에
드렸고
72 백성의 남은 자들이 드린 것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
들의 의복 육십칠 벌이었더라.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
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
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하였으니 곧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
들에 거하였더라.

제 8 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함

1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 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의 율법 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
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
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물 문 앞의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매 온 백성이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4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
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매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맛디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
아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브다야
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
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 섰더라.
5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
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
라.
6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
을 찬송하매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
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
더라.
7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
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
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
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
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8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
를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
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9 ¶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10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
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
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
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
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12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
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
이더라.

초막절을 지킴

13 ¶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
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
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여
14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이스라
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15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
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
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
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16 ¶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
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 뜰에나, 물
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17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
대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18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레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제 9 장

백성이 죄를 고백함

1 이제 이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쓰며
2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
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
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3 또 그들이 낮의 사분의 일 동안에
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
님의 율법 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사분의 일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
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4 ¶ 그때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세바냐와 분
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
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
께 부르짖었고
5 그때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
엘과 바니와 하삽니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
를, 일어서서 영원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
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
다.
6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
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
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
에 아브람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
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8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
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
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
다.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서 고통 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
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
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
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 날과 같았나이다.
11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
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들 속으로 던지시고
12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
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
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
게 빛을 주셨사오며
13 또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
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
을 그들에게 주시고
14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
에게 알려 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
로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15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
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며 그들
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그들
을 위해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16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17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
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
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
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
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
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
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
지 아니하셨나이다.
18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
라온 네 하나님이니라, 하여 큰 격노를
일으켰사오나
19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
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
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 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 주게 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
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21 참으로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
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
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
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시
매 이에 그들이 시혼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
나이다.
23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
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
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
24 이처럼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정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게
하시매
25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
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
과 올리브 밭과 많은 과일 나무를 소유
하여 이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겼사오나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
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
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격노를
일으켰나이다.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
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28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
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
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건져
내시며
29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
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
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
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
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
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 땅들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되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
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
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
신 하나님이시니이다.
32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며 언약
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이
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
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임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
소서.
33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
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34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
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할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
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35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
속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
하며 자기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
지 아니하였나이다.
36 보소서, 우리가 이 날 종이 되었
사오며,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
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또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으로 인해 우리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37 그 땅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하므로 우
리가 큰 고난 중에 있사옵나이다.
38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
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
나이다, 하였더라.

제 10 장

언약에 날인한 사람들

1 이제 *언약에* 날인한 자들은 하
가랴의 아들인 디르사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세바냐,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댜,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니 이들은
제사장이요,
9 또 레위 사람들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닷의 아들들 중에서 빈
누이와 갓미엘과
10 그들의 형제 세바냐, 호디야, 그
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홉, 하사비야,
12 삭굴, 세레비야, 세바냐,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14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
스, 바핫모압, 엘람, 삿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앗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느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얏두아,
22 블라댜,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하숩,
24 할로헤스, 빌르하, 소벡,
25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였더라.

백성의 언약

28 ¶ 백성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
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
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들
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
나님의 율법에 이른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딸들과 지식과 명철이 있
는 모든 자가
29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
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
며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30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
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
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
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32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규
례를 정해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을
부담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
는 일에 쓰게 하되
33 곧 보여 주는 빵과 항상 드리는
음식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릴
것*과 거룩한 것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죄 헌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
람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들 집에 따라 해마다 정한
때에 나무 헌물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하였으
며
35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열매와 모
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주의
집에 두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
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리의 소
떼와 양 떼의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
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고
37 또 우리의 반죽의 첫 열매와 우
리의 헌물과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
와 포도즙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
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
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십일조를 받게
하려 함이더라.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
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
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
집에 둘지니
39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
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
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
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
는 방들에 둘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
라.

제 11 장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1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
를 뽑아 열 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십분의 구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2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예루살렘
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
하였더라.
3 ¶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
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
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
였더라.
4 예루살렘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거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 속
한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댜의 사대 손이요, 마
할랄레엘의 오대 손이며
5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는* 바
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
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사대 손이
요, 요야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니의 칠대 손이더
라.
6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사백육십팔 명의 용사들이
었더라.

7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살루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
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사대 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 손이
요, 이디엘의 육대 손이요, 여사야의
칠대 손이며
8 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와 구백이
십팔 명이었더라.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
독이 되었고 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둘
째 인물로 그 도시를 다스렸더라.
10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야립의 아
들 여다야와 야긴과
11 스라야*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
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
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사대 손이요,
아히둡의 오대 손으로 하나님의 집의
치리자였더라.
12 또 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
들이 팔백이십이 명이요,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
랄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
가랴의 사대 손이요, 바스훌의 오대
손이요, 말기야의 육대 손이더라.
13 또 그의 형제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백사십이 명이요, 또
아맛새*가 있었는데 그는* 아사렐엘의
아들이요, 아하새의 손자요, 므실레못
의 증손이요, 임멜의 사대 손이더라.
14 또 그들의 형제들 곧 강한 용사
들 백이십팔 명이 있었는데 위대한
자들 중의 하나의 아들인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더라.
15 또한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
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야의 증손
이요, 분니의 사대 손이며
16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삽브대와 요사밧이 하나님의
집의 바깥일을 감독하였더라.
17 또 맛다니야*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
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기
야가 두 번째 인물이 되었으며 또 압다
가 있었는데 그는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더라.
18 거룩한 도시에 있던 레위 사람
들이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더라.
19 또한 문지기들 곧 악굽과 달몬과
성문들을 지킨 그들의 형제들이 백칠
십이 명이더라.
20 ¶ 이스라엘과 및 제사장들의
나머지와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에
거하였으나
21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였
는데 시하와 기스바가 느디님 사람들
을 감독하였더라.
22 또한 웃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야의 손자요,
맛다니야의 증손이요, 미가의 사대 손
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
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
였으니
23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이러하여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몫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더
라.
24 또 브다히야*가 있었는데 그는*
므세사벨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 세
라의 자손으로 왕의 손 *밑*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더라.

예루살렘 밖에 거한 사람들

25 마을들과 그것들의 들에 관하
여는 유다 자손의 일부가 기럇아르바
와 그것의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의
마을들과 여갑스엘과 그것의 마을들
에 거하였고
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벧벨렛과
27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것들
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며
28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29 또 에느림몬과 사르아와 야르뭇
에 거하였으며
30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것들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것의 들과 아세

가와 그것의 마을들에 거하였으니 그
들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
기까지 거하였더라.
31 또한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
터 믹마스와 아야와 벧엘과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32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33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34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35 롯과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
에 거하였으며
36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유다에도
분파가 있었고 베냐민에도 있었더라.

제 12 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1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과 또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
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스라야
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2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3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4 잇도와 긴느도와 아비야와
5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6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7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들은 예수아 시대에 제사장들과 그
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더라.
8 또한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
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맛다니야였는데 이 맛다니야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
고
9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니
는 파수 볼 때에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
더라.
10 ¶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
야김은 또한 엘리아십을 낳았으며 엘
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11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
단은 얏두아를 낳았더라.
12 요야김 시대에 제사장들로 아버
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스라
야에게서는 므라야요, 예레미야에게
서는 하나냐요,
13 에스라에게서는 므술람이요, 아
마랴에게서는 여호하난이요,
14 멜리구에게서는 요나단이요, 세
바냐에게서는 요셉이요,
15 하림에게서는 아드나요, 므라욧
에게서는 헬개요,
16 잇도에게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에게서는 므술람이요,
17 아비야에게서는 시그리요, 미냐
민에게서, 모아디야에게서는 빌대요,
18 빌가에게서는 삼무아요, 스마야
에게서는 여호나단이요,
19 요야립에게서는 맛드내요, 여다
야에게서는 웃시요,
20 살래에게서는 갈래요, 아목에
게서는 에벨이요,
21 힐기야에게서는 하사비야요, 여
다야에게서는 느다네엘이었더라.
22 ¶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
과 얏두아 시대에 레위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
으며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
지 제사장들도 *그러하였더라.*
23 레위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
난의 시대까지 연대기 책에 기록되었
고
24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하사
비야와 세레비야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
아더라. *그들이* 자기들 맞은편의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분반 별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25 맛다니야와 박부기야와 오바댜
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문지기로
서 문들의 입구에서 직무를 지켰더
라.
26 이들이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
아의 아들인 요야김 시대와 총독 느헤
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 시
대에 있었더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함

27 ¶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
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
며 심벌즈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 노래하는 자들의 아들들이 예
루살렘 주변의 평야 지방과 느도바 사
람들의 마을들에서 나와 함께 모였고
29 또 길갈의 집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
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
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 그때에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 둘을
지정하매 이 중의 한 무리가 성벽 위에
서 오른쪽으로 거름 문을 향하여 나아
갔더라.
32 호사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의 절
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33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34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
미야가 *그 뒤를 따르며*
35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곧 요나단
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맛다
니야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사대 손이
요, 삭굴의 오대 손이요, 아삽의 육대
손인 스가랴와
36 그의 형제 스마야와 아사라엘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네엘과
유다와 하나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잡았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있었더라.
37 그들이 자기들의 맞은편에 있
던 샘 문에서 다윗의 도시의 계단으로
올라가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
러 다윗의 집 위쪽에서 동쪽의 물 문에
이르렀더라.
38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
리는 그들을 마주보고 갔으며 나와
또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이 그들
의 뒤를 따라 용광로 망대 너머에서부
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39 또 에브라임 문 위와 옛 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나넬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 문에 이르렀더니 그들
이 감옥 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40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치리자
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고
41 제사장들 곧 엘리아김과 마아세
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나팔을 잡았으며
42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
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
과 에셀이 *함께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독 예스라히야와
함께 크게 노래하였더라.
43 또한 그 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
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
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
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성전의 책무들

44 ¶ 그때에 *내가* 몇 사람을 임명
하여 재물과 헌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
를 둘 방들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
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
준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
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더라.
45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
결례의 직무를 지켰으니
46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
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
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
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47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주되 날마다 각 사람
의 몫을 주었으며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
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제 13 장

하나님의 백성의 분리 원칙

1 그 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바 기록하기를, 암몬 족
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발람을 고용하
여 *그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
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
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
으므로
3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
시켰더라.

느헤미야의 개혁

4 ¶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의 집의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아
십이 도비야와 연합하였으므로
5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
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헌물
과 유향과 기구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
록 명령한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와 또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6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
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의 제삼십이년에 내가 왕
에게 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서 휴가
를 얻어
7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아십이 도비
야를 위해 하나님의 집 뜰에 방을 예비
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
8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
으므로 도비야의 모든 집안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9 그때에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
의 기구들과 음식 헌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았노라.
10 ¶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
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11 그때에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
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을 함
께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12 그때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
도즙과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보
고에 두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브다야를
보고의 재무관으로 삼고 또 맛다니야
의 손자요,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
다음가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
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직무
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었더라.
14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 버리지 마옵소서.
15 ¶ 그때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 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으며
또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
온 포도즙과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으므로* 이에 내가 그들
이 양식을 팔던 그 날에 그들에게 증언
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
며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제품을 가
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17 그때에 내가 유다의 고귀한 자
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
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
을 더럽히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

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
을 우리와 이 도시에 내리지 아니하셨
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
럽혀서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에 내가 명령
하여 성문들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그것들을 열지 못하게
하며 또 내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성문들에 세워 안식일에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
20 이에 장사꾼들과 온갖 종류의
제품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머물므로
21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 주위에서 머무느냐? 너희가 다
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
라, 하였더니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그
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
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
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
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23 ¶ 그때에 또 내가 아스돗과 암
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
들을 보았는데
24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25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
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
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
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26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
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
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
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
느니라.
27 그런즉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
로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고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려는 너희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하니라.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
야다의 아들들 중의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
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
라.
29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
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
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정결하
게 하여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정해 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며
31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
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
소서.

에 스 더 기

기록자: 모르드개,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자서전
기간: 약 12년, 수신자: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 받은 페르시아 거주 유대인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 낸 에스더 왕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녀의 히브리 이름과 페르시아 이름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하닷사'와 '에스테르'이다. 에스더의 그리스 이름은 밝게 빛나는 별을 뜻한다. 주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목적: 신자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린 이후에(스1:1–4)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고자 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특히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에스더기는 구약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게 된다. 이 책은 룻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여자의 이름에 근거한 책이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지만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여인이었다. 에스더기는 10장, 167절, 5,63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6장(모르드개가 존귀한 자가 됨)
핵심 절: "이때에 네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4:14), 핵심 단어: 구출
핵심 구: "이와 같은 때"(4:14), 에스더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모르드개 – 구출자
영적 교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제 1 장

왕비 와스디가 폐위됨

1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
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백
스물일곱 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2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았고
3 자신의 통치 제삼년에 자신의 모
든 통치자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
이 그 앞에 있더라.
4 그가 여러 날 곧 백팔십 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
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
라.
5 이 날들이 끝나매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산 궁에 있던 온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 뜰에서 이레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6 거기에는 고운 아마 줄과 자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
어 맨 흰색, 녹색, 청색 현수막들이
있었으며 또 붉은색, 청색, 흰색, 검은
색 및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도 있었더라.
7 그들이 또한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에 마실 것을 주었는데 (이 그
릇들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왕
의 형편대로 주는 왕의 포도주가 풍부
하였더라.
8 또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
였으니 왕이 자기 집의 모든 직무 수행

자에게 그렇게 지정하여 그들이 각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게 하였더
라.
9 왕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에
게 속한 왕의 집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 ¶ 일곱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
도주로 인하여 즐거워졌을 때에 아하
수에로 왕이 자기 앞에서 섬기는 일곱
명의 시종장 곧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
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
가스에게 명령하여
11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
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 주게
하였으니 그녀는 보기에 아름다웠더
라.
12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
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
기를 거부하므로 왕이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
라.
13 ¶ 그때에 왕이 때를 아는 지혜
자들에게 말하되, (법과 재판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향한 왕의 관례가 그러하
였더라.
14 또 왕 다음으로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일곱 통치자 곧 가르스나와 세
다르와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 있었는데 이들
은 왕의 얼굴을 보며 왕국에서 첫째가
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15 왕비 와스디가 시종장들이 집행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였으니 법에 따라 우리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랴? 하매
16 므무간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비 와스디가 왕에
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모든 지방의 모든 통치자
와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 왕비가 행한 이 일 곧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
로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
였다 하는 일이 모든 여인에게 널리
퍼져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18 마찬가지로 왕비의 행동에 관
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
들이 이 날에 왕의 모든 통치자에게
말하리니 이로써 멸시와 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19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시
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왕께서는 그녀가
차지한 왕비의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20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
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하므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하매
21 왕과 통치자들이 그 말을 기쁘
게 여기므로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22 왕이 자기의 모든 지방에 편지
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
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
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제 2 장

에스더가 왕비가 됨

1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
노가 가라앉으매 왕이 와스디와 그녀
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2 그때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
이 아뢰기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 왕께서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아리따운 모든 젊은 처녀들을 수산
궁으로 함께 모아 여인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여인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 헤개의 보호를 받게 하며 또
정결하게 할 물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4 와스디 대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매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
라.
5 ¶ 이제 수산 궁에 모르드개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
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6 이 사람이 전에 유다 왕 여고니야
와 함께 사로잡혀 간 포로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더
라.
7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
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그녀
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
드개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8 ¶ 이처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
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산 궁에 함께
모여 헤개의 보호를 받을 때에 에스더
도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여인
들을 지키는 자 헤개의 보호를 받더
라.
9 그 처녀가 그를 기쁘게 하므로
그의 친절을 얻으니라. 그가 곧바로
정결하게 할 물품과 그녀에게 속한
물건들을 주며 또 왕의 집에서 마땅히
그녀에게 주어야 할 일곱 명의 시녀를
주고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택하여
여인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10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과 친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드개가 그
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더라.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여인들의 집
의 뜰 앞을 거닐며 에스더가 어떻게
행하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자
하였더라.
12 ¶ 이제 처녀마다 여인들의 관
례대로 열두 달을 지낸 뒤에 순서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으니
(그들이 여섯 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 동안 향수와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물품을
써서 그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을 채웠더라.)
13 이같이 각 처녀가 왕에게 갈 때
에는 그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그녀에게 주어 여인들의 집에서 왕의
집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더라.
14 저녁에 그녀가 갔다가 다음 날
여인들의 둘째 집으로 돌아와 후궁들
을 보살피는 왕의 시종장 사아스가스
의 보호를 받았는데 왕이 그녀를 기쁘
게 여겨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지 아니
하면 그녀가 다시는 왕에게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15 ¶ 이제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
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 딸로 취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 왕에게 들어갈
때에 여인들을 지키는 자 즉 왕의 시종
장 헤개가 정해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스더
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앞
에서 호의를 입었더라.
16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
칠년 시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이끌
려 왕의 집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니
17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녀가 모든 처녀보
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호의를 더
많이 입으니라. 이에 그가 그녀의 머
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
디 대신 왕비로 삼으며
18 그때에 자기의 모든 통치자들
과 신하들에게 큰 잔치 곧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왕이 또 지
방들에게 면제를 명하고 왕의 형편대
로 선물을 주니라.
19 처녀들을 두 번째 함께 모을 때
에 모르드개가 왕의 문에 앉았더라.
20 모르드개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개의 명령을 행
하였더라.
모르드개가 음모를 발견함
21 ¶ 그때에 모르드개가 왕의 문
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서 빅단
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하여 아하수
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22 모르드개가 그 일을 알게 되어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매 에스
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23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매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제 3 장

유대인들을 치려는 하만의 음모
1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
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
에 두니라.
2 왕의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이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개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3 그때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
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더라.
4 이제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
되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매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지
속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하였으
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
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5 하만이 모르드개가 몸을 굽히지
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
라.
6 그들이 모르드개의 백성을 하만
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개
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
든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백성을 멸하
고자 하였더라.
7 ¶ 아하수에로 왕의 제십이년 첫
째 달 곧 니산 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십이월 곧 아달 월을
얻으니라.
8 ¶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
뢰되, 어떤 한 백성이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또한
그들이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
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
이 되지 아니하니이다.
9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
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의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만 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이다, 하매
10 왕이 자기의 반지를 손에서 빼
어 유대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므
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
라, 하더라.
12 이에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
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
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13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
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십이월
곧 아달 월 십삼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
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략하
게 하였으며

14 또 각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위
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 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더라.
15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
궁에도 전달되니라. 왕과 하만은 마시
려고 앉았으나 수산 시는 혼란에 빠지
니라.

제 4 장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돕기로 함

1 모르드개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쓰고* 도시 한가운
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
짖으며
2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
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
더라.
3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
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
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4 ¶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
장들이 나아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
니 그때에 왕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
드개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5 이에 에스더가 왕이 정하여 자기
를 섬기게 한 자 곧 왕의 시종장들
중의 하나인 하닥을 부르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개에게 가서 그것
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게 하매
6 하닥이 왕의 문 앞에 있던 도시의
거리로 가서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7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
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
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며
8 또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 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10 ¶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
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11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
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
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
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
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 홀
(笏)을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
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삼십 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12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
에게 고하매
13 그때에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에
스더에게 회답하되, 네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14 이때에 네가 전적으로 잠잠하
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
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와 같은 때
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
느냐? 하니라.
15 ¶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
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개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16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
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
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
리이다, 하매

17 이에 모르드개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제 5 장

에스더의 연회

1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에 서매 왕이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다가
2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
는데 이때에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니라. 왕이 손에 잡고 있
던 황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3 그때에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
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
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4 에스더가 응답하되, 왕이 좋게 여
기시거든 이 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아오소서, 하매
5 그때에 왕이 이르되, 하만이 에스
더가 말한 대로 행하도록 그를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
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6 ¶ 포도주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
에게 이르되,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
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
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7 그때에 에스더가 응답하여 말하
되, 나의 청원과 나의 요구가 *이러하
니이다*.
8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왕께서 나의 청원을 허락하시
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하시
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풀 잔치
에 나아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를 치려는 하만의 음모

9 ¶ 그때에 그 날에 하만이 기뻐하
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나 모르드
개가 왕의 문에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지
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모르드개에
게 심히 노하니라.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참고
집으로 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
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11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
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인 모든 일과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승진시킨 것을 말하며
12 또 이르되, 참으로 왕비 에스더
가 베푼 잔치에 왕비가 나 외에는 아무
도 왕과 함께 오지 못하게 하였고 내일
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이르도록
초청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개가 왕의
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는 한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하니
라.
14 ¶ 그때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
신은 높이가 오십 큐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개
를 거기에 매다소서.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들어가소서, 하
니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
대를 세우게 하니라.

제 6 장

왕이 모르드개를 높임

1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
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2 *거기서* 발견된바 기록되기를, 모
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
려 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
는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던 두 사
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3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엄 있는 일을 모르드개
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
나이다, 하니라.
4 ¶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
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개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
를 매달려고 왕에게 말하기 위해 왕의
집의 바깥뜰에 이르렀으므로
5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
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하매
6 이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
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
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
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이
리요? 하고
7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존귀하
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8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
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을 취하고
9 이 예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
어 그들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
게 하며 또 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기
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
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네
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개
에게 그렇게 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하니라.
11 이에 하만이 예복과 말을 취하
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니라.
12 ¶ 모르드개는 다시 왕의 문으
로 돌아왔으나 하만은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급히 집으로 돌아와
13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때에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개가 유대인들의 씨라
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
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
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하
니라.
14 아직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의 시종장들이 이르러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
치에 가니라.

제 7 장

하만이 모르드개 대신 죽음

1 이처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
와 함께 잔치에 가니라.
2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
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
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
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
겠노라, 하니
3 그때에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
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4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
니라.
5 ¶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감히 마

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
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매 그때
에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
니라.
7 ¶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서 포도
주 잔치를 떠나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
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하였
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
로 결심한 줄 그가 보았기 때문이더
라.
8 그때에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
터 포도주 잔치를 여는 장소에 돌아오
매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러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
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
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9 왕의 시종장들 중의 하나인 하르
보나가 왕 앞에서 아뢰되, 또한 보소
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뢴 모르
드개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오십
큐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에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10 이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해 예
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제 8 장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원함

1 그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
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자기
와 어떤 관계인가를 왕에게 고하였으
므로 그가 왕 앞에 나아오니
2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 반
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매 에스더
가 모르드개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
스리게 하니라.
3 ¶ 에스더가 여전히 다시 왕 앞에
서 말하며 그의 발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해악과 유대인들을 치려고 그
가 꾸민 그의 계략을 제거해 줄 것을
눈물로 그에게 간청하니
4 그때에 왕이 에스더를 향해 황금
홀을 내밀매 이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5 이르되, 왕이 만일 기뻐하시며
내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그 일을 옳게 여기시며 왕의
눈으로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문서를*
쓰게 하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
들을 멸하려고 계획하여 쓴 편지를
취소하소서.
6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임할 화를
차마 볼 수 있으리이까? 또 내 친족들
이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있으리이
까? 하니라.
7 ¶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
되, 보라,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
달았고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
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
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
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9 이에 그때에 셋째 달 곧 시반 월
즉 그 달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모르드개가 명령한 모든 것
에 따라 문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에티
오피아까지 백스물일곱 지방의 유대
인들과 부관들과 지방들의 총독들과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에,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들
의 글과 말로 보내니라.
10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해서
말 등에 타는 파발꾼들과 노새와 낙타
와 젊은 단봉낙타를 타는 자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니라.
11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또 그들
즉 어린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
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 탈취물로 삼을 것을
허락하되
12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에 즉 십이월 곧 아달 월 십삼일에
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고
13 모든 지방에 전달될 명령을 기
록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유대인들이 그 날을 대비하
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
라.
14 이처럼 노새와 낙타를 탄 파발
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재촉
하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 궁에 전달
되니라.
15 ¶ 모르드개가 청색과 흰색으로
된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쓰고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오니 수산 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16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17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
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
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
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
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제 9 장

유대인들이 학대자들을 죽임

1 이제 십이월 곧 아달 월 즉 바로
그 달의 십삼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집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
니라. 이 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바랐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
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
라.)
2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
든 지방에서 두루 자기들의 도시들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려 하였더라. 아무
도 능히 그들을 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
하였기 때문이더라.
3 지방들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
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 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개
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
이더라.
4 모르드개가 왕의 집에서 창대하
게 되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으니 이는 이 사람 모르드개가 점
점 더 창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5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
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살육하
고 멸하였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
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
더라.
6 또 수산 궁에서 유대인들이 오백
명을 죽여 멸하였고
7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8 보라다와 아달랴와 아리다다와
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
사다
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
들의 원수인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
나 노략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
라.
11 그 날에 수산 궁에서 죽임 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가져가니라.
12 ¶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르
되, 유대인들이 수산 궁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여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도
그리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지방들에
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이
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
게 허락하겠노라. 또는 그대의 요구
가 또 무엇이냐? 그것을 시행하겠노
라, 하니
13 그때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이 날의 칙령대로
행하게 허락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소서, 하매
14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고 칙령을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열 아들을 매다니라.
15 아달 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삼백 명을 수산
에서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 그러나 왕의 지방들에 있던 다
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기들
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
며 자기들의 원수 칠만 오천 명을 죽였
으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
더라.
17 그들이 아달 월 십삼일에 *그 일
을 행하였고* 바로 그 달 십사일에는
안식하였으며 그 날을 잔치하며 즐기
는 날로 삼았더라.

부림 명절

18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달 십삼일과 십사일에 함께 모였고
바로 그 달 십오일에 안식하였으며
그 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
라.
19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
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던
자들이 아달 월 십사일을 즐기며 잔치
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
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20 ¶ 모르드개가 이 일들을 기록
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수에로 왕
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21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 월 십사일과 바로 그 달의
십오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22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
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
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23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시
작한 대로 또 모르드개가 자기들에게
쓴 대로 행하였으니
24 이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로서 모든 유대인의 원수가 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그들을 칠 계획
을 꾸며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소멸시키고 멸하려 하였기 때문이더
라.
25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가매
왕이 편지로 명령하여 그가 유대인들
을 치려고 꾸민 그의 악한 계획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그와 그의 아들들
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였더라.
26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라는 이
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 하니
라. 그런즉 이 편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관하여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
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27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하였고 또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와 자기들에게
연합한 모든 자들이 그 날들의 기록대
로 그 날들의 정한 때에 이 두 날을
해마다 지켜서 그것을 폐하지 아니하
기로 작정하였으며
28 또 각 세대, 각 가족,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
고 또 부림의 이 날들을 유대인들 가운
데서 폐하지 아니하게 하며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자기들의 씨에게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29 그때에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
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글을 써서 부림에 관한 이 둘째
편지를 확정하였고
30 또 그가 평화롭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왕국의 백
스물일곱 지방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31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비 에스더
가 그들에게 촉구한 대로 또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를 위해 금식하

며 부르짖은 일들을 정한 대로 그 날들
의 정한 때에 부림의 이 날들을 *지킬*
것을 확정하였더라.
32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에 관한
이 일들을 확정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 10 장

모르드개의 승진

1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
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개를 위대한 *자리*
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
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
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욥기

기록자: 욥, 기록 시기: 주전 2100－2200년경, 성격: 지혜 문학, 기간: 약 1년, 수신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
이름: 이 책의 이름은 라틴어 성경에서 나왔으며 욥은 '고난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를 뜻한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 이전에 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율법이나 성막 혹은 예전의 족장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14장 14, 20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 등은 욥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 주며 따라서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간주된다.
주제: 욥이 당한 시험과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목적: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고 신자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아라비아 사막의 우스라는 곳에 거하던 경건한 사람 욥에게 일어난 고난과 그 고난을 둘러싼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로 인한 문제 해결의 경과를 기록한다. 욥은 자식도 많고 재산도 풍부하여 동쪽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믿음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뒤 먼저 욥의 소유물과 가족을 빼앗고 이어서 독한 종기로 그의 전신을 쳐서 그를 괴롭혔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 전통적인 교리에 서서 욥이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욥은 이에 항거하였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에 젊은 사람 엘리후가 양편에 잘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분개하여 충고하고 중재를 시도하지만 결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불완전하였으며 최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결말이 난다. 욥기는 42장, 1,070절, 18,09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8장(욥이 하나님을 의식함), 핵심 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23:10)
핵심 단어: 단련 받다, 핵심 구: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1:21), 욥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영적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일하시게 하라."

제 1 장

우스 땅의 욥과 그의 가족

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
나니라.
3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칠천 마리
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집
안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
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4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세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
더라.
5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
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
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
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사탄이 욥을 공격함

6 ¶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7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
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
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8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9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
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
나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
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11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
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
리이다, 하매
12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
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내밀
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
서 물러가더라.

욥이 재산과 아이들을 잃음

13 ¶ 하루는 그의 아들딸들이 자
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14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16 그가 아직 말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17 그가 아직 말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
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
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
이다, 하더라.
18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딸
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
즙을 마시는데
19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의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20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
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
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
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 2 장

사탄이 욥의 건강을 해침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
니라.
2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
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
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
다가 *오나이다*, 하매
3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

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
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4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
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5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
이다, 하매
6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
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 둘지니라, 하시니라.
7 ¶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
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8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 있더라.
9 ¶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
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
라, 하되
10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
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의 하나가 말하
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
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욥의 세 친구

11 ¶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그들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
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더라.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12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13 이처럼 밤낮으로 이레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보므로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제 3 장

욥이 자기의 출생을 한탄함

1 이 일 뒤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
2 욥이 말하여 이르되,
3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
이 소멸되었더라면,
4 그 낮이 어두웠더라면, 하나님께
서 위에서 그 낮을 돌아보지 아니하셨
더라면, 빛도 그 낮 위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5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
위에 거하였더라면, 그 낮의 캄캄함
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
리라.
6 그 밤으로 말하건대 어둠이 그
밤을 붙잡았더라면, 그 밤이 그 해의
날수에 끼지도 아니하고 달수에 들지
도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7 보라,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밤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
였더라면,
8 그 낮을 저주하는 자들 곧 어느
때든지 소리를 높여 애곡하려 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 그 밤의 새벽녘의 별들이 어둡게
되었더라면, 그 밤이 빛을 바랄지라
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
리니
10 이는 그 밤이 내 어머니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내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
다.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
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
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

가?
12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13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14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
운 땅의 왕들과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
을 것이며
15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
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
을 것이요,
16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
라.
17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18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
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
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20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 당하
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21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
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다가
22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
고 즐거워하나니
23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길을 숨기
신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24 나는 먹기도 전에 탄식하고 나
의 울부짖음은 물들처럼 쏟아졌으며
25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
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26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
고 평온함도 없었으되 고난이 임하였
도다, 하니라.

제 4 장

엘리바스가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함

1 그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
답하여 이르되,
2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네
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3 보라, 전에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4 넘어지는 자를 네 말로 붙들어
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
나
5 이제 그것이 네게 닥치니 네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네가
괴로워하는도다.
6 이것이 네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 네
길들의 곧바름이 아니냐?
7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
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
지는 곳이 어디냐?
8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
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9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
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10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
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11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
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
12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
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
라.
13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
을 때에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15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

라.
16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
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
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17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
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18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
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19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
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20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
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
떠보는 자가 없느니라.
21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
이 떠나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심
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하였느
니라.

제 5 장

엘리바스가 욥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함
1 네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
로 향하겠느냐?
2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
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3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
하였노라.
4 그의 자녀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
어져 있고 그들이 성문에서 짓눌리되
그들을 건져 내는 자가 없으며
5 그들이 수확한 것은 주린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
며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
다.
6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
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
라도
7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8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
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9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고
10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들에
보내시고
11 낮은 자들을 높이 세우시나니
이것은 애곡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
한 곳에 두려 하심이니라.
12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13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간
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러뜨리시므로
14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
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15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들의 손에
서 구원하시나니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
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
니라.
17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
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
라.
18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
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분께서 여섯 가지 고난 중에
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네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20 기근을 당할 때는 죽음에서, 전
쟁을 벌일 때는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21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22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
리니

23 네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고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리라.
24 이로써 네 장막이 평안한 줄을
네가 알며 네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25 또 네 씨가 크게 되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도 네가 알고
26 곡식 단이 제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네가 장수를 누리다가 네 무덤에
이르리라.
27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
펴본 대로 그것이 그러한즉 너는 그것
을 듣고 네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
라, 하니라.

제 6 장

욥이 자신의 불평은 정당하다고 말함

1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아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 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도다!
3 이제 그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
거울 터인즉 내 말들을 삼키리로다.
4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속에 있어
서 그것들의 독이 내 영을 마시나니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도다.
5 들나귀가 풀이 있을 때에 울겠느
냐? 소가 자기의 꼴을 보고 울겠느
냐?
6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7 내 혼이 만지기를 거부한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음식같이 되었도
다.
8 아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구나!
9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
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 버리시면 좋겠구나!
10 그리하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참으로 슬픔 속에서도 내 자신을
단단하게 하리로다. 그분께서 *그것들
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노니 이
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들을 숨기
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1 내 기력이 어떠하기에 내가 소
망을 갖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
기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12 내 기력이 돌들의 기력이냐? 내
육체가 놋으로 되었느냐?
13 나의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아니
하냐?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나갔
느냐?
14 고난 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
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가 전능자 두려
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속임
수로 대하였고 그들은 개울들의 물살
같이 지나가느니라.
16 그것들은 얼음 때문에 거무스
레하고 그 속에는 눈이 숨겨져 있도
다.
17 그것들이 따뜻하게 되는 때에
사라지고 날이 더울 때에 자기 자리에
서 나와 소멸되는도다.
18 개울들이 흐르는 길의 통로들
은 옆으로 벗어나 아무 데도 가지 못하
고 소멸되느니라.
19 데마의 무리들이 바라보고 세바
의 일행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다가
20 자기들이 소망을 가졌으므로 당
황하고 거기에 이르러 부끄러워하였도
다.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
다. 내가 내던져진 것을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는도다.
22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가져오
라, 하더냐? 또는, 너희 재산 중에서
내게 보상을 달라, 하더냐?
23 또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 하더냐? 또는, 강력한 자의 손
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24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
는지 깨닫게 하라.
25 바른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위

력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의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26 절망에 빠진 자의 말들은 바람
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
자 꾀하느냐?
27 참으로 너희는 아버지 없는 자
를 기죽게 만들며 너희 친구를 노리고
구덩이를 파는도다.
28 그러므로 이제 흡족히 여기고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나느니
라.
29 청하건대 *너희는* 돌아오고 그
것이 불법이 되지 않게 하라. 내 의가
그것 안에 있으니 참으로 되돌아오
라.
30 내 혀에 불법이 있느냐? 내 미
각이 잘못된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겠
느냐?

제 7 장

욥이 자신의 고통은
위로받을 수 없다고 말함

1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2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
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3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
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
졌도다.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샐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
리 뒤척이는도다.
5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
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
으며
6 내 날들은 베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7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
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니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은
즉 내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9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같이 무
덤에 내려가는 자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니
10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
가지 못하며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
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12 내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주께
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13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
를 위로하고 내 잠자는 의자가 내 원통
함을 풀어 주리라, 할 때에
14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
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
나이다.
15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
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16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
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
이다.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
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18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
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19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
시며 혹은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
지 하시리이까?
20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세우사 주를 대적하는 과녁이
되게 하시며 내가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
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
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 속

에서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
다, 하니라.

제 8 장

빌닷이 욥이 회개할 것을 촉구함

1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
여 이르되,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
들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3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4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
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5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6 또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네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
리니
7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8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
에게* 물으며 네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
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
이라.
9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10 그들이 네게 가르치고 네게 말
하며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말하
지 아니하겠느냐?
11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
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12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
이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
은 사라지리니
14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가 신
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되리라.
15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며 그가 그 집을 굳게
붙들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리
라.
16 그는 해 앞에서 푸르며 그의 가
지는 그의 정원에서 뻗어나가고
17 그의 뿌리들은 무더기를 감싸
며 돌들이 있는 곳을 보는도다.
18 그분께서 그의 자리에서 그를
떼 내어 멸하시면 그의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19 보라, 그의 길의 기쁨은 이와
같으니 다른 자들이 그 땅에서 자라나
리로다.
20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
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21 마침내 네 입을 웃음으로, 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시리라.
22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거처
는 없어지리라, 하니라.

제 9 장

욥이 중재자가 없다고 말함

1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어 의로우랴?
3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4 그분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
하시니 누가 자신을 강퍅하게 하여
그분을 거역하고 형통하였느냐?
5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
이 알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도다.
6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
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7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8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9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
을 만드시고
10 알아낼 수 없는 큰일들을 행하
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
시느니라.
11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
셔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께
서 또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는도다.
12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
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
시나이까, 하겠느냐?
13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거두
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협력자들이 그
분 밑에서 허리를 굽히겠거늘
14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
하겠으며 내 말들을 택하여 그분과
변론하겠느냐?
15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분
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간구하리라.
16 내가 *그분을* 부르므로 그분께
서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
17 그분께서는 폭풍으로 나를 꺾
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
18 내가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19 내가 힘에 대하여 말할진대, 보
라, 그분께서는 강하시며 심판에 대
하여 말할진대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
을 정해 주리요?
20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
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
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21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나는
내 혼을 알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22 이 일이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완전한 자
와 사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였도다.
23 채찍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분께서는 죄 없는 자의 시련을
비웃으시리라.
24 그분께서 땅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누구이겠느
냐?
25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
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리므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26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
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처럼 지나갔도다.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원통함을 잊고 내 근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위로하리라, 할지라도
28 내가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
며 주께서 나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29 내가 사악할진대 어찌하여 헛
되이 수고하나이까?
30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
라도
31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
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
리이다.
32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
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33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
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34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
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
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
라.
35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
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제 10 장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겠다고 말함
1 내 혼이 살기에 지쳤으니 내가
내 원통함을 내 위에 두고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말하리라.
2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
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
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 주소
서.
3 주께서 학대하시는 것과 주의 손
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사악한
자의 계략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한 일이니이까?
4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
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
나이까?
5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
이까? 주의 연수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으므로
6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7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건져 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8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
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으되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9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
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10 주께서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
며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
이까?
11 주께서 나를 살갗과 살로 입히
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
으며
12 생명과 호의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
이다.
13 주께서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
에 숨기셨사온즉 이 일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14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불법을 사면하지 아니
하시리이다.
15 내가 사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머리
를 들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그런즉 주께서는 내 고난
을 보소서.
16 그것이 늘고 있나이다. 주께서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다가
주의 놀라우심을 내게 다시 보여 주시
나이다.
17 주께서 주의 증인들을 새로이
세우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주의
격노를 더하시니 변화와 싸움이 나를
치나이다.
18 그런즉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오 내가
숨을 거두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9 내가 있지 아니한 것처럼 되었
어야 마땅하며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
졌어야 마땅하였나이다.
20 내 날들은 그 수가 적지 아니하
니이까? 그런즉 이제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내가 잠시나마 위로를
얻게 하시되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
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22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
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 같으니이다,
하니라.

제 11 장

소발도 욥이 회개할 것을 촉구함
1 그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
하여 이르되,
2 많은 말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3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네가 조롱할 때에 아무도
너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겠느냐?

4 네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
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나이다, 하
였도다.
5 그러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말
씀하시고 자신의 입술을 여사 너를
치시며
6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네게 보여
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의 두
배나 됨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네 불법
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7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
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자를 완전
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8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
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9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
보다 넓으니라.
10 그분께서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시면 누가 능히 그분을 막겠
느냐?
11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
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즉 그분
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
겠느냐?
12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
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
고자 하느니라.
13 만일 네가 네 마음을 예비하고
그분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 때에
14 네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네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15 그리하면 네가 흠 없이 네 얼굴
을 들리라. 참으로 네가 굳건하여 두
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6 이는 네가 네 고통을 잊고 그것
을 흘러가는 물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
이라.
17 또 네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으
리니 네가 빛을 발하여 아침같이 되고
18 또 소망이 있으므로 네가 안전
하며 참으로 네 주위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
19 또한 네가 누워도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겠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네게 간청하리라.
20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눈은 쇠
하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
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
라, 하니라.

제 12 장

욥이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답함

1 이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3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
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
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
냐?
4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
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도다.
5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편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
받는 등불같이 되었도다.
6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
나님을 격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
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주시는도다.
7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
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
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8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9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
냐?
10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11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

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
냐?
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
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
라.
13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
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14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
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15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
면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
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
라.
16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
로
17 그분께서 조언자들을 노략하사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
가 되게 하시며
18 왕들의 결박을 푸시고 띠로 그
들의 허리를 줄로 동이시며
19 통치자들을 노략하사 끌어가시
고 강력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20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제거하
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21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력한 자들의 힘을 약하게 하시며
22 어둠 속에서 깊은 것들을 찾아
내시고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끌어내
시며
23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
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
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24 땅에 있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25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 13 장

욥이 자신을 변호함

1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
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
라.
2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
도 아노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
하니라.
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
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
라.
4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
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5 오 참으로 너희가 모두 잠잠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
혜일 것이니라.
6 이제 내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 보라.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악한
말을 하려느냐? 그분을 위하여 속임
수로 말하려느냐?
8 너희가 그분의 외모를 용납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논
쟁하려 하느냐?
9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시면 좋
겠느냐?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듯 너희가 그분을 조롱하느
냐?
10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
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11 그분의 뛰어남이 너희를 두렵
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의 두려
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겠느
냐?
12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
희 몸은 진흙 몸과 같으니라.
13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내
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
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
하리라.
16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
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17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18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
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잠잠하면 숨을 거두리라.
20 오직 내게 두 가지만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피
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
옵소서. 또 주의 두려우심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시옵소서.
22 그리하시고 주께서 부르소서.
내가 응답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말
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옵
소서.
23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
이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24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
이까?
25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
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
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
나이다.
27 또한 주께서 내 발을 차꼬에 채
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내 발뒤꿈치에 자국을 남기시니
28 그런즉 그가 썩은 물건처럼 또
좀 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제 14 장

욥이 인생의 재난들을 말함
1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
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2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
지 아니하거늘
3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4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
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
나이다.
5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
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
사오니
6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
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7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8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
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
도
9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10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
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11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
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12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13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
서!
14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
지 기다리겠나이다.
15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
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16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
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
나이까?

17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
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
다.
18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19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
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
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
다.
20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
게 하시고 그를 내쫓으시오니
21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
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22 오직 그에게 붙어 있는 살이 아
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니라.

제 15 장

엘리바스가 욥의 어리석음을 비난함

1 그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
답하여 이르되,
2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
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3 그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하겠
느냐? 혹은 아무 효력 없는 말로 변론
하겠느냐?
4 참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5 네 입이 네 불법을 말하며 네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6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
요, 네 입이라. 참으로 네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7 네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만들
어졌느냐?
8 네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
느냐? 그래서 네게만 지혜가 있게 하
려느냐?
9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
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10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
니라.
11 하나님의 위로가 네게는 작으
냐? 네게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12 어찌하여 네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느냐? 네 눈이 무엇에다 눈짓을
하기에
13 네가 네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
게 하느냐?
14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
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
기에 의롭겠느냐?
15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
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
하지 아니하거든
16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
느냐?
17 내가 네게 보여 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밝히 보이리니
18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
에게서 그것을 받아 고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9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어떤 낯선 자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
지 아니하였느니라.
20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
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
하는 자에게 *그의* 햇수를 숨기셨으므
로
21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
다. *그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
가 그에게 닥치리니
22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
올 것을 믿지 아니하고 칼이 그를 기다
리느니라.
23 그는 널리 헤매면서 빵을 구하
여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24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
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25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하
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강하게 하여
전능자를 대적하기 때문이라.
26 그가 그분께 달려들되 심지어
그분의 목과 그분의 방패들의 새긴
장식에까지 달려드나니
27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 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니라.
28 그는 황폐한 도시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집 곧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29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며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
재산을 땅 위에서 완전히 늘리지 못하
리라.
30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
아 그가 떠나가리라.
31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
이 되리라.
32 그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 일
이 이루어질 터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
지 못하리니
33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설
익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
요, 올리브나무처럼 자기의 꽃을 떨
어뜨리리라.
34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35 그들은 해악을 수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하니라.

제 16 장

욥이 동정심 없는 친구들을 책망함

1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3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
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네가 대답하
느냐?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에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5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 주었으리라.
6 내가 말할지라도 내 고통이 줄지
아니하고 참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편안함이 있겠느냐?
7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
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온 무리를 황폐
하게 하셨나이다.
8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
니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소
이다. 내 야윈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
나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하는도다.
9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
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
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며
10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
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11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12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과녁으로 삼으셨도
다.
13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
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
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
를 땅에 쏟으시고
14 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
시는도다.

15 내가 굵은 베를 내 살갗에 꿰매
었고 내 뿔을 흙에서 더럽혔도다.
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
고 내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으
나
17 *그것은* 내 손의 불의 때문이 아
니로다. 또한 내 기도는 순결하니라.
18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고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을 얻지 못하게
하라.
19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
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
다.
20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
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21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
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22 몇 년이 지나면 그때에 내가 돌
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로다.

제 17 장

욥이 구출받기 위해 기도함

1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
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
이다.
2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내 눈이 계속해서 그
들의 충동질을 *보지* 아니하니이까?
3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보증이 되소서. 나와 손을 마주
칠 자가 누구니이까?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
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그
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5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자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눈이 쇠하리이
다.
6 그분께서 나를 또한 백성의 속담
거리로 만드시니 내가 전에는 작은북
같았으며
7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었도
다.
8 곧바른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자는 위선자를 향하여 흥분하
며
9 또한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꾸준
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강성하리라.
10 그러나 너희 모두로 말하건대
너희는 돌이키고 이제 오라. 내가 너
희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 하나를 찾을
수 없느니라.
11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내가 목적
한 것들 곧 내 마음의 생각들이 좌절되
었도다.
12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모자라는도다.
13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내가 어둠 속에 내 침상을
만들었고
14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15 이제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으로 말하건대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
16 우리의 안식이 다 함께 흙 속에
있을 때에 그것들이 구덩이의 빗장들
로 내려가리로다, 하니라.

제 18 장

빌닷이 악한 자들이 벌을 받음을 말함

1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
여 이르되,
2 어느 때에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한계를* 정하라. 그 뒤에
야 우리가 말하리라.
3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눈앞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으
로 평하느냐?
4 그는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
는도다.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버리시겠느냐? 또 바위를 제 자리에

서 옮기시겠느냐?
5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
요,
6 광명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
지고 그의 등잔불은 그와 더불어 꺼지
며
7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그는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리니
8 그는 자기 발로 인해 그물에 빠지
고 또 올무 위를 걷는도다.
9 그가 발꿈치로 인해 덫에 걸리니
강도가 그를 쳐서 이기리라.
10 그를 노리는 올무가 땅에 놓여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도
다.
11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
하며
12 그의 기력은 굶주림으로 쇠약
해지고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리다
가
13 그의 살갗의 기력을 삼키리니
곧 사망의 처음 난 것이 그의 기력을
삼키리라.
14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
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
게로 데려가고
15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며
16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꺾이며
17 그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
지고 그는 거리에서 이름을 갖지 못하
며
18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
고 세상에서 쫓겨나며
19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손
자도 없고 또 그의 거처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20 그의 뒤에 오는 자들이 그의 날
을 보고 놀라되 앞서 간 자들이 무서워
한 것 같이 놀라리라.
21 참으로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하니라.

제 19 장

욥이 자신의 구속자를 신뢰함

1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혼을 괴롭
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
냐?
3 너희가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모욕하였으되 내게 낯선 자처럼 행하
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4 참으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
도 내 잘못은 내게 남아 있느니라.
5 참으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너
희 자신을 높이고 나를 대적하여 내
수치를 말하려 할진대
6 하나님께서 나를 뒤엎으시고 자
신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이제
알지니라.
7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
다.
8 그분께서 내 길을 둘러 막으사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행로
들에 어둠을 두시며
9 내게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관을 내 머리에서 가져가시며
10 사방에서 나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사라졌도다. 또 그분께서 내 소
망을 나무처럼 옮기시고
11 또한 나를 향해 친히 진노하시
며 나를 자신의 원수들 중의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12 그분의 군대가 함께 나아와 나
를 치려고 자기들의 길을 쌓아 올리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도다.
13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
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도
다.
14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15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
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
의 눈앞에서 외인이 되었도다.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
하지 아니하매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
하였도다.
17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
해 간청하였으되 내 숨결이 내 아내에
게 낯설도다.
18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
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비방하
였도다.
19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
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20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달라붙으
니 내가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
다.
21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
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
셨느니라.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
를 핍박하며 내 살로 만족하지 아니하
느냐?
23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24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
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25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26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
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28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
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
냐? 할지니라.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진노는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로
써 너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
라, 하니라.

제 20 장

소발이 악한 자들에 대해 말함

1 그때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
하여 이르되,
2 그러므로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
금 답변하게 하나니 이것으로 인해
내가 서두르노라.
3 나를 모욕하는 책망의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지각의 영이 나로 하여
금 답변하게 하는도다.
4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5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6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
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7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
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의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9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
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10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겠고 그의 손은
그들의 재물을 돌려주리라.
11 그의 뼈들은 그의 젊을 때의 죄
로 가득한즉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
라.
12 그의 입이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13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
려 입 안에 가만히 물고 있을지라도
14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 속에서
변하고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즙이
되느니라.
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

시 토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16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이리라.
17 그는 강들과 홍수들과 꿀과 버
터가 흐르는 시내들을 보지 못하며
18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돌려주고 삼키지 못하되 자기 재산에
따라 되돌려 주며 또 그가 그것을 기뻐
하지 아니하리니
19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
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20 분명히 그는 자기 배 속에서 평
온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던
것을 지키지 못하리라.
21 그의 음식에서 남은 것이 하나
도 없을 터인즉 아무도 그의 재물을
기대하지 아니할 것이요,
22 그는 자기가 가장 풍족할 때에
도 궁핍에 처하리니 사악한 자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23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진노를 그에
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을 때에 그에게
진노를 비같이 쏟으시리라.
24 그가 쇠로 된 무기를 피할 때에
는 강철로 된 활이 그를 쳐서 꿰뚫을
것이요,
25 그것을 빼낸즉 그것이 몸에서
나오나니 참으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
치느니라.
26 온갖 어둠이 그의 은밀한 처소
들 안에 감추어지리니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키고 그것이 자기 장막에
남아 있는 그에게 해를 입히리라.
27 하늘이 그의 불법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28 그의 집의 번영이 떠나가며 그
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
가리라.
29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
신 유산이니라, 하니라.

제 21 장

욥이 사악한 자들에 대해 말함

1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내 말을 부지런히 듣고 이것을
너희의 위로로 삼을지니라.
3 내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내가
말한 뒤에 조롱할지니라.
4 나로 말하건대 내가 사람에게 불
평하느냐?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하
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5 나를 주목하고 놀라며 손으로 너
희 입을 막을지어다.
6 나는 기억하기만 해도 무섭고 또
떨리는 일이 내 육신을 붙잡는도다.
7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
냐?
8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9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
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
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
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도다.
11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것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12 그들은 작은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13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
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14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
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15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
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
는도다.
16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략
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17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
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
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도다.
18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
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
19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 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
라.
20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
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
21 그의 달수가 중간에서 끊어지
면 그의 뒤에 그의 집에서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22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
하시나니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
겠느냐?
23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심
히 편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으며
24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으되
25 다른 사람은 혼이 쓰라린 가운
데 죽고 결코 즐겁게 먹지도 못하는도
다.
26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우
매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27 보라, 내가 너희 생각들을 알며
나를 치려고 부당하게 꾸민 계략들을
아노라.
28 너희가 이르기를, 통치자의 집
이 어디 있느냐? 사악한 자의 거처들
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29 너희가 길 가는 자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들의 증거
들
30 곧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들이 진노의 날로 끌려 나가리로다.
31 누가 그의 얼굴을 향해 그의 길
을 밝히 보여 주겠느냐? 그가 행한
바를 누가 그에게 갚아 주겠느냐?
32 그럼에도 그가 무덤으로 이끌
려 가서 묘지에 머물리라.
33 그가 골짜기의 흙덩이들을 달
게 여기리니 무수한 자들이 그보다
앞서 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모여들리라.
34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헛
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 속에는
거짓이 있느니라, 하니라.

제 22 장

엘리바스가 욥의 사악함에 대해 말함

1 그때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
답하여 이르되,
2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
게 할 수 있겠느냐?
3 네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
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네가 네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
4 그분께서 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께
서 너와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시겠
느냐?
5 네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네
불법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6 네가 까닭 없이 네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7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
하였도다.
8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
서 살았도다.
9 네가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
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
다.
10 그러므로 올가미들이 너를 둘
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괴
롭히며
11 또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
니라.
12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

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13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
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
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
냐?
14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15 네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
을 주목해 보았느냐?
16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
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
니라.
17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
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그들을 위
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였으
되
18 그분께서는 좋은 것들로 그들
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그러나 사악
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느
니라.
19 의로운 자들은 그것을 보고 즐
거워하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
는도다.
20 우리의 재산은 끊어지지 아니
하였으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이
소멸시키는도다.
21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
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쌓아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또 네가 네 장막에서 불법
을 멀리 치우리라.
24 그때에 네가 금을 흙처럼, 오빌
의 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며
25 참으로 전능자께서 네 방벽이
되시고 네가 많은 은을 소유하리니
26 그때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라.
27 네가 그분께 네 기도를 드리리
니 그분께서 네 말을 들으실 것이요,
또 네가 네 서원을 갚으리라.
28 또한 네가 어떤 일을 정하면 그
일이 너를 위해 굳게 세워질 것이요,
빛이 네 길들에 비치리라.
29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때에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 주시
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겸손
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 그분께서 죄 없는 자들의 섬을
구출하시리니 네 손의 순결함으로 말
미암아 그 섬이 구출되리라, 하니라.

제 23 장

욥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함

1 그때에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
스러우니 내가 매 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3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4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
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6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
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7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
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8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
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
며
9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
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시므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

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
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12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
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13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 같으
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
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
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
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
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16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
나니
17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
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
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
기 때문이로다.

제 24 장

욥이 땅에서의 폭력을 불평함

1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
거늘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2 어떤 자들은 지계표를 옮기고 난
폭하게 양 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3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
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4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5 보라, 그들은 사막의 들나귀같이
자기들의 일로 나아가며 탈취물을 찾
으러 제때에 일어나나니 광야가 그들
과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내는도다.
6 그들이 저마다 들에서 자기 곡식
을 거두고 사악한 자의 포도를 주우며
7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8 산들의 소나기에 젖고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를 젖가슴
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
물을 취하고
10 또 그로 하여금 옷도 없이 벌거
벗은 채 가게 하며 주린 자들로부터
곡식 단을 빼앗으니
11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
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 틀을 밟으
며 목말라 하는도다.
12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신
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혼이 부르짖
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그들
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3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
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하는도
다.
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15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
장하느니라.
16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17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
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
움 속에 있느니라.
18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그
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가
포도원들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
멸시키는 것 같이 무덤도 죄 지은 자들
을 그리하는도다.

20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다시는 그가 기
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
럼 꺾이리라.
21 그가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
*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22 또 자기 능력으로 강한 자도 끌
어들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
명을 장담하지 못하느니라.
23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
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
니라.
24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
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25 비록 그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아
니할지라도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내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겠느냐? 하니라.

제 25 장

빌닷이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느냐고 반박함

1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
여 이르되,
2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나
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효가 있느
냐? 그분의 빛이 떠오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4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
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5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
거늘
6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
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
떠하겠느냐? 하니라.

제 26 장

욥이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말함

1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2 권세 없는 자를 네가 어떻게 도왔
느냐? 기력 없는 팔을 네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3 지혜 없는 자에게 네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
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4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5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
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6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
라.
7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
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8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
지 아니하느니라.
9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
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
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11 그분께서 꾸짖으시매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12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
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13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
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
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
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
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제 27 장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함
1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2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
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4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
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
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
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
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7 내 원수는 사악한 자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
이 되기를 원하노라.
8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
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
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9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
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
냐?
10 그가 스스로 전능자를 기뻐하겠
느냐?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11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
지 아니하리라.
12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
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13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학대하는 자들이 전능자
에게서 받을 유산이니라.
14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
에 *쓰러지나니*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며
15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 속에 묻
히고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하리라.
16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17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
라.
18 그는 좀처럼 자기 집을 짓나니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
라.
19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뜨매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20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
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21 동풍이 그를 끌어가므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22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
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망하고자
하리라.
23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제 28 장

욥이 지혜에 대해 말함
1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며
2 쇠는 땅에서 취하고 놋은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3 그가 어둠에게 끝을 정해 주며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내나니 곧
어둠의 돌들과 사망의 그늘이라.
4 큰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 나
오나니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
이라.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
터 떠나갔느니라.
5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
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
도다.
6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
이며 땅에는 사금도 있고
7 또 어떤 날짐승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대머리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8 사자 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
지 아니하였느니라.
9 그가 바위 위에 자기 손을 대고
산들을 그 뿌리들로 뒤엎으며
10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 내
고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11 큰물을 싸매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도
다.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
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13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
며 산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14 깊음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
라.
15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
하겠고
17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
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18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
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19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
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20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
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21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
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
니
22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
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
라, 하느니라.
23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
하시며 그것의 처소도 아시나니
24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
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25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
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26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27 그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
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
느니라, 하니라.

제 29 장

욥의 자기 변호

1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2 오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
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
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4 내가 나의 젊은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5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
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6 그때에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
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 내었도다.
7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8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9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10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11 귀가 내 말을 들을 때에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향해 증언하였나니
12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
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 주었기 때문이라.
13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14 내가 의를 입으매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
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15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
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16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 주었
으며
17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략
한 물건을 그의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
니라.
18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
처럼 많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9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 나갔
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
으며
20 내 영광은 내 속에서 생생하였
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
다.
21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기다렸으며 내가 권고할 때에
잠잠하였노라.
22 내 말이 끝난 뒤에는 그들이 또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그들 위에 떨어졌느니라.
23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
다리고 늦은 비를 맞이하듯 입을 크게
벌렸으며
24 내가 그들을 향해 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얼굴
빛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의 왕같이
또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같이
거하였느니라.

제 30 장

욥의 자기의 과거와 현재 비교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
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들
은 내가 경멸하여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을 자들이니
라.
2 그들에게는 오랜 연륜이 사라졌
거늘 참으로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3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량하
게 되어 예전에 황폐하고 피폐한 광야
로 도피하였으며
4 수풀 곁에서 당아욱을 잘라 내고
로뎀나무 뿌리를 먹을 것으로 삼았느
니라.
5 (그들이 도둑을 쫓듯이 그들을
쫓으며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사
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6 골짜기의 벼랑과 땅굴과 바위 속
에서 거하며
7 수풀 사이에서 나귀처럼 울고 쐐
기풀 밑에 함께 모였느니라.
8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
이요, 참으로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
로서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9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참으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
으며
10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
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11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셔
서 나를 괴롭게 하시므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12 내 오른쪽에서 젊은이들이 일
어나서 내 발을 밀어 제치며 나를 치려
고 자기들의 멸망의 길들을 쌓아 올리
고
13 그들이 내 길을 망치며 내 재앙
을 재촉하거니와 그들에게는 돕는 자
가 없도다.
14 물들이 넓게 밀려드는 것 같이

그들이 내 위에 임하며 황폐함 속에서
내 위로 굴러 왔도다.
15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
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
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16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나
니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도
다.
17 밤이 되면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18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
였으며 그것이 내 옷깃처럼 나를 동여
매는도다.
19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
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
다.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
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
나이다.
21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
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
시나이다.
22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
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23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
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 자를 위하
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24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분의 멸
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무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25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
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내 혼이 가난
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
가?
26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
이 이르렀도다.
27 내 창자가 들끓어 안식이 없었
으며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질러 갔도
다.
28 나는 해도 없이 애곡하면서 갔
으며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르짖
었느니라.
29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
의 벗이로다.
30 내 살갗이 내 위에서 검게 되었
으며 내 뼈는 열기로 타버렸도다.
31 또 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
으며 내 오르간은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제 31 장

욥이 자신의 의를 변호함

1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2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
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
냐?
3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
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4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5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
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
라.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
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11 이것은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
이며
12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
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

째 뽑으리라.
13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
와 다툴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
하였다면
14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
실 때에 내가 무어라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
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16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
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
하게 하였다면
17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
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18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
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
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19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옷이 없
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20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
을 빌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
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
음을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22 내 팔이 어깻죽지에서 떨어지
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23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
게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분의 높으심
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느니
라.
24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
았거나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내 재산이 많으므로 또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
하였다면
26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
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27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
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28 이것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라.
29 혹시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한 때에 내 자신을 높였던가.
30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원
함으로 내 입이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
였노라.
31 혹시 내 장막의 사람들이 이르
기를, 오 우리가 그의 살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족할 수 없
노라, 하지 아니하였던가.
32 낯선 자가 거리에 머물지 아니
하였고 내가 나그네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33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
던가.
34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더
냐?
35 오 누가 내 말을 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
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36 *그러할진대* 내가 반드시 그것
을 어깨에 메고 관(冠)처럼 내게 묶어
두리라.
37 내가 그에게 내 발걸음의 수효
를 밝히 보여 주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리라.
38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
르짖거나 그것의 밭고랑들이 마찬가
지로 불평한다면
39 만일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그것
의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것의 소유주
들이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
신 잡초가 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제 32 장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반박함

1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2 그때에 람의 친족 중에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3 또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4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5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에 그의 진노가 타오르니라.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당신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7 내가 이르기를, 날수가 말할 것이요, 많은 연수가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였노라.

8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9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였나니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1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에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

12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목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의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도다.

13 당신들은 삼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였는데 그를 몰아내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14 이제 그가 자기의 말을 내게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15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만두었도다.

16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기다리다가

17 이르되, 나도 내 몫*의 말*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였나니

18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19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통* 같으며 새 부대 같이 터지려 하는도다.

20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터인즉 내 입술을 열어 응답하리라.

21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22 나는 아첨하는 호칭 붙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면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속히 데려가시리로다.

제 33 장

엘리후가 욥을 반박함

1 그러므로 욥이여,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2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였도다.

3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4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
라.
5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할 수 있거
든 내 앞에서 그대의 말을 질서 있게
제시하고 일어서라.
6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
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7 보라, 나의 두려움이 그대를 무
섭게 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손도 그대
를 무겁게 누르지 아니하리라.
8 그대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
나니 이르기를,
9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
하고 내 안에는 불법도 없거늘
10 보라, 그분께서 나를 대적할 기
회들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내 모
든 행로를 주목하신다, 하였느니라.
12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13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
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의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
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15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
리에서 선잠을 잘 때에
16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
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17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
이라.
18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
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
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
라.
19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
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20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21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
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22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
느니라.
23 만일 천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
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使者)
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대
24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
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 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25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
로 돌아가리라.
26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
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
시리라.
27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28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 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
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29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
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30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시고 살아 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1 오 욥이여, 잘 주목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
리라.
32 만일 네가 할 말이 있거든 내게
응답하여 말하라. 나는 그대를 의롭
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33 만일 없거든 내 말에 귀를 기울

이고 잠잠하라. 내가 그대에게 지혜
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제 34 장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함

1 또 엘리후가 응답하여 이르되,
2 오 지혜로운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들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
여, 당신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3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하나니
4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
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5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
셨도다.
6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
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
라, 하였나니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요? 그
가 물 마시듯 비웃는 것을 마시며
8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
니
9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
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10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
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
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
니
11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12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3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느냐? 또
는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였느냐?
14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15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
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16 그대가 만일 지금 명철이 있거
든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
이라.
17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
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
대가 정죄하겠느냐?
18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당
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19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
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
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
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
라.
20 그들은 순식간에 죽으리니 백
성은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
며 강력한 자들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
되리로다.
21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22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
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
라.
23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사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
가지 못하게 하시며
24 용사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자들을 세우시
느니라.
25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행
위들을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
어엎으사 멸망하게 하시는도다.
26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
로 여기사 다른 사람들이 환히 보는
데서 치시나니
27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
켜 물러가고 그분의 길들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8 이처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므로 그분께서 고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니라.

29 그분께서 고요함을 주실 때에 누가 소란하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에 누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한 민족에게 그리하시든지 한 사람에게만 그리하시든지 *상관이 없나니*

30 이것은 위선자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사 백성이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31 하나님께 *이렇게* 아뢲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32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33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 주실 분은 그분이시요,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34 명철한 자들은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35 욥이 지식 없이 말하였으니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도다.

36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들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37 그가 자기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제 35 장

엘리후가 욥의 의를 비난함

1 엘리후가 말을 더 하며 이르되,

2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3 그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긴들 그것이 네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도다.

4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동료들에게 대답하리라.

5 하늘들을 바라보고 살펴보라. 그대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6 그대가 죄를 지은들 그분을 대적하여 무슨 일을 하겠느냐? 혹은 그대의 범법이 많다 한들 그대가 그분께 무슨 일을 하겠느냐?

7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9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울부짖느니라.

10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11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12 그들이 악한 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나니

13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14 비록 그대가 그분을 뵙지 아니하리라고 말할지라도 심판이 그분 앞에 있나니 그런즉 그대는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15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므로 그분께서 친히 분노하사 벌을 주셨느니라. 그럼에도 그는 극심한 곤경 속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16 그러므로 욥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도

다, 하니라.

제 36 장

엘리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엄을 말함

1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되,
2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
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3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4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
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5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
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
가 강력하사
6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7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있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그
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
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8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9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
에게 보여 주시고
10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
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
게 하시나니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로되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
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
라.
13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
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
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14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15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16 바로 그와 같이 그분께서 그대
를 곤경 속에서 이끌어 내사 곤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것으
로 가득하리라.
17 그러나 그대가 사악한 자가 받
을 심판을 이루었으니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를 붙잡는도다.
18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
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
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19 그분께서 그대의 재물을 귀히
여기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기력의 모든 힘도 아니라.
20 *그대는* 밤 곧 백성들이 자기 처
소에서 끊어지는 때를 사모하지 말
라.
21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
을 두지 말라. 그대가 고난보다도 이
것을 택하였느니라.
22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
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
같이 가르치겠느냐?
23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
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
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
지어다.
25 사람마다 그것을 보며 사람이
먼 곳에서도 그것을 보리로다.
26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햇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27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
드시매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
로 비를 쏟나니
28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히 내려 주느니라.
29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
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으
랴?
30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
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31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
니라.
32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
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33 그것의 요란한 소리가 그것에
관하여 보여 주며 가축들도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 주느니라.

제 37 장

하나님의 일들과 지혜

1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 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2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
라.
3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
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4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
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
시리라.
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일들을 행하시나니
6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
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7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
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8 그때에 짐승들은 굴에 들어가 자
기 처소에 머물며
9 남쪽에서는 회오리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며
10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
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느니라.
11 또한 그분께서 물을 뿌리심으
로 빽빽한 구름을 지치게 하시고 자신
의 밝은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12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
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
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
게 하려 함이라.
13 혹은 바로잡는 일을 위하여 혹
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14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
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을 깊이 생각하라.
15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배치
하시고 자신의 구름의 빛이 빛을 발하
게 하셨는지 그대가 아느냐?
16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
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17 그분께서 남풍으로 땅을 고요
하게 하실 때에 그대의 옷이 어떻게
따뜻하게 되느냐?
18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
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
느냐?
19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치가* 어두워서
우리가 우리 말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느니라.
20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할진
대 반드시 삼켜지리라.
21 이제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 있
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느
니라.
22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

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
라.
23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
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
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시므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
니하시리로다.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
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
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
느니라, 하니라.

제 38 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냄
1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에
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2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
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3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
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
거든 밝히 고하라.
5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
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6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
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잇돌을 누
가 놓았느냐?
7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
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8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9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10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
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
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
느냐?
12 네 날이 *시작된* 이래로 네가 아
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동트는
때로 하여금 제 처소를 알게 하여
13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14 그것이 변하여 봉인하는 데 쓰
는 진흙이 되었으며 그것들이 옷같이
서 있느니라.
15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비*
추던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
리로다.
16 네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
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깊은 곳을
찾아 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17 사망의 문들이 네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사망의 그늘의 문
들을 본 적이 있느냐?
18 네가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안 적
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모두 알거든
밝히 고할지니라.
19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
냐? 또 어둠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거
처가 어디기에
20 네가 그것을 데려다가 그것의
경계에 이르게 하며 또 그것의 집으로
가는 행로들을 알겠느냐?
21 네가 그때에 태어났기에 그것
을 아느냐? 혹은 네 날수가 많기에
그것을 아느냐?
22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23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
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 두었느
니라.
24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
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25 누가 넘쳐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
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26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27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
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
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30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
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
라.
31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
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
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32 네가 마자롯을 그것의 철에 이
끌어 낼 수 있느냐? 혹은 네가 악투루
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33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34 네가 네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
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많은 물들이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35 네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네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
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36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
을 주었느냐?
37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
느냐? 혹은 누가 하늘의 부대들을 *붙
들어서*
38 흙이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
로 단단히 엉길 때에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
39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
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
을 채워 주겠느냐?
40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
는 곳에서 숨어 기다릴 때에 *그리하겠
느냐?*
41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
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
해 주느냐?

제 39 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도전을 줌

1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이 새끼 낳
는 때를 네가 정할 수 있느냐?
2 그것들이 몇 달을 채워야 하는지
네가 셀 수 있느냐? 혹은 그것들이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3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자기들의
새끼들을 낳고 자기들의 고생을 내던
져 버리느니라.
4 그것들의 새끼들은 튼튼하여 곡
식을 먹고 자라다가 나아가서는 그것
들에게 되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 누가 들나귀를 내보내어 자유롭
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의 묶
는 띠들을 풀어 주었느냐?
6 내가 광야를 그것의 집으로, 불
모지를 그것의 거처로 삼았느니라.
7 들나귀는 도시의 군중들을 비웃
으며 몰이꾼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
고
8 산등성이를 자기의 초장으로 삼
아 모든 푸른 것을 찾느니라.
9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
며 혹은 네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10 네가 능히 유니콘을 줄로 묶어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써레를 끌겠느
냐?
11 그것의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
을 신뢰하겠느냐? 혹은 네가 수고할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 그것이 네 씨앗을 집으로 가져
오며 네 곳간에 그것을 모아들이리라
고 네가 믿겠느냐?
13 네가 공작에게 멋진 날개를 주
었느냐? 혹은 타조에게 날개와 깃을
주었느냐?
14 타조는 자기 알들을 땅 속에 버

려두어 흙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15 발이 그것들을 으깨거나 들짐
승이 깨뜨릴 것도 잊어버리고
16 자기 새끼들을 무정하게 대하
되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기 수고가 헛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17 이는 하나님이 그것에게서 지혜
를 빼앗고 그것에게 명철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8 타조가 몸을 높이 들 때에는 말
과 그 위에 탄 자를 비웃느니라.
19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
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20 네가 그것으로 하여금 메뚜기
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
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21 그것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군사들
을 맞되
22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
니하며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
고
23 화살 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
가 자기를 향하여 우르르 소리를 낼지
라도
24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을 믿지 아니하
며
25 나팔 소리들 속에서도, 하하,
하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으며 대장
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
니라*.
26 네 지혜로 말미암아 매가 날며
남쪽을 향하여 날개를 펴느냐?
27 네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날아
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
냐?
28 그것이 바위 곧 험준한 바위와
견고한 곳에 거하며 또 머물고
29 거기서 먹이를 찾으며 그것의
눈이 멀리 바라보고
30 그것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 당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 40 장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1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
시되,
2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
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욥의 반응

3 ¶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4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
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
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
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
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6 ¶ 그때에 주께서 회오리바람 속
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7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
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8 네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
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9 네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
느냐? 혹은 네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10 이제 네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
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
장할지니라.
11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
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
되
12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
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
니라.
14 그리하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
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게 시인하리

라.
15 ¶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
럼 풀을 먹느니라.
16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
에 있느니라.
17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18 그의 뼈들은 강한 놋 덩이 같으
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19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
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20 들의 모든 짐승이 노는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
라.
21 그가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
밭의 숨는 곳과 늪 속에 누워 있나니
22 그늘진 나무들은 자기들의 그
늘로 그를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들도
그를 감싸는도다.
23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
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
니라.
24 그가 자기 눈으로 그것을 취하
며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뚫는도
다.

제 41 장

리워야단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1 네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
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
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
냐?
2 네가 그의 코에 낚시 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꿸 수 있겠느냐?
3 그가 네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
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
느냐?
4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
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 네가 새와 놀 듯 그와 놀겠느냐?
혹은 네가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를
묶겠느냐?
6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
겠느냐? 그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그
를 나누겠느냐?
7 네가 그의 가죽을 쇠꼬챙이로 채
울 수 있겠느냐? 혹은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8 네 손을 그에게 대어 본 뒤에 싸움
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9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은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10 아무도 감히 그를 흥분시킬 만
큼 사납지 아니하거든 누가 능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11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
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12 내가 그의 지체들과 그의 능력
과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13 누가 그의 옷 껍질을 드러내겠
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
러 *돋아* 있도다.
15 촘촘한 봉인처럼 서로 닫혀 있
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16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
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17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으니 나눌 수도 없도다.
18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
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19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20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
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21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
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22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23 그의 살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
고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24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 판같이 단단하도
다.
25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에는 강
력한 자들이 무서워하며 쳐부숨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도다.
26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견
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
갑옷도 견디지 못하는도다.
27 그는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28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없고 무릿매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
라기가 되는도다.
29 그가 작은 창도 지푸라기같이
여기나니 그가 창을 흔드는 것도 비웃
는도다.
30 그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돌
들이 있나니 그가 진흙 위에 뾰쪽한
것들을 퍼뜨리고
31 깊음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는도
다.
32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
나게 하므로 사람이 깊음을 백발 같다
고 생각하리라.
33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
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
느니라.
34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
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제 42 장

욥의 회개와 회복

1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
되,
2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
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3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
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
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
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5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
이다, 하니라.
7 ¶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
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런즉 이제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헌물을 드리
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
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
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
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10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
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시므로
11 그때에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
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
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한 개와 각 사람이 금귀고리 한 개를
그에게 주었더라.
12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
니 그는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더라.
13 또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더라.
14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긋시아라
하였으며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
이라 하였더라.
15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
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
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
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16 이 일 뒤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사 대까
지 보았고
17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시 편

기록자: 다윗, 아삽, 모세 등, 기록 시기: 주전 1450－500년경, 성격: 시
수신자: 구약시대 선민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
이름: 유대인들은 시편을 단순히 '찬양' 혹은 '찬송'으로 불렀다. Psalms는 시편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살모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로 시를 뜻한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로서 '성경의 중심'으로 불렸고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특히 율법 하에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
내용: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만큼 다양한 종교적 체험 － 흠모, 참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 증언 등 － 을 담은 책은 없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신세계가 믿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통해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시편에는 개인들의 경험이 이스라엘의 공동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이 책에는 보편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의 단계들과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사람이 겪는 영적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때 이런 보편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체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응답하려는 그들의 고유한 욕구에 의해 하나로 결합되었다. 시편 중 많은 것들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 긍휼, 진리, 전지전능하심, 불변하심 등을 노래한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며 성경의 중간에 놓인 장이다. 한편 시편 103편 1,2절은 성경의 한가운데 놓인 절로서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시편은 150장, 2,461절, 42,68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9편(하나님의 말씀), 핵심 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29:2)
핵심 단어: 찬양하라(150회 이상), 핵심 구: "주를 찬양하라."(7:17)
시편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영적 교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라."

제 1 편

1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
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2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
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 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
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
하리로다.
4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
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
다.
5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
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6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
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
로다.

제 2 편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행4:23－31)
1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
를,
3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
자, 하는도다.
4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
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
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
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6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
다.
7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
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
라.
9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
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
라, 하셨도다.
10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
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
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
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
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
다.

제 3 편

¶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1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
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
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2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
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
다, 하나이다. 셀라.
3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
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4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
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5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6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
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
지 아니하리로다.
7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
셨나이다.
8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제 4 편

¶ 느기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
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
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
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
를 들으소서.
2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
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
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
려느냐? 셀라.
3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
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
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4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
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
를 신뢰할지어다.
6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
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제 5 편

¶ 느힐롯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
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
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3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
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
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
이다.
4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5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
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
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
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7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 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8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
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9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
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10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
하였나이다.
11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
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
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
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12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
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이다.

제 6 편

¶ 느기놋에 맞추고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
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
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
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
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
까?
4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
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5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
하리이까?
6 내가 신음하므로 피곤하며 밤새
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7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
었사오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
해지나이다.
8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
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
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
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
다.

제 7 편

¶ 다윗의 식가욘,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1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
내소서.
2 건져 낼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
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고 뜯을까 염려
하나이다.
3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4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
으로 갚았거든 (참으로 내가 까닭 없
이 내 원수 된 자도 건져 내었사오니)
5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
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6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격노로 인
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고 주
께서 명령하신 심판으로 나아가소서.
7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주를
에워싸리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
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8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
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
심을 시험하시나이다.
10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
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
다.
11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
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
다 분노하시는도다.
12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
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
도다.
13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
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
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14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
으며 해악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15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
다.
16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
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
에 떨어지리로다.
17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
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제 8 편

¶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
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
이다.
2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
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
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
니이다.
3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
오시나이까?
5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
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사오니
7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
들이며
8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
든 것이니이다.
9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제 9 편

¶ 뭇라벤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2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
름을 찬양하리이다.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
서 넘어져 망하리니
4 주께서 나의 권리와 사정을 옹호
하시고 왕좌에 앉으사 바르게 심판하
셨나이다.
5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
을 영원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6 오 너 원수여, 멸망들이 영원한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도시들을
멸하셨으므로 그것들에 대한 기억도
그것들과 함께 사라졌나이다.
7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
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좌를 예비하셨도다.
8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
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
푸시리로다.
9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
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10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1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12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
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
는도다.
13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
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14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
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이다.
15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
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 둔 그물에 걸렸도다.
16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힉
가욘. 셀라.
17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
들도 그리하되
18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잊히지 아
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기대하는 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니
19 오 주여, 일어나사 사람이 이기
지 못하게 하시오며 이교도들이 주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제 10 편

1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
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
시나이까?
2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
를 핍박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3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4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
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
이다.
5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모든 원수들
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
나이다.
6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7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
이 있나이다.
8 그가 마을의 숨는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
되었나이다.
9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
다.
10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낮
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것들로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려 함이니이다.
11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
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
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2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
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3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
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
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4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
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
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
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
다.
15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
의 팔을 꺾으소서. 주께서 그의 사악
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
서.
16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
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
였도다.
17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
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
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
시고
18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
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제 11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
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2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
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3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
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4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
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
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
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
시는도다.
5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6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
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
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7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
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
느니라.

제 12 편

¶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
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
이다.
2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

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3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
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
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
도다.
5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
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 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
다.
6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
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
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8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
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도다.

제 13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
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
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
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2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
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
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3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
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4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
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5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
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
하리이다.
6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
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
다.

제 14 편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심판(시53)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
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
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
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2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
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
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
되
3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
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4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
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
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
다.
5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들의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이로다.
6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
시므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7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
하리로다.

제 15 편

¶ 다윗의 시.

1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
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
하리이까?
2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
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3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

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
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4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
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
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5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
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다.

제 16 편

¶ 다윗의 믹담.
1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
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2 오 내 혼아, 네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시니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3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
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4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
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5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잔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
시나이다.
6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
에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
이 있도다.
7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
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
도다.
8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10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
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
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
움이 있나이다.

제 17 편

¶ 다윗의 기도.
1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
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
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
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
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
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
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4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
이다.
5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
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6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터이므로 내가 주를 불렀사오
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7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
여 주소서.
8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9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
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
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10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

하나이다.
11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
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12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
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
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13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
키시고 던져 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
서.
14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
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
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
이다.
15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
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제 18 편

신실한 구원자 하나님(삼하22)

¶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1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2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
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3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4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
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
게 하였으며
5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
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
다.
6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자신
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7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
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
로다.
8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
도다.
9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
었도다.
10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
다.
11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
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
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
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12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
아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 사라졌도다.
13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
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숯들이로다.
14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
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
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15 오 주여, 그때에 주의 꾸짖으심
곧 주의 콧구멍의 숨의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
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16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
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17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
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18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19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건지셨도다.
20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
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21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
였기 때문이라.
22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
었나니 내가 그분의 법규들을 버려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23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바르
므로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
나니
24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 주시되 친히 보시는 대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
도다.
25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
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
을 보이시며
26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
을 보이시리니
27 주께서 고난 받는 백성은 구원
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28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
이다.
29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30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
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나
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
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31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
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32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
는 이시로다.
33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34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
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35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
사오며
36 주께서 내 밑의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7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따
라잡고 그들이 소멸되기 전에는 되돌
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38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
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나이다.
39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
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
이다.
40 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
게 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41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
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
지 아니하셨도다.
42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의
티끌처럼 잘게 부수고 거리의 진흙같
이 그들을 내던졌도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
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고는 곧
내게 순종하며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
하리로다.
45 낯선 자들이 쇠약해지고 자기
들의 밀폐된 처소에서 나와 무서워하
리로다.
46 주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
어다.
47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 주
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48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서 건지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드시
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나이
다.
49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0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
출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제 19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
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3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
이나 언어가 없도다.
4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
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
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
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5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
는도다.
6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7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
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9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
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10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11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
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
이 있나이다.
12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
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
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
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14 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
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 20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고난의 날에 주께서 네 말을 들으
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
호하시며
2 성소로부터 네게 도움을 보내시
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3 네 모든 헌물을 기억하시고 네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
노라. 셀라.
4 *또 그분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네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네 모든 청원을 이루
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7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
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8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9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제 21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왕이 주의 능력을 기뻐
하리이다. 그가 주의 구원을 심히 크
게 기뻐하리이다!
2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
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 가시며 순금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시나이다.
4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사오니 곧 영원무
궁토록 많은 날을 주셨나이다.
5 주의 구원으로 인해 그의 영광이
크오니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 위에
두셨나이다.
6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지극히 복
되게 하시오며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나이다.
7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
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8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
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9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
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
들을 삼키리로다.
10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
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11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
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
략을 꾸몄으나 능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12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얼굴
을 향해 주의 활시위의 화살들을 쏠
준비를 하사 그들이 등을 돌리게 하시
리이다.
13 주여, 주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
데서 높여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제 22 편

¶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
의 시.
1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
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
나이까?
2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
나이다.
3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
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
니이다.
4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
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
나이다.
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
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
였나이다.
6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
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
시거리이니이다.
7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
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
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
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
로다, 하나이다.
9 그러나 주는 곧 나를 태에서 꺼내
신 그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
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10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
으며 내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1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
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
다.
12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13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
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14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
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
다.
15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
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16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
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18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19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
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
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
서.
2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
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
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
다.
22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
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
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
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
분을 두려워할지어다.
24 그분께서 고난 받는 자의 고난
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
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25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릴* 나의 찬
양은 주로부터 나오리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로다.
26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
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
다.
27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
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28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
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29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
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
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
리로다.
30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
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31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
리로다.

제 23 편

¶ 다윗의 시.
1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 없으리로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
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
하시는도다.
4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
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

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 24 편

¶ 다윗의 시.
1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도 그러하니
2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
우시고 큰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
셨도다.
3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4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5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
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6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
요, 오 야곱아, 네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
7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
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
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
시리로다.
8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
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
시로다.
9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
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
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
다. 셀라.

제 25 편

¶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2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
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4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
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
서.
5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
이다.
6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
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
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7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
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
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8 주께서는 선하시고 곧바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 길로
가르치시리로다.
9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
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10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
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11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12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
치시리로다.
13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14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
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
다.
15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
실 터이므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
는도다.

16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
니 주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17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사오
니 오 주는 나를 내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 내소서.
18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19 내 원수들이 많고 또 그들이 잔
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오니 그들
을 깊이 살피소서.
20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
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
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22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제 26 편

¶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
데 걸었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
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2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
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
서.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
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
다.
4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
니지도 아니하리이다.
5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사오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6 오 주여, 내가 무죄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이로써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7 이로써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
라운 모든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
이다.
8 주여, 주의 집의 처소와 주의 존
귀가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하였사오
니
9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
을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
서.
10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
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
다.
11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
의 순전함 가운데 걷겠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12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
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
리이다.

제 27 편

¶ 다윗의 시.
1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
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
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
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4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
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
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5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
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
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7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
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8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
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
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
이다, 하였나이다.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
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10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
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
이다.
11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
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2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
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 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
나이다.
13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
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14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
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
를 바랄지어다.

제 28 편

¶ 다윗의 시.
1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
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
려하나이다.
2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
서.
3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
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4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
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
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
서.
5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
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6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
으셨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을 찬송하
리로다.
7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
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
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
을 찬양하리로다.
8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
로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
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
서.

제 29 편

¶ 다윗의 시.
1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
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
다.
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
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
께 경배할지어다.
3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
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
다.
4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5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6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
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룐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7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
다.
8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
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9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삼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10 주께서 큰물 위에 앉아 계시나
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11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
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제 30 편

¶ 다윗의 집을 봉헌할 때에 지은 시와 노래.
1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찬양하
리니 주께서 나를 높이 드사 내 원수들
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
나이다.
2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
다.
3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
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지켜 살게 하사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
셨나이다.
4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
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
고 감사할지어다.
5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
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
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
리로다.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
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
도다.
7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
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
다.
8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
께 간구하였나이다.
9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겠나이까?
10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11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
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
셨나니
12 이것은 내 영광이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
심이니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
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
다.

제 31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2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
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3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4 주는 나의 힘이시오니 그들이 나
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5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6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
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되 주는
신뢰하나이다.
7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
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으며
8 또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
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
다.

9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
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오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10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햇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
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11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으되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
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
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
다.
12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13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
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
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시니이다, 하였나이다.
15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
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
소서.
17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
서.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
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
며
18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
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
하나이다.
19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
하여 주께서 쌓아 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
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20 주께서 그들을 주 앞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
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
리이다.
21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
을 내게 베푸셨도다.
22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23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
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느니라.
24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제 32 편

¶ 다윗의 시, 마스길.
1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
이 있도다.
3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
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4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5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
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
이다. 셀라.
6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
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물들의 홍수 속
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
이다.
7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

래들로 나를 에워싸시리이다. 셀라.
8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9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
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10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11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
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
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
지어다.

제 33 편

1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
땅히 행할 바로다.
2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십
현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3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4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5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
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
득하도다.
6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
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7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간들에 두시
는도다.
8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
지어다.
9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
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
것이 굳게 섰도다.
10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
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
로 만드시는도다.
11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
리로다.
12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13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14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
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
다.
15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 받은 왕이 없
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 받지
못하는도다.
17 안전을 위해서는 말(馬)도 헛되
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18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
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19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20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
로다.
21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22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
소서.

제 34 편

¶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1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
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
다.

2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3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4 내가 주를 찾으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
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
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6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
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
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7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
도다.
8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9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
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
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11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
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13 네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
고 네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
게 하며
14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
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15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
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에 열려 있도다.
16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
서 끊으시는도다.
17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매 주
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8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19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
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
도다.
20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
시매 그것들 중의 하나도 꺾이지 아니
하였도다.
21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
게 되리로다.
22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
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
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제 35 편

¶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2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
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3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네 구원
이라, 하소서.
4 내 혼을 찾는 자들이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5 그들을 바람 앞의 겨와 같게 하시
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
서.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
시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7 그들이 까닭 없이 내 혼을 해하려
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 없이 나를 잡으
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숨겼나이
다.
8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
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바로 그 멸망에
그가 떨어지게 하소서.
9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10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이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지
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니
이다, 하리이다.
11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
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
기며
12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13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
을 때에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
다.
14 그가 마치 내 친구나 형제인 것
처럼 내가 행동하였으며 내가 크게
몸을 굽히고 애곡하기를 자기 어머니
로 인해 애곡하는 자같이 하였나이
다.
15 그러나 그들이 나의 역경을 기
뻐하여 함께 모였나니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6 그들은 연회에서 위선을 행하
며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자기들의 이를 갈았나이다.
17 주여, 어느 때까지 바라보려 하
시나이까? 내 혼을 그들이 꾀하는 파
멸에서 구조하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사자들에게서 구조하소서.
18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
사를 드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19 내 원수 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
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
하지 못하게 하소서.
20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땅에서 평안히 거하는 자들
을 대적하여 속이는 일들을 꾀하나니
21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
을 크게 벌리고 이르기를, 아하,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였나이
다.
22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사
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나
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
여 일어나시고 나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곧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24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누르
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였다, 하
지 못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를
삼켜 버렸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26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혼란에 빠지
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으로 옷 입게 하소
서.
27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
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
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28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제 36 편

¶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1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2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3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
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
는 것을 그쳤도다.

4 그는 자기 잠자리에서 해악을 꾀
하며 선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5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6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
하시나이다.
7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
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8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
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
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
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10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
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11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 오
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12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내던져져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제 37 편

¶ 다윗의 시.
1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을 부러워하지 말라.
2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3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리하면 네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
을 먹으리로다.
4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
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
5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같이, 네 판단의 공의
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7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
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
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8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
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
다.
9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
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
라.
10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
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
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
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
리로다.
12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
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이를 가는
도다.
13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
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
다.
14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
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
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
로다.
16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17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
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
는도다.
18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이 영원하리
로다.
19 그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기근의 날들에 그
들이 만족하리로다.

20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
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
되어 사라지리로다.
21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
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
도다.
22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3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
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24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
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
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25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26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27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또
영원토록 거하라.
28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
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
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
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29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
원히 그 안에 거하며
30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
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
며
31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32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
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33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
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
로다.
34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
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
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
가 끊어질 때에 네가 그것을 보리로
다.
35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 나간
것을 내가 보았으나
36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
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
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38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
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
지리로다.
39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40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
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
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
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제 38 편

¶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다윗의 시.
1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
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3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4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
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5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
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6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
나니
7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
다.

8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
이다.
9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10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기력
이 나를 떠나며 내 눈의 빛으로 말하건
대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11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
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12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
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
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13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
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14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
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15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
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16 내가 말하기를, 나의 말을 들으
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
질 때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나이다.
17 내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18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19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가 넘
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크게 늘어났으며
20 내가 선한 일을 따르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또한 내 대적이
되었나이다.
21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 39 편

¶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
1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
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2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
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
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우므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4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5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
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6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
다, 하였도다.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
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 나의 모든 범법에서 나를 건지시
며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
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9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
였나이다.
10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
의 손이 치시므로 내가 소멸되었나이
다.
11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
다움을 좀이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
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
이다. 셀라.

12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
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
다.
13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
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 40 편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시70)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
짖음을 들으셨도다.
2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3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
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4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
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5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
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
들을 헤아려 주께 아뢸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6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
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
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7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
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8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
이다.
9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
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
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
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12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
하나이다.
13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
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
소서.
14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당황하게
하시며 내게 재앙이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15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에 대한 대가로
황폐케 하소서.
16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
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
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
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17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
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
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
지 마옵소서.

제 41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

시리로다.
2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
리라.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
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3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
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를 만들
어 주시리이다.
4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
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
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5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
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6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허망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
로 불법을 모으매 그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7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 함께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
려고 꾀하며
8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굳
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
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9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
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10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11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2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
전함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
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13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
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
멘.

제 42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
길.

1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
에 갈급하나이다.
2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
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3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
다.
4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
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 내는도다.
5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
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
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
다.
6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7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8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
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
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
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
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
로다.
10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
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도다.
11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
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

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
로다.

제 43 편

1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향하여 내 사정
을 변호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
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3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
가게 하소서.
4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5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
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제 44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
길.
1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
께서 그들의 때 곧 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
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3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
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
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4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
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5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
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
하리이다.
7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 자
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8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
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
다. 셀라.
9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
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
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이 자기들을 위해 노략하나이다.
11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
한 양처럼 내주시고 이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거저 파시
되 그들을 판 값으로 주의 재산을 불리
지는 못하시나이다.
13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
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
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14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
데서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시나이다.
15 내 앞에 계속해서 나의 당황함
이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
으니
16 이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의
목소리 때문이요, 원수와 복수하는
자 때문이니이다.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
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8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
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
나지 아니하였으되
19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
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
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 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21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22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23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
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
히 버리지 마소서.
24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
을 잊으시나이까?
25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
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矜恤)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
소서.

제 45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산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사랑의 노래.

1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
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
다.
2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
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3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
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4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
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
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
들을 가르치리이다.
5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
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백성
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6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笏)은 의
로운 홀이니이다.
7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
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
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
이다.
8 왕의 모든 옷은 상아 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
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9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
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
나이다.
10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네 주시니
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12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네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13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
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
어졌도다.
14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
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
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15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
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
다.
16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17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

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
들이 영원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
다.

제 46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주어
알라못에 맞추게 한 노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
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
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3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
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
리로다. 셀라.
4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5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
시매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6 이교도들이 격노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7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
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로다. 셀라.
8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
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
셨도다.
9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
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
다.
10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
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
로다.
11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
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제 47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
1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고 승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2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
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
로다.
3 그분께서 백성들을 우리 밑에,
민족들을 우리 발밑에 복종하게 하시
며
4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속 재산
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뛰어남이로다. 셀라.
5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
가시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
가셨도다.
6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
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7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
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8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
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
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9 백성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으
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셨도다.

제 48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와 시.
1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
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2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
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3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
난처로 알려지셨도다.
4 보라,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
다가

5 그것을 보고 그처럼 놀라며 근심
하고 서둘러 사라졌도다.
6 두려움이 거기서 그들을 사로잡
았으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사로잡았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
을 부수시나이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우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리로다. 셀라.
9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한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
였나이다.
10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대로
주를 찬양함도 땅 끝까지 이르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이다.
11 주의 심판들로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
어다.
12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 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어 볼지
어다.
13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자세
히 보고 그녀의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
아 뒤따르는 세대에게 그것을 일러
줄지어다.
14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우리
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제 49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
1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
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
는 귀를 기울이라.
2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3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
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
다.
5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에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
랴?
6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
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7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
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
을 바쳐서
8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
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
다.)
9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10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
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
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11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
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
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
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
다.
13 이처럼 그들의 길이 곧 그들의
어리석은 일이로되 그들의 후손은 여
전히 그들의 말에 찬동하는도다. 셀
라.
14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
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
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
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15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
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
서 나를 받아 주시리로다. 셀라.
16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7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
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18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

복하였을지라도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로다.
19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
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
리로다.
20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
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제 50 편

¶ 아삽의 시.
1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
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2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
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3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
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
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이
있으리로다.
4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
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
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5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
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6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
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
시는도다. 셀라.
7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8 내가 네 희생물이나 네 번제 헌물
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
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
서 숫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10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11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12 가령 내가 주린다 할지라도 네
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13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
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
히 높으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슨 상관이 있
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혹은
네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17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
을 네 뒤로 던지며
18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
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19 네 입을 악에게 내주고 네 혀로
는 속임수를 꾸미며
20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21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
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
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
는도다.
22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
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
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
라.
23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
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제 51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
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

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2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
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3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
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
시리이다.
5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
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
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
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
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8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
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
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10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
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
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13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
께로 회심하리이다.
14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
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15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
이다.
16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
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
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
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
니하시리이다.
18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
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19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
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제 52 편

¶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에돔
족속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나이
다, 할 때에 지은 시.
1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2 네 혀가 해악들을 꾀하고 날카로
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4 오 속이는 혀여, 네가 *사람을* 삼
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5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
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
잡아 가시며 네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
시고 산 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로다. 셀라.
6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

훌을 영원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9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
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또 주
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하므
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제 53 편

어리석은 자와 이스라엘의 회복(시14)
¶ 마할랏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1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
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
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
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2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
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
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
셨으되
3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
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4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
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
도다.
5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
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너를 치려고 진을 치는 자의 뼈를 하나
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께서 그들을 멸시하셨으므로 네가 그
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
다.
6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
의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
리로다.

제 54 편

¶ 느기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
나이까? 하였을 때에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
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
하소서.
2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
고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
고 학대하는 자들이 내 혼을 찾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
하였나이다. 셀라.
4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
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하시는도다.
5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
버리소서.
6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
리리이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하
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7 그분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
지셨으며 그분의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았도
다.

제 55 편

¶ 느기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

1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
나 숨지 마소서.
2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
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3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
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
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
이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
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

식하리로다.
7 보라, 그때에 내가 저 멀리 다니
다가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8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나이
다.
9 내가 도시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사오니,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
하시고 찢으소서.
10 그들이 밤낮으로 그 도시의 성
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니 도시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으며
11 사악함이 그것의 한가운데 있
고 속임과 간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2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
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
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13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
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14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
도다.
15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
이 산 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
들 가운데 있도다.
16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
다.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
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18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
터 내 혼을 화평 중에 건지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
19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
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
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는도다.
20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내밀어 자
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21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
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
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
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22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
시리로다.
23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시
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
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
로되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제 56 편

¶ 요낫엘렘르호김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붙잡은 때에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
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
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2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 원수들
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오니 나와
싸우는 자가 많나이다.
3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
리이다.
4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
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
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
나니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
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6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
보나이다.
7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
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8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
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
까?
9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
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시므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10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
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11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사
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
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2 오 하나님이여, 주께 드리는 서
원들이 내게 있사온즉 내가 주께 찬양
을 돌리리니
13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건지
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
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려고 주께
서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제 57 편

원수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
(시108:1－5)

¶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헷, 그
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
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
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
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3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
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
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
로다.
4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5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
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
을 준비하였으므로 내 혼이 풀이 죽었
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
으나 자기들이 그것의 한가운데에 빠
졌나이다. 셀라.
7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
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
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
로다.
9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니
10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에까
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11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제 58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헷.
1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
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
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2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고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저울
에 다는도다.
3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멀어
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
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4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
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 곧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
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 해도 그들
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
는 *독사* 같도다.
6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
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7 그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또 그가 자기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에 그것
들이 산산조각 나게 하소서.
8 녹아 버리는 달팽이같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여인에게서 유산
된 자같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9 너희 솥들이 미처 가시나무를 느
끼기 전에 그분께서 회오리바람같이
그들을 제거하시리니 곧 살아 있는
자들과 자신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을 *제거하시리라*.
10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
음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
11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
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
나님이시라, 하리로다.

제 59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헷, 사
울이 *사람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죽이
려고 집을 감시할 때에 지은 시.
1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
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
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2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
고 숨어서 기다리며 강력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거니와, 오 주여,
그것은 나의 범법 때문도 아니요, 나
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4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
와서 자신을 예비하오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소서.
5 오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여, 그런즉 주께서는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
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들에게도 긍
휼을 베풀지 마옵소서. 셀라.
6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나이다.
7 보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들
이 있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
리요? 하나이다.
8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
시리이다.
9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
니이다.
10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
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이다.
11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
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우리
의 방패이신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
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
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
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옵시며 그들
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도
그리되게 하옵소서.
13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시되
그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사 하나
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셀
라.
14 또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
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게 하소
서.
15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
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면
불평하게 하소서.
16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
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17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
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
니이다.

제 60 편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
(시108:6 – 13)

¶ 수산에둣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그가 아람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
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이니 이로 인해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
던지시고 흩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사오나 오 친히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소서.
2 주께서 땅을 떨게 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것의 갈라진 틈을 고치
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
들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4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
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5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
하려 하심이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
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6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
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
리라.
7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
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8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
아,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하셨도다.
9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
도할까?
10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
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
시겠나이까?
11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
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
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이가 바로 그분이시로다.

제 61 편

¶ 느기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
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
서.
2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
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3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
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
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의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
다. 셀라.
5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
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
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
다.
6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
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
이다*.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
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
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8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
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제 62 편

¶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

1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
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
다.
2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
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
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
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4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
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
는도다. 셀라.
5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
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
서 나오는도다.
6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8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
시로다. 셀라.
9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
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
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10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12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
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
대로 갚으시나이다.

제 63 편

¶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
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
오니
2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뵈온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
자 함이니이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
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4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5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
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7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
리이다.
8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9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10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11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
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
랑할 것이로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제 64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소
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2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
를 숨겨 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 주소서.
3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
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4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완
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갑자기 그들
이 그에게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도다.
5 그들은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
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
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하는도다.
6 그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
런히 찾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
과 마음은 깊도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
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로다.
8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혀로
하여금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그들
을 보는 모든 자들이 도망하리로다.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
리로다.
10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
든 자들은 자랑하리로다.

제 65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와 노래.
1 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찬
양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범법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이다.
4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
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
리이다.
5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
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
이다.
6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
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
시는도다.
8 맨 끝 지역들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징조들을 무서워하오니 주께서
는 아침과 저녁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
게 하시나이다.
9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
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
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땅의 이랑에 물을 넉넉
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
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
다.
11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
를 관 씌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12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리
므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
이다.
13 초장들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
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 66 편

¶ 악장에게 준 노래 또는 시.
1 모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
거이 소리칠지어다.
2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
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3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
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
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
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
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
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
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

시로다.
6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
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
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7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
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
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8 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
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9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
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10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제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11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12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
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
셨나이다.
13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
리니
14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 내가 숫양의 향내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소와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
짖으며 나의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
였도다.
18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
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
리라.
19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
를 기울이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
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
셨도다.

제 67 편

¶ 느기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시 또는
노래.
1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
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
게 비추소서. 셀라.
2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
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
게 알리소서.
3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
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4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
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의
롭게 심판하시며 땅 위에서 민족들을
다스리시리이다. 셀라.
5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
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6 그때에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
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
리로다.

제 68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또는 노래.
1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2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
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4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
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
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5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
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6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
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
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
다.
7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
진하셨나이다. 셀라.
8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
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9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
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에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10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
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
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11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12 군대들의 왕들이 재빨리 도망
하니 집에 머물던 여자도 노략물을
나누었도다.
13 비록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워
지냈을지라도 은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와 황금으로 덮인 그 비둘기의
깃털같이 되리로다.
14 전능자께서 왕들을 그것 안에서
흩으실 때에 그것은 마치 살몬의 눈처
럼 흰색을 띠었도다.
15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곧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로다.
16 높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자 하시는 산이니 참으로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17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시내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
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
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
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19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
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20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21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
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
는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2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
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23 이것은 네 발을 네 원수들의 피
에 담그고 네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려 함이라, 하셨도다.
24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 안에서 가심을 보았
나이다.
25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 가고 악
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
었나이다.
26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
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27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
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28 네 하나님께서 네 힘에게 명령
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
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
서.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이다.
30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황소 떼
와 백성들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
시되 각 사람이 은 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소서.
31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
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자기 손을 내밀리로다.
32 땅의 왕국들아, 너희는 하나님
께 노래하라. 오 노래로 주를 찬양할지
어다. 셀라.
33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
들을 타시는 분에게 *찬송할지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
시니 곧 웅장한 음성이로다.
34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
라. 그분의 뛰어남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
다.
35 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거룩
한 처소들 밖에서 무서운 이시니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이시니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 69 편

¶ 소산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
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
다.
2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갔사오
니 거기서 큰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
다.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는 자들
이 강하므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주었나이다.
5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
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
지지 아니하였나이다.
6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부끄러움
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7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
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
다.
8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
이 되었사오니
9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
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10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
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11 또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
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
나이다.
12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
하매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
가 되었나이다.
13 그러할지라도 나로 말하건대,
오 주여, *주께서* 받아 주시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
서.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
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에게서와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
서.
15 홍수가 내 위에 넘치거나 깊음
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구덩이
가 내 위에 임하여 자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16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
오니 내 말을 들으시오며 주의 많은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
서.
17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18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19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
명예를 아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20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21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
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22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
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
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
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 주의 격노를 그들에게 부으시
며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25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
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
게 하소서.
26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
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에게
말하여 슬픔을 주오니
27 그들의 불법에 불법을 더하사
그들이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
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
서.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
니
31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
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
다.
32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즐거
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
이 살리로다.
33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
시고 자신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할 것
이요, 바다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리할지로다.
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시리니 이로써
그들이 거기 거하며 그것을 소유로
삼으리로다.
36 그분의 종들의 씨도 그것을 상
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 그 안에 거하리로다.

제 70 편

대적들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시40:13－17)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시.
1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
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상하기
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기들
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
서.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5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
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 71 편

1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
서.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
의 견고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
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
다.
4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악한
자의 손과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
서 건지소서.
5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
망이시니이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
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6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
사오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배 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7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8 주를 찬양함과 주를 존경함이 종
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 늙을 때에 나를 내던지지 마시오
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10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11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
리셨으니 그를 핍박하고 사로잡으라.
그를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이다.
12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
히 도우소서.
13 내 혼의 대적들은 당황하게 하
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치욕과 불명예로 덮이게
하소서.
14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
고 주를 더욱 더욱 찬양하리이다.
15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토록 전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16 내가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
여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께 속한
의만을 말하리이다.
17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
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
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18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
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
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
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
지 마소서.
19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들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20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
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
리이다.
21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
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
다.
22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
신 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
이다.
23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
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24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리니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당황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였나이
다.

제 72 편

¶ 솔로몬을 위한 시.
1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
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재판
하리니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이다.
4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재판하
고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구원하며
학대하는 자를 산산조각 내리이다.
5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
리이다.
6 그가 베어 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
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
리니
7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가 흥왕하
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이다.
8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
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
할 터인즉
9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10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
을 바치리니
11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
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
다.
12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
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
이 없는 자도 건지고
13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
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14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서 소중하리이다.
15 그가 생존하므로 *그들이* 세바의
금을 그에게 주며 또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그에게 찬양을
드리리이다.
16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한
손 가득 있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
이 흔들리며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이
땅의 풀같이 흥왕하리이다.
17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
며 그의 이름은 해와 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으리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이다.
18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
며
19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
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
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제 73 편

¶ 아삽의 시.
1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2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
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5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
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
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
는도다.
7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
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8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9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
도다.
10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
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
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12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
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
로 헛되니
14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15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
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
이다.
16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
데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
나이다.
18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
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19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
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
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20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
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21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22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
므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
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
주시리니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
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26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
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
토록 내 몫이니이다.
27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28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
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제 74 편

¶ 아삽의 마스길.

1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주*
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
까?
2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상속 막대기를
기억하시오며 주께서 거하시던 이 시
온 산도 기억하소서.
3 주의 발을 영구히 황폐한 것 즉
원수가 성소에서 악하게 행한 모든
것 쪽으로 드소서.
4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한가
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깃발
을 세워 표적들로 삼았나이다.
5 전에는 사람이 도끼를 들어 굵은
나무들을 찍음으로 유명하게 되었으
나
6 이제는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그
곳의 조각품을 단번에 쳐서 부수고
7 주의 성소에 불을 지르며 주의
이름이 있는 거처를 땅에 내던짐으로
그것을 더럽혔나이다.
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
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하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

웠나이다.
9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
하니 대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
데 없나이다.
10 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어느 때
까지 모욕하리이까? 원수가 주의 이
름을 영원히 모독하리이까?
11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곧 주
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
에서 그 손을 꺼내소서.
12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
시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14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
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15 샘과 큰물을 쪼개어 가르시고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
며
17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
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18 오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곧 원수가 모욕하였으며 어리석은 백
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19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
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소서. 땅
의 어두운 곳들에는 잔혹함의 처소들
이 가득하나이다.
21 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
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
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
서.
22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주장을 변호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날마다 주를 모욕하는 것을 기억하소
서.
23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
소서. 주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
의 소동이 계속해서 늘고 있나이다.

제 75 편

¶ 악장에게 준 알다스헷, 아삽의 시 또는
노래.

1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
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
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2 내가 회중을 받아들일 때에 올바
르게 재판하리이다.
3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은 해체
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나이다. 셀라.
4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
게 굴지 말라, 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6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
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7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
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8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 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9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이것을*
밝히 보이며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10 또한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을
꺾으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들은 높이 들리리로다.

제 76 편

¶ 느기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아삽의
시 또는 노래.

1 하나님은 유다에서 알려지셨으

며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
하시도다.
2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3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쳐서 부수셨도
다. 셀라.
4 주는 산더미 같은 탈취물보다 더
영화로우시며 뛰어나시나이다.
5 용맹한 자들은 노략을 당하고 잠
들었으며 용사들 중의 아무도 자기
손을 찾지 못하였도다.
6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
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7 주 곧 주는 두려워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 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이까?
8 주께서 하늘로부터 판결을 들려
주시매 땅이 두려워하고 잠잠하였사
오니
9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
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
판하셨나이다. 셀라.
10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
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11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
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
지어다.
12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
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
운 이시로다.

제 77 편

¶ 악장 여두둔에게 준 아삽의 시.
1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
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
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
다.
2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
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
지 아니하매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
하였도다.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
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
도다. 셀라.
4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 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5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사오며
6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
히 살펴 *이르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
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
까?
8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9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
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
였나이다*. 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
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
리이다.
11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
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
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12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
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
이다.
13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
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이까?
14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
데 밝히 보이셨으며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였나이다. 셀
라.
16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
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
하며 깊음들도 소동하였나이다.
17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18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으
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
는 알 수 없나이다.
20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 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
다.

제 78 편

¶ 아삽의 마스길.
1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2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
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3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바라.
4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
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
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
다.
5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
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
게 알리게 하셨으니
6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
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
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7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
을 지켜서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
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
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
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9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
다.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11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
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12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안 들
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놀
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13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
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
이 서게 하시고
14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
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
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16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함으로 그분께 더
욱 죄를 지었도다.
18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을 시험하였으니
19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
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
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
다.
20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시
매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
쳤도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
였도다*.
21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
시고 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
노가 올라왔나니
22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
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로다.

23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
을 여시고
24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25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
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26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
게 하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27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
28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그들
의 처소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
매
29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
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
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30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
여 그들 중의 가장 살진 자들을 죽이시
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
서 넘어뜨리셨도다.
32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
니
33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
들을 헛된 것 가운데서 소멸시키시며
그들의 햇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
키셨도다*.
34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야 비로소 그들이 그분을 구하며 돌이
켜서 일찍 하나님을 구하여 여쭙고
35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시
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
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
기들의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
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으니
37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
하여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
문이라.
38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
시므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
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39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
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40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격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
을 슬프게 하였던가!
41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
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42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
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
도다.
43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
적들을 행하시고 소안 들판에서 자신
의 이적들을 행하사
44 그들의 강들과 큰물을 피로 변
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
으며
45 여러 종류의 파리를 그들 가운
데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개구
리들을 보내사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
다.
46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소출을
쐐기벌레에게 주시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돌무화과나무를 서리로 멸하
셨도다.
48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뜨거운 벼락
에 넘겨주시고
49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
노와 격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
으며

50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
으사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심으
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으며
51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의 으뜸
인 것을 치셨도다.
52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시며
53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
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
다.
54 또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성
소의 경계 곧 자신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시고
55 또한 이교도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그어 그들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
파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
도다.
56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격노하게 하며 그
분의 증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57 오히려 뒤로 돌이켜 자기들의
조상들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게 대하
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으니
58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
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59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에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
사
60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
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61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
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시고
62 또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겨
주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
시매
63 불이 그들의 청년들을 소멸시
키고 그들의 처녀들이 시집가지 못하
며
64 그들의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
지고 그들의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하
였도다.
65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
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하여 외
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66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67 또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
절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
니하시고
68 오직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
신 시온 산을 택하사
69 자신의 성소를 높은 궁궐들같
이 지으시되 친히 영원토록 굳게 세우
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
을 택하시되 그를 양 우리에서 취하시
고
71 새끼 밴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72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
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
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 79 편

¶ 아삽의 시.
1 오 하나님이여,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 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2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
의 날짐승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
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
으며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
도 없었나이다.
4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
리가 되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었나이다.

5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께
서 영원히 분노하시리이까? 주의 질
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6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7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
를 피폐하게 하였나이다.
8 오 이전의 불법들을 기억하사 우
리를 치지 마시오며 주의 친절한 긍휼
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소서.
우리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9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
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
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
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
서.
10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
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
리이까? *주께서* 주의 종들이 흘린 피
를 복수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교도들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1 갇힌 자의 탄식 소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
을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주께
서 보존하소서.
12 오 주여, 또 우리의 이웃들이
주를 모욕할 때 말한 그 모욕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나 갚으소서.
13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
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제 80 편

¶ 소산님에듯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아삽
의 시.

1 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
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
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3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
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4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
지 분노하시리이까?
5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
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6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
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7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
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8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
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
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
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10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
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
이 되었나이다.
11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
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
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13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치우나이다.
14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로
부터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
무를 돌아보소서.
15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
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16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
이 주의 얼굴의 꾸짖으심으로 말미암
아 멸망하나이다.
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

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
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
다.
19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제 81 편

¶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아삽의 시.
1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
거이 소리칠지어다.
2 시를 읊으며 작은북을 여기로 가
져오고 흥겨운 하프를 비파와 함께
가져올지어다.
3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4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로다.
5 그분께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안에 이것을 증언
으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깨닫
지 못하던 언어를 들었는데
6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
내었도다.
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지고 천둥소리의 은밀한 곳에
서 네게 응답하였으며 므리바의 물들
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8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9 너는 네 안에 이방 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
다.
10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
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11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
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
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
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
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13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
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
면 얼마나 좋았을까!
14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
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15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
원히 지속되었으리라.
16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
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
다*.

제 82 편

¶ 아삽의 시.
1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
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도다.
2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
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
이려 하느냐? 셀라.
3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
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
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4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
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
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
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
들이라, 하였으나
7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
다.

8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땅을 심
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
속하시리이다.

제 83 편

¶ 아삽의 노래 또는 시.
1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
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2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
를 들었나이다.
3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
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4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
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
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5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협의하
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6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
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
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
이요,
8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9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10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쓸 거름같이 되었나이다.
11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참으로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
서.
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
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
나이다.
13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하
여금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의 지푸
라기 같게 하소서.
14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15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핍박하
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16 오 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이 영원토록 당황하며 고
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수치
를 당하여 멸망하게 하사
18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제 84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시.
1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
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3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
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4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이다. 셀라.
5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
을 채우나이다.
7 그들은 더욱 더 힘 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
나나이다.
8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
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
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
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
굴을 보옵소서.
10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 날보
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
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11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
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
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12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 85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
1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셨
으며
2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
라.
3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
며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이키
셨나이다.
4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
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
시겠나이까?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
르기까지 분노하시겠나이까?
6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
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
나이까?
7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
하소서.
8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실 말씀
을 들으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
리라.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짓
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9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
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
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10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
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보리로다.
12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
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
다.
13 의가 그분 앞에서 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
다.

제 86 편

¶ 다윗의 기도.
1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
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
고 궁핍하나이다.
2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
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
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3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
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4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
서.
5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
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6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
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7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
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9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
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10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
이다.
11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
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

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12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오리니
13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14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
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
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오니
16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
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
서.
17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 주
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제 87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또는 노래.
1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
나니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
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3 오 하나님의 도시여, *그들이* 너에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였도다.
셀라.
4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대하여 언급하리라. 에티오
피아와 함께한 블레셋과 두로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노라.
5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
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
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시리라, 하리
로다.
6 주께서 백성들을 기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것으로 여기
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
는 자들이 거기 있으리니 나의 모든
샘들이 네 안에 있도다.

제 88 편

¶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 또는 시,
마할랏 르안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것,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1 오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
니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
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
소서.
3 내 혼이 고난들로 가득하고 내
생명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나이다.
4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기력이 없는 자 같으며
5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죽임 당한
자들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롭
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는 기억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주의 손에
서 끊어졌나이다.
6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사오며
7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
이다. 셀라.
8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
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나이다.
9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
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
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
다.
10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
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
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셀라.
11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이까? 주의 신실하심
이 파멸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이까?

12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
려지리이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
서 알려지리이까?
13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
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보다 앞서 가리이다.
14 주여,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
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15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
고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며 주의 두려
움을 겪을 때에 마음이 혼란하였나이
다.
16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내 위로 넘
어가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
다.
17 그것들이 날마다 물같이 와서
나를 에워싸며 다 같이 나를 둘러쌌나
이다.
18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
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제 89 편

¶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1 내가 주의 긍휼을 영원히 노래하
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이다.
2 내가 말하기를, 긍휼이 영원히
세워지리니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3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
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내가 네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네 왕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
셨나이다.* 셀라.
5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
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
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6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
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7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
게 두려워할 분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분이시니이
다.
8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이까? *무엇
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9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
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10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
이 산산조각 내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11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
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의 충만
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12 북쪽과 남쪽을 주께서 창조하
셨사오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
을 기뻐하리이다.
13 주는 능한 팔을 가지셨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있나이다.
14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
좌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15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
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16 그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17 주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
시니이다. 우리의 뿔이 주의 호의 안
에서 높여지리니
18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벽이시
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
의 왕이시기 때문이니이다.
19 그때에 주께서 환상 속에서 주
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
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
도다.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21 그와 더불어 내 손이 굳게 세워
지리니 내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
로다.
22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며
사악함의 아들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
리로다.
23 내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원
수들을 쳐서 넘어뜨리며 그를 미워하
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24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
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25 내가 또한 그의 손을 바다 안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안에 놓으
리라.
26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
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
인즉
27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28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
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29 또한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30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
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
하며
31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
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32 그때에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
을 벌하리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
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
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
다.
35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36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
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37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
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
로다, 하셨도다. 셀라.
38 그러나 주께서 그를 내던지시
고 몹시 싫어하시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39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
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지사 더럽게
하셨으며
40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의 강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으
므로
41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가 그
를 노략하니 그가 자기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42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
을 높이 드사 그의 모든 원수가 기뻐하
게 하셨으며
43 또한 그의 칼날을 빗나가게 하
사 그가 전투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
며
44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의 왕좌를 땅에 내던지셨으며
45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
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46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
께서 영원히 숨으려 하시나이까? 주
의 진노가 불같이 타게 하시겠나이
까?
47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
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48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이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
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이까? 셀라.
49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
에게 맹세하신바 주의 예전의 인자하
심이 어디 있나이까?
50 주여, 주의 종들의 치욕을 기억
하소서.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
을 내 품에 품고 있사오니

51 오 주여, 이 모욕으로 주의 원수
들이 *나를* 모욕하였으며 이 모욕으로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걸
음을 모욕하였나이다.
52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 90 편

¶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
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
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
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
시오니
4 주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5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
는 풀 같으니이다.
6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
가 저녁에는 베여 시드나니
7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
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
나이다.
8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10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칠십 년
이요, 강건하면 팔십 년이라도 그 햇
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11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
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12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
서.
13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
지니이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
서 뜻을 돌이키소서.
14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
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
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15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햇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16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
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
게 나타내소서.
17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
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제 91 편

1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
리로다.
2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
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3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
시리로다.
4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
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5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
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천 명이 네 곁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네
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8 오직 너는 네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보리로
다.
9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
로
10 어떤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
며 어떤 역병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2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
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
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
다.
14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
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
리라.
15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
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
리라.

제 92 편

¶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1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께 감사
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
이 좋사오며
2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
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좋사오니
3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십현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추어 *그리하리이다*.
4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
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
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
리이다.
5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
시니이다.
6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
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
다.
7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왕할지
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
극히 높으시오니
9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곧 주의 원수들이 망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리
이다.
10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
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11 또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
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며 나를 치려
고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
소원을 내 귀가 들으리이다.
12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
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
로다.
13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
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14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15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
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
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제 93 편

1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
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
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2 주의 왕좌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
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오 주여, 큰물들이 *소리를* 높였
고 큰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
며 큰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이나

이다.
4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
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니이다.
5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
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제 94 편

1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
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
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
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2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친히 일
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
서.
3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
지,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개가
를 부르리이까?
4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이까? 불법을 행
하는 모든 자들이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랑하리이까?
5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산
산조각 내고 주의 상속 *백성*을 괴롭게
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아버지
없는 자를 죽이면서도
7 말하기를, 주가 보지 못하며 야곱
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
하리라, 하나이다.
8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
냐?
9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
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
하시랴?
10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
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
시랴?
11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
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12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
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13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
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
을 주사 역경의 날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14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을 저버
리지 아니하시리로다.
15 오직 심판은 의로 되돌아가리
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그것을
따르리로다.
16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칠
까?
17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
하셨더라면 내 혼이 거의 침묵 속에
거하였으리라.
18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
진다, 할 때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에 주
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
다.
20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
법의 왕좌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
까?
21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치며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
22 주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
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로다.
23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
에게로 가져가시며 그들의 사악함 속
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
다.

제 95 편

1 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2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

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3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
다.
4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
다.
5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6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
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
을 꿇자.
7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
의 음성을 듣거든
8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
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9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
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
니라.
10 내가 사십 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
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
라.
11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
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 96 편

심판자 하나님 찬양(대상16:23－33)
1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2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
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
어다.
3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4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
할지어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
려워할 분이시니
5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
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6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
도다.
7 오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8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
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9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
서 두려워할지어다.
10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11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
워하며 바다와 거기의 충만한 것은
외치고
12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에 숲 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13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
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
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제 97 편

1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
며 땅의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
지어다.
2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
을 두르나니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
의 왕좌가 있는 처소로다.
3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4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
이 보고 떨었도다.
5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6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
내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7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
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할
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8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오
주여, 주의 판단의 공의로 인하여 유
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사오니
9 주여, 주께서 온 땅보다 높으시
므로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셨
나이다.
10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
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11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12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
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
사할지어다.

제 98 편

¶ 시.
1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
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
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2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
개적으로 보이셨도다.
3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셨으므
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을 보았도다.
4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큰 소리를 내어 기뻐하며 노
래로 찬양할지어다.
5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를
타고 시를 낭송하며 *노래할지어다.*
6 나팔과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7 바다와 거기의 충만한 것과 세상
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외칠지어
다.
8 큰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
께 기뻐하되
9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
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제 99 편

1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
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2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백성들보다 높으시도다.
3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나이
다.
4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
시며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나이다.
5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
분은 거룩하시도다.
6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
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
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7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
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분께서 자
기들에게 주신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
를 지켰도다.
8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 그
들이 창안한 것들에 대하여 보복하셨
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9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
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제 100 편

¶ 찬양 시.
1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
이 소리칠지어다.
2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
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3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
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
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
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4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
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
름을 찬송하라.
5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
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제 101 편

¶ 다윗의 시.
1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
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
리이다.
2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걸으리이다.
3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
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
니 사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
다.
5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
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6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7 속이는 자는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이다.
8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사악하게 행하는 모
든 자를 내가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니이다.

제 102 편

¶ 고난 받는 자가 짓눌림을 당하여 자기의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때 드린 기도.
1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2 내가 고난당하는 날에 주의 얼굴
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4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
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
이다.
5 내 신음 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갗에 붙었나이다.
6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사오며
7 내가 깨어 있어 지붕 위의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 내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모욕
하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 미친 자들이
맹세하며 나를 대적하나이다.
9 내가 재를 빵같이 먹으며 마실
것에 눈물을 섞었사오니
10 이는 주의 격노와 주의 진노 때
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던지셨나이다.
11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12 그러나, 오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를 기억하는 것은 모든 세대
에 이르리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에게 긍휼
을 베푸시리니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

실 때 곧 참으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나
이다.
14 주의 종들이 그녀의 돌들을 즐
거워하며 그녀의 흙에게 호의를 베푸
나이다.
15 이처럼 이교도들이 주의 이름
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16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에
친히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로
다.
17 그분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
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8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
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
리로다.
19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성소에
서부터 내려다보시되 주께서 하늘에
서부터 땅을 살펴보셨나니
20 *이것은* 갇힌 자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
어 주시고
21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
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
내려 하심이라.
22 그때에 백성들과 왕국들이 주
를 섬기려고 함께 모였도다.
23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
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
다.
24 내가 아뢰기를, 오 나의 하나님
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
지 마옵소서. 주의 햇수는 모든 세대
에 두루 미치나이다.
2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
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
신 작품이니이다.
26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
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
이 바뀌려니와
27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햇
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28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지속되
고 그들의 씨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
다, 하였도다.

제 103 편

¶ 다윗의 시.
1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
한 이름을 찬송하라.
2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
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분께서 네 모든 불법을 용서하
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네게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들로 네 입을 만족하게
하사 네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
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7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
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게 알리셨도다.
8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긍
휼이 풍성하시니
9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
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
시리로다.
10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
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
으니
11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
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
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
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
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14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

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
다.
15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
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16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
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17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
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
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
나니
18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
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
게 *임하는도다*.
19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
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
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20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
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
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
을 찬송하라.
21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
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
라.
22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
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제 104 편

창조주 하나님 찬양(창1)

1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
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
다.
2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
장같이 펼치시고
3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
을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
며
4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
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
시며
5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
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6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깊음
으로 땅을 덮으시매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7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
하고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
러 물러갔나이다.
8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
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
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
이다.
9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
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
다.
10 그분께서 골짜기들에 샘들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
고
11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
므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12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들 곁
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
에서 지저귀리로다.
13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 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
다.
14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
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15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
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16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
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17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며 황
새로 말하자면 전나무가 그것의 집이
로다.
18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의 피난
처요,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

다.
19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20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
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 나오나이다.
21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
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
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22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속에 누우며
23 사람은 자기 일로 나아가 저녁
까지 수고하는도다.
24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
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25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
니 그 안에는 기어 다니는 것들 곧
작고 큰 짐승이 무수하나이다.
26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
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27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
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28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
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
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29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
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매 그
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
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
니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
하시리로다.
32 그분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
이 떨며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산들이 연기를 내는도다.
33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
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
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
악한 자들이 다시는 있지 못하리로
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05 편

하나님의 신실하심(대상16:8－22)

1 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2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
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3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
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4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5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6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곧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7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8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
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10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
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네게 주리라,
하셨도다.
12 그때에 그들은 수적으로 몇 사
람, 참으로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
서 나그네였고

13 그때에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도다.
14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
하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어
15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
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
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16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17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18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
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 두되
19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
였도다.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
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며
21 그를 자기 집의 주(主)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22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
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
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23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
니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24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사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
하게 하셨으며
25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
을 교활히 다루게 하셨도다.
26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또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27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
을 보였도다.
28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곳
을 어둡게 하시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
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29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도 변하
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0 그들의 땅이 개구리들을 넘치
도록 내매 그들의 왕들의 방들에도
넘쳤도다.
31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여러 종
류의 파리들이 왔고 그들의 모든 지역
에 이들이 왔도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
박을 주시며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33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치시며 그들의 지역에
속한 나무들을 꺾으셨도다.
34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메뚜기와
쐐기벌레들이 오되 무수히 와서
35 그들의 땅에 있던 모든 채소를
먹고 그들의 토지에 있던 열매를 삼켰
도다.
36 또 그분께서 그들의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것 즉 그들의 모든 기력
의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37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
다.
38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 위
에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에
이집트가 즐거워하였도다.
39 그분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펴사 빛을 주셨
으며
40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
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매 물들
이 솟아 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
으니
42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
셨기 때문이로다.
43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쁨
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자신의 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
며
44 그들에게 이교도들의 땅들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하게 하셨으니
45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법규들
을 준수하고 자신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
하라.

제 106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 누가 능히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말하리요? 누가 능히 그분께서 받으
실 모든 찬양을 전하리요?
3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
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 오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호의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사
5 내가 주의 택하신 자들의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
소서.
6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
였나이다.
7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
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
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격노
하게 하였나이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
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
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
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9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
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10 그들을 미워한 자의 손에서 그
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
을 구속하셨고
11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
시매 그들 중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
도다.
12 그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
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
도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
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
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14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16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매
17 땅이 열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의 무리를 덮었으며
18 그들의 무리 속에 불이 붙어 불
꽃이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19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
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20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
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21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일들을 행
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22 *그 일들은* 곧 함의 땅에서의 놀
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
들이로다.
23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
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
셨도다.
24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
고
25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
도다.
26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손
을 들어 그들을 치사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러뜨리시고
27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 거
꾸러뜨리시며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
셨도다.
28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브올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29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
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30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
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
다.
31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영원
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는 의로 여기셨
도다.
32 그들이 또 다툼의 물들에서 그
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
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33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하
므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없이 말하
였기 때문이로다.
34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
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
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딸들
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38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
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
혔도다.
39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행
위들로 더러워지고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을 갔도다.
40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니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상속 *백성*을 몹시 싫어하사
41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
주시매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42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학대
하니 그들이 저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되었도다.
43 그분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
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꾀로 그분의
격노를 일으켰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
의 고난에 주목하시며
45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46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
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
지게 하셨도다.
47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우리
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4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
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온 백성
은 이르기를,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07 편

1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
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3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
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
다.
4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
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5 주리고 목마르매 그들의 혼이 그
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6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
서 그들을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
다.

8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
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
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9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
을 주시며 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10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11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
하였기 때문이라.
12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
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
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14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
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15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
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
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16 그분께서 놋 문들을 깨뜨리시
며 쇠 빗장들을 끊으셨도다.
17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18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
물을 몹시 싫어하매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19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
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
도다.
21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
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
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22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
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
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23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24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
과 깊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25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
으키시매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
이 일으키는도다.
26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
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
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27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
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28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29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므로 그
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30 파도들이 조용하므로 그때에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
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
가시는도다.
31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
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
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32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
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
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33 그분께서는 강들이 변하여 광
야가 되게 하시고 물 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
으로 인하여 결실의 땅이 변하여 불모
지가 되게 하시고
35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
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 샘들이
되게 하시고
36 주린 자들로 하여금 거기 거하
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마련하
게 하시며
37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
들어 그것이 소출의 열매를 내게 하시
며

38 또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39 그들은 다시 학대와 고난과 슬
픔을 통해 수가 줄어들며 비천하게
되는도다.
40 그분께서 통치자들에게는 모욕
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나
41 가난한 자는 고난에서 건져 높
이 드시고 양 떼 같은 가족들로 만드시
나니
42 의로운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
하며 모든 불법은 자기 입을 막으리로
다.
43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
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
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 108 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시57:7－11; 60:5－12)

¶ 다윗의 노래 또는 시.

1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
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리이다.
2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
신도 일찍 깨리로다.
3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서 노래
로 주를 찬양하리니
4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보다 높
으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
나이다.
5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
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 원하나이다.
6 이로써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
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7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
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
리라.
8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
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9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내가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
을 누르고 개가를 부르리라, 하셨도
다.
10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
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11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
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
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나이
까?
12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
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
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로다.

제 109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내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2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열려서 나를 치며 그들이 거짓말
하는 혀로 나를 비방하고
3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에워싸며
까닭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
다.
4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
할 뿐이니이다.
5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
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
소서.
7 그가 심판 받을 때에 정죄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8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방랑
하는 자가 되어 구걸하고 또 자기들의
황폐한 곳을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
게 하소서.
11 강제로 빼앗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가 수고한 것을 노략하게 하시며
12 그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그의 자녀들에
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13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 주께서는 그의 조상들의 불법
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시고
15 그것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 있
게 하사 친히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
서 끊으소서.
16 그는 긍휼 베푸는 것을 기억하
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
한 자를 핍박함으로써 심지어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나이다.
17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
은즉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
였은즉 그것이 그를 멀리 떠나게 하소
서.
18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
은즉 그것이 물같이 그의 내장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19 그것이 그에게는 그를 덮는 옷
같고 계속해서 그가 띠는 띠 같게 하소
서.
20 이것이 내 대적들과 내 혼을 비
방하는 자들이 주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21 그러나, 오 하나님 곧 주여, 주
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
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나이다.
23 나는 기우는 그림자같이 지나
가며 또 메뚜기같이 위아래로 까불려
지고
24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
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25 나는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26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께서 곧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28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에 부
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되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29 내 대적들이 수치로 옷 입게 하
시며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듯 자기의
당황함으로 자기를 가리게 하소서.
30 내가 내 입으로 주를 크게 찬양
하며 참으로 무리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리니
31 그분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쪽
에 서사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서 그를 구원하시리로다.

제 110 편

메시아 통치의 선언
(마22:44; 행2:34-35)

¶ 다윗의 시.
1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
라, 하셨도다.
2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
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
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
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4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
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
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
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
리라.
6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
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7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
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제 111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
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2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
므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3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
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4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
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5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
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6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교
도들의 유산을 주시려고 자신이 행한
일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7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
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
령들은 확실하니
8 그것들은 영원무궁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
졌도다.
9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
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
고 지존하시도다.
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도다.

제 112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
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
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
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4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
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5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
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6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
억되리로다.
7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
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하므
로 확정되었도다.
8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에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9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
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
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
다.
10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
하여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지리니 사악
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리로다.

제 113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
을 찬양하라.
2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3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4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
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
시도다.
5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6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
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8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
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9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
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
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
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14 편

1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
서 나올 때에
2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
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3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
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4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며 작은 산
들은 어린양들같이 뛰었도다.
5 오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히
기에 네가 도망하였느냐? 요르단아,
네가 어찌 뒤로 물러갔느냐?
6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숫양들같이
뛰었느냐? 작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양들같이 뛰었느냐?
7 땅이여, 너는 주의 앞에서 곧 야
곱의 하나님의 앞에서 떨지어다.
8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을 물
샘이 되게 하셨도다.

제 115 편

1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
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
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
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
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
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
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9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
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
의 방패시로다.
10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11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
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
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12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
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
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13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
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
리로다.
14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
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15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께 복을 받았도다.
16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
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
게 주셨도다.
17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

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러하도다.
18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
라.

제 116 편

1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
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2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
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3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
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4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
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
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7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
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8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
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
지셨나이다.
9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10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11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12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
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
름을 부르며
14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
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15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16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
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
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
다.
17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
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19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
렘아, 네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
는 주를 찬양하라.

제 117 편

1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
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2 우리에게 베푸시는바 긍휼이 풍
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
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18 편

1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
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
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3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
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4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
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5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
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
을 할 수 있으리요?
7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
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

다 나으며
9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
함보다 낫도다.
10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쌌으
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
로다.
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
을 멸하리로다.
12 그들이 벌들같이 나를 에워쌌
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꺼졌나니 내
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13 네가 나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
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
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16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
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
다.
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리로다.
18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
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
다.
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
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20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
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21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
이다.
22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24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로다.
25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
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26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
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
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28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
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제 119 편

알레프

1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
다.
2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
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3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
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4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
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
니
5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
들을 지키게 하소서!
6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
이다.
8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뻬트

9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
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
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0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
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

다.
12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14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16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
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
다.

끼멜

17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
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
이다.
18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
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19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
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
나이다.
21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
서 꾸짖으셨나이다.
22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켰사오
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
서.
23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
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24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
이요, 나의 조언자이니이다.

딸레트

25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
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
서.
26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이매 주
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27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
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28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
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29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
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
서.
30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켰
사오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
다.

헤

33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
을 지키리이다.
34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35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
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36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
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
서.
37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
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38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
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39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40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
모하였사오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봐브

41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과 심지어 주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42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
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43 내가 주의 판단들에 소망을 두
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44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
속해서 영원무궁토록 지키리이다.
45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므
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46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47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
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자인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50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
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
셨나이다.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
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
지 아니하였나이다.
52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53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
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
나
54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
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헤트

57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
나이다.
58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
게 긍휼을 베푸소서.
59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
의 증언(證言)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렸
사오며
60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
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였나이다.
62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
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63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
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64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
하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
서.

테트

65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
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
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
서.
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
고 있나이다.
68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
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내 온 마음
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
다.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
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요드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75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判斷)들은 바르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76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77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78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79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안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80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카프

81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82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83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 주의 종의 날들이 몇 날이니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느 때에 심판을 집행하시리이까?

85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86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오니 주는 나를 도우소서.

87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켰사오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을 지키리이다.

라메드

89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90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91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 날까지 지속되나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니이다.

92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94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나이다.

95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96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멤

97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98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99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100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므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
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
을 얻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
나이다.

눈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
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107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
소서.
108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09 내 혼이 항상 내 손 안에 있사
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110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
였나이다.
111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
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
의 기쁨이니이다.
112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
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싸메크

113 내가 허탄한 생각들은 미워하
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114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115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리로다.
116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
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117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
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118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
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119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같이 버리시오니 그러므로 내
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120 주를 두려워하므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
이다.

아인

121 내가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
하였사오니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122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124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
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
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
서.
126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
들었사오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
하실 때니이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
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페

129 주의 증언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130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131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하므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133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135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6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차데

137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138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니이다.
139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140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141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42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이다.
143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사오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144 주의 증언들의 의(義)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쿼프

145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147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149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판단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0 해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오거니와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니이다.
151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이다.
152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뤠쉬

153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154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5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음은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156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이 크오니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7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58 범법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였나이다.
159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

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
서.
160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
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쉰

161 통치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핍
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162 많은 노략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
다.
163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164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하나이
다.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166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
며 주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167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켰사
오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
이다.
168 내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으므
로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타브

169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170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
서.
171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
르치셨사오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
이다.
172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173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사
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4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
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
이다.
175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
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
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
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제 120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
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2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
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3 너 거짓된 혀여, 무엇을 네게 줄
까? 혹은 무엇을 네게 행할까?
4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이로다.
5 내가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6 내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7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 121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2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3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
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5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
나니
6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7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
존하시며 또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
다.
8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
다.

제 122 편

¶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2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들 안에 서리로다.
3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
로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나니
5 *그분께서* 심판의 왕좌들 곧 다윗
의 집의 왕좌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6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
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
로다.
7 네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네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8 내가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네 안에 화평이 있을지
어다.
9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3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
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2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
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3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
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
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차 있나이다.
4 안락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
들의 멸시가 우리 혼에 극도로 차 있나
이다.

제 124 편

¶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주께
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으리요!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
을 때에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였더라면
3 그때에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
해 타올라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켰
을 것이요,
4 그때에 물들이 우리를 뒤엎고 시
내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며
5 그때에 그 도도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할지어다.
6 우리를 먹이로 그들의 이에 내주
지 아니하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7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
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8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
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제 125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 산같이
되리로다.
2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
름 같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
터 영원토록 두르시는도다.
3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
들의 구획에 머무르지 못하리니 이것
은 의로운 자들이 불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4 오 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올
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5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
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끄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
리로다.

제 126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주께서 시온의 포로 된 것을 되돌
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
다.
2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
다. 그때에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
하여 큰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
겁도다.
4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 된 것을 되돌
리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 편

¶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
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
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
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
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4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
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5 자기 화살 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제 128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2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
라. 네가 행복하고 잘되리로다.
3 네 아내는 네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
은 네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
다.
4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
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5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네 평생토록 예루살렘
의 복을 보며
6 참으로 네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
리로다.

제 129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내
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2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4 주께서는 의로우사 사악한 자들
의 줄을 끊으셨도다.
5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당황
하여 뒤로 물러갈지어다.
6 그들은 자라기 전에 시드는 지붕
의 풀과 같을지니
7 풀 베는 자가 그것으로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며 단을 묶는 자가 자기
품을 채우지 못하느니라.
8 지나가는 자들도, 주의 복이 너

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
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지 아
니하느니라.

제 130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오 주여, 내가 깊음들 속에서 주
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
의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
서.
3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
들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
까?
4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
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5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
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도다.
6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
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 풍성
한 구속이 있도다.
8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제 131 편

¶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
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
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
다.
2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
머니의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 뗀 아이와 같나이다.
3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제 132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2 *그가* 주께 맹세하고 야곱의 능하
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3 참으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
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
하고
4 내 눈이 잠자지 못하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못하게 하되
5 주를 위한 장소 곧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하였나이다.
6 보라, 우리가 에브라다에서 그것
에 대하여 듣고 나무 밭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도다.
7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리라.
8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
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
서.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
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
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
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네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네 왕좌에 두리라.
12 네 자손들이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증언을 지킬
진대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네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도다. 그
분께서 그것을 자신의 처소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시기를*,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에 거하리니 내가 그것을
원하였도다.
15 내가 그녀의 양식에게 넘치도

록 복을 주고 빵으로 그녀의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16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그녀의 성도들
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17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정하였도
다.
18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
로 옷 입힐 것이로되 그의 왕관은 그
위에서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 편

¶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
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2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
간 머리 위의 귀중한 기름 같고
3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
로다.

제 134 편

¶ 위로 올라가는 노래.
1 보라, 밤에 주의 집에서 서는 주
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
라.
2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라.
3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
으로부터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
라.

제 135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
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2 주의 집 곧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
서는 너희여,
3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
라.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노래
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4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
하셨도다.
5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
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6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
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7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
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곳간들에서
끌어내시며
8 또 이집트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
나 짐승이나 다 치셨도다.
9 오 이집트여, 그분께서 네 한가운
데 징조들과 이적들을 보내사 파라오
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임하게 하시
고
10 또 큰 민족들을 치시며 강한 왕
들을 죽이셨나니
11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12 또 *그분께서* 그들의 땅을 유산
으로 주시되 곧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13 오 주여,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오 주여, 주를 기념함
은 모든 세대에 두루 미치오니
14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
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에 관하여
친히 뜻을 돌이키시리로다.
15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
다.
16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
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18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
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19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를 찬
송하라. 오 아론의 집이여, 주를 찬송
하라.
20 오 레위의 집이여, 주를 찬송하
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21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시온에서
나오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36 편

1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
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3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
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4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
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
도다.
5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
다.
6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
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7 큰 광체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
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8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
다.
9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
원하도다.
10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
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
휼은 영원하도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
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12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
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
은 영원하도다.
13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
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
도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
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
휼은 영원하도다.
15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
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
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16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17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
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
다.
19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
원하도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
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1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
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
하도다.
22 곧 *그것을* 자신의 종 이스라엘
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
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3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
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4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
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
휼은 영원하도다.
25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
원하도다.
26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제 137 편

1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
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
도다.
2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버

드나무들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나
니
3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
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
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
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의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4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5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
대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
다.
6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7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
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
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8 오 멸망 받을 바빌론의 딸아, 네
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네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9 네 어린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
어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제 138 편

¶ 다윗의 시.
1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들 앞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
다.
2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
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
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3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 오 주여,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주를 찬양하
리이다.
5 참으로 그들이 주의 길들 안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니이다.
6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
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7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
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
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
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 139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2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
시오며
3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
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
니
4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5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6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
나이다.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
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
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
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
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9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
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이다.
11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
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12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
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13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
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
다.
14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
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
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
지지 아니하였나이다.
16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
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17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
요!
18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
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
이다.
19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
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20 그들이 주를 향해 악하게 말하
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21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
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22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오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
나이다.
23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
들을 아시옵소서.
24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제 140 편

¶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
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
소서.
2 그들이 마음속으로 해악들을 꾀
하고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모이
며
3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
사오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4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손에서 나
를 지키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의 가는 것을
뒤엎으려 하였나이다.
5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
무와 줄을 숨겨 두고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
다. 셀라.
6 내가 주께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
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 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곧 주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
를 덮으셨나이다.
8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소원을 허
락하지 마시고 그의 사악한 계략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
신을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셀라.
9 나를 에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
하건대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 타오르는 숯이 그들 위에 떨어
지게 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
지 못하게 하소서.
11 악담하는 자는 땅에서 굳게 서

지 못할지니 재앙이 난폭한 자를 사냥
하여 그를 넘어뜨리리이다.
12 주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사정
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13 참으로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
름에 감사를 드리며 곧바른 자들이
주 앞에 거하리이다.

제 141 편

¶ 다윗의 시.
1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
소서.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
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3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
서.
5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
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6 그들의 재판관들이 돌 많은 곳에
엎드려졌을 때에도 내 말이 달므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이다.
7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쪼갤
때에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졌사오나
8 오 하나님 곧 주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9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고 놓은 올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 사악한 자들은 자기 그물에 걸
리게 하시되 나는 거기서 피하게 하소
서.

제 142 편

¶ 다윗의 마스길, 그가 동굴에 있을 때에
드린 기도.
1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
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2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3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그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니는 길에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4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
펴보았으나 나를 알려 하는 자가 없었
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5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
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
였나이다.
6 내가 심히 비천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오
니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7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
들이 나를 에워싸리이다.

제 143 편

¶ 다윗의 시.
1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
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
하소서.
2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산 자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리이
다.
3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

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들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
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
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6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 혼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
이다. 셀라.
7 오 주여, 속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영이 쇠약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
가는 자들과 같을까 염려하나이다.
8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
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
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9 오 주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여 숨고
자 하나이다.
10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
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
로 인도하소서.
11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12 또 주의 긍휼로 내 원수들을 끊
으시고 내 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
을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제 144 편

¶ 다윗의 시.
1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
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
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2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
분을 신뢰하므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3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4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
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5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에 손을 대사 그것들
이 연기를 내게 하소서.
6 번개를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
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
서.
7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보내사 나
를 큰물들과 낯선 자손의 손에서 빼내
어 건지소서.
8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
이다.
9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
래로 노래하며 비파와 십현금에 맞추
어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 그분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
시는 분이시요, 자신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로
다.
11 나를 낯선 자손의 손에서 빼내
어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
손이니이다.
12 그리하사 우리의 아들들은 어
릴 때에 다 자란 초목 같게 하시며
우리의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빛나
게 다듬은 모퉁잇돌 같게 하소서.
13 우리의 곳간들은 가득하여 온
갖 종류의 *것들*을 담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양들은 우리의 거리에서 수천
과 수만을 낳게 하소서.
14 우리의 소들은 강하여 수고하
게 하시며 침략을 당하거나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우리의
거리에는 불평이 없게 하소서.
15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

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제 145 편

¶ 다윗의 찬양 시.
1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무궁토록 주의 이름
을 찬송하리이다.
2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3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
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4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
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
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5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
다.
6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행적들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
하심을 밝히 보이리이다.
7 그들이 주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
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8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
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9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
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10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11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
하며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여
12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
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
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13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
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14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
키시는도다.
15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
을 것을 주시며
16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17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
하시도다.
18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19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
리로다.
20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
은 멸하시리로다.
21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송할지로다.

제 146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
아, 주를 찬양하라.
2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
님을 찬양하리로다.
3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
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
지 말라.
4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 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
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6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7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음
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8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9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10 오 시온아, 주 곧 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
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47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
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2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
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
며
3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
시는도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
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6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 올리
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
다.
7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
에 맞추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할지어다.
8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
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9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
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0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
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
니하시고
11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13 그분께서 네 문들의 빗장을 강
하게 하시고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에
게 복을 주셨도다.
14 그분께서 네 경계 안에서 화평
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
시며
15 자신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
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
다.
16 그분께서 눈을 양털같이 주시
고 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 자신의 얼음을 빵 조각같이 뿌
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18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
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
다.
19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
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
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
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48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2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
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3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
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4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
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
니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들이 창
조되었도다.
6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무
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7 용들과 모든 깊음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8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
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9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
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11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
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12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13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
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14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
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 149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
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
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2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3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
양하고 작은북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
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4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
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
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
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
다.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
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7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
며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쇠 족쇄로 묶고
9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
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존귀가 그분
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
를 찬양하라.

제 150 편

1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
다.
2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뛰어난 위대
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3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
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4 작은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
을 찬양할지어다.
5 큰 소리 나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
다.
6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
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잠 언

기록자: 솔로몬, 아굴, 르무엘 등, 기록 시기: 주전 1000 – 700년경
성격: 지혜 문학, 수신자: 솔로몬의 아들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
이름: 이 책의 히브리말 이름은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여기서 '잠언'은 '다스리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고안된 책으로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잠언이라는 우리말 이름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것으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뜻한다.
주제: 경험으로 얻는 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
목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는 것
내용: 잠언은 히브리 지혜 문학의 일부로서 지혜의 말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도 담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도덕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이다. 잠언에는 두 가지 문제 즉 이 세상의 도덕 체계와 그런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의무가 담겨 있다. 잠언에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이 대조되어 있는데 전자는 번영과 형통의 근간이며 후자는 고난과 사망의 원인이다. 잠언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에 맞는 지혜와 함께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분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 우정, 탐닉, 교만, 갈등, 절제, 말하는 것, 부와 재물 등. 잠언은 31장, 915절, 15,03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8장(잠언의 가치), 핵심 절: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4:23), 핵심 단어: 지혜와 명철
핵심 구: "주를 두려워하는 것"(9:10), 잠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8:12; 고전1:30), 영적 교훈: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라."

제 1 장

지식의 시작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3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
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4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
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5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
들을 얻어서
6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
지니라.
7 ¶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악한 조언자들을 피하라

8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9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
이 되고 네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10 ¶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꾈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11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
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
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12 무덤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
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
로 삼키자.
13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
며 노략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14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
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
자, 할지라도

15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16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
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17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허사로다.
18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
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19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
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
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지혜의 외침

20 ¶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
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21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
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22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
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
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
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23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
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
라.
24 ¶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
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5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
였은즉
26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네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27 그때에 네 두려움이 황폐함같
이 이르고 네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네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
라.
28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
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
리니
29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30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
라.
31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
지리니
32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
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33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제 2 장

지혜의 가치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
를 원하여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
을 명철에 쏟으며
3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
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
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6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
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
이니라.
7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
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 두시며 곧바르
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8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
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9 그런즉 네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10 ¶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11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
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 내리
라.
13 그들은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14 악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15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
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비뚤어진 자들
이로다.
16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
게서 건져 내리니
17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
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니라.
18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우나니
19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
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20 이로써 네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들을 지키
리니
21 이는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
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22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히리라.

제 3 장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

1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
다.
2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3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
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기록하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
라.
5 ¶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
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
다.
6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
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7 ¶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
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
다.
8 그것이 네 배꼽에 건강이 되며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9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
로 주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
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11 ¶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
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싫증을 내지 말라.
12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
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
느니라.
13 ¶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
는 자는 행복하니
14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
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15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16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17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18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19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
우셨도다.
20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
음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21 ¶ 내 아들아, 그것들이 네 눈에
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22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혼에게
생명이 되고 네 목에 은혜가 되리니
23 그런즉 네가 네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
리라.
24 네가 누울 때에 무서워하지 아
니하리니 참으로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25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에 그것
을 무서워하지 말라.
26 주께서 네 확신이 되시므로 네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27 ¶ 네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28 그것이 네 곁에 있거든 네 이웃
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거
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30 ¶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
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31 ¶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
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32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
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
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33 ¶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
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
서 복을 주시느니라.
34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
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
되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
가 되리로다.

제 4 장

지혜 속의 안전

1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
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
라.
2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
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3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
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4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
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
라.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
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
하리라.
7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
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8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9 그것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며 영광의 관을 네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10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
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삶의 햇수가
많게 되리라.
11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
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 네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좁아
지지 아니하고 네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13 훈계는 네 생명인즉 그것을 굳
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
라.
14 ¶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
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
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
다.
16 그들은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
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17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
도주를 마시느니라.
18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
는 광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19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
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20 ¶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
지 말며 네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22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
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23 ¶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
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
느니라.
24 비뚤어진 입을 네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네게서 멀리 하라.
25 네 눈은 바로 보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볼지어다.
26 네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
며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27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
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
어다.

제 5 장

간음의 위험

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
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2 이것은 네가 분별을 중시하고 네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
라.
3 ¶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
다 미끄러우니라.
4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5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
라.
6 그런즉 네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
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이므로 네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
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8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
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 네가 네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네 *삶의* 햇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10 낯선 자들이 네 재물로 충만하
게 되며 네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11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네 살과
네 몸이 소멸될 때에 네가 애곡하며
12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
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13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
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14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
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
다, 할까 염려하노라.
15 ¶ 네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
며 네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 네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
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17 그것들이 오직 네 것이 되게 하
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18 네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
라.
19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
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
라.
20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
을 껴안으려 하느냐?
21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
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22 ¶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
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
리니
23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
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제 6 장

위험한 약속들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네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
어 네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2 네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올무
에 걸렸으며 네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3 내 아들아, 네가 네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네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네 친구
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4 네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네 눈꺼
풀이 졸지 말게 하고
5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
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네 자신을 건질지어
다.

게으름의 어리석음

6 ¶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
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
로운 자가 되라.
7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
고 치리자도 없으되
8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
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
라.
9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
지 자려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10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11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네 궁핍
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사악한 자

12 ¶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
며
13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14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15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16 ¶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
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17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18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
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19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
라.

간음을 경계하라

20 ¶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
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21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 두고 네 목에 매어 두라.
22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
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23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
이니라.
24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
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
라.
25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

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
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
라.
26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
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
하리로다.
27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
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28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29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
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30 만일 도둑이 주릴 때에 자기 혼
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
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31 그러나 그가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32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
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
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33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34 한 남자의 격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
고
35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
니하며 네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제 7 장

창녀의 계략들

1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네게 쌓아 두라.
2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3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 판에 기록하라.
4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
이라, 하고 명철을 가리켜 네 친족
여인이라 하라.
5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
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간교한 창녀

6 ¶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7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
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8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9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10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11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
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12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
을 기다리는 자라.)
13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
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
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15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16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
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
을 장식하고
17 몰약과 알로에와 육계로 내 침
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
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19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20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은
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
여
21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

복시키며 자기 입술의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22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
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차꼬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23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
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24 ¶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
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25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
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26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
하였느니라.
27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
라.

제 8 장

지혜의 뛰어남

1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
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2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
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3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
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4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
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5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
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6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
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7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
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8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
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
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
르도다.
10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
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11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
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12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13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
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
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
니라.
14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
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
으므로
15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
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16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
느니라.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
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18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
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내게*
있도다.
19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
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20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
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21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
리라.
22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23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24 깊음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
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
으며
25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
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26 곧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
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
하셨을 때에라.
27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28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29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
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
하신 그때에
30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
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
하였으며
31 그분의 땅의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
들들과 함께하였노라.
32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
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33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34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
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
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
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36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
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
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
라.

제 9 장

지혜의 길

1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며
2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
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3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
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4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
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5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
즙을 마시며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
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7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
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8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
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
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
하리라.
9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11 나로 말미암아 네 날들이 많게
되며 네 삶의 햇수가 늘어나리라.
12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
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
라.

어리석음의 길

13 ¶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14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
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
을 불러 *말하되*,
16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
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17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
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18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

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 10 장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
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
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
니라.
2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
치지 못하나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
라.
3 주께서 의로운 자의 혼이 주리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터이나 사악
한 자의 재산은 내던지시느니라.
4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
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
들이나 수확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6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7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
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로다.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
는 넘어지리로다.
9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
나 자기 길들을 굽게 만드는 자는 *남에
게* 알려지리로다.
10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11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 샘이로
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
라.
12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
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13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
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
14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
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
우니라.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
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16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며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하
느니라.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
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18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
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
석은 자니라.
19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
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20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
라.
21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
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22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3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락과 같으나 명철한 자에
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24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
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의로운 자에게
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25 사악한 자는 회오리바람이 지
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
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26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
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2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햇수는 짧아지리로다.
28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
리로다.
29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30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
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
지 못하리로다.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32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
라.

제 11 장

사악함의 어리석음

1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
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2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
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하려니와 범법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하리로다.
4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
지 못하나 의는 사망에서 건지느니
라.
5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
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로다.
6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
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
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7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기대하
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8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
라.
9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
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
암아 구출되리로다.
10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
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
니라.
11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12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14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
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
라.
15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
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
니라.
16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
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
니라.
17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
를 괴롭게 하느니라.
18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
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
이 있으리로다.
19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
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
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20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21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
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터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라.
22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 보석 같으니라.
23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24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
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25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
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
라.
26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터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에는 복이 있으리라.
27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
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
게는 해악이 임하리라.
28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
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
럼 번성하리라.
29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
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0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
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
라.
31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
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 더 받으리로다.

제 12 장

의인의 집은 서리라
1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
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
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
께서 정죄하시리라.
3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
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
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4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
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뼈 속의 썩은 것과 같으니라.
5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
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
니라.
6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숨어 기다
리며 피를 흘리는 것이로되 곧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건지리로다.
7 사악한 자들은 쓰러져서 있지 아
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리로다.
8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
으려니와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
를 받으리라.
9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
는 자는 자기를 높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10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
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
11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
족을 얻으려니와 허탄한 자들을 따르
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12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13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
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14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
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
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
가리라.
15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옳으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16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
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
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
내느니라.
18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
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19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20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으나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
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21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
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리라.
22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
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23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
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
음을 선포하느니라.

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
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25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
게 하느니라.
26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니와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
을 유혹하느니라.
27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
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
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28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 13 장

지혜는 의를 사랑함

1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2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
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3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
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4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5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나
사악한 자는 역겨우며 수치에 이르느
니라.
6 의는 길이 곧바른 자를 보호하나
사악함은 죄인을 뒤엎느니라.
7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
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8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은 그의 재
물이지만 가난한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9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
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10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
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
가 있느니라.
11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
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12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
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13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
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14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
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 샘이니
라.
15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범
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16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
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17 사악한 사자(使者)는 해악에 빠
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
라.
18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
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19 혼에게는 성취된 소원이 달거
니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악에서 떠
나는 것이 가증한 것이니라.
20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
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21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
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
을 받으리라.
22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
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23 가난한 자가 경작하는 곳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판단이 부족하여
멸망하는 일도 있느니라.
24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
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
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25 의로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
도록 먹으나 사악한 자의 배는 주리리
로다.

제 14 장

생명과 사망의 길들
1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2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
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3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
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
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4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
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
라.
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
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
다.
6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
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7 네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
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
서 떠날지니라.
8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
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9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
라.
10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11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
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
라.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
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13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
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
라.
14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
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15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16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
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
며 자만하느니라.
17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
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
을 받느니라.
18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
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19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들에서 절하느니라.
20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
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22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
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23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24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
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
음은 어리석은 짓이니라.
25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
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
라.
26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
가 있으리라.
2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 샘
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
느니라.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
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
니라.
29 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
석음을 높이느니라.
30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

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니라.
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
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2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
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
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
라.
33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
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
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34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
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
니라.
35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
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제 15 장

부드러운 말이 진노를 돌이킴

1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
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
느니라.
2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
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 내느니라.
3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4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
의 비뚤어진 것은 영 안의 갈라진 틈이
니라.
5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
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
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6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
이 있느니라.
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
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
지 아니하느니라.
8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
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
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9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10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
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11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
마나 더 그러하리요?
12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
에게 가려 하지도 아니하리로다.
13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
니라.
14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
을 구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
15 고난 받는 자의 모든 날은 악하
거니와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계속해서
잔치하느니라.
16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
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
는 것이 외양간의 소를 *먹으면서* 그것
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
켜도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다툼
을 그치게 하느니라.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
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
게 되느니라.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
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
를 멸시하느니라.
21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
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22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
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23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
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

나 좋은가!
24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
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25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
시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
리로다.
26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
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
운 말들이니라.
27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28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
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 내느니라.
29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30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
라.
31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
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
라.
32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
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33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
라.

제 16 장

지혜는 금보다 나음

1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
라.
2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 보시
느니라.
3 네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
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
리라.
4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
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5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
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
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7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
목하게 하시느니라.
8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9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
느니라.
10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11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
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12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
에게 가증한 것이니 왕좌는 의로 말미
암아 굳게 서느니라.
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
는 것이니 그들은 바르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14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
히리로다.
15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
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17 곧바른 자의 큰길은 악을 떠나
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18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
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19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
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략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20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
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22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거니와 어리석은 자
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짓이니라.
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
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
느니라.
24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
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2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
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26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느니라.
27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
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28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
라놓느니라.
29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
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나니
30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꾀하려
고 자기 눈을 감으며 자기 입술을 움직
여 악을 이루느니라.
31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32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
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33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
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
서 하시느니라.

제 17 장

주는 마음을 시험함

1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
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
는 것보다 나으니라.
2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
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의 몫을 받으리라.
3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제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
하시느니라.
4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
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
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5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
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
관(花冠)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
의 아버지들이니라.
7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
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
지 아니하니라.
8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9 범법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10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백 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11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
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使者)를 보내시리라.
12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13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4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
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15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
한 자니라.
16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찌하여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17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
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
라.
18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
이 되느니라.
19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법을
사랑하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
을 구하느니라.
20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
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21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
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
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22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23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
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
라.
24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
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
니라.
25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
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26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
평하다고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
하지 아니하니라.
27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
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
라.
28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
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
라.

제 18 장

주의 이름은 강한 망대임

1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2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
뻐하느니라.
3 사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오며 부끄러운 것과 함께 치욕도 오느
니라.
4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5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
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6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
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
느니라.
7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8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
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
들로 내려가느니라.
9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10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
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
니라.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
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
라.
12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의 거
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
라.
13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
니라.
14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
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
하리요?
15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
느니라.
16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
하느니라.
17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18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서 나누느니
라.
19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
다 얻기 어려운즉 그들의 다툼은 성채
의 빗장과 같으니라.
20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21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22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
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23 가난한 자는 간청하는 말을 사
용하나 부자는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24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
라.

제 19 장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함
1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
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
다 나으니라.
2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
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3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
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
하느니라.
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
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
니라.
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6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
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7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
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
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9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10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
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
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
느니라.
11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12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13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
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
터 오느니라.
15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
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
리로다.
16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
라.
18 소망이 있을 동안에 네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네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19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
리니 네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20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네 마지막 끝에 지혜롭
게 되리라.
21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
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22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
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
이보다 나으니라.
23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
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
리라.
24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
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
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25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
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
식을 깨달으리라.
26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27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28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
을 삼키느니라.
29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
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제 20 장

포도주와 독주

1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
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
롭지 아니하니라.
2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
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
니라.
3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
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
자 하느니라.
4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
라.
5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
내리로다.
6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7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
데 걷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8 심판의 왕좌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
라.
9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
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
하다, 할 수 있겠느냐?
10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증한 것이니라.
11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12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13 잠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가난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네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14 사는 자가, 형편없다. 형편없
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
니라.
15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
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16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17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
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
하리라.
18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19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
하지 말지니라.
20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
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

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21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리로다.
22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
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
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23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
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
니라.
24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
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25 거룩한 것을 삼키는 자에게는
서원을 한 뒤에 물어보는 것이 올무가
되느니라.
26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
라.
27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28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좌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29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
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
니라.
30 파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
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배 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 21 장

주는 마음을 살핌

1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
라.
2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
느니라.
3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
니라.
4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
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5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
니라.
6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
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7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
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
기를 거절하느니라.
8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
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9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0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라
므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11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
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12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
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
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13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
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
도 역시 들어 줄 자가 없으리라.
14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
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16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
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17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
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
다.
18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19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
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
라.
20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
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
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21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
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22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
리느니라.
23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
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4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
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25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
니라.
26 그는 종일토록 게걸스럽게 탐
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27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
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
겠느냐?
28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
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29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30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
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31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
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제 22 장

좋은 이름의 가치

1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
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2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3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4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
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
라.
5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
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
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6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
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
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 주는 자의 종이 되느
니라.
8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
리라.
9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
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
게 주기 때문이니라.
10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
리로다.
11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
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12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
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
시느니라.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14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
이니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그 안에 빠지리라.
15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
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16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

17 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네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18 네가 만일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네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19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 날 네게, 바로 네게 알려 주었느니라.
20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네게 기록함은
21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22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23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24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25 네가 그의 길들을 배워 네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26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의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27 만일 네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네 잠자리를 네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28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29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 23 장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1 네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2 네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지니라.
3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4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5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네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6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7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8 네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네가 토하겠고 네 달콤한 말들도 잃으리라.
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네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10 오래된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11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매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12 네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네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13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15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16 참으로 네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17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18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19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
니라.
20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
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
데 있지 말라.
21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
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22 너를 낳은 네 아버지의 말에 귀
를 기울이고 네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
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
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25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
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
다.
26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27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
자는 좁은 구덩이이니라.
28 또 그녀가 먹이를 노리듯 숨어
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29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
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
게 있느냐? 재잘거림이 누구에게 있
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
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
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31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
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32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
사같이 쏘나니
33 네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네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34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
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35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
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
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제 24 장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1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
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2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3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4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
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
로다.
5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
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6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
라.
7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
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8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해로
운 자라 불리리로다.
9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10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네가 기진
하면 네 힘이 적은 것이니라.
11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12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네 혼을 지키시
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
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13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
것이 네 입맛에 다니라.
14 지혜를 아는 것이 네 혼에게 이
와 같으리라. 네가 그것을 얻으면 보
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
지지 아니하리라.
15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략하지 말
라.
16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
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
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
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18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
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19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
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20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21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
워하고 변하는 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
하지 말라.
22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생기리
니 그들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

23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
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
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24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
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
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25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
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하리라.
26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27 밖에서 네 일을 예비하고 들에
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
며 그 뒤에 네 집을 지을지니라.
28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치는 증인
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29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
라.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31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
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
져 있었으므로
32 그때에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
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33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34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네 궁핍
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제 25 장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

1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
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3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
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4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
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
라.
5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
라.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6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네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
라.
8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
것의 마지막에 곧 네 이웃이 너를 모욕
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9 네 사정에 대하여 네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
지 말라.
10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하
므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
까 염려하노라.
11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12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13 신실한 사자(使者)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 때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14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15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
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
라.
16 네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네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네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17 네 이웃의 집에서 네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네게 싫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18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
언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19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
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20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 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
는 자 같고 천연소다에 붓는 식초 같으
니라.
21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에게 빵
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22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
을 쌓으면 주께서 네게 보답해 주시리
라.
23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
라.
24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26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
복하는 것은 휘저은 샘과 썩은 옹달샘
같으니라.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28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제 26 장

명예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음

1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
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 때의 비 같으니라.
2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
로다.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
리니라.
4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
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
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5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
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6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
는 자는 발을 베어 내고 손해를 마시느
니라.
7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8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
는 무릿매에 돌을 매어 주는 자 같으니
라.

9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
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10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
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
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11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
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
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
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
니라.
14 문짝이 자기의 돌쩌귀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15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
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
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16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7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18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
음을 던지는 것 같이
19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20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
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21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
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
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
라.
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23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
라.
24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
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
두나니
25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
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26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27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28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 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제 27 장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1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
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2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
니라.
3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
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4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
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
요?
5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6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
라.
7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주
린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8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
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10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네 재난의 날에 네 형제
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
라.
11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나
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하리
라.
12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
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13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된 자
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
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14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15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
는 여자는 같으니
16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의 향유 곧 저절
로 새는 향유를 숨기느니라.
17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
게 하느니라.
18 누구든지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
라.
19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
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
하느니라.
20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21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
니라.
22 네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
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
리라.
23 너는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
히 알아보며 네 소 떼를 잘 보살피라.
24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
냐?
25 마른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
이 거두어지나니
26 어린양들은 네 옷이 되며 염소
들은 밭 값이 되고
27 네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네
음식과 네 집안사람들의 음식과 네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제 28 장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함

1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
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
이 담대하니라.
2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의 통치
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
는 비 같으니라.
4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
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
과 싸우느니라.
5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
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6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
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
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7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
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
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8 이자 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
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
리로다.
9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10 누구든지 의로운 자를 악한 길
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
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11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
를 살펴 아느니라.
12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
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
면 사람이 숨느니라.
13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
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
라.
14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
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15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
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
니는 곰 같으니라.
16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
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
라.
17 폭력을 써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구덩이로 도망하리니 아
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말지니라.
18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
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많은 빵을
소유하려니와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
는 궁핍이 넘치리라.
20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21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
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22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
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
라.
23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
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24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
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자는 파멸시
키는 자의 벗이니라.
25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
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
지게 되리라.
26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
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
는 자는 구출되리라.
27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
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28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
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
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제 29 장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함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
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2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
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3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
라.
4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
느니라.
5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
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6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
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
니라.
7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
라.
8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
노를 돌이키느니라.
9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
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10 피에 주린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
라.
11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
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
에까지 지키느니라.
12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
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
니라.
13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14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
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15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
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16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17 네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
면 그가 네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네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18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
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19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
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
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
망이 있느니라.
21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
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
같이 되게 하리라.
22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23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
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
리라.
24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
니라.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
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
는 안전하리라.
26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
부터 오느니라.
27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
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제 30 장

아굴의 지혜의 말들

1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
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2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3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
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4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
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네가 말할 수 있거든 그
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5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
패가 되시느니라.
6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
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
노라.
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

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
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
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
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10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11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12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
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13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
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
이 높이 들렸도다.
14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
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15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
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16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
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
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17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
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 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18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
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19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
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
의 길이니라.
20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
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1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
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
니
22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
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23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
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
라.
24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
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25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
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26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
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27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28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미니라.
29 잘 다니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30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31 그레이하운드와 또 숫염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32 만일 네가 어리석게 행하여 네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
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33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
니라.

제 31 장

르무엘의 어머니의 지혜의 말들

1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
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2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
랴?*

3 네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네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4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
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
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5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
고 고난 받는 자들 중의 어느 한 사람
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6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
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
라.
7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
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
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8 멸망 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네 입을 열라.
9 네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
하라.
10 ¶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
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11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
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12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
라.
13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14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
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15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16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
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17 힘 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
을 강하게 하며
18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
하며
19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
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20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21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
하고
22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
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23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지
느니라.
24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25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
올 때를 기뻐하리라.
26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
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27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28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
녀를 가리켜 복 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29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
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
다, 하느니라.
30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31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
다.

선포자 혹은

전 도 서

기록자: 솔로몬, 기록 시기: 주전 970년경, 성격: 지혜 문학
수신자: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
이름: 이 책의 히브리말 이름은 '코헬레스'이며 영어 제목 Ecclesiastes는 전도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에클레시아스테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히브리 책명의 뜻은 원래 '백성을 모으는 사람'이며 기록자 솔로몬은 사실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묘사하고 있다. '전도서'라는 우리말 이름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것이며 말씀 선포자인 솔로몬의 설교를 담은 글을 뜻한다.
주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결국 그런 것들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경험
목적: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내용: 전도서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요4:13)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해 주석서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책의 바로 뒤에 '솔로몬의 아가'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보여 주며 또한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본성에 속한 지혜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 혹은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참된 의무임을 알려준다. 전도서는 12장, 222절, 5,57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2장(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충고)
핵심 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1:2-3)
핵심 단어: 헛된 것, 핵심 구: "해 아래에서", "영을 괴롭게 하는 것"
전도서의 그리스도: 1. 가난하나 지혜로운 사람(9:14-16; 고전1:30; 고후 8:9), 2. 창조주(12:1, 요1:1-3)
영적 교훈: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소망을 추구하라."

제 1 장

인생의 허무함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
의 말씀들이라.
2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
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
요?
4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
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7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
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
니라.
8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
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9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

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
터 있었느니라.
11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
로다.

지혜의 고통

12 ¶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
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13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
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
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
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
받게 하셨느니라.
14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
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
며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16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
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
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
니라.
17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
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18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
라.

제 2 장

쾌락의 허무함

1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
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
는가? 하였도다.
3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
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4 내가 나를 위하여 큰일들을 벌였
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5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
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6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7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
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8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9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
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10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
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
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11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
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
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
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끝

12 ¶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지혜
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나
니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이미 행한 일뿐이
리라.
13 그때에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
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
어남 같았도다.
14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리
속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직접 깨달았
도다.
15 그때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
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
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
되도다, 하였도다.
16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
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
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
리석은 자와 같도다.
17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
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18 ¶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
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
야 하기 때문이라.
19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
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
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
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
니 이것도 헛되도다.
20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
음으로 하여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21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
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
리요?
23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
니 이것도 헛되도다.
24 ¶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
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
다.
25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26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
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제 3 장

모든 것에 때가 있음

1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
다.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6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하나님이 주신 일

9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
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10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
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
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
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
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
터 끝까지 알아 낼 수 없도다.
12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13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
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
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14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
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
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
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
느니라.
16 ¶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
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
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17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
문이라, 하였도다.
18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
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
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20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21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
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
요?
22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
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
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 주겠
느냐?

제 4 장

이기적인 수고의 쓸모없음

1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
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
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
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
가 없었도다.
2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
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3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이기적인 수고의 허무함
4 ¶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
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5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6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
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
라.
7 ¶ 그때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
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8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
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
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9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
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
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
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12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
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기도 사라짐
13 ¶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14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
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
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15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 설 둘
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 자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16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심
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
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것도 헛되
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제 5 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원을 지키라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
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2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
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네 말 수를 적게 할지니라.
3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
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
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
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5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6 네 입이 네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
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인
해 분노하사 네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
셔야 하겠느냐?
7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
워할지니라.
이득과 명예의 허무함
8 ¶ 만일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
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
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
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

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9 ¶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
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
것도 헛되도다.
11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
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12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
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우므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13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14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은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
다.
15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
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
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요?
17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
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
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19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20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
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
하리로다.

제 6 장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님

1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
으로 있는 것이라.
2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
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
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3 ¶ 비록 사람이 백 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
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4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5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
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
니라.
6 ¶ 참으로 그가 천 년을 두 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
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7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
라.
8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 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9 ¶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10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
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11 ¶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12 이 삶 곧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
요?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 7 장

실제적인 지혜의 가치

1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
니라*.
2 ¶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칫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
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
라.
3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
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
지기 때문이라.
4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5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6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우지직 소
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
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7 ¶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
느니라.
8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9 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
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
무느니라.
10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
냐? 하지 말라. 네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11 ¶ 지혜는 상속 재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니 해를 쳐다보는 자들에게
는 그것을 통하여 유익이 있도다.
12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
니라. 그러나 지식의 뛰어난 점은 지
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니라.
13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
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
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
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
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
다.
15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도다.
16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
을 멸하려 하느냐?
17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
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
라. 어찌하여 네가 네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18 네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네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19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
에 있는 열 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
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21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들을까 염려하노
라.
22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네 마음도 종종 아느니
라.
23 ¶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
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
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24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
가 능히 찾아내리요?
25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
려 하였으며 또 어리석은 짓 곧 어리석
은 것과 심지어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하였는데
26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
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
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
게 붙잡히리로다.
27 선포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전말을 알아
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28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
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천 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
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
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제 8 장

1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
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
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권위에 순종하라

2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
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3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
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4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
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
랴?
5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
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지혜로
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
느니라.
6 ¶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
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
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7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
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8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
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로다.
9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에
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
인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
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죽음은 모두에게 임함

10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
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
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
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
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
다.
12 ¶ 비록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
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되리라.
13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되지 못
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라.
14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
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
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
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15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도
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
로다.
16 ¶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지
혜를 알고자 하였으며 또 땅에서 이루
어진 일을 보고자 하였나니 (이는 낮
이나 밤이나 자기 눈으로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라.)
17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
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
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
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제 9 장

1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
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아무
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2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
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
여 선한 자가 어떠함같이 죄인도 그러
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
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3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
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4 ¶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5 살아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
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
기 때문이로다.
6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
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
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7 ¶ 네 길로 가서 기쁨으로 네 빵
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8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9 네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네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
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네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10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해야 할 일
을 얻는 대로 네 힘으로 그것을 하라.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
니라.
11 ¶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
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

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
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
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12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
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
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

13 ¶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이 지혜
를 보았는데 그것이 내게는 크게 보였
노라.
14 조그만 도시 곧 안에 사람이 많
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려
고 위대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큰 보루를 쌓아 그것을 치고자 하였으
나
15 이제 그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
로운 자가 있어서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건졌도다. 그럼에도 아무
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
도다.
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
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
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
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더 잘 들리느니라.
18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
느니라.

제 10 장

지혜와 어리석음

1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
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
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2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
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3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4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
시키느니라.
5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6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
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
다.
7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8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
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9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
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
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10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날을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11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12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
를 삼키려 하나니
13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
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
치는 미친 것이로다.
14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
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 주겠느냐?
15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그는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16 ¶ 오 땅이여, 네 왕이 아이이며
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17 오 땅이여, 네 왕이 고귀한 자들
의 아들이며 네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에
먹으면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18 ¶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19 ¶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20 ¶ 왕을 저주하지 말되 네 생각
속에서도 말며 네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
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제 11 장

부지런함의 가치

1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2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주
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3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
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
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
으리로다.
4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
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5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밴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
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
라.
7 ¶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8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
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
도다.

젊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9 ¶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
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
실 줄 너는 알라.
10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제 12 장

1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
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3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
리라.
4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 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5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
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
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
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

다.
6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7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
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께로 돌아가리로다.

인생의 허무함과 사람의 본분

8 ¶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9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우므로 여
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
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
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10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
이로다.
11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
시 채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
서 주신 것이니라.
12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
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14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솔 로 몬 의 아 가

기록자: 솔로몬, 기록 시기: 주전 960년경, 성격: 시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이름: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 책명 '쉬르하쉬림' 즉 '노래 중의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서 유래되었으며 '캔티클스'라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사랑의 노래로서 자연과 계절과 양 떼와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매해 유월절 축제의 여덟째 날에 낭독하던 '메길로스' 즉 구약성경의 다섯 두루마리인 아가서, 룻기, 에스더기,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하나이다.
주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연합
목적: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신실해야 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가난한 가정의 술람미 처녀가 솔로몬에게 속한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젊은 목자를 만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그 목자 · 연인은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처녀는 자신의 연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낙담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신실함을 보인다. 어느 날 그녀가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을을 방문한 솔로몬 왕이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 온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 왕이 자기의 목자 · 연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바로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아가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아가서는 8장, 117절, 2,65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신랑과 신부의 교제)
핵심 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시는도다."(6:3), 핵심 단어: 사랑하는
핵심 구: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2:16)
아가서의 그리스도: 1. 샤론의 장미(2:1), 2. 골짜기의 백합(2:1), 3.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 하늘의 신랑(5:10)
영적 교훈: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제 1 장

술람미 처녀와 예루살렘의 딸들

1 노래 중의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
라.
2 그분께서 자신의 입의 입맞춤으
로 내게 입 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3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사오
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
나이다.
4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
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
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
랑하나이다.
5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
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
라.
6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
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
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7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
이 한낮에 당신의 양 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 주소서. 어찌하
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 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
까?

솔로몬과 처녀의 말

8 ¶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국을 따라 네 길로 나아가 목자들
의 장막들 곁에서 네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9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
의 병거를 끄는 말 무리에 비교하였노
라.
10 보석 줄이 늘어진 네 뺨은 아름
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네 목은 아름
답구나.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 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12 ¶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
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13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
게 몰약 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
로다.
14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
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와 같으시도
다.
15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
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16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당
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
나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17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요,
서까래는 전나무이니이다.

제 2 장

솔람미 처녀의 흠모의 말

1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2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3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
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
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4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
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5 큰 포도즙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
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
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6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
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
도다.
7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
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
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
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솔람미 처녀의 요청

8 ¶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
도다.
9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
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
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
다.
10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11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
고 사라졌도다.
12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
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멧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
자.
14 ¶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는 달콤하며 네 얼굴
은 아름답도다.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
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
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

이 있느니라.
16 ¶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
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시는도다.
17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
키시며 또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의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제 3 장

술람미 처녀의 걱정스러운 밤

1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
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2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
나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혼
이 사랑하는 이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으나
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
랑하는 이를 내가 만나서 그분을 붙잡
고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수태한
여인의 방으로 모셔 들일 때까지 그분
이 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5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
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
*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
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솔로몬이 결혼하는 날

6 ¶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 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
시냐?
7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
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육십 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8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
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
을 찼느니라.
9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
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10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
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
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
다.
11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
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혼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
게 씌워 준 것이로다.

제 4 장

신랑이 신부를 칭찬함

1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도
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네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 있고 네 머리
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
내는 염소 떼 같구나.
2 네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
런히 깎은 양 떼 같은데 이 떼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
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3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고우며 네 관자놀이는 네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4 네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 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 둔
망대 같고
5 네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 새끼 두 마리 같구
나.
6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
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8 ¶ 내 정혼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
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

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9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네 한쪽 눈
과 네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 사랑
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네 향유 냄
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11 오 내 정혼자야, 네 입술은 벌집
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옷의 향기는 레바논
의 향기 같구나.
12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
이로구나.
13 네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 향을 내는 고벨
화와
14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나
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
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15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
구나.
16 ¶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
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제 5 장

1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
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
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
다.

술람미 처녀의 걱정스러운 저녁

2 ¶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
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
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의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
다.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
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4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시매 내 속 중심이 그분으
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5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몰약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
는 몰약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
졌도다.
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
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
셨도다.
7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
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8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
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
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
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신랑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움

9 ¶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
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
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
냐?
10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
그스레하니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시도다.
11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12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
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13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
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
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14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
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15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16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
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
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
구시로다.

제 6 장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1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
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
분을 찾으려 하노라.
2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
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 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3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
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시
는도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4 ¶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
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
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
나.
5 네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
서 그 눈을 돌려 다오. 네 머리털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
소 떼 같고
6 네 이는 씻는 데서 올라가는 양
떼 같은데 이 떼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
이 하나도 없구나.
7 네 관자놀이는 네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
십 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9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
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
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
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10 ¶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
가?
11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도 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며 석류나무가 봉
오리를 냈는지도 보려고 호두 동산으
로 내려갔는데
12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 혼이
나를 암미나딥의 병거들같이 되게 하
였도다.
13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
다.

제 7 장

신랑이 신부를 칭찬함

1 오 통치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솜씨 있는
장인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2 네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네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
은 밀 더미 같구나.
3 네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 새끼
두 마리 같구나.
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네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의 물
고기 연못 같으며 네 코는 다마스쿠스
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5 네 위에 있는 네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네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네 머리털 사이의 긴 방들에 붙잡혔구
나.
6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
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
가!
7 네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네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8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
라, 하였나니 이제 또한 네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9 네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
게 흘러 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
금 말하게 하느니라.

사랑의 연합

10 ¶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
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
다.
11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
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
서 유숙하사이다.
12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
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
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
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13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
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
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
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
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 두었나이
다.

제 8 장

연인들이 다시 만남

1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
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리하여*
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2 또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
니의 집으로 데려가고 당신은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내가 당신으로 하여
금 내 석류 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으리니
3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
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
다.
4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
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
*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
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5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
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
켰나니 거기서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
고 너를 밴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
라.
6 ¶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
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
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
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7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
니 사람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
히 멸시를 받으리라.
8 ¶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그녀에게는 젖가슴이 없도다. 우리
누이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녀
를 위해 무엇을 할까?
9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은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요, 그
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리라.
10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
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에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도다.
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서 포도원
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천 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12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것은 내 것이로다. 오 솔로몬이여, 당
신은 반드시 천 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이백 개를 가지
리이다.
13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14 ¶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
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
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
서.

대언자 이사야의 책

이 사 야 서

기록자: 이사야, 기록 시기: 주전 70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2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뜻한다.
주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
목적: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 배경: 주전 8세기 후반에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한 뒤 북 왕국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고 결국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성경적 신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다. 타락한 아하스 왕의 치하에 있던 유다는 언제든지 배교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 국가인 아시리아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기대하였다. 이때에 대언자 이사야와 미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 준엄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였으며 사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우상 숭배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성경 교육을 강화하였다. 내용: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예언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세 가지 주제 즉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여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받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는 것과 나중에 땅에서 그분을 통해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 같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듯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나뉜다. 이사야서는 66장, 1,292절, 37,03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3장(고난당하는 메시아), 핵심 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53:5)
핵심 단어: 구원(28회), 핵심 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1:4)
이사야서의 그리스도: 1. 임마누엘(7:14; 9:6), 2. 평화의 통치자(9:6), 3. 영존하는 아버지(9:6), 영적 교훈: "메시아가 오신다."

제 1 장

유다의 사악함

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
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2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
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
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
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
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
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
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
다.
5 ¶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
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
음은 기진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

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곪은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
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
도다.
7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
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키매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8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
이, 오이 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9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
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 두지 아니하
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
라같이 되었으리로다.
10 ¶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
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
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 헌물과 살
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
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
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
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13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
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
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
라.
14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
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15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
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16 ¶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
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
며
17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
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
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
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18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
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
라*.
19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20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
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
였느니라.

부패한 도시

21 ¶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
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
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
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23 네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
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
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
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
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24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
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아, 내
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덜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25 ¶ 또 내가 내 손을 네게로 돌려
네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며 네
모든 주석을 치워 버리고
26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조언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리한 뒤에야 네가, 의
의 도시 신실한 도시, 라 불리리라.
27 시온은 판단의 공의로 구속을
받으며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28 ¶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도 소멸되
리니
29 너희가 원하던 상수리나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
라. 또 너희가 택한 동산들로 인하여
너희가 당황하리니
30 너희는 잎사귀가 시드는 상수
리나무같이 되며 물 없는 동산같이
되리라.
31 강한 자는 삼 부스러기같이 되
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같이 되어
그들이 둘 다 함께 탈 터이나 아무도
그들을 끄지 못하리라.

제 2 장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집
(미4:1－5)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2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3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
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
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
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
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
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4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
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
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
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
지 아니하리라.
5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주의 날

6 ¶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
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7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馬)이 가득하
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며
8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
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
하고
9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굴복하
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
서.
10 ¶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
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
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니라.
11 그 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12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
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
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13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
무와
14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
든 작은 산과
15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
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17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
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 날
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18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
거하시리라.
19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
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
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20 그 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
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21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
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
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
가리라.
22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제 3 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1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
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
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
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3 오십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조언
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
를 제거하시느니라.
4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
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
리게 하리니
5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
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
게 그리하리라.
6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네게
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 이 파멸을 네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요,
7 *그러면* 그 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
도 없나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8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
의 행위들이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
9 ¶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
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 화가 있을지어
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보
답하였도다.
10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
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11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
리라.
12 ¶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
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
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
게 하며 네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
니라.

주께서 학대와 사치를 정죄함

13 주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14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로들
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 *자리*
로 들어가시리니 너희가 포도원을 먹
어 버렸도다. 가난한 자에게서 노략
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15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
각 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나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16 ¶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
라.
18 그 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의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19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20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
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21 반지와 코 장신구와
22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23 거울과 고운 아마포 옷과 두건
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24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며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가슴
옷을 대신하고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25 네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네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26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
곡하며 시온은 황폐한 채로 땅에 앉으
리라.

제 4 장

예루살렘의 영화로운 미래

1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
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
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하리라.
2 그 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
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3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
하다고 불리리니
4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
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을 씻어 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
리라.
5 또 주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6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제 5 장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포도원

1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
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
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2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것의 돌을 주워 내고 최상품의 포도나
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
도다.
3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
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원 사이에 판단하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
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
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5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
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
이 짓밟히게 하리라.
6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
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
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
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
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
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과도함에 대한 심판

8 ¶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9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
되,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
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
가 없으며
10 참으로 십 에이커 포도원이 일
바스를 내고 일 호멜의 씨가 일 에바를
내리라, 하셨도다.
11 ¶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2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
프와 현악기와 작은북과 피리와 포도
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
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3 ¶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
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14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
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
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15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
하게 될 것이로되
16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
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
로다.
17 그때에는 어린양들이 자기 방
식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살
진 자들의 피폐한 곳을 먹으리라.
18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 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9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
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
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 ¶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
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1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
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2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
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
어다!
23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
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24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
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
문이라.
25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
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
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
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
히 펼쳐져 있느니라.
26 ¶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
들을 향하여 기를 세우시고 땅 끝에서
부터 그들에게 쉿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 오리
라.
27 그들 가운데는 피곤한 자도 없
고 넘어지는 자도 없으며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으며 또 그들의 허리
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
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8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
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
굽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며

29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 같으
리니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으
리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
이를 움켜서 안전히 가져가도 그것을
건져 낼 자가 없으리로다.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
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
과 슬픔뿐이요, 광체가 그 땅의 하늘
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제 6 장

이사야가 대언자로 부름을 받음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
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고
2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
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
는 날더라.
3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
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5 ¶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
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
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
다, 하매
6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
집게로 제단에서 살아 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
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8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
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9 ¶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10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
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
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
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12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13 ¶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십분의 일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
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나
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
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제 7 장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짐(대하28:5－15)

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
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
을 하였으나 능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
니라.
2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
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

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3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
시되, 이제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
세탁공의 밭의 큰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
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
랴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뭇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
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5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
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
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
우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
리라.
8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
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9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
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
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임마누엘 대언

10 ¶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너를 위해 주 네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
셨으나
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
니하겠나이다, 하매
13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
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
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
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
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16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
리라.
17 ¶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
난 그 날로부터 임하지 않은 날들을
가져와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
하는 날이니라*.
18 그 날에 주께서 쉿 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19 그것들이 와서 다 같이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수풀 위에서 쉬리라.
20 또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세내어
온 삭도 곧 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고 수염
도 깎으시리라.
21 그 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22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하므
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그 땅에
남은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
라.
23 그 날에는 은 천 개의 가치가
있는 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
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
라.
24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25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찔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 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
니라.

제 8 장

아시리아의 침공
1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헬살랄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으라, 하시니라.
2 이에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
들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취하여 기록하게 하고
3 여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
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
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
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4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
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
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5 ¶ 또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
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
들을 기뻐하느니라.
7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
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
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서
8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
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
여, 그가 날개를 펴서 네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9 ¶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
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
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10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
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라
11 ¶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
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12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
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
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13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
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
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14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
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15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16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들 가운데서 봉하라.
17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
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18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 산
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19 ¶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
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
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
냐?
20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
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
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21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
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
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22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제 9 장

약속된 아들의 정권
(사11:1-9)

1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
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
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
니라.
2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3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
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략
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4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멘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
를 꺾으셨나이다.
5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
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6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
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
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
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의 형벌

8 ¶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
시매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
므로
9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및 사마리
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
듬은 돌로 쌓고 돌무화과나무들이 찍
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
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
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12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
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
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13 ¶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
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14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에 이스라
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풀
을 끊으실 터인데
15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
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꼬리니라.
16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인도
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중
의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
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모
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
히 펼쳐져 있느니라.
18 ¶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라 찔
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이매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19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지며 그 백성은 불을
지피는 땔감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20 그가 오른손으로 움켜쥘지라도
주릴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21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
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
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제 10 장

아시리아의 패배와 심판

1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
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2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
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3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
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
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남겨 두겠느냐?
4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
서 머리를 숙이며 죽임 당한 자들 밑에
서 쓰러지리로다. 이 모든 것에도 불
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
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
니라.
5 ¶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
는 내 격노니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
을 짓밟게 하리라.
7 그러나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
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
여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하는
도다.
8 그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9 갈노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
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아니하
냐?
10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
들을 이미 찾아내었나니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의 형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
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12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
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
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
라.
13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
고 또 용감한 자같이 거주민들을 굴복
시켰노라.
14 내 손이 새 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
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
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5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
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
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
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
기를 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움직
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도
다.
16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가 그
의 살진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며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게 하리라.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18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19 그의 숲에 남아 있는 나무의 수
가 적으므로 아이라도 능히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옴

20 ¶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21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
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22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
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
와 더불어 넘쳐흐르리니
23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24 ¶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
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
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25 아주 잠시 후면 격노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
라.
26 만군의 주가 오렙 반석에서 미디
안을 살육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치리라.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
에 놓였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그 막대기를 들리라.
27 그 날에 그의 짐이 네 어깨에서
제거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제거
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28 그가 아얏에 이른 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 자기 짐을 쌓아 두었
고
29 그들이 통로를 넘어가서 게바
에서 머물 곳을 정하매 라마는 두려워
하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였도다.
30 오 갈림의 딸아, 네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오 가련한 아나돗아, 그
것이 라이스에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31 맛메나는 옮겨졌으며 게빔의 거
주민들은 스스로 모여서 도망하는도
다.
32 그 날에 그가 여전히 놉에 머무
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향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로
다.
33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두려움
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겸손해
질 것이요,
34 그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
내리니 레바논이 강한 자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제 11 장

이새의 씨의 통치
(사9:1-7)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
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2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
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
며
3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
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
하며
4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
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5 의로 자기 허리의 띠를 삼고 신실
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의 띠를 삼으리
라.
6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
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
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
럼 풀을 먹으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9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
이니라.
10 ¶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
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
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의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
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
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12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
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13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
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
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고 함께 동쪽 사람
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
리라.
15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일곱 갈래로 나누
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
게 하시리라.
16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의 남은 자들 즉 남아 있을 자들을
위하여 큰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제 12 장

찬양의 노래

1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
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
나이다, 하리로다.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
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3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
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4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
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
을 언급하라.
5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
므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것이 온 땅
에 알려졌느니라.
6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네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위대하시도다, 하리로
다.

제 13 장

바빌론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
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2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

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3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
게 명령하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4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
를 소집하시는도다.
5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격노의 무기들이라.
6 ¶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
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7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8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
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
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9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
시리니
10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
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11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
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12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
되 심지어 오빌의 금광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하리로다.
13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
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 자리에서
옮기리니
14 그것이 쫓기는 노루 같이 되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그들
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터이나
15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
들과 연합하는 자마다 칼에 쓰러지며
16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
에서 내던져져서 여러 조각이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17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
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18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
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19 ¶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
신 때와 같이 되리니
20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
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도
아니하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
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 우리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21 오직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
에 누우며 음울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추
고
22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
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용들이 그들
의 좋은 궁궐에서 부르짖으리라. 그
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은즉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제 14 장

야곱을 향한 긍휼

1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
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
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2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
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
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
라.
3 그 날에 주께서 네게 안식을 주사
네 슬픔과 네 두려움과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니 네가 그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느니라.

바빌론 왕의 타락

4 ¶ *그때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
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
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
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5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
리자들의 홀(笏)을 꺾으셨도다.
6 진노 중에 이 백성을 치되 계속해
서 친 자, 분노 중에 민족들을 다스리
던 자가 핍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지
아니하는도다.
7 온 땅이 안식을 누리며 조용하니
그들이 소리 내어 노래하는도다.
8 참으로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
목도 너로 인해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밑에 누웠은즉 우리를 치려고
올라와 베어 가는 자가 전혀 없다,
하는도다.
9 밑에서 나온 지옥이 네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
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
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
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10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
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
냐? 네가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
다.
11 네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
며 네 현악기 소리도 그러하도다. 벌
레가 네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사탄 마귀의 타락

12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13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
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15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
다.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
국들을 흔들며
17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
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18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마는
19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같
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
이의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
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네 무덤
에서 쫓겨났도다.
20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
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21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
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
하게 하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며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
지도 못하게 하라.

바빌론의 멸망

22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들을 치려고 일어나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를 바빌론에서 끊으
리라. 주가 말하노라.

23 또 내가 그곳을 해오라기의 소
유가 되게 하며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
의 주가 말하노라.

아시리아의 멸망

24 ¶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
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
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25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멍
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26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
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
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
을 돌이키랴?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
한 부담이 *임하니라*.

블레셋의 멸망

29 ¶ 온 팔레스티나여! 너를 친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는 기뻐
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
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 뱀이
되리라.
30 가난한 자들의 처음 난 자는 먹
겠고 궁핍한 자들은 안전히 누우리
라.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가 너의 남은 자를 죽이리
라.
31 오 성문이여, 울부짖을지어다.
오 도시여, 부르짖을지어다. 온 팔레
스티나여, 네가 해체되었도다. 북쪽
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아무도 자기에
게 정해진 때에 홀로 있지 아니하리로
다.
32 그때에 사람이 그 민족의 사자
(使者)들에게 무어라 대답하겠느냐?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은즉 그분의 백
성 중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
리라, 하리로다.

제 15 장

모압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모압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는 밤사이에 모압의 아르가 피폐하
게 되어 침묵 속으로 들어가며 밤사이
에 모압의 기르가 피폐하게 되어 침묵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2 그가 울려고 바잇과 디본으로 곧
산당들로 올라갔으니 모압이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울부짖으리라. 그들
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사람마
다* 수염을 깎으리니
3 그들이 자기들의 거리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두르고 자기들의 집
지붕과 거리에서 저마다 울부짖으며
크게 울리로다.
4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야하스에까지 들리
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군사들
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의 생명이 그
에게 고통을 주리로다.
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
으리로다. 그의 도망자들은 삼 년 된
암송아지인 소알로 피하리니 그들이
울면서 루힛의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
로나임 길에서 멸망의 부르짖는 소리
를 내리로다.
6 니므림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
니 건초가 시들고 풀이 말라 푸른 것이
없도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얻은
풍성한 *재물*과 쌓아 둔 것을 버드나무
시내로 가져가리니
8 이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의
사방 경계에 다다랐고 그것의 울부짖
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울부짖음이 브엘엘림에 이르렀기 때
문이로다.
9 또 디몬의 물들에 피가 가득하리
니 이는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많이
내리되 모압에서 도피하는 자와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제 16 장

모압의 멸망

1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
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
2 모압의 딸들이 보금자리에서 쫓
겨나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아르논의
여울에 있으리라.
3 의논하고 심판을 집행하라. 한낮
에도 밤과 같이 너의 그림자를 만들어
쫓겨난 자들을 숨겨 주며 떠돌아다니
는 자를 드러내지 말라.
4 모압아,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게 하라. 너는 그들을 위해
숨을 곳이 되어 노략하는 자의 얼굴을
피하게 하라. 착취하는 자가 끝이 나
며 노략하는 자가 그치고 학대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소멸되었도다.
5 왕좌가 긍휼로 굳게 서리니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진리 안에서 그 왕좌
에 앉아 심판하며 판단의 공의를 구하
고 신속히 의를 행하리라.
6 ¶ 우리가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가 심히 교만하도다. 그
의 오만과 교만과 진노에 대하여도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의 거짓말은 그
와 같지 아니하리로다.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으로 인하
여 울부짖되 사람마다 울부짖고 너희
가 길하레셋의 기초들로 인하여 애곡
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타격을 받았느
니라.
8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
가 시드는도다. 이교도들의 군주들이
거기의 으뜸가는 초목들을 꺾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야셀에까지 이르렀고
전에는 광야를 지나 돌아다녔으며 그
녀의 가지들은 뻗어나가 바다를 건넜
도다.
9 ¶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과
더불어 십마의 포도나무로 인하여 애
통하리라. 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
여, 내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네 여름철 열매와 네 수확으로 인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가 *땅에* 떨어졌도
다.
10 즐거움이 사라지고 풍요한 밭
에서 나오는 기쁨이 사라졌으며 포도
원에는 노래하는 것도 없고 크게 외치
는 소리도 없으며 그들의 포도즙 틀에
서는 포도를 밟는 자들이 밟아서 포도
즙을 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의 포도
수확 때에 크게 외치는 소리를 그치게
하였느니라.
11 이러므로 내 속 중심이 모압으
로 인하여 하프처럼 소리를 내며 내
속 *중심부*가 길하레셋으로 인하여 그
리하리로다.
12 ¶ 모압이 산당에서 기진맥진
하는 것이 보일 때에 그가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으
리로다.
13 이것은 주께서 그때 이후로 모
압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거니와
14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
되, 품꾼의 햇수대로 삼 년 안에 모압
의 영광이 그 큰 무리 모두와 함께
경멸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리라, 하셨도다.

제 17 장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
이라.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
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
라.
2 아로엘의 도시들은 버림을 받았
도다. 그것들이 양 떼를 치는 곳이
되어 양 떼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것
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3 또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그치
고 다마스쿠스에서는 왕국이 그치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그들
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4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의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리니
5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
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
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
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6 ¶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줍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 있을 터인데
이것은 곧 올리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가장 밖에 있으면
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의 가지에 네다
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관심을 두고
8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
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
로 만든 것 즉 작은 숲이나 형상들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9 ¶ 그 날에 그의 견고한 도시들이
버림받은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같이
될 터인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로 인하여 그들이 남겨 둔 것이라.
또 거기에 황폐함이 있으리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석에게 마음
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
므로 네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들과 함께 그것을 세우며
11 그 날에 네가 네 초목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네 씨가 무성히 자라게
할 것이로되 근심과 극심한 슬픔의
날에 *거기서 얻는* 수확이 무더기가
되리로다.
12 ¶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
오고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13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
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바람 앞에 굴
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
겨 가리라.
14 저녁때의 고난을 보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
를 강탈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몫이니
라.

제 18 장

에티오피아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에티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에서
날개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땅에 화가
있을지어다!
2 *그 땅이* 물 위에 떠 있는 갈대배로
바다를 통해 대사들을 보내며 이르기
를, 민첩한 사자(使者)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곧 그들의 시작
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에
게로 가되 *분량대로* 측량되고 짓밟힌
민족 즉 강들이 땅을 못 쓰게 만든
민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3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
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기를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
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
다.
4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안식을 취하며 또 내 거처에서
깊이 생각하기를 채소 위에 떨어지는
투명한 열기와 수확 때의 열기 속에
거하는 이슬 구름같이 하리라, 하셨
도다.
5 수확하기 전 곧 봉오리가 완전해
지고 신 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 갈
때에 그분께서 가지 치는 낫으로 작은
가지를 치시고 큰 가지를 제거하시고
잘라 내시어
6 그것들을 다 같이 산의 날짐승들
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 주시리니
날짐승들이 그것들로 여름을 나며 땅
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들로 겨울을
나리라.
7 ¶ 그때에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
곧 그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움

을 주는 백성이 만군의 주께 예물을
가져오되 *분량대로* 측량되고 짓밟힌
민족 즉 강들이 땅을 못 쓰게 만든
민족이 만군의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 산으로 가져오리라.

제 19 장

이집트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
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2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 이집
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
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3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
서 쇠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
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4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
가 말하노라.
5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며
6 그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
리니 방어하던 시내들이 고갈되어 마
르고 갈대와 부들도 시들며
7 시냇가와 시내 어귀의 종이 갈대
들과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서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8 어부들도 애곡하며 시내에 낚시
를 던지는 모든 자들도 슬퍼하고 물
위로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기운을
잃으며
9 또 고운 아마로 *옷을* 만드는 자들
과 그물 제품을 짜는 자들이 당황하고
10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과 연
못을 만드는 모든 자들이 그 목적한
것에서 낙담하리라.
11 ¶ 참으로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
운 조언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
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이르기
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12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지혜
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
금 네게 고할 것이요, 또 그들은 만군
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를 알지어다.
13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
들이 되었으며 놉의 통치자들은 속임
을 당하였도다. 또 그들은 이집트 지파
들의 버팀목이거늘 그들마저도 이집
트를 꾀었도다.
14 주께서 그것의 한가운데서 비
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이
집트로 하여금 그것의 모든 일에서
잘못하게 하되 마치 술 취한 자가 자기
의 토한 것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으니
15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
나 가지나 골풀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으리라.
16 그 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
리라. 그것이 만군의 주의 흔드시는
손이 자기 위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17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
이 되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
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복

18 ¶ 그 날에 이집트 땅의 다섯
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
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19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
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20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
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

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21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
시리니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
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22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
시고는 고쳐 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 ¶ 그 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
시리아에 이르는 큰길이 있어 아시리
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
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
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25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
어다, 하시리로다.

제 20 장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향한 표적

1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매) 그가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과
싸워 그곳을 취하던 해의 *일이라*.
2 바로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
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굵은 베를 풀
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
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
로 다니니라.
3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
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4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에티오피아 사람들
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5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
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6 그 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
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 받
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피하
리요? 하리라.

제 21 장

바빌론의 멸망 선언

1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
이라. 남쪽의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
부터 그것이 임하는도다.
2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략하는 자가 노략하는도
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에워쌀지어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
는도다.
3 그러므로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
하였으며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 같은
산통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그것을
들을 때에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놀랐도다.
4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며 나의 기쁨의 밤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
다.
5 상을 예비하고 파수대에서 파수
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통치자들
아, 너희는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
를지어다.
6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
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자기
가 보는 것을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하셨도다.
7 그가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와

나귀 병거와 낙타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
다가
8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 내 주인
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9 보소서, 사람들을 태운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
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
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
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
서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10 오 내가 타작한 것이여, 내 *타작*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
에게 밝히 알렸노라.

에돔에 대한 부담의 경고

11 ¶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
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12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
니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
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대한 부담의 경고

13 ¶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여행하는 드단 족속의
무리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의 숲에
서 묵으리라.
14 데마 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비하였도다.
15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고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16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햇수에 따라 일 년 내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17 게달 자손의 용사들 곧 활 쏘는
자들의 남은 수가 줄어들리라. 주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느
니라, 하셨느니라.

제 22 장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환상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부담
이라. 무엇이 지금 너를 괴롭게 하기
에 네가 전부 다 지붕에 올라갔느냐?
2 소동으로 가득하며 소란한 도시
곧 기뻐하는 도시여, 죽임을 당한 네
사람들은 칼에 죽지도 아니하고 전쟁
에서 사망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3 네 모든 치리자들도 다 같이 도망
하였다가 활 쏘는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였고 네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자들
곧 먼 곳에서 도망한 자들도 다 같이
결박을 당하였느니라.
4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내가 몹시 슬피 울리
라. 내 백성의 딸이 노략을 당하였으
니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
였노라.
5 그것은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환
상 골짜기에 고난과 짓밟음과 혼란이
임하게 하시는 날이요, 성벽이 무너
져 내리는 *날이며* 산을 향해 부르짖는
날이로다.
6 엘람은 사람들을 태운 병거와 마
병들과 더불어 화살 통을 메었고 기르
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7 병거들이 너의 가장 좋은 골짜기
에 가득하고 마병들이 성문에서 전열
을 갖추리라.
8 ¶ 그가 유다의 덮은 것을 벗기매
그 날에 네가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병기를 보았노라.
9 또 너희가 다윗의 도시의 무너진
곳이 많음도 보고 아래 연못의 물도
함께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집들도 세고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 또 너희가 옛 연못의 물을 얻기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도랑을 만들었
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만드
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
전에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2 그 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베를 두르라고 외치셨거늘
13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
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
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계시하
여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가 죽을 때
까지 이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
라, 하셨느니라.

셉나에 대한 심판

15 ¶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이
사람 곧 그 집을 감독하는 자 셉나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16 네가 여기에 무슨 소유가 있느
냐? 네가 여기에 누가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돌무덤을
파고 또 자기를 위하여 바위 속에 처소
를 파내는 자같이 너를 위하여 여기에
돌무덤을 팠느냐?
17 보라, 주가 너를 단단히 포로로
사로잡아 데려가고 반드시 너를 덮되
18 참으로 너를 공같이 맹렬히 돌
리며 큰 지역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네가 죽고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들이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로다.
19 내가 너를 네 위치에서 쫓아내
며 *그가* 너를 네 지위에서 끌어내리리
라.
20 ¶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띠워 그를 강하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
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22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
도 열지 못하리라.
23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좌가 될 것이요,
24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 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요, 모든 작은 그릇 즉 잔으로
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릇
이니라.
25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단단한 곳에 견고하게 박힌 못이 빠지
고 부러져 떨어지므로 거기 걸린 짐이
떨어져 나가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
였느니라, 하라.

제 23 장

두로에 대한 부담의 경고

1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
어다.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
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깃딤 땅에서부
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느니라.
2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
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
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
3 두로의 재원은 큰물로 말미암은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물이며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로다.
4 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
어다. 바다 곧 바다의 능력이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
며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고 청년들을
기르지도 아니하며 처녀들을 양육하
지도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5 이집트에 관한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몹시 고통을 받은 것 같이 두로
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도 그러하리
라.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
어다.
7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도시 곧
옛적부터 오랫동안 있던 도시냐? 그
녀의 두 발이 그녀를 멀리 옮겨 *거기*
머물게 하리로다.
8 왕관을 씌우던 도시로서 통치자
들을 상인들로 두고 땅의 존귀한 자들

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9 만군의 주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
을 더럽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셨도다.
10 오 다시스의 딸이여, 강같이 네
땅을 통과할지어다. 더 이상 기력이
없도다.
11 그분께서 바다 위로 자신의 손
을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시고 주께서
명령을 내리사 그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그 도시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
시고
12 이르시되, 오 학대받는 처녀 시
돈의 딸이여, 네가 다시는 기뻐하지
못하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
다, 하셨느니라.
13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볼지어
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는데 그들이 그것의
탑들을 세우고 그것의 궁궐들을 세우
매 그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느니
라.
14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기력
이 피폐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울부짖
을지어다.
15 그 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에
따라 칠십 년 동안 잊힐 것이요, 칠십
년이 끝난 뒤에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
하리라.
16 *오랫동안* 잊힌 창녀여, 너는 하
프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
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
이*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할지니라.
17 ¶ 칠십 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녀가 자기의
몸값*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벌일
것이로되
18 그녀의 상품과 몸값은 주께 거
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라. 그녀의 상품
은 주 앞에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오래 입을 옷이 되리라.

제 24 장

땅을 향한 임박한 심판

1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
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니
2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
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
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
게 똑같이 일어나리라.
3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
략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
느니라.
4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
이 쇠약해지며
5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
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
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7 새 포도즙이 애곡하며 포도나무
가 쇠약해지고 마음이 즐겁던 모든
자가 탄식하며
8 작은북을 치는 희락이 그치고 기
뻐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
타는 기쁨이 그치고
9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즙을 마
시지 못하며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10 혼동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집마다 문이 닫히므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11 포도즙을 구하려고 외치는 소
리가 거리에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둠
으로 변하고 그 땅의 희락이 사라졌도
다.

12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 있으
며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도다.
13 ¶ 그 땅의 한가운데서 백성 가
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올리브나무
를 흔드는 것과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아 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일이
있으리라.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
으로 인해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크
게 외치리니
15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
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
롭게 할지니라.
16 ¶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
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
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
함이여,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
였도다, 하였느니라.
17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
덩이와 올무가 네게 이르렀은즉
18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
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
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
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
라.
19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
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
도다.
20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
로다.
21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
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
라.
23 그때에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
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
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제 25 장

하나님 찬양

1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
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2 주께서 도시를 무더기로 만드시
고 방벽을 세운 도시를 폐허로 만드시
며 타국인들의 궁궐을 도시가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세워지
지 못하리이다.
3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
롭게 하며 무서운 민족들의 도시가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4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
는 폭풍 같을 때에 주께서 가난한 자들
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
이 되셨사오니
5 마른 곳의 열기를 *낮춤같이* 주께
서 타국인들의 떠드는 소리를 낮추시
되 곧 구름의 그늘로 열기를 낮춤같이
하실 것이며 *주께서* 무서운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이다.
6 ¶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
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7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
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
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8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
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
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

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9 ¶ 그 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
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
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라, 하리로다.
10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시
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11 또 그분께서 헤엄치는 자가 헤
엄을 치려고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것 같이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 또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략물과 더불어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12 또 네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
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
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리시리라.

제 26 장

구원의 노래

1 그 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
루로 삼으시리로다.
2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
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3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
다.
4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
다.
5 ¶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
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
가 될 때까지 낮추시나니
6 발이 그것을 짓밟되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
하리로다.
7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나
이다.
8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
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9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
였사온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주의 심판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10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
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11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
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
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12 ¶ 주여,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
리이다.
13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主)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
오나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언급하리이다.
14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
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이
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징벌하
시며 멸하사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셨나이다.
15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번창
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셨
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
나이다.
16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았사오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17 오 주여, 아이 밴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눈
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18 우리가 아이를 배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
리지 못하였나이다.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
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
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
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

20 ¶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네 방들로 들어가 네 주변의 네 문들을
닫고 격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21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
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
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
라.

제 27 장

이스라엘의 회복

1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
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 그 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3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매
순간 거기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
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4 내 안에 격노가 있지 아니하도
다. 누가 찔레와 가시들을 세워 전쟁
에서 나를 치리요? 내가 그것들을 헤
치고 나아가며 그것들을 다 같이 불태
우리라.
5 그리되지 아니하려면 그는 내 능
력을 굳게 붙들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6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
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
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7 ¶ 그분께서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이 그를 치셨느냐? 혹은 그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육
당한 것 같이 죽었느냐?
8 그것이 싹을 낼 때에 주께서 그것
을 적당히 논박하시리이다. 그분께서
동풍이 부는 날에 자신의 거친 바람을
멈추게 하시느니라.
9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
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되며 이것이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가 되나
니 그분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쳐서*
산산조각 난 석회암 같게 하실 때에
작은 숲과 형상들이 서지 못하리라.
10 그러나 방벽을 세운 도시가 황
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림받아 광야같
이 될 터인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거기의 나뭇가지를 먹
어 없애리라.
11 거기의 작은 가지들이 시들면
꺾이리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
사르리라.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므로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
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
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2 ¶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
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
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 그 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
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
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
하리라.

제 28 장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

1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
의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도
다.
2 보라, 주께는 힘 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
니
3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4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위에 있
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
이 되며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을 먹으리로다.
5 ¶ 그 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요,
6 재판하려고 앉는 자에게는 판단
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7 ¶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
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
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
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8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
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9 ¶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
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
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10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
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
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11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
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
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
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
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
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14 ¶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
어다.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
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地獄)과 합의
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
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
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
였도다.

시온의 모퉁잇돌

16 ¶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
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잇돌이며 견고
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
니하리로다.
17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
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義)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
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
라.
18 ¶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
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
히리라.
19 그것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
터 너희를 붙잡으리라. 아침마다 그
것이 지나가며 밤낮으로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다만 괴로움이

되리라.
20 침상은 사람이 그 위에서 몸을
펴기에 너무 짧고 이불은 그가 속에
들어가 몸을 감싸기에 너무 좁으니
라.
21 주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
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자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행사 곧 자신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22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
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소멸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들었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23 ¶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
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24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
가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덩어리를 캐내어 부수기
만 하느냐?
25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
면 완두를 뿌리고 근채를 뿌리며 으뜸
가는 밀과 정해 놓은 보리와 호밀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겠느냐?
26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또 그를 가르치
시느니라.
27 완두는 타작 기구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채에는 수레바퀴를 굴리
지 아니하며 오직 완두는 막대기로
떨고 근채는 작대기로 떨며
28 빵을 만드는 곡식은 빻나니 이
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만 하거나 자신
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빻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빻기만 하지
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29 이것 또한 만군의 주(主)로부터
나오나니 그분은 계획하는 것에서 놀
라우시며 행하는 일에서 뛰어나시도
다.

제 29 장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

1 아리엘에게,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햇*수*에 햇*수*를 더할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2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근심
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 내가 너를 치려고 사방으로 진을
치며 너를 치려고 산을 쌓아 올려 포위
하며 너를 치려고 요새들을 쌓아 올리
리니
4 네가 낮아져서 땅 속에서 말하며
네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리
라. 네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 속에서 나며 네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리라.
5 또한 네게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
는 작은 티끌같이 되고 무서운 자들의
무리는 사라지는 겨같이 되리니 참으
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리
라.
6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우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
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7 ¶ 또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녀
의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
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밤의
환상 속의 꿈같이 되리니
8 주린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
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
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
진하며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
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불순종으로 눈이 멂

9 ¶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
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
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

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10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
으며 그분께서 대언자(代言者)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
셨느니라.
11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
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같이 되었
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
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12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13 ¶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
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14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
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
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
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
지리라, 하셨느니라.
15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16 참으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는
것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
로다.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
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
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17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
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
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지혜의 회복

18 ¶ 그 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19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
하리니
20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
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법을 엿보
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21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
무를 놓으며 무익한 일로 의인을 옆으
로 제쳐놓느니라.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
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
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23 *그가* 자기 자녀들 곧 내 손으로
그의 한가운데서 지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
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히 구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
며
24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
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
리라.

제 30 장

헛되이 이집트를 신뢰함

1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
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2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
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
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4 그의 통치자들은 소안에 있었으
며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도
다.
5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다 부끄러워
하였나니 *그 백성은* 도움도 못 되고
유익도 못 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니라.
6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부
담이라. 그들이 자기 재물을 어린 나
귀의 어깨에 싣고 자기 보물을 낙타의
혹에 얹은 채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 뱀이 나오는
땅 곧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백성에
게로 가리라.
7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
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라, 하였느니라.

반역하는 백성들

8 ¶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있게 하
라.
9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
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10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
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
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
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
라.
11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
에서 돌이키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
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
지게 하라, 하는도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
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과 사악한
것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나니
13 그러므로 이 불법이 너희에게
는 마치 막 무너지려고 터진 *담* 곧
높은 담에서 부풀어 올라 순식간에
갑자기 부서지는 *담*같이 되리라.
14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산산
조각으로 부수는 것 같이 그것을 부수
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사람이*
그 부서진 것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구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15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
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
가 원치 아니하고
16 오히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
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
이 빠르리라.
17 한 사람이 책망한즉 천 명이 도
망하고 다섯 사람이 책망한즉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
의 횃불같이 남고 작은 산의 기같이
남으리라.

은혜의 하나님

18 ¶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
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
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
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
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
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19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네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
라.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네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네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
하시리니 네 눈이 네 선생들을 보리
라.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네 뒤에서 나는
말을 네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
라, 하리로다.
22 또 너희가 은으로 만든 너의 새
긴 형상들의 덮개와 금으로 만든 너의
부어 만든 형상들의 장식물을 더럽게
하고 네가 생리대를 던지는 것 같이
그것들을 던지며 그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나가라, 하리라.
23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가 땅에
뿌릴 네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의 소출
인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 날에 네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24 또 소와 및 땅을 가는 어린 나귀
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며
25 크게 살육하는 날에 곧 망대들
이 무너질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
가 있으리로다.
26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
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 맞은 상처
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
같으리라.

아시리아의 심판

27 ¶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
분의 입술은 격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28 그분의 숨은 넘쳐흐르는 시냇
물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
함의 체로 민족들을 체질하리라.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
라.
29 너희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에 행하는 것처럼 노래할 것이며
또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가되 주의
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
에게로 갈 때처럼 마음속으로 즐거워
하리라.
30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
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자신의 분노의
격노와 또 삼키는 불의 불꽃과 흩어지
게 하는 것과 폭풍우와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31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
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32 주께서 그 *사람* 위에 두실 지팡
이 곧 땅에 세우신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서 그것과 함께 작은북과
하프가 있을 것이요, 흔드는 전투에
서 그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리
라.
33 도벳은 옛적부터 정하여졌으며
참으로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
었도다. 그분께서 그곳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것의
더미를 쌓으셨으니 주의 숨이 유황
시내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느니라.

제 31 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

1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
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
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
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하므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
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
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2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
로우시므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
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
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
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
리라.
3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
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구출

4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
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사람들이* 그것

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
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
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 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5 나는 새들같이 만군의 주가 예루
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
호하고 건지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
하리라, 하셨느니라.
6 ¶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을 떠나
심히 반역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분께
로 돌아올지니라.
7 그 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 곧 너희
손이 죄를 지으려고 너희를 위해 만든
것들을 던져 버리리라.
8 ¶ 그때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지되 강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
하며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청년들은 패주하
리라.
9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강한 요새로 물러가고 그의 통치자들
도 그 기(旗)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리
라. 시온에 자신의 불을 *두고* 예루살렘
에 자신의 용광로를 *설치한* 주가 말하
노라.

제 32 장

의의 통치

1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
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
니
2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
같이 되며 마른 곳의 물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이
되리라.
3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하며
4 또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 더듬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리라.
5 *사람들이* 다시는 비열한 자를 너
그럽다 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를
관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6 비열한 자는 악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서 불법을 이루어 위선을
행하며 오류를 말하여 주를 대적하고
주린 자의 혼을 텅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리라.
7 또 비천한 자의 수단들도 악하니
그가 악한 계략을 꾸며 궁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할 때에 거짓말로 가난한
자들을 멸하거니와
8 너그러운 자는 너그러운 일들을
꾀하나니 그는 너그러운 일들로 말미
암아 서리라.

자기 만족의 결과

9 ¶ 편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
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
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 염려 없이 지내는 여인들아, 너
희가 많은 날과 많은 해 동안 고난을
받으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11 편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
는 떨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자들
아, 너희는 고난을 받을지어다. 옷을
벗어 너희 몸을 드러내고 너희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를지어다.
12 그들은 젖꼭지로 인하여, 좋은
밭들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던 포
도나무로 인하여 애통할 것이니라.
13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의 기뻐
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 궁궐들이 버림을 받고 많은 도
시가 내버림을 받으며 요새와 망대들
은 영원토록 동굴이 되고 들나귀들이
기뻐하는 곳과 양 떼들의 초장이 되리
라.

하나님의 통치의 화평

15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
리라.
16 그때에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17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
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
로다.
18 내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
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려니와
19 우박이 내려 그 숲에 임할 때에
그 도시는 낮은 곳에서 낮아지리라.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제 33 장

큰 고통 중의 기도

1 노략하는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노략*
하며 그들이 너를 배신하지 아니하였
어도 네가 배신하는도다. 네가 노략
하기를 그칠 때에 네가 노략을 당하며
네가 배신하기를 그칠 때에 그들이
너를 배신하리라.
2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
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
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
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3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이 도망하
며 주께서 친히 일어나심으로 말미암
아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4 *사람들이* 쐐기벌레를 모으는 것
같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으며 메뚜기
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 위로 뛰어오르리라.
5 주께서는 높여지셨도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셨도다.
6 지혜와 지식이 네 시대의 확고함
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7 보라, 그들의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대사들이 몹시 슬
피 울리라.
8 큰길들이 피폐하게 되며 행인이
그치나니 그는 언약을 어기고 도시들
을 멸시하였으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9 땅이 슬퍼하고 기운을 잃는도다.
레바논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찍혀 넘
어졌으며 사론은 광야 같고 바산과 갈
멜은 자기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도다.

시온에 대한 임박한 심판

10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여지
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니
11 너희가 겨를 수태하고 짚을 낳
으리라. 너희 숨은 불같이 되어 너희
를 삼키고
12 백성은 불에 타는 석회 같이 되
며 베어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같이
되리로다.
13 ¶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
할지어다.
14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
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
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
운데 누가 영영히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15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
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
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
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
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
리라.

위대한 왕의 땅

17 네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18 네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
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19 네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
하리니 그 백성은 네가 능히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며 더듬는 언어를
쓰므로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
라.
20 우리의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보라. 네 눈이 평온
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
것은 곧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
이니라. 그곳의 말뚝 하나도 결코 뽑
히지 아니하며 그곳의 줄 하나도 결
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1 오직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
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
서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22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
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
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23 네 밧줄이 풀렸으므로 그들이
능히 자기들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돛을 펴지 못하였도다. 그때
에는 *사람들이* 큰 노략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다리 저는 자들이 그 탈취물
을 취하고
24 또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
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
받으리라.

제 34 장

민족들의 심판

1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아
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
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2 주의 격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
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
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
셨은즉
3 그들의 죽임 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
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4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
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
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
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
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5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
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아 위에 임하
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6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
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매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
도다.
7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
고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매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
라.
8 그 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9 그것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
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10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
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무궁토록
없으리라.

이두매아가 들짐승의 거처가 됨

11 ¶ 다만 가마우지와 해오라기
가 그것을 차지하며 또 올빼미와 까마
귀가 그것 안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드리우실 터인즉
12 그들이 그것의 고귀한 자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거기에 아무도 없겠
고 그녀의 모든 통치자들도 없으리
라.
13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쐐기풀과 들
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
14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
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
를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
처를 찾고
15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
를 틀고 알을 낳아 까서 자기 그늘
아래로 모으며 대머리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16 ¶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
어 보라. 이것들 중의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
라.
17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
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
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제 35 장

시온의 미래 영광

1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
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
같이 피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
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
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
을 보리로다.
3 ¶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4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5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6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
서 시내가 흐르며
7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8 또 거기에 큰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
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
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
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9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
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
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
라.
10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
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
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제 36 장

산헤립이 주를 향해 자랑함
(왕하18:13－37; 대하32:1－19)

1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십사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
니라.
2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
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
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세탁공의
밭의 큰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곁에

서니라.
3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던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 ¶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
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5 내가 말하노라. 네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에 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나 (그것들은 헛된 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
느냐?
6 보라, 네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
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
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7 그러나 너는 내게 이르기를, 우
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
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
나니
8 그러므로 원하건대 이제 내 주인
아시리아 왕에게 보증금을 내라. 만일
네가 네 편에서 말 이천 마리에 말
탈 자를 태울 수 있거든 내가 그 말들
을 네게 주리라.
9 그러할진대 네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들 중의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며 이집트를 신뢰하여 병거와
기병들을 얻고자 하느냐?
10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
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1 ¶ 그때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
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
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
서, 하니라.
12 ¶ 그러나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인께서 네 주인과 네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
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
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13 그때에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
의 말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너희
는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
을 들으라.
14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
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져 내지 못하리
라.
15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
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16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
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
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각각 자기
물 저장고의 물을 마시라.
17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
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
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
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라.
18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
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
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
의 신들 중의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
냐?
19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
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
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
져 내었느냐?
20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
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하시느니라.
21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고 한 마
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
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22 ¶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자
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제 37 장

이사야가 구출을 약속함
(왕하19:1-7)

1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
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2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아김과 서
기관 셉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
에게 굵은 베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고
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
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
니 그러므로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
나이다, 하니라.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이 이사야에게 나아왔더라.
6 ¶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
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네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
워하지 말라.
7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
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
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왕하19:8-19)

8 ¶ 이에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것을 들었으므
로 돌아가다가 립나를 치려고 전쟁
중에 있던 왕을 만나니라.
9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
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는
데, 그가 너와 전쟁을 하려고 나왔다,
하므로 그가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
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신뢰하
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
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11 보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땅을 진멸함으로써 그 땅들에게 행한
바를 네가 들었나니 네가 구출을 받겠
느냐?
12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곧 고
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던 에
덴 자손을 그들의 신들이 구출하였느
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바*의 왕들이* 어
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14 ¶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 놓고
15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16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
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
셨나이다.
17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산
헤립의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사람*
을 보내었나이다.
18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

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피폐하게 하고
19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
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
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
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20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
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
라.

산헤립에 대한 주의 말씀
(왕하19:20－34)

21 ¶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
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22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
하니라. 처녀 곧 시온의 딸이 너를 멸
시하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
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
었느니라.
23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
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해 네 목소리
를 높이고 네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
도다.
24 네가 네 신하들을 통해 주를 모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힘입어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그곳의 키 큰 백향목과
그곳의 최상품 전나무를 베고 그의
경계가 있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그의
갈멜 숲에 이르리라.
25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에워싼 곳의 모든 강을 내 발바닥으로
말렸노라, 하였도다.
26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네가
오래 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
였느냐? 이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
게 하였나니 곧 네가 방벽을 세운 도시
들을 피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한 일이니라.
27 그러므로 그 도시들의 거주민
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당황하였나
니 그들은 마치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린 곡초 같았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너의 거처와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아노니
29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이르렀느
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네 입술에 씌워
네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30 또 이것이 네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셋째 해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의 열매
를 먹으리라.
31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를 맺으리니
32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리
라.
33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
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34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
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
가 말하노라.
35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
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산헤립의 패배와 죽음
(왕하19:35－37)

36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
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
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37 ¶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
는데
38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
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
니아 땅으로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 38 장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됨
(왕하20:1-11; 대하32:24-26)

1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2 그때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3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
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4 ¶ 그때에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
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날들
에 십오 년을 더하여 주며
6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내고 이 도시를 보호
하리라.
7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이
니 이것이 주로부터 네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8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십
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십 도 만큼 되돌아가니라.
9 ¶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
한 글이라.
10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
니 내가 내 햇수의 남은 날들을 빼앗겼
노라, 하였도다.
11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산 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
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2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
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베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
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
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13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
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14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저귀
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렸사오니 나를 위하여 처리
하소서.
1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햇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16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
사 살게 하옵소서.
17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
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 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18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
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
지 못하되
19 살아 있는 자 곧 살아 있는 자는

이 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
에게 알리리이다.
20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사
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21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
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
라, 하였으며
22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
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제 39 장

바빌론의 사신들
(왕하20:12－19)

1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
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매
2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
거워하여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더
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 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
라.
3 ¶ 그때에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
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거늘
4 이에 그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
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매
5 그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
서.
6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
들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
지 아니하리라.
7 또 그들이 네게서 나올 네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8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
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
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
니라.

제 40 장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위로

1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
라.
2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
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
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
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
라, 할지니라.
3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
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길을 곧게 만들라.
4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5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6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
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7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
라.
9 ¶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
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
여, 힘써 네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
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
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
라.
10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
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11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
떼를 먹이시고 어린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
시리로다.
12 ¶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
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13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14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
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민족들은 물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
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16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
며 그것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 헌물
로 쓰기에도 부족하니라.
17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
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
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
로 여기시느니라.
18 ¶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
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19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
고 은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20 너무 가난해서 봉헌물을 드리
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곧 자기를 위하여 솜씨 좋은
기술자를 구해 새긴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
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
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
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
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
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
같이 펴시고
23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
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24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
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바람이 지푸라기를 제
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
니라.
26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
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
효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 내시
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
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
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
니라.
27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
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

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
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28 ¶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
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
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29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
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30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
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31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
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
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
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41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

1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
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2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
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
이 그의 칼에, 쫓겨 가는 지푸라기같
이 그의 활에 넘겨주시매
3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
어 자기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나니
4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
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
라.
5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들도 무서워하고 가까이 나오며
또 와서
6 저마다 자기 이웃을 돕고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크게 용기
를 내라, 하였도다.
7 이에 목수는 금세공업자의 용기
를 북돋았고 쇠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를 친 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이르
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
하였나니 그가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
도다.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의 씨야,
9 내가 땅 끝들에서부터 너를 데려
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
러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10 ¶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
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
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11 보라, 네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12 너와 다투던 자들을 네가 찾아
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같이 되리니
13 나 주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14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를 도우리라. 주 곧 네 구속자, 이스라
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
로운 새 타작 기구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16 네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
이 그것들을 가져가고 회오리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자랑하리라.
17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
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8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
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
는 샘이 되게 하리라.
19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타
나무와 은매화와 기름나무를 심고 사
막에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나무
를 함께 두리니
20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
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
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
하고 함께 깨달으리라.

헛된 우상들

21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
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22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
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
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
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
게 밝히 보이라.
23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 줌
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
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
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24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25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
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
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
라.
26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
가 알게 하였느냐? 또 이전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그분은 의로우시도다,
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보여 주는 자
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 주는 자도
없으며 참으로 너희 말들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
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
에 주리라.
28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한 마디라
도 대답할 조언자가 하나도 없었도
다.
29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
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
라.

제 42 장

주의 종

1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
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
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
라.
4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
라.
5 ¶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
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6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 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
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
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
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
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
라.

주 하나님 찬양

10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
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11 광야와 거기의 도시들과 게달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바위에 사는 거주민들도
노래하며 산들의 꼭대기에서 크게 외
칠지어다.
12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
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히 드러
낼지어다.
13 주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시
고 참으로 크게 부르짖으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주의 도움의 약속

14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
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단번에 파괴하
고 삼키리라.
15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피폐
하게 하고 그것들의 모든 채소를 마르
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
을 마르게 하리라.
16 또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
지 못하던 길로 데려가고 그들이 알
지 못하던 행로들로 그들을 인도하며
또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
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리라. 내
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그
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7 ¶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
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
들은 우리의 신이니이다, 하는 자들
은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
리라.
18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을지어
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
어다.
19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
가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20 네가 많은 것을 보되 주시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21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
우 기뻐하시므로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22 그러나 이 백성은 도둑을 맞고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다 굴속에
서 올무에 걸리고 감옥 집에 숨겨졌도
다. 그들이 탈취물이 되어도 아무도
구출하지 않으며 노략물이 되어도 아
무도, 되돌려 주라, 하지 아니하는도
다.
23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겠느냐?
24 누가 야곱을 노략물로 내주고
이스라엘을 강도들에게 내주었느냐?
주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
었도다. 그들이 그분의 길들로 걸으
려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
지 아니하였도다.
25 그러므로 그분께서 맹렬한 분
노와 강력한 전쟁을 그 위에 쏟아 부으
시매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하였으
며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제 43 장

이스라엘의 구속자

1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
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
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
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
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
리니
3 나는 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
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
라.
4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하므로 존
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
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
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
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
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
으리라.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
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7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
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8 ¶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
내라.
9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
들은 집결할지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의
롭게 되든지 혹은 듣고 말하기를, 그
것은 진리라, 할지니라.
10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
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
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
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
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
여 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 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니라. 주가 말하노라.
13 참으로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 낼 자가 없도
다. 내가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14 ¶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
내렸느니라.
15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1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
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17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
끌어 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
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18 ¶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
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
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20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

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
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
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
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변론

22 ¶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싫증을 냈느니라.
23 네가 네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
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의 희생
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
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향하는 것으
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
내 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네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
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
금 네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네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25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
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
냄으로 의롭게 되라.
27 네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네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
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주어 저주
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
을 받게 하였노라.

제 44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줌

1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
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
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3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
주며 마른 땅에 큰물들을 부어 주고
내 영을 네 씨에게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수로 옆의 버드나무같이 솟
아나리라.
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
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주께 서명하고 이스라엘
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리라.

다른 신이 없음

6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
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
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
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
게 보일지니라.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하
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
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
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일임

9 ¶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
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
움을 당하리라.
10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11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
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
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
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

하리로다.
12 대장장이는 부집게로 숯 가운
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
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
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
를 잃는도다.
13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
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
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
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14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
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
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푸레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15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
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
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
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
는도다.
16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
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
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
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18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9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
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
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
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에 엎드리
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20 그는 재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 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
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음

21 ¶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
하리라.
22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
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23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
어다. 주가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
지어다. 오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너희는 소리 내어 노
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
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
느니라.

유다의 회복

24 네 구속자요,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
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25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
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26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
에게는 이르기를, 네 안에 사람이 거
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
리라, 하고

27 깊음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
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제 45 장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1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놋 문들을 쳐서 산산
조각 내며 쇠 빗장을 꺾고
3 네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의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네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으로 너
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
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5 ¶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
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띠어 주었으니
6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
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8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
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
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
오며 의는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
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
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
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10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
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
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1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를 만드
신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
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
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
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
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유일한 구원자 주

14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
의 수고한 것과 에티오피아의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장사한
것이 네게로 넘어와 네 것이 될 것이
요, 그들이 네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네게 엎드리며
네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
님께서 네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5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16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
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17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
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18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
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
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
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
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
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20 ¶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
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
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
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21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
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
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
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
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
른 이가 없느니라.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
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
러움을 당하되
25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主) 안
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
로다.

제 46 장

죽은 우상과 살아 계신 하나님

1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
과 가축 위에 실렸으며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었은즉 그것들이 피곤
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
를 숙이므로 그 짐을 건져 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갔느니
라.
3 ¶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
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4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
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
내리라.
5 ¶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
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
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
느냐?
6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
이 쏟아 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
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
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
다.
7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
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
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8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 일을 기
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그
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9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
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
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
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
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
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
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12 ¶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
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3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
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
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제 47 장

바빌론의 수치

1 오 바빌론의 처녀 딸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딸아, 왕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불
리지 아니하리라.
2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네
머리 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3 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
로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4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
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5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딸아, 너는
잠잠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불
리지 아니하리라.
6 ¶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워 주었도
다.
7 ¶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
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
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것
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
다.
8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
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
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9 한 날에 한 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하리로다. 너의 수많은 마법과 심
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네게 완전히 임하리라.
10 ¶ 네가 네 사악함을 신뢰하였
나니 네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
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굽게 하였으므로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도다.
11 ¶ 그러므로 재앙이 너를 덮치
되 네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해악이 네게 닥치되
네가 능히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리
라. 황폐함이 네게 갑자기 임하되 네
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로다.
12 이제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네 마술과 수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
보라. 혹시라도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그리하고 혹시라도 네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하라.*
13 네가 너의 수많은 계획으로 인
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네
게 임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4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같이 되
어 불에 탈 것이요, 그 불꽃의 위력에
서 자신을 건져 내지 못하리라. 옆에

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숯도 남지 아니하
고 앞에 앉을 만한 불도 남지 아니하리
라.
15 너와 함께 애쓰던 자들 곧 젊어
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네게 이와 같이 되리라. 그들이 저마
다 자기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리니 아
무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제 48 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이 단련됨

1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
며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
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
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2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거룩한 도
시 출신이라 하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거니와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3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
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
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매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네 목은
쇠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5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네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네가 말하기
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
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6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
니하겠느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
들 곧 숨겨진 일들을 네게 보였나니
네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7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처음
부터 있지 아니하였나니 곧 네가 그것
들에 대하여 들은 날 전에는 *있지 아니
하였노라.*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보
라,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 참으로 네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
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참으로 네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나
니 네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
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느니
라.
9 ¶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
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11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
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
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오래 된 이스라엘 구원 계획

12 ¶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
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
니라.
13 내 손이 또한 땅의 기초를 놓았
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
서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들을 밝히 알렸느
냐? 주가 그를 사랑하였은즉 그가 자
기의 기뻐하는 바를 바빌론에게 행할
것이요,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15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
가 그를 부르며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16 ¶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
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
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17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

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네가 마땅
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18 네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
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
라면 네 화평이 강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19 또 네 씨가 모래 같고 네 배 속에
서 나오는 후손이 그것의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절되지 아니하였으리라.
20 ¶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 갈
대아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노래 소리
로 밝히 알려 이 일을 말해 주며 땅
끝에까지 그것을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 그분께서 사막 사이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
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
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반석을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
니라.
22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
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제 49 장

이방인들의 빛인 주의 종

1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서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
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
고 내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내 이름
을 언급하셨도다.
2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
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아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 통에 숨기시고
3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네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
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
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
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5 ¶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
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
려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
여 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하시는도다.
6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나
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라.
7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그의 거룩
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
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
라.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8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
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
을 상속받게 하리니
9 이것은 네가 갇힌 자들에게 이르
기를,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보이
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길에서
먹으며 그들의 초장이 모든 높은 곳에
있으리라.
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
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

고 나의 큰길들을 돋우리니
12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13 ¶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 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 받
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억할 것임

14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
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16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서두르며 너를 파
괴하던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만든
자들은 네게서 떠나가리라
18 ¶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네게로 오느니
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장식을 걸치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네 몸에 걸치며
신부가 두르듯 그들을 네 몸에 두르리
로다.
19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곳들과
파멸 당하였던 네 땅이 이제는 거주민
들로 인하여 너무 좁게 되며 너를 삼켰
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20 다른 *자녀들을* 잃은 뒤에 네가
갖게 될 자녀들이 네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거처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
서, 하리라.
21 그때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
기를, 나는 내 자녀들을 잃고 황폐하
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거늘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
가? 보라, 나는 홀로 남게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리라.
22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
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팔로 안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
라.
23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
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으
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
하지 아니하리라.
24 ¶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
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끌려간 포로
를 건져 낼 수 있겠느냐?
25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빼앗아 오고
무서운 자들의 탈취물도 건져 내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네 자녀
들을 구원하리라.
26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
하신 이인 줄 알리라.

제 50 장

이스라엘의 소망인 주의 종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
린 네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
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
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
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2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
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

느냐? 내게 건져 낼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느니라.
3 내가 캄캄함으로 하늘들을 입히
며 굵은 베로 그것들의 덮개를 삼느니
라.
4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5 ¶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
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
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7 ¶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
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
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
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해어질 것이요, 좀
이 그들을 먹으리라.
10 ¶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
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
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
님을 의지할지니라.
11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
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
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제 51 장

주께서 시온을 위로함

1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
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
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
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
라.
3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
든 피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
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
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
움과 감사와 노래 가락 소리가 있으리
라.
4 ¶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
이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
라.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
로 머물게 하리라.
5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
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6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
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어
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7 ¶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
을 무서워하지 말라.
8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
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
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9 ¶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

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 세
대들에서와 같이 깨소서. 라합을 베
시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신 이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10 바다 곧 큰 깊음의 물들을 마르
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곳들을 길로
만드사 속량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신
이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11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
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
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
리이다.
12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
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13 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
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잊어버
리느냐? 또 그 학대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네가 그의
격노로 인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
워하느냐? 그 학대하는 자의 격노가
어디에 있느냐?
14 잡혀서 끌려간 포로가 속히 행
하여 풀려나리니 그가 구덩이에서 죽
지 아니하며 그의 빵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 오직 나는 파도가 울부짖던 바
다를 갈랐던 주 네 하나님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16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 속에 너를 가렸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
17 ¶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
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
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사
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18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
데서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 줄 자가 없도다.
19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하였으
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곧 황폐
함과 파멸과 기근과 칼이니 내가 누구
를 통해 너를 위로하랴?
20 네 아들들이 힘을 잃고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거리의 머리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주의 격노와 네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도다.
21 ¶ 그러므로 고난 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취한 자
여,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으라.
22 네 주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는 주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
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 내 격노의 잔의 찌꺼기를 네
손에서 거두어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23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전에 네 혼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
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간
그들을 위하여 네가 네 몸을 땅바닥처
럼 길거리처럼 눕혔느니라.

제 52 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함

1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
다. 네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
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
지 못하리니
2 네게서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
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
여, 네 목의 띠를 스스로 풀지어다.
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돈을 내지 아니하고 구속을
받으리라.
4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 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5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
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
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7 ¶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가!
8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 볼 것이
기 때문이라.
9 ¶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
희는 소리 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
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
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10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
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11 ¶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
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
는 정결할지어다.
12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
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
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13 ¶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14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
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
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15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
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
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제 53 장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
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
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
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
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
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5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
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
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
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
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
다.
7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
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
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8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
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
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9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
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10 ¶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
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
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
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
다.
11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12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
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
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
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
보하였느니라.

제 54 장

영원한 화평의 언약

1 오 수태하지 못한 자 곧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아
이를 배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으니
라. 주가 말하노라.
2 네 장막 터를 넓히며 그들이 네
처소의 휘장들을 널리 펼치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강하게 하라.
3 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 나
가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
이 되게 하리라.
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
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
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
리라.
5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6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7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
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네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네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네
구속자가 말하노라.
9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들과 같
으니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
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10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네게 긍휼을 베푸는 주
가 말하노라.
11 ¶ 오 고난당하며 폭풍에 밀려
다녀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너는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깔로 네 돌들
을 쌓으며 사파이어로 네 기초를 놓고
12 마노로 네 창문을 만들며 홍옥
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모든 경계를
아름다운 돌들로 꾸미리라.
13 또 네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
르침을 받으리니 네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14 너는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터인즉 학대
가 네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요,
두려움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인
즉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15 보라,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
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하
리니 누구든지 함께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16 보라, 불 속의 숯에 바람을 불어
자기 일에 쓸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도 내가 창조하였고 멸하는 일을 하는
파괴자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17 ¶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
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
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니라. 주가 말하노라.

제 55 장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
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
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
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
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
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
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
어다.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
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
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
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
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
을 네가 부를 것이요, 주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6 ¶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
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7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
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8 ¶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9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
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
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10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
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11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
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
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12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
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
이 너희 앞에서 소리 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13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
이 되리라.

제 56 장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2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
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
다*.
3 ¶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
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
리하셨다, 하지 말며 고자(鼓子)도 말
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
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
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5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6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
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7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
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
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
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
을 그에게 모으리라.

이스라엘의 무책임한 지도자들

9 ¶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
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10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
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
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
하니
11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
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
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
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
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 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제 57 장

이스라엘의 헛된 우상숭배

1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
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
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2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
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
은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리로다.
3 ¶ 그러나 여자 마법사의 아들들
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씨야, 너희
는 여기로 가까이 나아오라.
4 너희가 누구를 향해 너희 자신을
과시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향해 입
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
는 범법의 자식이요, 거짓의 씨가 아
니냐?
5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자신을 불태우
며 바위 낭떠러지 밑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죽이는도다.
6 시내의 매끄러운 돌들 가운데 네
몫이 있나니 그것들 곧 그것들이 네
몫이니라. 네가 그것들에게 음료 헌
물을 붓고 음식 헌물을 바쳤거니와
내가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겠느냐?
7 네가 높이 치솟은 산 위에 네 침상
을 마련하고 거기로 올라가 희생물을
드리며
8 또 문들과 기둥들 뒤에 네 기념물
을 세웠나니 네가 나 아닌 다른 *신*에게
네 몸을 드러내고 올라갔으며 또 네가
네 침상을 넓히고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네가 그들의 침상을

본 곳에서 그것을 사랑하였느니라.
9 또 네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갔고 네 향기를 더 많이 냈으며 또
네가 네 사자들을 멀리 보내고 네 자신
을 지옥에 이르도록 비천하게 만들었
느니라.
10 네 길이 멀어서 피곤하였으나
네가, 소망이 없다, 하지 아니하였으
니 네 손의 생명을 찾았으므로 네가
근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 네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
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옛적부터 잠잠
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
니하는 것이 아니냐?
12 내가 네 의와 네 행위를 밝히
알리리니 그것들이 네게 유익을 끼치
지 못하리라.
13 ¶ 네가 부르짖는 때에 네 동료
들이 너를 건져 내게 하라. 그럴지라
도 바람이 그들을 다 멀리 데려가고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가리로다. 그
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
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하며
14 또 말하기를, 너희는 *흙을* 돋우
고 돋우어 길을 예비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걸림돌을 치우라, 하리라.
15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
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
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17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
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도다.
18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
를 고쳐 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
를 회복시켜 주리라.
19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
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 주리라.
20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
지 못할 때에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물
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
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
라.

제 58 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1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네 목
소리를 나팔소리 같이 높여서 내 백성
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 주라.
2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
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도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
는도다.
3 ¶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
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
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
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
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
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
를 강요하는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5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
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
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
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
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7 또 그것은 주린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네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8 ¶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네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
며 네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
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9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
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
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
가 네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
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10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
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
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11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
뭄 속에서도 네 혼을 만족시키며 네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
샘 같으리라.
12 또 네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
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
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 라 하
리라.
13 ¶ 네가 만일 네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네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
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
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
를 공경하며 네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
하며 네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
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
서 타고 다니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제 59 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의 원인

1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
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
라.
2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
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
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
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4 정의를 위해 외치는 자도 없고
진리를 위해 변호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5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
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
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
라.
6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
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
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7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
며
8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
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죄의 고백

9 ¶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
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기다리
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10 우리가 눈먼 자들같이 담을 더
듬고 눈이 없는 자같이 더듬으며 우리
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
지고 죽은 자들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
다.
11 우리가 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
둘기같이 몹시 애곡하나니 우리가 판
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
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도다.
12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
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13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
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
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매
14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
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15 참으로 진리가 없어지므로 악
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도
다.

시온의 구속자

16 ¶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
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
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
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17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
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
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
다.
18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
대로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격노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
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
복으로 갚으시리라.
19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
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
다.
20 ¶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
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21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네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과 네 씨의 입과 네 씨의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60 장

이방인들이 시온을 축복함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
께서 일어나사 네 위에 임하시고 그분
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네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
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
이 다 함께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네 딸들은
네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5 그때에 네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네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네게
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네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6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봉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7 게달의 모든 양 떼가 네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욧의 숫양들이 너를 섬기
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
롭게 하리라.
8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
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
는 이자들은 누구냐?
9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
저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네 아들
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네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
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10 *그때에*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 호의로 네게 긍휼을 베풀었
기 때문이니라.
11 그러므로 네 성문들이 항상 열
려 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네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게 하려 함이라.
12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
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
나무와 회양나무가 함께 네게 이르러
내 성소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리니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
라.
14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
들도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네 발바닥 앞에 엎드
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
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
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
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
이 되게 하리니
16 네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17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고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며 돌 대신 쇠를 가져오고 또
네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며
네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18 다시는 폭력이 네 땅에서 들리
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광체가 되
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체가 되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체가 되며 너의 애곡
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21 또한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
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22 어린 자 하나가 천 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
라.

제 61 장

구원의 기쁜 소식

1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
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
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2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
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3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
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
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
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
리라.
4 ¶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의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5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쟁기 가는 자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6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
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7 ¶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두 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
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
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두 배를 소유하
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
라.
8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
는 언약을 맺으리라.
9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
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
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10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
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
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
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
이라.
11 땅이 자기의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
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
라.

제 62 장

시온의 구원 확증

1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
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
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
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
리니
2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3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4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
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
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5 ¶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
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
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
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
잠하지 말며
7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
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8 주께서 자신의 오른손과 자신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참으로 내
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

여 얻은 포도즙을 타국인의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9 오직 그것을 거두어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함
께 그것을 거두어들인 자들이 내 거룩
한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
니라.
10 ¶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
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
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군기
를 세우라.
11 보라, 주께서 세상 끝에까지 선
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
기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
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12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제 63 장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시는 주

1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
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
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
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
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2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
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
이까?
3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
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
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
을 더럽히리라.
4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5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
며 또 떠받쳐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격노
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6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
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
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
내리리라.

주의 긍휼을 기억함

7 ¶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
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그
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
8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
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
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
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
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10 ¶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
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
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11 그때에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 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
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12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13 그들을 깊음 사이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셨
느니라.
14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
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

하심은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이니이다.

회개의 기도

15 ¶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
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부터 바라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
나이까?
16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
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
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17 ¶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
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
나이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상속 유업
인 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
서.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단지 잠시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
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19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
서는 결코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였
사오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제 64 장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1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
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
내리기를
2 녹이는 불이 타오를 때에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사 주의 대적
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
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
던 무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강림하시
매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나이
다.
4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
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
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
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
다.
5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
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
나 주의 길들이 지속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
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
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
이니이다.
8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
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
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
다.
9 ¶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
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
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이니이다.
10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
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11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곧
우리 조상들이 *저하며* 주를 찬양하던
집이 불탔사오며 우리가 기뻐하던 모
든 것들이 피폐하게 되었나이다.
12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
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
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제 65 장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

1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
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
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2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
였나니
3 곧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벽
돌 제단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라.
4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
념비가 있는 데 거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
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
이로다.
6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
은즉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보응하
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며
7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
법들을 함께 보응하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헤아려 그들의
품속에 넣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8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
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
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
리라.
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
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
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10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11 ¶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리는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잊고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그 수대
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
라.
12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즉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
이니라.
13 이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되
너희는 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되 너희는 목마르리라. 보라, 나
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
을 당하리라.
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뻐
서 노래하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
으리라.
15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내가 택
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기리니 이
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16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
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
전의 고난들이 잊혔고 내 눈에 숨겨졌
기 때문이라.

영화로운 새 창조

17 ¶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
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18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
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
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20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
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 세
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21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
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
매를 먹으리라.
22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
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
리라.
23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
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
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 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
도 *그와 같으리라*.
24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25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
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
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66 장

참 예배와 거짓 예배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2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
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
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3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
는 자 같고 어린양으로 희생물을 드리
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
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
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
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
을 기뻐하느니라.
4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
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
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
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
라.

주께서 시온을 변호함

5 ¶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
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
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
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
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
라.
6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7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
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
이를 낳았으니
8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
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
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
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
들을 낳았도다.
9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
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네 하나
님이 말하노라.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
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
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
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11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
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
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에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
에서 춤을 추리라.

하나님의 통치와 격노

13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너희 마
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또 주의 손이 자신
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그의 격노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15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바
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격노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
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16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
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17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
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
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
각을 아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
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19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
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
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
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20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
하여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21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
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22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
하노라.
23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
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요,
24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
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
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
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대언자 예레미야의 책

예 레 미 야 서

기록자: 예레미야, 기록 시기: 주전 590년경, 성격: 역사, 대언, 자서전
기간: 약 41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를 뜻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대언자들 가운데 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주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에 의로운 가지를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통해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배경: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종교 타락과 개혁으로 이어졌다.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마지막 개혁은 율법서의 발견이 그 동기가 되었다. 그 후의 유다 역사는 계속되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역사이며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600년경에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된 뒤 붕괴되었고 바빌론이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파가 다투었다. 이집트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재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바빌론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민족이 생존하는 대가로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 이후 5년째인 요시야의 통치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 바빌론 포로 초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
내용: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질문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예레미야서에는 욥기보다 더 많은 질문이 들어 있다. 또한 이 책은 30-33장이 보여 주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천년왕국 회복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애통의 책이요 핍박과 학대의 책이다. 이 책에는 "주로부터 임한 말씀이다."라는 대언자의 외침과 함께 151개의 대언의 말씀이 들어 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169회나 바빌론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바빌론이 언급되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예레미야서는 52장, 1,364절, 42,65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호소)
핵심 절: "그런즉 네가 주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2:19) 핵심 단어: 배신, 돌아오라, 핵심 구: "가서 외치라"(2:2)
예레미야서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23:5), 그들의 왕 다윗(30:9)
영적 교훈: "사람이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제 1 장

대언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음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의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2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십삼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3 그것이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
갈 때까지 임하니라.
4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배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
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
기에
6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
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7 ¶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
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
지 너는 말할지니라.
8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
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9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
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
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이 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
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
11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
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12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니라.
13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
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의 표면이 북쪽
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14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하리라.
15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
귀에 자기 왕좌를 정하고 그곳의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
라.
16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에게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17 ¶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
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혹스럽게 할까 염려하
노라.
18 보라, 내가 이 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
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놋 성벽
이 되게 하였노라.
19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
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 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2 장

주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함

1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
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 너를 기억하며 네 젊은 시절의 친절
과 네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3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
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
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4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

을지어다.
5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
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6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
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
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
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
도다.
7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
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
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8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
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
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9 ¶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
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10 깃딤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부지런히 살펴
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11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
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
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12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
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
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
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14 ¶ 이스라엘이 종이냐? 그가 집
에서 태어난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노략을 당하였느냐?
15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울
부짖고 크게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피폐하게 하매 그의 도시들이 불타서
거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16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네 정
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17 주 네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
할 때에 네가 그를 버림으로 너를 위해
이것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18 이제 무슨 까닭으로 네가 이집
트의 길로 가서 시홀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네가
아시리아의 길로 가서 그 강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19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
잡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네가 주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
라.
20 ¶ 옛적에 내가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매 네가 이르기를, 내
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네
가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 짓을 행하는
도다.
21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
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
된 초목이 되었느냐?
22 네가 천연소다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
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3 어찌 네가 이르기를, 나는 더럽
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바알들을 따르
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 골짜
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고 네가 행한
바를 알라. 너는 자기 길들을 달리는
빠른 암낙타요,
24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 곧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맡으며 킁킁
대는 암나귀니라. 그것이 *이렇게 행*

할 때에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달에 그들이 그것을 만나리라.

25 네 발을 억제하여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네 목을 억제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라, *하였거늘*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전혀 없도다. 내가 타국인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26 도둑이 들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대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27 *그들이* 나무줄기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하였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며 자기들의 얼굴은 내게로 돌리지 아니하였으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그러나 네가 너를 위하여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나게 할지니라. 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도시들의 수만큼이나 되는도다.

29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30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들을 쳤나니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의 대언자들을 삼켰느니라.

31 ¶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에 주의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어둠의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主)니 다시는 우리가 주께 가지 아니하리이다, 하느냐?

32 처녀가 자기 패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잊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33 네가 어찌하여 사랑을 얻으려고 네 길을 다듬느냐? 그러므로 네가 또한 사악한 자들에게 네 길들을 가르쳤으며

34 또 네 옷자락에서는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혼이 흘린 피가 발견되었나니 내가 은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서 *발견하였느니라*.

35 그럼에도 너는 말하기를, 내가 무죄하므로 그분의 분노가 분명히 내게서 떠나리라, 하거니와, 보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와 변론하리라.

36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꿀 정도로 들떠서 나다니느냐? 네가 아시리아로 인해 부끄러워한 것 같이 이집트로 인해서도 부끄러워하리라.

37 참으로 네가 두 손을 네 머리에 올린 채 그를 떠나 나아가리니 네가 신뢰하는 것들을 주가 거부하였으므로 네가 그들로 인하여 형통하지 못하리라.

제 3 장

이스라엘은 수치를 모름

1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므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2 네 눈을 들어 높은 곳들을 향하게 하고 네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보라. 네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같이 길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나니 네가 네 행음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3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네가 창녀의 이
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
부하였도다.
4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의 인도자시니이다, 하지 아니하겠느
냐?
5 또,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
원히 간직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끝
까지 분노를 품으시겠느냐? 하리라.
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악한 것들
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회개 촉구

6 ¶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
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로 가서 거기서 창녀 짓을 행하였도
다.
7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
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
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
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
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9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
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늘
10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
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
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1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
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
를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
12 ¶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
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
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
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13 오직 네 불법 곧 네가 주 네 하나
님에게 범법하고 네 길들을 뿔뿔이
흩어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타국인
들에게로 가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라. 주
가 말하노라.
14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
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
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
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16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
서 번성하여 불어날 때에 곧 그 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 궤라,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들이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다시
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17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
의 왕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
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
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18 그 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
엘의 집과 함께 걷고 그들이 북쪽의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
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
떻게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며 허다한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이 기쁨의
땅을 네게 주리요? 하였고 또 말하기
를, 너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20 ¶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
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21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
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
문이로다.
22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
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
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23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
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24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
은 것 즉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그들
의 아들딸들을 삼켰나이다.
25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
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
기 때문이니이다.

제 4 장

예레미야가 유다로 인해 슬퍼함

1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내 눈앞에서 네 가증한 것들
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2 또 네가 진리와 판단의 공의와
의 안에서 맹세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니 민족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를 자랑하
리라.
3 ¶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에 씨를
뿌리지 말라.
4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
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
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하므로 내 격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
지 못하리라.

임박한 침공

5 너희는 유다에서 밝히 알리며 예
루살렘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
는 그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고 또
소리 내어 외치며 함께 모여 이르기
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로 들어가자, 하고
6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뒤로 물러나며 머물지 말라. 내가 북
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
라.
7 사자가 자기 수풀에서 올라왔으
며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네 땅을 황폐
하게 하려고 자기 거처를 떠났은즉
네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리니
8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굵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며 울부짖으라. 주의 맹
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
니하였느니라.
9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왕의 마
음과 통치자들의 마음이 소멸되고 제
사장들은 놀라며 대언자들은 기이히
여기리라, 하라.
10 이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
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
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
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게 이
르나이다.
11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말이 있어* 이르기를, 광야의 높
은 곳들에서 건조한 바람이 나와 내
백성의 딸에게 다가온다, 하리니 이
것은 키질을 하려 함도 아니요, 깨끗
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12 심지어 세찬 바람이 그곳들로
부터 내게로 임하리니 이제 또한 내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리라.
13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며
그의 병거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니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가 노략을 당하였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리라.
14 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 헛된 생각이 어
느 때까지 네 속에 머물겠느냐?
15 한 음성이 단에서 나와 밝히 알
리며 에브라임 산에서 나오는 고통을
널리 알리느니라.
16 너희는 민족들에게 말하라. 보
라,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기를, 순찰
자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의 도시
들을 치려고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 그녀가 나를 거역하였으므로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사방에서
그녀를 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8 네 길과 네 행위들이 이 일들을
초래하여 네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네 사악함이니 그것은 쓰고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멸망 받을 민족에 대한 슬픔

19 ¶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내 혼아,
네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보를 들었
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20 그 온 땅이 노략을 당하였으므
로 *사람들이* 패망 위에 패망을 외치는
도다. 나의 장막들이 갑자기 노략을
당하고 나의 휘장들이 순식간에 노략
을 당하였도다.
21 내가 어느 때까지 그 군기를 보
며 나팔 소리를 들을까?
22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
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23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
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24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
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
였고
25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
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26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
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27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28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
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
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29 말 탄 자들과 활 쏘는 자들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도망하
여 그들이 수풀로 들어가고 바위들
위로 기어오르며 모든 도시가 버림을
받아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
라.
30 네가 노략을 당할 때에 어찌 하
려느냐? 네가 진홍색 옷을 입고 금장
식으로 단장하며 화장으로 네 얼굴을
꾸밀지라도 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
것이 헛된 일이 되리라. 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네 생명을 찾으리라.
31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아이
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곧 시온의
딸의 소리 같았도다. 그녀가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손을 펼치고 이르기
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살인자들
로 인하여 내 혼이 지쳤도다, 하는도
다.

제 5 장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
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
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2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
아 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3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
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
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
다.
4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
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
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5 내가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
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주의 길과 자기
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도다, 하였
으나 이들도 다 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
들을 끊어 버렸느니라.
6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저녁때의 이리가 그들
을 노략하며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볼 터인즉 거기서 나오는 자마다
갈기갈기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
이 많으며 그들의 타락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7 ¶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나를 버
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
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매 그때
에 그들이 간음하고 떼를 지어 창녀들
의 집에 모였도다.
8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
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9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
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10 ¶ 너희는 그 *도시의* 성벽에 올
라가서 무너뜨리되 완전히 끝을 내지
는 말고 그곳의 낮은 벽들만 제거하
라. 그것들은 주의 것이 아니니라.
11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
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
니라.
12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그분은 계시지 아
니한즉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
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
하고
13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라. 말
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와
같이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
라, 하였도다.
14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
였은즉, 보라, 내가 네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
가 되게 하리니 그것이 그들을 삼키리
라.
15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한 민족을 먼 곳에서
데려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것
은 강한 민족이요, 오래된 민족이라.
네가 그 민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니
라.
16 그들의 화살 통은 열린 돌무덤
같고 그들은 다 용사들이니
17 그들이 네 아들딸들이 먹을 네
수확물과 빵을 먹고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
무를 먹고 네가 신뢰한,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칼로 쳐서 불모지로 만들리
라.
18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없애
지는 아니하리라.
19 ¶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에게 행하시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
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
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너희가 그와 같이 너희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
라.
20 야곱의 집에서 이것을 밝히 알
리고 유다에서 그것을 널리 알려 이르

기를,
21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
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22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
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
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
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
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소리를 질러
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
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
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
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25 ¶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26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27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그
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
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28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참으
로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
를 능가하나니 그들은 사정 곧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
지 아니할지라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
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
하는도다.
29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
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30 ¶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31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
려느냐?

제 6 장

북쪽에서 임하는 멸망

1 오 베냐민 자손들아, 너희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와 도피
하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며 벧학게
렘에서 불로 표적을 세우라.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나타나느니라.
2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우아
한 여인같이 여겼으되
3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 떼를 몰고
그녀에게로 와서 사방에서 그녀를 치
려고 자기들의 장막들을 치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떼를* 먹이리로
다.
4 너희는 전쟁을 예비하고 그녀를
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
가자. 날이 저물고 저녁 그림자가 넓
게 퍼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
다!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가서 그
녀의 궁궐들을 파괴하자.
6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였노
라. 너희는 나무들을 베어 예루살렘을
향해 산을 쌓아 올리라. 이것은 징벌
받을 도시니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
는 온통 학대로다.
7 샘이 자기의 물을 뿜어냄같이 그
도시도 자기의 사악함을 뿜어내나니
폭력과 노략이 그 안에서 들리며 고통
과 상처들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8 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
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를
떠나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
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9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

도 따는 자같이 네 손을 바구니로 거두
어들이라.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
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
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11 그러므로 주의 격노가 내게 가
득하여 내가 참는 데 지쳤노라.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
부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
리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
가며 날들이 찬 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
가리로다.
12 또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 위에
내 손을 내밀리니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13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
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
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14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
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
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
였도다.
15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
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
하노라.
1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
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
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
라, 하였느니라.
18 ¶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오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19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
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
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20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
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
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21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두리니 아버지
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며 한 큰
민족이 땅의 옆면들로부터 일어나리
라.
23 그들이 활과 창을 굳게 잡으리
니 그들은 잔인하여 긍휼이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울부짖는
도다. 오 시온의 딸아, 그들이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같이 너를 치려
고 전열을 갖추는도다.
24 우리가 그곳의 명성을 들었으
므로 우리의 손이 약하게 되었고 해산
하는 여인의 고통과 진통의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았도다.
25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으니 들로 나아가지도 말고 길로
다니지도 말라.
26 ¶ 오 내 백성의 딸아, 너는 굵은
베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 애곡하
되 외아들로 인하여 하듯 심히 비통하
게 애곡하라. 노략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

27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망대
와 요새로 세웠으니 이것은 네가 그들
의 길을 알고 시험하게 하려 함이라.
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는 자들
이요,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이며 그
들은 놋과 쇠요, 다 부패시키는 자들
이니라.
29 풀무들이 불에 탔고 납이 불에
소멸되었도다. 주물공은 헛되이 녹이
나니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
하였느니라.
30 주가 그들을 거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버림받은 은
이라 하리라.

제 7 장

백성이 거짓말을 신뢰함

1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
씀이라. 이르시되,
2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3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
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
라.
4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
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6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
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
면
7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무궁토
록 거하게 하리라.
8 ¶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9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
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10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
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11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
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
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2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
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
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
였는지 보라.
13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
도다.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
라임의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16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
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
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17 ¶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
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18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
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

니라.
19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분노
를 일으키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느
냐?
20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격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쏟아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21 ¶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
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희생
물에 너희의 번제 헌물을 얹고 고기를
먹으라.
22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
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
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
니라.
23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
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
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리라,
하였으나
24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
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
지 아니하였도다.
25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
나
26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
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27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
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네가 그
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네게 응답하
지 아니하리라.

역겨운 종교 놀이에 대한 심판

28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
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
도다, 할지니라.
29 ¶ 오 예루살렘아, 네 머리털을
베어 내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가를
지으라. 주가 친히 진노하여 *이* 세대
를 거절하고 버렸노라.
30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31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딸들
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
게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
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라.
32 ¶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
라, 날들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다시
는 그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
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살육
골짜기라 하리라. 그들이 *묻을* 자리
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33 이 백성의 사체가 하늘의 날짐
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터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34 그때에 내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환희의 소리
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의 소리가 그치게 하리니 그 땅이 황폐
하게 되리라.

제 8 장

1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통치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대언자들의 뼈
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2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 놓으리니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
여 지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3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 있는 자들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거짓 가르침의 위험

4 ¶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
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
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
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
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
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
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7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
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8 어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9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
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
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
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이
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
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
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11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
도다.
12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
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
라.
13 ¶ 주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소멸시킬 터인즉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는 시들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사라져서 그들을
떠나리라.
14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으랴?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우
리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로 들어가
거기서 잠잠히 지내자.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쓸개 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도다.
15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16 그의 말들의 씩씩거리는 소리
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의 강한 말들
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떨었나니 그들
이 와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삼켰도다.
17 보라, 내가 마술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
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주가
말하노라.

대언자가 백성을 위해 슬퍼함

18 ¶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19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
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
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

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20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
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
다.
21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
움에 사로잡혔도다.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는가, 거
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
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제 9 장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1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임 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
을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
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의 모임이로다.
3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
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
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
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5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
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
은 자기 혀를 가르쳐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을 행하려고 자신을 지
치게 하는도다.
6 네 처소가 속이는 일 한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
아 나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주가 말
하노라.
7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
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
이고 단련하리라.
8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
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
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9 ¶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
을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
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10 내가 산들을 위하여 슬피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처소를 위하여 애곡
하리니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아무
도 거기로 지나가지 못하고 가축 소리
도 들을 수 없으며 하늘들의 날짐승과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도다.
11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주민이 없
게 하리라.
12 ¶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
가 누구인가? 주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서 그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고 광야같
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지 밝히 알릴 자가 누구인가?
13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
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
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14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
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
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16 또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
을 흩어 버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욺

17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재주 있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고
18 그들이 서둘러 우리를 위해 통
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
이 쏟아지게 하라.
19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
기를, 우리가 어찌 노략을 당하였는
가! 우리가 그 땅을 버렸고 우리의
처소가 우리를 버렸으므로 우리가 심
히 당황하게 되었도다, 하는도다.
20 오 여인들이여,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로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딸들
에게 통곡하는 것을 가르치며 각 사람
이 자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21 사망이 우리의 창문 안으로 넘
어 들어오고 우리의 궁궐로 들어와서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젊은
이들을 끊어 버렸도다.
22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심지어 사람들의 사체가 배설물같이
빈 들판에 떨어지며 수확하는 자 뒤에
한 움큼씩 떨어지듯 떨어지되 아무도
그것들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23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
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
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24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
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25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
이 이르리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과 더불어 할례 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
라.
26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
라.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
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제 10 장

우상과 하나님

1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
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다.
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
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3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
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
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
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5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
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
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6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
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7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
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8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
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리이
니이다.
9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
으며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도다. *그
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의 두
손으로 만들었으며 청색과 자주색 옷
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로다.
10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
니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격노

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11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
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
서 멸망하리라, 하라.
12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
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
을 펼치셨도다.
13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
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
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
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
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
다.
14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
다.
15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
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하는 때에 그것
들이 멸망하리라.
16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지 아니
하니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막대기니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다가오는 유다의 멸망

17 ¶ 오 요새에 사는 거주민아,
그 땅에서 네 물건들을 꺼내 모으라.
18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의 거주민
들을 무릿매로 내던지고 그들을 괴롭
게 하여 그 일이 그러한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19 ¶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가 말하
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
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20 내 장막이 노략을 당하고 내 모
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서 없으니 내 장막을 펼치고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도다.
21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
를 찾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
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
떼가 흩어지리로다.
22 보라, 시끄러운 소문이 이르렀
으며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고
용들의 소굴로 만들기 위하여 북쪽
나라에서 크게 떠드는 일이 이르렀느
니라.
23 ¶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
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4 오 주여, 나를 바로잡으시되 판
단의 공의로 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
까 염려하나이다.
25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에 주의 격노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제 11 장

깨진 언약

1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
씀이라. 이르시되,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
게 말하라.
3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
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
라.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
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5 이로써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맹세를 이행하리라,

하였는데 그것이 이 날*에 보듯* 그리되
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이에 내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그대로
되리이다, 하였노라.
6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
렘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
들을 행하라.
7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
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
하게 단언하였으며 이 날에 이르기까
지 일찍 일어나 단언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으나
8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
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
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
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
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
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
라, 하라.
9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하는 일이 드러났도다.
10 그들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겼은즉 이스
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
다.
11 ¶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
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능히 그것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
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12 그때에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
렘 거주민들이 자기들이 향을 드리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
들이 그들의 고난의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13 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도시들
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
들의 수대로 저 수치스러운 물건을
섬길 제단들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세웠도다.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
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
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
라.
1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
과 음탕한 짓을 행하였으며 거룩한
고기가 너를 떠나 지나갔은즉 그녀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네
가 악을 행할 때에 기뻐하는도다.
16 주가 전에 네 이름을 일컬어 좋
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
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17 이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이 바알에게 향을 드림으로 내 분노를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를 치려고 재앙을 선포하였기 때문
이라.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

18 ¶ 주께서 내게 그것을 알리셨
으므로 내가 그것을 아노라.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내게 보이셨
나이다.
19 그러나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양이나 소 같아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계략들을 꾸며 이르기
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하고 또 그를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을 알지 못하였나
이다.
20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냈사
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21 그러므로 주가 아나돗 사람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다니며 이르기를, 네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22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
니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아들
딸들은 기근에 죽으며
23 그들 중에서 남는 자가 없으리
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年)를 가져오리
라.

제 12 장

대언자의 질문
1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
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이까?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
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
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3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도살할 양같
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육하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4 땅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
함으로 인하여 어느 때까지 애곡하며
모든 들판의 채소가 시들리이까? 짐
승들과 새들이 소멸되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을 보지 못하시리라, 하였
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답변
5 ¶ 네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
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네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네가 신
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
에서 네가 어찌하겠느냐?
6 심지어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네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
을 믿지 말지니라.
7 ¶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산
을 버려두며 내 혼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를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
나니
8 내 유산이 내게 숲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해 울부짖으므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느니라.
9 내 유산이 내게 점 있는 새 같으매
주위의 새들이 그녀를 대적하나니 너
희는 와서 들의 모든 짐승을 모으고
와서 삼킬지어다.
10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밑에서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11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
었으므로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나를
향해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
게 됨은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12 노략하는 자들이 광야를 지나
모든 높은 곳에 이르렀나니 주의 칼이
그 땅의 이 끝에서 그 땅의 저 끝까지
삼키리라. 어떤 육체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로다.
13 그들이 밀을 심었어도 가시를
거두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여도 이
득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주의 맹
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14 ¶ 주가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곧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속받게 한 상속 재산에 손을 대는
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
내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15 그들을 뽑아낸 뒤에 내가 돌이
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각 사람
을 그의 유산으로, 각 사람을 그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16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부지

런히 배워,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면
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을 두고 맹세하
게 한 것 같이 하면 내 백성의 한가운
데서 세워지려니와
17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
면 내가 그 민족을 철저히 뽑아내고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13 장

대언자의 아마포 띠의 상징

1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아마포 띠를 구해 네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시기에
2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3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4 네가 구해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
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바위 굴에 그것을 감추라, 하시기에
5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대로 내가
가서 그것을 유프라테스 옆에 감추었
느니라.
6 여러 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
되,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거기서 가져오라, 하셨으므로
7 이에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띠
를 감춘 곳을 파고 거기서 띠를 가져왔
는데,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
없게 되었더라.
8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9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
게 훼손시키리라.
10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
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
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그들
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
라.
11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의 온 집을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
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포도주 부대의 상징

12 ¶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
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부대가 포
도주로 차리라, 하라.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 그때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
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주민 곧 다윗의 왕좌에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을 술 취함으
로 채우고
14 그들을 던져 서로 부딪치게 하
되 심지어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부딪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
하고 멸하리라, 하라.

교만에 대한 경고

15 ¶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
하셨느니라.
16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
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
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 그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
어다.
17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
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니
주의 양 떼가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
라.
18 왕과 왕비에게 말하기를, 너희
의 수위권 곧 너희 영광의 왕관이 내려

갈 터인즉 스스로 낮추고 앉으라, 하
라.
19 남쪽의 도시들이 닫히리니 아
무도 그것들을 열지 아니하리라. 유다
가 다 포로로 끌려가리니 그것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리라.
20 너희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긴 양 떼 곧 네
아름다운 양 떼가 어디 있느냐?
21 네가 그들을 가르쳐 너를 다스
릴 대장과 우두머리로 삼았은즉 그가
너를 벌할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
냐? 네가 산고를 겪는 여인 같이 고통
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겠느냐?
22 ¶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느
냐? 할지라도 네 불법이 크므로 네
옷자락이 들추어지고 네 발뒤꿈치가
드러났느니라.
23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
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의해 사라지는 지푸라기같이
흩으리로다.
25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네 몫이
요, 내게서 받을 네 분량의 몫이니
이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니라.
26 그러므로 내가 네 옷자락을 네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네 수치를 드러
내리라.
27 내가 네 간음과 네 울음소리와
네 행음의 음탕함과 들의 작은 산들
위에 있는 네 가증한 것들을 보았느니
라. 오 예루살렘아, 네게 화가 있을지
어다! 네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
하느냐? 언제나 한 번 그리되겠느냐?

제 14 장

가뭄과 칼과 역병

1 기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
한 주의 말씀이라.
2 유다가 애곡하고 그것의 성문들
이 기진하며 그들이 암담하게 되어
땅에 주저앉으니 예루살렘의 부르짖
음이 위로 올라갔도다.
3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 자기들의
작은 자들을 물로 보냈는데 그들이
구덩이에 가서 물을 찾지 못하여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당황하여 자기 머리를
가렸도다.
4 땅에 비가 없어 토지가 갈라지므
로 쟁기질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렸도다.
5 참으로 암사슴 또한 들에서 새끼
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내버
렸으며
6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
같이 바람을 들이쉬나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에 힘이 없도다.
7 ¶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
리를 치려고 증언할지라도 오직 주께
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
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나이다. 우리
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8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의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이시여, 어
찌하여 주께서 그 땅에서 나그네같이
계시며 하룻밤을 묵으려고 돌이키는
여행자같이 계시나이까?
9 어찌하여 주께서 놀란 사람같이
계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계
시나이까? 오 주여, 그러할지라도 주
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가운데 계시오
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10 ¶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이 이처럼 떠돌아다니
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받
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
하며 그들의 죄들을 징벌하리라, 하
시고
11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
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
이 번제 헌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
13 ¶ 이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대언자들
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
라.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
였더니
14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
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
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
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
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
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이는 것을 대언
하는도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
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
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
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
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16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은 기
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들에
던져지고 그들을 묻을 자가 없으리니
곧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그렇게 되리
라*.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 위에
쏟아 부으리라.
17 ¶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
에게 이르라. 내 백성의 처녀 딸이
큰 파멸과 극히 심한 타격으로 찢어졌
으므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
하고 눈물을 흘리리라.
18 내가 들로 나아간즉, 보라, 칼
에 죽은 자들이로다! 내가 도시로 들
어간즉,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로다! 참으로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다니는
도다.

백성이 긍휼을 구함

19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나
이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심히 싫어하
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해 치료하지 아니하
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하시는 때를 바랐
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20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
으므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
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몹
시 싫어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왕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
지 마옵소서.
22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
리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
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주께
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제 15 장

유다의 불가피한 운명

1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
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
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2 만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
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
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
라, 하라.
3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네 종류를 정해 주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들과 삼키고 멸하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라.
4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와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인하
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기리라.
5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탄식하
겠느냐? 누가 돌이켜서 네가 어떻게
행하는지 묻겠느냐?
6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리
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
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7 그들이 자기들의 길들에서 돌이
키지 아니한즉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까부르고 그들의 자
녀들을 빼앗아 내 백성을 멸하리라.
8 그들의 과부들이 내 앞에서 바다
의 모래보다 더 늘어났나니 내가 대낮
에 노략하는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
가 젊은이들의 어머니를 치게 하되
그로 하여금 갑자기 그것을 덮치게
하고 두려움이 도시에 임하게 하였느
니라.
9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하여 숨
을 거두었으며 아직 낮이건만 그녀의
해가 떨어졌으므로 그녀가 부끄러워
하고 당황하였도다. 또 그들의 남은
자는 내가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의 낙담

10 ¶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
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요 다투는 자로 낳았나
이다.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 주
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
고 내게 빌려 주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11 주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의
남은 자들은 잘되리니 진실로 내가
그 원수로 하여금 재앙의 때와 고통의
때에 너를 잘 대우하게 하리라.
12 쇠가 북쪽의 쇠와 강철을 부수
겠느냐?
13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심지
어 네 온 지경 내에 있는 네 재물과
보물을 값없이 노략물로 내주리라.
14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원수들
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
가게 하리니 너희를 태울 불이 내 분노
속에서 붙었느니라, 하시니라.
15 ¶ 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나를 핍박하
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며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
서. 주를 위하여 내가 책망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16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17 주께서 격노로 나를 채우셨으
므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
데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나이다.
18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
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또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
까?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확신의 말을 줌

19 ¶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
노라.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리
라. 만일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들은 네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
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20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21 또 내가 너를 사악한 자의 손에
서 건져 내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
하리라.

제 16 장

예레미야의 삶과 메시지

1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
고 아들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3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딸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들과 그
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 그들이 괴로운 죽음으로 죽으리
니 그들이 애도 받지 못하리로다. 그
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배설
물같이 되며 칼과 기근에 소멸되고
그들의 사체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
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리라.
5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
게서 나의 평강 곧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하였은즉 가서 그들을 위하여 슬
퍼하지도 말며 탄식하지도 말라. 주
가 말하노라.
6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묻히지 못하며 사람
들이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몸을 밀지도 아니하리라.
7 또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로 인하
여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곡하면서 그
들을 위해 자기 몸을 찢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그들
에게 위로의 잔을 주어 마시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8 너는 또한 잔칫집에 들어가 그들
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9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시대에 너희 눈이 보는 데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이곳에서 그치게 하리
라.
10 ¶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알려 줄 때에 그들이 네게 말하기
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려
고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셨느냐?
우리의 불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가 무엇
이냐? 하거든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나
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2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
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
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나니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너희가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라.

이스라엘의 회복

14 ¶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
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
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15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
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
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
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
라.
16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
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17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

지 못하느니라.
18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며 자기
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 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두
배로 갚으리라.
19 오 주여,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
여, 이방인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
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20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
를 위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
다.
21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
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제 17 장

유다의 죄와 형벌

1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
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 판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2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산들 위의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
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
다.
3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네 온 지경 내에서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또 죄를 짓기 위한 네 산당들을
노략물로 내주리니
4 내가 네게 준 네 유산으로부터
너 곧 네가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에 불 곧 영원히 타오를 불을
붙였기 때문이니라.
5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
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6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
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
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7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
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8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
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9 ¶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10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
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
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11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
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 ¶ 영화로우며 높은 왕좌는 처
음부터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이니
라.
13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
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
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
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대언자의 기도

14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
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15 ¶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
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16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를 따르
는 목양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
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재앙의 날도 원
치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아시나이
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 앞에서
옳았나이다.

17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나의 소망이시니이
다.
18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당황하
게 하시되 나는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
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되 나는 놀라
지 않게 하옵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
에게 임하게 하사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9 ¶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
되, 가서 유다의 왕들이 들어오고 나
가는 문 곧 백성의 자손들의 문과 예루
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20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희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
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
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2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안식일에 짐을 나
르거나 예루살렘의 문들로 그것을 들
여오지 말고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꺼
내어 옮기지도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23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
하고 자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기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였느니라.
24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부
지런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안식일
에 이 도시의 문들을 통해 짐을 들여오
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25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들과 통
치자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도시의
문들로 들어오되 그들과 그들의 통치
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
민들이 그리할 것이요, 이 도시는 영
원히 있으리로다.
26 또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
살렘 주위의 장소들과 베냐민 땅과 평
야와 산들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과 음식 헌물과 향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고 또 찬양의 희생
물을 가져오리라.
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
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거룩
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나르고 예루살렘 문들로 들여오면 내
가 그것의 문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고 꺼
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제 18 장

토기장이와 진흙

1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
씀이라. 이르시되,
2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
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
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
라.
5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6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
아, 내가 이 토기장이같이 능히 너희
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
리라고 말할 때에
8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
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
할 때에
10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

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
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
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
키리라.
11 ¶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
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우나니 이제 너희
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함

12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
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13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이제 너희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이교도들 가운데서 물어보
라. 이스라엘의 처녀가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14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15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
들이 헛된 것에게 분향하였으며 그것
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16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영
원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거
기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자기 머리
를 흔들리라.
17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
풍으로 하듯 흩어버리리니 곧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
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대언자가 핍박을 받음

18 ¶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
라, 우리가 계략을 꾸며 예레미야를
치자.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계략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대언자에
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오라, 우
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 중의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였나이다.
19 오 주여,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
며 나와 다투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0 그들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
이를 팠사오니 선을 악으로 갚으리이
까? 내가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고 주의 진노를 그들에
게서 돌이키려 한 것을 기억하옵소
서.
21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
근에 넘겨주시며 칼의 힘으로 그들의
피를 쏟으사 그들의 아내들은 자기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들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젊은
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죽게 하소서.
22 주께서 군대를 데려와 갑자기
그들 위에 임하게 하실 때에 그들의
집에서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으
며 내 발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나이
다.
23 주여, 그러할지라도 나를 쳐서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든 계략을 주께
서 아시오니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눈앞에서
지우지 마옵시고 다만 그들을 주 앞에
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분노의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제 19 장

질그릇 병의 상징

1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질그릇 병 하나를 취하고
백성의 원로들과 제사장들의 원로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2 동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
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를 말들
을 거기서 선포하여
3 이르되,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
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귀가 울리리라.
4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멀리
하였으며 그것 안에서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고 무죄한 자
들의 피로 이곳을 채웠느니라.
5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건
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
에게 번제 헌물로 바쳤거니와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
가 아니니라.
6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
니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
고 살육 골짜기라 하리라. 주가 말하
노라.
7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의 계획을 무효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며 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사체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
들에게 먹이로 주며
8 또 이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것의 모
든 역병으로 인하여 그 곁을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으리라.
9 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
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들
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들을 포위하
고 곤경에 처하게 할 때에 그들이 각각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10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
람들의 눈앞에서 그 병을 깨뜨리고
11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
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
이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음같이 내가 이 백성
과 이 도시를 무너뜨리리니 그들이
그들을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
에 묻으리라.
12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이
곳의 거주민들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도시를 도벳 같게 하리라.
13 그들이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의 모든 지붕 위에서 하늘
의 온 군대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
게 음료 헌물을 부었으므로 그 집들이
도벳의 장소같이 더럽혀지리라, 하
라.
14 이에 예레미야가 주께서 자기를
보내사 대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
와 주의 집 뜰에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15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이 도시를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도시와
그것의 모든 고을에 내리리라, 하니
라.

제 20 장

바스훌을 향한 주의 말씀

1 이제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
은 또한 주의 집에서 우두머리 감독이
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대언한
것을 그가 들으니라.
2 그때에 바스훌이 대언자 예레미
야를 때리고 베냐민의 높은 문에 있던
차꼬에 그를 채워 두었는데 그것은
주의 집 옆에 있더라.
3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차
꼬에서 풀어 주매 이에 예레미야가 그
에게 이르되, 주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
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빕이
라 하셨느니라.
4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
이 자기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
요, 네 눈이 그것을 보리라. 또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
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칼로 죽이리라.

5 또 내가 이 도시의 모든 기력과
그것의 모든 수고한 것과 그것의 모든
귀한 것을 넘겨주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주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노략하고 취하여 바
빌론으로 가져가리라.
6 너 바스훌과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리니 너는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
요, 너와 네 모든 친구 곧 네가 대언한
거짓말을 들은 네 모든 친구가 그러하
리라.

인기 없는 예레미야의 사역

7 ¶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
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
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
다.
8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
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
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9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
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
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
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 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10 ¶ 많은 사람이 중상 모략하는
것과 사방에서 두렵게 함을 내가 들었
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우
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하오며 나와
친한 모든 이들도 내가 그만두기를
기다리면서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
나이다.
11 그러나 주께서는 강하고 두려
운 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이기
지 못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영존하는 혼동은 결코 잊히지 아니하
리로다.
12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
사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내었
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
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13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
양하라. 그분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혼을 건져 내셨
느니라.
14 ¶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
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이 복이 없었더라면,
15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에게 사내아이가 태어
났다, 하여 그를 매우 기쁘게 한 사람
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16 그 사람이 주께서 무너뜨리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도시들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한낮에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
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17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부터 죽
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혹은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함으로 그녀
의 태가 나로 인해 항상 불러 있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8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
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
으로 소진하는가?

제 21 장

예루살렘의 운명이 확정됨

1 시드기야 왕이 멜기야의 아들 바
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
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로
부터 그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2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니 원하건대 우
리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주께서 자
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
라, 하니라.
3 ¶ 이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

르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
할지니라.
4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성벽 밖에서 너희를
에워싸는 바빌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
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너희가 사용할
너희 손의 전쟁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또 그들을 모아 이 도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리라.
5 내가 친히 넓게 뻗은 손과 강한
팔로 곧 분노와 격노와 큰 진노로 너희
와 싸우며
6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도시에 거하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
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하라.
7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
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도시에 남은 자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
레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
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8 ¶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
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9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
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
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
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10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
고 이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였
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주의 말씀

11 ¶ 또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는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
라.
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다윗
의 집아, 아침에 심판을 집행하며 학
대하는 자의 손에서 노략 당한 자를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
위들이 악하므로 내 격노가 불같이
나가서 태우리니 아무도 능히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13 주가 말하노라. 오 골짜기와 평
야의 바위에 사는 거주민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말하기
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처소로 들어오리요? 하
거니와
14 내가 너희 행위들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고 그것의 수풀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것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22 장

유다의 왕들을 향한 대언의 말씀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거기서 이 말을 전하여
2 이르기를, 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주의 말씀
을 들을지어다.
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학대하
는 자의 손에서 노략 당한 자를 건지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부당하게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오리니
곧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그리하리라.
5 그러나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
노라.
6 주가 유다 왕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르앗이 되며
레바논의 머리가 될지라도 내가 반드
시 너로 하여금 광야와 사람이 거주하
지 아니하는 도시들이 되게 하리라.

7 내가 너를 쳐서 멸할 자들을 예비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무기를
가지고 네 최상품 백향목을 베어 불에
던지리라.
8 또 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를 지나
가며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말하기
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큰 도시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니
9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 까
닭은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
며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하리라,
하라.
10 ¶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
지 말고 그를 위하여 탄식하지도 말며
오직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몹시 슬피
울라.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고국을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

11 주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통치
하다가 이곳에서 나아간 살룸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다시는 거기
로 돌아오지 못하고
12 그들이 그를 포로로 끌고 간 곳
에서 죽으리니 그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13 ¶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
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며 그에게 일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4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
여 넓은 집과 큰 방들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들을 만들며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주홍색으
로 칠하였도다.
15 네가 네 자신을 백향목 안에 넣
어 봉하였으므로 통치하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며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더니 그때에 그가 형통하
지 아니하였느냐?
16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바르게* 재판하더니 그때에 그
가 형통하였도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17 그러나 네 눈과 네 마음은 오직
네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학대와 폭력만을 바라며 그것을 행하
려 하는도다.
18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
노라. 그들이 그를 위해, 아, 내 형제
여! 아, 자매여! 하고 애통하지 아니하
며 그를 위해, 아, 주군이여! 아, 그의
영광이여! 하고 애통하지도 아니하리
라.
19 그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지고 나귀가 묻히는 것
같이 묻히리라.
20 ¶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며 통행로
에서 외치라. 너를 사랑하는 모든 자
들이 멸망하였느니라.
21 네가 형통할 때에 내가 네게 말
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 즉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었노라.
22 바람이 네 목양자들을 다 먹어
버리고 또 네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가
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모든 사악함으
로 인하여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리라.
23 오 백향목 안에 보금자리를 만
드는 레바논의 거주민아, 산고를 겪는
여인의 진통 같은 산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네가 얼마나 호의적이겠느냐!

고니야에 대한 말씀

24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
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 왕 여호
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의 인
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25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네
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26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
니를 다른 나라 곧 너희가 태어나지

아니한 곳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
희가 죽으려니와
27 그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땅으로 거기로 돌아오지 못하리
라.
28 이 사람 고니야는 멸시받으며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이 쫓
겨나되 곧 그와 그의 씨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29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
의 말을 들을지어다.
3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
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제 23 장

의의 가지

1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
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
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 내가 내 양 떼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남은 자를
모아 그들의 양 우리로 다시 데려오리
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창하리라.
4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
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5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
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6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
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
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7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
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8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
씨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
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 계신
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거짓 대언자들

9 ¶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주와 그분의 거룩함의 말씀들로 인하
여 내가 술 취한 자 같이 되고 포도주
에 사로잡힌 자같이 되었도다.
10 그 땅에는 간음하는 자가 가득
하고 맹세하는 일로 인하여 그 땅이
애곡하며 광야의 아름다운 곳들이 마
르고 그들의 행로가 악하며 그들의
힘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11 또 대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
을 더럽히나니 참으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12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어둠 속에 있는 미끄러운 길같이
되고 그들이 쫓겨나 그 안에서 쓰러지
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13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게
서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
니라.
14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
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
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
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신성을 더럽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으로 들어
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 물을 마시게 하리라.
16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
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
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
라.
17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
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
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18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
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19 보라, 주의 회오리바람 곧 혹독
한 회오리바람이 격노 중에 나아갔으
니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혹독
하게 임하리라.
20 주의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
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
가 그것을 완전히 깊이 생각하리라.
21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
니하였어도 그들이 달음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대언하였도다.
22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
였으리라.
23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
냐?
25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26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
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
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27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28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
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29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30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
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31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
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32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
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
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
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
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
노라.
33 ¶ 이 백성이나 대언자나 제사
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주의 엄중
한 부담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
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엄중한 부담

이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버리리라, 하라.
34 또,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
는 대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에 관하여
는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그의 집을
벌하리라.
35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각
각 자기 형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느냐? 주
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36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
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
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37 너는 그 대언자에게 이같이 말
하기를, 주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
셨느냐?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
냐? 하라.
38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므로 주가 이같
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 곧 주의
엄중한 부담을 말하였으므로 내가 너
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
희는,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지
말라, 하였나니
39 그런즉, 보라, 나 곧 내가 너희
를 완전히 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도시와 너희를 버리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며
40 잊지 못할 영존하는 치욕과 영
원한 수치를 너희에게 가져오리라.

제 24 장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의 상징

1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의 통
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을 예
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
로 데려간 뒤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앞에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가 놓였는데
2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심히 좋은 무화과들이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심히 나쁜 무화과들이 있더라.
3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
시기에 내가 이르되, 무화과들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들은 심히 좋고 그 나쁜
것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
로 심히 나쁘니이다, 하니라.
4 ¶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5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
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을 이 좋은 무화과들같이 인정하리니
6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
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7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
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8 ¶ 또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
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
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곧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들같이 내주되
9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도록
넘겨주어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
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10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
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소멸되리라, 하시니
라.

제 25 장

70년의 황폐한 기간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사년 곧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제
일년에 유다의 온 백성에 관하여 예레
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2 대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온 백
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에게 그
것을 말하여 이르되,
3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제
십삼년부터 이 날 곧 제이십삼년까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
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
다.
4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
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5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와 주께서 너희
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무궁토록 주
신 땅에 거하고
6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
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키
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
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을 해하였느니라.
8 ¶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
니하였은즉
9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
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
레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
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10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
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을
제거하리라.
11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
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바빌론의 심판

12 ¶ 주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
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13 또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내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
을 향해 대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니
14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
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리라.

민족들의 심판

15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격노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
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
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
라, 하시기에
17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
다가 주께서 전에 나를 보내어 *경고하*
게 한 모든 민족들
18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거기의 왕들과 거기의 통치자들로 하
여금 마시게 하여 그들을 황폐함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와 저주가 되게
한 것이 이 날과 같으며
19 또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
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온 백성과
20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과 앗사와 에그
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과
21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22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
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23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맨 끝 구

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과
24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에
거하며 섞여 사는 백성들의 모든 왕들
과
25 시므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 사람들의 모든 왕들
과
26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
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
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27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
기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너
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
나지 말라.
28 만일 그들이 네 손에서 그 잔을
취하여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너는 그
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
이 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
라.
29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즉 너희
가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
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땅의 모든 거주민 위에 임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0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
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
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
고 포도를 밟는 자들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리라.
31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 끝까
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
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
을 칼에 내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3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
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33 그 날에 주에게 죽임 당한 자들
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
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
34 ¶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
며 부르짖으라. 양 떼를 주관하는 자
들아, 너희는 재 속에서 뒹굴라. 너희
가 살육당하고 흩어질 날들이 찼느니
라. 그런즉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요,
35 목자들에게는 도망할 길이 없
겠고 양 떼를 주관하는 자들에게도
도피할 길이 없으리로다.
36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노략하
셨으므로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 떼를 주관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리로다.
37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평
화로운 처소가 넘어졌도다.
38 그분께서 사자같이 자신의 은
신처를 버리셨으니 그들의 땅이 학대
하시는 이의 맹렬함과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도다.

제 26 장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3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
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4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 안에서 걷지 아니
하며
5 또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내고 보내었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
이지 아니한 나의 종 대언자들의 말들
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6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
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라.
7 이에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들을 말하니 제사장들과 대언자들
과 온 백성이 듣더라.
8 ¶ 이제 예레미야가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
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치매 제사장
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들
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9 어찌하여 네가 주의 이름으로 대
언하여 이르되, 이 집이 실로같이 되
고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온 백성이
주의 집에 모여 예레미야를 대적하니
라.
10 ¶ 유다의 통치자들이 이 일들
을 듣고 이에 왕의 집에서 주의 집으로
올라와 주의 집의 새 문 입구에 앉으매
11 이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통치자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
되, 너희가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언하
였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
다, 하니라.
12 ¶ 그때에 예레미야가 모든 통
치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언
하게 하셨느니라.
13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14 나에 관하여는, 보라, 내가 너
희 손에 있으니 너희 보기에 좋고 합당
한 대로 내게 행하려니와
15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라. 진실
로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으
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분명히 너희
가 무죄한 피를 너희와 이 도시와 그것
의 거주민들에게 돌리리라, 하니라.
16 ¶ 이에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를 죽이는 것
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매
17 그때에 그 땅의 장로들 중의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집회에 말하
여 이르기를,
18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대언하며 유다의 온 백성
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
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
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집의 산은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되리
라, 하였으나
19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과연 그를 죽였느냐? 그가 주를 두려
워하며 주께 간청하매 주께서 그들을
향해 선언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큰 재앙을 초래하여 우리 혼을 해치리
라.
20 또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 사람
이 있었으니 곧 기럇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에 따라 이 도시와 이 땅을 대적하여
대언하매
21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
과 모든 통치자들이 그의 말들을 들을
때에 왕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우리
야가 그것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여
이집트로 들어갔으므로
22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이집트
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그와 함께한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
었더니
23 그들이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끌
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매 왕
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던졌느니라, 하니
라.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반의 아
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하
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를 백성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제 27 장

줄과 멍에의 상징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
시니라.
2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
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3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고* 예루
살렘에 오는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
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족속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4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군
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5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
게 그것을 주었노라.
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
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
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
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8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
하는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려 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
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라.
9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
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
하리라, 하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
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
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10 너희를 너희 땅에서부터 멀리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을 대언하나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몰아내어 너희를 망하게 하려 함이
라.
11 그러나 자기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고 그를 섬기는 민족들
곧 그들은 내가 조용히 그들의 땅에
남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
안에 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12 ¶ 내가 또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
에 두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13 어찌하여 당신들 곧 왕과 왕의
백성이 주께서 바빌론 왕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14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그들이 당신
들에게 거짓을 대언하나니
15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
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
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멸하리라,
하시나이다.
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이 온 백성
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
노라. 너희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보
라, 주의 집의 기구들을 이제 곧 바빌
론에서 다시 가져오리라, 하는 너희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
라.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대언하
느니라.
17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
라. 어찌하여 이 도시를 폐허로 남겨
두겠느냐?
18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언자이
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이제
그들은 만군의 주께 중보하여 주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들이 바빌론으로 가지 못하
게 하여야 할지니라.
19 ¶ 만군의 주가 기둥들과 바다
와 받침들과 이 도시에 남아 있는 나머
지 기구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
라.
20 그것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고귀한 자
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
로 끌어갈 때에 가져가지 아니한 것들
이라.
21 참으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들에 관하
여 이같이 말하노라.
22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가
져다가 이곳에 되돌리리라. 주가 말
하노라, 하니라.

제 28 장

하나냐의 거짓 대언

1 같은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사년 오월에 기브온
출신의 대언자로 앗술의 아들인 하나
냐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
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겨간 주
의 집의 모든 기구를 만 이 년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4 내가 또 바빌론으로 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의 모
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5 ¶ 그때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
의 집에 서 있던 제사장들 앞과 온
백성 앞에서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하
니라.
6 곧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
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네가 대언한 네 말들을 이루사
주의 집의 기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다
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
가 네 귀와 온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8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
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9 평화를 대언하는 대언자로 말하
건대,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에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
지리라, 하니라.
10 ¶ 그때에 대언자 하나냐가 대
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고
11 온 백성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이
년 기한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
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하매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12 ¶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예레
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뒤에 그때
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
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리라.
14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
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
라, 하라.
15 ¶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
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
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느니라. 보라, 네가 주에게 반역
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네가 이 해에 죽으
리라, 하매
17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칠월에 죽었더라.

제 29 장

대언자가 포로들에게 보낸 메시지
1 이제 대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중의 남은 자들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
로 포로로 끌고 간 제사장들과 대언자
들과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말들이 이러하니라.
2 (*이 편지는* 여고니야 왕과 왕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통치자
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
렘에서 떠난 뒤에)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보내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르
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맡긴 것이라.* 이르
되,
4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
가 되어 끌려가게 하므로 포로로 끌려
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5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6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딸들
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
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
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
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8 ¶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
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
고 너희가 꾸고자 하여 꾼 너희의 꿈들
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9 그들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
짓으로 대언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
라.
10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
론에서 칠십 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11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
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
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
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
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12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13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
라.
14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
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
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
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
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
라.
15 ¶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
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대언자들을
일으키셨다, 하였으므로
16 다윗의 왕좌에 앉는 왕과 이 도
시에 거하는 온 백성과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 나아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는
것을 알라.
17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역
병을 보내어 그들을 심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들같이 만들리
라.
18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넘겨주어 땅
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가게 하며 또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함께 거하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19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보내고 보낸
나의 종 대언자들이 전한 내 말들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
문이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
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20 ¶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니라.
21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
라. 이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
짓을 대언하는 자들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
서 죽이리라.
22 바빌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
들이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말하기
를, 주께서 너를 바빌론 왕이 불에 구
운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
하노라, 하리니
23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이웃의 아내
들과 간음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
하지 아니한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아
나니 내가 증인이니라. 주가 말하노
라.
24 ¶ 너는 또한 느헬람 사람 스마
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25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
든 제사장에게 편지들을 보내어 이르
기를,
26 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
대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미쳐서
스스로 대언자라 하는 모든 자로 인해
너희가 주의 집에서 직무 수행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네가 그
를 감옥에 넣고 차꼬를 채워야 하리
라.
27 이제 그러한대 네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스스로 대언자라 하는 아나
돗의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였
느냐?
28 그러므로 그가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포로 생활이 길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
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하였도다.
29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대
언자 예레미야의 귀에 읽어 주니라.
30 ¶ 그때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
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1 포로 된 모든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가 너희에게 대언하고 너희로 하여
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였도다.
32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씨를 벌하리라. 그에게는 이 백

성 가운데 거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
요, 또 내가 내 백성을 위해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
쳤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제 30 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1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
씀이라. 이르시되,
2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네게 이
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
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
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
하노라.
4 ¶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5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
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
다.
6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배
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
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
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무슨 까닭
이냐?
7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8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 버리
며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9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
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 ¶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
하고 네 씨를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부
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
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
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11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
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
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
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상처
는 고칠 수 없으며 네 부상은 중하도
다.
13 네 사정을 변호하여 너를 싸맬
자가 없으며 너를 고칠 약도 네게 없도
다.
14 너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너
를 잊었고 너를 찾지 아니하나니 네
불법이 많으므로 내가 원수의 상처와
잔인한 자의 징계로 너를 상하게 하였
느니라. 네 죄들이 늘어났느니라.
15 너는 어찌하여 네 고난으로 인
해 부르짖느냐? 네 불법이 많으므로
네 슬픔을 치료할 수 없나니 네 죄들이
늘어났으므로 내가 이 일들을 네게
행하였느니라.
16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모든 자
들은 삼켜지며 네 모든 대적들 곧 그들
각 사람은 포로가 되고 너를 노략하는
자들은 노략물이 되며 너를 먹이로
취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탈취물로
주리라.
17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
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
로 내가 네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네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야곱의 회복

18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에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의 방식대로 남게 되리라.
19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
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겠고 내가 또한 그들을 영화롭
게 하리니 그들이 작지 아니하리라.
20 그들의 자손들도 이전과 같겠
고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굳게 서리니
그들을 학대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21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 그들에
게서 나올 것이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도 그들의 한가운데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다가오리라.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 내게 다가오려 한 이 *사람이*
누구냐? 주가 말하노라.
22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
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3 보라, 주의 회오리바람 곧 계속
부는 회오리바람이 격노와 함께 나아
가는도다.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임하리라.
24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제 31 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

1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에 내
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나 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이스라엘이라. 그때에 내
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갔노
라.
3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
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
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4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워지리라. 네
가 다시 네 작은북으로 단장하고 즐거
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데로 나아가리
라.
5 네가 여전히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으리니 심는 자들이
심고 평범한 것들을 먹듯이 그것들을
먹으리라.
6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칠 날이 이르리라.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가자, 하리라.
7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외칠지어다. 너희
는 널리 알리고 찬양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
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
서 데려오고 땅의 경계들에서 모으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아이 밴
여자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는 여자
를 그들과 함께 모으리니 큰 무리가
거기로 돌아오리라.
9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
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곧은길로
걷게 할 터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10 ¶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11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
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
다.
12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밀과 포도즙과

기름과 양 떼와 소 떼의 어린것들로
인하여 주의 선하심 속으로 함께 흘러
가리라. 또한 그들의 혼은 물 댄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슬퍼하지 아
니하리로다, 할지어다.
13 그때에 그 처녀가 춤추며 기뻐
하되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함께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이 변하
여 기쁨이 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
나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14 또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
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
라. 주가 말하노라.

에브라임을 향한 긍휼

15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
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
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
로 인하여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
다.
1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음성
을 억제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억제하
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이 보상
을 받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17 네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네 자
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오리
라. 주가 말하노라.
18 ¶ 에브라임이 스스로 이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이르
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매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수소같이 징계
를 받았나이다. 주는 주 나의 하나님이
시오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19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
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
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의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
로 당황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였도
다.*
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가 말하노라.
21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너를 위
하여 길 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으라. 네 마음을 정하여 큰길 곧
네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
아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
라.
22 ¶ 오 너 타락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려느냐?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유다가 미래에 형통함

23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포
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이
유다의 땅과 그것의 도시들에서 이
말을 여전히 사용하리니 곧, 오 정의
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로
다.
24 또 유다 그 자체와 그것의 모든
도시에는 농부들과 양 떼를 데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거하리니
25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
며 모든 슬퍼하는 혼을 채워 주었노
라, 하시니라.
26 이 *말씀*에 내가 깨어 살펴보니
내 잠이 내게 달았더라.
27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
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28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
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
본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려
고 그들을 지켜보리라. 주가 말하노
라.
29 그 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
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
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

리라.
30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
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 포도를 먹는
각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되리라.

새 언약

31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
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
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
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
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33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
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
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34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
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
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
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
하노라.
35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의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36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
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
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7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
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대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
라. 주가 말하노라.
38 ¶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
도시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의 성문까지 주를 위하여 세워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39 또 측량줄이 여전히 그 *도시* 맞
은편으로 나아가 가렙 산에 이르고
고앗 쪽으로 둘러싸리니
40 시체들과 재들의 전체 골짜기
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들판
곧 동쪽으로 말 문 모퉁이에 이르는
곳이 주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요, 그
것이 영원토록 다시는 뽑히거나 내던
져지지 아니하리라.

제 32 장

예레미야가 밭을 구매함

1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십년 곧 느
부갓레살의 제십팔년에 주로부터 예
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2 그때에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
살렘을 에워쌌더라. 대언자 예레미야
는 유다 왕의 집에 있던 감옥 뜰에
갇혔더니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전에 그를 가
두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대언
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
에 내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할 것이
요,
4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
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져 입으
로 그의 입과 말하고 눈으로 그의 눈을
보리라.
5 또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리니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하였더
라.
6 ¶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
되,
7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이 네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무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
리라, 하시더니
8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 뜰에 있던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네게 있고 무를 권리도 네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
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고
10 증서를 쓴 뒤 봉인하고 증인들
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니라.
11 이처럼 내가 구매 증서 곧 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공개한 것을
가져다가
12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눈앞
에서 또 구매 장부를 쓴 증인들 앞과
감옥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구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니라.
13 ¶ 또 내가 그들 앞에서 바룩에
게 명하여 이르되,
14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증서들 곧
봉인한 이 구매 증서와 공개한 이 증서
를 다 가져다가 질그릇에 담아 그것들
이 여러 날 동안 있게 하라.
15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사람*
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소유
하게 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기도와 주의 응답

16 ¶ 이제 내가 구매 증서를 네리
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주께
기도하여 말하되,
17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
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
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18 주께서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들의 불
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위대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
소이다.
19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
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20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시고 이 날까지도 이스
라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사 이 날과 같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드셨나이다.
21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
고 나오셨으며
22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
로
23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음
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율법
안에서 걷지도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
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모든 것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
나이다.
24 *쌓아 올린* 산들을 보소서. 그들
이 그 도시에 이르러 그것을 취하려
하오며 그 도시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
로 인해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갈대
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사오니 주께
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시나이다.
25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 그 도시
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느니
라, 하셨나이다.
26 ¶ 그때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

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7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28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갈대아 사람
들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
에 내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29 또 이 도시를 대적하여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도시에 불을
놓고 이 도시와 집들을 태우리라. 저
들이 그 집들의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
을 부어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30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
려서부터 내 앞에서 오직 악만 행하였
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단지 내 분노를 일으켰느
니라. 주가 말하노라.
31 그들이 이 도시를 세운 날부터
이 날까지 이 도시가 내게는 내 분노와
내 격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므로 내
가 내 얼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
니
32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의 모든 악 때문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
사장들과 그들의 대언자들과 유다 사
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분노
를 일으키려고 그 악을 행하였느니
라.
33 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되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
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
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
이지 아니하고
34 오히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
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35 또 그들이 힌놈의 아들의 골짜
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
하여 자기 아들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
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
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36 ¶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
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
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37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격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38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
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9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40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
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
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
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
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41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하므
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
며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4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43 너희가 이 땅에 관해 말하기를,
이 땅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이 황폐하
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밭들을
사리라.
44 사람들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들과 산지
의 도시들과 골짜기의 도시들과 남쪽
의 도시들에서 돈을 주고 밭들을 사며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
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자들
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제 33 장

백성의 회복과 형통함
1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또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2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
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
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3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
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4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
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쌓아*
올린 산들과 칼로 말미암아 무너진
집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5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오지만 그것은 내가 내 분노와 격노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
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6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
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
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
리라.
7 또 내가 유다의 포로 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8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
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
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
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
느니라.
9 ¶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
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
가 될 것이요,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
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선함
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
며 떨리라.
1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하는 이곳 즉 사람도 없
고 거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에서
11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또, 만
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는 자들
의 소리와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
니 이는 내가 그 땅의 포로 된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
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1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이곳
과 거기의 모든 도시에 다시 자기 양
떼들을 누일 목자들의 처소가 있으리
라.
13 산들의 도시들과 골짜기의 도
시들과 남쪽의 도시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
들에서 양 떼들이 그것들을 세는 자의
손 밑으로 다시 지나가리라. 주가 말
하노라.
14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
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15 ¶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
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
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16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
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17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
라엘의 집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며
18 또 내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
고 음식 헌물에 불을 붙이며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
장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
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
19 ¶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
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대
21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
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
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22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
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같
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
니라.
23 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4 이 백성이 말한 바를 네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이르
기를, 주께서 택하신 두 가족을 곧
그들을 친히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한 민족
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도다.
25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 중에서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
게 긍휼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제 34 장

시드기야를 향한 주의 경고

1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와 그의 지배 하에 있던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것
의 모든 도시와 싸울 때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
되,
2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게 말하고 그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에 내주리니 그가 그
도시를 불태우리라.
3 네가 그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어가리
니 네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가 너와 말하되 입으로 입을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빌론으로 갈 것이
니라.
4 오 유다 왕 시드기야여, 그러할지
라도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너
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
에 죽지 아니하고
5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죽을 것이
요, 네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있었던
이전 왕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 같이
그들이 너를 위해 향을 태우고 너를
위해 애도하며 이르되, 아, 주군이여!
하리니 내가 그 말을 선언하였느니
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6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
야에게 이르니라.
7 그때에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
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도시 곧 라기
스와 아세가와 싸웠으니 이는 유다의
도시들 중에서 방벽을 세운 이 도시들
이 남았기 때문이더라.

종들의 학대

8 ¶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
던 온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뒤에 주로부터 예레미
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9 *그 언약은* 곧 각 사람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인 자기 남종이나
자기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곧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 이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모
든 통치자와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남종
이나 자기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해야 하고 다시는 아무도 그들에
게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을 가게 하였으나
11 후에 그들이 돌이켜서 자기들
이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한 *남*종과
여종을 되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복종
시켜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더라.
12 ¶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주로
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13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
집트 땅 곧 노예들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 너희 각 사람은 칠 년이 끝날
때에 네게 팔려 온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놓아주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
니라.
15 이제 너희가 돌이키고 각각 자
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서
내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으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16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
럽히고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너희가
자유롭게 만들어 준 *남*종과 여종을
각 사람이 되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복종시켜 너희를 위해 *남*종과 여종으
로 삼았도다.
17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칼과 역병
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주
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기리라.
18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
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
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
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
19 곧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
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내가 내주되
20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
을 내주리니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21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
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를
떠나 올라간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내주리라.
22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령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도시로 되돌아
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고 빼앗아 불태우리라. 내가 유다
의 도시들을 거주민이 없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하리라.

제 35 장

레갑 사람들의 순종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2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
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
가 방들 중의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
라, 하시니라.
3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
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
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
들의 온 집을 데려가니라.
4 내가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난
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는
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으며
문을 지키는 자인 살룸의 아들 마아세
야의 방 위에 있더라.
5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

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
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
나
6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
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
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7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씨도 뿌리
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며 아무
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하였으므로
8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조상 레갑
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
리의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
를 마시지 아니하고
9 우리를 위하여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도 소
유하지 아니하고
10 오직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노라.
11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
를, 오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와 시
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우니 우리
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하니라.

유다에 대한 책망

12 ¶ 그때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
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사람
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르기
를, 너희가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
가 말하노라.
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
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
나니 이 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
에 순종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
이지 아니하였도다.
15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
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
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
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
다.
17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
든 거주민을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
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
였느니라, 하라.
18 ¶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
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
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19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
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 36 장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의 제사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
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
가 네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 날까지 이스라엘과 유
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3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
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
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
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
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
하니라.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갇혀서 주의 집에 들어
갈 수 없으니
6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입에서
받아 네가 기록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금식하는 날에 주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또 유다
의 도시들에서 나오는 온 유다의 귀에
도 그것들을 낭독하라.
7 혹시 그들이 주 앞에서 자기들의
간구를 드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주께서 이 백성
을 향해 선언하신 분노와 격노가 크니
라, 하매
8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대언자 예
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주의 집에서 그 책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낭독하니라.
9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의 제오년 구월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온 백성과 유다의 도시들에서 예루살
렘에 이른 온 백성에게 주 앞에서 금식
할 것을 선포하매
10 그때에 바룩이 주의 집 위 뜰에
서 곧 주의 집의 새 문 어귀에 있던
방 즉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던 예레미야의 말들
을 온 백성의 귀에 낭독하니라.

두루마리를 왕궁에서 낭독함

11 ¶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
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을 듣고
12 그때에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
기관의 방으로 들어가매, 보라, 모든
통치자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
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나
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통치자들이 거
기 앉아 있더라.
13 이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
에 그 책을 낭독할 때에 자기가 들은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니
라.
14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이 구시
의 증손이요, 셀레미야의 손자요, 느
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
내어 이르되, 네가 백성의 귀에 낭독
한 것이 들어 있는 두루마리를 네 손에
들고 오라, 하였으므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자기 손에 들고
그들에게로 오매
1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앉
아서 그것을 우리 귀에 낭독하라, 하
니 이에 바룩이 그것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16 이제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
고 서로 두려워하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하고
17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 모든 말을 받아
기록하였느냐? 이제 우리에게 말하
라, 하매
18 그때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
되, 그가 내게 자기 입으로 이 모든
말씀을 소리 내어 말하므로 내가 잉크
로 이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였노라,
하니
19 이에 통치자들이 바룩에게 이
르되,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희가 있는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움

20 ¶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
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고하
니
21 이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
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
니라.
22 이제 왕은 구월에 겨울 집에 앉
아 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 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의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의 불에서 소멸시켰더
라.
24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의 아무도 두려워하거
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나단과 들
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중재하여 왕
이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아뢰
었으나 왕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26 오히려 왕이 함멜렉의 아들 여라
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
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
기관 바룩과 대언자 예레미야를 붙잡
게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
기셨더라.

대언자가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함

27 ¶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
들을 태운 뒤에 그때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
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29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르기
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
두루마리를 태우며 말하되, 네가 어
찌하여 그 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바빌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
고 이곳에서 사람과 짐승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느냐? 하였으니
30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
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서리를 맞으리라.
31 또 내가 그와 그의 씨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벌
하리라. 내가 그들과 예루살렘 거주민
들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였으
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라.
32 ¶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
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
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
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
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
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제 37 장

시드기야의 헛된 소망

1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
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통
치하였는데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레
살이 유다 땅에서 왕으로 삼은 자더라.
2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
를 통하여 이르신 그분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3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
바냐를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니라.
4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가 백성
가운데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였더라.
5 그때에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
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싼 갈대
아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니라.
6 ¶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 보내어 내
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온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들의 땅 이집트
로 돌아가고
8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도시와 싸워 그것을 빼앗고 불태우리
라.
9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
라.
10 비록 너희가 너희와 싸우는 갈
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
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도시를 불태우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옥에 갇힘

11 ¶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파라
오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서 떠나 흩어졌을 때에
12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아
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은*
거기서 즉 백성의 한가운데서 *떠나*
떨어져 지내고자 함이더라.
13 그가 베냐민의 성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
들로서 이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파수
대 대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대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갈대
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도다, 하매
14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것은 거짓이라.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
게 항복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
고 이처럼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
아 통치자들에게로 데려오니라.
15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예레미야
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던 감옥에 가두었으
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감옥으로 삼았
기 때문이더라.
16 ¶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의 골방
에 들어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
더니
17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자기 집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이르되, 주로부
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매 예레미
야가 이르되,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
르시기를, 네가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
지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8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
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19 바빌론 왕이 와서 당신들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며 당신들
에게 대언하던 당신들의 대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이까?
20 그러므로, 오 내 주 왕이여, 원
하건대 이제 들으소서. 원하건대 왕
께서는 왕 앞에 드리는 나의 간구를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21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게 하
고 또 빵 만드는 자들의 거리에서 나오
는 빵 한 조각을 날마다 그에게 주게
하되 그 도시에서 빵이 다 떨어질 때까
지 *그리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예레미
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제 38 장

예레미야가 지하감옥에 갇힘

1 그때에 맛단의 아들 스바댜와 바
스훌의 아들 그달리야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른 말들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도시
에 남아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되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
는 살리니 그는 자기 생명을 탈취물로
얻어서 살리라.

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도시
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이 도시를 취하리
라, 하더라.
4 그러므로 그 통치자들이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백성의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를 구하오
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
가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이
도시에 남아 있는 군사들의 손과 온
백성의 손을 이같이 약하게 하나이
다, 하매
5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
라, 그가 너희 손에 있나니 왕은 너희
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노
라, 하니라.
6 이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함멜렉의 아들 말기야의 지하 감옥 곧
감옥 뜰에 있던 지하 감옥에 던져 넣으
며 예레미야를 밧줄로 달아 내리니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
므로 예레미야가 이처럼 진창 속에 빠
졌더라.
7 ¶ 이제 왕의 집에 있던 내시들
중의 하나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
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넣었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
이 베냐민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으므
로
8 에벳멜렉이 왕의 집에서 나아가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9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대언
자 예레미야 즉 자기들이 지하 감옥에
가둔 자에게 행한 모든 일에서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도시에 더 이상 빵
이 없으므로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10 그때에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
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대언자 예레미
야가 죽기 전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라, 하니라.
11 이에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
고 왕의 집으로 가서 보고 밑으로 들어
가 거기서 오랫동안 버려둔 헝겊과
오래되어 낡은 누더기를 가져다가 그
것들을 지하 감옥의 예레미야에게 밧
줄로 내리며
12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
레미야에게 이르되, 오랫동안 버려둔
이 헝겊과 낡은 누더기를 이제 네 두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밑에 대
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리하거늘
13 이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므
로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의 공포와 예레미야의 조언

14 ¶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
을 보내어 대언자 예레미야를 주의 집
의 셋째 입구로 데려와 자기에게 이르
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하거늘
15 그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왕께 밝히
말할지라도 왕이 확실히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왕께 조언을
드릴지라도 왕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
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매
16 이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
게 은밀히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
게 이 혼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또 네 생명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너를 내주지도 아니
하리라, 하니라.
17 이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가 만일 확신을 가지고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에게로 나아가면 네 혼이
살고 이 도시가 불타지 아니하며 너
와 네 집이 살려니와
18 네가 만일 바빌론 왕의 통치자
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도시
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도시를 불태우고 너도 그들
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하매
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
르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
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20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
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이다.
21 그러나 왕이 만일 나아가기를
거절하시면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말씀이 이러하니이다.
22 보라, 유다 왕의 집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에
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이 말
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부추기고
너를 눌러 이겼은즉 네 발이 진창에
빠졌고 그들이 뒤로 물러갔도다, 하
리라.
23 그러므로 그들이 네 모든 아내
와 네 자녀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로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붙잡
히리라. 또 네가 이 도시로 하여금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
다.*
24 ¶ 이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게 이르되, 아무도 이 말들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
니하려니와
25 만일 통치자들이 내가 너와 이
야기하였다는 것을 듣고 네게 와서
네게 이르되, 네가 왕에게 말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우리에
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
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한 것도 *밝히 말하라*, 하거든
26 그때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
를, 내가 왕 앞에서 간구 드리되 내가
요나단의 집에서 죽지 않도록 그분께
서 나를 거기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을
구하였노라, 하라, 하니라.
27 그 뒤에 모든 통치자들이 예레
미야에게 와서 그에게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이 모든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 일이 알려지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그와 말하기를
그치고 떠나니라.
28 이처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까지 감옥 뜰에 거하였으
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거기 있었
더라.

제 39 장

예루살렘 함락
(왕하25:1－12; 렘52:4－16)

1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구년 시월
에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과 그의 온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것을
에워싸매
2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사월 곧 그
달 구일에 그 도시가 함락되니라.
3 바빌론 왕의 모든 통치자들이
들어와 가운데 문에 앉았으니 곧 네
르갈사레셀과 삼갈느보와 살스김과
랍사리스와 네르갈사레셀과 랍막이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4 ¶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
가 그들을 보고는 그때에 도망하여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을 통해 도시를 빠져
나왔으며 그는 평야 길로 나갔더라.
5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
기야를 따라잡고 그를 붙잡아 하맛 땅
의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 느부갓네
살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거기서 그에
게 심판을 내리니라.
6 그때에 바빌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바빌론 왕이 유다의 모든
고귀한 자들도 죽이며
7 또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사슬로
묶었더라.
8 ¶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왕의 집과
백성의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
벽을 헐었더라.

9 그때에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도시에 남아 있던 백성의 남은 자들
과 또 떨어져 나와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거기에* 남아 있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으나
10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
유도 없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일부
를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와 동시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음

11 ¶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
대한 책무를 주며 이르되,
12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조
금도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13 이에 호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
부사스반과 랍사리스와 네르갈사레셀
과 랍막과 바빌론 왕의 모든 통치자들
14 곧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감옥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
게 맡겨 그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이에 그가 백성 가운데 거하니
라.
15 ¶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주려
고 내 말들을 가져다가 이 도시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 말들이 그 날에 네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17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에
내가 너를 건질 터인즉 네가 두려워하
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네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18 네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니 네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네게
탈취물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
라, 하시니라.

제 40 장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음
(왕하25:22-26)

1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를 붙잡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포로
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곧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가운
데 두고 사슬로 묶었다가 라마에서
풀어 준 뒤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2 호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가 그에게 이르되, 주 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시고
3 이제 주께서 그것을 가져오사 친
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
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라.
4 이제, 보라, 내가 이 날 너를 네
손의 사슬에서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주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나
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나쁘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가기에 좋게 여기
며 편하게 여기는 곳으로 거기로 가
라, 하니라.
5 이제 그가 아직 돌아가기 전에
그가 이르되, *너는* 또한 바빌론 왕이
유다의 도시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
은 자 곧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
인 그달리야에게 돌아가 그와 함께 백
성 가운데 거하거나 혹은 어디든지
네가 가기에 편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하고 이처럼 그 호위대장이 그
에게 식량과 보상을 주어 가게 하니
라.
6 이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이르러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 있던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7 ¶ 이제 들에 있던 군대의 모든
대장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빌
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고 포로가 되어 바빌
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한 자들과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중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듣고
8 이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
마엘과 가레아의 아들들 요하난과 요
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이 미스바로 나아와 그달리야에게 이
르니라.
9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
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갈대아 사
람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리라.
10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나는 미스
바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올 갈대아 사
람들을 섬기려니와 너희는 포도즙과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너희 그릇에
담고 너희가 취한 너희 도시들에 거하
라, 하니라.
11 그와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
족속 가운데와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바빌론 왕이 유
다의 남은 자를 남겨 두었다는 것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세웠다
는 소식을 듣고
12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쫓겨나서 *머물던* 모든 곳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이르러 포도즙과 여름 과일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13 ¶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의 모든 대장이 미스바
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이르러
14 그에게 말하되,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네가 확실
히 아느냐? 하였으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
더라.
15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
스바에서 그달리야에게 은밀히 말하
여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느다냐
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아무
도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그가 너를 죽이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하며 유다 안의
남은 자들이 망하게 하겠느냐? 하니
라.
16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
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네가 이스
마엘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하니라.

제 41 장

그달리야에 대한 반역

1 이제 일곱째 달에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
들인 이스마엘이 왕의 통치자들 곧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이르니라. 그들이
거기서 미스바에서 함께 빵을 먹더라.
2 그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 사반
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
곧 바빌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삼은 자를 칼로 쳐서 죽이고
3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한 곧 그달리야와 함께한 모든 유
대인들과 거기서 발견된 갈대아 사람
들과 군사들을 죽였더라.
4 그가 그달리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
라.
5 그때에 팔십 명이나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는 손에
헌물과 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
마리아로부터 나아와 그것들을 주의
집으로 가져가려 하니라.

6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러 미스바에서 나아가면서 갈
때에 줄곧 울고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
게로 오라, 하니라.
7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의 한가운
데 이르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을 죽여 구덩
이 한가운데로 던지니라.
8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던 열 사람
이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죽이
지 말라.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
과 꿀을 모아 둔 것이 들에 있노라,
하매 이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
라.
9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로
인하여 죽인 사람들의 모든 시체를
던져 넣은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
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판 것이더
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임
당한 사람들로 그것을 채우고
10 그때에 미스바에 있던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 곧 왕의 딸들과 미스바
에 남아 있던 온 백성 즉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
에게 맡긴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니
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며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요하난이 백성을 구출함

11 ¶ 그러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의 모든 대장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하여 듣고는
12 그때에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
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물 곁에서 그를
만나니
13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온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을 보고 반가
워하니라.
14 이처럼 이스마엘이 미스바로부
터 포로로 끌어간 온 백성이 돌이키고
돌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가니라.
15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은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으로부터
도망하여 암몬 족속에게로 가니라.
16 그때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이 느다
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죽이고 미스바로부터 끌
고 간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 곧 전쟁
의 용사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시
들을 이스마엘로부터 되찾고 기브온
에서 다시 그들을 데려오니라.
17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떠
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김함의 처소에
거하였으니
18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더
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삼은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저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제 42 장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고

1 그때에 군대의 모든 대장과 가레
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
사냐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가까이
나아와
2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청
하건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
소서. (당신의 눈이 우리를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만
남았으니)
3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
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
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4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
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보라, 내가 너희 말대로 주 너희 하나님
께 기도하고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으
로 응답하시든지 너희에게 그것을 밝

히 알리며 아무것도 너희에게 감추지
아니하리라, 하니
5 그때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
르되, 만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
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루시려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
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
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6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
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
면 잘되리이다, 하니라.
7 ¶ 열흘 뒤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
야에게 임하니
8 그때에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
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대장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
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주 곧 이스라엘
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0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 땅에 머
무르고자 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노라.
11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두려워
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
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지리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12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
니 그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희
를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3 ¶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
를,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
라, 하며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
종하지 아니하고
14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
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빵의 굶주림도 있지 아니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리라,
하면
15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런
즉 이제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만군
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이집트로 들어
가려고 너희 얼굴을 확실히 고정하고
가서 거기에 머무르려 하면
16 너희가 두려워하던 칼이 거기
곧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무서워하던 기근이
거기 곧 이집트에서 너희 뒤를 바싹
따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17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
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리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 중 아무
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피해
살아남거나 도피하지 못하리라.
18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분노와 내
격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쏟아
진 것 같이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 내 격노가 너희에게 쏟아지리니
너희가 혐오거리와 놀랄 일과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19 ¶ 오 너희 곧 유다의 남은 자
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
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이 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20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주 우
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
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에
게 밝히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
하리이다, 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속
였느니라.
21 이제 내가 이 날 그것을 너희에
게 밝히 알렸으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
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
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루시려*
는 것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22 그런즉 이제 너희가 가서 머물
고자 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하니라.

제 43 장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감

1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
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루시려 한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끝마치니
2 이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
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
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가 거짓으로 말하는도다. 주 우리 하
나님께서 너를 보내사, 이집트에서 머
무르려고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하
고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 단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갈대
아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너를 부추기나니 이
것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가
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4 이처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대장과 온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
하지 아니하고
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대장이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
즉 쫓겨나서 *함께 거하던* 모든 민족들
로부터 돌아와 유다 땅에 거하려 하는
자들
6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
리야와 함께 남겨 둔 모든 사람과 대언
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려가니라.
7 이처럼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
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와 같이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더
라.
8 ¶ 그때에 다바네스에서 주의 말
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9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네 손으
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벽돌로 쌓은
가마 안의 진흙 속에 숨기라. 그 가마
는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어귀
에 있느니라.
10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
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어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을
데려오고 내가 숨긴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세우리니 그가 그 돌들 위에
왕가의 천막을 치리라.
11 그가 오면 이집트 땅을 쳐서 죽
일 자는 죽음에 넘기고 포로 삼을 자는
포로로 넘기며 칼로 칠 자는 칼에 넘기
리라.
12 또 내가 이집트의 신들의 집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
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며 또 목자가
자기 옷을 입음같이 그가 이집트 땅으
로 자기를 단장하고 평안히 거기에서
나아가리라.
13 그가 또한 이집트 땅에 있는 벧
세메스의 형상들을 부수고 이집트 사
람들의 신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제 44 장

이집트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고

1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
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
스 지방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레
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예
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린 모
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이 날
그것들이 황폐한 곳이 되어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3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
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
켰느니라.
4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보내며 이르기를, 오 내가 미
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아니하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그러므로 내 격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의 거리들에 불을 붙였더니 그것들이
이 날과 같이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었
느니라.
7 그러므로 이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
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너희 혼을 해하며 유다에서 남
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를 너희로
부터 끊어 버려 너희에게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8 어찌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진노를 일으키고 너희가
거하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너희 자신을 끊어
버림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 유다의 땅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에서 그들이 범한 것 즉 너희 조상들의
사악한 *행위*와 유다 왕들의 사악한
*행위*와 그들의 왕비들의 사악한 *행위*
와 너희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와 너희
아내들의 사악한 *행위*를 너희가 잊었
느냐?
10 그들이 이 날까지도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
느니라.
11 ¶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
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내가 화를 내리려고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리며
12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잡으리니 그들
이 다 소멸되어 이집트 땅에서 쓰러지
리라. 그들이 심지어 칼과 기근에 소
멸되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혐오거리와 놀랄 일과 저주와 수치거
리가 되리라.
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
과 역병으로 벌하리니
14 그러므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의 아무도 피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되
돌아가서 거하기 원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되돌아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5 ¶ 그때에 자기 아내가 다른 신
들에게 분향한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거하던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16 네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른 그 말에 관하여는 우리가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17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아
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
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
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
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
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
되었느니라, 하며

19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
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에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그녀
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
요? 하니라.
20 ¶ 이에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와 같이 응답한 남자들과
여자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
되,
21 너희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
렘의 거리들에서 태운 향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통치
자들과 그 땅의 백성이 태운 향을 주께
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느냐?
22 그런즉 주께서 너희의 악한 행
위들과 너희가 저지른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셨으며 그런
까닭에 너희 땅이 이 날과 같이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23 너희가 분향하고 주께 죄를 지
었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
고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
와 그분의 증언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 재앙이 이 날과 같이 너희에
게 일어났느니라, 하니라.
24 또한 예레미야가 온 백성과 모
든 여자에게 이르되,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
25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
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너희 입으
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이루며 말하기
를, 우리가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
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
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
라, 하였은즉 너희가 반드시 너희 서
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26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거하는
온 유다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집트 온 땅
에 거하는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다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으리
라.
27 보라, 내가 깨어 그들을 지켜보
며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
니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이 칼과 기근에 소멸되어 마침내 그들
의 끝이 있으리라.
28 그럼에도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트 땅으로 들
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한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자기들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설지 알게 되리
라.
29 ¶ 주가 말하노라. 이것 즉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는 것이 너희에
게 표적이 되리라. 이로써 내 말들이
확실히 서서 너희를 치고 화를 가져올
줄을 너희가 알리라.
3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던 바빌론 왕 느부갓
레살의 손에 내준 것 같이 이집트 왕
파라오호브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내주리
라.

제 45 장

바룩에 대한 주의 말씀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사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
야의 입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대언자 예레미야
가 그에게 일러 준 말이라. 이르되,
2 오 바룩아,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
님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3 네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주께서 나의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하며 쇠약하
여 안식을 찾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라.
4 ¶ 너는 그에게 이같이 이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으리라. 이 온 땅이라도 그리
하겠거늘
5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들을 구하
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
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생명을 네게 탈취물로 주리
라. 주가 말하노라.

제 46 장

이집트에 대한 심판

1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
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2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요,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 있던
이집트 왕 파라오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야김의 제사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레
살이 그를 쳤더라.
3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정비하고 싸움터로 가까이 나아가라.
4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얹
고 일어나 투구를 쓰고 서서 나아가며
창을 갈고 사슬 갑옷을 입으라.
5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본은 무슨
까닭이냐? 그들의 용사들이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
함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라.
6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
도 피하지 못할지니 그들이 유프라테
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북쪽을
향해 쓰러지리로다.
7 홍수같이 올라오는 이자는 누구
냐? 홍수 같은 물들이 강처럼 움직이
는도다.
8 이집트는 홍수같이 일어나고 그
것의 물들은 강물같이 움직이는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땅을 덮
고 그 도시와 그것의 거주민들을 멸하
리라, 하는도다.
9 말들아, 너희는 올라올지어다.
병거들아, 너희는 성내어 날뛸지어
다. 용사들 곧 방패를 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과 활을 쓰고
당기는 루디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
올지니
10 이 날은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날
이요, 원수 갚는 날이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
리로다. 칼이 삼키며 그들의 피로 충
만하여 취하리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
생물을 취하는도다.
11 오 처녀, 이집트의 딸이여, 길르
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취하라. 네가
많은 약을 헛되이 쓰리니 네가 고쳐지
지 못하리라.
12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그 둘이 같이 쓰러졌으므로 민족들이
네 수치를 들었으며 네 부르짖음이
땅을 채웠도다.

바빌론의 이집트 침공

13 ¶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에 대하여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라.
14 너희는 이집트에서 밝히 알리며
믹돌에서 널리 알리고 놉과 다바네스
에서 널리 알리며 이르기를, 굳게 서
서 네 자신을 예비하라. 칼이 네 사방
에서 삼키리로다.
15 어찌하여 너의 용맹한 자들이
쓸려갔느냐? 주가 그들을 몰아내었
으므로 그들이 서지 못하였느니라.
16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
매 참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쓰러졌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일어
나라. 우리가 학대하는 칼을 피하여
우리의 친 백성에게로, 우리가 태어
난 땅으로 다시 가자, 하며
17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
집트 왕 파라오는 단지 요란한 소리로
다. 그가 약정한 때를 넘겼도다, 하였
느니라.
18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

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
하노니 그가 반드시 산들 가운데 있는
다볼같이 오며 바닷가의 갈멜같이 오
리라.
19 오 이집트에 거하는 딸이여, 놉
이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니 포로가 될 준비를 하라.
20 이집트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
지 같을지라도 멸망이 임하되 그것이
북쪽에서 임하느니라.
21 또 그녀가 고용한 자들은 살진
수소들같이 그녀의 한가운데 있나니
그들도 뒤로 돌아서서 함께 도망하였
도다.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과 그
들을 징벌하는 때가 그들에게 임하였
으므로 그들이 서지 못하였도다.
22 그것의 소리가 뱀같이 가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와 함께 진격하고
나무 베는 자들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23 주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이집
트의 숲을 능히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베어 넘어뜨리리니 이
는 그들이 메뚜기보다 더 많아 셀 수
없기 때문이라.
24 이집트의 딸이 당황하고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25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의 신들과 그
들의 왕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파라
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
리라.
26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리
라. 그 뒤에는 그것이 옛날처럼 사람
이 거주하는 곳이 되리라. 주가 말하
노라.

이스라엘은 보존됨

27 ¶ 오 내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
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부터 구원하며 네 씨를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
아와 안식하며 편안히 거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28 주가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
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쫓아내어 *함께
거하게 한*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내가 적절히 너를 바
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제 47 장

블레셋에 대한 심판

1 파라오가 가자를 치기 전에 블레
셋 사람들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미야
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
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위에 넘치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부르
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울부짖
으리라.
3 그의 힘센 말들이 내닫는 발굽
소리와 그의 병거들이 돌진하는 소리
와 그의 바퀴들이 구르는 소리에 아버
지들이 손에 힘이 빠지므로 뒤돌아서
자기 자녀들을 보지 못하리니
4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노
략하기 위해 또 남아서 *그들을* 돕는
모든 자를 두로와 시돈에서 끊어 버
리기 위해 임하는 날 때문이라. 주가
블레셋 사람들 곧 갑돌 지방의 남은
자들을 노략하리라.
5 대머리 되는 일이 가자에게 임하
였고 아스글론은 자기 골짜기에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끊어졌나니 네가
어느 때까지 네 몸을 베려느냐?
6 오 주의 칼이여, 네가 얼마나 지
나야 잠잠하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
가서 쉬며 조용히 있을지니라.
7 주가 그 칼에게 아스글론과 그
해변을 칠 책무를 주었은즉 어찌 그
칼이 잠잠하겠느냐? 거기서 그가 그

칼을 지정하였느니라.

제 48 장

모압에 대한 심판

1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곧 이스
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느
보가 노략을 당하였은즉 느보에게 화
가 있을지어다! 기랴다임은 참패를 당
하고 탈취를 당하였으며 미스갑은 참
패를 당하고 놀라게 되었도다.
2 모압을 칭송함이 다시는 없으리
로다. 그들이 헤스본에서 모압을 해하
려고 악을 꾀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
리가 모압을 끊어서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였도다. 오 맛멘아,
너도 끊어져서 쓰러지리니 그 칼이
너를 추격하리라.
3 부르짖는 소리가 호로나임에서
나오리니 노략과 큰 파멸의 *소리*로
다.
4 모압이 멸망을 당하매 그녀의 어
린것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
렸나니
5 루힛의 올라가는 곳에서 슬피 우
는 소리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것이
며 호로나임의 내려가는 곳에서 원수
들이 멸망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도
다.
6 도망하여 너희 생명을 구원하고
광야의 히스나무같이 될지어다.
7 ¶ 네가 네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
였으므로 너 역시 탈취를 당하고 그모
스는 자기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함
께 포로가 되어 가리라.
8 노략하는 자가 모든 도시에 이를
터인즉 어떤 도시도 피하지 못하며
주가 말한 대로 골짜기도 멸망하고
평야도 파멸을 당하리로다.
9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 모압이 도
망하게 하고 피하게 하라. 그것의 도
시들이 황폐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없으리라.
10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
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11 ¶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
히 지내고 자기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
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
고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지도 아니
하며 또 모압이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
였도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의 맛이
남아 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
였도다.
12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
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떠돌아다
니는 자들을 그에게 보내리라. 그들
이 그를 떠돌아다니게 하며 그의 그릇
들을 비우고 그들의 부대들을 찢으리
라.
13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이 신뢰
하던 벧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
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14 ¶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
는 싸움에 능하며 강한 자라, 하느냐?
15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
하노라. 모압은 노략을 당하고 자기
도시들에서 나와 올라갔으며 그의 택
한 젊은이들은 도살장으로 내려갔도
다.
16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이르렀고
그의 고난이 속히 임하는도다.
17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여,
너희는 그를 위해 탄식하라. 그의 이
름을 아는 모든 자여, 너희는 말하기
를, 어찌 튼튼한 지팡이, 아름다운
막대기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18 디본에 거주하는 딸아, 너는 네
영광으로부터 내려와 목말라 하며 앉
으라. 모압을 노략하는 자가 네게 임
하여 네 강한 요새들을 멸하리로다.
19 오 아로엘의 거주민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며 도망하는 남자와 도피
하는 여자에게 물어 이르기를,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라.
20 모압이 무너졌으므로 당황하게
되었나니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
고 그 일 곧 모압이 노략을 당한 것을

아르논에서 전할지어다.
21 심판이 평야 지방에 임하였나
니 곧 홀론과 야하사와 메바앗과
22 디본과 느보와 벧디불라다임과
23 기랴다임과 벧가물과 벧므온과
24 그리옷과 보스라와 및 멀리 있거
나 가까이 있는 모압 땅의 모든 도시에
임하였도다.
25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26 ¶ *그*가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니 너희는 그로 하여금 취
하게 하라. 또한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며 조롱을 당하리로다.
27 이스라엘이 네게 조롱거리가 아
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발
견되었느냐? 네가 그에 대하여 말한
이후로 기뻐 뛰었느니라.
28 오 모압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
는 도시들을 떠나 바위에 거하며 구멍
어귀 옆에 자기 둥지를 트는 비둘기같
이 될지어다.
29 우리가 모압의 교만 곧 그의 거
만과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건방
짐에 대하여 들었거니와 (그가 지극
히 교만하도다.)
30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의 진노
를 알거니와 일이 그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거짓말들이 그것을 그
대로 이루지 못하리라.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내가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내 마음이 길헤레스 사
람들을 위하여 애곡하리로다.
32 오 십마의 포도나무야, 내가 너
를 위하여 울되 야셀의 울음으로 울리
라. 너의 초목들이 바다를 넘어 야셀
의 바다에까지 이르나니 노략하는 자
가 너의 여름 과일과 너의 수확할 포도
위에 임하였도다.
33 풍요한 들과 모압 땅에서 기쁨
과 즐거움이 사라졌도다. 내가 포도
즙 틀에서 포도즙이 끊어지게 하리니
아무도 *기쁘게* 외치며 밟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기쁜*
외침의 소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34 그들이 삼 년 된 암송아지같이
자기 목소리를 내매 헤스본의 부르짖
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엘르알레에까
지 이르고 야하스에까지 이르며 또
소알로부터 호로나임에까지 이르렀
으니 이는 니므림의 물들도 황폐할
것이기 때문이라.
35 주가 말하노라. 또한 산당들에
서 *헌물을* 드리는 자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모압에서 끊어지
게 하리라.
36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
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내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리니 이는 *그*가 얻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37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수염이 깎이리니
모든 *사람의* 손에 베인 *상처가* 있고
허리는 굵은 베로 둘리리라.
38 내가 모압을 기뻐할 것이 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으므로 모압의 모든
지붕과 그것의 거리들에 널리 애통함
이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39 그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것이 파괴되었는가! 어찌 모압
이 수치스러워하며 등을 돌렸는가!
하리니 그런즉 모압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랄 일이
되리라.
4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서 모압 위에
자기 날개를 펴리라.
41 그리옷은 탈취를 당하고 강한
요새들은 놀랐나니 그 날에 모압에
있는 용사들의 마음이 산통을 겪는
여인의 마음 같으리라.
42 또 모압이 자기를 크게 하여 주
를 대적하였으므로 멸망을 당해 백성
을 이루지 못하리로다.
43 오 모압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네 위에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44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구

덩이에 떨어지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그것 위에 즉 모압 위에
임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45 도망한 자들이 군대로 인하여
헤스본의 그늘 아래 섰으나 불이 헤스
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혼의 한가운
데서 나와 모압의 모퉁이와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삼키리라.
46 오 모압아,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멸망하나니 네 아들
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네 딸들이
포로가 되었도다.
47 ¶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
라. 주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
기까지니라.

제 49 장

암몬에 대한 심판

1 암몬 족속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
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
데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
며 그의 백성이 갓의 도시들에 거하느
냐?
2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암몬 족속의
랍바에서 전쟁의 경고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랍바는 황폐한 무더기가 되
고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타리니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상속했던 자들에
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3 오 헤스본아, 아이가 노략을 당하
였으니 울부짖을지어다. 랍바의 딸들
아, 너희는 부르짖으며 굵은 베를 두
르고 애통하며 울타리 옆으로 이리저
리 달리라. 그들의 왕과 그의 제사장
들과 그의 통치자들이 다 같이 포로로
잡혀가리라.
4 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네가
골짜기 곧 너의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
하느냐? 그녀가 자신의 재물을 신뢰
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로 오리요?
하였도다.
5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로부터 두려움을 가져다가 네 위에
임하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당장에
쫓겨날 것이요, 아무도 떠돌아다니는
자를 모으지 아니하리라.
6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
하노라.

에돔에 대한 심판

7 ¶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데만에 더 이상 지
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자들에게서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8 오 드단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돌이켜 도망하고 깊은 곳에 거할지어
다. 내가 에서의 재난 곧 내가 그를
징벌하는 때를 가져다가 그 위에 임하
게 하리라.
9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
면 이삭줍기를 할 포도를 얼마는 남기
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도둑들이 이
르면 충분히 취할 때까지만 파괴하리
라.
10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은밀한 곳들을 드러내었으니 그
가 자신을 숨기지 못하리라. 그의 씨
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이웃들이 노략
을 당하였은즉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
느니라.
11 아버지 없는 네 자녀들을 남겨
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 보존하리니
네 과부들은 나를 신뢰할 것이니라.
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심판을 받아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확실히 마셨거늘 네가
전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겠느냐?
네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가지 못하며
반드시 그 잔을 마시리라.
1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보
스라가 황폐한 곳과 수치거리와 폐허
와 저주거리가 되고 그것의 모든 도시
들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였노

라. 주가 말하노라.
14 내가 주로부터 오는 소문을 들
었노라. *그분께서* 대사를 이교도들에
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함께
모여 와서 보스라를 치고 싸우러 올라
가라.
15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
데서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받게 하리로다.
16 오 바위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여, 네 두려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네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게 지을
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
라. 주가 말하노라.
17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
것의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거기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웃으
리로다.
18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이 멸망한
것 같이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
고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
하리라.
19 보라, 그가 요르단의 범람한 곳
으로부터 사자같이 올라와 강한 자의
처소를 치리라. 그러나 내가 갑자기
그로 하여금 그녀를 떠나 달아나게
하리라. 내가 그녀를 다스릴 자로 정
하여 택한 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으냐? 누가 내게 때를 정해 주겠느
냐? 내 앞에 설 그 목자가 누구냐?
20 그러므로 주가 친히 에돔을 향
하여 세운 계획과 친히 데만의 거주민
들을 향하여 작정한 의도들을 들으
라. 양 떼의 가장 작은 자가 반드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가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처소들을 황폐하게 하
리라.
21 그들의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것의 부르짖는 소리가 홍
해에 들렸느니라.
22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올라와
서 날며 보스라 위에 자기 날개를 펴리
니 그 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산통을 겪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
라.

다마스쿠스에 대한 심판

23 ¶ 다마스쿠스에 관한 *말씀이
라*. 하맛과 아르밧이 나쁜 소식을 듣고
낙심하였으므로 그들이 당황하였도
다. 바다에 슬픔이 있으므로 그것이
평안하지 못하리로다.
24 다마스쿠스가 연약하게 되어 몸
을 돌이켜 도망하려 하매 두려움이
다마스쿠스를 움켜잡으며 산고를 겪
는 여인에게 임하듯 고민과 고통이
다마스쿠스를 사로잡았도다.
25 어찌 찬양 받는 도시, 내가 기뻐
하는 도시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가!
26 그런즉 그 날에 다마스쿠스의
청년들이 그녀의 거리들에서 쓰러지
며 모든 군사가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27 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
을 놓아 벤하닷의 궁궐들을 소멸시키
리라.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28 ¶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쳐부
술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하여 주
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쪽 사람들을 노략
하라.
29 그들이 저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저들의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고 저들
에게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
다, 하리라.
30 ¶ 주가 말하노라. 오 하솔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바빌론 왕 느부갓
레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너희
를 칠 것을 작정하였느니라.
31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일어나
염려 없이 거하는 부유한 민족 곧 성문
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하는 민족
에게로 올라갈지어다.
32 그들의 낙타들은 전리품이 되
고 그들의 가축 무리는 노략물이 되리
라. 내가 먼 구석에 있는 그들을 모든

바람 속으로 흩고 그들의 재난을 거기
의 사면에서부터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33 하솔은 용들의 거처가 되고 영
원히 황폐한 곳이 되리니 아무도 거기
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엘람에 대한 심판

34 ¶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엘람에 대하여 대언자 예
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르
시되,
35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의
으뜸 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36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
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으리
니 엘람의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
할 민족이 없으리라.
37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재앙 곧 나의 맹렬
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
라.
38 내가 나의 왕좌를 엘람에 세우
고 왕과 통치자들을 그곳에서 멸하리
라. 주가 말하노라.
39 ¶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
라. 주가 말하노라.

제 50 장

바빌론에 대한 심판

1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향하
여 하신 말씀이라.
2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알
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를 세우라. 널
리 알리고 숨기지 말며 말하기를, 바
빌론이 탈취를 당하고 벨이 당황하며
므로닥이 산산조각 부서졌고 그녀의
우상들은 당황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부서졌다, 하라.
3 한 민족이 북쪽에서 나와 그녀를
치고 그녀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아무
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 곧 사람과 짐승이 다 움직이고
떠나가리라.
4 ¶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
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5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
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
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
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도
다.
7 그들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주 곧 정의의 처소이시며 자기
조상들의 소망이신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잘못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8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이동
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나아가며 양 떼 앞에 가는 숫염소들같
이 될지어다.
9 ¶ 보라, 내가 큰 민족들의 집회
를 북쪽 지방에서 일으키고 *그들이*
올라와서 바빌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
이 전열을 갖추어 그녀를 치고 거기서
그녀를 탈취하리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으리니 어떤
것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10 또 갈대아가 노략물이 되며 그
녀를 노략하는 모든 자가 만족하리
라. 주가 말하노라.
11 오 나의 유산을 파괴하는 자들
아, 그 까닭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
워하였으며 풀밭의 암송아지같이 자

라서 기름지고 황소들같이 큰 소리로
울기 때문이로다.
12 너희 어머니가 심히 당황하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부끄러움을 당하
리라. 보라, 민족들 중에서 맨 뒤에
있는 자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되리니
1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곳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고 전체가 황폐
하게 되리라. 바빌론 곁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녀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14 전열을 갖추고 사방에서 바빌론
을 치라. 그녀가 주에게 죄를 지었으
니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화살을 아끼지 말고 그녀를 향하여
쏘라.
15 사방에서 그녀를 향하여 소리
를 지르라. 그녀가 자기 손을 주었도
다. 그녀의 기초들은 무너졌으며 그
녀의 성벽들은 허물어졌으니 그것은
주의 복수로다. 그녀에게 원수를 갚
으라. 그녀가 행한 대로 그녀에게 행
할지어다.
16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빌론에서 끊어 버리
라. 학대하는 칼이 두려우므로 그들
이 각 사람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
게 할 것이요, 그들이 각각 자기 땅으
로 도망하리라.
17 ¶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처음에
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
에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그의
뼈들을 꺾었도다.
18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
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19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
서 먹고 그의 혼이 에브라임 산과 길르
앗에서 만족하리로다.
20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에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
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
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21 ¶ 주가 말하노라. 올라가서 므
라다임의 땅을 치라. 그 땅을 치고 브곳
의 거주민들을 치라. 그들의 뒤를 따
라가서 피폐하게 하고 진멸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라.
22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
의 소리가 있도다.
23 어찌 온 땅의 쇠망치가 쪼개어
지고 부러졌는가! 어찌 바빌론이 민족
들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되었는가!
24 오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
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도 걸렸으되
알지 못하였도다. 네가 주를 대적하
여 다투었으므로 발각되고 또한 붙잡
혔도다.
25 주가 자신의 무기고를 열고 자
신의 격노의 무기들을 가져왔으니 이
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주 만군
의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니라.
26 그녀를 치려고 먼 지역으로부
터 오고 그녀의 창고를 열며 그녀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고 그녀를 진멸
하며 그녀의 소유 중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라.
27 그녀의 모든 수소를 죽이라. 그
들을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할지니라.
그들의 날 곧 그들을 징벌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28 바빌론 땅에서 나와 도망하고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지니*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것,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을 시온에서 밝히 알리는 *소리로다.*
29 활 쏘는 자들을 함께 불러 바빌
론을 치게 하라.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사방에서 그것을 치
려고 진을 치고 거기에서 아무도 피하
지 못하게 하라. 그녀가 교만하여 주
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대적하였으니 그녀가 일한 대로 그녀
에게 갚아 주고 그녀가 행한 모든 것대
로 그녀에게 행할지니라.

30 그러므로 그녀의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그녀의 모든 군사
들도 그 날에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
노라.
31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너 지극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징벌하는 때가 이르렀느니라.
32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
지고 쓰러질 터이나 아무도 그를 일으
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도시들
에 불을 놓아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게 하리라.
33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당하였도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모든 자들이 그들을 굳게
붙들고 그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
도다.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가 그들의
사정을 철저히 변호하고 이로써 그
땅에 안식을 주며 바빌론의 거주민들
을 불안하게 하리라.
35 ¶ 주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
사람들과 바빌론의 거주민들과 그녀
의 통치자들과 그녀의 지혜로운 자들
위에 있도다.
36 칼이 거짓말쟁이들 위에 있으
므로 그들이 어리석게 되며 칼이 그녀
의 용사들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놀라
리라.
37 칼이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병
거들과 그녀의 한가운데서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여자들같이 될 것이요, 칼이 그녀의
보물들 위에 있으므로 그것들이 탈취
를 당하리라.
38 가뭄이 그녀의 물들 위에 있으
므로 그 물들이 마르리니 이는 그 땅이
새긴 형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자기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니라.
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섬들의 들짐승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
고 올빼미가 그 안에 거할 것이요,
그곳은 영원토록 다시는 사람이 거주
하지 아니하며 대대로 그곳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40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
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을
뒤엎은 것 같이 거기에 머물 자가 없게
하며 그 안에 거할 사람의 아들이 없게
하리라.
41 보라, 한 백성이 북쪽에서 오고
한 큰 민족과 많은 왕들이 땅의 여러
지역에서 일으켜지리로다.
42 그들은 활과 창을 붙잡으며 잔
인하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
의 목소리는 바다같이 울부짖으리로
다. 오 바빌론의 딸아, 그들이 말을
타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같이 각각
너를 향하여 전열을 갖추리로다.
43 바빌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문
을 듣고 두 손이 약하여졌으며 고통이
그를 굳게 붙들고 산고를 겪는 여인의
산통이 *그를 붙들었도다.*
44 보라, 그가 요르단의 범람한 곳
으로부터 사자같이 올라와 강한 자의
처소에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로 하여금 갑자기 그녀를 떠나 달아나
게 하리라. 내가 그녀를 다스릴 자로
정하여 택한 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으냐? 누가 내게 때를 정해 주겠느
냐? 내 앞에 설 그 목자가 누구냐?
45 그러므로 너희는 주가 친히 바
빌론을 향하여 세운 계획과 친히 갈대
아 사람들의 땅을 향하여 작정한 의도
들을 들으라. 양 떼의 가장 작은 자가
반드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가
반드시 그들과 및 그들의 처소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46 바빌론을 탈취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가운데 들렸느니라.

제 51 장

바빌론의 철저한 멸망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빌론

을 치고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치며
2 바빌론을 키질할 자들을 그녀에
게 보내어 그녀의 땅을 비우게 하리니
고난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치리라.
3 활을 쏘는 자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사슬 갑옷을 입고 우쭐대는
자를 향하여 자기 활을 당길지니라.
너희는 그녀의 젊은이들을 아끼지 말
며 그녀의 온 군대를 진멸하라.
4 이같이 죽임 당한 자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쓰러지며 꿰뚫린
자들이 그녀의 거리들에서 쓰러지리
라.
5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비록 그들
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대
적한 죄로 가득할지라도 자기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
느니라.
6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
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
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
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
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7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
로 미쳤도다.
8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
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
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9 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하고자 하
였으되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
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
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10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
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11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고 방패들
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
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그분의 계획은
바빌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그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12 바빌론의 성벽들 위에 군기를
세우라. 경계를 튼튼히 하고 파수꾼
들을 세우며 복병들을 예비하라. 주
께서 바빌론의 거주민들을 향해 말씀
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도다.
13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
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
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14 만군의 주께서 자신을 두고 맹
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사람
들로 너를 채우되 쐐기벌레로 채우는
것 같이 채우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호성을 높이리라, 하셨도다.
15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
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16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
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의 끝에서 수증기가 오르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17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
암아 짐승같이 되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였나니 그
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며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18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오류에
서 나온 것이니 그것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19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지 아
니하니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
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막대기니
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20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
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
라.
21 내가 너를 써서 말과 거기 탄
자를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병거와
거기 탄 자를 산산조각 내며

22 또 너를 써서 남자와 여자를 산
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늙은 자와 젊은
자를 산산조각 내며 너를 써서 청년과
처녀를 산산조각 내고
23 또 너를 써서 목자와 그의 양
떼를 산산조각 내며 너를 써서 농부와
그의 한 겨리 소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대장들과 치리자들을 산산
조각 내리라.
24 너희 눈앞에서 바빌론과 갈대아
의 모든 거주민이 시온에서 행한 악행
곧 그들의 모든 악행을 내가 그들에게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25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
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
하노라. 내가 내 손을 네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려 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26 그들이 네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석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가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
하노라.
27 너희는 그 땅에 군기를 세우고
민족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 민족들
을 예비하여 그녀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의 왕국들을 함께
불러 그녀를 치고 대장을 세워 그녀를
치며 말들로 하여금 거센 쐐기벌레같
이 올라오게 하라.
28 민족들을 예비하여 그녀를 치
되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것의 대장
들과 그것의 모든 치리자들과 그의
지배 하에 있는 온 땅과 더불어 그리하
라.
29 그 땅이 떨며 슬퍼하리니 주가
바빌론을 향해 의도한 모든 것을 이행
하여 바빌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거주
민이 없게 하리라.
30 바빌론의 용사들이 싸우는 것을
그치고 자기들의 요새에 머물렀으니
그들이 기력이 쇠하여 여자들같이 되
었도다. 그들이 그녀의 거처들을 불
태웠으며 그녀의 문빗장들을 부수었
도다.
31 파발꾼은 다른 파발꾼을 맞으
려고 달려가며 사자는 다른 사자를
맞으려고 달려가서 바빌론 왕에게 그
의 도시가 한쪽 끝에서 점령당했음을
알리고
32 또 통로들이 막히고 그들이 갈
대를 태웠으므로 군사들이 겁을 먹었
음을 알리리라.
33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34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나를 삼
키고 나를 짓눌렀으며 나를 빈 그릇으
로 만들고 용같이 나를 삼켰도다. 그
가 나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
고 나를 쫓아내었은즉
35 시온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나
와 내 육체에게 행한 폭력이 바빌론에
게 돌아갈지어다, 하고 예루살렘이 말
하기를, 내 피가 갈대아의 거주민들에
게 돌아갈지어다, 하리라.
36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네 사정을 변호하고
너를 위해 원수를 갚으며 그녀의 바다
를 마르게 하고 그녀의 샘들을 마르게
하리니
37 바빌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38 그들이 다 함께 사자같이 울부
짖으며 사자 새끼같이 소리를 지르리
라.
39 그들의 열기 속에서 내가 그들
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
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
노라.
40 내가 그들을 어린양들같이, 숫
염소들과 함께하는 숫양들같이 도살
장으로 데리고 내려가리라.
41 어찌 세삭이 탈취를 당하였는
가! 어찌 온 땅에서 칭송 *받는 자*가
놀라게 되었는가! 어찌 바빌론이 민족
들 가운데서 놀랄 일이 되었는가!

42 바다가 바빌론 위로 올라왔으므
로 그녀가 바다의 많은 파도에 덮였도
다.
43 그녀의 도시들은 황폐한 곳과
마른 땅과 광야와 또 안에 사람이 거하
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도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는 땅이 되었도다.
44 내가 바빌론에서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꺼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함께 흘러
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바빌론
성벽이 무너지리라.
45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
운데서 나올지어다. 너희는 각각 주
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
지어다.
46 너희 마음이 약하게 되며 너희
가 그 땅에서 들릴 소문을 두려워할까
염려하노라. 소문은 이 해에도 이르겠
고 그 뒤에 다른 해에도 소문이 이를
것이요, 그 땅에 폭력이 있겠고 치리
자가 치리자를 대적하리라.
47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
니 내가 바빌론의 새긴 형상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그녀의 온 땅이 당
황하고 그녀의 죽임 당한 모든 자들이
그녀의 한가운데서 쓰러지리라.
48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
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인하여 노래
하리니 이는 노략하는 자들이 북쪽에
서 나와 그녀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
라. 주가 말하노라.
49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죽임 당한
자들을 쓰러지게 한 것 같이 온 땅의
죽임 당한 자들이 바빌론에서 쓰러지
리라.
50 칼을 피한 자들아, 너희는 가만
히 서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멀리서
주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생각
속에 둘지어다.
51 우리가 치욕을 들었으므로 당
황하였고 타국인들이 주의 집의 성소
들로 들어왔으므로 수치가 우리의 얼
굴을 덮었느니라.
52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녀의 새긴
형상들에게 심판을 내릴 터인즉 부상
당한 자들이 그녀의 온 땅에서 두루
신음하리라.
53 비록 바빌론이 하늘까지 올라가
며 자기 세력의 탁월함을 강화할지라
도 노략하는 자들이 내게서 나가 그녀
에게 이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54 부르짖는 소리가 바빌론에서 나
오며 큰 파멸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서 나오나니
55 이는 주가 바빌론을 노략하고
그녀에게서 나오는 큰 소리를 멸하였
기 때문이라. 그녀의 물결이 큰물들
같이 울부짖을 때에 그들이 요란한
소리를 냈나니
56 이는 노략하는 자가 그녀에게
곧 바빌론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
녀의 용사들이 붙잡히고 그들의 활이
다 부러졌나니 주 곧 보응하는 하나님
이 반드시 보복하리라.
57 내가 그녀의 통치자들과 지혜
로운 자들과 대장들과 치리자들과 용
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주라
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58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넓은 성벽들은 철저히 부서
지고 그녀의 높은 성문들은 불에 타며
그 백성은 헛되이 수고하고 사람들은
불 속에서 수고할 터인즉 그들이 지치
리라.

스라야를 향한 명령

59 ¶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사
년에 마아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
들인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
로 갈 때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명령한 말이라. 이 스라야는 평온한
통치자더라.
60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게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빌론을 향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책 한 권에
기록하고
61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
빌론에 이르거든 살펴서 이 모든 말씀

을 읽고
62 그때에 이르되, 오 주여, 주께
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
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
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63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
데로 그것을 던지며
64 말하기를, 바빌론이 이같이 가
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
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들이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
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제 52 장

예루살렘의 멸망(왕하24:18-25;
대하36:11-20; 렘39:1-10)

1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에 나이가 이십일 세더라. 그가 예루살
렘에서 십일 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립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더라.
2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니라.
3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분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
하니라.
4 ¶ 그의 통치 제구년 시월 곧 그
달 십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자
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것
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으매
5 이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으며
6 사월 곧 그 달 구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7 그때에 그 도시가 함락되매 모든
군사가 밤에 도시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 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던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이
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
를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평야 길로
가니라.
8 ¶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
가 왕을 쫓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
기야를 따라잡으매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9 그때에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에게 끌
고 가매 거기서 그가 그를 심판하니
라.
10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
서 유다의 모든 통치자를 죽이니라.
11 그때에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또 바빌론 왕이 사슬로 그를 결박
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니라.
12 ¶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제십구년 오월 곧 그 달 십일에 바빌론
왕을 섬기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13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위대한 자들의
모든 집을 불태우며
14 또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사방에서 허니라.
15 그때에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백성의 가난한 자들 중의 얼마와 도
시에 남아 있던 백성의 남은 자들과
떨어져 나가서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의 남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니라.
16 그러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땅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는 자와 농부
가 되게 하였더라.
17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주의 집
의 놋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의 집의
놋 바다를 부수어 그것들의 모든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18 또 큰 솥들과 부삽들과 심지 자
르는 기구들과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던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더라.
19 호위대장이 또 대야들과 불 옮
기는 그릇들과 대접들과 큰 솥들과
등잔대들과 숟가락들과 잔들을 가져
가되 금으로 된 것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은 은으로 가져가고
20 또 솔로몬 왕이 주의 집에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및 받침대들 밑에
있던 열두 마리 놋 황소를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은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 그 기둥들로 말하건대 한 기둥
의 높이가 십팔 큐빗이요, 십이 큐빗
되는 띠가 기둥을 둘렀으며 그것의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요, 그것은 속
이 비었더라.
22 그것 위에는 놋 기둥머리가 있
었고 기둥머리들 사면에 있던 그물과
석류들과 함께 기둥머리의 높이는 오
큐빗이었으며 *그것들은* 다 놋이더라.
또 둘째 기둥과 석류들도 이것들과
같았으니
23 한 쪽에 석류 아흔여섯 개가 있
었으며 그물 위에 있던 모든 석류는
사방으로 백 개더라.
24 ¶ 호위대장이 수제사장 스라야
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 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25 또 군사들에 대한 책무를 맡은
내시 한 사람과 또 왕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도시에서 발견한 일곱 사람과
또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총서기관 한 사람과 도시의 한가운데
서 발견한 그 땅의 백성 육십 명을
도시에서 붙잡으니라.
26 이에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들을 붙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
에게로 데려가매
27 바빌론 왕이 하맛 땅의 리블라에
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자기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더라.
28 느부갓레살이 포로로 사로잡아
간 백성이 이러하니 제칠년에 유대인
삼천이십삼 명이요,
29 느부갓레살의 제십팔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팔백삼십이 명을 포로
로 사로잡아 갔으며
30 느부갓레살의 제이십삼년에 호
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대인 칠백사
십오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으니
그 모든 사람이 사천육백 명이었더
라.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남
(왕하25:27－30)

31 ¶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삼십칠년째 되는 해 곧 바빌
론 왕 에빌므로닥의 통치 제일년 십이
월 즉 그 달 이십오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 그
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32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왕좌를 자기와 함께 바빌론에 있던
왕들의 왕좌보다 높이 두고
33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
니 그가 평생토록 계속해서 그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34 또 그의 음식으로 말하건대 바
빌론 왕이 계속해서 그에게 음식을
주되 그가 죽을 때까지 일정량을 그의
평생토록 날마다 주었더라.

예레미야애가

기록자: 예레미야, 기록 시기: 주전 588년경, 성격: 개인의 증언, 시
수신자: 멸망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이름: 이 책의 히브리어 책명은 1, 2, 4장의 첫 단어인 '에카'로서 이것은 '아! 정말 슬프다!'를 뜻한다. Lamentations는 애가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트레노이' 즉 '애가들'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말 이름은 기록자 예레미야를 살려서 보통 '예레미야 애가'라 한다. 주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
목적: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갖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내용: 애가서는 자기가 대언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대언자의 심정을 기술한다. 대언자는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거나 징계로 인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다. 대언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셔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리라는 위로의 소망도 넌지시 보이고 있다. 애가와 예레미야서는 유다 민족의 비운이 동일한 원인 때문임을 밝히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곧 거짓 대언자들과 미지근한 제사장들 그리고 민족의 우상숭배 죄와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려는 헛된 확신 등이다. 또한 유사한 비유적 표현이 두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처녀' 또는 '딸'이라는 말이 두 책에 각기 스무 번 정도 나온다. 대언자의 눈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때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 두 책에 잘 나타난다. 이 책은 각 장에 한 편씩 모두 다섯 편의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의 네 편은 애가이고 다섯째 편은 기도 시라 볼 수 있다. 처음의 네 편은 각 행의 배열 면에서 히브리말의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시는 이십이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철자 순으로 시작된다. 5장도 역시 이십이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애가서는 5장, 154절, 3,411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나눔), 핵심 절: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1:1)
핵심 단어: 눈물, 핵심 구: "애곡과 애통"(2:5), 애가서의 그리스도: 나의 몫(3:24)
영적 교훈: "너희 죄가 말소되도록 회개하라"(3:25; 행3:19)

제 1 장

고통 받는 예루살렘

1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
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
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2 그녀가 밤에 심히 울매 그녀의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
는 자가 그녀에게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고 그녀의 원
수가 되었도다.
3 유다는 고난과 심한 노동으로 인
하여 포로가 되어 갔나니 그녀가 이교
도들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
는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이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
도다.
4 아무도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므로 시온의 길들이 애곡
하는도다. 그녀의 모든 성문들은 황
폐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고난을 당하나니 그
녀가 쓰라림 속에 있도다.

5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
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하니 이는
그녀의 많은 범법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갔도다.
6 시온의 딸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
녀를 떠났으며 그녀의 통치자들은 초
장을 찾지 못하는 수사슴같이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갔도다.
7 예루살렘이 자기의 고난과 불행
을 당하던 날에 곧 그녀의 백성이 원수
의 손에 넘어가고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아니하며 대적들도 그녀를 보고 그녀
의 안식일들을 조롱하던 때에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것 즉 자기가 기뻐하던
모든 것을 기억하였도다.
8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
므로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귀히 여
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하는도다. 참
으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는
도다.
9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마는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
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
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원수
가 자기를 크게 높였사오니 나의 고난
을 보시옵소서.
10 대적이 자기 손을 내밀어 그녀
가 기뻐하던 모든 것 위에 두었나이
다. 주께서 이교도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주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온데 그들이 자기의 성
소에 들어온 것을 그녀가 보았나이
다.
11 그녀의 온 백성이 탄식하고 빵
을 구하며 혼을 소생시킬 음식을 얻으
려고 자기들이 기뻐하던 것들을 내주
었나이다. 오 주여, 보시고 깊이 생각
하소서. 내가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12 ¶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
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
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
히 맹렬히 분노하신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13 그분께서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사 그것이 그것들을 이기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내 발을 노리고
그물을 치사 나를 돌아서게 하시며
종일토록 나를 황폐하게 하시고 기진
하게 하셨으며
14 내 범법들의 멍에를 자신의 손
으로 묶으시고 그것들을 고리로 엮으
사 내 목에 올리셨도다. 주께서 내
힘을 쇠하게 하시고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을 피하여
능히 일어서지 못하는도다.
15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아래 밟으시며 나를 치려고
집회 무리를 부르사 내 젊은이들을
짓밟으셨나니 주께서 처녀 곧 유다의
딸을 포도즙 틀에서 밟듯 밟으셨도
다.
16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시므로 내 눈에서 곧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원수가 이겼
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
다.
17 시온이 자기 손을 펴나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령하사 그의 대적들이 그를
에워싸게 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이 그
들 가운데서 생리하는 여인같이 되었
도다.
18 ¶ 주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
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모든 백
성들아, 원하건대 듣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가 되어 갔도다.
19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
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이 자기 혼을
소생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도시 안에
서 숨을 거두었도다.
20 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고
통 중에 있사오며 내 애가 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나이다. 내
가 극심히 반역하였으므로 밖에서는
칼이 앗아가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
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
모든 원수가 나의 고난을 듣고는 주께
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나이
다. 주께서 이미 부르신 그 날을 가져
오시리니 그들이 나처럼 되리이다.
22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주 앞에
끌어내시고 나의 모든 범법으로 인하
여 주께서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
게도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
고 나의 마음이 힘을 잃었나이다.

제 2 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분노함

1 어찌 주께서 친히 분노하사 구름
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시고 이스라엘
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
시며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자신의
발받침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
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친
히 진노하사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
을 허물어 땅으로 끌어내리시고 왕국
과 그것의 통치자들을 더럽게 만드셨
도다.
3 그분께서 친히 맹렬한 분노로 이
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며 원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거두어들이
시고 사방에서 삼키는 불 곧 타오르는
화염 불같이 야곱을 향해 타오르셨도
다.
4 그분께서 원수같이 자신의 활을
당기시며 대적같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
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죽이시
고 자신의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도
다.
5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
을 삼키시고 그녀의 모든 궁궐을 삼키
시며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유다의 딸 가운데 애곡과 애통을 더하
셨도다.
6 그분께서 자신의 장막을 동산의
장막같이 격렬히 치워 버리시며 자신
의 집회 처소들을 멸하셨도다. 주께
서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들과 안식일
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친히 분노하
시고 격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
셨도다.
7 주께서 자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자신의 성소를 몹시 싫어하사 그녀의
궁궐들의 벽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
매 그들이 주의 집에서 엄숙한 명절에
하듯 소리를 질렀도다.
8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무너
뜨리기로 작정하사 줄을 잡아당기시
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그분
께서 보루와 성벽으로 하여금 통곡하
게 하시매 그것들이 함께 쇠하였으며
9 그녀의 성문들이 땅 속으로 가라
앉았도다.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부수시므로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다시는 율법도 없고 그녀의
대언자들도 주로부터 나오는 환상 *계*
*시*를 찾지 못하는도다.
10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
아 잠잠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
고 굵은 베를 자기 몸에 두르매 예루살
렘의 처녀들도 자기 머리를 땅으로
숙였도다.
11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애가 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여 아이들
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
절하였기 때문이로다.
12 그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부
상당한 자들같이 기절하고 자기 혼을
자기 어머니 품에 쏟으면서 자기 어머
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즙이
어디 있나이까? 하는도다.
13 오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무엇
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랴?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하랴? 오 시온

의 처녀 딸아, 내가 무엇을 너와 같게
하여 너를 위로하랴? 너의 상한 것이
바다 같이 크니 누가 능히 너를 고치겠
느냐?
14 네 대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
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네
불법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네 포로
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도다. 그들
이 너를 위해 거짓된 경고와 추방당할
구실을 보았도다.
15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
하여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을 향
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
를, 이것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극
치요,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도시
냐? 하고
16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켰
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분명히
이 날이라. 우리가 그 날을 만나고
보았도다, 하는도다.
17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
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
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시
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원수
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네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18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
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
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네 눈동자
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에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어다.
굶주림으로 인해 모든 거리의 높은
곳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네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0 ¶ 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
서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이
까? 제사장과 대언자가 주의 성소에
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이까?
21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에서
땅에 누웠사오며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친히 분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죽이시
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이셨
나이다.
22 주께서 엄숙한 날에 부르시는
것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사방
에서 부르사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하게 하셨나
이다. 내가 포대기로 싸서 기른 자들
을 내 원수가 소멸시켰나이다.

제 3 장

대언자의 고통과 소망

1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
미암아 고난을 본 자로다.
2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둠 속
으로 데려가시고 빛 속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으며
3 친히 돌이키사 확실히 나를 치시
고 자신의 손을 돌리사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4 그분께서 나의 살과 피부를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시며
5 나를 치려고 산들을 쌓으시고 쓸
개와 산고로 나를 에워싸시며
6 죽은 지 오랜 자들 같이 나를 어두
운 곳들에 두셨도다.
7 그분께서 내 둘레에 울타리를 치
사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사슬
을 무겁게 하시고
8 또한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
러도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9 다듬은 돌로 내 길들을 에워싸시
며 내 행로들을 굽게 하셨도다.
10 그분께서는 내게 마치 숨어 기
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11 내 길들을 옆으로 돌리시며 나
를 찢으시고 황폐하게 하셨도다.
12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시
고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셨으며

13 자신의 화살 통의 화살들로 하
여금 내 콩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도
다.
14 내가 내 온 백성에게 조롱거리
가 되었으니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
거리가 *되었도다*.
15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
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 또 조약돌로 내 이를 부러뜨리
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17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
이다.
18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
다.
19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20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
하므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
다.
21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
하므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22 ¶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
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23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24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
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25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
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
다.
26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
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
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28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그
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29 혹시 소망이 있을까 하여 그가
자기 입을 흙 속에 대는도다.
30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내주어 스스로를 치욕으로 가득
채웠도다.
31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
하시리라.
32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
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33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
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34 땅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
로 짓밟는 것과
35 지극히 높으신 이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36 사람이 사정을 밝힐 때에 그를
뒤엎는 것은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
시는도다.
37 ¶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
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38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39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
을진대 살아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40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41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42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하였더
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3 주께서 분노로 덮으시고 우리
를 핍박하시며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
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
사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고
45 우리를 그 백성의 한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로 만드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
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렸사오며
47 두려움과 올무와 황폐함과 멸
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48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

는도다.
49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
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되
50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
터 바라보실 때까지 *그리하는도다.*
51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52 내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듯* 까
닭 없이 끈질기게 내 뒤를 쫓았나이
다.
53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내 생명
을 끊고 내게 돌을 던졌나이다.
54 물들이 내 머리 위로 흐를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끊어졌다, 하였
나이다.
55 ¶ 오 주여, 내가 낮은 지하 감옥
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
니 내가 숨 쉴 때에 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소서.
57 내가 주를 부른 그 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의 사정들
을 변호하시고 내 생명을 구속하셨나
이다.
59 오 주여,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의 사정을 판단하소서.
60 그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치려
고 그들이 꾀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61 오 주여, 그들이 모욕하는 것과
나를 치려고 그들이 꾀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들으셨으며
62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의 입
술과 종일토록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계략을 들으셨나이다.
63 그들이 앉고 서는 것을 보소서.
내가 그들의 음악거리가 되었나이다.
64 ¶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65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을 주시
오며 그들을 향한 주의 저주를 내리소
서.
66 분노로 그들을 핍박하사 주의
하늘들 아래에서 멸하소서.

제 4 장

시온의 퇴락

1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
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위 부분에
쏟아졌도다.
2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
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
가!
3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자
기 새끼들이 빨게 하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한 자가
되었도다.
4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
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
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는 자가
없도다.
5 맛을 즐기며 먹던 자들이 거리들
에서 황폐하게 되고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를 껴안으니
6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
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
보다 크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
을 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
지 아니하였느니라.
7 그녀의 나사르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니
8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
으므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
서 나무토막같이 되었도다.
9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
보다 낫도다. 밭의 열매가 부족하므
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는도
다.
10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인
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

다.
11 주께서 자신의 격노를 이루시
며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부으사 시온
에 불을 지르시니 그 불이 그것의 기초
들을 삼켰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
들로 들어갈 줄은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믿지 못하였으리로
다.
13 ¶ 그녀의 한가운데서 의인들
의 피를 흘린 그녀의 대언자들의 죄들
과 그녀의 제사장들의 불법들로 인하
여
14 그들이 거리들에서 눈먼 자같
이 떠돌아다니며 피로 자신을 더럽히
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었도다.
15 저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하기
를*, 너희는 가라. 부정하다. 가라. 가
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들이
도망하여 떠돌아다닐 때에 저들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거기에 머물지 못하리라, 하
였도다.
16 주께서 분노하사 그들을 나누
셨으니 다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제사장
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17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가 헛되
이 도움을 구하므로 우리 눈이 여전히
힘을 잃었나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민족을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였도
다.
18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
다니므로 우리가 거리에서 다닐 수
없도다. 우리의 끝이 이르렀으므로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이루어졌도다.
19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
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뒤쫓고 광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도다.
20 우리 콧구멍의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
으니 그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밑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하던 이로다.
21 ¶ 오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의
딸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잔이
또한 지나가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22 ¶ 오 시온의 딸아, 네 불법으로
인한 형벌이 이루어졌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너를 포로로 끌어가지 아니하
시리라. 오 에돔의 딸아, 그분께서 네
불법을 벌하시며 네 죄들을 드러내시
리로다.

제 5 장

회복을 위한 기도

1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일을 기
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깊이 살피시
며 주목하옵소서.
2 우리의 상속 재산이 타국인들에
게, 우리의 집이 외인들에게 돌아갔
나이다.
3 우리는 고아요, 아버지 없는 자
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
으니
4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물을
마셨으며 *그들이* 우리의 나무를 우리
에게 파나이다.
5 우리의 목이 핍박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수고해도 안식하지 못하나이
다.
6 우리가 빵으로 만족하려고 이집
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
을 내밀었나이다.
7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
으며 우리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
였나이다.
8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
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자가 없나이
다.
9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
며
10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

로 말미암아 솥같이 검게 되었나이
다.
11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
다의 도시들에서 처녀들을 강간하였
나이다.
12 통치자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
지 못하였나이다.
13 그들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맷돌을 돌리게 하고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쓰러지며
14 장로들은 성문에 *나가기를* 그
만두고 청년들은 음악을 그만두었나
이다.
15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우
리의 춤이 변하여 애곡이 되었으며
16 우리의 머리에서는 관이 떨어
졌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
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7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력을 잃고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도다.
18 시온 산이 황폐하므로 여우들이
거기서 돌아다니나이다.
19 오 주여, 주는 영원토록 계시오
며 주의 왕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
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
안 버리시나이까?
21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
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22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철저히
거절하셨사오며 우리에게 심히 진노
하셨나이다.

대언자 에스겔의 책

에 스 겔 서

기록자: 에스겔, 기록 시기: 주전 560년경, 성격: 대언, 기간: 22년 이상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
이름: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다'를 뜻한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90회나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80회나 사용한 귀한 명칭이다.
주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주의 영광이 떠난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때에 그분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목적: 슬픔과 시련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
배경: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바빌론 포로 시대 초기인 주전 590-560년경이었다.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유다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유다 왕국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느고의 군대는 주전 605년경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하였으며 그 이후에 갈대아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어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다. 사악한 여호야김 왕은 대언자들을 박해하고 유다 민족의 영적 타락을 가져왔으며 폭정을 행하였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이르기 전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석 달을 다스린 뒤 예루살렘을 포위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였다. 예루살렘을 약탈한 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수천 명의 상류층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7년 전부터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적어도 22년 이상 사역을 수행했다.
내용: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대언하는데 이것은 편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이집트가 바빌론의 멍에를 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결국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을 보여 주고자 함이었다. 그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함을 강력히 대언하였다. 그 후에 그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유다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 복을 받음을 보여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의 대언의 많은 부분은 상징으로 주어졌으며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그것들의 성취를 보여 주었다. 한 마디로 에스겔서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것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미래의 천년왕국의 도래를 그리고 있다. 에스겔서는 48장, 1,273절, 39,401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7장(마른 뼈 환상), 핵심 절: "이제 제삼십년 사월 곧 그 달 오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1:1), 핵심 단어: 환상, 핵심 구: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6:7), 이 표현은 60회나 나옴. 에스겔서의 그리스도: 1. 목자(34:23), 2. 다윗(34:23), 영적 교훈: "주의 성소를 회복하라."

제 1 장

에스겔의 환상

1 이제 제삼십년 사월 곧 그 달 오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2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오
년이 되던 해 그 달 오일에
3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4 ¶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
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5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
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6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더라.
7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
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8 또 그들이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
개를 가졌는데
9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
라.
10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
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
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
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11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더라.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
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12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
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
이 가되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
라.
13 살아 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모양은 불타는 숯
같고 등불 모양과도 같더라. 그것이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 가운데서 오르
락내리락하였는데 그 불은 밝으며 그
불에서부터 번개가 나오더라.
14 또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달
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
15 ¶ 이제 내가 그 살아 있는 창조
물들을 보니, 보라, 그의 네 얼굴과
함께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 옆에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더라.
16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녹
주석 색깔을 띤 것 같은데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것들의 외모
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17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네
측면으로 가되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
키지 아니하더라.
18 그것들의 테들로 말하건대 그
것들은 심히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
들의 테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19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갈 때
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땅에서 들리
면 그 바퀴들도 들리더라.
20 그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든지
그것들도 자기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마주
하여 들렸으니 이는 살아 있는 창조물
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
라.
21 그들이 가면 이것들도 갔고 그
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으며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을 마주
하여 들렸으니 이는 살아 있는 창조물
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
라.
22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으며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져 있더라.
23 그 궁창 밑에는 그들의 날개들
이 서로를 향해 곧게 펴져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
로 이쪽에서 덮었으며 또 각각 두 날개
를 가지고 그것들로 저쪽에서 자기들

의 몸을 덮었더라.
24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
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
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25 그들이 서서 자기 날개들을 내
렸을 때에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26 ¶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
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좌
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좌의 모습 위에
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27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
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
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28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
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
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
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
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
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 2 장

에스겔이 대언자로 부름을 받음

1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
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3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
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
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 날까지 그리
하였나니
4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5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
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
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
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6 ¶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
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
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
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어
다.
7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
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
니라.
8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
라.
9 ¶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10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
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
어 있더라.

제 3 장

대언자의 책무

1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
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
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
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3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
아, 네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
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4 ¶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의
집에게로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5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
려운 백성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에게 보내느니라.
6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워
네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네 말에 귀를 기울였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
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
하고 마음이 강퍅하니라.
8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강하게 하
여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하였고
네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 대하게 하였도다.
9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
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10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
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속에 받고 네 귀로
들으라.
11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로 가서 그들
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
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
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
니라.
12 그때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
리시매 내가 내 뒤에서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자신의 처소
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할지어
다, 하니라.
13 또 내가 살아 있는 창조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닿는 소리와 창조물들
을 마주한 바퀴들의 소리와 크게 몰려
오는 소리를 들으니라.
14 이와 같이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가니
라. 그러나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15 ¶ 그때에 내가 텔아비브에 있
던 그 포로 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던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앉은
곳에 앉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내니라.
16 그 이레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
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7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
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
니라.
18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
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
라.
19 그런데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
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
라.
20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
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의
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네 혼을 건졌느니라.
22 ¶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
르시되,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라. 내
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에
23 그때에 내가 일어나 평야로 나
아갔는데, 보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은 주의 영광이 거기
서 있으므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
니라.
24 그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
어와 나를 세워 발로 *서게* 하시고 나와
말하며 내게 이르시되, 가서 네 집에
들어가 있으라.
25 그러나, 오 너 사람의 아들아,
보라, 그들이 네 위에 띠를 놓아 그것
으로 너를 묶으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
서 나가지 못하리라.
26 또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하게 하고 그들
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
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
이니라.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
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
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제 4 장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여 줌

1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또 기와
를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도시 곧 예루살렘을 그리며
2 그 도시를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
여 보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산을
쌓아 올리며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사방으로 세우라.
3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두어 철벽으로 삼고
그 도시를 향해 네 얼굴을 고정하라.
그 도시가 에워싸이리니 너는 그 도시
를 에워쌀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리라.
4 너는 또 네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그것 위에 놓
고 네가 그것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
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5 내가 그들의 불법의 햇수를 날수
대로 네 위에 놓았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고
6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
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너는 에워싸인 예루살
렘을 향해 네 얼굴을 고정하고 네 팔을
드러내며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8 보라, 내가 띠를 네 위에 놓으리
니 너의 에워싸인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네가 몸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
지 못하리라.
9 ¶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
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들로 너를 위해 빵을 만들어
네가 네 옆구리로 누워야 할 날수대로
곧 삼백구십 일 동안 그것을 먹으라.
10 네가 먹을 음식은 무게로 달아
서 하루에 이십 세겔이니 너는 때를
따라 그것을 먹고
11 물도 육분의 일 힌씩 되어서 마
시되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12 너는 그것을 납작한 보리 빵같
이 먹고 그들이 보는 데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똥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하시니라.
13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방
인들에게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
리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들의 더럽혀진 빵을 먹으리
라, 하시기에
14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
여! 보시옵소서. 내 혼이 더럽게 된
적이 없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

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갈기갈기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
다, 하니
15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
되, 보라, 내가 네게 사람의 똥 대신
쇠똥을 주었은즉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예비할지니라, 하시고
16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
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서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리니 그들이
염려하며 빵을 달아 먹고 또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
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
리라, 하시니라.

제 5 장

예루살렘을 치는 칼

1 너 사람의 아들아, 너를 위해 예
리한 칼을 취하고 너를 위해 이발사의
삭도를 취하여 네 머리와 수염을 밀며
그 뒤에 저울을 취하여 무게를 달고
그 털을 나누어 두었다가
2 에워싸는 날들이 차거든 삼분의
일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불태우고
삼분의 일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삼분
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것들
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3 너는 또 그중에서 몇 개를 가져다
가 네 옷자락에 묶고
4 그 뒤에 그중에서 다시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로 던져 불 속에서
태우라. 거기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5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이것은 예루살렘이니라. 내가 그
것을 그녀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 두었거늘
6 그녀가 그 민족들보다 내 판단의
법도를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
고 자기 사방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
내 법규를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와 내 법규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
였기 때문이라.
7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너희가 너희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보다 더 번성하였으므로 내 법
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너희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의 판단의 법도
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
여 그 민족들의 눈앞에서 네 한가운데
서 심판을 집행하되
9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에도 행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행하
지 아니할 그런 일을 네 안에서 행하리
라.
10 그런즉 아버지들이 네 한가운
데서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먹으며 또 내가 네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여 네 모든 남은 자를
모든 바람 속으로 흩으리라.
11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
니 네가 네 모든 역겨운 것과 네 모든
가증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미약하게 하고 내 눈이 아끼
지 아니하며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12 ¶ 네 삼분의 일은 역병으로 죽
고 그들이 네 한가운데서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네 사방
에 있는 칼에 쓰러지며 삼분의 일은
내가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 버리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13 이와 같이 *내가* 내 분노를 이루
고 또 내 격노를 그들 위에 멈추게
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내 격노
를 그들 안에서 이룰 때에 나 주가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말한 줄을 그들
이 알리라.
14 또 내가 너를 피폐하게 하며 지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네
사방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모욕거리
가 되게 하리니

15 그러므로 내가 분노와 격노와
맹렬한 책망으로 네 안에서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것이 네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모욕거리와 조롱거리
와 교훈과 놀랄 일이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16 내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기근의 악한 화살들을 그들에게 보내
리니 곧 내가 그것들을 보내어 너희를
파멸시키리라. 그때에 내가 기근을
너희에게 더하고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리라.
17 이와 같이 내가 기근과 악한 짐
승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네게서 *사랑하는 자를* 앗아가고 역병
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라. 또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네 위에 임하게 하리
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제 6 장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심판

1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
을 향해 네 얼굴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3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
다. 주 하나님이 산과 언덕과 강과
골짜기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나 곧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고 너희 산당들을 멸하
리니
4 너희 제단들은 황폐하게 되고 너
희 형상들은 부서지리라. 또 내가 너
희의 죽임 당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내던지며
5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사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들 주변으로 사방에 흩으리
라.
6 너희 모든 거처에서 도시들이 피
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리
니 이것은 *내가* 너희 제단들을 피폐하
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너희 우상들을
깨뜨려 없어지게 하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쓰러지게 하며 너희가 만든 것들
을 폐하려 함이라.
7 또 죽임 당한 자들이 너희 한가운
데서 쓰러지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
가 알리라.
8 ¶ 그럼에도 내가 남은 자를 남겨
두리니 이것은 너희가 나라들로 두루
흩어질 때에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
칼을 피할 자들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9 너희 중에서 도피하는 자들은 자
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함께 거할*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
는 나를 떠난 자들의 음탕한 마음과
자기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
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자기들이 범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자기를 심히 싫어하
리라.
10 또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이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리라
고 말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리
라.
11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네 손으로 치고 네 발로 구르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집의 악하고 가
증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슬프
다! 하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에
의해 쓰러지리라.
12 멀리 있는 자는 역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남아
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
라. 내가 이와 같이 내 격노를 그들
위에서 이루리라.
13 그들의 죽임 당한 자들이 그들
의 제단들 사방에 있는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와 모든 높은 언덕과 산들의
모든 꼭대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모든 굵은 상수리나무 아래 즉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
새를 드리던 곳에 있으리니 그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 내가 이와 같이 내 손을 그들
위에 내밀어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되 참으로 디블랏
쪽을 향한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하리
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제 7 장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움

1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끝이로다. 그 끝이 그 땅의 네 구석에
이르렀느니라.
3 이제 그 끝이 네게 이르렀나니
내가 내 분노를 보내어 네 위에 임하게
하고 네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리
라.
4 또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길들에 따라 네게 보응하여 네 가증한
일들이 네 한가운데 있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
라, 재앙이로다. 오직 재앙이 이르렀
도다.
6 끝이 이르렀으며 그 끝이 이르렀
도다. 그것이 너를 기다리나니, 보라,
그것이 이르렀도다.
7 오 너 곧 그 땅에 거하는 자야,
아침이 네게 이르렀도다. 때가 이르
렀도다. 고난의 날이 가까이 있는데
그것은 산들이 소리를 되울리는 것이
아니로다.
8 이제 내가 곧 내 격노를 네 위에
붓고 내 분노를 네 위에서 이루어 네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게 보응하리
라.
9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길들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가증한 일들에
따라 네게 보응하리니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 그 날을 보라. 보라, 그것이 이
르렀도다. 아침이 나아갔고 막대기가
꽃을 냈으며 교만이 싹을 내었도다.
11 폭력이 일어나 사악함의 막대기
속으로 들어간즉 그들과 그들의 무리
와 그들의 소유 중 어떤 것도 남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일
도 없으리로다.
12 때가 이르렀으며 그 날이 가까
이 왔은즉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며
파는 자도 애곡하지 말라. 진노가 그
들의 온 무리 위에 임하였도다.
13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되돌아가서 그 판 것에 이르지 못하리
니 이는 그 환상이 그들의 온 무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무리가 돌
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삶의 불법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지 못하리로
다.
14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나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들의
온 무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역병
과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도시에 있는 자는 기근과 역병이
삼키리라.
16 ¶ 그러나 그들 중에서 도피하
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의 비둘기
같이 산들 위에 거하되 그들이 다 각각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애곡하며
17 모든 손은 연약하게 되고 모든
무릎은 물같이 약하게 되리라.
18 또 그들이 굵은 베로 자기 몸을
두를 것이요, 공포가 그들을 덮으며
수치가 모든 얼굴 위에 임하고 그들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리라.
19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들의 금은 옮겨지리니 그들
의 은과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 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자기
창자도 채우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라.
20 ¶ 그의 장식의 아름다움으로
말하건대 그가 그것을 위엄 있게 만들
었으나 그들이 그 안에 자기들의 가증
한 것들과 역겨운 것들의 형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서 멀리 떨어진 데 두어
21 타국인들의 손에 탈취물로 주
고 땅의 사악한 자들에게 노략물로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더럽히리라.
22 또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터인즉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
를 더럽히리니 강도들이 그곳으로 들
어가 그곳을 더럽히리라.
23 ¶ *너는* 사슬을 만들라. 이는
그 땅이 피 흘리는 범죄들로 가득하며
그 도시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
라.
24 그러므로 내가 이교도들 중에
서 가장 악한 자들을 데려오리니 그들
이 저들의 집들을 소유하리라. 또 내
가 강한 자들의 영화를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거룩한 처소들이 더럽혀질 것
이요,
25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안
을 구하여도 결코 없으리라.
26 해악 위에 해악이 이르며 소문
위에 소문이 이르므로 그때에 그들이
대언자의 환상 *계시*를 구할 터이나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사라지고 노
인들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지리라.
27 왕은 애곡하고 통치자는 황폐
함으로 옷 입으며 그 땅의 백성의 손들
은 괴로움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의
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과
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8 장

성전 안의 가증한 것들

1 제육년 유월 곧 그 달 오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려와 내 위에 임하시니
라.
2 그때에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것이 있더라.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에는 불이 있
었고 그분의 허리로부터 위는 마치
광채의 모양 같고 호박색 같았는데
3 그분께서 손의 형체를 내미사 내
머리털 타래로 나를 잡으시매 그 영께
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
고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라. 거기
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4 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평야에서 본 그 환상과 같더라.
5 ¶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
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시기
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 문에서 북쪽으
로 어귀에 질투의 이 형상이 있더라.
6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
람의 아들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네
가 보느냐? 이스라엘의 집이 여기에
서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내가
내 성소를 떠나 멀리 가게 함을 *네가
보느냐?* 그러나 너는 여전히 다시 돌
아서라. 그리하면 더 큰 가증한 일들
을 네가 보리라, 하시더라.
7 ¶ 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뜰의
문에 이르시기에 내가 보니, 보라,
벽에 구멍이 있더라.
8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그 벽을 뚫으라,
하시기에 내가 그 벽을 뚫었더니, 보
라, 한 문이 있더라.
9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
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10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 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
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

11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
중의 칠십 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
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들의 한
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이* 저마다 자
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짙은 향
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12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
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원
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 ¶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
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하시더라.
14 그때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
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15 ¶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
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
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
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하시더라.
16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
의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스물
다섯 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
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
더라.
17 ¶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
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가
증한 일들을 범하나니 그들이 이 일들
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
냐?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 돌이켜서 내 분노를 일으켰나니,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18 그러므로 나도 격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
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
라.

제 9 장

사악한 자들의 죽음

1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아오게
하라, 하시니라.
2 보라, 여섯 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
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
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 제단 곁에
섰더라.
3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
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
니라.
4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
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
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
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5 ¶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죽임 당한

자들로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
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
니라.
8 ¶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댄 채 엎드려 부르
짖으며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격노를 부
으사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9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의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기
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
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10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
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시더라.
11 보라,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
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
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대
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제 10 장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남

1 그때에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의 머리 위에 있던 궁창에 사파이어
돌 같은 것이 그들 너머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왕좌의 모습을 닮은 모양 같더
라.
2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룹 아래로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
서 나오는 불붙은 숯을 네 손에 가득
채워다가 도시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눈앞에서 들어가더라.
3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
들은 그 집의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4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전능자 하
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소리 같이
바깥뜰에까지 들리더라.
6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
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퀴들 사
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매 이에 그가 들어가 바퀴들 옆에
서니
7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가져다가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그것을 놓으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8 ¶ 또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에서
는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
나타나더라.
9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
가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주
석 색깔을 띤 것 같았고
10 그것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는데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11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네
측면으로 가되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
키지 아니하였고 그 머리가 보는 곳으
로 그 머리를 따라가되 가면서 돌이키
지 아니하였으며
12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
와 바퀴들 곧 그들 넷이 소유한 바퀴들
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13 바퀴들로 말하건대 내가 듣기
에 *누군가가* 그것들에게 외치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14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
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
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
굴이더라.
15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살아 있는 창조물이
라.
16 그룹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그룹들이 자기 날개
들을 들어 올리고 땅을 떠나 올라갈
때에는 그 동일한 바퀴들도 그들 곁에
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17 그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고 그
들이 들리면 이것들도 스스로를 들어
올렸으니 이는 살아 있는 창조물의
영이 그것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
라.
18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
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19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
더라.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
더라.
20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이
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서 본 살아 있
는 창조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
가 알았노라.
21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의 날개
들 아래에는 사람의 손의 모습이 있더
라.
22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며 그들의
모양과 그들 자체도 그러하더라. 그
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제 11 장

악한 조언자들에 대한 심판

1 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사
주의 집의 동쪽 문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으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그 문의
입구에 스물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내
가 그들 가운데서 백성의 통치자들인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댜를 보니라.
2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들은 이 도시에서
해악을 꾸미며 사악한 꾀를 내놓는
사람들이니라.
3 그들이 이르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우리가 집들을 짓자. 이 도
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리라, 하느니라.
4 ¶ 그러므로, 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대언할지
니라, 하시니라.
5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
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
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6 너희가 이 도시에서 너희의 죽임
당한 자들을 많게 하고 도시의 거리들
을 죽임 당한 자들로 채웠도다.
7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 남
겨 둔 너희의 죽임 당한 자들은 그
고기요, 이 도시는 그 가마솥이거니
와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리라.
8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은즉 내
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9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리니
10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
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 이 도시는 너희의 가마솥이 되
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것의 한가운데
서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
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심판
하리니
12 그런즉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
도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교도
들의 관습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라.
13 ¶ 내가 대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댜가 죽기에 그때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
어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없애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14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5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거주
민들이 그들 곧 네 형제들 즉 네 형제
들과 네 친족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너희는 주
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
게 소유물로 주어졌느니라, 하였나니
16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
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
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라.
17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
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
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
리라, 하라.
18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
든 역겨운 것과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 주며 그들
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20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
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
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리라.
21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기들의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
을 *좇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
노라.
22 ¶ 그때에 그룹들이 자기 날개
들을 들어 올렸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
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23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
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24 ¶ 그 뒤에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사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힘
입어 갈대아에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로 데리고 가시더라. 이처럼 내가 보
았던 그 환상이 나를 떠나 위로 올라가
더라.
25 그때에 내가 포로 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
라.

제 12 장

유다의 포로 생활을 보여 줌

1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3 그런즉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떠
나가기 위하여 물건을 준비하고 그들
이 보는 앞에서 낮에 떠나가라. 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혹시 깊이
생각하리라.
4 그때에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물건을 내놓되 떠나가기
위한 물건같이 내놓고 또 저물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아가되 포로가
되어 나가는 자들같이 나아가라.
5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나가되
6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네 어깨에 메고 나르면서 앞으
로 나아가며 또 네 얼굴을 가림으로써
땅을 보지 말라.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
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시기에
7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여
낮에 내 물건을 내놓되 포로의 물건같
이 내놓으며 또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것을 가져
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깨에
메니라.
8 ¶ 아침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9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곧
그 반역하는 집이 네게 말하기를, 너
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
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엄중한
부담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그들 가
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한
것이라, 하고
11 또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표적
이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
어지리니 그들이 떠나가고 포로가 되
어 가리라.
12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어
두울 때에 자기 어깨에 *물건을* 지고
앞으로 나가며 그들은 성벽을 뚫고
물건을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나가리
라. 그가 자기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
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
라.
13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빌론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곳을 보지
는 못하리라.
14 또 내가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돕
는 모든 자와 그의 모든 부대를 모든
바람을 향하여 흩고 또 그들을 따라가
며 칼을 빼리라.
15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 그러나 내가 그들 중의 몇 사람
을 칼과 기근과 역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남겨 두리니 이것은 그들이 이르
러 *함께 거할*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
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밝히
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이 연기되지 않음

17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8 사람의 아들아, 떨면서 네 빵을
먹고 벌벌 떨며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고
19 그 땅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
곧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이스라엘 땅
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근심하면서 자기들의 빵을 먹고 놀라
며 자기들의 물을 마시리니 이것은
그녀의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 안의 모든 것이 그치게 하려 함이
라.
20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피
폐하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21 ¶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
서 너희에게 있는 그 속담 곧,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무엇이냐?
23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
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속담으로 사
용하지 못하리라, 하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들이 가까우며 모든 환
상 *계시*의 결과도 그러하니
24 이는 헛된 환상 *계시*나 아첨하
는 점술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있
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25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
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
하는 집이여, 너희의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 하나
님이 말하노라, 하라.
26 ¶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27 사람의 아들아, 보라, 이스라엘
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 *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대언한다, 하느니라.

28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
들 중에서 하나도 다시는 연기되지
아니하며 내가 이른 말이 이루어지리
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제 13 장

어리석은 대언자들에 대한 저주

1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
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
의 말씀을 들으라.
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
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4 오 이스라엘아, 네 대언자들은 사
막의 여우들 같으니라.
5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였
으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
니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
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증할 것을 바라
게 하였느니라.
7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되 나는 말하지 아니하
였으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
하였으며 거짓 점괘를 말하지 아니하
였느냐?
8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
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9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에 임하리라. 그
들은 내 백성의 집회 중에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집의 기록 문서에도 기록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
지도 못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 ¶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
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그 벽에 발랐도다.
11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벽
에 바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벽
이 무너지리라, 하라. 넘치는 폭우가
있으리로다. 오 큰 우박들아, 너희는
떨어질지어다. 폭풍이 그것을 부수리
로다.
12 보라, 그 벽이 무너진즉 *사람들
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벽에
바를 때 쓴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친히 격노하여 폭풍
으로 그것을 부수고 친히 분노하여
넘치는 폭우가 있게 하며 친히 격노하
여 큰 우박이 그것을 소멸시키게 하리
라.
14 이처럼 너희가 제대로 섞지 않
은 회반죽으로 바른 그 벽을 내가 허물
어서 땅에 무너져 내리게 하고 그것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리니 그 벽이 무너
지리라.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소멸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5 이와 같이 내가 내 진노를 그
벽과 또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그 벽에 바른 자들 위에서 이루고 너희
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벽도 없고 그
것을 바른 자들도 없다, 하리니
16 *이들은* 곧 예루살렘에 관해 대언
하며 평안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을 위
하여 평안의 환상들을 보는 이스라엘
의 대언자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
노라, 하라.
17 ¶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네 백성의 딸들 곧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향해
네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18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어 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두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너희가 내 백성의 혼들은 사냥하
면서 너희에게 오는 혼들은 살려 두려
하느냐?
19 너희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너희의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은 살려 두려 하느냐?
20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베개들로 혼들을 사냥하여 날아가게
하므로 내가 그 베개들을 대적하노
라.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떼어
찢어 버리고 혼들 곧 너희가 사냥하여
날아가게 하는 그 혼들을 놓아주리
라.
21 또 내가 너희 수건들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며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로
운 자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
게 하며 사악한 자에게 생명을 약속함
으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자기
의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23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것과 신성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 내리
니 그리하면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제 14 장

우상숭배를 정죄함

1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의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매
2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3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
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4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
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
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
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효대로 나아오는 자
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5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
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
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6 ¶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
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
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7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
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
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
자 대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8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
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9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
을 때에 속임을 당하였으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내가 내 손을
그 위로 내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그를 끊어 멸하리라.
10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의 형벌
을 담당하리니 그 대언자의 형벌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11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시는
나를 떠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범법으로 다시는 더럽
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들
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하라.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12 ¶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13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의 빵 지팡이
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
이 말하노라.
15 ¶ 가령 내가 해로운 짐승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므로
그것들이 그 땅을 망치고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그 짐승들로 인해 지나다
니지 못한다 하자.
16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
하노니 그들이 아들딸들은 건지지 못
하고 오직 자기만 건지려니와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17 ¶ 가령 내가 칼을 가져다가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가라, 하여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18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
하노니 그들이 아들딸들은 건지지 못
하고 오직 자기만 건지리라. 주 **하나
님**이 말하노라.
19 ¶ 가령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고 피 속에서 내 격노를 그 위에
쏟아 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
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1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
겠느냐?
22 ¶ 그럼에도, 보라, 그 안에는
남은 자가 남아 있어 나아오리니 곧
아들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
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을 보며 또 내가 예루살
렘에 가져온 재앙 곧 내가 그곳에 가져
온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리
라.
23 너희가 그들의 길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때에 그들이 너희를 위로
하리니 내가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까닭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
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15 장

쓸모없는 포도나무

1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며 숲의 나무
들 가운데 있는 가지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3 거기에서 나무를 취하여 무슨 작
업을 하겠느냐? 혹은 사람들이 그것
에서 못을 취하여 그 위에 무슨 그릇을
걸겠느냐?
4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
져졌느니라. 불이 그것의 두 끝을 삼
키며 그것의 한가운데는 불타게 되었
으니 그것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
냐?
5 보라, 그것이 온전할 때에 어떤
작업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였거늘 하
물며 불이 그것을 삼키므로 그것이

불타게 되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겠
느냐?
6 ¶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내주리라.
7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
하리니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 그들이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16 장

하나님의 예루살렘 사랑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으로 하
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3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
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 태생과 출
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네 어머니는 헷 족속
이었노라.
4 네 출생으로 말하건대 네가 태어
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배꼽 줄을 자르
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것들 중의 하나라도 네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를 빈 들판
에 버려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하였느
니라.
6 ¶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네가
네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네가
네 피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
로 네가 네 피 속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
라.
7 내가 너를 들의 싹같이 번성하게
하므로 네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네게 젖가슴이 생
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벌거벗
은 알몸이었느니라.
8 이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네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 주며
참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9 그때에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
로 네 몸에서 네 피를 완전히 씻어
내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10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
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
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고
11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네
손에 팔찌를 끼우고 네 목에 목걸이를
걸어 주며
12 네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
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
워 주었노라.
13 이와 같이 네가 금과 은으로 단
장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
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14 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교도들 가운데로 나아갔으
니 이는 내가 네게 단정하게 입혀 줌으
로 말미암아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
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창녀 노릇

15 ¶ 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네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
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네 음행을 쏟아 부었으므로 네 아름다
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16 네가 네 의복 중에서 취하여 여

러 색깔로 네 산당들을 단장하고 그
위에서 창녀 짓을 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생겨서도 아니 되고 또
그리되어서도 아니 되리라.
17 네가 또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은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너를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
과 행음하였으며
18 또 네 수놓은 옷들을 취하여 그
것들을 덮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것
들 앞에 두었으며
19 또 내가 네게 준 내 음식물 곧
내가 너를 먹일 때 쓴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심지어 그것들 앞에
두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였나니
그 일이 그러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0 또한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아들딸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그것들
에게 희생물로 드려 소멸되게 하였느
니라. 이러한 네 행음이 작은 일이기
에
21 네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넘겨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22 네가 네 모든 가증한 일과 네
행음 속에서 너의 어렸을 때 곧 네가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지내며 네 피로
더럽게 된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도
다.
23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게 화
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네
모든 사악한 일을 이룬 뒤에
24 또 네가 너를 위하여 우뚝 솟은
처소를 지으며 모든 거리에 너를 위하
여 높은 처소를 만들었도다.
25 네가 모든 길머리에 네 높은 처
소를 짓고 네 아름다움을 몹시 싫어하
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네 발을 벌려 네 행음을 크게
더하였고
26 또 몸집이 큰 네 이웃들 곧 이집
트 사람들과 음행을 범하며 네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
27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로 내밀어 네가 먹는 평범한 양식
을 줄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 곧 네
음탕한 길을 부끄러워하는 블레셋 사
람들의 딸들의 뜻대로 너를 넘겨주었
거늘
28 네가 만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녀 짓을 행하
였도다. 참으로 네가 그들과 창녀 짓
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고
29 또 가나안 땅에서 네 음행을 크
게 늘려 갈대아에까지 이르게 하였으
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
라.
30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 곧 오만하고 음란한 여자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건대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고!

예루살렘의 간음

31 네가 모든 길머리에 네 우뚝 솟
은 처소를 짓고 모든 거리에 네 높은
처소를 만들고도 삯을 거절함으로써
창녀 같지도 아니하였도다.
32 오히려 *너는* 자기 남편대신 낯
선 자들을 취하여 간음을 행하는 아내
와 같도다!
33 그들은 모든 음녀에게 선물을
주거니와 너는 네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네 선물을 주며 그들을 고용
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네게 이르러
너와 행음하게 하는도다.
34 네가 행음할 때에 다른 여자들
과 반대되는 것이 네게 있나니 아무도
행음을 벌이려고 너를 따르지 아니하
느니라. 즉 네가 대가를 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는
반대가 되느니라.

예루살렘의 연인들이
예루살렘을 남용함

35 ¶ 그러므로, 오 창녀야,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36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더러움이 쏟아져 나왔고 네 사랑하
는 자들과 네 가증한 것들의 모든 우상
과 벌인 네 행음을 통해 또 네가 그들
에게 준 네 자녀들의 피로 말미암아

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으니
37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사
랑하는 모든 자들 즉 네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던 자들과 네가 사랑한
모든 자들을 네가 미워한 모든 자들과
함께 모으되 곧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며 또 네 벌거벗은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그들이 네
벌거벗은 모든 것을 보게 하리라.
38 또 내가 혼인을 깨고 피를 흘리
는 여자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너를
심판하여 격노와 질투 속에서 네게
피를 주며
39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내주리니
그들이 네 우뚝 솟은 처소를 헐고 네
높은 처소들을 부수며 또 네 옷을 벗기
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고
40 또 무리를 데리고 올라와 너를
치되 돌로 치고 너를 그들의 칼로 찌르
며
41 네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
들의 눈앞에서 네게 심판을 집행하리
라. 내가 너로 하여금 창녀 짓 행하는
것을 그치게 할 터인즉 너도 다시는
삯을 주지 아니하리라.
42 이처럼 내가 너를 향한 내 격노
를 멈추게 하며 내 질투가 너를 떠나게
하리니 내가 평온하여 다시는 분노하
지 아니하리라.
43 네가 네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애타게 하였은즉, 보라, 나도 네 길을
네 머리 위에 보응하리니 네가 네 모든
가증한 일보다 더한 이 음탕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
노라.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사악함

44 ¶ 보라, 속담을 사용하는 자마
다 너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
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그녀의 딸
도 그러하다, 하리라.
45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심
히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네 자매들 곧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심히 싫어한 자들의 자매니라. 너희
어머니는 헷 족속이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었으며
46 네 언니는 자기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동생은
자기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니라.
47 그러나 네가 그들의 길들을 따
라 걷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
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
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네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48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
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자매
소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 곧
너와 네 딸들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9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
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
고
50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
였느니라.
51 사마리아는 네 죄들의 절반도
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그들보다 네
가증한 일들을 더 많이 늘렸으며 네가
행한 네 모든 가증한 일들로 네 자매들
을 의롭게 만들었느니라.
52 또 네가 네 자매들을 판단하였
은즉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지은
네 죄들로 인하여 너도 네 자신의 수치
를 담당할지니라. 그들은 너보다 더
의로우니라. 참으로 네가 네 자매들
을 의롭게 만들었은즉 너도 당황하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53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자들 곧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포로 된 자들과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포로 된 자
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때에 그들의
한가운데서 네 포로 된 자들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리니

54 이것은 네가 네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게 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당황하게 하려
함이라.
55 네 자매들 곧 소돔과 그녀의 딸
들이 그들의 이전 지위로 되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도 그들의 이
전 지위로 되돌아갈 때에 그때에 너와
네 딸들도 너희의 이전 지위로 되돌아
가리니
56 이는 너의 교만하던 날에 *네가*
네 입으로 네 자매 소돔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57 *그때는* 네 사악함이 드러나기
전이요, 곧 시리아의 딸들과 그녀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과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이 너를 모욕하던 때와 같던 때라.
58 네가 네 음탕한 짓과 네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
라.
59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
였은즉 나도 네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
리라.

하나님의 영존하는 언약

60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
렸을 때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존하는 언약
을 세우리라.
61 그리하면 네가 네 자매들 곧 네
언니와 네 동생을 받아들일 때에 네
길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리라. 내
가 그들을 네게 딸들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지는 아니하리
라.
62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
우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63 이것은 네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해 진정된 뒤에
네가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네 수치
로 인하여 결코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제 17 장

독수리들과 포도나무

1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에
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
3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
노라. 여러 색깔을 가지고 날개가 크
고 깃이 길며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고
4 그것의 어린 가지들 끝을 잘라
무역하는 땅으로 가지고 가서 상인들
의 도시에 두며
5 또 그 땅의 씨를 취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들에 심되 큰물 곁에 그것을
두고 버드나무같이 세워 놓았더니
6 그것이 자라서 키가 작고 퍼져나
가는 포도나무가 되매 그것의 가지들
이 그 *독수리*를 향하고 그것의 뿌리들
이 그 *독수리* 밑에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
들을 내고 작은 가지들을 내었느니
라.
7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보라, 이 포도
나무가 그 *독수리*로 하여금 자기가
들어 있는 고랑을 통해 자기에게 물을
주게 하려고 그를 향하여 자기 뿌리들
을 구부리고 그를 향하여 자기 가지들
을 내었느니라.
8 그것을 큰물 곁의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9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것의 뿌리들을 뽑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 내어 그것이 시들
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큰 권능이나
많은 백성으로 그것의 뿌리를 잡고
그것을 뽑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봄에
낸 모든 잎사귀가 시들리라.

10 보라, 참으로 그것이 심겼어도
형통하겠느냐? 동풍이 그것에 손을
대면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아니하겠
느냐? 그것이 자기가 자라던 고랑에
서 시들리라, 하라.

시드기야의 반역

11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2 이제 반역하는 그 집에게 말하
기를, 이것들이 뜻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그들에게 이르
기를, 보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의 왕과 그곳의 통치자들
을 사로잡아 자기와 함께 바빌론으로
끌어갔으며
13 또 왕의 씨 중에서 *하나를* 취하
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로부터 맹세를
받았으며 또 그 땅의 강한 자들을 데려
갔으니
14 이것은 그 왕국을 낮추어 그것
이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며 그 *왕*과
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이 서게 하려
함이라.
15 그러나 그가 자기 대사들을 이
집트로 보내어 그들로부터 말과 많은
백성을 받으려 함으로 그 *왕*을 배반하
였으니 그가 형통하겠느냐? 그런 일
들을 행하는 자가 도피하겠느냐? 그
가 언약을 어기고 구출을 받겠느냐?
16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
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그 왕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 왕과의 언약을
어겼은즉 반드시 그 왕이 거하는 처소
곧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그 왕과 함께
하다가 죽으리로다.
17 또 파라오가 많은 사람을 멸하
기 위해 자기의 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동원하여 작은 산들을 쌓아 올리고
보루들을 세워도 그 전쟁에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18 보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이 모든 일을 행하고는 그 언약을 어김
으로 그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도피하
지 못하리라.
19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
세하노니 참으로 그가 멸시한 내 맹
세, 그가 어긴 내 언약 바로 그것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으리라.
20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빌론으
로 데리고 가서 그가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의 범법으로 인해 거기서
그와 변론하리라.
21 그의 모든 도망한 자들과 그의
모든 부대가 칼에 쓰러지며 남은 자들
은 모든 바람을 향하여 흩어지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
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높여짐

22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또 내가 그 높은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가져다가 세우리라. 내
가 그것의 어린 가지들의 꼭대기로부
터 연한 가지를 잘라 내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온갖
날개를 가진 모든 날짐승이 그 밑에
거하고 또 그것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그늘에 거하리라.
24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
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을
들의 모든 나무가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제 18 장

잘못된 속담을 반박함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
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니와 *그것은* 무
엇을 뜻하느냐?
3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
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4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
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
지니라.
5 ¶ 그러나 사람이 의로워서 율법
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6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지 아니
하고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들을 향하
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
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생리
중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
하며
7 아무도 학대하지 아니하고 오히
려 빚진 자에게 그의 담보물을 돌려주
며 아무도 폭력으로 노략하지 아니하
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며 옷으
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 주고
8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지 아
니하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억제하여 불법을 떠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판단을 행하고
9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대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0 ¶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
자. *그 아들이* 강도요, 피를 흘리는
자요, 이런 일들 중 하나와 비슷한
것은 행하되
11 그런 의무들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산들 위에서 *희생물
을*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
고 폭력으로 노략하며 담보물을 돌려
주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들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13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며
이득을 취하였을진대 그가 살겠느
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
리라.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14 ¶ 이제, 보라, 가령 그가 아들
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
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깊이 생각하
여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15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지 아
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들을 향
하여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16 아무도 학대하지 아니하며 담보
물을 잡아 두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노략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굶주린 자
에게 자기 빵을 주고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 주며
17 자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
게서 떠나게 하고 이자나 이득을 받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걸었을진대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불법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
하고 반드시 살리라.
18 그의 아버지로 말하건대 그가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기 형제를 폭력
으로 노략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으니, 보
라, 심지어 그가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리라.

돌이켜서 살아라

19 ¶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
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
다.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였을
진대 그는 반드시 살리라.
20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
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
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21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
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
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
라.
22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곧 그것들
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

라.
23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
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
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
냐?
24 ¶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
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
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
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서 곧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
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
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26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
켜 불법을 행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면 그는 자기가 행한 불법으로
인하여 죽느니라.
27 다시 사악한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자기 혼을 살게 하리라.
28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범
한 모든 범법에서 돌이킨즉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은 이르
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 길
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
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30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
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31 ¶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
게서 떨쳐 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
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
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
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제 19 장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한 애가

1 또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2 이르기를, 네 어머니는 무엇이
냐? 암사자라. 그녀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
들을 길렀느니라.
3 그녀가 자기 새끼들 중의 하나를
키우매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삼키니
라.
4 민족들도 그에 대하여 듣고 그를
자기들의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사슬
로 묶어 이집트 땅으로 데려가매
5 이제 그녀가 기다리다가 자기의
소망을 잃은 줄 알고는 자기 새끼들
중의 다른 하나를 취하여 젊은 사자로
만드니
6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오르락내
리락 하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삼키며
7 그들의 황폐한 궁궐들을 알아내
고 그들의 도시들을 피폐하게 만들매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황폐하게
되니라.
8 이에 지방들에서 민족들이 나와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그물
을 치고 그를 자기들의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9 사슬로 묶고 감금하여 바빌론 왕
에게로 데려가니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다시는 그의 음성이 이스라엘
의 산들 위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느
니라.
10 ¶ 네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
도나무 곧 네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들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가지가 가득하고
11 다스리던 자들의 홀(笏)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었으
며 또 그녀의 키가 굵은 가지들 사이에
서 크므로 그녀가 자기의 많은 가지들
과 함께 높이 드러났느니라.
12 그러나 그녀가 격노 중에 뽑혀
땅에 내던져지매 동풍이 그녀의 열매
를 말리고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은
부러지며 말라 불에 소멸되었으며
13 이제 그녀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 나는 땅에 심기매
14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
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삼키니
이에 다스리는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
기를 그녀가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
라.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되리라.

제 20 장

이스라엘의 거역

1 제칠년 오월 곧 그 달 십일에 이스
라엘의 장로들 중의 몇 사람이 주께
여쭈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2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3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장로
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 있음
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4 사람의 아들아, 네가 그들을 심
판하려 하며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
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라.
5 ¶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을 택하고 야곱의 집 씨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
에게 나 자신을 알려 주던 날에 그때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
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라, 하였노라.
6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7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
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
님이니라, 하였노라.
8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에 내가 말하
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
에게 내 격노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
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
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
게 알렸노라.
10 ¶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
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11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
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 주었고
12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
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
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
라.
13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
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
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
들에게 내 격노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

키리라, 하였느니라.
14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
의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것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15 그럼에도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
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지 아니
하였나니
16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
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판단의 법도
를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
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
라.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
들을 아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없애지 아니
하였으며
18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
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19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내 법
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20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
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
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
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
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
지도 아니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므
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
에서 그들에게 내 격노를 부으며 그들
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
을 억제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
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것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
니라.
23 내가 또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
여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
버리려 하였나니
24 이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
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
이라.
25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하
지 않은 법규와 그들이 *행하여도* 살지
못할 판단의 법도를 주었느니라.
26 또 그들이 태를 여는 모든 자들
로 하여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
으므로 내가 그들의 예물로 그들을
더럽혔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황폐
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27 ¶ 그런즉 사람의 아들아, 이스
라엘의 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
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것으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
고 저것으로 그들이 내게 범법을 행하
였느니라.
28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에
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때에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굵은 나무를 보고 거기서
자기들의 희생물을 드리며 거기서 자
기들의 헌물을 드려 격노를 일으켰고
또 거기서 자기들의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며 거기서 자기들의 음료 헌물을
부었느니라.
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경배하러* 가는 그 산당은 무엇
이냐?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
날까지 바마라 하느니라.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
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
더럽혀졌느냐? 너희가 그들의 가증
한 것들을 따라 행음하느냐?

31 너희가 너희 예물을 드리며 너
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심지어 이 날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니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
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
리라.
32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교
도들 곧 그 나라들의 가족들같이 나무
와 돌을 섬기리라, 하거니와 너희 생
각 속에 품은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33 ¶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 붓는
격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34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
붓는 격노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
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35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
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36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
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37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
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
가게 하며
38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
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
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9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에 관
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가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40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내 거룩한 산과 이스
라엘의 높은 산에서 곧 거기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
이며 또 거기서 내가 너희의 헌물과
봉헌물의 첫 열매와 또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요구하리라. 주 하나님
이 말하노라.
41 내가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
리고 나오고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때에 내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너희를
받아들이고 이교도들 앞에서 너희 가
운데서 거룩히 구별되리니
42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나라 곧 이스
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43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길들과
너희를 더럽힌 너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겠고 또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악으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44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대로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
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45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46 사람의 아들아, 남쪽을 향해 네
얼굴을 고정하고 남쪽을 향해 네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 들의 숲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47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
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

라.
48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기에
49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
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
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
냐? 하나이다, 하니라.

제 21 장

바빌론: 하나님의 칼

1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루살렘을
향해 네 얼굴을 고정하고 거룩한 처소
들을 향해 네 말을 떨어뜨리며 이스라
엘 땅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네게서
끊으리라.
4 내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이 칼집에
서 나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니
5 이것은 나 주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은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하려 함이
라. 그것이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
라, 하라.
6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며 그들의 눈
앞에서 쓰라리게 탄식하라.
7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탄식하느냐? 하면 너는 대답하
기를, 소식 때문이니 곧 그것이 임하
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으며 모
든 손이 약하게 되고 모든 영이 기진하
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하게 되리
라. 보라, 그것이 임하며 반드시 이루
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
라.
8 ¶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9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 이르기
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또
이르기를, 칼 곧 칼이 날카롭게 되고
빛나게 되었도다.
10 그것이 날카롭게 됨은 심하게
살육하고자 함이요, 그것이 빛나게
됨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그런즉 우리
가 기뻐하겠느냐? 그것이 모든 나무
를 *멸시하듯*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
하는도다.
11 그가 칼을 주어 빛나게 함은 그
것을 길들이기 위함이요, 이 칼이 날
카롭게 되고 빛나게 됨은 죽이는 자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기 위함이라, 하
라.
12 사람의 아들아, 부르짖으며 울
부짖으라. 그 칼이 내 백성 위에 임하
며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위에 임하
리라. 그 칼로 인한 두려움이 내 백성
위에 임할 터이니 그러므로 네 넓적다
리를 칠지어다.
13 그것은 시험하는 것인즉 그 칼
이 그 막대기마저 멸시하면 어찌 되겠
느냐?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
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며 네 두 손을 마주 치고 그
칼 곧 죽임 당한 자들을 *친* 칼이 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것은 죽임
당한 위대한 자들 곧 자기들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친* 칼이니
라.
15 그들의 마음이 기진하게 하고
그들의 황폐함이 많게 하려고 내가
그들의 모든 문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
었도다. 아! *그가* 그 칼을 빛나게 하였
고 살육하기 위해 그것을 감싸 쥐었도
다.
16 너는 이 길이나 저 길로 가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네 얼굴을 정한
곳으로 가라.
17 나도 내 두 손을 마주 치며 내
격노를 멈추게 하리로다. 나 주가 그
것을 말하였노라.
18 ¶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19 사람의 아들아, 또한 너는 바빌
론 왕의 칼이 이르도록 너를 위해 두
길을 정하라. 그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도시로
가는 길머리에서 그것을 택하라.
20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스와 견고
한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이르
도록 한 길을 정할지니
21 바빌론 왕이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을 치고 자기
화살들을 빛나게 하며 형상들에게 조
언을 구하고 간을 들여다보았느니라.
22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을 향한
점괘 곧 대장들을 임명하고 살육하는
가운데 입을 벌리며 소리를 질러 목소
리를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세우며 작은 산을
쌓고 보루를 세우려는 점괘가 있도
다.
23 그것이 그들 곧 전에 서약을 맹
세한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기에 거짓
점괘 같을 터이나 그는 그 불법을 기억
하리니 이로써 그들이 사로잡히리라.
24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범법들을 드러
나게 하여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너희의 불
법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
거니와 *그가* 너희를 기억하게 되었은
즉 너희가 그 손에 사로잡히리라.
25 ¶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
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나니 그
때에 불법이 끝나리라.
26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
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27 내가 그것을 거꾸러뜨리고 거꾸
러뜨리며 거꾸러뜨리리니 그것이 다
시 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암몬을 치는 칼

28 ¶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
여 이르기를, 암몬 족속과 그들의 치욕
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하고 심지어 너는 이르기를, 칼
곧 칼이 뽑혔도다. 그것이 빛을 냄은
살육하기 위함이요, 번쩍임으로써 소
멸시키기 위함이라.
29 그들이 너를 향하여 헛된 것을
보며 너를 향하여 거짓을 점치고 너를
데려다가 죽임 당한 자들 곧 사악한
자들의 목 위에 두리니 그들의 불법이
끝날 때에 그들의 날이 이르리라.
30 내가 그것을 되돌려 그것의 칼
집에 꽂겠느냐? 네가 창조된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
리로다.
31 내가 내 격노를 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를 향하여 *불을*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들 곧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로
다.
32 네가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되고
네 피가 그 땅 한가운데 있으며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라.

제 22 장

예루살렘의 죄

1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네가 그
피 흘리는 도시를 심판하려 하며 네가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너는 그녀
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
주며
3 또 그때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도시가 자기 한
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며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4 너는 네가 흘린 네 피로 말미암아
유죄가 되고 네가 만든 네 우상들로
네 자신을 더럽혔으며 또 네가 네 날들
을 가까이 오게 하여 네 햇수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

교도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며 모
든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
라.
5 가까이 있는 자들과 네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너는
수치스러운 자요, 많이 괴로움을 당한
자니라.
6 보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각
각 네 안에서 피를 흘려 자기들의 권세
를 얻고자 하였도다.
7 네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
니를 업신여기며 네 한가운데서 나그
네를 학대하여 다루고 네 안에서 아버
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8 네가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9 네 안에는 피를 흘리려고 소문을
옮기는 자들이 있나니 네 안에서 그들
이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고 네 한가
운데서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
다.
10 네 안에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
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네 안에서
그들이 더러움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를 비천하게 하였느니라.
11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행하고 다른 자는
음탕하게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며 다
른 자는 네 안에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비천하게 하였느니라.
12 네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
고 뇌물을 받으며 너는 이자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내서 네 이웃을 강탈하
여 *재물을* 얻었고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3 ¶ 보라, 그러므로 네가 얻은
정직하지 않은 이득과 네 한가운데
있던 네 피로 인해 내가 내 손을 쳤나
니
14 내가 너를 대할 날들에 네 마음
이 능히 견디겠으며 네 손이 강하겠느
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
을 행하리라.
15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그 나라들에 흩어 버리고 네게
서 네 더러움을 취하여 소멸시키리
라.
16 네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네
안에 있는 네 상속 재산을 취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라.

용광로 속의 이스라엘

17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18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 찌꺼기로다.
19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
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
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20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
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격노하는 가운데 너희
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21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
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
되
22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격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악한 지도자들

23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4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
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땅이
요, 격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로다, 하라.
25 그녀의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보물
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
들었도다.
26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
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
라.
27 거기의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리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는도
다.
28 그녀의 대언자들은 제대로 섞
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들을 칠해 주고
헛된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해 거짓을
점치면서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으며
29 그 땅의 백성은 학대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
하게 학대하였도다.
30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
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
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31 그러므로 내가 내 격노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제 23 장

두 창녀 자매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한 어머니의 딸들
인 두 여자가 있었느니라.
3 그들이 이집트에서 행음하되 어
렸을 때에 행음하여 거기서 그들의
젖가슴이 짓눌렸으며 거기서 저들이
그들의 처녀 때의 젖꼭지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4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아홀라요,
그녀의 동생은 아홀리바였느니라. 그
들은 내 것이었으며 그들이 아들딸들
을 낳았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곧 사마리아는 아홀라요, 예루
살렘은 아홀리바니라.

언니 사마리아

5 아홀라가 내 것이었을 때에 그녀
가 창녀 짓을 행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6 그들은 곧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
과 치리자들이요,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며 말 타는 기병들이었
노라.
7 그녀가 이와 같이 그들 곧 아시리
아의 선정된 모든 자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
의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8 이집트에서 들여온 자신의 행음
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어
렸을 때에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누웠
도다. 그들이 그녀의 처녀 때 젖가슴
을 상하게 하며 자기들의 행음을 그녀
에게 쏟아 부었느니라.
9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사
랑하는 자들의 손에 곧 그녀가 사랑하
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
더니
10 이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
러내고 그녀의 아들딸들을 빼앗으며
칼로 그녀를 죽였느니라. 그녀가 여
자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었으니 이
는 그들이 그녀에게 심판을 집행하였
기 때문이라.

동생 예루살렘

11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
며 행음 면에서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더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12 그녀가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
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심히
화려한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
이요, 말 타는 기병들이며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었노라.
13 그때에 내가 그녀가 더럽게 되

고 그들이 다 한 길을 취하며
14 또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많게
한 것을 보았나니 그녀가 벽에 그린
사람들 곧 주홍색으로 그린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들을 볼 때에 *그리하였
느니라*.
15 *그들은* 띠로 허리를 동이고 물
들인 수건으로 머리를 엄청나게 쌌으
며 그들은 다 자기들이 출생한 땅 갈대
아의 바빌론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며
바라볼 만한 통치자들이었느니라.
16 그녀가 눈으로 그들을 보고는
곧 그들과 사랑에 빠져 사자들을 갈대
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보내매
17 바빌론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나
아와 사랑의 침상으로 가서 자기들의
행음으로 그녀를 더럽히니 그녀가 그
들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그 뒤에* 그녀
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느니라.
18 그녀가 이와 같이 자기의 행음
을 드러내며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
내었으므로 그때에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그녀에게
서도 멀어졌느니라.
19 그럼에도 그녀가 자기의 어렸
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자기가 창녀
짓을 행하던 때를 기억하며 자기의
행음을 크게 더하였으니
20 이는 그녀가 그들의 애인들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들의 육
체는 나귀들의 육체 같고 그들의 유출
물은 말들의 유출물 같으니라.
21 이와 같이 네가 네 어렸을 때의
젖꼭지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
금 네 젖꼭지를 상하게 하여 네 어렸을
때의 음탕함을 기억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2 ¶ 그러므로, 오 아홀리바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네
마음이 네 사랑하던 자들에게서 멀어
졌나니 내가 그들을 일으켜 너를 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사방
에서 너를 치게 하리라.
23 *그들은* 바빌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과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
아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요, 대장들과 치리자들이며
큰 귀족들과 유명한 자들이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24 그들이 병거와 마차와 수레와
백성의 무리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투구를 배치하여 사방에서 너를 칠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내가 심판을 그들 앞에 놓으리니 그들
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너를 심판하리
라.
25 또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질투를
일으키리니 그들이 분을 내어 너를
대하고 네 코와 네 귀를 가져가며 네
남은 자들을 칼로 쓰러뜨리고 네 아들
딸들을 빼앗으며 네 남은 자들을 불로
삼키고
26 또 네게서 네 옷을 벗기며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아 가리라.
27 이와 같이 내가 네 음탕함과 이
집트 땅에서 들여온 네 행음을 네게서
그치게 하여 네가 그들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28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미워하는 자들
의 손에 곧 네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29 그들이 너를 미움으로 대하며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가고 너를
벌거벗기며 알몸으로 두어 네 행음의
벌거벗음 곧 네 음탕함과 네 행음을
드러내리라.
30 네가 이교도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
으므로 내가 이 일들을 네게 행하리
라.
31 네가 네 언니의 길로 걸었은즉
내가 그녀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32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깊고 큰 네 언니의 잔을 마시고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리니 그
것은 많이 담는 잔이라.
33 네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또 네

언니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황폐함
의 잔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34 네가 그 잔을 마시되 들이마시
고 그 잔의 조각들을 부수며 네 가슴을
잡아 뜯으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
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35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네 등 뒤로 버렸은즉 너 또한 네 음탕
함과 네 행음을 담당할지니라, 하시
니라.

두 자매가 심판받음

36 ¶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아홀라와 아홀리
바를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그들
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
낼지니라.
37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
의 손에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들
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자기들
이 내게 낳아 준 자기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이 소멸되게 하였
느니라.
38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
도다.
39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죽
여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바
로 그 날에 내 성소로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나니, 보라, 그들이 내 집의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였도다.
40 또 너희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먼 곳에서 그들을 오게 하니,
보라, 그들이 왔느니라. 네가 그들을
위하여 네 몸을 씻으며 네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식물로 몸을 단장하며
41 품위 있는 침상에 앉아 그것 앞
에 상을 예비하고 그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놓았느니라.
42 또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의 소
리가 그녀와 함께하였으며 또 광야에
서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바 사람들을 데려오매 그들이 저들
의 손에 팔찌를 끼우며 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웠도다.
43 그때에 내가 간음 중에 있던 늙
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그녀와 행음하려 하며 또 그녀가 그들
과 행음하려 하리요? 하였느니라.
44 그럼에도 그들이 창녀 짓을 행
하는 여인에게로 들어가듯 그녀에게
로 들어갔으니 이처럼 그들이 음탕한
여인 아홀라와 아홀리바에게로 들어
갔도다.
45 ¶ 그런즉 의로운 자들 곧 그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을 다루는 관례대
로 그들을 심판하며 피를 흘리는 여자
들을 다루는 관례대로 심판하리니 이
는 그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기 때문
이요,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
라.
46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한 무리를 데려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며 그들을 내주어 제거당하
고 노략당하게 하리니
47 그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자
기들의 칼로 그들을 신속히 처치하며
그들의 아들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
들을 불태우리라.
48 이와 같이 내가 그 땅에서 음탕
한 짓을 그치게 할 터인즉 모든 여자들
이 가르침을 받아 너희의 음탕한 짓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49 그들이 너희의 음탕한 행위를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너희가 너희 우
상들로 인한 죄들을 담당할 것이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
라, 하시니라.

제 24 장

솥 비유

1 제구년 시월 곧 그 달 십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2 사람의 아들아, 너를 위해 그 날
즉 바로 이 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였느니라.
3 반역하는 그 집에게 한 비유를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솥 하나를 걸라.
그것을 걸고 거기에 물도 부으며
4 그것의 조각들 곧 모든 좋은 조각
과 넓적다리와 어깨를 모아 그 안에
넣고 좋은 뼈들로 그것을 가득히 채우
며
5 양 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그 뼈들을 솥 밑에서 태워 그 솥이
잘 끓게 하며 또 그들이 그것의 뼈들을
그 안에서 삶게 할지어다.
6 ¶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리는 도시 곧 찌끼가
나가지 아니하여 그 안에 찌끼가 남아
있는 솥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조각
조각 그것을 가져오며 그것을 향해
제비를 뽑지 말지어다.
7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
도다. 그녀가 그것을 바위 꼭대기에
두고 먼지로 덮이게 하려고 그것을
땅에 쏟지 아니하였으니
8 그 목적은 그것이 격노를 일으켜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
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어 그것이
덮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
지어다! 내가 불 피울 *장작*더미를 크
게 하리니
10 나무를 쌓아 올려 불을 붙이며
고기를 소멸시키고 양념을 잘하며 그
뼈들을 태울지니라.
11 그 뒤에 그 솥을 빈 채로 그것의
숯 위에 놓아 그 솥의 놋을 뜨겁게
하여 달구며 그것의 더러운 것을 그
안에서 녹여 그것의 찌끼를 소멸시킬
지니라.
12 그녀가 거짓들로 자신을 지치
게 하였고 그녀의 큰 찌끼가 그녀에게
서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녀의 찌끼
가 불 속에 있으리로다.
13 네 더러움 속에는 음탕함이 있
도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되
네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 격노를 네 위에 멈추게 할
때까지 네가 다시는 네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14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것이 이루어지겠고 내가 그것을 행하
리라.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뜻을 돌이키지도 아
니하리니 그들이 네 길들과 네 행위들
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대언자의 아내의 죽음

15 ¶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6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네 눈이 바라는 것을 네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며
17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그 죽
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며 네
머리의 수건을 네 몸에 두르고 네 발에
신을 신으며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매
18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
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
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
라.
19 ¶ 그때에 백성이 내게 이르기
를, 네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
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
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21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성소 곧 너희 기력의 뛰어남이
요,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이며 너희
혼이 딱하게 여기는 곳을 더럽히리니
너희가 남겨 둔 너희 아들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22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
리니 곧 너희가 너희 입술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의 빵도 먹지 아니하
리라.

23 또 너희가 너희 수건을 머리 위
에 두르고 너희 신을 발에 신고 애곡하
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오직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쇠약해지며 서
로 바라보고 애곡하리라.
24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었나니 그가 행한 모든 것대
로 너희도 행하리라. 이 일이 이를
때에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5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내가 그들
에게서 그들의 기력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과 그들
이 마음을 두는 것과 그들의 아들딸들
을 취하는 날
26 곧 그 날에 도피하는 자가 네게
와서 너로 하여금 네 귀로 그것을 듣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27 그 날에 네 입이 도피한 자를
향하여 열리므로 네가 말하고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
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25 장

암몬에 대한 심판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암몬
족속을 향해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
여 대언하며
3 암몬 족속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네가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네가 그것을
향하여, 유다의 집이 포로가 되어 갔
을 때에 네가 그것을 향하여 이르기
를, 아하, 하였도다.
4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소유물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네 안에 자기들의 궁궐
을 세우며 네 안에 자기들의 거처를
만들고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시
리라.
5 또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을 양 떼의 눕는 곳으
로 만들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손뼉을 치
며 발을 구르고 전적으로 무례히 행하
며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내밀며 너를 이교도들에게
넘겨주어 노략물이 되게 하고 너를
백성들에게서 끊어 버리며 너를 그
나라들에서 끄집어내어 사라지게 하
고 멸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
라, 하라.

모압에 대한 심판

8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보라, 유다
의 집이 모든 이교도들과 같다, 하는
도다.
9 그러므로, 보라, 내가 도시들 곧
모압의 국경에 있는 그의 도시들 즉
그 나라의 영광인 벧여시못과 바알므
온과 기랴다임으로부터 *시작하여* 모
압의 측면을 열고
10 암몬 족속과 더불어 그들을 동
쪽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겨주어 암몬
족속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
니하게 할 것이요,
11 또 내가 모압 위에 심판을 집행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
라.

에돔에 대한 심판

12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에돔이 원수를 갚음으로써 유다의
집을 치며 크게 죄를 짓고 그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았도다.
1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곳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을 터인즉 그들
이 내 분노와 내 격노대로 에돔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내가 원수 갚은 것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

15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블레셋 사람들이 옛적의 증오로
인해 그곳을 멸하려고 원수 갚음으로
대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
았도다.
16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들 위에 내밀어 그렛 사람들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들을 멸할 것이
요,
17 또 맹렬히 책망함으로 그들에
게 크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
니라.

제 26 장

두로에 대한 심판

1 제십일년 그 달 일일에 주의 말씀
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
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아하, 백성들
의 문이던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하였도다.
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
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
니
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
며 그녀의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겨 내어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5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
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
것이 민족들에게 노략물이 되며
6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
이 알리라.
7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을 북쪽에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데려와 두로 위에 임하게 하리
라.
8 그가 들에 있는 네 딸들을 칼로
죽이며 너를 치려고 보루를 만들며
너를 치려고 작은 산을 쌓으며 너를
치려고 작은 방패를 들어 올리며
9 네 성벽을 치려고 전쟁에 쓸 기계
들을 세우며 자기 도끼로 네 망대들을
헐리라.
10 그의 말들이 많으므로 그것들
의 티끌이 너를 덮겠고 사람들이 무너
진 곳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들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
과 바퀴와 병거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벽들이 흔들리리라.
11 그가 자기 말발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고 칼로 네 백성을 죽이며
네 견고한 요새를 땅에 무너뜨릴 것이
요,
12 그들이 네 재물을 노략하고 네
상품을 탈취하며 네 성벽들을 헐고
네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물 한가
운데 넣으리라.
13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
리니 네 하프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14 또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같
이 되게 할 터인즉 네가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
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5 ¶ 주 하나님이 두로에게 이같
이 말하노라. 상처 입은 자가 울부짖
으며 네 한가운데서 살육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섬들이 네 무너지는 소리

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느냐?
16 그때에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
이 자기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예복을
버리며 수놓은 옷을 벗고 떨림으로
옷을 입으며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매 순간 떨고 놀라리라.
17 또 그들이 너를 위해 애가를 짓
고 네게 이르기를, 배타는 자들이 거
주하던 유명한 도시여, 그녀와 그녀의
거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하여 거기를
드나드는 모든 자에게 두려움을 주더
니 어찌 네가 그리 멸망하였는가!
18 이제 네가 무너지는 날에 섬들
이 떨며 참으로 바다에 있는 섬들이
네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근심하리로다,
하리라.
19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도시들같이 황폐한 도시가 되게 하고
깊음을 가져다가 네 위에 두어 큰물들
이 너를 덮게 할 때에
20 곧 그때에 내가 너를 옛적 사람
들 즉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밑으로 데려가고 너를 구덩이로 내려
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낮은 부분들
곧 옛적부터 황폐한 곳들에 두어 네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산 자들의 땅
에 영광을 세우리라.
21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움이 되
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
라. *사람이* 너를 찾을지라도 결코 다
시 너를 만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
이 말하노라.

제 27 장

두로에 대한 애가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너는 두로를
위해 애가를 짓고
3 두로에게 이르기를, 오 바다의
어귀에 있으면서 많은 섬을 위하여
백성들의 상인이 된 너 *두로*야, 주 하
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아름답
다, 하였도다.
4 네 경계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네 건축자들이 네 아름다움을 완전하
게 하였도다.
5 그들이 스닐의 전나무로 네 배의
모든 판자를 만들었으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돛대를
만들었도다.
6 그들이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아술 족속의 무리가
깃딤의 섬들에서 가져온 상아로 네
갑판을 만들었도다.
7 네가 이집트에서 들여온 수놓은
제품과 고운 아마포를 넓게 펴서 네
돛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섬들에서 들
여온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너를
덮게 하였도다.
8 시돈과 아르왓의 거주민들이 네
선원이 되었으며, 오 두로야, 네 안에
있던 네 지혜로운 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9 그발의 노인들과 그곳의 지혜로
운 자들이 네 안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배들의 선원들이 네 안에서 네 상품을
거래하였도다.
10 페르시아와 룻과 붓 사람들이 네
군대 안에서 네 전사가 되었으며 그들
이 네 안에 방패와 투구를 달아매어
네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도다.
11 아르왓 사람들과 네 군대가 네
성벽의 사방에 있었고 감맛 사람들이
네 망대들 안에 있었나니 그들이 자기
들의 방패를 네 성벽의 사방에 달아매
어 네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였도
다.
12 다시스는 온갖 종류의 재물이
많으므로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네 장터에서
바꾸어 갔도다.
13 그들 곧 야완과 두발과 메섹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사람과

놋그릇을 네 시장에서 바꾸어 갔도
다.
14 도갈마의 집에 속한 자들이 말
과 기병과 노새를 가져와 네 장터에서
바꾸어 갔으며
15 드단 사람들이 네 상인이 되었
도다. 많은 섬이 네 손의 상품이 되었
으며 그들이 네게 상아 뿔과 흑단을
예물로 가져왔도다.
16 네가 만드는 물품이 많으므로
시리아가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에메랄드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제
품과 고운 아마포와 산호와 마노를
가져와 네 장터에서 거래하였도다.
17 그들 곧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민닛의
밀과 판낙 *과자*와 꿀과 기름과 향유를
네 시장에서 바꾸어 갔도다.
18 네가 만드는 물품이 많고 모든
재물이 많으므로 다마스쿠스가 헬본
의 포도즙과 흰 양털로 인해 네 상인이
되었도다.
19 단과 야완도 오가면서 네 장터
에서 거래하였으니 빛나는 쇠와 계피
와 창포가 네 시장에 있었도다.
20 드단은 병거에 쓸 귀한 옷감을
가져와 네 상인이 되었도다.
21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통치자
들은 어린양과 숫양과 염소를 가져와
너와 거래하였으며 그들이 이것들을
가져와 네 상인이 되었도다.
22 세바와 라아마의 상인들도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모든 향료
중 최상품과 모든 보석과 금을 가져다
가 네 장터에서 거래하였도다.
23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및 세바와
앗수르와 길맛의 상인들도 네 상인들
이었노라.
24 이들이 모든 종류의 물건 곧 네
상품 가운데서 청색 옷과 수놓은 제품
과 또 백향목으로 만들어 끈으로 묶고
값진 옷을 담은 상자를 가져와 네 상인
이 되었으니
25 다시스의 배들이 네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
히 채워져서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
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26 ¶ 너의 노 젓는 자들이 너를
큰물들로 데려갔으며 동풍이 바다들
의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도다.
27 네가 몰락하는 날에 네 재물과
장터와 상품과 선원들과 선장들과 *배*
의 틈을 막는 자들과 네 상품을 거래하
는 자들과 네 안에 있는 네 모든 전사
와 네 한가운데 있는 네 온 무리에
속한 *전사들이* 바다들의 한가운데로
빠질 것이요,
28 그 주변 지역들이 네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흔들리리로다.
29 노를 잡는 모든 자들과 선원들
과 바다의 모든 선장들이 자기들의
배에서 내려와 육지에 서서
30 너를 향하여 자기들의 목소리
가 들리게 하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자기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날리고
스스로 재 가운데서 뒹굴 것이요,
31 또 너로 인하여 완전히 머리를
밀고 굵은 베로 몸을 두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쓰라리게 통곡하고 너를 위
하여 슬피 울리로다.
32 그들이 통곡하면서 너로 인하
여 애가를 지어 너를 애도하며 말하기
를, 어떤 도시가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당하였는가?
33 네 물품들을 바다에서 내갈 때
에 네가 많은 백성을 채워 주었으며
네가 네 많은 재물과 네 많은 상품으로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였도다.
34 네가 물들의 깊음들 속에서 바
다들로 말미암아 부서질 때에 네 상품
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온 무리가
빠지리로다.
35 섬들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로
인해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심히 두려
워하여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리
로다.
36 백성들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리니 네가 두려움이 되어
결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로
다, 하라.

제 28 장

두로의 왕에 대한 심판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
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
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
데 앉아 있다, 하였도다. 네가 네 마음
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
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3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서 그들이 네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4 네가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네 곳간에 넣었으며
5 네가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네 재물을 불렸고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6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이 정하였으니
7 그러므로, 보라, 내가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데려
다가 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
움을 치며 네 광채를 더럽히고
8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리리니 네
가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죽임 당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라.
9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여전
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
느냐? 오직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 안에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
라.
10 네가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
례 받지 않은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두로의 왕에 대한 애가
11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2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13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
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
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
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북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14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
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
도다.
15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
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
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16 네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네
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
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
로다.
17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
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
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18 네가 네 많은 불법 곧 네 무역의
불법으로 네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
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
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
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
가 땅 위의 재가 되게 하리라.
19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
든 자들이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네가
두려움이 되고 결코 다시는 있지 아니
하리라, 하라.

시돈에 대한 심판
20 ¶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21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시돈
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22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한가운데서 영광
을 얻으리라, 하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3 내가 그녀에게 역병을 보내고
그녀의 거리들에 피를 보내리니 상처
를 입은 자가 사방에서 그녀에게 임하
는 칼로 말미암아 그녀의 한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터인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4 ¶ 이스라엘의 집의 사방에 있
는 모든 자들 곧 그들을 멸시하던 자들
의 찌르는 찔레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내
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모임

25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모으고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
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 것이요,
26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히 거
하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리
라. 참으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 위에 내가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거하리니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29 장

이집트에 대한 심판

1 제십년 시월 곧 그 달 십이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고정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3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
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네
강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이라.
네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노
라, 하였도다.
4 그러나 내가 네 턱에 갈고리를
꿰고 네 강들의 물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며 네 강들 한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네 강들의 모든 물고기
가 네 비늘에 붙으리라.
5 또 내가 너와 네 강들의 모든 물고
기를 광야에 던져 버려두리니 네가
빈 들판에 떨어질 것이요, 아무도 너
를 함께 데려가거나 거두지 아니하리
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었노라.
6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
엘의 집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
니라.
7 그들이 네 손을 붙잡을 때에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네게 기댈 때에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8 ¶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네 위에 임하게 하고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터인즉
9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
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노라, 하
였기 때문이라.
10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시에네 망대로부터 에티오피아 경계
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11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거기를 지나가

지 아니하며 사십 년 동안 거기에 사람
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12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
들의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
의 도시들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
데서 사십 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
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그 나라들로 그들을 흩어 버리리라.
13 ¶ 그럼에도 주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사십 년이 끝날 때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모으리
라.
14 내가 이집트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을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미천한 왕국이
되리라.
15 그것이 왕국들 중의 가장 미천
한 왕국이 되어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줄어들게 하여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
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그것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의
확신이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그들
의 불법을 기억나게 하거니와 오직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리
라, 하라.

바빌론이 이집트를 노략함

17 ¶ 제이십칠년 일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8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 느부
갓레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큰 수고
를 하게 하여 두로를 쳤으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졌도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보수
곧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9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
빌론 왕 느부갓레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가며 그녀의 노략
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그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보수가 되리라.
20 그가 두로를 칠 때에 행한 수고
로 인하여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
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1 ¶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
뿔이 싹을 내게 하며 네가 그들의 한가
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0 장

이집트와 연합군들의 몰락

1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 이르기
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
희는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그 날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라.
3 이는 그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곧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것은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
리로다.
4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하고 죽임 당
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에 큰
고통이 에티오피아에 있으리라. 그들
이 그녀의 무리를 빼앗아 가며 그녀의
기초를 허물 것이요,
5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루디아와
모든 섞여 사는 백성들과 굽과 및 동맹
을 맺은 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지리라.
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를
떠받쳐 주는 자들도 쓰러지고 그녀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지리라. 시에네 망
대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7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의 한가운
데서 황폐하게 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한 도시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8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를
돕는 모든 자를 멸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9 그 날에 사자(使者)들이 나를 떠
나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이 지내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이집트의 날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들에게 큰 고통이 임하리라. 보라,
그것이 임하는도다.
10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
으로 이집트의 무리를 끊으리니
11 그와 및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백성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와서 그 땅을 멸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서 이집트를 치고
죽임 당한 자들로 그 땅을 채우리라.
12 내가 그 강들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사악한 자의 손에 팔며 타국인들
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피폐하게 하리라. 나 주가 그것
을 말하였노라.
1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
들의 형상들을 놉에서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집트 땅의 통치자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두리라.
14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놓으며 노에서 심판을
집행하리라.
15 내가 내 격노를 이집트의 기력
인 신 위에 쏟고 노의 무리를 끊으리
라.
16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으리니
신은 큰 고통을 당하고 노는 찢기며
놉은 날마다 고난을 당하리로다.
17 아웬과 비베셋의 청년들은 칼에
쓰러지며 이 도시들은 포로가 되리
라.
18 내가 드합느헤스에서 이집트의
멍에들을 꺾을 때에 거기서는 또한
날이 어두워지고 그녀의 세력의 영화
가 그녀 안에서 그치리라. 그녀로 말
하건대 구름이 그녀를 덮으며 그녀의
딸들은 포로가 되리라.
19 내가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심
판을 집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
이 알리라, 하라.

파라오에 대한 심판

20 ¶ 제십일년 일월 곧 그 달 칠일
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
시되,
21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나니, 보라, *사람
들이* 치료하기 위해 그것을 싸매지도
못하며 그것을 묶기 위해 붕대를 대지
도 못하고 칼을 잡을 만큼 그것을 강하
게 하지도 못하리라.
22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왕 파라
오를 대적하노라. 내가 그의 두 팔
곧 강한 팔과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23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
로 흩으며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리라.
24 내가 바빌론 왕의 두 팔을 강하
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두려니와
파라오의 두 팔은 꺾으리니 그가 그
앞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가
신음하듯 신음하리라.
25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두 팔
은 강하게 하리니 파라오의 두 팔이
떨어지리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두므로 그가 이집트 땅 위에 그것
을 내밀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며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1 장

이집트가 큰 나무처럼 벌목됨

1 제십일년 삼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2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파라오
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네 위대
함에 있어서 네가 누구와 같으냐?
3 ¶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

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
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
다.
4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깊음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을
그의 초목들 주변으로 흐르게 하였으
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5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에 그
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
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6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
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
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7 그의 뿌리가 큰물들 곁에 있었으
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우매
8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
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
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며 밤나
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
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서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9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이에 에덴
의 모든 나무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10 ¶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
이 말하노라. 네가 높은 *키*로 말미암
아 네 자신을 높였느니라.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11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교도들
중에서 힘센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그를 처리하리라.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를 내쫓았
느니라.
12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
서운 자들이 그를 끊고 내버려 두었으
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은 산들 위에와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그의 큰 가지
들은 땅의 모든 강들 곁에서 꺾이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에서
떠나 내려갔고 그를 내버렸느니라.
13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폐
허 위에 머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14 이것은 그 물들 곁의 모든 나무
중 어떤 것도 자기의 높은 *키*로 말미암
아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지 못하게 하며 또 그들의 나무들
곧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져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자녀들의 한가
운데서 땅의 아랫부분들에 이르렀도
다.
15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무덤에 내려간 날에 내가 애곡하
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깊음을
덮어 주고 그곳의 홍수를 막으며 큰물
들을 멈추게 하고 또 레바논으로 하여
금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그로 인해 기운을 잃게
하였느니라.
16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에 민족
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를 받으리
라.
17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
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
렀는데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
요, 이교도들의 한가운데서 그의 그
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
18 ¶ 이처럼 영광과 위대함에서
네가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누구와
같으냐?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
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

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한가운데
누우리라. 이것은 파라오와 그의 온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
라.

제 32 장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한 애가

1 제십이년 십이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파라오
를 위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
를, 너는 민족들 중의 젊은 사자와
같으며 바다의 고래와 같으니라. 네
가 네 강들과 함께 나아와 네 발로
물들을 휘저으며 그들의 강들을 더럽
혔도다.
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네 위에 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4 그때에 내가 너를 땅에 버려두고
빈 들판에 던져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네 위에 머무르게 하며 온 땅의 짐승들
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5 또 내가 네 살을 산들 위에 두며
네 높은 *키로* 골짜기들을 채우리라.
6 내가 또한 네 피로 네가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하게 되리
로다.
7 내가 너를 물리칠 때에 하늘을
가려 거기의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8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네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9 내가 너의 멸망 *소식*을 민족들
가운데로 곧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에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10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으로 하
여금 너로 인해 놀라게 하리라.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에 그들
의 왕들이 너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고
네가 쓰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매 순간 떨리라.
11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바빌론 왕의 칼이 네 위에 임하리라.
12 내가 강한 자들 곧 민족들 중에
서 무서운 자들의 칼로 네 무리를 쓰러
지게 하리니 그들은 다 *무서운 자들이
라.* 그들이 이집트의 영화를 노략하며
그것의 온 무리를 멸하리로다.
13 내가 또한 그곳의 모든 짐승을
큰물들 곁에서부터 멸하리니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들을 휘젓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이 그 물들을 휘젓지 못하
리로다.
14 그 뒤에 내가 그들의 물들을 깊
게 하여 그들의 강들이 기름같이 흐르
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5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하
므로 그 나라에 충만하던 것이 거기서
없어지게 될 때에 곧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를 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 이것은 그들이 그녀로 인하여
슬퍼할 때에 *부를* 애가니라. 민족들
의 딸들이 그녀로 인하여 슬퍼하되
그녀 곧 이집트와 그녀의 온 무리로
인하여 슬퍼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
노라, 하라.
17 ¶ 또 제십이년 그 달 십오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18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의 무리
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들 곧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덩이로 내
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
로 던지며 *말하기를,*
19 아름다움에서 네가 누구를 능
가하리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하라.*
20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의 한가운데서 쓰러지리라. 그녀가
칼에 넘겨졌은즉 그녀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끌어당길지어다.

21 힘센 자들 가운데서 강한 자가
자기를 돕는 자들과 함께 지옥의 한가
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이미 내려갔고 칼에 죽임을 당해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 있는 자들이니라.
22 거기에 앗수르와 그녀의 온 무
리가 있으며 그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들이라.
23 그의 무덤들이 구덩이의 옆면
들에 놓여 있으며 그녀의 무리가 그녀
의 무덤 주위에 있는데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들이요, 산 자
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
이라.
24 거기에 엘람이 있으며 그녀의
온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는데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들이요, 할례 받지 않은 채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간 자들이며 산 자
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
이라. 그러나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
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였도다.
25 그들이 그녀와 그녀의 온 무리
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
데 침상을 놓았는데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도다. 그들은 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이라. 그들이 비록 산 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
를 담당하였도다. 그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놓여 있도다.
26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녀의
온 무리가 있으며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도다. 그들이 비록 산
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
라도 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 칼에 죽임
을 당하였느니라.
27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중
에서 쓰러진 그 힘센 자들과 함께 눕지
못할 터인데 이 힘센 자들은 자기들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서
자기들의 칼을 자기들의 머리 밑에
놓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비록
산 자들의 땅에서 힘이 세어 두려움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불법들이 그들
의 뼈들 위에 있으리로다.
28 참으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자
들의 한가운데서 부서지며 칼에 죽임
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우리로다.
29 거기에 에돔과 그녀의 왕들과
그녀의 모든 통치자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간직한 채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옆에 누워 있도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누우리로다.
30 북쪽의 통치자들 곧 그들 모두
와 모든 시돈 사람이 죽임을 당한 자들
과 함께 내려가 거기 있도다. 그들이
자기들이 내던 두려움을 간직한 채
자기들의 힘을 부끄러워하는도다. 그
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채 누워 있으며 구덩이
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는도다.
31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온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가 *위로를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32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나의
두려움을 일으켰노라. 그가 칼에 죽
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
은 자들의 한가운데 누우리니 곧 파
라오와 그의 온 무리가 *그리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33 장

파수꾼의 의무

1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네 백성의 자손
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
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
로 세운다 하자.

3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5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
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6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
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
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
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7 ¶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
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8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
라, 할 때에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악
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라.
10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
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범법들
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
가 그것들 가운데서 쇠약하게 되었으
니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하는도다.
1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
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
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12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의
로운 자가 범법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그를 건지지 못하리라. 사악한 자의
악으로 말하건대 그가 자기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의로
운 자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가 자기
의로 인하여 능히 살지 못하리라.
13 내가 의로운 자에게 말하기를,
그가 반드시 살리라, 할 때에 그가
만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
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겠
고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14 또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
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그가 만일 자기 죄에서 돌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여
15 담보물을 되돌려 주며 자기가
강탈한 것을 다시 내주고 생명의 법규
안에서 걸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
요,
16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에서 하
나도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살리라, 하라.
17 ¶ 그럼에도 네 백성의 자손들
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
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
건대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
다.
18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
켜 불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지어 죽으려니와
19 사악한 자가 자기의 악에서 돌
이켜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 ¶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
다.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
하리라.

예루살렘의 함락

21 ¶ 우리가 포로 된 지 십이 년이
되는 해 시월 곧 그 달 오일에 예루살렘
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이르러 말하기
를,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니라.
22 그 도피한 자가 이르기 전에 이
제 저녁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마침내 *그*가 아침에
내게 이르렀더라. 내 입이 열렸으므
로 내가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노라.

유다의 몰락의 원인

23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24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의
그 피폐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
는데도 그 땅을 상속하였거니와 우리
는 많으니 *그분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사 상속 재산이 되게 하셨도다, 하
는도다.
25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피를 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26 너희가 너희 칼을 의지하여 서
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하고
27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
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피폐한 곳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요, 또 빈 들판에 있는
자는 내가 짐승들에게 주어 먹히게
하며 요새와 굴에 있는 자들은 역병으
로 죽게 하리라.
28 내가 그 땅을 심히 황폐하게 하
고 그녀의 세력의 영화를 그치게 하리
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29 내가 그들이 행한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을 심히 황폐
하게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

30 ¶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네 백성
의 자손들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대적하여 말하며 서로에
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
기를, 청하노니 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하고
31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네
게 오며 내 백성같이 네 앞에 앉아
네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
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
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
라.
32 보라, 네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
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네 말들을 듣되 그것들을 행하
지는 아니하느니라.
33 (보라, 그것이 임하리니) 이것
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그들이 자기
들 가운데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알리
라.

제 34 장

무책임한 목자들

1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
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
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
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 떼를 먹
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3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
을 죽이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

다.
4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 주지 아니하
며 상한 것을 싸매 주지 아니하고 쫓겨
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
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
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
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
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6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
로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7 ¶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8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 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 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9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10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
가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 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
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
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 목자 하나님

11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12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
데 있는 날에 자기 양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 내리라.
13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데
려오며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
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되
14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
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
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15 내가 내 양 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
하노라.
16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
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 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17 오 내 양 떼여,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와 숫양과 숫염
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18 좋은 꼴을 먹은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너희의
남은 꼴을 반드시 너희 발로 밟아야
하겠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너희*
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나머
지 물을 너희 발로 반드시 더럽게 하여
야 하겠느냐?
19 내 양 떼로 말하건대 너희가 너
희 발로 밟은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
가 너희 발로 더럽게 한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20 ¶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
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가축과 야윈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
고 모든 병든 것을 너희 뿔로 밀어내어
마침내 그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
느니라.
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
하여 다시는 그들이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
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
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4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
라.
25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
며 수풀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26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
들을 복이 되게 하고 또 제때에 소나기
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27 그리한즉 들의 나무가 자기 열
매를 맺으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의 멍에의 매는
것을 꺾고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냈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8 또 그들이 다시는 이교도들에
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
이 안전히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29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굶주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
며 이교도들의 수치도 다시는 담당하
지 아니하리라.
30 저들이 이와 같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겠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31 내 양 떼 곧 내 초장의 양 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35 장

세일 산에 대한 심판

1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세일
산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3 그것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치며 너를 극히 황폐하게
하리라.
4 내가 네 도시들을 피폐하게 할
터인즉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5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하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때
곧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을 때에 칼의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6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예비하여 피에 이르게 할
터인즉 피가 네 뒤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심지어
피가 네 뒤를 따르리라.
7 이와 같이 내가 세일 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거기로* 지나가거나 돌
아오는 자를 거기서 끊으리라.
8 내가 그의 죽임 당한 자들로 그의
산들을 채우리니 칼에 죽임 당한 자들
이 네 산과 네 골짜기와 네 모든 강에
서 쓰러지리라.
9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
로 만들어 네 도시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는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였도다. 그러
나 주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11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
니 미움 속에서 그들을 칠 때 사용한
네 분노와 네 시기에 따라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심판하였
을 때에 내 자신을 그들 가운데 알리리
라.
12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며 또

너의 모든 신성 모독 곧 네가 이스라엘
의 산들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것
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넘
겨져서 소멸되게 되었도다, 한 것을
내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라.
13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것들
을 들었노라.
14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온 땅이 기뻐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
게 하리라.
15 이스라엘의 집의 상속 재산이
황폐하므로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네게 그렇게 행하
리라. 오 세일 산과 온 이두매아와 심지
어 그것의 모든 곳아,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
라, 하라.

제 36 장

이스라엘에 대한 복

1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이스라엘
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
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2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원
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
하, 심지어 옛적의 높은 곳들도 우리
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사방에서 너희
를 삼켜 너희가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야기꾼들의 입술에 오르며
백성의 악평거리가 되었도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
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
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
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곧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
에게 탈취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도시
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5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온 이두매아
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
을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언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친히 질
투하고 격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담당
하였기 때문이라.
7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
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8 ¶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
기 때문이니라.
9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
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
라.
10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
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11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
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
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2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걷게
하리라. 그들은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제부터
네가 그들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을 앗
아가지 아니하리라.
1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 땅이
여, *네가* 사람들을 삼키며 네 민족들
을 앗아갔다, 하나니
14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사람들
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민족
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
님이 말하노라.
15 또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
금 네 안에서 이교도들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네가 다시는 백
성들의 모욕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다
시는 네 민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하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됨

16 ¶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7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
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
라.
18 그런즉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격노를
그들 위에 부어
19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
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
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20 그들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갔
을 때에 자기들이 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에 저들이 그
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
이요, 그의 땅에서 떠나간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21 ¶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
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
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2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
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
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
느니라.
23 이교도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한가운데
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
나님이 말하노라.
24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25 ¶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
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
라.
26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
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
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27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28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
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
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30 또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
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
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31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
들과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불법들과 가증한 일
들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
을 심히 싫어하리라.
32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
희를 위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 길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
고 당황할지어다.
3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
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34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
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35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
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36 그때에 너희 사방에 남아 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3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
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
로 양 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38 거룩한 양 떼 곧 예루살렘의 엄
숙한 명절들의 양 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 떼로 채우리라. 그리
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제 37 장

마른 뼈들의 환상: 이스라엘의 부활

1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2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
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
라.
3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
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4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5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
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
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
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7 이에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대언하
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
라.
8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9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
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10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
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
데 심히 큰 군대더라.
11 ¶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
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
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
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
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
느니라.
12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
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13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
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한 왕국, 한 왕

15 ¶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16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
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 쓰며
17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
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네 손에
서 하나가 되리라.
18 ¶ 네 백성의 자손들이 네게 말
하여 이르기를, 네가 이것들로 무엇
을 말하려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
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
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
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
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20 ¶ 네가 *글을* 쓰는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있으리니
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
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
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
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
리라.
22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의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
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
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
하리라.
23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
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
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
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의 하나님이 되리라.
24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
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
리라.
25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
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
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26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
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
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27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
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
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
리라, 하라.

제 38 장

곡과 연합군들의 이스라엘 공격

1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
하며

3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
고 통치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
라.
4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네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5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
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
구로 무장한 자들과
6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
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
라.
7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네게로 모인 네 온 무리가 *예비하*
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8 ¶ 많은 날 뒤에 네가 징벌을 받
으리니 곧 마지막 해들에 네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게
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
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그러
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
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9 네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 곧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10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 바로 그때에 여러 가지 일이 네
생각 속에 떠올라 네가 악한 생각을
하며
11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
라. 내가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
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
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12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
하리라, 하고 네 손을 돌이켜서 *전에*
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
하는 곳들과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두리
니
13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노략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네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네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
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가며 큰 노략
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
라.
14 ¶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곡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 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네가 네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
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16 네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곡아,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네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
1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적에 내 종들 곧 이스라엘
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자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내가 너를 데
려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을 여러 해
동안 대언하였느니라.

곡에 대한 심판

18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에 내 격노가 내 얼굴에 나타
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9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서
20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
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
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
를 치리라.
22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
하고 그와 그의 떼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23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
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9 장

곡의 군대들이 멸절됨

1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2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육분의 일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
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
로 데려다가
3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떠나게
하고 네 화살들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
뜨리리라.
4 너 곧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5 네가 빈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
하노라.
6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내며 섬들
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
라.
7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알리
며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8 ¶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것이 이르렀으며 그것이 이루어졌
도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 날이니라.
9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
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칠 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
10 이와 같이 그들이 불로 그 무기
들을 태울 터이므로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아무것도
베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노략하던 자
들을 노략하며 전에 자기들 것을 탈취
해 가던 자들을 탈취하리라. 주 하나
님이 말하노라.

곡의 매장

11 ¶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
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
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12 이스라엘의 집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13 참으로 그 땅의 온 백성이 그들
을 묻으리니 그것이 그 날 곧 내가
영광을 얻는 날에 그들에게 명성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4 그들이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그 땅을 지나다니며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자들을 묻어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일곱 달이 끝난 뒤에 그들이 살피리
라.
15 또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자
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푯말을 세우되 묻는 자들
이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
지 그리할 것이요,
16 그 도시의 이름도 하모나가 되
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

하게 하리라.

승리의 연회

17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
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
여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
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 너희가 힘 센 자들의 살을 먹으
며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고 바산
의 모든 살진 짐승 곧 숫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수소의 *살과 피도 먹고 마실지
니라*.
19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
킨 내 희생물의 기름을 너희가 배부를
때까지 먹으며 그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시고
20 이와 같이 내 상에서 말과 병거
와 용사와 모든 전사로 배를 채울지니
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1 내가 내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
데 두어 모든 이교도들이 내가 집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보게 하리니
22 이로써 그 날 이후로는 이스라
엘의 집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옴

23 ¶ 또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간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24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법들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느니라.
25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
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26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
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모든 범법을
담당한 뒤에 자기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때에
27 곧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서 그들을 모으며 또 내가 많은 민족들
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28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
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들을 이교
도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였으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
고 다시는 그들 중의 하나도 거기에
남겨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29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
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40 장

새 도시와 새 성전

1 우리가 포로 된 지 이십오 년이
되는 해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뒤 십사 년이 되는 해 곧 그 해의 시작에
그 달 십일 바로 그 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시니라.
2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나를 이
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심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
라.
3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
셨는데, 보라, 거기에 모습이 놋의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
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 서
있더라.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보여 줄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며 네 귀로 듣고 네 마음
을 그것들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
들을 네게 보여 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나니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
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
더라.
5 보라,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며
벽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는 일 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육 큐빗
길이의 측량 갈대가 있더라. 이처럼
그가 그 건축물의 너비를 측량하니
한 갈대요, 높이가 한 갈대더라.

성전의 동쪽 문 길

6 ¶ 그 뒤에 *그가*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러 그 문의 계단으로 올라가
그 문의 문지방을 측량하였는데 그
너비가 한 갈대요, 그 문의 다른 문지
방도 너비가 한 갈대더라.
7 또 모든 작은 방의 길이가 한 갈대
요, 너비가 한 갈대며 작은 방들 사이
에 오 큐빗이 있고 안쪽 문의 주랑
곁에 있는 문의 문지방이 한 갈대더
라.
8 *그가* 또 안쪽 문의 주랑을 측량하
니 한 갈대며
9 그 뒤에 *그가* 그 문의 주랑을 측량
하니 팔 큐빗이요, 그것의 기둥들은
이 큐빗이며 그 문의 주랑이 안쪽을
향하였더라.
10 동쪽을 향한 문의 작은 방들은
이쪽에 세 개, 저쪽에 세 개가 있었는
데 그것들 세 개가 한 치수요, 이쪽과
저쪽의 기둥들이 한 치수더라.
11 또 그가 그 문 입구의 너비를
측량하였는데 십 큐빗이며 그 문의
길이는 십삼 큐빗이더라.
12 또한 작은 방들 앞에 있는 공간
은 이쪽에서 일 큐빗이요, 저쪽에서도
공간이 일 큐빗이며 그 작은 방들은
이쪽에서 육 큐빗, 저쪽에서 육 큐빗이
더라.
13 그 뒤에 *그가* 한 작은 방의 지붕
에서부터 다른 *작은 방*의 지붕에 이르
기까지 그 문을 측량하였는데 그 너비
가 이십오 큐빗이며 문과 문이 마주
보더라.
14 *그가* 또 그 문 주위에 있는 뜰의
기둥에 이르기까지 육십 큐빗 되는
기둥들을 만드니라.
15 또 입구의 문 정면에서 안쪽 문
의 주랑 정면까지 오십 큐빗이더라.
16 작은 방들과 그 문 안에 있는
그것들의 기둥들에 돌아가며 좁은 창
들이 있고 또 둥근 통로들에도 그러하
더니 창들이 안쪽으로 돌아가며 있고
모든 기둥 위에 종려나무들이 있더
라.

바깥뜰

17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들어갔는데, 보라, 거기에 방들
과 또 그 뜰을 위해 만들어진 돌로
포장한 곳이 돌아가며 있었고 돌로
포장한 곳 위에 서른 개의 방이 있더
라.
18 문들의 길이 *방향* 맞은편으로
문들의 옆에 있는 그 돌로 포장한 곳은
하단의 돌로 포장한 곳이더라.
19 그때에 *그가* 하단의 문의 앞면
에서부터 바깥의 안뜰의 앞면까지 너
비를 측량하니 동쪽과 북쪽으로 백
큐빗이더라.

북쪽 문 길

20 ¶ *그가* 또 북쪽을 바라보는 바
깥 뜰 문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라.
21 그것의 작은 방들이 이쪽에 세
개, 저쪽에 세 개가 있었으며 그것의
기둥들과 둥근 통로들의 *치수는* 첫째
문의 치수와 같았으니 곧 그것의 길이
는 오십 큐빗, 너비는 이십오 큐빗이더
라.
22 또 그것들의 창들과 둥근 통로
들과 종려나무들의 *치수는* 동쪽을 바
라보는 문의 치수와 같았으며 그들이
일곱 계단으로 그것에 올라가니라.
그것들의 둥근 통로들은 그것들 앞에
있더라.
23 또 안뜰의 문이 북쪽을 향한 문
과 동쪽을 향한 *문*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가 문에서부터 문까지 측량하니 백
큐빗이더라.

남쪽 문 길

24 ¶ 그 뒤에 *그가* 나를 남쪽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남쪽을 향한 문이
있더라. 그가 이 치수들에 따라 그것
의 기둥들과 둥근 통로들을 측량하니
라.
25 그것의 안과 그것의 둥근 통로
들에는 돌아가며 그 창들과 같은 창들
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오십 큐빗이
요, 너비가 이십오 큐빗이더라.
26 또 거기로 올라가는 일곱 계단
이 있고 그것들의 둥근 통로들이 그것
들 앞에 있더라. 또 그것에 종려나무
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기둥들 위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가 있더라.
27 또 안뜰에 남쪽을 향한 문이 있
었는데 그가 문에서부터 남쪽을 향한
문까지 측량하니 백 큐빗이더라.

안뜰의 문 길

28 또 그가 나를 남문 곁의 안뜰로
데리고 가서 이 치수들에 따라 남문을
측량하되
29 그것의 작은 방들과 기둥들과
둥근 통로들을 이 치수들에 따라 측량
하니라. 그것의 안과 그것의 둥근 통
로들에는 돌아가며 창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길이가 오십 큐빗, 너비가 이
십오 큐빗이더라.
30 돌아가며 있는 둥근 통로들의
길이는 이십오 큐빗이요, 너비는 오
큐빗이더라.
31 그것의 둥근 통로들은 밖의 뜰
을 향하였고 종려나무들이 그것의 기
둥들 위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데에는 여덟 계단이 있더라.
32 ¶ 또 그가 나를 동쪽을 향한
안뜰로 데리고 가서 이 치수들에 따라
그 문을 측량하니
33 그것의 작은 방들과 기둥들과
둥근 통로들이 이 치수들대로더라.
거기의 안과 그것의 둥근 통로들에는
돌아가며 창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길
이가 오십 큐빗, 너비가 이십오 큐빗이
더라.
34 그것의 둥근 통로들은 밖의 뜰
을 향하였고 종려나무들이 그것의 기
둥들 위에 이쪽과 저쪽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데에는 여덟 계단이
있더라.
35 ¶ 또 그가 나를 북문으로 데려
가서 이 치수들에 따라 그것을 측량하
고
36 그것의 작은 방들과 기둥들과
둥근 통로들과 돌아가며 거기 달린
창문들을 *측량하였는데* 그 길이는 오
십 큐빗, 너비는 이십오 큐빗이더라.
37 그것의 기둥들은 밖의 뜰을 향
하였고 종려나무들이 그것의 기둥들
위에 이쪽과 저쪽에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데에는 여덟 계단이 있더
라.

희생물을 예비하는 곳

38 그것의 방들과 입구들은 그 문
들의 기둥들 옆에 있었으며 그들이
거기서 번제 헌물을 씻더라.
39 ¶ 그 문의 주랑에는 이쪽에 상
두 개, 저쪽에 상 두 개가 있어서 번제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그 위에
서 잡으니라.
40 사람이 북문의 입구에까지 올
라갈 때에 밖의 한 쪽에 상 두 개가
있고 문의 주랑이 있는 다른 쪽에 상
두 개가 있으며
41 그 문의 옆으로 이쪽에 상 네
개, 저쪽에 상 네 개가 있어서 그들이
여덟 개의 상 위에서 자기들의 희생물
을 잡더라.
42 그 네 개의 상은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 다듬은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일 큐빗 반이요, 너비가
일 큐빗 반이며 높이가 일 큐빗이더라.
그들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을 또한 그 위에 놓았더
라.
43 그 안에는 손바닥 너비만 한 갈
고리들이 돌아가며 박혀 있고 상들
위에는 헌물의 고기가 있더라.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

44 ¶ 안쪽 문의 밖에는 안뜰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
것은 북문 옆에 있었고 그것들의 정면
은 남쪽을 바라보더라. 하나는 정면

이 북쪽을 바라보며 동문 옆에 있더
라.
45 그가 내게 이르되, 정면이 남쪽
을 바라보는 이 방은 제사장들 곧 그
집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46 정면이 북쪽을 바라보는 방은
제사장들 곧 제단의 책무를 맡은 자들
을 위한 것이니라. 이들은 레위의 아
들들 가운데서 사독의 아들들인데 그
들이 주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섬기느
니라, 하고
47 이처럼 그가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백 큐빗, 너비가 백 큐빗으로
네모반듯하며 제단은 그 집 앞에 있더
라.

주랑의 치수

48 ¶ 또 그가 나를 그 집의 주랑으
로 데려가서 주랑의 모든 기둥을 측량
하니 이쪽에도 오 큐빗, 저쪽에도 오
큐빗이며 그 문의 너비가 이쪽에도
삼 큐빗, 저쪽에도 삼 큐빗이더라.
49 그 주랑의 길이가 이십 큐빗이
며 너비가 십일 큐빗이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그들이 거기에 올라갈
때 쓰는 계단 옆으로 갔는데 *작은* 기둥
들 옆에 큰 기둥들이 하나는 이쪽에,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 41 장

성소의 치수

1 그 뒤에 그가 나를 *성*전에 데려가
서 한 쪽의 너비가 육 큐빗이요, 다른
쪽의 너비가 육 큐빗인 그 기둥들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성막의 너비더
라.
2 또 문의 너비는 십 큐빗이요, 문의
양쪽은 한 쪽이 오 큐빗, 다른 쪽이
오 큐빗이더라. 그가 그것의 길이를
측량하니 사십 큐빗이요, 너비가 이십
큐빗이더라.
3 그 뒤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 문의
기둥을 측량하니 이 큐빗이요, 문은
육 큐빗이며 문의 너비는 칠 큐빗이더
라.
4 이처럼 그가 그것의 길이를 측량
하니 이십 큐빗이요, 그 전 앞에서
너비가 이십 큐빗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지성소니라, 하고
5 그 뒤에 그가 그 집의 벽을 측량하
니 육 큐빗이더라. 모든 옆방의 너비
는 사 큐빗으로 그 집 주위에 사방에
돌아가며 있더라.

벽에 있는 옆방들

6 옆방들은 세 개이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고 서른 개가 순서대로
있더라. 그것들은 돌아가며 있는 그
옆방들을 위한 벽 즉 그 집과 하나로
된 벽 속으로 들어가 지지를 받되 그
집의 벽 속에서 지지를 받지는 아니하
더라.
7 거기에는 넓어지는 곳이 있었고
옆방들에 이르도록 여전히 위로 돌아
서 올라가는 곳이 있었으니 이는 그
집의 돌아서 올라가는 곳이 그 집의
주변에서 여전히 위로 올라갔기 때문
이더라. 그러므로 그 집의 너비가 여
전히 위로 *가면서 넓어졌으며* 이처럼
가장 낮은 방에서 가운데 *방*을 거쳐
가장 높은 *방*으로 올라가면서 증가하
였더라.
8 내가 또 그 집의 높이를 돌아가며
보니 그 옆방들의 기초들이 완전한
한 갈대 곧 큰 *큐빗*으로 육 큐빗이며
9 밖에 있는 옆방에 필요한 벽의
두께는 오 큐빗이요, 남은 부분은 안
에 있는 옆방들을 둘 자리더라.
10 또 그 방들 사이에는 폭이 이십
큐빗 되는 곳이 그 집 주위에 사방에
돌아가며 있더라.
11 그 옆방들의 문들은 남아 있는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한 문은
북쪽을 향하고 다른 문은 남쪽을 향하
였더라. 남아 있는 그 자리의 너비는
돌아가며 오 큐빗이더라.

서쪽 끝의 건물

12 이제 서쪽을 향하는 끝의 분리
된 곳 앞에 있는 건물은 너비가 칠십
큐빗이었고 그 건물의 벽은 돌아가며
두께가 오 큐빗이고 그것의 길이는

구십 큐빗이더라.

성전 주변의 치수와 설계

13 이처럼 그가 그 집을 측량하니
길이가 백 큐빗이더라. 그 분리된 곳
과 그 건물과 그것의 벽들을 합하여
길이가 백 큐빗이며
14 또 그 집 앞면의 너비와 동쪽을
향한 그 분리된 곳의 너비가 백 큐빗이
더라.
15 또 그가 그것 뒤에 있는 그 분리
된 곳의 맞은편 건물의 길이를 측량하
고 또 이쪽과 저쪽에 있는 그것의 긴
복도들을 *측량하니* 안쪽의 전과 뜰의
주랑들을 합해서 백 큐빗이더라.
16 문기둥들과 좁은 창들과 그것
들의 세 층에 돌아가며 있는 긴 복도들
은 그 문의 맞은편에 있되 땅에서부터
창들까지 돌아가며 나무판자로 입혀
져 있고 그 창들은 덮여 있으며
17 그 문 위에 있는 것 즉 안쪽 집까
지와 바깥과 또 안쪽과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벽 옆에 측량한 대로
입혀져 있더라.
18 그것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함께 만들어져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더라. 또 각 그룹에게
두 얼굴이 있어서
19 사람의 얼굴은 이쪽의 종려나
무를 향하고 젊은 사자의 얼굴은 저쪽
의 종려나무를 향하였더라. 그것은
그 온 집에 두루 돌아가며 만들어졌으
니
20 곧 땅에서부터 문 위에까지 또
그 전의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졌더라.
21 그 전의 기둥들은 네모반듯하
고 성소의 앞면도 그러하며 하나의
모습이 다른 것의 모습과 같더라.
22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삼 큐
빗이요, 그것의 길이는 이 큐빗이며
그것의 귀퉁이들과 길이 *부분*과 벽들
은 나무로 만들어졌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주 앞에 있는 상이니
라, 하더라.
23 그 전과 성소에는 두 문이 있었
는데
24 그 문들에는 각각 두 문짝 곧
돌아가는 두 문짝이 있어서 한 문에
두 문짝, 다른 문에 두 문짝이 있더라.
25 그것들과 그 전의 문들 위에는
벽들에 만들어진 것 같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졌고 또 바깥의
주랑의 앞면에는 두꺼운 널빤지들이
있더라.
26 또 이쪽과 저쪽에 주랑의 양쪽
에 그리고 그 집의 옆방들과 두꺼운
널빤지들에 좁은 창들과 종려나무들
이 있더라.

제 42 장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

1 그때에 그가 북쪽을 향한 길로
바깥뜰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분리된
곳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더라.
2 백 큐빗 길이 앞에 북문이 있었는
데 그 너비는 오십 큐빗이더라.
3 안뜰을 위한 이십 큐빗의 맞은편
과 바깥뜰을 위한 돌로 포장한 곳 맞은
편에는 세 층에 긴 복도와 긴 복도가
마주 대하며 있더라.
4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너비가
십 큐빗 되는 보도와 일 큐빗의 길이
있었고 그것들의 문들은 북쪽을 향하
였더라.
5 이제 윗방들은 더 짧았으니 그
까닭은 긴 복도들이 이것들보다 또
그 건물의 가운데 *부분*과 아래 *부분*보
다 높았기 때문이며
6 또 그것들이 세 층에 있었으나
뜰의 기둥들 같은 기둥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건물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부분*과 가운데
*부분*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이더라.
7 벽 곧 그 방들의 맞은편 바깥에
있으며 그 방들의 맨 앞에 있는 바깥뜰
을 향하고 있는 벽의 길이는 오십 큐빗
이었으니

8 이는 바깥뜰에 있는 그 방들의
길이가 오십 큐빗이었기 때문이더라.
보라, 그 전 앞에는 백 큐빗이 있었고
9 사람이 바깥뜰에서 그 방들로 들
어갈 때에 이 방들 밑에서부터 동쪽
편에 입구가 있더라.
10 그 방들은 동쪽을 향한 뜰의 벽
두께 내부에 있었으며 그 분리된 곳과
그 건물의 맞은편에 있더라.
11 그 방들 앞의 길은 북쪽을 향한
방들의 모습과 같으며 길이와 너비도
그것들과 같고 그 방들의 나가는 모든
곳도 그것들의 방식과 그것들의 문들
과 같더라.
12 또 길머리에 곧 사람이 남쪽을
향한 방들의 문들로 들어갈 때에 동쪽
을 향하고 있는 벽 바로 앞의 길*머리*에
그 문들과 같은 문 하나가 있더라.
13 ¶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곧 그것들은 거룩한 방들이
되리니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으며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거기에 두리라.
그곳은 거룩하니라.
14 제사장들의 의복들은 거룩하
므로 제사장들이 그 *방들*에 들어갈
때에는 성소에서 나와 바깥뜰로 가지
말고 자기들이 들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자기들의 의복들을 두며 다른
의복들을 입고 백성을 위한 그것들에
가까이 갈지니라, 하더라.

성전의 바깥 치수

15 이제 그가 안쪽 집 측량하기를
마친 뒤에 나를 데리고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 쪽으로 나가서 돌아가며
그것을 측량하니라.
16 그가 측량 갈대로 동쪽 편을 측
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
하니 오백 갈대요,
17 그가 북쪽 편을 측량하되 그 측
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하니* 오백
갈대며
18 그가 남쪽 편을 측량하되 그 측
량 갈대로 *측량하니* 오백 갈대더라.
19 ¶ 그가 서쪽 편으로 돌이켜서
그 측량 갈대로 오백 갈대를 측량하더
라.
20 그가 사방에서 그것을 측량하
였는데 그것에는 성소와 더러운 곳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해 돌아가며
벽이 있었고 *그것의* 길이는 오백 갈
대, 너비는 오백 갈대더라.

제 43 장

성전: 주의 거처

1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2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
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
더라.
3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았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4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
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
니라.
5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
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6 또 그분께서 그 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 사람
은 내 곁에 서 있더라.
7 ¶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
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자기들의 행음이나 자
기들의 산당들에 있는 자기들의 왕들
의 사체들로 내 왕좌를 두는 처소,
내 발바닥을 두는 처소 즉 내가 이스라
엘의 자손들 한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곳과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
지 아니하리라.
8 그들이 자기들의 문지방을 내 문
지방들 곁에 두고 자기들의 기둥을

내 기둥들 곁에 두며 나와 자기들 사이
에 벽을 두어 자기들이 범한 가증한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
로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
켰은즉
9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음과
자기들의 왕들의 사체들을 제거하고
내게서 멀리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영원히 거하리라.
10 ¶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 집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
들이 자기들의 불법들을 부끄러워하
게 하며 그 모형을 측량하게 할지니
라.
11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
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들에
게 그 집의 형식과 양식과 나가는 곳들
과 들어오는 곳들과 그것의 모든 형식
과 모든 규례와 모든 형식과 모든 법을
보여 주고 그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그것의 모든 형식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 그 집에 대한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위에서 돌아가며 그것의 전
체 경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그 집에 대한 법이 이러하니라.

제단의 치수

13 ¶ 큐빗들에 따른 제단의 치수
는 이러하니라. 그 큐빗은 일 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니라*. 곧 밑
바닥이 일 큐빗, 너비가 일 큐빗, 그리
고 돌아가며 그것의 가장자리 옆의
턱이 한 뼘이 될지니 이것이 제단의
더 높은 곳이 되리라.
14 또 땅 위의 밑바닥에서부터 아
래 선반까지는 이 큐빗, 너비는 일
큐빗이 되며 작은 선반에서부터 큰
선반까지는 사 큐빗, 너비는 일 큐빗이
될지니라.
15 이처럼 제단은 사 큐빗이 되며
제단으로부터 위로 네 뿔이 있을지니
라.
16 제단은 길이가 십이 큐빗, 너비
가 십이 큐빗이 되며 그것의 네모반듯
한 네 면은 직각이 될지니라.
17 선반의 길이는 십사 큐빗, 네모
반듯한 네 면의 너비는 십사 큐빗이
되며 그것 주변의 턱은 반 큐빗, 밑바
닥은 일 큐빗이 되고 그것의 계단은
동쪽을 바라볼지니라.

제단을 거룩하게 함

18 ¶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며 그 위에 피를
뿌리는 날에 *지킬 규례* 곧 제단에 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19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는 내
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
곧 사독의 씨에서 나온 레위 사람들에
게 죄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줄지니라.
20 또 너는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그 선반의 네 귀퉁이와
그 턱에 돌아가며 발라 이와 같이 제단
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지니
라.
21 너는 또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오고 그는 성소 밖에 있는 그 집의
정한 처소에서 그것을 불태울지니라.
22 또 둘째 날에 너는 흠 없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
요, 그들은 수소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 같이 제단을 정결하게 할지니
라.
23 너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뒤에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24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제사
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치며 그것
들을 주께 번제 헌물로 올려 드릴지니
라.
25 너는 날마다 이레 동안 염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예비할 것이요, 그
들은 또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예비하며
26 또 이레 동안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며 자신을 거룩히 구분할

지니라.
27 이 날들이 지나고 여드레째 되
는 날과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 헌물들과 화평 헌물
들을 드릴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
희를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제 44 장

동문과 통치자

1 그때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 길로 돌아왔
는데 그것이 닫혀 있더라.
2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
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
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3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통
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가
고 같은 것의 길로 나가리라, 하시더
라.

성전에 들어온 자들

4 ¶ 그때에 그가 나를 그 집 앞의
북문 길로 데려가매 내가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5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잘 주목하여 네 눈으로 보며
주의 집의 모든 규례와 그곳의 모든
법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네 귀로 듣고 또 그 집의 들어가
는 곳과 성소의 나가는 모든 곳을 잘
주목하라.
6 또 너는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
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너희
에게 족하니라.
7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타국인들 곧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내 성소 안으로 데려다가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그곳 즉 내 집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
여 내 언약을 어겼느니라.
8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를 위해 내 성소 안에 나에 대한 책무
를 지킬 자들을 두었느니라.
9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이나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
라.

제사장들에 대한 법

10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에
내게서 멀리 떠나간 레위 사람들 즉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간 자들은 자기들의 불법도
담당하리라.
11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12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을 섬겨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여
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그들
이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3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내
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또 지성소에서 내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며 다만 자기
들의 수치와 자기들이 범한 자기들의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리라.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 집의 책
무를 지킬 자들로 삼아 그 집의 모든
섬기는 일과 그 안에서 행할 모든 일을
하게 하리라.
15 ¶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떠나 곁길로 갔을 때에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
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키리라.
17 ¶ 그들은 안뜰의 문들로 들어
올 때에 아마 의복들을 입고 또 안뜰의
문들에서 그리고 안에서 섬기는 동안
에 양털 *옷*을 입지 말며
18 아마 모자를 머리에 쓰고 아마
반바지를 허리에 입으며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몸을 동이지 말지니라.
19 또 그들은 바깥뜰로 곧 바깥뜰
로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들이
섬길 때 입던 의복들을 벗어 거룩한
방들에 두고 다른 의복들을 입어 자기
들의 의복들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
지 말지니라.
20 그들은 또 머리를 밀지 말며 머
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머리
털을 깎기만 할지니라.
21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
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22 또 그들은 과부나 버려진 여자
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의 집 씨에 속한 처녀나 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과부를 취할지니라.
23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24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에 일
어나 재판하되 내 판단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들과
내 법규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25 또 그들은 죽은 자에게 가서 자
기를 더럽히지 말되 아버지나 어머니
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으
며
26 그가 깨끗하게 된 뒤에 그들이
그를 위해 이레를 셀지니라.
27 그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성
소로 들어가 안뜰에 이르는 날에 자기
의 죄 헌물을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
이 말하노라.
28 그것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니
라.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29 그들은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먹을지니 곧 이스라엘 안
에서 봉헌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며
30 모든 것의 모든 첫 열매의 처음
것과 너희의 온갖 봉헌물 곧 모든 *사람*
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
라. 또 너희는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그리하면 그가 복
이 네 집에 머물게 하리라.
31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짐승이
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을 먹지
말지니라.

제 45 장

거룩한 구역

1 또 너희가 제비뽑아 상속 재산으
로 그 땅을 나눌 때에 그 땅의 거룩한
몫을 봉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이만 오천 갈대의 길이로 하고
그 너비는 만 갈대가 될지니 이것은
돌아가며 그것의 모든 경계 안에서
거룩하리라.
2 이것 중에서 성소를 세울 *땅*은
길이가 오백 *갈대*, 너비가 오백 *갈대*
로 돌아가며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
의 주변 지역은 돌아가며 오십 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3 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
이만 오천 *갈대*와 너비 만 *갈대*를 측량
하여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할지니라.
4 그 땅의 그 거룩한 몫은 주를 섬기
러 가까이 나아올 제사장들 곧 성소에
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니
그것은 그들의 집들을 세울 장소가

되며 또 성소를 세울 거룩한 장소가
되리라.
5 또한 레위 사람들 곧 그 집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길이
이만 오천 *갈대*와 너비 만 *갈대의 땅*을
차지하되 스무 개의 방을 지을 소유로
차지할지니라.

도시와 통치자의 소유물

6 ¶ 또 너희는 그 거룩한 몫의 봉
헌물 맞은편에 너비 오천 *갈대*와 길이
이만 오천 *갈대의 땅*을 지정하여 그
도시의 소유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이
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것이 되리라.
7 ¶ 또 통치자를 위한 한 몫이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과 그 도시의 소유
물의 이쪽과 저쪽에, 서쪽을 향한 서
쪽 편에서부터 또 동쪽을 향한 동쪽
편에서부터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
앞과 그 도시의 소유물 앞에 있을 것이
요,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부터 동
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몫들 중의
하나와 마주 대할 것이니라.
8 이스라엘에서 그의 소유가 그 땅
에 있으므로 내 통치자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땅의 남은 부분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그들의 지파들대로 주리라.

통치자들에 대한 법

9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그만하면
너희에게 충분하니 폭력과 노략을 제
거하고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
며 내 백성에게서 너희가 강제 징수하
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
하노라.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바스를 가질지니라.
11 에바와 바스는 한 용량으로 하여
바스는 일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게
하고 에바도 일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게 하되 그것의 용량은 호멜을 따를
것이니라.
12 세겔은 이십 게라가 될 것이요,
이십 세겔과 이십오 세겔과 십오 세겔
이 너희의 마네가 되리라.
13 너희가 드려야 할 봉헌물은 이
러하니 곧 너희는 밀 일 호멜에서 육분
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일 호멜에서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릴지니라.
14 기름의 규례 곧 기름의 바스에
관하여는 너희가 십 바스로 된 일 호멜
즉 일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바스를 드릴
지니 십 바스는 일 호멜이니라.
15 또 *너희는* 이스라엘의 기름진 초
장의 이백 마리 양 떼 중에서 어린양
한 마리를 드리며 음식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로 *그것들을* 드려
그들을 위해 화해를 이룰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6 그 땅의 온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통치자를 위해 이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17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
엘의 집의 모든 엄숙한 *날*에 번제 헌물
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그는 죄
헌물과 음식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위
해 화해를 이룰지니라.

명절을 지키는 것
(출12:1－20; 레23:33－43)

18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
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19 제사장은 그 죄 헌물의 피를 취해
그 집의 기둥들과 그 제단 선반의 네
귀퉁이와 안뜰 문의 기둥들에 바를지
니라.
20 또 너는 그 달의 일곱째 날에
잘못하는 모든 자와 단순한 자를 위해
이처럼 행할지니 너희는 이처럼 그
집이 화해를 이루게 할지니라.
21 첫째 달 곧 그 달 십사일에 너희
는 이레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
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22 그 날에 통치자는 자기와 그 땅
의 온 백성을 위해 죄 헌물로 수소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23 또 그 명절의 이레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 헌물을 예비하되 곧 흠 없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날마다 이레 동안 예비하고 또 날마다
죄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
며
24 또 수소 한 마리에 *밀가루* 일
에바의 음식 헌물을, 숫양 한 마리에
일 에바를 예비하고 일 에바에 기름
일 힌을 *드릴지니라.*
25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오일에
그는 이레 동안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하되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기름*의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제 46 장

경배 방식

1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
는 안뜰의 문을 닫되 안식일에는 그것
을 열며 월삭인 날에도 열지니라.
2 통치자는 바깥의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와 그 문의 기둥 옆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비하며 그는 그 문의 문지방
에서 경배하고 그 뒤에 나아가려니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3 그 땅의 백성도 그와 같이 안식일
과 월삭에 이 문의 입구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4 안식일에 통치자가 주께 드릴 번
제 헌물은 흠 없는 어린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가 될지니라.
5 음식 헌물은 숫양 한 마리에 *밀가
루* 일 에바요, 어린양들에 대한 음식
헌물은 그가 드릴 수 있는 만큼으로
하고 일 에바에는 기름 일 힌을 *드릴지
니라.*
6 월삭인 날에는 그것이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
와 숫양 한 마리가 될 것이며 그것들은
흠이 없을지니라.
7 또 그는 음식 헌물로 수소 한 마리
에 *밀가루* 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일 에바를 예비하며 어린양들에 대하
여는 자기 손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예비하고 일 에바에는 기름 일 힌을
드릴지니라.
8 통치자가 들어올 때에는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오고 그것의 길로 나아
갈지니라.
9 ¶ 그러나 엄숙한 명절들에 그
땅의 백성이 주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
길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
길로 나가고 남문 길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 길로 나아갈지니 곧 그는 자기가
들어온 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 길의 맞은편으로 나아갈지니라.
10 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는 통치
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에 들어가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11 명절들과 엄숙한 *날*들에는 음식
헌물이 수소 한 마리에 *밀가루* 일 에바,
숫양 한 마리에 일 에바가 되며 어린양
들에 대하여는 *그*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으로 하고 일 에바에는 기름 일 힌을
드릴지니라.
12 이제 통치자가 자원하여 번제
헌물을 예비하거나 자원하여 화평 헌
물을 주께 예비할 때에는 한 사람이
그를 위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을 열어
줄 것이요, 그는 안식일에 예비한 것
같이 자기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비한 뒤에 나아갈 것이며 *그*가 나아
간 뒤에 한 사람이 문을 닫을지니라.
13 너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한 마리로 날마다 주께 번제 헌물을
예비하되 아침마다 그것을 예비할지
니라.
14 또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위해
음식 헌물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예비하여 고운
밀가루와 섞을지니 *그것은* 영속하는
규례로 말미암아 항상 주께 드릴 음식
헌물이니라.
15 그들이 이와 같이 아침마다 항
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어린양과 음식
헌물과 기름을 예비할지니라.

통치자와 상속 법규

16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의
하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의 상속
재산이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터인즉
그것이 상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
유가 되리라.
17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상속
재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의 하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가 이를
때까지 그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그
통치자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나
통치자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것이 되리라.
18 또한 통치자는 백성을 그들의
소유로부터 몰아내려고 학대를 통해
그들의 상속 재산을 취하지 말며 오직
자기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상
속 재산을 주어 내 백성이 각각 자기
소유를 떠나 흩어지지 아니하게 할지
니라.

헌물을 준비하는 방법

19 ¶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문 옆의 입구를 통해 북쪽을 바라보
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에 들어갔
는데, 보라, 서쪽으로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더라.
20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곳
은 제사장들이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을
삶으며 또 음식 헌물을 구울 곳이니
이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바깥
뜰로 나가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21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뜰의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라, 그
뜰의 모든 구석에 뜰이 있고
22 그 뜰의 네 구석에서 길이가 사
십 큐빗, 너비가 삼십 큐빗인 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네 구석이 한 치수
더라.
23 그 구석들 안에 곧 네 구석에
돌아가며 건조물 한 줄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면의 그 *건조물들의* 줄들
밑에 삶는 곳들과 함께 만들어졌더
라.
24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
들은 삶는 자들을 위한 장소니 여기서
그 집의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물
을 삶을지니라, 하더라.

제 47 장

치유하는 물과 나무들

1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
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
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
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2 그때에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 길로 인도
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의 바깥문
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
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3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
로 나아가며 천 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4 다시 그가 천 *큐빗을* 측량한 뒤
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
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
며 다시 그가 천 *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5 그 뒤에 그가 천 *큐빗을* 측량하였
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
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6 ¶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
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
가게 하기에
7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
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
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
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9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
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
든 것이 살리라.
10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
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
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
의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11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
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
게 넘겨지리라.
12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
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
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
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이스라엘 땅의 경계

13 ¶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리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14 너희가 그것을 상속하되 한 *지
파*가 다른 *지파*만큼 상속할지니라. 그
땅에 관하여는 전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하였으니 이 땅이 상속 재산으로 너희
에게 떨어지리라.
15 대해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사람들이 스닷에 이를 때까지의 *지역*
곧 북쪽 편을 향한 그 땅의 경계는
이러하리라.
16 즉 하맛과 브로다와 또 다마스쿠
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
라임과 하우란 지경 옆의 하살핫디곤
이라.
17 그 바다에서부터의 경계는 다마
스쿠스의 경계인 하살에난과 북쪽을
향한 북쪽과 하맛의 경계가 되리니
이것이 북쪽 편이니라.
18 동쪽 편으로는 너희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와 길르앗과 요르단 옆의
이스라엘 땅과 그 경계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 이것이 동쪽 편
이니라.
19 남쪽을 향한 남쪽 편은 다말에서
부터 가데스의 다툼의 물들에까지 이
르고 그 강을 *따라* 대해에까지 이르리
니 이것이 남쪽을 향한 남쪽 편이니
라.
20 서쪽 편 또한 사람이 하맛 맞은
편에 이를 때까지 그 경계에서부터
대해가 되리니 이것이 서쪽 편이니
라.
21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
파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이 땅을 나눌
지니라.
22 ¶ 너희는 그것을 제비뽑아 나
누어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
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을
자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
운데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여길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리니
23 그 타국인이 어느 지파 안에 머
물든지 너희는 거기서 그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 48 장

땅의 배분

1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
니라. 사람이 하맛으로 갈 때에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살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
니라. 이것들은 그의 동쪽과 서쪽 양
쪽이니라.

2 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
터 서쪽 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3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
부터 서쪽 편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4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
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므낫세의 몫이
요,
5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
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몫
이요,
6 에브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
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르우벤의 몫
이요,
7 르우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
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유다의 몫이라.
8 ¶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
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너희가 드릴
헌물로서 그 너비는 이만 오천 갈대며
그 길이는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
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겠
고 성소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으리
라.
9 너희가 주께 드릴 봉헌물은 길이
가 이만 오천 *갈대*요, 너비가 만 *갈대*
가 되리라.
10 이 거룩한 봉헌물은 그들 곧 제
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으로 길
이가 이만 오천 *갈대*, 서쪽으로 너비
가 만 *갈대*, 동쪽으로 너비가 만 *갈대*,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갈대*가
되겠고 주의 성소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11 그것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
키며 이스라엘 자손이 곁길로 갔을 때
에 레위 사람들이 곁길로 간 것 같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2 *그들이* 드린 그 땅의 이 봉헌물
은 레위 사람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
게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13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 사람들은 길이 이만 오천 *갈대*,
너비 만 *갈대*를 차지할 터인데 그 전체
길이는 이만 오천 *갈대*요, 너비는 만
*갈대*라.
14 그들이 그것을 팔지 못하고 바
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첫 열매를 다른
데로 돌리지도 못하리라. 그것은 주
께 거룩하니라.
15 ¶ 그 이만 오천 *갈대*의 맞은편
의 너비에 남아 있는 오천 *갈대*는 그
도시와 *사람이* 거하는 곳과 주변 지역
을 세울 속된 장소가 되겠고 그 도시가
그것의 한가운데에 있으리라.
16 그것의 치수는 이러하리니 북
쪽 편이 사천 오백 *갈대*, 남쪽 편이
사천 오백 *갈대*며 동쪽 편에 사천 오백
갈대, 서쪽 편이 사천 오백 *갈대*라.
17 그 도시의 주변 지역은 북쪽으
로 이백 오십 *갈대*, 남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 동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
서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가 되리라.
18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 맞은편
에 길이 방향으로 남은 것은 동쪽으로
만 *갈대*, 서쪽으로 만 *갈대*가 되겠고
그것은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 맞은편
에 있을 것이요, 그것의 소출은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19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은 이스
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와 그것을
섬기리라.
20 그 봉헌물은 총 이만 오천 *갈대*
에 이만 오천 *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네모반듯한 그 거룩한 봉헌물을 그
도시의 소유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21 ¶ 그 거룩한 봉헌물과 그 도시
의 소유물의 이쪽과 저쪽에 남은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봉헌물의 이만 오천
갈대 맞은편과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
쪽으로 이만 오천 *갈대* 맞은편과 또
통치자를 위한 몫들의 맞은편이라.
그것은 거룩한 봉헌물이 되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
라.
22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와 그
도시의 소유물로부터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통치자의 것인

소유 한가운데 있는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라.
23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건대 동
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베냐민
이 몫을 차지하고
24 베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
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시므온이 몫
을 차지하며
25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
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잇사갈이 몫
을 차지하고
26 잇사갈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
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스블론이 몫
을 차지하며
27 스블론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
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갓이 몫을
차지하리라.
28 갓의 경계 옆으로 남쪽을 향한
남쪽 편에서 그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다툼의 물들에까지 이르고
대해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29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
엘의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
어 줄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도시의 문들과 도시의 이름

30 ¶ 북쪽 편에서 그 도시의 나가
는 곳들이 이러하니 곧 측량하면 사천
오백 *갈대*니라.
31 그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
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며 북쪽으
로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르우
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
는 레위 문이라.
32 동쪽 편에 사천 오백 *갈대*가 *있
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라.
33 남쪽 편에 측량하면 사천 오백
*갈대*가 *있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라.
34 서쪽 편에 사천 오백 *갈대*가 *있
으며 그것*들의 문이 셋 *있으리니* 하나
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라.
35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만
팔천 *갈대*더라. 그 날 이후로 그 도시
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가 되리라.

다 니 엘 서

기록자: 다니엘, 기록 시기: 주전 606－536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0년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
주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목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궁창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보여 주는 것,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를 뜻한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까지의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대언자로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내용: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것은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루어졌으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에 붙잡혀 갔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70 이레'의 예언이 들어 있다. 다니엘서는 12장, 357절, 11,60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핵심 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2:44)
핵심 단어: 왕국(57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에"(2:28)
다니엘서의 그리스도: 1. 돌(2:35, 45), 2. 하나님의 아들(3:25), 3. 사람의 아들(7:13), 4.메시아(9:25),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신다."

제 1 장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

1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삼년
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
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
더라.
3 ¶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4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
을 가르치게 하니라.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삼 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삼 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6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
랴가 있었는데
7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
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

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
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
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
더라.
8 ¶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
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
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
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
하니
9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
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
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10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
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
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
라.
11 그때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
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
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
이 정해 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
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
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
더라.
15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
굴이 왕이 정해 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16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 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17 ¶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
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
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
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
아 알더라.
18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
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19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
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
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20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의 모든 마술
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열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일년까
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제 2 장

느부갓네살의 꿈

1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이년에 느
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
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2 그때에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 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매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4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
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
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
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
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5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
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
미로 만들 것이요,
6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
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
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7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 드리겠나이다, 하매
8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
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
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
다.
9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
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
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
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 ¶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
을 보여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
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 본 적이 없었나
이다.
11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
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
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
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12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
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13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
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14 ¶ 그때에 왕의 호위대장 아리
옥이 나아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15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
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
찌하여 그리 급하니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그때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
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주겠다고 하니라.
17 그때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
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18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
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
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
라.
19 ¶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
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
하니라.
20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
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
다.
21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
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
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22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
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
다.
23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
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
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
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나이다, 하
니라.

다니엘의 해석

24 ¶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
서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

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
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리이다, 하니
라.
25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
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
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26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
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 줄 수 있느냐? 하니
27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
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 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
다.
28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
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
네살 왕에게 알려 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리 속의 환상들
은 이러하니이다.
29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
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
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
날 일을 왕에게 알려 주시나이다.
30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
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
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
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
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31 ¶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
대,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32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
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
나이다.
34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
지 아니하고 깎아 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35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
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36 ¶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37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
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
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
다.
38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
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
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이니
이다.
39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
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41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42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
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
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
지 못하리이다.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
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
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
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45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
아 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
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
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
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
이다, 하니라.
46 ¶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
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
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47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
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
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
고
48 그때에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
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49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
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
라.

제 3 장

느부갓네살의 금 우상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
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육십
큐빗이요, 너비는 육 큐빗이더라. 왕
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2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
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
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
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
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3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
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
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
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
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4 그때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
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
라.
5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
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
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
라.
6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
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7 그러므로 그때에 곧 모든 백성
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
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서 구원받음

8 ¶ 그런 까닭에 그때에 어떤 갈대
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와 유대인들
을 고소하니라.
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
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
옵소서.
10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
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
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11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12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
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
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
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
다, 하니라.
13 ¶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격노하
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
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
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
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
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
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
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17 오 왕이여, 그리될지라도 우리
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리이다.
18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
은 아옵소서, 하니라.
19 ¶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도
록 하고
20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
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
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니라.
21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
이받이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22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
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
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
였고
23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
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24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
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
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매
25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
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

26 ¶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
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
가운데서 나오매
27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
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
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
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28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
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
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
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
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
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
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
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
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
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 낼 다른 신은 없느
니라, 하고
30 그때에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
라.

제 4 장

느부갓네살의 둘째 꿈

1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
이 있기를 원하노라.
2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
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3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
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
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
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
다.
4 ¶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5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리 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6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
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
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
주게 하였느니라.
7 그때에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
게 알려 주지 못하였노라.
8 ¶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9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
살아,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
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
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0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리 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
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11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
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12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의 그늘에 있으며 하늘
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
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 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
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
와
14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
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
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놋 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
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
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

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16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
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
을 그에게 주며 일곱 때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17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
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
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
니라.
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
나니, 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그것
의 해석을 밝히 고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
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느니
라.

다니엘의 해석

19 ¶ 그때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을 가진 다니엘이 한 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
하므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
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
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
나이다.
20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
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
으며
21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
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
이 그것의 가지들에 처소를 두었나이
다.
22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
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
치는 땅 끝까지 이르나이다.
23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
기를, 그 나무를 베어 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
터기는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놋 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일곱 때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24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
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니이다.
25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
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일곱 때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
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들의 그
루터기를 남겨 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
이다.
27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
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
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풂
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 버리소
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의 굴욕과 하나님 찬양

28 ¶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
에게 임하니라.
29 열두 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
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30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
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31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
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
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일곱
때가 네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
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
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
라, 하매
33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
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
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
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
라.
34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
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
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35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
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
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
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
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36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
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
니라.

제 5 장

벨사살의 연회

1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2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
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
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
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
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
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4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5 ¶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의 손가
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
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6 그때에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므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치매
7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
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
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빌론의 지혜자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 주며 왕국
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 그때에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
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
주지도 못하더라.
9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10 ¶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
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

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
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
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11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
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
다.
12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 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해석

13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
려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
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14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
과 뛰어난 지혜가 네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15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
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
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내가* 네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네 목에 걸어 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17 ¶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드리리이다.
18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
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
이다.
19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
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
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
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
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20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
각이 교만 속에서 강퍅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매
21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
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
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22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
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
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
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24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
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

다.
25 ¶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
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26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
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
함이 있다는 것이며
28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
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29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 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30 ¶ 그 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육십이 세가
량이었더라.

제 6 장

다니엘에 대한 음모

1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
자 백이십 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2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
는데 다니엘은 그중의 첫째였으니 이
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
라.
3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
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
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4 ¶ 그때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
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
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
볼 수 없었더라.
5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
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
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6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
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
시옵소서.
7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
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
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삼십일 동
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
라는 것이니이다.
8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
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
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9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
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구출됨

10 ¶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
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11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삼십 일 안에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
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
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
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13 그때에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

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청원
하나이다, 하니
14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
져 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 내려고 애를 쓰니
라.
15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
게로 나아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
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
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
이다, 하니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
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으
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
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17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
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
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 ¶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19 그때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니라.
20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
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
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 계
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
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서 능히 너를 건져 내셨느냐? 하매
21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
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22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
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
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
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
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더라.

다리오의 하나님 찬양

24 ¶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
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
자 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
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
더라.
25 ¶ 그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
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
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26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
국의 모든 통치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
할지니라.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
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
리로다.
27 그분은 건져 내기도 하시고 구
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
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
져 내셨도다, 하였더라.
28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제 7 장

네 짐승의 환상

1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일년에 다
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의 환상들을 받고 그때에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
니라.
2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
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3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4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
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
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5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
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 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
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
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6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
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
라.
7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
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더라.
8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
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
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의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
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옛적부터 계신 이의 환상

9 ¶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
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
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10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
러나오고 천천이 그분을 섬기며 만만
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
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11 그때에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
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12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
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13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
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14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
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
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
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
라.

다니엘의 해석

15 ¶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
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리 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16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의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17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
니라.*
19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
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
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놋이
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
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20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솟아 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
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
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21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
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22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
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
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
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23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
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24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하
리라.
25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
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
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27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
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
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28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
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
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제 8 장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1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
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삼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2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
것을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
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래 강가에 있었노라.
3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
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4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
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 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
라.
5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
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
러진 뿔이 있더라.
6 *그가* 두 뿔 달린 숫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격노하며 그에게로 달려
가더라.
7 내가 보니 *그가* 그 숫양에게 가까
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숫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
므로 *그가* 그 숫양을 땅바닥에 내던지
고 짓밟았더라. 그 숫양을 그의 손에
서 능히 건져 낼 자가 없었더라.
8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
더라.
9 그 뿔들 중의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
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얼마
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
라.
11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
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
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12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
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
였더라.
13 ¶ 그때에 한 성도가 말하는 것
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
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
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
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
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
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
라, 하니라.

가브리엘의 환상 해석

15 ¶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
라.
16 또 내가 울래 *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
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17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
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
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18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19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격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려 주리
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20 네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
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21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
니라.
22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
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은 못하리라.
23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
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
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24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
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
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
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
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
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26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
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 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27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
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
지 못하더라.

제 9 장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1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
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
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2 곧 그의 통치 제일년에 나 다니엘
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 주신* 그 햇
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칠십 년을 채우시리라
는 것을 깨달으니라.
3 ¶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
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4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
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
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5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
하였나이다.
6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7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
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
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8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
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
상들에게 속하며
9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
분께 속하나이다.
10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
하였나이다.
11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
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
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
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
이니이다.
12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
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
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
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
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
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
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5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
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 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16 ¶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격노
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
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
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17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
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
소서.
18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

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19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
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
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
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
이다.

다니엘의 칠십 이레

20 ¶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
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21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
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22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
니라, 하니라.
23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
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
지니라.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
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
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
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
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
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
며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
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
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
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제 10 장

영화로운 사람의 환상

1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
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
음을 얻으니라.
2 그때에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이레
동안 애곡하며
3 세 이레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
지 아니하니라.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힛데겔 곁에 있었는데
5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
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
으로 띠가 둘렸더라.
6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
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7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
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8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9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
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예언

10 ¶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
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11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
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
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12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
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마음
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
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13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의 하나
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
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14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
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15 그가 그런 말들로 내게 이를 때
에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16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
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이
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17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 기력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18 그때에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
게 하고
19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강이 있
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
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매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
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매
20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
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21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
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
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
라.

제 11 장

1 또 내가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의 제일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2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보여 주리
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
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3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4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
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
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
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쪽과 북쪽 왕들의 전쟁

5 ¶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들 중의 하나가 *강하게 되리*
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6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
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
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에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7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
고
8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
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9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
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
리라.
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
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
가리라. 그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분
발하여 그의 요새에까지 이를 것이
요,
11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아와서 그 곧 북쪽 왕과 싸우
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12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
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터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13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
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14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
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네 백성을 강탈
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쓰러지리
라.
15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
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
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은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
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력도 없으리
라.
16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
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
아 소멸되리라.
17 그가 또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다하여 들어가
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
리라.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여자
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
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
라.
18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
을 그에게 돌리리라.
19 그때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
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리
라.
20 그때에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 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21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

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
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22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
치자도 그러하리라.
23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
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24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
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자기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
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
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
고 강한 요새들을 치되 한 때 동안
치리라.
25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
러 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
이 계략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26 참으로 그가 정해 준 양식을 먹
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
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27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28 그때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
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마음속
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공적을
세우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북쪽 왕의 신성모독

29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하
리라.
30 ¶ 이는 깃딤의 배들이 와서 그
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격노하여 거룩
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
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31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
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
증한 것을 두리라.
32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
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
라.
33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
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
아 쓰러지리라.
34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
리라.
35 또 명철한 자들 중의 몇이 쓰러
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36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
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격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
이라.
37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
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38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
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39 그가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 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북쪽 왕의 승리

40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
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
리라.
41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
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42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43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
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44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
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45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
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제 12 장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

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
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
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
라.
2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
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3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
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
록 빛나리라.
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
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5 ¶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보
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6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
냐? 하매
7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
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
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
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
를 흩어 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
로 그때에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봉인하셨느니라.
10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
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
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11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
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
는 때로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으리
라.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로 가라. 네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네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
라.

호세아

기록자: 호세아, 기록 시기: 주전 72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0년
수신자: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 이름: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뜻한다.
호세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남 왕국 유다를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 대언자와 비슷한 사역을 수행했다. 주제: 이스라엘의 배교와 회복, 목적: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권고를 가르쳐 주는 것
내용: 호세아서에는 사악한 정부(情夫)를 따르기 위해 신실한 남편에게 등을 돌린 아내를 통하여 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호세아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다. 호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적인 면에서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고귀한 소망을 지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그녀의 음란한 품성을 알게 되며 그래서 곧이어 별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세아의 사랑은 지속되었고 결국 그는 그녀와 다시 결합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주님께 신실할 것을 맹세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릴 때까지 바알 신과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약속과 함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씨가 행복을 누릴 것을 보여 주셨다. 호세아서는 14장, 197절, 5,17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핵심 절: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네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네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13:9-10), 핵심 단어: 돌아오라(15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3:5)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다윗(3:5), 영적 교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제 1 장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가족

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
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2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
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
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
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
게 아들을 낳으니라.
4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르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
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
을 그치게 하리라.
5 그 날에 내가 예스르엘 골짜기에
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
라.
6 ¶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
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
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
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7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
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
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 이제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
뗀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9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10 ¶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
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
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
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
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11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
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
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
이라.

제 2 장

하나님의 백성의 행음

1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미
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
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
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3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
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4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
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
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5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 짓을 행하
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
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
라, 하였도다.
6 ¶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네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
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
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
때에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8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
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
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
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10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
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
내지 못하리라.
11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
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12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
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내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
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13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에 그
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
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
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긍휼

14 ¶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
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
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15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16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네가

나를 이쉬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17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
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
의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
라.
19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
혼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
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20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
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21 그 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22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
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르엘의 말을 들으
리라.
23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
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
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
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제 3 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감

1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 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2 이에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일 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3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 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
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
으니
4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
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
빔도 없이 거하다가
5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
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
라.

제 4 장

하나님께서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함

1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2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
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3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
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4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네 백성이 제사
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기 때문이
라.
5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6 ¶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
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7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
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8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9 그 백성에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10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
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11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12 ¶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토
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
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
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
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
라.
13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
리나무와 포플러나무와 느릅나무 밑
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
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
리로다.
14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
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
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
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
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15 ¶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 짓
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
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벧아
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16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
아지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17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
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18 그들의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
느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
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
하는도다.
19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
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
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제 5 장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
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
다.
2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
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
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
은 더러워졌느니라.
4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
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
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5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
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
지리라.
6 그들이 자기들의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
지 못하리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그들
을 떠났느니라.
7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
도다.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
니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8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벧아웬에서 크
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9 책망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
하게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
운데서 반드시 있을 일을 알렸노라.
10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
는 자들 같은즉 내가 내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11 에브라임은 자원하여 명령을 따
라 걸었으므로 학대를 당하고 심판
중에 부서졌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게는 썩은
것같이 되리로다.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
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
지 못하리라.
15 ¶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
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
리라.

제 6 장

회개 촉구

1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
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2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
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
다.
3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
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
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
시리라.
4 ¶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
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
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이슬 같나니
5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
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6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
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7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
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
다.
8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9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
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은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10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의 행
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
니라.
11 또한, 오 유다야, 내가 내 백성
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킬 때에 그가
너를 위해 수확할 것을 정하였느니
라.

제 7 장

에브라임의 불법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떼는 밖에서 노략하는도다.
2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
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
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3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
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으니라.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5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그를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그는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도
다.
6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에 자기
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
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매
7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
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
도 없도다.
8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
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
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9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
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
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
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
하는도다.
11 ¶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
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
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13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
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
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14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
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
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
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15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
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
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16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
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
는 활 같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
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
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제 8 장

이스라엘이 회오리바람을 거둠

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
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2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
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
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
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
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 버리
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5 ¶ 오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
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
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
냐?
6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
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
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니
7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
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
을 삼키리라.
8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이제 그

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같이 되리니

9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10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지워 준 짐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리라.

11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12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13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 9 장

에브라임의 죄에 대한 형벌

1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네가 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2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3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4 그들이 주께 포도즙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5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6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7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네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8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9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10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11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12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13 내가 두로를 보았듯이 에브라임
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그러나 에브라
임은 자기 자녀들을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리로다.
14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
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
소서.
15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
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하므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
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
이니라.
16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
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
이 낳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17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
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
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
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 10 장

이스라엘의 죄와 포로 생활

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
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
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2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
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 쓰게 하시리니
3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
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
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4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
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
나는도다.
5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벧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
는 거기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의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의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6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
렙 왕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
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
을 부끄러워하리로다.
7 사마리아로 말하건대 그녀의 왕
이 물 위의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8 또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
당들은 파괴될 것이요, 그것들의 제
단들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들
이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
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9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
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
기에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10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
하는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
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에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1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
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
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
의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12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
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네 길을 신뢰하고 네 용사들
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14 그러므로 네 백성 가운데서 소
동이 일어나며 네 모든 요새가 노략을
당하되 곧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벧아벨

을 노략한 것 같으리라. *그때에* 어머
니가 자기 자식들 위에서 산산조각
났느니라.
15 너희의 사악함이 크므로 벧엘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
엘 왕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
라.

제 11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
1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
서 불러내었노라.
2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
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
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
였느니라.
3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5 ¶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
하였기 때문이라.
6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
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7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
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
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
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8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
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
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9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
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
이 아니니라. *나는* 네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이 주를 따라 걸으리니 그
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울
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
서부터 나올 것이요,
11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
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되 유다
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제 12 장

에브라임의 죄과
1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
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
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
내는도다.
2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 ¶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
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벧엘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
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5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
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
라.
6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
이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네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7 ¶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
기를 좋아하는도다.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
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
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
라, 하였도다.
9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
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로 하여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10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
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
였노라.
11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분명
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로다. 그들이
길갈에서 수소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단들은 밭고랑에 쌓
인 돌무더기 같도다.
12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
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들을
지켰느니라.
13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
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매 그
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거늘
14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
를 그의 위에 남겨 두시며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제 13 장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

1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에는
죽었느니라.
2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
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
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3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이슬 같으며 *타작*마당
에서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4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
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
가 없느니라.
5 ¶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
에서 너를 알았거늘
6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
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
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
보리라.
8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꺼풀을 찢고 거기
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
이 그들을 찢으리라.
9 ¶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
을 파멸시켰거니와 네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10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네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11 내가 친히 분노하여 네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폐하였도
다.
12 *내가* 에브라임의 불법을 묶었은
즉 그의 죄가 숨겨졌느니라.
13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
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
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 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14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네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
리로다.
15 ¶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
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리
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
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
의 보물을 노략하리라.
16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역
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아기들은 산산조각 나며 아이를
밴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
다.

제 14 장

마지막 때에 임할 이스라엘의 복

1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
가 넘어졌느니라.
2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
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
아 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3 앗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
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
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4 ¶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
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
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
이 뿌리를 뻗으리라.
6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
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7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
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
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
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
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
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네
가* 내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로다.
9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
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
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
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
지리라.

요 엘

기록자: 요엘, 기록 시기: 주전 8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를 뜻한다. 참된 부흥이 회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던 요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다. 요엘은 이 짧은 글에서 모세오경을 무려 25회나 언급하며 특별히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관련 있는 것을 대언했다. 주제: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 목적: 진정한 복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유다 땅에는 유례없이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 모든 것을 먹어 치웠고 이것으로 인해 백성이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심판은 유다의 죄들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요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된 적이 있는 이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주의 날에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올 것을 기술했다. 요엘은 또한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것을 예언했다(마 25:31-46 참조). 요엘서는 3장, 73절, 2,03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주의 날), 핵심 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2:12), 핵심 단어: 회개하라, 핵심 구: "주의 날"
요엘서의 그리스도: 주 너희의 하나님(2:23), 영적 교훈: "심판의 경고를 울려라."

제 1 장

유다의 메뚜기 재앙

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
의 말씀이라.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
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
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
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4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
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
레가 먹었도다.
5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
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
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
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6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7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
였으며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
되 깨끗이 벗겨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8 ¶ 어렸을 때의 남편으로 인해
굵은 베를 두른 처녀같이 애곡하라.
9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10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11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
러워할지어다. 오 포도원을 가꾸는 자
들아,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
부짖을지어다. 밭의 수확할 것이 사
라졌도다.
12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
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

와 사과나무와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
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
문이로다.
13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
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
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
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
다.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14 ¶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
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15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16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
지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
지지 아니하였느냐?
17 씨가 자기의 흙덩어리 밑에서
썩었고 창고가 황폐하게 되었으며 곳
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
기 때문이로다.
18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
가! 가축 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
라. 참으로 양 떼가 황폐하게 되었도
다.
19 오 주여,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으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
다.
20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
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
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제 2 장

크고 두려운 주의 날

1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
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
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
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햇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3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
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
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4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
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6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
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7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
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
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
며
8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
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9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
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
가리니
10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
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11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
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
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
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
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

요?
12 ¶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
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13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
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
시나니
14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
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 두실지 누가 아느냐?
15 ¶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
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16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
과 젖 빠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17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
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
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
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
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
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
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이
까? 할지어다.

주의 구출 약속

18 ¶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
쌍히 여기시리라.
19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
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
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20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
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맨 끝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
리니 이는 그가 큰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리라.
21 ¶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일들
을 행하시리라.
22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
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
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
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
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 주시리니
24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
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
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햇수를 내
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26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
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
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
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세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주의 영

28 ¶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
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
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29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
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며
30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
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
다.

31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3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제 3 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함

1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
올 그때에
2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3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4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
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
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5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
들로 가져갔으며
6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
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
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7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니
8 즉 내가 너희 아들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에 거하
는 백성 곧 스바 사람들에게 저들을
팔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9 ¶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아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10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지어다. 너희의 가지 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
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
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
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
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
하리라.
13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익었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
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
라.
14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15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16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17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
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임할 유다의 복

18 ¶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
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
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19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
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
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
니라.
20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21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
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아 모 스

기록자: 아모스, 기록 시기: 주전 76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북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백성들, 이름: 아모스는 '짐을 진 자'를 뜻한다. 대언자 아모스의 직업은 농부였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처음에 대언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남 왕국 유다의 시민이었으나 북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기 전에 북 왕국을 향해 대언했다.
주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
목적: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죄들을 제거해야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백성들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방탕함과 사치와 불법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혼합되어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가 되었다. 제사장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아지 숭배의 근원인 벧엘로 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과 간음과 학대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다.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는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약속을 주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아모스서는 9장, 146절, 4,21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9장(이스라엘의 분산과 회복)
핵심 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7:8), 핵심 단어: 다림줄, 핵심 구: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걷겠느냐?"(3:3) 아모스서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4:13)
영적 교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4:12)

제 1 장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1 유다 왕 웃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이 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2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
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처소들이 애곡하며 갈멜 *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
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 타작 기계
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4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5 내가 또한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꺾고 아웬 평야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홀(笏) 잡는 자를 끊으
리니 시리아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기르에 이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6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
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
기 때문이라.
7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의 궁궐들을 삼

키리라.
8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주민을,
아스글론에서 홀 잡는 자를 끊고 또
내 손을 돌려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9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
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
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0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의 궁궐들을 삼
키리라.
11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
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
문이라.
12 그러나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
리니 그것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키
리라.
13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
*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
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14 그러나 내가 랍바의 성벽에 불
을 놓으리니 그것이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바람이 부는 날
에 폭풍과 더불어 거기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15 그들의 왕이 곧 그와 그의 통치
자들이 함께 포로가 되리라. 주가 말하
노라.

제 2 장

1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
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2 그러나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
니 그것이 그리욧의 궁궐들을 삼키리
라. 모압이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
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으리라.
3 내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재판관
을 끊으며 그것의 모든 통치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4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
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
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5 그러나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
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
리라.
6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
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
라.
7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
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8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 받은 자들의 포도
주를 마시느니라.
9 ¶ 그럼에도 내가 그 아모리 사람
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그의
키는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그는 상수
리나무같이 강하나 그럼에도 내가 위
로부터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부
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느니라.
10 내가 또한 너희를 이집트 땅에

서 데리고 나와 사십 년 동안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그 아모리 사람
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으며
11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
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르 사람
들을 일으켰나니,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과연 그렇지 아니
하냐? 주가 말하노라.
12 그러나 너희가 나사르 사람들에
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
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보라,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
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
니
14 그러므로 빠른 자도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힘센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15 활을 다루는 자도 서지 못하며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며
16 용사들 가운데서 용감한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3 장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함

1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
를 대적하여 이른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온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2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
만을 알았나니 그런즉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하리
라.
3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4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 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
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
를 지르겠느냐?
5 새를 잡는 덫이 없는 곳에서 새가
올무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느
냐?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
데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6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
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
겠느냐?
7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
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
니하느니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
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
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
냐?
9 ¶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
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거기의 한가운데 있는 큰 소동과 거기
의 한가운데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보라, 하라.
10 자기 궁궐에서 폭력(暴力)과 강
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가 말하노
라.
11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땅의 사방에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네게서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빼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
서리에 거하거나 다마스쿠스에서 잠
자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
을 받으리라.
13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서 증
언하라. 주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14 내가 이스라엘의 범법들을 그에
게 벌하는 날에 벧엘의 제단들도 벌하
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
리며
15 또 겨울 집과 여름 집을 치리니
상아 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끝이
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4 장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음
1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
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
게 하라, 하는도다.
2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
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 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3 너희가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
되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의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갈 것이요, 너희가 그
들을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
하노라, 하셨느니라.
4 ¶ 벧엘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5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
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
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
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6 ¶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
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
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
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7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세 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
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
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르매
8 이에 두세 도시가 떠돌아다니다
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
으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
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
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9 내가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
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
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
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0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
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 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
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
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
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1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
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의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
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2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
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13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
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나니 주 만군
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제 5 장

회개 촉구
1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2 이스라엘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
킬 자가 없도다.
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천 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백 명만 남기고 백 명이 나간
도시가 열 명만 남기리라.
4 ¶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
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5 벧엘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
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벧엘은 없
어지리라.
6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벧엘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7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
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8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
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9 그는 노략 당한 자를 강하게 하여
강한 자를 치게 하나니 이로써 그 노략
당한 자가 가서 요새를 치리로다.
10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11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
에게서 밀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들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12 너희의 범법이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
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
을 묵살하느니라.
13 그러므로 그런 때에는 분별 있
는 자가 침묵을 지키리니 그때는 악한
때니라.
14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
리라.
15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
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
라.

주의 날과 심판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
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길에
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
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
하는 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17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18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
이요 빛이 아니니
19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
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20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21 ¶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
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
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22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
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
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23 너는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네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
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
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5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
야에서 사십 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26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27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

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
라.

제 6 장

시온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

1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
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
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
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2 너희는 갈네로 건너가 보고 거기
서 큰 하맛으로 가며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것들의 경
계가 너희의 경계보다 크냐?
3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
다.
4 *그들은* 상아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 떼에서
어린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
를 꺼내어 먹고
5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
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
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
니하는도다.
7 ¶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 사람들과 함께 포로
로 잡혀가리니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가 없어지리라.
8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 도시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9 한 집에 열 남자가 남는다 할지라
도 그들이 죽으리라.
10 그 사람의 삼촌 곧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그를 취하여 그 뼈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의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가* 이르
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면 *그가* 이르
기를, 네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리라.
11 보라, 주가 명령하며 그가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리라.
12 ¶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
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
을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13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
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
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취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는도다.
14 그러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
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 민족을 일으키
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광야
의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제 7 장

환상들을 통한 경고

1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
셨느니라. 보라,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메뚜기
들을 지으셨느니라. 보라, 그때는 왕
의 풀을 벤 뒤에 나중에 자라는 *풀이*
움돋는 때였느니라.
2 그것들이 그 땅의 풀 먹기를 마치
매 내가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
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
리이까? 하매
3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
키시며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4 ¶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부르시니 그 불이 큰

깊음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 치웠느
니라.
5 이에 내가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이여, 간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
어서리이까? 하매
6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
키시며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말하노
라. 이 일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
니라*.
7 ¶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
느니라. 보라,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
을 잡고 서 계시더라.
8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
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
데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
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에 대한 비난과 답변

10 ¶ 그때에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
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
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
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11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
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
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12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
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13 다시는 벧엘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14 ¶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
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
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
만 나는 가축치는 자요, 돌무화과나
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15 내가 양 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
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
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16 ¶ 그런즉 이제 너는 주의 말씀
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
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
의 집을 대적하여 네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17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딸들은 칼에 쓰러지며 네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
워진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
리라.

제 8 장

여름 과일 환상

1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
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이니라.
2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니이
다, 하니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
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
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3 그 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
짖음이 되며 곳곳에 죽은 시체가 많이
있어 그들이 묵묵히 그 시체들을 내버
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4 ¶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땅
의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5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
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6 또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 찌끼를 팔까? 하는도다.
7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
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 이것으로 인하여 그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애곡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이 홍수같이 전부 솟아올랐다가 이
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밀려나서 가
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으리라.
9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
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 너희의 명절들을 애곡으로, 너
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변하게 하고
모든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르게 하며
모든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그것을 외아들로 인한 애곡 같게
하며 그것의 끝을 쓰라린 날과 같게
하리라.
11 ¶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
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12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
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음질하
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
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14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단아, 네 신이 살아 있
다, 하거나, 브엘세바의 풍습이 살아
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 9 장

이스라엘의 멸망과 최후 회복

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르시되, 문의 인방을 쳐서 기둥들
이 흔들리게 하고 그것들의 머리를
다 자르라. 내가 그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들 중에
서 도피하는 자도 도피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도
구출을 받지 못하리라.
2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
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
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3 그들이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
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어
끄집어 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
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4 그들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포로
가 되어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죽이게 하리
라.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5 주 만군의 하나님은 그 땅에 손을
대어 그것을 녹게 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애곡하게 하며 그 땅을 홍수
같이 전부 솟아오르게 하였다가 이집
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게 하는 자니라.
6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
라.
7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자
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사람
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
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아
니하였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
오지 아니하였느냐?
8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
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
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9 보라, 내가 명령하고 체로 곡식
을 체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
데서 이스라엘의 집을 체질하리라. 그
럼에도 가장 작은 알갱이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 내 백성 중의 모든 죄인 곧, 재앙
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며 우리보다
앞서 가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은 칼
에 죽으리라.
11 ¶ 그 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
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12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
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
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13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
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
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
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
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
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바 댜

기록자: 오바댜, 기록 시기: 주전 585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에돔과 유다
이름: 오바댜는 종을 뜻한다. 주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보호
목적: 성도들이 원수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인 에돔에 대해 대언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의 약탈에 가담했던 역사적 상황을 언급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집트 탈출 때에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었고 아하스 시절에 유다가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을 때에 유다를 침입해서 포로를 잡아갔으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을 때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오바댜는 전반부에서 야곱의 자손을 대적하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최종 회복을 예언한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1장, 21절, 66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15)
핵심 단어: 보응, 핵심 구: “야곱의 집이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17)
오바댜서의 그리스도: 왕국의 주(21), 영적 교훈: “네 소유를 차지하라.”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승리

1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
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
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도다.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
데로 보내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도
다.
2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
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3 ¶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자가 마음속으로 이
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
느냐? 하는도다.
4 네가 네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
며 네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
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5 도둑들이 네게 이르렀고 강도들
이 밤에 *네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충분
히 얻을 때까지만 훔치지 아니하였겠
느냐? 포도를 따서 모으는 자들이 네
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얼마의 포도는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6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
리 찾아내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
을 어찌 그리 찾았는가!
7 너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접경 지역에 이르게 하였고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으며 네 빵을
먹는 자들이 네 밑에 상처를 깔아 두었
도다. 그에게는 지각이 없도다.
8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
돔에서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
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 오 데만아, 네 용사들은 놀랄 것
이요, 이로써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
이 살육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리라.
10 ¶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사
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11 네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
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
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의 하나 같았느니
라.
12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13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
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
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
야 했고
14 네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
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
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15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16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터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17 ¶ 그러나 시온 산 위에는 구출
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
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18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
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
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
였느니라.
19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
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
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들
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
며
20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
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의 포
로 된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로다.
21 구원자들이 시온 산 위로 올라
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
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요 나

기록자: 요나, 기록 시기: 주전 770년경, 성격: 대언, 개인의 이야기
수신자: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이름: 요나는 비둘기를 뜻한다. 대언자 요나는 자기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후에 예수님은 요나를 표적의 대언자로 부르셨다. 주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대언자를 다루시는 것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목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 성도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일을 완수하게 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욥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에 탔는데 심한 풍랑이 일어나자 선장은 그에게 와서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풍랑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자 승객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라 그를 바다에 던졌으나 하나님은 큰 고래를 예비하사 그를 세 낮과 세 밤 동안 그 배 속에 있게 하고 마침내 그를 육지로 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니느웨로 가도록 명하셨으며 이번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까지 행하였으므로 도시는 멸망되지 않았다.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그는 자기가 선포한 것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의 생명을 취하실 것을 주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 넝쿨을 사용하셔서 회개한 도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요나서는 4장, 48절, 1,32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요나의 기도), 핵심 절: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3:2), 핵심 단어: 선포, 핵심 구: "일어나 가라."(1:2), 요나서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마12:39-41), 영적 교훈: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라."

제 1 장

요나의 불순종과 심판

1 이제 주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
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
라.
3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삯을 내고 그 안으
로 들어가니라.
4 ¶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
로 보내시매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
으므로
5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
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
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6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
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을 부르
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7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

지니라.
8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
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
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
느냐? 네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9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
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10 그때에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
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11 ¶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
므로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12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
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
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
해 사나워지므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14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
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15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
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16 그때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
원을 하였더라.
17 ¶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
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더라.

제 2 장

지옥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부활

1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2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
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
으셨나이다.
3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
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
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
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
나이다.
5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
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
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
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
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
어올리셨나이다.
7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8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9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
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
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
라.
10 ¶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
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
여 내니라.

제 3 장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

1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
에 선포하라, 하시매
3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
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
라.
4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
라, 하였더라.
5 ¶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
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6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7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
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
이나 가축 떼나 양 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
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8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
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9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
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
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
가 알겠느냐? 하니라.
10 ¶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
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
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
지 아니하시니라.

제 4 장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

1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
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2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
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
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
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
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
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3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
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
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
다, 하니라.
4 ¶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
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
시니라.
5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
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의 그늘에 앉았더라.
6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
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7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
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
라.
8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
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
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
라.
9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10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11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
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라.

미 가

기록자: 미가, 기록 시기: 주전 70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40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과 지도자들, 이름: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를 뜻한다. 대언자 미가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심을 보여 준 사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예고한 메시아의 전령이었다. 주제: 이스라엘의 죄와 구원자와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적: 하나님께서 죄와 범법으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대언자 미가의 시대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부와 서부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는 못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근동의 대부분 국가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아 매년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때는 특히 농민과 지방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과 시련의 시대였는데 그 이유는 흔히 군인들이 작은 마을을 침략하여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서는 관원들과 부자들 그리고 이들의 악행을 묵인해 주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큰 도시의 튼튼한 요새에서 안정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자기 나라의 착취자들로부터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미가는 이처럼 억압받는 백성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다. 미가서는 7장, 105절, 3,15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7장(이스라엘의 고백과 중재)
핵심 절: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증인이 되사 너희를 대적하시리로다."(1:2)
핵심 단어: 들으라, 핵심 구: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6:2)
미가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치리자(5:2), 영적 교훈: "눈을 들어 보고 살아라."

제 1 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1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
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
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2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
다.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
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로다.
3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4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
들이 갈라지되 불 앞의 밀초같이, 가
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되리
라.*
5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
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
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
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
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6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같게 하며 또 그것의 돌들을 골짜
기에 쏟아 붓고 그것의 기초들을 드러
내리라.
7 그것의 모든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며 그것의 모든 품삯
이 불타겠고 또 그것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
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
으로 되돌아가리라.

8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
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
곡하리라.
9 그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도다.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
르렀도다.
10 ¶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밝
히 알리지 말며 결코 울지도 말고 아브
라의 집에서 네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
다.
11 너 사빌의 거주민아, 네가 네
수치를 벌거벗겨 드러내었으니 너희
는 사라질지어다. 사아난의 거주민은
벧에셀이 애곡하는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서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12 마롯의 거주민이 염려하며 복을
기다렸으나 재앙이 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도다.
13 오 라기스의 거주민아, 너는 빠
른 짐승에게 병거를 맬지어다. 라기
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나
니 이스라엘의 범법들이 네 안에서 발
견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네가 모레셋가드에게
예물들을 주리니 악십의 집들이 이스
라엘의 왕들에게 거짓말이 되리라.
15 오 마레사의 거주민아, 그러할
지라도 내가 상속자를 네게로 데려오
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
에 이르리라.
16 너는 네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
하여 네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네 대머리를 독수리
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
나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제 2 장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

1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
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그 일이 그들의 손의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발하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2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
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
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3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치려고 한 재앙
을 계획하노라. 그 재앙으로부터 너
희가 너희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거만하게 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이때
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4 ¶ 그 날에 사람이 비유를 지어
너희를 대적하며 매우 슬픈 애가로
애가를 지어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
히 노략을 당하였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도다. 그
분께서 어찌 그리 그것을 옮기사 내게
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돌이
키사 우리의 밭을 나누셨도다.
5 그러므로 주의 회중 가운데서 제
비를 뽑아 줄을 던질 자가 네게 하나도
없으리라.
6 그들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르
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그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며 이로
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7 ¶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8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
처럼 일어났나니 너희가 전쟁을 미워
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며
9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
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
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도
다.
10 이것은 너희가 안식할 곳이 아
니니 너희는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
것이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를 멸하되
극심한 멸망으로 그리하리라.

11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네게 대언하리
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
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이스라엘의 회복

12 ¶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
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보스라의 양
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 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으므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13 부수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왔
은즉 그들이 이미 부수어 열고 성문
을 지나 그것의 곁으로 나갔으며 그
들의 왕은 그들 앞에 가고 주는 그들
의 선두에 서리라.

제 3 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1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
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
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 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3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
서 가죽을 벗겨 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자르는도다.
4 그때에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
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
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에 그가 그들
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
라.
5 ¶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
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 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6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리
니 너희가 환상 *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
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이로써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
위에서 낮이 어둡게 되리라.
7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
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
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8 ¶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
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
히 알리리라.
9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
엘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
을지어다.
10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
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
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
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12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같이 되며 그 집의 산은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제 4 장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시온에서 통치함(사2:2-4)

1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2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
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
갈 것이기 때문이라.
3 ¶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
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
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
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4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
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
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5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무궁토록 걸
으리로다.

시온의 미래 승리

6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
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7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 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8 ¶ 오 너 양 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여, 심지어 처음의 통
치 권세가 네게 이를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로다.
9 이제 네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
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네 조언
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고를 겪는 여
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10 오 시온의 딸아,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낳으려고 수
고할지어다. 이제 네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빌론
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11 ¶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
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
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
자, 하거니와
12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
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
라.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13 오 시온의 딸아, 일어나서 타작
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쇠 같게 하고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
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
라.

제 5 장

다가오는 메시아

1 오 군대들의 딸아, 이제 너는 군
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
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
리로다.
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
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
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
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
었느니라.
3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
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4 ¶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
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5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 아
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일곱 명의 목자와 여덟 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6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
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
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7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
지 아니하며 풀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으리
라.
8 ¶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 떼
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
데 있으리라.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
히 건져 내지 못하리라.
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로 들려져서
네 모든 원수를 끊으리로다.
10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네 말들을 네 한가운데서 끊고 네 병거
들을 멸하며
11 네 땅의 도시들을 끊고 네 모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며
12 또 내가 마술을 네 손에서 끊으
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
다.
13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네 한가운데서 끊으
리니 네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에
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14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네 한가
운데서 뽑아내고 또 그와 같이 네 도시
들도 멸하리라.
15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격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제 6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함

1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
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
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
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3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
언하라.
4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었느니라.
5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
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6 ¶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
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
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7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
까?
8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
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9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
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
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
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10 ¶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
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되가 있느냐?
11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
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12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
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
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
수로 가득하니
13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
게 하고 네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
게 하리라.
14 네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한가운데서 내던져지며 네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네가 건지
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15 네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
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며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16 ¶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
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조언대로 걷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조
롱거리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
라.

제 7 장

대언자의 시인

1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와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
이가 없도다.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
을 사모하였노라.
2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
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
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3 ¶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
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4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
같고 가장 곧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
다 날카롭도다. 네 파수꾼들의 날 곧
너를 징벌하는 날이 이르나니 이제는
그들이 당황하리로다.
5 ¶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네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들을 지킬지
어다.
6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
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로
다.
7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
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고백과 위로

8 ¶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
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
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
다.
9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
의 격노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
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
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
로다.
10 그때에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
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
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
니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
제 그녀가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히
리라.
11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
요,
12 또한 그 날에는 그가 아시리아에
서, 견고한 도시들에서 네게로 오며
또 요새에서 심지어 강에 이르기까
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
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올 것이로되*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의 용서

14 ¶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 속에 홀로 거하
는 주의 상속 *백성* 양 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15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16 ¶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그들
의 귀가 막히리라.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
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
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18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이까? 주
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
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
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
시므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19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
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
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
다.
20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
행하시리이다.

나 훔

기록자: 나훔, 기록 시기: 주전 62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는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 이름: 나훔은 위로자를 뜻한다. 대언자 나훔은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정당한 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자를 벌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선포한다.
주제: 하나님의 위엄의 계시, 니느웨의 멸망
목적: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죄와 불의를 벌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메시지가 있은 지 100여 년이 지나서 니느웨가 전성기를 누릴 때 그것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이 책이 니느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요나의 후속편이라고 하기도 한다.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기는 했지만 니느웨는 또 다시 죄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이셨지만 나훔 당시의 니느웨는 죄가 극도로 성행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고칠 수 없다고 선포하셨다. 나훔서에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와 묘사 그리고 이유 등이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 나훔서는 3장, 47절, 1,28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니느웨에 대한 심판)
핵심 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1:2)
핵심 단어: 질투하다, 핵심 구: "철저히 끝내시고"(1:8, 9), 나훔서의 그리스도: 요새(1:7), 영적 교훈: "하나님이 엄중하게 죄를 심판하심을 기억하라."

제 1 장

두려우신 하나님

1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
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2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
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
서는 보복하며 격노하는 분이시니 주
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
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
하시는도다.
3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
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
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이
로다.
4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5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
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6 누가 능히 그분의 격노 앞에 서리
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분의 격노가 불
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
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7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 나는 큰
물로 거기의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
리라.
9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
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이 가시나무들같이 함께
엉켜 있고 술 취한 자들같이 취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같이 소
멸되리라.

11 악을 꾀하여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네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조언자라.
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또한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에 이같이 그들이 베어져서
쓰러지리라.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
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
하리니
13 이제 내가 네게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부수리라.
14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
은즉 다시는 네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
하리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네
무덤을 만들리라. 이는 네가 비열하
기 때문이라.
15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
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
을 지키고 네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제 2 장

니느웨의 멸망

1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네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네 허리를 강하게 하고 네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2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외
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
하셨으니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
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 쓰게
하였느니라.
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
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
게 흔들리리로다.
4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
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
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
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5 그가 자기의 훌륭한 자들을 나열
하리니 그들이 걷는 가운데 걸려 넘어
지며 급히 그곳의 성벽에 이르러 방어
할 것을 예비하리로다.
6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
체되며
7 훗삽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끌려
가리니 그녀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
서 비둘기 소리를 내며 그녀를 인도하
리라.
8 오직 니느웨는 옛적부터 물이 모
인 연못 같으나 그들이 도망하리라.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서라, 서라,
하여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
리라.
9 너희는 은을 노략하고 금을 노략
하라.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이 끝
이 없도다.
10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으매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
다.
11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이며 젊
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이냐? 전
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
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12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의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의* 목을 조르며
또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13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그녀의 병
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키며 또 내가 네 먹이
를 땅에서 끊으리니 네 사자들의 목소
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제 3 장

니느웨에 대한 주의 심판

1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

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
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
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
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3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
을 들어 올린즉 거기에 살육 당한 무리
가 있으며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4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잘생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
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으로 민족들
을 팔며 자기의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
니라.
5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옷자락
을 네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
들에게 네 벌거벗은 것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일 것이요,
6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
거리로 세우리니
7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네게
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
하게 되었은즉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
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
할 자들을 구하리요? 하리라.
8 네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서 물
들이 그것의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
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것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9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그것이 끝이 없었으며 붓과
룹이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10 그럼에도 그녀가 끌려가서 포
로가 되매 그녀의 어린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져서 산산
조각 났으며 그들이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고 그녀의
모든 큰 자는 사슬에 결박되었도다.
11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
라.
12 네 모든 강한 요새는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나무들 같도
다. 그것들을 흔들면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으로 떨어지리라.
13 보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백성
은 여자들이니라.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네 빗장들을 삼키리라.
14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네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끊되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치우리라. 너는 자벌레같이 네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
는 메뚜기같이 네 자신을 많이 불어나
게 할지어다.
16 네가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
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략하
고 날아가는도다.
17 관을 쓴 너의 사람들은 메뚜기
들 같고 너의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
같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
리에 진을 치나 해가 뜨면 도망하므
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
소를 알 수 없느니라.
18 오 아시리아 왕이여, 네 목자들
은 잠자고 네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며 네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
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
다.
19 네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네
부상은 심하도다. 네 소문을 듣는 모
든 자가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이는 네 사악함이 항상 그들 위로 지나
갔기 때문이 아니냐?

하 박 국

기록자: 하박국, 기록 시기: 주전 6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 이름: 하박국은 '껴안다'를 뜻한다. 대언자 하박국은 욥과 더불어 질문의 대언자로 불리는데 욥은 주로 자신의 문제로 질문을 한 반면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질문을 했다.
주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목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하박국은 바빌론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대언을 했다. 이 대언서의 구조와 신학적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처음 두 장에는 주 하나님과 대언자 사이의 대화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언자는 몇몇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아울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악을 참으실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주께 요구한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며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을 성취하여 달라고 즉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고 있다. 이 기도에 이어 그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환상을 받고 그 결과 경외와 확신에 싸이게 된다. 하박국은 3장, 56절, 1,475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박국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
핵심 절: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2:4), 핵심 단어: 믿음
핵심 구: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1:3), 하박국서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분(2:4; 갈 2:16), 영적 교훈: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3:4)

제 1 장

대언자의 질문과 주의 응답
1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
이라.
2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
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
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
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
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4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
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
이다.
5 ¶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
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
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
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6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
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
오느니라.
8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때의 이리보다 더 사나우
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9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
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 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 된 자들을 모으며
10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
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
라.
11 그때에 그의 생각이 변하매 그
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로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
라.

대언자의 둘째 질문

12 ¶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
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
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
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
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
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
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
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
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14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
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
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 다니
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
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
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이다.
16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
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
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
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17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
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제 2 장

주의 응답: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1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 받을
때에 무어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2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음질치게 하라.
3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
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
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
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
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4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5 ¶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하므로 거만한 자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는* 지옥같
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
든 백성들을 쌓아 올리나니
6 이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자
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리하려느냐? 두터운 진흙으로 짐
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7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
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
즉 네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리로
다.
8 네가 많은 민족들을 노략하였으
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략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
라.*
9 ¶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
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10 네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네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네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11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
답하리라.
12 ¶ 피로 고을을 건설하며 불법
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13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
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느
냐?
14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
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
로다.
15 ¶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
고 네 술 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
게 화가 있을지어다!
16 네가 영광대신 수치로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
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
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네 영광 위에 임하리니
17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
을 노략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사람
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
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18 ¶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
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
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
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
냐?
19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
에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20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
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제 3 장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1 시기오놋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
의 기도라.
2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
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
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
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
억하시옵소서.
3 하나님께서 데만에서 오셨고 거
룩하신 이께서 바란 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4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
다.
5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
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
다.
6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
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
개어 몰아내시매 영존하는 산들이 흩
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
니 그분의 길들은 영존하는도다.
7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
들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었도다.
8 주께서 그 강들을 불쾌히 여기셨
을까? 주께서 그 강들에게 분노하셨
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
셨으므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9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
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
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

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
이 넘쳐흘러 지나갔고 깊음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손을 높이 들었나
이다.
11 해와 달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12 주께서 격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
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
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
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
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14 주께서 그의 마을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
이 회오리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으
려 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하였나이다.
15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
다 곧 큰 물 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
다.
16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
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뼈 속으
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에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17 ¶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
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
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
서 양 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 떼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19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
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
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스바냐

기록자: 스바냐, 기록 시기: 주전 63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과 전 세계 민족들
이름: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 자'를 뜻한다. 그는 구약 시대에 '지옥의 유황불'을 강하게 선포한 심판의 대언자였다. 주제: 유다와 세상을 향한 주의 날의 심판, 목적: 자신의 아들의 형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진노의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악한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50년 이상 지속된 국가적 배교는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요시야의 통치 초기에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그는 마지막 때의 7년 환난기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주의 날을 강조했으며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대언했다. 스바냐는 3장, 53절, 1,61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나님의 구출), 핵심 절: "그때에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니"(1:12), 핵심 단어: 찾다, 핵심 구: "주의 날"(1:14)
스바냐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3:15), 영적 교훈: "주의 이름을 신뢰하라."

제 1 장

주의 날의 심판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에 히스기야의 사대 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라.
2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
멸시키며 사악한 자와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
노라.
4 내가 또한 유다 위로 그리고 예루
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마
림들이라는 이름을 끊고
5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
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
하는 자들과
6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7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
느니라.
8 주의 희생물의 날에 내가 그 통치
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고
9 또한 바로 그 날에 문지방을 뛰어
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
로 가득 채운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10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
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
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있으리
로다.
11 막데스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
부짖으라. 장사하는 모든 백성이 패
망하였고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졌도다.
12 그때에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

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
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
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
13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전리
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
라. 또한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세워도 그
것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14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
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15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
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16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
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
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
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
지리로다*.
18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
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
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
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제 2 장

회개 촉구

1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
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2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그 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
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
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

4 ¶ 가자가 버려지며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아스돗을 대낮
에 쫓아내며 에그론이 뿌리째 뽑히리
라.
5 해변의 거주민들 곧 크레테 사람
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
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6 그런즉 해변은 목자들의 거처와
움막이 되고 양 떼들의 우리가 되며
7 또 그 지경은 유다의 집의 남은
자들의 것이 되어 그들이 거기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
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
이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8 ¶ 내가 모압의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
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9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
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
이 되어 쐐기풀을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내 백성
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10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
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을*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11 주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리니 *그*가 땅의 모든 신을 굶주리게
하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
서 곧 이교도들의 모든 섬에서 나와
그에게 경배하리라.
12 ¶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
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
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14 양 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
이 그녀의 한가운데 누우며 가마우지
와 해오라기가 그것의 위 문인방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소리가 창들에서
노래하며 황폐함이 문지방에 있으리
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드러낼 터이기 때문이라.
15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
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자
기 손을 흔들리로다.

제 3 장

예루살렘의 사악함

1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학대
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2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
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
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
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
다.
3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
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
판관들은 저녁때의 이리들이니 그들
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 먹지 아니하
는도다.
4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
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
이로다.
5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
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
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
가 *드러내며* 쇠하지 아니하거늘 불의
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6 내가 민족들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내
가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하여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7 내가 이르기를, 네가 반드시 나
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
리하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처럼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8 ¶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
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
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
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9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
니
10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
어진 자들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11 그 날에는 네가 네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때
에 내가 네 한가운데서 네 교만을 기뻐
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네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
지 아니하리라.
12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
한 백성을 네 한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
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
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14 ¶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

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
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16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
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
뜨리지 말라.
17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
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
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
라, 하리라.
18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하여 슬
퍼하는 자들을 모을 터인데 그들은
네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집회에 대
한 모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
느니라.
19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
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
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
로 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난 자*와
칭찬 *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
노라.

학 개

기록자: 학개, 기록 시기: 주전 520년경, 성격: 대언, 역사
수신자: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자연 재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름: 학개는 '나의 명절'을 뜻한다. 대언자 학개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가장 먼저 대언한 인물이며 특히 질문을 많이 던진 대언자이다.
주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격려하여 주의 집을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목적: 주의 집이 황폐하게 남지 않도록 백성을 독려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내용: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 군대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공사가 시작되자 그들을 대적하는 이웃 나라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간계를 꾸몄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로 작정하고 귀환한 오만여 명의 포로들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좌에 오르기까지 무관심 속에서 십육 년 동안 성전을 방치하였다. 이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쳐서 무기력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다. 학개의 메시지는 단지 성전 건축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지상 왕국, 사악한 세상 권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민족들을 위해 예비된 복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학개서는 2장, 38절, 1,13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보고 행동하라), 핵심 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1:8), 핵심 단어: 건축, 핵심 구: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2:4), 학개서의 그리스도: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분(2:7), 영적 교훈: "주의 일을 먼저 하라."

제 1 장

성전 건축 명령(스5:1)

1 다리오 왕의 제이년 유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
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
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
였다, 하는도다.
3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
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4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
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
할지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
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삯
을 받는 자는 삯을 받아 구멍 난 자루
에 넣느니라.
7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8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
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
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
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
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
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달음질하여 자

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10 그러므로 너희 위의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11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
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
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
라.
12 ¶ 그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
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
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
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
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
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
워하였더라.
13 그때에 주의 사자 학개가 주께
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
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14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
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
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15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이년 유
월 이십사일이었더라.

제 2 장

하나님의 집의 영광

1 칠월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
라. 이르시되,
2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
하여 이르라.
3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로서
처음의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
냐?
4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
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
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
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
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5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
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
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
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7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
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
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9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
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백성이 더럽혀짐

10 ¶ 다리오의 제이년 구월 이십
사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11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
으며 이르기를,
12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
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만일
빵에나 국에나 포도즙에나 기름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
겠느냐? 하라,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
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니라.
13 이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로 말
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의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
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
되, 그것이 부정하리라, 하더라.
14 이에 학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
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약속된 복

15 이제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 날
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
16 그 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
었고 *포도즙* 틀에서 쉰 그릇을 길으려
고 *포도즙* 통에 이른즉 스무 그릇뿐이
었느니라.
17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
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름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
니하였느니라.
18 이제 이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구월 이십사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19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
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
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
지 못하였느니라. 이 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0 ¶ 그 달 이십사일에 주의 말씀
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21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
리라.
22 또 내가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
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23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
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
로 삼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 가 랴

기록자: 스가랴, 기록 시기: 주전 52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실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름: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를 뜻한다. 대언자 스가랴는 말세에 있을 최종적인 일들을 예언했으며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리브 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대언했다.
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둘 예루살렘에게 베푸시는 불변의 은혜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불변함을 보여 주고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리심을 알리는 것
내용: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고 이에 약 오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포로들이 이 관대한 정책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 다시 정착하여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성전 재건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방해하였으므로 성전 재건 작업이 거의 십육 년 동안 중단되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때에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을 일깨워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재건 작업을 이끌어 나갔다. 이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 닷드내가 왕에게 올린 글로 인하여 또 다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다리오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변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의 무관심을 일깨우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성전은 다리오 왕의 통치 제육년에 완성되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 그보다 훨씬 더 큰 주제 즉 메시아의 통치와 재림으로 이어지는 예언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스가랴서는 14장, 211절, 6,44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4장(눈에 보이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1:3)
핵심 단어: 돌이키다, 핵심 구: "내가 질투하며"(1:14)
스가랴서의 그리스도: 1. 가지 – 우리를 위한 종(3:8; 막10:45), 2. 제사장과 왕(6:13; 히7:25), 3. 샘 –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13:1; 요15:3)
영적 교훈: "주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1:17)

제 1 장

회개 촉구

1 다리오의 제이년 팔월에 주의 말
씀이 잇도의 손자요, 베레갸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
되,
2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
지 아니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
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
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
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
노라.
4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

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5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
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6 오직 내가 내 종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
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
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
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
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말들의 환상

7 ¶ 다리오의 제이년 십일월 곧
스밧 월 이십사일에 주의 말씀이 잇도
의 손자요, 베레갸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8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9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
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하거늘
10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11 그들이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나이다, 하더라.
12 ¶ 그때에 주의 천사가 응답하
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
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격노
하신 지 이렇게 칠십 년이 되었나이
다, 하매
13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
하시더라.
14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
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
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
하며
15 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
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
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
였느니라.
16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
을 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7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
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
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
렘을 택하리라, 하라.

뿔들의 환상

18 ¶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뿔 네 개가 보이기에
19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
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
라, 하니라.
20 또 주께서 내게 목수 네 사람을
보이시기에
21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
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
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
라, 하시더라.

제 2 장

측량줄 환상과 시온의 기쁨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

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
기에
2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
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
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가노
라*, 하니라.
3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4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
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
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
라, 하라.
5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
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
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6 ¶ 주가 말하노라. 호, 호, 나아
오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
라.
7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네 자신을 건질지어다.
8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략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
자에 손을 대느니라.
9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
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
라.
10 ¶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네 한가운
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11 그 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
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
의 주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12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
의 몫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
렘을 택하시리라.
13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
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제 3 장

대제사장의 환상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
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3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
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4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
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
을 네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
을 바꾸어 네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5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
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
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6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
하여 이르되,
7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네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네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장차 올 가지
8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
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
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9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
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
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
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
셨느니라.

제 4 장

등잔대와 올리브나무들의 환상

1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
난 사람 같았노라.
2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
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등잔과 연결된 일곱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3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
다, 하니라.
4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
이 대답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니
5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
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6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
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
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
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
의 주가 말하노라.
7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
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되리라. 그
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
니라.
8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
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
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10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
였느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
림줄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
니라.
11 ¶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
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
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이
니이까? 하고
12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
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하니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
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제 5 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1 그때에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2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
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이십 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십 큐빗이니이다, 하매
3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
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

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4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
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에바 속 여인의 환상

5 ¶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
지 보라, 하기에
6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이
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
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7 또, 보라, 납 일 달란트가 들렸는
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라.
8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
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 넣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귀
위에 던지더라.
9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
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
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
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
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10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
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제 6 장

병거들의 환상

1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 보
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놋 산이더라.
2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3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적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4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
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
은 무엇이니이까? 하니
5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
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네 영인데 그
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
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6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나아가
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아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가고
7 적갈색 말들은 나아가서 땅을 두
루 이리저리 다니려고 가고자 하더
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이리저리 다니라, 하매 이
처럼 그것들이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더라.
8 그때에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평안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명령

9 ¶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10 너는 포로 된 자들 중에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또 같은
날에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
으로 들어가라.
11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
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12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
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13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

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
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14 그 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
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기념으로 삼으라, 하시니
라.
15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
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제 7 장

정의와 긍휼 촉구

1 다리오 왕의 제사년 구월 곧 기슬
래 *월* 사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 그때에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멜
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3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
과 대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분리하면서 오월에 울어야
하리이까? 하게 하니라.
4 ¶ 그때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칠십 년
동안 오월과 칠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
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7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
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
낼 때에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8 ¶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
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
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10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
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11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
고 자기 귀를 막으며
12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
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
의 영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
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
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
터 나왔느니라.
13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
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4 오직 내가 그들을 회오리바람
으로 흩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으니 그러므로
그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아니하
였느니라.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황
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 8 장

미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1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
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격노로 질투하였
노라.
3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
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
라 불리리라.

4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
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
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
리라.
6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7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8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
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
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의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대언자
들의 입으로 *전해* 준 이 말들을 이
날들에 듣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
을 강하게 할지어다.
10 이 날들 전에는 사람이 삯을 받
지 못하고 짐승도 삯을 받지 못하였으
며 또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
오는 자에게 어떤 평안도 없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
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11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 중
에서 남은 자들을 이전의 날들에 대하
던 것 같이 대하지 아니하리라. 만군
의 주가 말하노라.
12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
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13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아,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
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
라.
14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 진노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생각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5 그와 같이 내가 이 날들에는 다
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게 잘 행하
리라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
지 말지니라.
16 ¶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
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
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17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
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18 ¶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9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월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과 칠월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
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
할지니라.
20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
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21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
*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
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22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
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
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23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
서 열 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
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
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을 우리
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 9 장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1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 하드
락 땅에 *임하고* 다마스쿠스에 머물 터
인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
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
라.
2 하맛 또한 그 곁에 경계를 두며
비록 두로와 시돈이 심히 지혜로워도
그 도시들도 그리하리라.
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강한 요새
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4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바다에 있는 그녀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녀가 불에 삼켜지리라.
5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하며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
며 에그론도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부끄럽게 되므로 그리하리라. 가자에
서는 왕이 사라지고 아스글론에는 사
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6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내가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증함을 제거하리라.
그러나 남는 자 곧 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 유다에서 다스리는
자같이 되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
이 되리라.
8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출
9 ¶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
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
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
라.*
10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
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
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한 너로 말하건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
니라.
12 ¶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네게 두 배로 갚아 주리라.
13 그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
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
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네 아들들
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14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
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
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
고 남쪽의 회오리바람과 함께 가시리
로다.
15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
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릿매의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
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같이
채워지고 제단의 귀퉁이들같이 되리
로다.
16 그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
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
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17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
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
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제 10 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1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2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
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
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 떼같이 자기
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
였느니라.
3 내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
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만
군의 주가 자신의 양 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
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
라.
4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
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
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
니라.
5 ¶ 그들이 전쟁에서 거리의 진흙
속에서 자기 원수들을 짓밟는 용사들
같이 될 것이요, 주가 그들과 함께하
므로 그들이 싸워서 말 위에 탄 자들을
당황하게 하리라.
6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고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며 내가 그들
을 다시 데려다가 정착시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
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전에 내
쫓지 아니한 것 같이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7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
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8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
가 그들을 위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9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
리니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10 내가 또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
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
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로다.
11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통과하며 바다의 파도를 치리니 그
강의 모든 깊은 곳이 마르고 아시리아
의 교만이 낮아지며 이집트의 홀(笏)
이 떠나가리라.
12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
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제 11 장

이스라엘의 황폐함

1 오 레바논아, 네 문들을 열어 불
이 네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2 전나무야,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이 노략을 당하였으니 울부
짖을지어다. 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
아,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져 내렸으
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3 ¶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
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
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
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
리가 *나는도다.*

목자들에 대한 대언

4 주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
시느니라. 도살할 양 떼를 먹이라.
5 그 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
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
가 되었은즉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
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
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6 내가 다시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
하노라.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각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
주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내지 아니
하리라.

7 오 양 떼의 가련한 자들아, 내가
도살할 양 떼인 너희를 먹이리라. 내
가 두 막대기를 내게로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연합
이라 하고 그 양 떼를 먹였느니라.
8 또한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었노라.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
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
였느니라.
9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
였느니라.
10 ¶ 또 내가 아름다움이라 하는
내 지팡이를 취하여 부러뜨렸으니 이
것은 내가 온 백성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 함이었노라.
11 그것이 그 날에 부러지매 이로
써 나를 바라던 양 떼의 그 가련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더
라.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
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서른 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13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
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
기에 내가 그 은 서른 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 그때에 내가 연합이라 하는 나
의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것
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함이었노라.
15 ¶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네게로 취
할지니라.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
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
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
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17 그 양 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
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
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제 12 장

마지막 때에 있을 예루살렘의 구출

1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
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
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
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쌀 때니라.
3 ¶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4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놀
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며 미치
게 하는 것으로 그 말 탄 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집 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니
5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이 마음속
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로다, 하리라.
6 ¶ 그 날에 내가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속의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
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7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
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

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 그 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
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9 ¶ 또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
라.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
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
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
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11 그 날에 마치 므깃돈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
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12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
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
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
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
라.

제 13 장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샘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
들을 위해 열리리라.
2 ¶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
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
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3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이름
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
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4 또 그 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
였을 때에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
워하며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고
5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결
코 대언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 내게 가축
지키는 것을 가르쳤노라, 할 것이요,
6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목자 구원자

7 ¶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
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
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8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
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
라.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
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
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
리라.

제 14 장

주의 날

1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
들이* 네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네 한가
운데서 나누리라.

2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
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
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
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
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4 ¶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
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
동하리라.
5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
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
께 임하리라.
6 그 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
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7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
다.
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
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
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10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
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
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
라.
11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
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
리로다.
12 ¶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
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
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13 또 그 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시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
라.
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
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15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에게 임할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천년왕국 시대에 민족들이 왕께 경배함

16 ¶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
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17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
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18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
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
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
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
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19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
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
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20 ¶ 그 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으리라.
21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
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
하리라.

말 라 기

기록자: 말라기, 기록 시기: 주전 43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둘째 성전을 지은 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름: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뜻한다. 대언자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대언한 인물로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해 준다.
주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메시아의 약속, 목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위로받게 하는 것, 내용: 바빌론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된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위선에 빠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백성들은 죄와 결합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다. 말라기 대언자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되 위선자와 죄인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다. 또한 말라기는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다. 말라기서는 4장, 55절, 1,781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4장(주의 날), 핵심 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4:2), 핵심 단어: 어떤 점에서
핵심 구: "너희가 하고도 이르기를"(2:17), 말라기서의 그리스도: 1. 언약의 사자(3:1), 2. 의의 해(4:2), 영적 교훈: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

제 1 장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2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
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
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
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
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
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
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
게 하였느니라.
4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
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
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5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6 ¶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
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
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
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
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
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
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
느니라.
8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네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9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
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
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10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
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
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
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11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2 ¶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
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13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
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
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
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
냐?
14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
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
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
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
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
하노라.

제 2 장

부패한 제사장들

1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
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2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
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
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
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
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4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언약
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5 그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그가 두려움으
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그
에게 주었노라.

제사장들의 죄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
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
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
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
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9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
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
니라.

이혼의 죄

10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
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
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

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
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
며 배신하느냐?
11 ¶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
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
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12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
시리라.
13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
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
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
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
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14 ¶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이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
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
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
의 아내니라.
15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
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
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
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
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16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
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
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
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
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
가 말하노라.
17 ¶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
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
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
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
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
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
라.

제 3 장

다가오는 메시아

1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
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
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
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2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
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
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
라.
3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
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
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4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
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
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
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
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
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6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
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7 ¶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
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
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
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
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하
였도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지 말라

8 ¶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
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
까? 하나니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
서 *강도질하였느니라.*
9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10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
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
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
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
리지 아니하리니
12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 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3 ¶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
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
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
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
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
느니라.

주의 기념 책

16 ¶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
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
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 책을 기록하
셨느니라.
17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
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
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
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 4 장

크고 두려운 주의 날

1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
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
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
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
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2 ¶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
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
지들같이 자라리라.
3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
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 날에 그들
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4 ¶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
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5 ¶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
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
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 대언서들의 끝 –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바빌론에 거하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 주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실상을 보여 준다. 그러면 이때와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때 즉 이스라엘의 숫자가 증가하여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 사이의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요세푸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부분에서 독립을 유지하였고 그리스가 메대/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주전 335년경에 경건한 대제사장 얏두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줄로 믿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 한편 이런 일에 대한 꿈을 꾸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얏두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장군들이 그의 영토를 분할했다. 그중에서 안티고누스와 프톨레미 소테르는 가장 힘이 세어서 서로 경쟁자가 되었다. 이때에 소테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사람을 붙잡아 이집트로 보냈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거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말과 관습 등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후에는 정통 유대교와 헬레니즘을 접목시켜 타협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었다. 그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했으나 여전히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말 3:16-18).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으나 새로운 대제사장 오니아스는 주전 247년경 이집트의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 통치 때에 유대인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매해 공세를 내어야 했는데 오니아스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런데 유에르게테스는 지금까지 밀린 공세를 한 번에 낼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국가를 멸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때에 오니아스의 조카인 요셉은 세금을 도급받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이 재난을 피하고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는 여러 왕이 집권했으며 이 둘 사이에 낀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유대인들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유대 헤브라이즘의 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의 헬레니즘도 추구하면서 이중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에 유대 지방에서는 두 그룹이 지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더했다. 다른 그룹은 사두개인들이며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로서 그리스 문화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흡수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 종교를 용인했다.

이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은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빛을 받은 자’라고 부르며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사흘 만에 사만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 실로 그는 다니엘서 11장 21–35절에 이미 예고된 독재자였다. 그는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우상 제단을 만듦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 바로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었다. 이때에 해스모네우스 계통의 노인인 마타티아스(혹은 맛다디아)가 일어나 잔인한 정복자들에게 반항하였다. 비록 그는 일 년 이상 살지 못했지만 자기의 다섯 아들들에게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의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혹은 마카베오)라 불렸고 다른 아들들 역시 마카비라 불렸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 힘을 회복하여 적군의 큰 군대를 이기고 마침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 제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다 마카비의 형제인 엘르아살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유다는 그 당시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오른 로마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패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의 형제인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살인과 폭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전 135년경에는 위대한 마타티아스의 유명한 아들들(마카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시몬마저 죽게 되었다.

주전 134년에서부터 30년 동안 통치한 시몬 마카비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는 로마와의 동맹을 갱신하였으나 그의 시대는 소동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였다. 그의 형제인 알렉산더 애니우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약성경과의 연결고리가 처음 나타난다. 알렉산더는 주전 79년경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때에 여대언자 안나의 남편이 죽었다(눅 2:36–37).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영광을 얻었다. 알렉산더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고 자기의 연약한 아들 히르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이두매아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파테르 즉 이두매아의 총독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와 그의 대적들은 모두 로마의 장군 폼페이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랐으며 이에 폼페이는 돈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다. 유대인 군사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빼앗아갔다. 이후로 유대는 로마의 한 지방이 되었으며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결과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자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자유 시민이 되어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자기의 두 아들 즉 파사엘과 헤롯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치리자로 임명하였다. 그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피살되었으나

그의 친구인 안토니우스가 집권하며 파사엘을 갈릴리의 사분영주로, 헤롯을 유대의 사분영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 파사엘은 자살했고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있는 로마로 도망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보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서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으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한편 그는 해스모네우스(혹은 마카비) 계열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올까 봐 직간접적으로 그 계열의 사람을 다 죽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마타티아스의 씨(마카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충만하게 차자 주전 4년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다(갈4:4). 헤롯은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들을 무서워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마저 살해하였다. 따라서 동방의 지혜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2:2)는 말을 들은 그는 두려움에 떨었으며 그래서 베들레헴 근방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릴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동안 헤롯은 죽었다.

비록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으로 왔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1:11-13).

킹제임스 흠정역

신 약 전 서

우리의 주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인 그리스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SPIRITUS GLADIUS

그리스도 예수안에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

마 태 복 음

기록자: 마태, 기록 시기: 주후 6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4년
수신자: 유대인들. 임마누엘(1:23), 골고다(27:33),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기도(27:46) 등이 해석된 것으로 보아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지혜자들의 방문(2:1－12), 이방인의 병 고침(8:5), 이방인들의 심판(12:18), 대위임에 이방인들이 포함된 점(28:18－20) 등은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호소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마태는 갈릴리에 거하던 유대인으로 레위라고도 불렸다(막2:14; 눅5:27－29). 주제: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의 도래, 목적: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것
내용: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한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마2:2).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 주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신 사실을 잘 보여 주며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강조한다(5－7장; 13장; 24－25장).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즉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마23:37－39). 마태복음은 28장, 1,071절, 23,34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6장(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핵심 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1:1) 이 구절은 첫 아담의 세대를 말하는 창5:1과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임을 보여 준다. 핵심 단어: 1. 왕(8회), 2. 왕국(56회), 3. 하늘의 왕국(33회), 핵심 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1:22)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왕(2:2), 영적 교훈: "회개하라."

제 1 장

왕의 계보(룻4:18－22; 대상2:1－5; 눅3:23－38)

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
한 책이라.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
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
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

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
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
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
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
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
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
고
11 요시야는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
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
론으로 끌려가니라.
12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
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
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
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
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
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
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
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
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
지의 모든 세대가 열네 세대요, 다윗
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열네
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
리스도까지 열네 세대라.

왕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남
(눅2:1-7)

18 ¶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
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
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
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나매
19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
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
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20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
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22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
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
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
님이라는 뜻이라.
24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
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25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
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2 장

지혜자들이 왕을 보러 동쪽에서 옴
1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매, 보
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
렘에 와서
2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
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
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4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
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
쳐 물으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

렇게 기록하신바,
6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7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
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
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
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
어 서니라.
10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
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
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
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
라.

왕이 이집트로 피신함

13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
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 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
라, 하매
14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
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
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
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무죄한 아이들이 학살됨

16 ¶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
들에게 우롱 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
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
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17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으
되,
18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
하므로 *그녀가* 위로 받기를 원치 아니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왕이 나사렛에 정착함(눅2:39)

19 ¶ 그러나 헤롯이 죽으매,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
게 나타나
20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
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
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21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
어가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
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
가
23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
하신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
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제 3 장

침례자 요한
(막1:2-8; 눅3:1-20)

1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
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
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
니
3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
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
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
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
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
은 메뚜기와 들 꿀이더라.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
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6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
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 ¶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
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
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
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
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
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11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
를 주시리니
12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겉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왕이 침례를 받음
(막1:9－11; 눅3:21－22; 요1:29－34)

13 ¶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
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14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
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
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
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
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
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
라.
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
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
라, 하시니라.

제 4 장

왕이 시험을 받음
(막1:12－13; 눅4:1－13)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
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로 들어가사
2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시
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3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
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
라, 하거늘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
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
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
시더라.
5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
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
을 세우고

6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
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
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8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
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9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
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
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
니라, 하시더라.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
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왕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함
(막1:14－15; 눅4:14－15)

12 ¶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
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
로 떠나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14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
여,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
니라.
17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
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
시더라.

왕이 네 어부를 부름
(막1:16－20; 눅5:1－11)

18 ¶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
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
라.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
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2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
버지를 남겨 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왕이 큰 무리를 고침
(막1:35－39; 눅4:40, 6:17－19)

23 ¶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
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
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
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
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제 5 장

왕의 산상 설교(눅6:20－26)

1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분께 나아오매
2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

쳐 이르시되,
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
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
요,
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
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
요,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
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
요,
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
이기 때문이요,
10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
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
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
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막9:50; 눅14:34–35)

13 ¶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
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
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
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15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
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
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을 돌리게 하라.

왕이 율법을 성취함

17 ¶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
법에서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의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
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
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
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
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됨(눅12:57–59)

21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
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
에 처하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
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
하거든
24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
라.
25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
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
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
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26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음속의 간음

27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
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
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
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
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
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신성한 결혼
(마19:9; 막10:11-12; 눅16:18)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
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헛된 맹세 금지

33 ¶ 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
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35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
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
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36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
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37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
은 악에서 나느니라.

십 리를 같이 가라(눅6:29-31)

38 ¶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
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40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
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41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
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 리를 가며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눅6:27-28, 32-36)

43 ¶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
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
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
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
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
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
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
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
지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제 6 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
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
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3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
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
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
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
(눅11:1–4)

5 ¶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
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
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
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
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7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
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
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
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
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을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
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
옵시며
10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
옵시며
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
멘.
14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
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
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
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나님께 보이는 바른 금식

16 ¶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
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
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
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
았느니라.
17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
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18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
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

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
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눅12:33－34)

19 ¶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
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20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
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
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2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눅11:34－36)

22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23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
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
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

24 ¶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
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
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눅12:22－31)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
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
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
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
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
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
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
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
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
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
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
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
지 아니하시겠느냐?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
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
라.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
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
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
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제 7 장

판단하지 말라(눅6:37－42)

1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2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3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4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
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5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
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
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
리라.
6 ¶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
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
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
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계속 간구하라(눅11:9－13)

7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
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라.
9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10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
게 뱀을 주겠느냐?
11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
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
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
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
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
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좁은 길(눅13:24)

13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
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라
(마12:33; 눅6:43－45; 13:25－27)

15 ¶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
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16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
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
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
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
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20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
로 그들을 알리라.
21 ¶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
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
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
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
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
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
리니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
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
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반석 위에 지은 자(눅6:47－49)

24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그것이 무너
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26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
리라.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것이 무너
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
시니라.

28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
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
니
29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
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
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제 8 장

왕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함
(막1:40－45; 눅5:12－15)

1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2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
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
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
다, 하매
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
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
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
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
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
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왕이 백부장의 종을 고침(눅7:1－10)

5 ¶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
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간청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 병으
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 가서 그를 고쳐 주리라, 하시니
8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
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
겠나이다.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
을 하나이다,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
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
에서 앉으려니와
12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
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
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3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
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왕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
(막1:29－31; 눅4:38－39)

14 ¶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
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
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왕이 많은 사람을 고침
(막1:32－34; 눅4:40－41)

16 ¶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
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 주시
니
17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
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
다, 하였느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눅9:57－62)

18 ¶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
의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19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
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
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

다, 하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
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21 또 그분의 제자들 중의 다른 사
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
옵소서, 하거늘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
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하
시니라.

왕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함
(막4:35－41; 눅8:22－25)

23 ¶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
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24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
서는 주무시더라.
25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
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
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
매
2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
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왕이 마귀 들린 두 사람을 고침
(막5:1－20; 눅8:26－39)

28 ¶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
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
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
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29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
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
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30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31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
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
거든 우리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
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
가니, 보라, 온 돼지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물속에
서 죽으니라.
33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
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34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
러 나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
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제 9 장

왕이 마비 병 환자를 고침
(막2:1－12; 눅5:17－26)

1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
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2 보라, 그들이 마비 병으로 자리
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
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
다, 하시니라.
3 보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
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
독하는도다,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
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
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5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6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
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
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
매
7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
거늘
8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
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니라.

왕이 세리 마태를 부름
(막2:13－17; 눅5:27－32)

9 ¶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
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10 ¶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
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
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
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12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13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
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
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막2:18－22; 눅5:33－39)

14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
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
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
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
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
식할 것이니라.
16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
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
라.
17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
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
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
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왕이 치리자의 딸을 살리고
여인을 고침
(막5:21－43; 눅8:40－56)

18 ¶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
을 말씀하실 때에, 보라, 어떤 치리자
가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
이 살겠나이다, 하매
19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
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20 ¶ 보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21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
라.
22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
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
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23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
들을 보시고
24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25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
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26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
에 널리 퍼지니라.

왕이 눈먼 두 사람을 고침
27 ¶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
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
라.
28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
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29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
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30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
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31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
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
라.

왕이 말 못하는 자를 고침
32 ¶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
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33 그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
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
는다, 하더라.
35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
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왕이 무리를 불쌍히 여김
36 ¶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
라.
37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
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
되 일꾼들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제 10 장

왕이 열두 사도를 부름
(막3:13－19; 눅6:12－16)
1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부
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
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
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이제 그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
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
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
이 다대오인 렙배오와
4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
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왕이 열두 사도를 내보냄
(막6:7－13; 눅9:1－6)
5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
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
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
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6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7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
라.
8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
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
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
으니 거저 주라.
9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10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
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11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
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
내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
라.
12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에 그 집에 문안하라.
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
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핍박이 임함
(막13:9－13; 눅21:12－17)

16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
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17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
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
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
에게 증언하리라.
19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
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
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21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
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라.
23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
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24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
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25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
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
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라. 덮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
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서 알려
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침(눅12:3－9)

27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
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28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일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
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의 하나
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
까지도 다 세셨나니
31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
하니라.
32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왕이 분열을 가져옴
(눅12:51－53; 14:26－27)
34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
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
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36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
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40 ¶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
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보상을 받을 사람(막9:41)
41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
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 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
니라.

제 11 장

침례자 요한이 왕에게
사자들을 보냄(눅7:18－35)
1 예수님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에
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
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
기를 떠나시니라.
2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
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보내어
3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5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
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
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
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
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
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
대냐?
8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9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
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
은 자니라.
10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
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
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
라.
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12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
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
라.
13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14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
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 ¶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
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
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17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
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19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
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
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
시니라.

왕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저주함(눅10:13－15)

20 ¶ 그때에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
짖기 시작하시니라.
21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
다! 벳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
이 벌써 오래 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
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 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왕이 참된 안식을 줌
(눅10:21－22)

25 ¶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
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
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
하나이다.
26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
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
았나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
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
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
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
니라, 하시니라.

제 12 장

왕이 안식일의 주인임
(막2:23－28: 눅6:1－5)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
식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2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
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
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5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
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
라.
7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
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
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
니
8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
라, 하시니라.

왕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
(막3:1-6; 눅6:6-11)

9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
당에 들어가시니라.
10 ¶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
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
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12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
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
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
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14 ¶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
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15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
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
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
시고
16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
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17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18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
이리라.
19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
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21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
리라, 하셨느니라.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함
(막3:22-27; 눅11:14-23)

22 ¶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
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
라.
23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
나
24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
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
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
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
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
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
리라.
26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
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

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
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
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
리라.
30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
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헤치는 자니
라.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 죄
(막3:28-30; 눅12:10)

31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
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
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
서받지 못하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
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
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
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
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34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
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
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
니라.
3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
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
라.
36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37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
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함
(눅11:29-32)

38 ¶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
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
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
늘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
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
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
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
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
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부정한 영이 되돌아옴(눅11:24-26)

43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45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
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
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
리라, 하시니라.

왕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막3:31-35; 눅8:19-21)

46 ¶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
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47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

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
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
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48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
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
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
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
제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제 13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4:1-9; 눅8:4-8)

1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
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
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3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4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
므로 시들어 버렸고
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
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8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의 열매를 내었느
니라.
9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비유의 목적
(막4:10-12; 눅8:9-10)

10 제자들이 나아와 그분께 이르
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하시나이까? 하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
문이니라.
12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
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
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
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
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14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
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
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
라.

비유의 설명
(막4:13-20; 눅8:11-15)

18 ¶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
의 비유를 들으라.
19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
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
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20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21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
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
느니라.
22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23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백 배, 얼마
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를 내느니
라, 하시니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

24 ¶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
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25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26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
라지도 보이거늘
27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
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
이까? 하매
28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
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
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29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
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
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겨자씨 비유
(막4:30－32; 눅13:18－19)

31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32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
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
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하시니라.

누룩 비유(눅13:20－21)

33 ¶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
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
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대언과 비유(막4:33－34)

34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
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
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
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
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라지 비유 설명

36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
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
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
해 주옵소서, 하매
3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
람의 아들이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
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
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라.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
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갊이 있으
리라.
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
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숨겨진 보물 비유

44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
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그것의 기쁨
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비싼 진주 비유

45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46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
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물 비유

47 ¶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
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48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
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
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
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50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
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갊이 있
으리라, 하시니라.
5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52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
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왕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음
(막6:1-6; 눅4:16-30)

53 ¶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
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54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
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
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
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
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
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
냐?
56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57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
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
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 14 장

침례자 요한의 죽음
(막6:14-29; 눅9:7-9)

1 그때에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
의 명성을 듣고
2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
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
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3 ¶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
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다, 하였기 때문이라.
5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
워하더라.
6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
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
거늘
8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
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
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9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
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11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
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
니에게 가져가니라.
12 그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
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왕이 오천 명을 먹임

(막6:30－44; 눅9:10－17; 요6:1－14)

13 ¶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
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
가매
14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
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15 ¶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
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외
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1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
리에게는 단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18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19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
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
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
었더라.
21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오천 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왕이 바다 위를 걸음

(막6:45－52; 요6:16－21)

22 ¶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
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
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
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24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
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
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
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26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
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27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
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8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
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29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
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30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
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
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
하였느냐? 하시니라.
32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
이 그치니
33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

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왕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침
(막6:53-56)

34 ¶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35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
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36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
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
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
게 되니라.

제 15 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옴(막7:1-23)

1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
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
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
다, 하거늘
3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4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
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
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
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
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
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
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7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
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
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라, 하시니라.
12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
께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
까? 하매
13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
14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15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
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1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17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
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
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
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
독이 나오는데
20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
라, 하시니라.

왕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침
(막7:24-30)

21 ¶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
시니
22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
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23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
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
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2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
였노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
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26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27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
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
다, 하니
28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
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왕이 많은 사람을 고침

29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
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
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
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
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니라.

왕이 사천 명을 먹임
(막8:1－10)

32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
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33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
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
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
늘
35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취하
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
게 주매
37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38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 명이었더라.
39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
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
니라.

제 16 장

요나의 표적
(막8:11－13; 눅12:54－56)

1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
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
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 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
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3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
니 오늘은 날씨가 궂으리라, 하는도
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
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
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 둔 채 떠나가
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막8:14－21)

5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6 ¶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
니
7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
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
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8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
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
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
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
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
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10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
하지 못하느냐?
11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
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
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12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베드로가 왕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 (막8:27－30; 눅9:18－20)

13 ¶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
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4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
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
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
냐? 하시니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
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1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
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
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20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
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함(막8:31－33; 눅9:21－22)

21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
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
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22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
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23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
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
하는도다, 하시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막8:34-38; 눅9:23-26)

24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
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
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
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
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
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
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
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 17 장

왕이 영화롭게 변화됨
(막9:1-13; 눅9:27-36)

1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2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
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3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
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
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
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
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
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
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
소서, 하더라.
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
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
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6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
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7 예수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
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
워하지 말라, 하시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
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
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
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10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
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
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고 말하나이까? 하매
11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13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
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왕이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침
(막9:14-29; 눅9:37-42)

14 ¶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

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
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
16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
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
이다, 하매
17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
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
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18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19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
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
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
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
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
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
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함
(막9:30-32; 눅9:44-45)

22 ¶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
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23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
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
심하더라.

왕이 공세를 냄

24 ¶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공세 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
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25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
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
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
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26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
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
제되리라.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
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
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
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제 18 장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막9:33-37; 눅9:46-48)

1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2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
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
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
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
를 받아들이느니라.
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
리라.

왕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함(막9:42-48; 눅17:1-2)

7 ¶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
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8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
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눅15:1-7)

10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
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12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
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
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
냐?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
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

15 ¶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16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
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
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7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
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
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
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
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
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21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
아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
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하
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23 ¶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
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으
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24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
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25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26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
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
를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
나이다, 하거늘
27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
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 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28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
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 데나

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
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29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 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30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
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31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
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32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33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34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
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35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
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
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
시니라.

제 19 장

왕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침
(막10:1－12)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
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
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
라.
3 ¶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
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
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4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
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
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
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
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
느냐?
6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
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거늘
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
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하므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
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
느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
시니라.
10 ¶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
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
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12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
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사람들
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더러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왕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함
(막10:13－16; 눅18:15－17)

13 ¶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
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14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
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
를 떠나시니라.

왕이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줌
(막10:17-22; 눅18:18-23)

16 ¶ 보라, 어떤 사람이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
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을 얻으리이까? 하매
17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
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18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
령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
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
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
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20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
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
이까? 하거늘
2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
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
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
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
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
(막10:23-31; 눅18:24-30)

23 ¶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
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
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25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
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
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
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27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
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
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
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
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
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
으리라.
30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
이 처음이 되리라.

제 20 장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1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
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
니라.
2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
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세 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
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5 다시 그가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 또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
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
라.
8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
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
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
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9 열한 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10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
도 마찬가지로 각각 일 데나리온씩 받
았으므로
11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12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
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
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13 그가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응
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일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
냐?
14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15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
하므로 네 눈이 악하냐?
16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
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함
(막10:32－34; 눅18:31－34)

17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실 때에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
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
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
나리라, 하시니라.

왕이 섬기러 옴(막10:35－45)

20 ¶ 그때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21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
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
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
옵소서, 하거늘
2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
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
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
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
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
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24 그 열 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
에게 분개하거늘
25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
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
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

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
라.
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
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
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왕이 눈먼 두 사람을 고침
(막10:46－52; 눅18:35－43)

29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30 ¶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31 그들이 잠잠해야 하므로 무리
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
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
서, 하더라.
32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
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
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33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34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
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제 21 장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감
(막11:1－10; 눅19:28－40; 요12:12－19)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올리브 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
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
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
을 보내리라, 하시니
4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
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
이라. 일렀으되,
5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
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
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6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
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
을 그 위에 태우니
8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
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
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
나, 하더라.
10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
이 누구시냐? 하거늘
11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
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
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함
(막11:15－19; 눅19:45－48; 요2:13－22)

12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
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
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4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
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15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
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
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16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
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
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
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
냐? 하시니라.
17 ¶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 둔 채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왕이 무화과나무를 말림
(막11:12-14, 20-24)

18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
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19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
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
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
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
과나무가 말라 버리니
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버리는가!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
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
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
대로 될 것이요,
22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
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
시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왕의 권위를 의심함
(막11:27-33; 눅20:1-8)

23 ¶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
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
로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거늘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25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
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
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
져 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
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
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
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
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
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27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
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
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
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두 아들 비유

28 ¶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
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
라, 하니
29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
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30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
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
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
니하였느니라.
31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
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
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32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
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
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
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
라.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
(막12:1－12; 눅20:9－19)

33 ¶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
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34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
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35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
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36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
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
도 그렇게 하거늘
37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
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
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39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
던지고 죽였느니라.
40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
니
4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 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
매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
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
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
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
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리라, 하시니라.
45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
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46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
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
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제 22 장

혼인 잔치 비유
(눅14:15－24)

1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
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
니라.
3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
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4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
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5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
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
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6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
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7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8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 그런즉 너희는 큰길로 나가서 만
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
라, 하매
10 이에 그 종들이 큰길로 가서 나
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11 ¶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13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
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14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막12:13–17; 눅20:20–26)

15 ¶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
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
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
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
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17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
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
거늘
18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
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
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
오거늘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2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
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
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
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
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
라.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막12:18–27; 눅20:27–40)

23 ¶ 바로 그 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
분께 물어
24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
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
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
였나이다.
25 이제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
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
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
에게 남겼고
26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
나이다.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
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일곱
사람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
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
므로 잘못하느니라.
30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
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
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
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르시되,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33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가장 큰 명령
(막12:28－34; 눅10:25－28)

34 ¶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35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36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40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막12:35－37; 눅20:41－44)

41 ¶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42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44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45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아무도 능히 한 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 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제 23 장

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함
(막12:38－40; 눅20:45－47)

1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4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5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6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7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10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11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
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
하지 아니하는도다.
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
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1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
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
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
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17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
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18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
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
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19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
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20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21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
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22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
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
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
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
라.
24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
다.
2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
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
게 되리라.
2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
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
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
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29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
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30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
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
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
였으리라, 하나니
31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32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34 ¶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
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의 더러
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의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
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35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
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
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
리라.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 말함
(눅13:34－35)

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
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
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
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
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
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
시니라.

제 24 장

왕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함
(막13:1－2; 눅21:5－6)

1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
을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
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왕이 다시 오는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
(막13:3－13; 눅21:17－19)

3 ¶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
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
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
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
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
하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6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
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
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
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
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
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
라.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
고
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
은 사람을 속이며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
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
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
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
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난
(막13:14－23; 눅17:23－24, 37;
21:20－24)

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들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18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
돌아가지 말지어다.
19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
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
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
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
였노라.
26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
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
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8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
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세상 끝에 왕이 다시 옴
(막13:24－27; 눅21:25－28)

29 ¶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
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막13:28－31; 눅21:29－33)

32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
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
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가 아나니
33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
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
라.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35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 때를 모름(막13:32－37; 눅17:26－30, 34－36; 21:34－36)

36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
만 아시느니라.
37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
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
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
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2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
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
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신실한 종과 악한 종(눅12:41－48)

45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
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48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
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49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
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
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잘라 내고 위선자들과 함
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
라.

제 25 장

세상 끝의 하늘의 왕국과
열 처녀 비유

1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2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
은 어리석더니
3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
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
였고
4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
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6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8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
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
라, 하거늘
9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
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
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를 위해 사라, 하매
1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11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
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
서, 하나
12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
(눅19:11－27)

14 ¶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
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
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15 그가 하나에게는 오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일 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
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16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오 달란트를
더 만들고
17 이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 달란트를 더 벌되
18 일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19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
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20 이에 오 달란트 받은 자는 오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
이여, 주께서 내게 오 달란트를 맡기셨
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오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
니라.
22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
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
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
니라.
24 그 뒤에 일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
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26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
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27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
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
도다.
28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30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
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함(욜3)

31 ¶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32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
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33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
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
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
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
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
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
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
고
36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
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
가 나를 찾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37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
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
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
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38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
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
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39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41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
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

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
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
하였으며
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
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44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
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
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
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
리라.
45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
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
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
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
리라.
46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
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 26 장

왕을 죽이려는 음모
(막14:1－2; 눅22:1－2; 요11:45－53)

1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
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
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3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4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
고 협의하였으나
5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
자, 하더라.

한 여인이 왕에게 향유를 부음
(막14:3－9; 요12:1－8)

6 ¶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
에 그것을 붓거늘
8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
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9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
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
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
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12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지내기 위함이니라.
1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
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왕을 배반함
(막14:10－11; 눅22:3－6)

14 ¶ 그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
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1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
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16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
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왕이 유월절을 지킴
(막14:12－21; 눅22:7－13)

17 ¶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
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시
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

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8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
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
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매
19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
게 정해 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20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앉으시니라.
21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
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
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22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
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23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24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
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
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왕이 주의 만찬을 제정함
(막14:22－26; 눅22:14－23;
고전11:23－26)

26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
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
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
는 다 그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
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
리브 산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함
(막14:27－31; 눅22:31－34;
요13:36－38)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
여 실족하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
를 치리니 양 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
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
니
33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
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
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
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35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겟세마네 기도
(막14:32－42; 눅22:39－46)

36 ¶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
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
시 괴로워하시더라.
38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
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
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
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
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
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
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42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고
43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
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
문이더라.
44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
시고
45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
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
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46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왕이 배반당해 붙잡힘
(막14:43－52; 눅22:47－53; 요18:1－11)

47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에, 보라,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
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8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
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49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
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
께 입을 맞추니라.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51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들 중의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52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
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53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
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
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54 그러나 그리되면, 반드시 이렇
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55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
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
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왕이 산헤드린 앞에 섬
(막14:53－65; 눅22:66－71;
요18:12－14, 19－24)

57 ¶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
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
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
여 있더라.
58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
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59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60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
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61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
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
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
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
가 너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6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
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
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
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죄
를 지었나이다, 하고
67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
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68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
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왕을 부인함
(막14:66－72; 눅22:54－62;
요18:15－18, 25－27)

69 ¶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
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아
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
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71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
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
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
라.
73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74 그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
더라.
75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
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
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
니라.

제 27 장

왕이 빌라도에게 넘겨짐
(막15:1; 눅23:1; 요18:28)

1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2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
라.

유다가 목매달고 죽음(행1:18－19)

3 ¶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
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
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
라, 하거늘
5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
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6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피 값이므로 그것들
을 *성전* 보고에 넣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7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
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
라.
8 그러므로 이 날까지 그 밭을 피
밭이라 하느니라.
9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렀으
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
긴 자의 가격인 은 서른 개를 취하여
10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
도다, 하였느니라.

왕이 빌라도 앞에 섬
(막15:2－5; 눅23:2－5; 요18:29－38)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
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12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
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13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
냐? 하되
14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
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왕이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짐
(막15:6－15; 눅23:13－25;
요18:39－40)

15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
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
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16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
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
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
라.
19 ¶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
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 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
렸나이다, 하더라.
20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
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21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
거늘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
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23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
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
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
라.
24 ¶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
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25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
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26 ¶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
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
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왕을 조롱함
(막15:16－20)

27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

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29 ¶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
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
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
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30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
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31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
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힘
(막15:21－32; 눅23:26－43;
요19:17－27)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33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34 ¶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
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
하시더라.
3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
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뽑아 나누
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
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
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36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
켜보고
37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
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
더라.
38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
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39 ¶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
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
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41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
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
여 이르되,
42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
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
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
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
라.

왕이 십자가에서 죽음
(막15:33－41; 눅23:44－49;
요19:28－30)

45 이제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46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
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
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47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
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48 즉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달려
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
늘
49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50 ¶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51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
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
의 많은 몸이 일어나
53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
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
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
도다, 하더라.
55 거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
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
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
는데
56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왕이 부자의 무덤에 묻힘
(막15:42－47; 눅23:50－56;
요19:38－42)

57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58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
한 아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61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
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군사들이 왕의 무덤을 지킴

62 ¶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63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
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
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
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
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
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 28 장

왕이 부활함
(막16:1－8; 눅24:1－12; 요20:1－10)

1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
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2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3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
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
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
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
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8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
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
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더
라.
9 ¶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
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
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
거늘 그들이 나아와 그분의 발을 붙잡
고 그분께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
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
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군사들이 거짓으로 보고함

11 ¶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의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
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
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
에 그를 훔쳐 갔다, 하라.
14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
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리라, 하니
15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 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
니라.

왕이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줌
(막16:14-18; 눅24:36-49;
요20:19-23; 행1:6-8)

16 ¶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
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에 들어가
17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
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
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
며
20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
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
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
라. 아멘.

성도 마가가 전한 복음

마 가 복 음

기록자: 마가, 기록 시기: 주후 60년경, 성격: 역사, 기간: 3년 반
수신자: 군단, 백부장 등의 라틴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들 특히 핍박 중에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였을 것이다. 로마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마가는 메시아의 계보를 생략한다. 또한 그는 구약성경의 여러 예언을 생략하고 이방인 독자들을 위하여 요르단이 강이라는 것과(1:5) 올리브 산이 성전 맞은편에 있다는 것(13:3) 등을 설명한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성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망치'를 뜻하는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며(행12:12)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벧전5:13). 그는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사도행전에 8회 언급된다. 주제: 주 하나님의 종의 사역
목적: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보여 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분처럼 섬겨야 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곧바로 그분의 지상 사역을 기술하며 주로 그분의 일을 많이 말한다. 특히 마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수난 기록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구약의 인용이나 유대 풍습에 대한 묘사보다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부터 주님의 사역의 끝부분까지를 간략하지만 매우 힘 있게 전달한다. 기록의 단순함과 평범함 때문에 마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 명쾌하며 놀랍고 동시에 가장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이라는 평을 받는다. 마가복음은 16장, 678절, 14,94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0장(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
핵심 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10:45), 핵심 단어: 곧장(42회)
핵심 구: "즉시 그분께서"(1:20), 마가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운 종(사53:11), 영적 교훈: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그분을 증명한다."

제 1 장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침례자 요한

(마3:1-12; 눅3:1-20; 요1:19-28)

2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 보
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
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
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
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
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4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
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5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더
라.
7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8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
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
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줌
(마3:13-17; 눅3:21-22; 요1:29-34)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
더라.
11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
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
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함
(마4:1-11; 눅4:1-13)
12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13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
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
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함
(마4:12-17; 눅4:14-15)
14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
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름
(마4:18-22; 눅5:1-11)
16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라, 하시니
18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
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19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
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
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20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
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내쫓음
(눅4:31-37)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
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
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23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
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
며
24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
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
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
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
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
시니
26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
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
므로
27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
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
다, 하더라.
28 그분의 명성이 즉시 갈릴리 주
변 온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
(마8:14-15; 눅4:38-39)
29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의 집에 들어갔는데
30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
로 앓아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
31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
기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침
(마8:16－17; 눅4:40－41)

32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들
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33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
라.
34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
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
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
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함
(마4:23－25; 눅4:42－44)

35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
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
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36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37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
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
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39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
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
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함
(마8:1－4; 눅5:12－16)

40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
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
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41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
결할지어다, 하시니라.
42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
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43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
고 곧 그를 보내시며
44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
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또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
로 삼으라, 하시니라.
45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
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의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
께 나아오더라.

제 2 장

예수님께서 마비 환자를 고침
(마9:2－8; 눅5:17－26)

1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
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
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2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매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
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3 그들이 한 마비 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
라.
4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
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
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5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
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
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
니라.
6 그러나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
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 보며
이르되,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
냐? 하더라.
8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
게 따져 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

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
보느냐?
9 마비 병 환자에게, 네 죄들을 용
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
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10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
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12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
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름
(마9:9-13; 눅5:27-32)

13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
가시매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패오
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
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
니라.
15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
더라.
16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
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
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
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
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17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
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마9:14-17; 눅5:33-39)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
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
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
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
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21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
라.
22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
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
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임
(마12:1-8; 눅6:1-5)

23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
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24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
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
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
냐?
26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
시고
27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
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
나니
28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제 3 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 (마12:9-14; 눅6:6-11)

1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
니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 있으므로
2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
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
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3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
라, 하시고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
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
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5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므로 그분
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
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
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
게 회복되니라.
6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
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
나
7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
께 물러나 바다로 가시니라. 갈릴리에
서 온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유대와
8 예루살렘과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
너편에서 온 *자들도 따르더라.* 또 두
로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 곧 큰
무리가 그분께서 하신 큰일들을 듣고
그분께 나아오므로
9 그분께서 무리로 인해, 그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하
여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
들에게 말씀하셨으니
10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역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분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
기 때문이더라.
11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
분 앞에 엎드려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
니
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
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
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임명함 (마10:1-4; 눅6:12-16)

13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14 그분께서 열둘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15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
라.
16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17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
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
한과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와 다대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19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
20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
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21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

였기 때문이더라.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함

(마12:22－30; 눅11:14－23)

22 ¶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
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
을 내쫓는다, 하거늘
23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
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24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
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25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
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
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지 못하리니 *결박
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
라.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 죄

(마12:31－32; 눅12:10)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
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29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
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
니라.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
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
이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마12:46－50; 눅8:19－21)

31 ¶ 그때에 그분의 형제들과 그
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32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
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
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3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
들이냐? 하시고
34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
제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
니이니라, 하시니라.

제 4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13:1－9; 눅8:4－8)

1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
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
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
가 땅에 있더라.
2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
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
에게 이르시되,
3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
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
므로 시들어 버렸고
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
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
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8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9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비유의 목적

(마13:10－17; 눅8:9－10)

10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
여졌나니
12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
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3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
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의 설명
(마13:18-23; 눅8:11-15)

14 ¶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
느니라.
15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16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
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17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
하는 자들이요,
18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
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19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
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
게 되는 자들이니라.
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
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
니라.

등잔대 위의 등잔불(눅8:16-18)

21 ¶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통 밑에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22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
니라.
23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
을지어다, 하시니라.
2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
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
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
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자라나는 씨

26 ¶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
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
게 그리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
라.
28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
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의 알찬
곡식이라.
29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
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
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겨자씨 비유
(마13:31-32; 눅13:18-19)

30 ¶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
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
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
까?
31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
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
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32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
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
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침
(마8:1-4; 눅5:12-16)

33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
에게 말씀하시되
34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함
(마8:23－27; 눅8:22－25)

35 바로 그 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
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
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36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하더라.
37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
게 되었으되
38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
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
나이까? 하매
39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
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
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4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
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
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
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
가? 하더라.

제 5 장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침
(마8:28－9:1; 눅8:26－29)

1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
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2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3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
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5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
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6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
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7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
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
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9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
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
고
10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
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11 이제 거기에 큰 돼지 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12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
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
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13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
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
들 속으로 들어가니 (이천 마리쯤 되
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
달아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 막혀
죽으니라.
14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
나가서
15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
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
더라.
16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하매
17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
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
라.
18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
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
으나
19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
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
시니
20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
기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
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
매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고 여인을 고침
(마9:18-26; 눅8:40-56)

21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
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
에 가까이 계시더라.
22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의 하
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
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23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24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
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25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
떤 여자가 있었는데
26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
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27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
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
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
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29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30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
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
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
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
니
31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
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
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32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33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
니라.
34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
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35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
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
시나이까? 하거늘
36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
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
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
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
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
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40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
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
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
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는 뜻이라.
42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더
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
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
시니라.

제 6 장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마13:53－58; 눅4:16－30)

1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
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분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
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매 많은 사람들
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
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
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
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
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4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5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
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
며
6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
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열둘을 내보냄
(마10:1, 5－15; 눅9:1－6)

7 ¶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
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8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
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의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9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10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
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11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
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
시매
12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
할 것을 선포하고
13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침례자 요한의 죽음
(마14:1－12; 눅9:7－9)

14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
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
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
라.
15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 하
고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
자들 중의 하나와 같다, 하나

16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
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17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
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
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
이라.
18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
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19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
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
니라.
20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
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21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
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에
22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
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
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고
23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
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
노라, 하거늘
24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
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매
25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
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
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26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
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
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27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
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매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28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
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
니에게 주니라.
29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
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
라.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임
(마14:13－21; 눅9:10－17; 요6:1－14)

30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3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
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32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33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
보다 앞서 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아
왔더라.
34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
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
기 시작하시더라.
35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
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
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36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
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
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3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
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
르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 어치
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
되,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
이다, 하거늘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40 그들이 떼를 지어 백 명씩 오십
명씩 앉으니라.
41 그분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
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
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두 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
서 나누어 주시니
42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43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
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44 빵을 먹은 자들은 오천 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음
(마14:22－33; 요6:15－21)

45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
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47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
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뭍에 계
시다가
48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
로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
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
늘
49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
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50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
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
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
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
라, 하시고
51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시매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
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52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침(마14:34－36)

53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
들이 그분인 줄 알고
55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
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56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
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
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
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제 7 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옴(마15:1－20)

1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부터 나와 그분께 왔다가
2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3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
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
라.
4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
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
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

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
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
다.
7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
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
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10 모세는 이르되, 네 아버지와 어
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
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
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
라, 함으로써
12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13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
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
느니라, 하시니라.
14 ¶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
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
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라.
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
을지어다, 하시니라.
17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
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
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
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9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
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20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
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
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22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
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
음이 나오는데
23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침(마15:21-28)

24 ¶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
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25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
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
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27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28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
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
이다, 하니
29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네 길로 가라. 마귀
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라.
30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침

31 ¶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
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
32 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아와 그에게 안수하
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33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
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 는 뜻이라.
35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36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
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 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37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
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그분께
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제 8 장

예수님께서 사천 명을 먹임 (마15:32－39)

1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
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
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
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3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
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
리라, 하시니
4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
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
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하매
5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
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 있나이다,
하거늘
6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7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
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
니
8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떼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일곱
바구니 거두었더라.
9 먹은 자들은 사천 명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함(마16:1－4)

10 ¶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
로 들어가시매
11 바리새인들이 나아와 그분과 논
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
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12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
시고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마16:5－12)

14 ¶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
이 한 개밖에 없더라.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
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16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
문이로다, 하거늘
17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
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
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
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
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 가운
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
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
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열두 바
구니이니이다, 하매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 가운데서
떼어 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
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바구니이니
이다, 하거늘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
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침

22 ¶ 그분께서 벳새다에 이르시
매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
께 나아와 그를 만져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23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
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24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
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25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
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26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
내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고을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함
(마16:13－20; 눅9:18－20)

27 ¶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
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28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
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2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
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
매
30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
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
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
(마16:21－23; 눅9:21－22)

31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
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
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
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32 드러내 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
기 시작하거늘
33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
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
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
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16:24－27; 눅9:23－26)

34 ¶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
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
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
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3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38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
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
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제 9 장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됨
(마17:1－13; 눅9:27－36; 벧후1:16－18)

1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
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
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
라, 하시니라.
2 ¶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3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4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
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
야기하거늘
5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
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
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
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6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
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7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
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8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
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
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
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10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
더라.
11 ¶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
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
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12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람의 아들에 대
하여는 기록된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
라 하였느니라.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
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을 그에
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소년을 고침
(마17:14－21; 눅9:37－42)

14 ¶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15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
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16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
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
냐? 하시니
17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
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
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18 그가 그를 아무 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19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
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
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20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
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
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
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22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
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
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소서, 하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24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
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
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
와주소서, 하더라.
25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
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
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
가지 말라, 하시매
26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
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27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
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28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
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
하였나이까? 하매
2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마17:22-23; 눅9:43-45)

30 ¶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
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31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매 그들
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 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32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
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가장 큰가? (마18:1-5; 눅9:46-48)

33 ¶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35 그분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
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36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
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
이들 중의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
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
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파당을 금함(눅9:49-50)

38 ¶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

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
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거늘
3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
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
리 편이니라.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
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함(마18:6-9; 눅17:1-2)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
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
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
니
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
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
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
니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
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
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8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
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
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
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라.

제 10 장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침(마19:1-9)

1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
의 더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
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2 ¶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
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3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어라 명령
하였느냐? 하시거늘
4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
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
이다, 하매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퍅하므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
니와
6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7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
여
8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
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10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니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
여 간음하며
12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함
(마19:13-15; 눅18:15-17)

13 ¶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
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14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
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
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16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
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줌
(마19:16-22; 눅18:18-23)

17 ¶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
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1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
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
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
을 아느니라, 하시니
20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
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21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
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
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
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
(마19:23-30; 눅18:24-30)

23 ¶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
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
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
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
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
다!
25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
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
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
을 수 있으리요? 하매
27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
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
시니라.
28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말
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
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
다, 하매
29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
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
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30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
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31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
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마20:17－19;
눅18:31－34)

32 ¶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
가며 두려워하매 그분께서 다시 열둘
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시며
33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
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
인들에게 넘겨주리라.
34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
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
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옴
(마20:20－28)

35 ¶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선생님
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
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3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원하
느냐? 하시니
3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
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
소서, 하거늘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
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
냐? 하시니
39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
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
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41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
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42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
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와
43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45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매오를 고침
(마20:29－34; 눅18:35－43)

46 ¶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에 디매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매
오가 큰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47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
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
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
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
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49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
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
다, 하매

50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
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
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
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
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제 11 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감
(마21:1－11; 눅19:28－40; 요12:12－19)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
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
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
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
로 보내리라, 하시매
4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
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6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
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7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
매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8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
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
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9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
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
10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
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함
(마21:18－19)

12 ¶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시므로
13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나
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
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14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
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
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
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함
(마21:12－17; 눅19:45－48; 요2:13－22)

15 ¶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엎기 시작하시
며
16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
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
되, 기록된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
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
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
매

18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
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19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
서 나가시더라.

무화과나무의 교훈(마21:20－22)

20 ¶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
린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
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
렸나이다, 하니
2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
라.
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
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
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용서와 기도(마6:14－15)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
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26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
시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함(마21:23－27; 눅20:1－8)

27 ¶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
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그분께 나아와
28 그분께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
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네게 주었느
냐? 하거늘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
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
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
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30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
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
하라, 하시매
31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32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
다, 하면 *또 어찌되리요*, 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33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
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
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
니하노라, 하시니라.

제 12 장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
(마21:33－46; 눅20:9－19)

1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
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
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
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
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2 철이 이르매 농부들로부터 포도
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3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
으로 보내니라.
4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
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5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
라.
6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
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
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
경하리라, 하였으나
7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
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
로 내던졌느니라.
9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
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
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
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
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
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
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마22:15－22; 눅20:20－26)

13 ¶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
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의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
매
14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
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
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
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
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
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
리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
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
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
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
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
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17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
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
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마22:23－33; 눅20:27－40)

18 ¶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
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
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
라, 하였나이다.
20 이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
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21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
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
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취하였
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
다.
23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의 누구
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24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
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
냐?
25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

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
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라.
26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
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
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
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27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
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
니라.

가장 큰 명령
(마22:34－40; 눅10:25－28)

28 ¶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
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이
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
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은 한 주시니
30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
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
이 첫째 명령이니라.
31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
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32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
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
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
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
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
니이다,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
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
되,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마22:41－46; 눅20:41－44)

35 ¶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
치실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라고 말하느냐?
36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
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
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마23:1－7; 눅20:45－47)

38 ¶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
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39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
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40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헌금(눅21:1－4)

41 ¶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
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寶庫)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42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이 렙
돈 곧 일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43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44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
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제 13 장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함
(마24:1-2; 눅21:5-6)

1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
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이
까! 하매
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
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마24:3-14; 눅21:7-19)

3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 맞
은편에 앉으시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
되,
4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5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7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
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
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
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
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9 ¶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
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
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10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
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11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
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
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
요 성령이시니라.
12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
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
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
리라.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난
(마24:15-28; 눅21:20-24)

14 ¶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
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
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
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15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
거나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16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17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
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
다!
18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19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
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
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0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
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
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을 짧게 하셨느니라.
21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
지 말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
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 받은 자들도 유혹
하리라.
23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
노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마24:29-31; 눅21:25-28)

24 ¶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25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
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
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27 또 그때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 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24:32-35; 눅21:29-33)

28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
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
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가 아나니
29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
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31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때를 모름
(마24:36-44; 눅21:34-36)

32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
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
하느니라.
34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
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
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
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35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
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
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니라, 하시니라.

제 14 장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마26:1-5; 눅22:1-2; 요11:45-53)

1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
였으나
2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
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마26:6-13; 요12:1-8)

3 ¶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
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4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
비하느냐?
5 그것을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
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
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
만 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
라.
8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
라.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
시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동의함
(마26:14－16; 눅22:3－6)

10 ¶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
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11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
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킴
(마26:17－25; 눅22:7－13; 요13:21－30)

12 ¶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
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시도
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
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의 둘
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
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
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
절 어린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
냐? 하시느니라, 하라.
15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
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
시매
16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
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
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
절을 예비하니라.
17 저녁때에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가시니라.
18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
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19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
이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
이까? 하매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
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
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함
(마26:26－29; 고전11:23－26)

22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
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
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
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24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 ¶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나가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함
(마26:31－35; 눅22:31－34; 13:36－38)

2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
라.
28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
늘
29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
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
리이다, 하매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날
곧 이 밤에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라.
31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
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겟세마네 기도
(마26:36－46; 눅22:39－46)

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
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
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34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
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
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36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
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37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
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38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
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39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
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40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
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어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41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
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
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42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힘
(마26:47－56; 눅22:47－53; 요18:1－11)

43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에 곧바로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
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44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
에게 암호(暗號)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
는
45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
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46 ¶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
분을 붙잡거늘
47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4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
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
라, 하시더라.
50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

하니라.
51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
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
년들에게 붙잡히매
52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 섬
(마26:57－68; 눅22:66－71;
요18:12－14, 19－24)

53 ¶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
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55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
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56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
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
라.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
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
리라, 하더라, 하되
59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60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61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
냐? 하매
62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
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64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
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65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
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
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
분을 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마26:69－75; 눅22:54－62;
요18:15－18, 25－27)

66 ¶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의 하
나가 와서
67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
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
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
늘
68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
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
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69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70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
과 한 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71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
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
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
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제 15 장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짐
(마27:1－2, 11－14;
눅23:1－5; 요18:28－38)
1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
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에게 넘겨주니
2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네가 유대
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대답
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3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
지 아니하시므로
4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
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
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
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5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
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
상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짐(마27:15－26;
눅23:17－25; 요18:39－19:16)
6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7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
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8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 주던 대로 해 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
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11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
에게 놓아주게 하매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
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13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
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14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
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
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15 ¶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
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
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왕을 조롱함
(마27:27－31; 요19:2－3)
16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래토리
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17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
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18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
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19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
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20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
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
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마27:32－44; 눅23:26－43;
요19:17－27)
21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
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
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
가를 지게 하고
22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23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

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24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
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에 저마다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세 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
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
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
더라.
27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28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29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30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
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
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
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
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
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마27:45－56; 눅23:44－49;
요19:28－30)

33 여섯 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아홉 시까지 있더라.
34 아홉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35 곁에 섰던 사람들 중의 몇 사람
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
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37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38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
지 둘로 찢어지니라.
39 ¶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
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
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
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
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
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41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
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
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힘
(마27:57－61; 눅23:50－56;
요19:38－42)

42 ¶ 그 날은 예비일(豫備日)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
을 때에
43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
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
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
는 자더라.
44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
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
에게 묻고
45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
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46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
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제 16 장

예수님께서 부활함
(마28:1－8; 눅24:1－12; 요20:1－10)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
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
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2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3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
4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5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
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
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7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
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8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
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남
(마28:9－10; 요20:11－18)

9 ¶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
서 일곱 마귀(魔鬼)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시니라.
10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11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
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남
(눅24:13－35)

12 ¶ 그 뒤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13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
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줌
(마28:16－20; 눅24:44－49; 행1:6－8)

14 ¶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
게 복음을 선포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
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
며
18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
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
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
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
라.
20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
증해 주시니라. 아멘.

성도 누가가 전한 복음

누 가 복 음

기록자: 누가,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4년
수신자: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 누가는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 완전한 사람으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였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성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빛'을 뜻하는 누가는 의사였으며(골4:14) 고등 교육을 받아 문화를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는 삶의 후반부를 바울과 함께 했다. 주제: 그리스도의 진리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누가복음의 첫 네 절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의 사건들을 포함한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다윗과 아담에까지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 주며 또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3:21; 5:12–16), 가난한 자들의 배려(6:20–25; 12:16–21), 여인들의 위치를 높이는 것(1:24–58; 2:1–7, 36–38, 46–52), 음악(1–2장) 등도 담고 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 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잘 정리해서 보여 준다. 누가복음은 24장, 1,151절, 25,64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5장(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핵심 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19:10), 핵심 단어: 찾아 구원하다, 핵심 구: "사람의 아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19:10), 영적 교훈: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이다."

제 1 장

데오빌로에게

1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2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
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 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
므로
3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
하였으니
4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
미 설명 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5 ¶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
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
리사벳이더라.
6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7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
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8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9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하게 되었더라.
10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
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11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
향 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12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
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
뻐하리니
15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
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16 이스라엘 자손 중의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
이기 때문이라.
17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
로 그분보다 앞서 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
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
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
다, 하니
19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
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
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며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20 보라, 네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
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
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
리라, 하더라.
21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22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
지 못하매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
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23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
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24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
어 지내며 이르되,
25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
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예수님의 출생 예고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
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27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
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28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
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
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29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
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30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
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
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
라.
32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
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
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
니라.
34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
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35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
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36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
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
니라, 하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
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
녀에게서 떠나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39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
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에게 문안하니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
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
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
여
42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네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
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45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
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
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마리아의 노래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47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48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
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49 능하신 분께서 큰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50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
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51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
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을 높이시고
53 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
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
셨도다.
54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
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
니
55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
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56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할례

57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58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
서 그녀에게 큰 긍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59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
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60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
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늘
61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친
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
다, 하고
62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
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물으니
63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
라, 하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64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
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
니
65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
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 지방에 두루 널리 퍼지
매
66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
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
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더라.

사가랴의 대언

67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

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
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
아보사 구속하시고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
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
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
려 하심이요,
72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
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
이며
74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
리를 건져 내사
75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
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76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77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
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
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79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80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
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
까지 광야에 있더라.

제 2 장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남
(마1:18－25)

1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2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3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
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
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5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
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
6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7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
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
이더라.
8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라.
9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
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10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
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11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
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
셨느니라.
12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
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13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
여 이르되,
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
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16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는 그때에 *천사가* 이 아이
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18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
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 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음

21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
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더라.
22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23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
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봄

25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27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
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
수님을 데려오므로
28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
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
데
31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
매
33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
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35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
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
더라.
36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칠 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 과부가 된 지 팔십사 년쯤 되니
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을 섬기더라.
38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아와 마
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
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
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39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
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40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
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소년 예수님이 박사들을 놀라게 함

41 이제 그분의 양친은 해마다 유
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42 그분께서 열두 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
에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44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
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
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45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
라.
46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
시더라.
47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48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
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
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4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
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50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람

51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
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52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
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제 3 장

침례자 요한

(마3:1－6; 막1:2－6; 요1:19－23)

1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
치 제십오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영
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
고닛 지방의 사분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영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
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3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4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
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
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
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
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
리라, 하였느니라.

침례자 요한의 선포

(마3:7－12; 막1:7－8; 요1:24－28)

7 그때에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
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
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
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
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
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
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9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
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10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
매
11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12 그때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
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
게 정해 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14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
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
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15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
각하매
16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
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7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18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19 그런데 사분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
게 책망을 받았고
20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
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

(마3:13–17; 막1:9–11; 요1:29–34)

21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
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
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
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

(창5; 11:10–26; 룻4:18–22; 대상1:1–4, 24–27, 34; 2:1–15; 마1:2–16)

23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서른 살
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
리의 아들이요,
24 헬리는 맛닷의 아들이요, 맛닷
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25 요셉은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맛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
스는 나훔의 아들이요, 나훔은 에슬리
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낙게의 아들이
요,
26 낙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
은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맛다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27 유다는 요안나의 아들이요, 요
안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스룹
바벨의 아들이요, 스룹바벨은 스알디
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
들이요,
28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
는 앗디의 아들이요,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
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29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
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맛닷의 아들이
요,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30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
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
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
요, 요난은 엘리아김의 아들이요,
31 엘리아김은 멜레아의 아들이
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
은 맛다다의 아들이요, 맛다다는 나단
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

요,
32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
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
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33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이요, 람은 헤스
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
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34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
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
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35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요, 스룩
은 르우의 아들이요,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36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
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
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37 라멕은 므두셀라의 아들이요,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레엘
의 아들이요, 마할랄레엘은 게난의
아들이요,
38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
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
느니라.

제 4 장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함
(마4:1－11; 막1:12－13)

1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
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2 사십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
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
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주리시니
라.
3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
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
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
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
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
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된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
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11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
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
매
1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
르시되,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
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
(마4:12－17; 막1:14－15)

14 ¶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매 그분의 명
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15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
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음
(마13:54－58; 막6:1－6)

16 ¶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
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
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17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
시니라. *일렀으되,*
18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
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
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
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
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
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매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
되거늘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22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
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이 아니냐? 하더라.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바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
한 모든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
라, 하리라, 하시고
24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
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
은 과부가 있었으되
26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
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27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
느니라, 하시니라.
28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29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30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내쫓음
(막1:21－28)

31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
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32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
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
기 때문이더라.
33 ¶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34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
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
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시니이
다, 하매
35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
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
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
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36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
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
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
도다, 하더라.
37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
(마8:14－15; 막1:29－31)
38 ¶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시
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
분께 간청하매
39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
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침
(마8:16－17; 막1:32－34)
40 ¶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
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
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
니라.
41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
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
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
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함
(마4:23－25; 막1:35－39)
42 날이 밝으매 그분께서 떠나사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매
4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44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
니라.

제 5 장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름
(마4:18－22; 막1:16－20)
1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
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
라.
3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
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
서 그가 뭍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
르치시더니
4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
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5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
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
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
니라.
7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
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
라.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
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9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
이더라.
10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
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
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
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뭍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
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함
(마8:1－4; 막1:40－45)
12 ¶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 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
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
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
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13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
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
게서 떠나니라.
14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
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
되*,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
고 또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
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15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
리 퍼지매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
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
함도 고치려 하더라.
16 ¶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비 병 환자를 고침
(마9:2－8; 막2:1－12)

17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
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
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
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18 ¶ 보라, 사람들이 마비 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
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19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
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거늘
20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
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
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21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
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
겠느냐? 하거늘
22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
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 보느
냐?
23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24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
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26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름
(마9:9－13; 막2:13－17)

27 ¶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
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
나 그분을 따르니라.
29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
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30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
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
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
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31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
니
32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
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마9:14－17; 막2:18－22)

33 ¶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
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
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34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35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
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36 ¶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
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 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37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
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
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
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39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
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제 6 장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임
(마12:1－8; 막2:23－28)

1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
일에 그분께서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
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매
2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
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
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3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
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
니라, 하시고
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
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
(마12:9－14; 막3:1－6)

6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
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
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
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
분을 지켜보거늘
8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
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9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
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
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
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10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
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
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
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
라.
11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
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12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열두 사도
(마10:1－4; 막3:13－19)

13 ¶ 날이 밝으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의 열둘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
름을 주시니라.
14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
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
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
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
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17 ¶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
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하더라.
18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
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19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설교(마5:1－12)

20 ¶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
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
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
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
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
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
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22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
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
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
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
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
를 받았도다.
25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
어다!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
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
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마5:38－48)

27 ¶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
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
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
을 위해 기도하라.
29 또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
라.
30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
고 하지 말며
31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
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
느니라.
34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 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
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
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
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
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

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마7:1－5)

37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
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
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
라, 하시니라.
3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
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
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41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
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또 너 스스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네 형제에
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
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
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
게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열매로 나무를 알라
(마7:15－20)

43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
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
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44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
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
두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반석 위에 지은 자(마7:21－27)

46 ¶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
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들을 듣고 그
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리니
48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
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치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
라.
49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
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제 7 장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침
(마8:5－13)

1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
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
라.
3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
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
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4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절박하
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
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
니이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
니
6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
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
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

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7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
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8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
을 하나이다, 하매
9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
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10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
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
더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림

11 ¶ 그 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
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
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12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
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13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
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
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
에게 넘겨주시니
16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
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
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17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냄(마11:2－19)

19 ¶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이까? 아
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
까? 하라, 하매
20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
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
분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
니라.
21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
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
을 주시더라.
22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
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
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
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
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
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라.
24 ¶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
들리는 갈대냐?
25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
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
라.

26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27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
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
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
라.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
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
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29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
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30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
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
더라.
31 ¶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
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
는 아이들과 같도다.
33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34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
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
는도다.
35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
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를 용서함

36 ¶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가 그
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
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37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
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
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39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
인이니라, 하니라.
40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
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41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
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
는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
는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42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
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
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
하겠느냐? *하시거늘*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
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
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44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
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
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45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
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
였고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
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
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48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49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
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
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
서하는가? 하더라.
50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
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
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 8 장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김

1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
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열두 *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2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
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일곱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
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13:1－9; 막4:1－9)

4 ¶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
지매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
을 먹어 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므로 곧 시들어
버렸고
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
지매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
나 그것을 숨 막히게 하였고
8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느니
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
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
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비유의 목적
(마13:10－17; 막4:10－12)

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10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
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유의 설명
(마13:18－23; 막4:13－20)

11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
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
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
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
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3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
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
져 나가는 자들이요,
14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
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15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
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등잔불을 보이게 하는 이유
(막4:21－25)

16 ¶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
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
할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마12:46-50; 막3:31-35)

19 ¶ 그때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
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
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
므로
20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
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
에 서 있나이다, 하매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
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함
(마8:23-27; 막4:35-41)

22 ¶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
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
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니라.
23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24 그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
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
하게 되더라.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
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
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침
(마8:28-34; 막5:1-20)

26 ¶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의 가
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27 그분께서 뭍으로 나아가실 때
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
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28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
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
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
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
지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
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으므로 그를 사슬과 족쇄
에 묶어 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
시되, 네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
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31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
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
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32 거기에 많은 돼지 떼가 산 위에
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
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33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숨 막혀 죽으니라.
34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35 그때에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
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36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
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37 ¶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
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
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
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38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
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고 여인을 고침
(마9:18-26; 막5:21-43)

40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사
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
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
더라.
41 ¶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아왔는데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
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
오실 것을 구하니
42 이는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
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
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
라.
43 ¶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
하였으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44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
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4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
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
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
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
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4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
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
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47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
께 밝히 알리거늘
48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
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라.
49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
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
서, 하거늘
50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
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51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
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
지 아니하시니라.
52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소녀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53 그들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므
로 그분을 비웃더라.
54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
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
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
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56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
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이루

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제 9 장

예수님께서 열둘을 내보냄
(마10:5-15)

1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
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
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2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
며
3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
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
이나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두 벌 취하지 말라.
4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
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
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6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
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함
(마14:1-12; 막6:14-29)

7 ¶ 이제 사분영주 헤롯이 그분께
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
스러워 하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8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의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
이더라.
9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임
(마14:13-21; 막6:30-44; 요6:1-15)

10 ¶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
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새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11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
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
을 고치시더라.
12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에 열두
*사도*가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무리
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
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
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거늘
1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
시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14 이는 그들이 오천 명쯤의 남자
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오십
명씩 무리 지어 앉히라, 하시니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히매
16 이에 그분께서 빵 다섯 개와 물
고기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
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17 그들이 먹고 다 배를 채우고는
자기들에게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
나 거두었더라.

베드로의 믿음 고백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
(마16:13-28; 막8:27-9:1)

18 ¶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더
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
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9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
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의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
다, 하매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
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
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21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
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22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
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
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
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
리라, 하시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16:24－27; 막8:34－38)

23 ¶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
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4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
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
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
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
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
하리라.
2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
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라.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됨
(마17:1－8; 막9:2－8)

28 ¶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
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
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
더라.
29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
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30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
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31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
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
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
나
32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
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
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
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
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
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
더라.
34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므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35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36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
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소년을 고침
(마17:14－21; 막9:14－29)

37 ¶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
라.
38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
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39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40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
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41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
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네 아들을 이리
로 데려오라, 하시니
42 그가 올 때에도 마귀가 그를 거
꾸러뜨리고 쥐어뜯으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 (마17:22－23; 막9:30－32)

43 ¶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
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
리라, 하셨으나
45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
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
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누가 가장 큰가? (마18:1－5; 막9:33－37)

46 ¶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
데서 일어나매
47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
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파당을 금함 (막9:38－41)

49 ¶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
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
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
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
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
니라.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

51 ¶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
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
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
고
52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
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
어가니라.
53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54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55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
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
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다.
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
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마8:18－22)

57 ¶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
다, 하니
5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
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
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6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6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 하시니라.

제 10 장

예수님께서 칠십 명을 내보냄

1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칠십
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2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
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3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4 돈주머니나 짐 보따리나 신을 가
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5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
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
다, 하라.
6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7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
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8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
에 차려 놓은 것들을 먹고
9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
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10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
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11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
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저주함(마11:20－24)

13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
다! 벳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
이 벌써 오래 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
리라.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
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
시니라.

칠십 명이 기뻐하며 돌아옴

17 ¶ 칠십 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
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
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
이다, 하니
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
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함

21 ¶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
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
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
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
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
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
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
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
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23 ¶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
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
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
다.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
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
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25 ¶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26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
법에 무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27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
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
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
라, 하였나이다, 하매
28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
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29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
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니
30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
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
라.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
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
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
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
라, 하였느니라.
36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
냐? 하시니
37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
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
이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38 ¶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
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39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40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
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
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41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
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11 장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 (마6:9－15)

1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
가 마치시매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
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
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
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
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
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
라.
5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
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
구여, 내게 빵 세 개를 빌려 다오.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7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
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
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계속 간구하라(마7:7－11)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
이니
10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라.
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
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
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
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12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13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
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
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
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
시니라.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함 (마12:22－30; 막3:22－27)

14 ¶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
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
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15 그들 중의 더러는 말하기를, 그
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
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16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17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
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
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붑
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
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19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
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
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
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
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
나
22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
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23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
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부정한 영이 되돌아옴
(마12:43－45)

24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25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
며져 있으므로
26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
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
라.
27 ¶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
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
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28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
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구함
(마12:38－42)

29 ¶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
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
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
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30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
라.
31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
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
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몸의 등불(마6:22－23)

33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
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
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
으로 가득하니라.
35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
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36 그러므로 네 온 몸이 빛으로 가
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네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
라.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저주함
(마23:1－36; 막12:38－40)

37 ¶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
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그분께서 들
어가사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38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39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40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
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
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42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
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
야 하느니라.
43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맨 윗자
리와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
는도다.
4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
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도 무
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45 ¶ 그때에 율법사들 중의 하나
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46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
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
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
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
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
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48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
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
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
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
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
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의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
느니라.
50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
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
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52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
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
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
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
하여 그분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54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
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제 12 장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10:26)

1 그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
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
라. 그때에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2 덮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
할 것이 없고 숨겨 둔 것 중에서 알려
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
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
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침(마10:27－33)
4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
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
5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
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이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의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7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
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
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마10:32－33)
8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
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
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9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
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11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
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
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
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
시리라, 하시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3 ¶ 무리 중의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
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
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
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
시니라.
16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
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17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19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
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
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
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
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
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마6:19－21, 25－34)
22 ¶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
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
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
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24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
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
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
다 얼마나 더 나으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
냐?
26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
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
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
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
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
라.
28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
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
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
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1 ¶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
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
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
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
라.
33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
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
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
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
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
라.
34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신실한 종과 악한 종(마24:42－51)

35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
불을 타오르게 하며
36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
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
주리라.
37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
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아와 그들을 섬기리
라.
38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
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39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
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
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41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
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
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42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
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43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
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
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
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
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46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
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 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
라.
47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48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
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
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
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열을 가져옴
(마10:34-39)

49 ¶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
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
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51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
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
니라.
52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
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라.

때를 분별하라(마16:1-4)

54 ¶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
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
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
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
고
55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56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
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57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
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8 ¶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
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
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
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59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
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13 장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1 그때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
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
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
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3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
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4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
너져 깔려 죽은 저 열여덟 사람이 예루
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
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
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9:18-26; 막5:21-43)

6 ¶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
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
지 못하니라.
7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
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삼 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
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8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9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

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
10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
의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병약한 여인을 고침

11 ¶ 보라,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
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
라, 하시며
13 그녀에게 안수하시매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
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
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
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여섯 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
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그때에 그에게 응답하
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
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냐? 하시니라.
17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겨자씨
(마13:31－32; 막4:30－32)

18 ¶ 그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
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19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
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
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누룩(마13:33)

20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21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
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 하시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마7:13－14)

22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23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
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
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
어가지 못하리라.
25 집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
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
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라, 하리라.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
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27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
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
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
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
라.
29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30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31 ¶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의 어
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
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
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
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
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함(마23:37–39)

34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
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
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
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
도다.
35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
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
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14 장

예수님께서 수종이 있는 사람을 고침

1 안식일에 그분께서 빵을 잡수시
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의 한 사람
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2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
떤 남자가 있더라.
3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율법사들
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
에 맞느냐? 하시니
4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분께서 그
를 데려다가 고친 뒤 가게 하시고
5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
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즉
6 그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다시 그
분께 대답하지 못하니라.

낮은 자리를 취하라

7 ¶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
뜸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
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
되,
8 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
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9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
라, 하리니 그러면 네가 수치를 당하
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
노라.
10 오직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
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네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
니 그때에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리라, 하시니라.
12 ¶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
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네 친구나 형제
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
여 네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13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14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
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

라, 하시니라.

큰 잔치 비유(마22:1-14)

15 ¶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의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
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
16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
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17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
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
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18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
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19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20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
라, 하므로
21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
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에 집 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
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22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
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
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
니라, 하시니라.

제자가 되는 길
(마10:34-39)

25 ¶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26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
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
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
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
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30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
라.
31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
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
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
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
의 맛을 내리요?
35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
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 15 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마18:12-14)

1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
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
더라.
3 ¶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너희 중의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6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
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
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
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8 ¶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
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
느냐?
9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
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11 ¶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 그중의 작은*아들*이 자기 아버
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
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
어 주매
13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아들
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
을 허비하더니
14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15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
라.
16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
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
게 주지 아니하므로
17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
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19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
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20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
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21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
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22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
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
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
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

더라.
25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
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
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종들 중의 하나를 불러 이것들
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27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
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
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
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
서 그에게 간청하매
29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
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30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
들과 함께 삼켜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31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
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
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
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
하니라, 하니라.

제 16 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

1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
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
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
라*.
2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
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 청지기 직분에 대
하여 회계 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3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
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
이리라, 하고
5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
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
냐? 하니
6 그가 이르되, 기름 백 말이니이
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
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오십이라 적으
라, 하고
7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
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8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
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
롭기 때문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맘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
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
들이리라.
10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
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
라.
11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맘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

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
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
시니라.

율법과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왕국

14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
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
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에 가증한 것이니라.
16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
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
가느니라.
17 또 율법의 일 획이 없어지는 것
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18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부자와 나사로

19 ¶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20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
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
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22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
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
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을 받나이다, 하거늘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
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
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
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26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
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
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
니
27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
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28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
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29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
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
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
매
30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
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
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31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
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 17 장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함(마18:6-7; 막9:42)

1 그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
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
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3 ¶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
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
라.
4 그가 만일 하루에 일곱 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일곱 번 네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
라.

믿음과 의무(마17:19－21)

5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
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
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
라.
7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
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
느냐?
8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
하겠느냐?
9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
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
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
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
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침

11 ¶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
로 지나가시니라.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
시매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13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
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14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
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
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15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
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며
16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
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17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
되, 열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
였느냐? 그런데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18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
였도다,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
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리새인들에게 임함

20 ¶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
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
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
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21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
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
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의 상황
(마24:23－28; 37－41)

22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
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
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
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3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
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
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
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
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26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
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
라.
27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
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
니라.
28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
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29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
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30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
도 그와 같으리라.
31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
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
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33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
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
을 보존하리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
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
는 남겨질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
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
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
라, 하시니라.
37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
되, 주여, 어디로이니이까? 하니 그분
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
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제 18 장

낙심하지 않은 과부 비유

1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
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그분
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
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
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되
4 그가 한동안 들어 주지 아니하였
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
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 주리라. 그
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
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
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
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
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
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9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
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
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
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
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
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
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
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
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함
(마19:13－15; 막10:13－16)

15 그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
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늘
16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
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
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1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
시니라.

예수님께서 치리자에게 교훈을 줌
(마19:16－22; 막10:17－22)

18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
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
이까?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
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
니
21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22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
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
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3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
(마19:23－30; 막10:23－31)

24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
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
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가 얼마나 어려운가!
25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
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
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27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
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
능하니라, 하시니라.
28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
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2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
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30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
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
(마20:17－19; 막10:32－34)

31 ¶ 그 뒤에 그분께서 열두 *제자*
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
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
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32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

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 뱉음을
당하리라.
33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
리라, 하시되
34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
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
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침
(마20:29－34; 막10:46－52)

35 ¶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매
37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
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38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
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39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
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40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
라고 명령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41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4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43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제 19 장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감

1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
나가시더라.*

2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
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
머리요 또 부자더라.
3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으므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4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
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
더라.
5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6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7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
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
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
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
로 갚겠나이다, 하매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 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므나 비유(마25:14－30)

11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
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
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12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
게 십 므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
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
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
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
였더라.
15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16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17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
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
를 차지하라, 하니라.
18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19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20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21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
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22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
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
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23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
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24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 므나를 빼앗아 십 므나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2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 므나가 있나이다, 하더
라.)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
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
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감
(마21:1－11; 막11:1－11; 요12:12－19)

28 ¶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더라.
29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
르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
서 이리로 끌고 오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
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32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
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
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33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
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34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36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
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37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 산의 내
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
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
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
매

39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의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4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41 ¶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
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
며
42 이르시되, 적어도 이 날 즉 네
날에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
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들이 네게 이르리니 그때에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44 또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
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서 돌 하나
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함
(마21:12-17; 막11:15-19)

45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
기 시작하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
도다, 하시니라.
47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
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
려고 꾀하되
48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
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 20 장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함(마21:23-27; 막11:27-33)

1 그 무렵의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
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
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
로들과 함께 와서
2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
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혹
은 네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
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4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
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5 그들이 서로 따져 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
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하므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7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
들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
라, 하시니라.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
(마21:33-46; 막12:1-12)

9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
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 철이 이르매 농부들이 포도원
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
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
라.
11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며
빈손으로 보내매
12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
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으니라.
13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

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
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
끼리 따져 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
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
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16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결코 그리될 수 없나이다, 하거늘
17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
시되,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
냐?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
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리라, 하시니라.
19 ¶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마22:15－22; 막12:13－17)

20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
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
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
씀들을 책잡게 하니
21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
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
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
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
이다.
22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
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
나이까? 하거늘
23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
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
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것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
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
매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
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
라, 하시니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
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마22:23－33; 막12:18－27)

27 ¶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
하는 사두개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28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
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
다.
29 그러므로 일곱 형제가 있었는
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30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
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31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일곱
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32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
나이다.
33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
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
까? 하매
34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
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

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
니하고
36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
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
이라.
37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
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라 부르며 보여 주었나니
38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
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
니라.
39 ¶ 그때에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40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마22:41－46; 막12:35－37)

4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라고 말하느냐?
42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
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
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44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
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
냐? 하시니라.
45 ¶ 그때에 온 백성이 듣는 가운
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
되,
46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
며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으뜸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
라.
47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
이 더 큰 정죄(定罪)를 받으리라, 하시
니라.

제 21 장

과부의 헌금(막12:41－44)

1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
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4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
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함
(마24:1－2; 막13:1－2)

5 ¶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6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
리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오는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마24:3－14; 막13:3－13)

7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
까? 하니
8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
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9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
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10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
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
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

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12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
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
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
에 끌어가려니와
13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
로 바뀌리라.
14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15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
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16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
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 사람을 죽게 하며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
하라.

예루살렘의 멸망

(마24:15－28; 막13:14－23)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
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
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23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
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
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
게 진노가 있으리라.
24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
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
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사람의 아들의 재림

(마24:29－31; 막13:24－27)

25 ¶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
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
으리로다.
26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
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
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
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
기 때문이라.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
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
라, 하시니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24:32－35; 막13:28－31)

2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
를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
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31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
니라.
32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33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 있으라

(마24:36－44; 막13:32－37)

34 ¶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
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
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35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36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
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라.
37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
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 산이
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38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
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제 22 장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마26:1-5;
14-16; 막14:1-2; 요11:45-53)
1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2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
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3 ¶ 그때에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
가니
4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
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
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매
5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
기로 언약하므로
6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준비(마26:17-25;
막14:12-21; 요13:21-30)
7 ¶ 그때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양
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8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
절 어린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9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
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
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
라.
12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
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
비하라, 하시매
13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
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함
(마26:20-30; 막14:17-26; 13:21-30)
14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
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
라, 하시고
17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
운데서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
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
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
라, 하시니라.
19 ¶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
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
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0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
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21 ¶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
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
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누가 가장 큰가?

24 ¶ *그분께서* 자기들 중의 누구
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으매
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26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라.
27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28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30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
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함(마26:31－35;
막14:27－31; 요13:36－38)

31 ¶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
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32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
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
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33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34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3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희를 돈주머니와 짐 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
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
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36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
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짐 보따
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
된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
되었도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에 관
한 일들은 끝이 있느니라, 하시매
38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도
다, 하시니라.

겟세마네 기도
(마26:36－46; 막14:32－42; 요18:1)

39 ¶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40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
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
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
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
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
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
나이다, 하시니
43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
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
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45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
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
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
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
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힘
(마26:47-56; 막14:43-52; 요18:1-11)
47 ¶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에, 보라, 한 무리가 오고 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
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48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
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49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
가 칼로 치리이까? 하더라.
50 ¶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
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51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
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
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52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
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
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
다,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마26:69-75; 막14:66-72;
요18:13-18, 25-27)
54 ¶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붙잡
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55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으매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56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에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
께 있었도다, 하거늘
57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58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 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
는 아니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
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
되, 이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매
60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
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
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62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함
(마26:67-68; 막14:65)
63 ¶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치며
64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
리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 다른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
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 섬
(마26:57-68; 막14:61-64;
요18:12-14, 19-24)
66 ¶ 날이 밝으매 백성의 장로들
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
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67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
하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
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
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69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
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
니

70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매 그분께
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하시니
7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
의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하더라.

제 23 장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짐
(마27:1-2; 막15:1-5; 요18:28-38)

1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
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
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
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3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
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
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4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
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
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5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
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
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
니
6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7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대면함

8 ¶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
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
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
이더라.
9 그때에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
답하지 아니하시니
10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11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
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
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
에게 도로 보내니라.
12 ¶ 바로 그 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짐(마27:15-26;
막15:6-15; 요18:38-19:16)

13 ¶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
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1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
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
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
였고
15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
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
느니라.
16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
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
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8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
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 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라.
19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20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
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21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
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22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 이르되,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

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고
가게 하리라, 하더라.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
니라.
24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25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
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
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
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
(마27:32-44; 막15:21-32;
요19:17-24)

26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
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27 ¶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
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28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
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29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때에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
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
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
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
을 행할진대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하시니라.
32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33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
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
라.
34 ¶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
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
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
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35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36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
서 그분께 나아와 식초를 바치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
라.
38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39 ¶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
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
하라, 하되
40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
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
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
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42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
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
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마27:45-56; 요19:25-30)

44 그 때는 여섯 시쯤이며 어둠이
아홉 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45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
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46 ¶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
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
라.
47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48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
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49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
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힘
(마27:57－61; 요19:38－42)

50 ¶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
로운 사람으로
51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
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53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
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54 그 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55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56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
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
라.

제 24 장

예수님께서 부활함
(마28:1－10; 막16:1－8; 요20:1－10)

1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
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
덤에 가서
2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
을 발견하고
3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4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
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5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
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
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
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
셨는지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
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
라, 하셨느니라, 하매
8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
고
9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
니라.
10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
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
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11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
라.
12 그 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
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
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
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
라.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막16:12－13)

13 ¶ 보라, 바로 그 날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타디
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
면서

14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16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
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
느냐? 하시니
18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글로바라
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
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
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
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
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
는데
20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
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 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
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22 또 우리 일행 중의 어떤 여자들
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23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 계
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고 하였으며
24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25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27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
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28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
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29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
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
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
시니라.
30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
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
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31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
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32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33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
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
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34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
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
을 보고
35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
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남
(마28:16－20; 막16:14－18; 요20:19－23; 행1:3－5; 고전15:5)

36 ¶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
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37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
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

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
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4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
라.
41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
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
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
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43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
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
라, 하시고
45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
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46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
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47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
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48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49 ¶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
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
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
라.

예수님의 승천
(막16:19－20; 행1:9－11)

50 ¶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
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51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52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
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

요 한 복 음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역사와 교리, 기간: 영원 전 과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나타나심까지
수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20:31).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그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 즉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사상을 논박하였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 있으므로 그분의 말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를 뜻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며(13:23; 20:2) 신약성경은 무려 35회나 그의 이름을 말한다. 그는 주후 50년경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그 뒤 소아시아에 감독으로 가서 대부분 에베소에 머물렀고 밧모 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출생 전 존재, 출생 후의 삶,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의 나타나심 등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의 영적 교훈을 해석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어린양이시며(1:29)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이시고(4:14) 배고픈 자를 위한 빵이시며(6:35)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고(8:12)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며(10:9)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고(10:11)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며(14:6)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시다(15:1).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은 21장, 879절, 18,65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핵심 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20:31), 핵심 단어: 아버지(100회 이상), 믿다(98회 이상), 영원한 생명(35회), 핵심 구: “믿는 자는”(3:18, 36),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1:14, 18), 영적 교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제 1 장

영원한 말씀

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
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
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
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
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의 증언

6 ¶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
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
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
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
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
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
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
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
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
으니
13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
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
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
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
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
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
서 받았으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17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
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
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
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마3:1-12; 막1:1-8; 눅3:1-20)

19 ¶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
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
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
라, 하매
21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22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
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
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23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
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
리로다, 하니라.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이더라.
25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
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27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
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
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28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
어났더라.

하나님의 어린양

29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30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
이라.
31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
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

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
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
라.
33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
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
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첫 두 제자

35 ¶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들 중의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
37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38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
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
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
라.)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열
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41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
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
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
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빌립과 나다나엘

43 ¶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
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
니라.
44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의 도시인 벳새다 출신이더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
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
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
니라, 하매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
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
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
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48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
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
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
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49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
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
소이다, 하매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
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51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
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
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제 2 장

가나의 혼인 잔치

1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
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2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3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
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
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였나이다, 하시거늘
5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
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
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더라.
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9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
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
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
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
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12 ¶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
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
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
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함
(마21:12－13; 눅19:45－46)

13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
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사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15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
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
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바, 주
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
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
냐?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
니
20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
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
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
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
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
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
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

23 ¶ 이제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
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매 많은 사
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
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
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
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

이라.

제 3 장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

1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
자더라.
2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
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
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4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
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
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
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
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
라.
6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
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
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8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
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
니라.
9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
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이까?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
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
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
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
게 너희가 믿겠느냐?
13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
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4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
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
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
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
려 하심이라.
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
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19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
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
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라.
20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
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임

22 ¶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

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23 ¶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24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
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5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26 그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그에
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
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로 가나이다, 하니
27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
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
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
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29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
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
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
라.
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
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
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
라.
32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
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
에 새겼느니라.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
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
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4 장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메시아를 만남

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2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
더라.)
3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에
4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
겠으므로
5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
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
더라.
6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
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
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
라. 때는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8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
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9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
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
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
문이라.

1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
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
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11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선생님께는 물 길을 그릇도 없
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
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
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
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이까? 하매
1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
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
라, 하시니라.
1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
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 네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19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
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
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
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
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
할 때가 이르느니라.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
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게서 나기 때문이라.
23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
으시기 때문이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
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2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2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수확 밭이 희게 됨

27 ¶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
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28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
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
분께로 오더라.
31 ¶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여, 잡수소서, 하거늘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 있느니라, 하시니
33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
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
라.
35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
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
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
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37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
다.
38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
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
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
라.

세상의 구원자

39 ¶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
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
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40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
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시매
41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
은 사람이 믿고
42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
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
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
라.
43 ¶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
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44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
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
이라.
45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
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
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
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
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침

46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
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
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47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 줄 것을 구하
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4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
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
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
다, 하매
49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
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
소서, 하니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
라.
51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
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
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나이다,
하거늘
52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
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일곱 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53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54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
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
신 둘째 기적이니라.

제 5 장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침
1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시니라.
2 이제 예루살렘의 양 시장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고
3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5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7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
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
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
니
9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 날
은 안식일이더라.
10 ¶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
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
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11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
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
니라, 하니
12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13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
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14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15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
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이라고 말하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라
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
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
이라.
17 ¶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
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
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
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
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
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
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
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
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
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
게 맡기셨으니
23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통한 생명과 아들을 통한 심판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
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27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
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
느니라.
28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29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
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
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에 대한 네 증인

31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
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라.
32 ¶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
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
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
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
라.
35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
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
뻐하기 원하였느니라.
36 ¶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
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
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
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
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
며
38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
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
라.
39 ¶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
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40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
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
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
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
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
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44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
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
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
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
하였느니라.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
냐? 하시니라.

제 6 장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임
(마14:13－21; 막6:30－44; 눅9:10－17)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
매
2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
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3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
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4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
까이 왔더라.
5 ¶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
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
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7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백 데나리
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
하리이다, 하매
8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이며 시
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9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
까? 하니
10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
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
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12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 있
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
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더라.
14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
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
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음
(마14:22－27; 막6:45－52)

15 ¶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
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
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17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
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
셨더라.
18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
더라.
19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
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
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1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
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뭍에 이르렀더라.

하늘에서 온 빵

22 ¶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
라.

23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랴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
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
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
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
다.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
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
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
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28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
을 하리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
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니라, 하시니라.
30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
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31 기록된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
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
를 먹었나이다, 하매
3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
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
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
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
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
니라.
34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
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
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
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
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
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
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
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
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의해 배척됨

41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
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에 유대
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42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
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
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
냐? 하니
4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
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
키리라.

45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
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
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
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
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
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48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
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53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라.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
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
라.
55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
는 참으로 음료이니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
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
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59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남

60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61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
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
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
를 실족하게 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
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
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
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65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
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
라.
66 ¶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의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
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
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68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
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로 가리이까?
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

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
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하나는 마
귀니라, 하시니라.
71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
여 넘겨줄 자더라.

제 7 장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
문이더라.
2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
이 왔으므로
3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4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
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
니
5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
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
라.
7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8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
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
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9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
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
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자

10 ¶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
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
고 은밀히 하시니라.
11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
느냐? 하더라.
12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
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
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14 ¶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
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
니
15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
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17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
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
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
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
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
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
는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
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
냐? 하시니
20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
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
이려 하느냐?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
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

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
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
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
냐?
24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
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25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
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
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9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
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30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
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
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1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
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
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하니라.
32 ¶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
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
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
들을 보내매
33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
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5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
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36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
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성령의 약속

37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
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
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
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
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40 ¶ 그러므로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
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41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
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42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
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
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44 그들 중의 더러는 그분을 붙잡
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권세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함
45 ¶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
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
였나이다, 하니
47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
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48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49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
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50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밤에 예수
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
되,
51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
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
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
라.

제 8 장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함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
니라.
2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
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
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
시더라.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4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
나이다.
5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
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
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
까? 하니라.
6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
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
으로 땅에 쓰시니라.
7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
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
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
니라.
9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에 가
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
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
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
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 ¶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
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13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증언
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1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
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
이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
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18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
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
라.
19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
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
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20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
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
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

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
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22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
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
가?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
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
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
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
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
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
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26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
서 참되시매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
시니라.
27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
라.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
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30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31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
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라.
33 ¶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
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
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
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
의 종이니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
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
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와 마귀의 씨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
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
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라.
39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
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
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
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40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
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
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
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
늘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
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아왔기 때문
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
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43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
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
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5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
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
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
하느냐?
47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
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
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48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
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4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
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
느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
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라.
52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
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
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
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
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
리라, 하니
53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
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
느냐? 하매
54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
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55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
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
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57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
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59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
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
라.

제 9 장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침

1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2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
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
까? 하니
3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
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4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
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6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7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
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
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
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8 ¶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
냐? 하매
9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1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
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11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
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
라, 하니
12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눈먼 사람을 출회시킴

13 ¶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
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14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 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15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
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
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
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
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17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
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어라 말하느
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
니이다, 하니라.
18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
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20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
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
가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
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
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23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
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
소서, 하였더라.
24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
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25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
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
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26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
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27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
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
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28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
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
의 제자니라.
2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
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
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31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
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32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
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
이 열어 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33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
리이다, 하매
34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
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
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35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
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느냐? 하시니
36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분
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38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
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39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40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
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제 10 장

나는 양들의 목자이다
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
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2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
로 인도하느니라.
4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5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
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
니라.
6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
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
닫지 못하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
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
니라.
8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
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
라.
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
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 목자가 아닌 삯군 곧 양들이 자
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
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헤치느니라.
13 삯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
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
문이라.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
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15 아버지께서 나를 알 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6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
라.
18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
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
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
니라, 하시니라.
19 ¶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
므로
20 그들 중의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21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
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 함
22 ¶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23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24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
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
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

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
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
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
여 증언하거늘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
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
라.
30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31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
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
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의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33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
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
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
지 아니하였느냐?
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36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
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
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37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
와
38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
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르단 건너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

39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40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
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
라.
42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제 11 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

1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
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2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
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
라.)
3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
다, 하매
4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
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
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5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
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6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
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7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
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
시매
8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
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
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
라.
11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
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
니
12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
니라.
1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
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
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14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
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
라.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
시매
16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
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18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십
오 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
로
19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마르
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
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20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
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
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
라.
21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
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
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24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
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
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
가 믿느냐? 하시니
27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
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
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28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
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
나 그분께 가더라.
30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
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
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31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
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
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

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32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
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
며 괴로워하시고
34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
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37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냄

3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
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
라.
3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
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4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41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
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
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
나이다.
42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
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
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43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함
(마26:1－5; 막14:1－2; 눅22:1－2)

45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
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46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
니라.
47 ¶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
게 하리요?
48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49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
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50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51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
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
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
하되
52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
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53 이에 그들이 그 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

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
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
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55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
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
렘으로 올라가니라.
56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
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
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라.
57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제 12 장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마26:6－13; 막14:3－9)

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2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
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
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
하였느냐? 하니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
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지낼 날
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
느니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
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
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10 ¶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
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11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
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감

12 ¶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
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
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14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
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
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16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
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니라.
17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
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
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
들이 증언하니라.
18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
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
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19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
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음

20 ¶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21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
릴리의 벳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
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
니라.
23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
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26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

27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
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
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
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
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
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29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
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
에게 말하였다, 하니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
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
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
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
리라.
32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33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
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니
34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
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
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
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
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
냐? 하매
3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
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
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
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37 ¶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
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
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38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
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
까? 하였더라.
39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
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
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

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41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
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빛 가운데서 걸으라

4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
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43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
문이더라.
44 ¶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을 보느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47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
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
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48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
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라.
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
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
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
라.

제 13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

1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
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
지 사랑하시니라.
2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
각을 넣었더라.
3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
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
며
5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
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6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
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
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
까?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
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
니
8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네게 없느니라, 하시니
라.
9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
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
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
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
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2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
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
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
라.
14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
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
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
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지적함
(마26:20－25; 막14:17－21;
눅22:21－23)

18 ¶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
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
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19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
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
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
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
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
이느니라, 하시니라.
2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
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22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
지 의아해하더라.
23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의 하
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
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
지 그가 여쭙게 하니
25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
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
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
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
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27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28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
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
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29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
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
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
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30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새 명령

31 ¶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
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
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
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33 어린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
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
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34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
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함

36 ¶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
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
시거늘
37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
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3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
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겠
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 14 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
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
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
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
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
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
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
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
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
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리하
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
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
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
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
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
보다 더 큰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
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함

15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
령들을 지키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
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
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17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
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
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

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18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
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
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
을 너희가 알리라.
21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2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
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
려 하시나이까? 하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
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
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
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위로자 성령님과 주님의 평안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26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
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2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
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
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
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
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29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
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31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
를 떠나자, 하시니라.

제 15 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2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
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
라.
3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
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
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

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
루어지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
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
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
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
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
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라.
12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
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14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
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
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
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17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
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
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
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
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
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
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
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21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
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
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
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 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
도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
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
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
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
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25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바, 그들이 까
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
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
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
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
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제 16 장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

1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2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
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다고 생각하리라.
3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
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
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
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
이니라.

성령님의 일

5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
게 묻지 아니하고
6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
득하였도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
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
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
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
니
8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
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
라.
12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
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
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
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4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
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
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
라.
15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
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
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7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
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
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
슨 말씀이냐? 하고
18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
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
라, 하거늘
19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
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
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
로 변하리라.
21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
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
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
하지 아니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
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
리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
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
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
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
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
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5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
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
게 보이리니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노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
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28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2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
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
니하시니
30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
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
나이다, 하매
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
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
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
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
라.
33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
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 17 장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하여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
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
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
서.
2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
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
이니이다.
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
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
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5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
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하여

6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
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
켰나이다.
7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
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
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11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
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
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
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
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
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
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
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기 때문이니이다.
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
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
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
고 기도하나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다.
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
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
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
고
19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
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20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
니
21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
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
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
니이다.
24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
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
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25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
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
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다, 하시니라.

제 18 장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힘
(마26:47－56; 막14:43－50;
눅22:47－53)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
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2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
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
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
라.
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
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
를 찾느냐? 하시니
5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
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6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
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7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
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
늘
8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
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
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9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
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
이더라.
10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
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벴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11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으로 끌려감
(마26:57－58; 막14:53－54; 눅22:54)

12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
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
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14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
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마26:69－70; 눅22:55－57)

15 ¶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16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
더라. 그때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
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
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
17 그때에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
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
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18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
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예수님께서 심문을 받음
(마26:59－66; 막14:55－64;
눅22:66－71)

19 ¶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

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
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
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
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
시니라.
22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의 하나
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
냐?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
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더 부인함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
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
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26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
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7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곧 수탉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섬
(마27:1-2, 11-14; 막15:1-5;
눅23:1-5)

28 ¶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
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
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
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
절 어린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
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30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
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
으리이다, 하거늘
31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
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
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
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32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
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
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
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
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
을 하였느냐? 하매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
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
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37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
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
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
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
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
을 듣느니라, 하시매
38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
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
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
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짐
(마27:15–23; 막15:6–15; 눅23:13–25)

39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
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
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
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
냐? 하매
40 그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
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
는 강도더라.

제 19 장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마27:27–31; 막15:16–20)

1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
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3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
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4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
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
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빌라도의 최종 결정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6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
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
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
라, 하거늘
7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
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
문이니이다, 하니라.
8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
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
시니
10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
느냐? 하매
11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
서 네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였
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
니라.
12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
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
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
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
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
이다, 하니라.
13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
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갑
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14 그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여섯 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
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15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
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
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
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
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
라.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힘
(마27:32-56; 눅23:26-43)
17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
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
더라.
18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
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
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19 ¶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
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의* 글은 유대인
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에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이 명패
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
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21 그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
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
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22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
을 내가 썼다, 하니라.
23 ¶ 그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
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24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
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
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
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
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네 어머니를 보라
25 ¶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
아가 서 있더라.
26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
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
소서! 하시고
27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
라.

다 이루었다
28 ¶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
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
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
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
니라.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
31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
가에 남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
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 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
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32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
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33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러나 군사들 중의 하나가 창
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37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
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
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힘
(마27:57－61; 막15:42－47;
눅23:50－56)

38 ¶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
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
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
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
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
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39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오니라.
40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지내는 방
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41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42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
이더라.

제 20 장

빈 무덤
(마28:1－10; 눅24:1－12)

1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
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
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4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
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5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
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6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
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7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
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8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9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
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10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남

11 ¶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
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
다보고는
12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
라.
13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
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
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14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
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
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
라.
1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
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
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
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

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17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
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
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
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줌

19 ¶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
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
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2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
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21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
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
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
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
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
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 그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
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
더라.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
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
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리라, 하니라.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음

26 ¶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
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
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
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
다,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
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
다, 하시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30 ¶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
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

제 21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남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
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
이시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
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
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
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4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
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
하되, 없나이다, 하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
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
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8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
지 않고 이백 큐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
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9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
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
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
오라, 하시매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
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
니 백쉰세 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이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
지 아니하더라.
13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
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킴

15 ¶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
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
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
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
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
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
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7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
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
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
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
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18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
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
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
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
니라.
19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
여 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
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
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20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
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
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
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
까? 하니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
라.
23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
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24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
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들의 행적

사 도 행 전

기록자: 누가,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33년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오빌로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사도 베드로(1－12장)와 바울의 행적(13－28장)을 담고 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3회 언급되며 야고보는 순교로 인해 언급되고 이들 외의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 책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행적이 사람이라는 도구에 의해 계속해서 진행됨을 보여 준다.
주제: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성도들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가르치신 것, 목적: 은혜의 경륜 시대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권능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1－7장),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8－28장)을 기록하며 동시에 이 일을 위해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보여 준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행1:10－11은 요21:21－23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확증한다. 사도행전은 28장, 1,007절, 24,22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성령님의 강림), 핵심 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1:8), 핵심 단어: 증인
핵심 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1:4; 눅24:49),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승천하신 주님(1:10－11), 영적 교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제 1 장

성령 침례 약속

1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
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2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
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3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
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
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4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
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
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5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
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
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
리라, 하시느니라.
6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요,
8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
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함
(막16:19-20; 눅24:50-53)

9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
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0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
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11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
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
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다락방 기도 모임

12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
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13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14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
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
하더라.

맛디아 선출

15 ¶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
가 약 백이십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
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
르되,
16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17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
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
라.
18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
므로
19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
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 밭이라는 말이라.
20 시편 책에 기록된바, 그의 처소
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
서, 하였나니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
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
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22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
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23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
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맛디아더라.
24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 주사
25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
져 나갔나이다, 하고
26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맛디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제 2 장

성령 강림

1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2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3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4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
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
라.
5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아와 예루
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6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
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으므로 당황
해하더라.
7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
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
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
냐?
9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
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
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
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11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
다, 하고
12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
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13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
다, 하더라.

베드로의 선포

14 ¶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
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
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
게 알려 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지금은 겨우 낮의 세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으
되,*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
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
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라.
18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과 여종들 위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
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
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
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
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으로 *삼으셨느니라.*
23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매 너희
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
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
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25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다.
26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27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
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
려 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29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
다.
30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
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
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
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
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31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
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
니라, 하였느니라.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
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에 증인이로
다.
33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
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
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
라.
34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
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
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36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
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37 ¶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
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
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
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
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40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
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
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
라.
41 ¶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
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
지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더해짐

42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
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43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
들이 일어나더라.
44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
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5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
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46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
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제 3 장

사도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침

1 이제 아홉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2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
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
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
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
에 두는 자더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
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
청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
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
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
거늘
6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
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8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
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라.
9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
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
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베드로가 솔로몬의 주랑에서 선포함

11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
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 가니
라.
12 ¶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
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
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
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
보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
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
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
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
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
라고 구하여
15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
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
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니라.
16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
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
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18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
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
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19 ¶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
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
이 말소될 것이요,
20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
라.
21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22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
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
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
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23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4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
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25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
에게 이르시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
으므로
26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
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제 4 장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섬

1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
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2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
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3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
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
은 사람들 중의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
의 수가 오천쯤 되더라.
5 ¶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
로들과 서기관들과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
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
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7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8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
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
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9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
날 심문을 받는다면
10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11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
느니라.
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
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
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함

13 ¶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
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14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
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15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16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
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
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17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
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
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
단하라.
20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21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
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므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22 이는 이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
난 사람이 마흔 살이 넘었기 때문이더
라.

담대함을 얻기 위해 기도함

23 ¶ 그들이 풀려나매 자기 동료
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24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
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
들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
요,
25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
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
가?
26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
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
다.
27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28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
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29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
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30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
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
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
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31 ¶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
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유대인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유함

32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
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
하지 아니하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34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
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
기 때문이더라.
36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
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
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37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5 장

아나니야와 삽비라

1 그러나 아나니야라 하는 어떤 사
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
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야, 어
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
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
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
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5 아나니야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
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7 세 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8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9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
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10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
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
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
니
11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사도들의 능력 있는 표적들

12 ¶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
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의 주랑에 있었고
13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14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
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
더라.)
15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의 몇 사람에
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16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
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
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
라.

투옥된 사도들이 석방됨

17 ¶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
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18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19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
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
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22 그러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
옥은 매우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
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
도 없었나이다, 하매
24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
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그
것들에 대해 의아해하더라.
25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
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
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
매
26 이에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
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
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
였기 때문이더라.
27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
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28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
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
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29 ¶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
니라.
30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
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
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
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
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
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
하니라, 하더라.

가말리엘의 권고

33 ¶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34 그때에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35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
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
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사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
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매 그에게 순종
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
고
37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
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
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
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39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
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
매
40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
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
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41 ¶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
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
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 6 장

섬기는 일을 위해 일곱 사람을 선출함

1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
에서 빠지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
평을 터뜨리니라.
2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
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
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3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
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
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5 ¶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
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
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
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
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
하니라.

스데반이 신성모독 죄로 고소 당함

8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

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
을 행하니라.
9 ¶ 그때에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
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
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
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10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
라.
11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
매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
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12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
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 하
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14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
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15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
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제 7 장

스데반의 설교: 아브라함을 부름

1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2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
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
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
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4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
가 죽으매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
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
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6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사백 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7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아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8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
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
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족장을 낳으니라.

이집트에 있던 족장들

9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
트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10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
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
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시매 파라오
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
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11 이제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12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
었고
13 또 두 번째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
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14 그때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일흔다섯 혼을 부르니
15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
와 우리 조상들이 죽고
16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

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
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이니
라.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함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
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18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
른 왕이 일어나서
19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
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
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
니라.
20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
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21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22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
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
니라.
23 그가 정확히 사십 세 되었을 때
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24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25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
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
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
들아, 너희는 형제이거늘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27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
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28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
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30 사십 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
가 시내 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31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32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
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33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34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 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
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
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
로 보내시매
36 그가 사십 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
라.

이스라엘이 반역함

37 ¶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38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
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39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
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
트로 돌아가
40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
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
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
하매
42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
에 기록된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
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43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
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
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참된 성막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
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
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
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
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46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
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한 성막을
찾기를 원하였으나
47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
을 건축하였느니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49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
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
냐?
50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거역함

51 ¶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
다.
52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
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
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 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
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53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
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순교 당함

54 ¶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
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55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
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
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57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
게 달려들어
58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
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
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
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
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
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
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제 8 장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

1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
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
루 널리 흩어지니라.
2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
니라.
3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
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4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선포함

5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
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6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
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7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8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
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
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
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10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11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
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13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
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
라니라.
14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16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의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
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17 그때에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
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18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
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20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
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
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
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23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
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24 그때에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
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
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의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
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
을 선포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

26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

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27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
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
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
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
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
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
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31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
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
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32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
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
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서 잠잠한 어린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
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
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
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
로다, 하였더라.
34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
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
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
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35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6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
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
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
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가 믿노라, 하니라.
38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
라.
39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
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
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
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제 9 장

사울의 회심
(행22:6-15; 26:12-18)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
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
장에게 가서
2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
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
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
라.
4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매 한 음성
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
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
냐? 하시거늘
5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
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 채를 걷어차기
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6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
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
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라.
7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
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
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
가니라.
9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10 ¶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야라 하
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야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1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
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
라.
12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야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
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
시거늘
13 이에 아나니야가 응답하되, 주
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
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
이다.
14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
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
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15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16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
나 큰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
니
17 아나니야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
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
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
니라, 하매
18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
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19 음식을 받으매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
들과 며칠을 지내며

사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함

20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
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21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
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
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
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
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
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사울이 피신함

23 ¶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24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
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
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25 그때에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
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감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27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
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
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28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29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논박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30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
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
내니라.

교회가 늘어남

31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
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
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침

32 ¶ 그때에 베드로가 모든 지역
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33 그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어
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비 병을
앓아 팔 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더라.
34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
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
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
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35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
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도르가를 다시 살림

36 ¶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
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
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37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
매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
니라.
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므로 제
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 줄 것을
청하니
39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매 그들이 그
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 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40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
라, 하매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
고 일어나 앉으니라.
41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
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
을 불러 살아 있는 그녀를 보여 주니
42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
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그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
라.

제 10 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함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
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2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3 낮의 아홉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
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4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
었은즉
5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
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6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7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
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의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8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
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환상을 봄

9 ¶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
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

는 기도하려고 여섯 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10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
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11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귀퉁이
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
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
는 것을 보았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
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
라.
13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
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
매
15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
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17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
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
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18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19 ¶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
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
라, 하시니라.
21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
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22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
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
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23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

24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25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26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
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27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
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28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
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
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
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29 그러므로 내가 초청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
냐? 하매
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아홉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네 기도를 들으시
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
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
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
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

다.
33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
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
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
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선포함

34 ¶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
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35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
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 주시
는 줄을 깨달았도다.
3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37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
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
을 너희가 알거니와
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
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
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
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
셨기 때문이라.
39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
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시되
41 온 백성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
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 주셨느니라.*
42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
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43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
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
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함

44 ¶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매
45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
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
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46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
로가 응답하되,
47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
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
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
고
48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
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에 그
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
하니라.

제 11 장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함

1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는 것을 들었더라.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3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
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
다, 하거늘
4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
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
어 설명하여 이르되,
5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
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
오되 네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
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6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깊이 생각
하며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
승들을 보니라.
7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
아 먹으라, 하거늘
8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
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
다, 하니라.
9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
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 이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11 또, 보라, 즉시로 세 사람이 내
가 있던 집에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
라.
12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
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
가니
13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
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
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
라.
14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
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16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
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
였노라.
17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
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
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
느냐? 하니라.
18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
니라.

안디옥의 바나바와 사울

19 ¶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
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
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
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20 그들 중의 몇 사람은 키프로스
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
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
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
오더라.
22 ¶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
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
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24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
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25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26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
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27 ¶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
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28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
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 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29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
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
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30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
게 보내니라.

제 12 장

헤롯이 교회를 탄압함

1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
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
니라.
3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
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4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
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
더라.

베드로가 기적에 의해 감옥을 탈출함

5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
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 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
라.
7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
매 감옥 안에 한 광체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
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8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
고 네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
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9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
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10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
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렀는
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
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11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
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12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
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
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 베드로가 바깥문의 문을 두드리
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
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
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
고 말하매
15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
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
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
라.
16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
리므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17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
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
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
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매 간수들을 심문하며 그들을 죽
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
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헤롯의 죽음

20 ¶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
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
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21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22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
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
라, 하거늘
23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
라.
24 ¶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
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
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
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 13 장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냄

1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
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
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2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3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
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선포함

4 ¶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
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5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
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6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
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7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
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
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9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
고
10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
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
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
냐?
11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둠
이 그 위에 임하므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12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
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함

13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
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4 ¶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
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
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16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
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
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 동안 그들
의 소행을 참으시며
19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
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20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사백오십 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
들을 주셨느니라.
21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
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주셨다가
22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
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
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
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
고
23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24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
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25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
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26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
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
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27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
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
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
도다.
28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
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29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부터 살리셨으므로
31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
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
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32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33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
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34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
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
리라, 하셨느니라.
35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
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36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
으나
37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
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
이니라.
38 ¶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
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는 것과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40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
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41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
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42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
하더라.
43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
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
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44 ¶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
께 나아왔으나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
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
독하거늘
46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
게로 돌아서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
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 *끝까*
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
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은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50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
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
늘
51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
의 먼지를 떨어 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52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제 14 장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함

1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
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
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3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
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
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
에 증거를 주시니라.
4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5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
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6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
역으로 도피하여
7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함

8 ¶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
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9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
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11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
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
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
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12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
더라.
13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
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
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14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
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15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
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
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16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
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
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19 ¶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
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
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더베로 피신함

20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
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
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니라.
21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
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
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22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
라 하더라.
23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
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
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
며
24 비시디아를 두루 지난 뒤에 밤빌
리아에 이르러
25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앗달
리아로 내려가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
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에 맡겼던 곳이더라.
27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
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
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
하여 말하고
28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
안 머무니라.

제 15 장

할례 문제

1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
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
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
니
2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
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
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
라.

3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
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
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
라.
4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
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
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5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
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하니라.

예루살렘 회의

6 ¶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7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
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
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
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
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
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11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
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
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 ¶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13 ¶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
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
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15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바,
16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17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
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
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18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19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
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21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
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
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
라, 하더라.

예루살렘 선언

22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
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
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
라.
23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
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
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
안하노라.
24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
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

로
25 한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
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
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26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27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
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28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
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29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
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
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
다, 하였더라.
30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31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
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32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
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33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
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
게 되었으나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
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
라.
35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
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함

36 ¶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
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
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37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
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
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39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
로스로 가고
40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에 맡기매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떠나
서
41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제 16 장

바울이 디모데를 취함

1 그때에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
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
더라.
2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
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
라.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4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
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
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
게 하니
5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6 이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
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
지 못하게 하시더라.
7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
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8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
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
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
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
니라.

루디아가 믿고 침례를 받음

11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
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
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13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
들이 늘 기도 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14 ¶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
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
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
를 기울이니라.
15 그녀와 그녀의 집안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
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
더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힘

16 ¶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
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17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
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18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
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
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19 ¶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
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
들에게 끌고 갔다가
20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
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
을 가르친다, 하매
22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
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
여
23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
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24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
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 넣고 그들
의 발을 차꼬에 단단히 채우니라.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음

25 ¶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
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매 죄
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26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
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27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
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
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
되,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그때에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
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

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32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
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33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
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
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 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
라.
35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
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36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
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
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
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
늘
37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
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
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
라, 하니라.
38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
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
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40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제 17 장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함

1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
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
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
므로
2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로 들어가 세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3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
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
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시라 하니
4 그들 중의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
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
라.
5 ¶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
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
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6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
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엎
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7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
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8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9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
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
라.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함

10 ¶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
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니라.
11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
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
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
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12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
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

라.
13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서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14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
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15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
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함

16 ¶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
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17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
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
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
을 하니라.
18 그때에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
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
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
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
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
포하였기 때문이라.
19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
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
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
라, 하니라.
21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
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
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22 ¶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
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
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23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
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
게,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
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 주리라.
24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
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
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
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26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
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
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27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
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
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28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의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
니
29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
진대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
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
라.
30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
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
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
시나니
31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
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
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
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32 ¶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
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
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
나니라.
34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
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
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제 18 장

바울의 고린도 사역

1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
나 고린도에 이르러
2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
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
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
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
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3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
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
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
라.
4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
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
하니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
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을 증언하매
6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
독하므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
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
라.
7 ¶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8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
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
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9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
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
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11 그가 거기서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을 가르치니라.
12 ¶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
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
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13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
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
하게 한다, 하거늘
14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15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
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16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
라.
17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
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
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
라.

바울이 안디옥으로 귀환함

18 ¶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
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
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
더라.
19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
기 남겨 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
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20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
지 아니하고
21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
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
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
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
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23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
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
게 하니라.

아볼로의 사역

24 ¶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
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25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우므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
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
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
해 주니라.
27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
을 먹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
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
으니
28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
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며 힘 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제 19 장

바울의 에베소 사역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
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
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4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
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
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5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
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므로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더라.
8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9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
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
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
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11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
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12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
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13 ¶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
인들 중의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
히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의 우두
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15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
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17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
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
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19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
들 중의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
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오만 개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
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남

21 ¶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
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
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
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더라.
23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
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24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세공
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성물 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주었는데
25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
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26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
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27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
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
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
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
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29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
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
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30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
니하고
31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
니라.
32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
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
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
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33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매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라.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34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두 시간쯤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

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35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
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36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
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37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
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
니라.
38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할 것이
요,
39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
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40 이 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
가 불려가 심문 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
나 이 모임에 관해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이유가 없도다, 하고
41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
어지게 하니라.

제 20 장

그리스 여행

1 소동이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2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3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므로 그가 마케도
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4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
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
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
기고와 드로비모더라.
5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6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
아에 있던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 동안
거기 머무니라.

드로아에서의 사역

7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
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8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
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
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매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삼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지니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
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
11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
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샐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12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
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13 ¶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앗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
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
문이라.
14 그가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
렀으며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
으니
16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
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
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17 ¶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
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18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
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
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
니와
19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
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
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20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
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
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21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
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
라.
22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23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
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
린다고 말씀하시나
24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
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25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
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
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26 그러므로 내가 이 날 너희를 데
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27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
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28 ¶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
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
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
요,
30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
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
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
라.
31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삼 년 동
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
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
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33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
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34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
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
라.
35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
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
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
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36 ¶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
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37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
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38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
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
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제 21 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감
1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
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2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3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매 그곳
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4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
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
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5 그 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
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
릎 꿇어 기도하고
6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
니라.
7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
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
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8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중의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9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10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
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
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
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12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
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13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
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14 그가 설득 받으려 하지 아니하
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
다, 하고 그쳤노라.
15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
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16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므나
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 했었
노라.

예루살렘 장로들의 조언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매 형제
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18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
들이 있더라.
19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
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리매
20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
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이라.
21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네가 이방
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
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
도다.
22 그런즉 어찌할까? 네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

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 알리라.
25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26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이니라.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힘

27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30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騷動)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이르매
32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33 그때에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거늘 그가 소동으로 인해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성채 안으로 옮겨 가라고 명령하니라.
35 바울이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 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함

37 바울이 성채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말을 하느냐?
38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사천 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매
40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제 22 장

바울이 자기를 변호함

1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 (그가 히브리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3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
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
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 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
라.
4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5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느니
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
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
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6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7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
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
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
라.
10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
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 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
니라.
11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
쿠스로 들어갔노라.
12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야라 하는 이가
13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
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
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
17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
태에서
18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20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
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21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
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
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
은 이 땅에서 없애 버리라. 그를 살려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23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
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24 총대장이 그를 성채 안으로 데
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
으로 그에게 소리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심문하라고 명하니
라.
25 그들이 가죽 끈으로 그를 묶으
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
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26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
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
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27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
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
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
거늘
28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29 이에 그를 심문하려던 사람들
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함

30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
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에서 풀어
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
게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을 데리
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 23 장

1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
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
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3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
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4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
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5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
노라. 기록된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
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
더라.
6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
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
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
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심문을 받노라, 하니라.
7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
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8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
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9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
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10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
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
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
하니라.
11 그 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
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꾀함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
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
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13 이 음모를 꾸민 자가 마흔 명이
넘더라.
14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은즉 바울
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
하리라.
15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
에게 알려 그가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
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매
16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채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
라.
17 그때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의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
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그에게 무
언가 할 말이 있노라, 하매
18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
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
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님
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더
이다, 하니
19 그때에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
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네가 내게 할 말이 무엇
이냐? 하매
20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
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대장님께
서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21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
옵소서. 그들 중에서 마흔 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자기
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
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하고 숨어
서 그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
다, 하니라.
22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
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네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
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세 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
라, 하며
24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25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26 클라우디오스 루시아는 총독 벨
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28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
소하는지 알기 위해 내가 그들의 공회
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29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
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
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
게 되었나이다.
30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
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듣고
즉시 각하께로 보내며 또 그를 고소하
는 자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에 대하
여 고소하는 바를 말하라고 명령하였
나이다. 평안하옵소서, 하였더라.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섬

31 그때에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
로 바울을 취하여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다가
32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 두어 그
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채로 돌아가니
라.
33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서신
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
신임을 알고는
35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가두라고
명령하니라.

제 24 장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죄로 고발 당함
1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
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므로
2 그가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
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
어졌으므로
3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
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
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5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
인데
6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7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8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
하께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
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9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함
10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가 응답하되, 각하
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11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
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라간 지 이제 겨우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12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
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
으므로
13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
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14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
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
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
*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15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16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
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
다.
17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
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18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
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
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19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
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하리이다.
20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
치기를, 이 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심문을 받노라, 한 이 한 목소리 외에
는 없나이다, 하니라.
벨릭스가 모든 것을 연기함
22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23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
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
라.
24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
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
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
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
기를 나누니라.
27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
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제 25 장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함

1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니
2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
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3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
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
렘으로 불러 줄 것을 구하더라.
4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
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고
5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
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
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
상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
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
라.
8 그가 자기를 위해 답변하여 이르
되,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
나 카이사르에 대해 결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
9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
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
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 하느냐? 하매
10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
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
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
하였나이다.
11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
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
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12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
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니
라, 하니라.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 섬

13 며칠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더라.
14 그들이 여러 날 거기 있은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
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요구하기에
16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
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
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18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
고
19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
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 있다
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
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
다.
20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에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21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
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하므
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
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2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
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 하노라, 하거늘 그가 이르되, 왕께
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
더라.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
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
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
령으로 바울이 끌려나오니
24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립바 왕
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 두어서
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
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고발한
사람이니이다.
25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
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26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심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
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27 죄수를 보내면서 더욱이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이
다, 하였더라.

제 26 장

바울이 자기를 변호함: 젊은 시절

1 그때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
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
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
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
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3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
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
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 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4 내가 젊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
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5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6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

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
기를 바라는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
소를 당하였나이다.
8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9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
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10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
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
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
나이다.

바울의 회심 증언

12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
고 있을 때에
13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14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
냐?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
이라, 하시기에
15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
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17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서 건져 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18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
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
라, 하더이다.

회심 이후의 삶

19 그러므로, 오 아그립바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
하지 아니하여
20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
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21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
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
다.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
아 나는 이 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
것들만을 말하노니
23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
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
이다, 하니라.

아그립바가 바울의 도전을 회피함

24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
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
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
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25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
시므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
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

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왕께서는 대
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
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8 그때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
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
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29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 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
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0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
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
이 일어나
31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
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
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
다, 하고
32 그때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제 27 장

바울의 로마 이송 여행

1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
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
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
니라.
2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
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
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
니라.
3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
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
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
로 항해하여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
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6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
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
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7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
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
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
하므로 우리가 살모네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8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
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바울의 권고를 무시함

9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
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
게 권고하여
10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
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12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
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
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폭풍우를 만남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
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
하였으나
14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
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15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
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16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매

17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流沙)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18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
게 되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
의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
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21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
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
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
야 하였느니라.
22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
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23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24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
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
라,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
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
신 그대로 되리라.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
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27 그러나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에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28 그들이 *물 깊이를* 재고는 그것
이 스무 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
가 다시 재고는 그것이 열다섯 길인
줄 알았더라.
29 그때에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고물에
서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
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
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
라, 하니
32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
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그들 모
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 날로 열나흘째니
34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
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의 어떤 사람
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5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
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
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36 그때에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37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이백
칠십육 혼이더라.
38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
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멜리데에서 파선됨

39 날이 새매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으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40 그들이 닻을 끌어올린 뒤에 자
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또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 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41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
가매 배가 암초에 얹혀서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42 군사들은 그들 중의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
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44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
에, 얼마는 배의 부서진 조각들에 의
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
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제 28 장

멜리데에서의 사역

1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
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2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
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3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
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4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
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
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5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 버리
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6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
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7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
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8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
설사로 앓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
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9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10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
을 배에 실어 주더라.

로마에 도착함

11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記號)는 카스
토르와 폴룩스더라.
12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
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13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
올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15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이 광장과 세 여
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이르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
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로마에서의 사역

17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
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18 그들은 나를 심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
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
르에게 청원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조
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20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
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
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
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2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형제들 중의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2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
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
라, 하더라.
23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
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아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
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24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
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
라.
25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 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
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26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
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
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라.
27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
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28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
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
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
더라.
30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이 년
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31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 마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7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7).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으며 그곳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방문을 예비하기 원했다. 이 편지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종인 뵈베의 손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16:1-2).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네로가 황제로 있었다. 주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는 복음
목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증하는 것, 내용: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의 빛이나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칭의 교리를 가르친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악과 사악함 그리고 비참함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들에게 은혜로 전가될 수 있음과 구원의 효과로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5장), 거룩한 삶(6장)을 보여 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음을 보여 주고(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음과(8장) 자신의 친족인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9-11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12-16장)을 보여 준다. 로마서는 16장, 433절, 9,42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핵심 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1:16), 핵심 단어: 의(66회), 믿음(62회), 칭의(17회), 인정(19회), 그리스도 안에(33회), 율법(78회), 죄(60회), 핵심 구: "하나님의 의"(1:17), 로마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10:4; 렘23:6),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제 1 장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
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
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
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
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5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
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
하게 하였나니
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
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7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
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
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
라.

로마 방문 계획과 소원

8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

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
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
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10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
라.
11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12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
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13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14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
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15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
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
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
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
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
셨느니라.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
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
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
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
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
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
기 때문이라.
27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
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
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
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
라.
28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
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9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
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
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
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
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
는 자요,
31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
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
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
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
니라.

제 2 장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1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
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2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
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
하느냐?
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
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
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
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
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
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
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
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9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
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
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
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
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12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13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
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
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14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
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
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
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죄임

17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
며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
하며
19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20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

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
는도다.
21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
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
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
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
라.

율법과 할례

25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
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
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
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
냐?
28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
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
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제 3 장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변호함

1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
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
다는 것이라.
3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
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
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4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
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
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
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6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
요?
7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
냐?
8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
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
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
겠느냐? 그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
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
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
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
였느니라.
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
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
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
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
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
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
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
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
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
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22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
게 되었느니라.
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
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
요,
26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
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한 하나님

27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
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
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29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
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
들의 하나님이시니
30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
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
게 세우느니라.

제 4 장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1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
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
리가 말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
라.
4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
니라.

율법 시대: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6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
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

며
8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의롭게 됨

9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
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
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
하기 때문이라.
10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
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
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
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
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12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
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짐

13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
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
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
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
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15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
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
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17 (이것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
라.
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
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
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 *그가* 백 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
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
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
으며
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
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
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
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
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23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
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
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라.
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
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
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제 5 장

믿음은 고난 중에서 승리함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
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
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
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
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
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
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
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
니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
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
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
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라.
11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
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
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
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
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13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
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
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
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5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
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6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
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
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
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
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
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
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
렀나니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
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20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
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21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
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 6 장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

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
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
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
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
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
니라.
8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
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
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
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
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
여 살아 계시나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
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
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
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
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
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
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
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
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
터 순종하고
18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
의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
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
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
망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
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
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 7 장

율법에서 벗어남

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

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
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
라.
3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姦婦)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
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
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
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
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
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
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
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
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
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
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
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11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
라.
12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
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3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
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
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라.
14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
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
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
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16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
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
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
니
17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
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
는 죄니라.
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
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
라.
19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
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
이라.
20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

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
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8 장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
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
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
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
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
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
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
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
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8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
라.
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
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
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
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통해 양자 됨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
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
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
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
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
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
려 함이니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18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

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
나는 것이니라.
20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
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
이라.
22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
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
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
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
리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
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
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
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1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
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
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
겠느냐?
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
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
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
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
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
니라.
37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
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
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제 9 장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
하거니와
2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3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
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도 있으리니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
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
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
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
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
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
니요,
7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
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
라.
9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
니라.*
10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
하였는데
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
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
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
나니
13 이것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
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의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
리라, 하시나니
16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
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
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7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
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
니
18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퍅하게
할 자를 친히 *강퍅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
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
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
느냐? 하리니
20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
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
겠느냐?
21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
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
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
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
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

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
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
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
라.
25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
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
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
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
리라.
26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
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
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
니라.
27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
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短縮)시키시
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
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
라.
29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
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31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
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
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
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
려 넘어졌느니라.
33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
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 10 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

1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
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
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
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
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
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
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
이 되시느니라.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
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
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
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
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
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
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
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
니라.
11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

듣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12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
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

14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
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
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
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
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
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
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
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
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
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
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
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
게 하리라, 하나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
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
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21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
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제 11 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음

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
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
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
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
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
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
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
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
르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
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4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
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
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
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
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
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
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
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
니라.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
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

응이 되게 하시고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
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한 결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
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
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
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
게 하려 함이니라.
12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
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
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13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
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14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
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
으로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
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
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
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
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대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
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
느니라.
19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
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
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
끼지 아니하셨을진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
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
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
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
리라.
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24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
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
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
냐?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
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
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
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
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
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
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
받는 자들이니
29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
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
라.
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
이라.
33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
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
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35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36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
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
를 원하노라. 아멘.

제 12 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희생 제물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
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
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
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적 선물

3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
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
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
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대로 맑은 정신
으로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
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
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
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6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
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
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7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
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
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9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10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
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11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
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13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
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16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
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
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
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
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
로 악을 이기라.

제 13 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

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
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
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
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2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
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
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
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
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
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
해야 하느니라.
6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
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
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
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
였느니라.
9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
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
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
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
법의 완성이니라.
11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
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
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12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
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
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제 14 장

자유의 법

1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
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
여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4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5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
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
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
니라.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
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
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1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
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
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
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
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
라.

사랑의 법

14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
라.
15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네 음식물
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
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
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
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
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
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20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
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
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
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22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
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
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
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제 15 장

약한 자들을 도우라

1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2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
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
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
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
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6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
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8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
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
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
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
요,
9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바, 이런 까
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
이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11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12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
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
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
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 선포

14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
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
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
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
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16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
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
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7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18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
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
로,
19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
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20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
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
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
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오직 이것은 기록된바, 그에 대
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
니라.

로마 방문 계획

22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
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23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
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
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

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25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26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
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
기 때문이라.
27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
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
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
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
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3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
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
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
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32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
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33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
멘.

제 16 장

뵈베를 추천함

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뵈베를 너희에게 추천하
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
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
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에게 인사 요청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
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4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배네
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
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6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에게 인사하라.
7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
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
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
도 안에 있었느니라.
8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
아에게 인사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
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
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
라.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집안에 속
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
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
라.
13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
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
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
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19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
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친구들의 인사

21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
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
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
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
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
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함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
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
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
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
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27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
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
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뵈베
편에 보내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고 린 도 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편지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2).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는데(행18:1–7) 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었으며 유대인들도 있던 큰 교회였다. 고린도는 로마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던 항구 도시로 죄와 방탕이 가득한 사악한 도시였다.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사이의 중요한 관계
목적: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돌보듯 그분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돌보게 하는 것, 내용: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되었고 이 편지에서 먼저 이 교회를 책망한다. 그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에 물들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교회의 분열(1–4장), 법정 소송, 이혼,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등과 관련된 도덕적 무질서(5–11장), 영적 선물(12–14장), 성도들의 부활(15장) 등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준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이며 특히 영적 선물(은사) 문제는 기복/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초보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린도전서는 16장, 437절, 9,46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3장(사랑), 15장(부활), 핵심 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2:7)
핵심 단어: 지혜, 핵심 구: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14:40)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 죽은 자들의 첫 열매(15:20)
영적 교훈: "모든 선물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제 1 장

인사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
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
게 되었으니
6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
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7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쳐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8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
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시
리라.
9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함

1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
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
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
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12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
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
다.
13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
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
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
례를 받았느냐?
14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의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5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
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사
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
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
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
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
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18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라.
19 기록된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
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
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
으니
20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
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
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
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
셨느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
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
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
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되
24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
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
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
의 지혜이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
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
보다 강하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
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
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
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
을 택하셨나니
29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
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
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31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
려 함이니라.

제 2 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
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2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
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
느니라.
3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
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4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5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영적 지혜

6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
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
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
라.
7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
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
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
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
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
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
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
으니라.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
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
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11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
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
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14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
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
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
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
되기 때문이니라.
15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
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
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제 3 장

파당은 육신적인 것이다

1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
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
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
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
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
라.
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

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
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4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
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
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
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하나님

5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
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
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
나니
7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8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
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의 보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
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
나님의 건물이니라.
10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
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
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
할지니라.
11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
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2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
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13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5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
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
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세상 지혜를 피하라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
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
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
석음이니 기록된바, 그분께서 지혜로
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
라, 하였고
20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
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21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
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
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
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
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 4 장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2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
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라.
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
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
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
노니

4 나는 *판단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
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5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
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
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
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됨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
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
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의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
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
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
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
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
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
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
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
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
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11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
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
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
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
나 그것을 참으며
13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
노니 우리는 이 날까지 세상의 오물같
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
라.

나를 본 받으라

14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
이르려 하노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
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
라.
16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17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
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
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
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
고 있도다.
19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20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
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제 5 장

음행을 범한 자를 판단함

1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
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
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2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
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

였느니라.
3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
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5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
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
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7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
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
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
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
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9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
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
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
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
로 나가야 하리라.
11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
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
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12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
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13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
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제 6 장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
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
느냐?
2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
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
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
하느냐?
3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
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
하겠느냐?*
4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
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
하게 하라.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
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6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
다.
7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
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
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
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8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
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
에게 그리하는도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
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
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
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10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
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
속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13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14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
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
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17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19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
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
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7 장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

1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
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
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3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4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
가 하느니라.
5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
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
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
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
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
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8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
라.
9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
하는 것이 나으니라.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
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
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
라.
11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
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

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
를 버리지 말라.
12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
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13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
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
라.
14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
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
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
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
하니라.
15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
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
리를 부르셨느니라.
16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
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

17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18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
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
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
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
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
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20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
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
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
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
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과 함께 머물라.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조언

25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26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
어나려 하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네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
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아내 있는 자들
은 없는 자같이 되고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31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
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32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
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33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

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
게 할까 하느니라.
34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
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
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
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
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
녀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
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
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
게 하라.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
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
*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
하여도 잘하느니라.
38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보
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보내지 아
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39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 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
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
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제 8 장

우상의 제물과 양심

1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
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2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
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
라.
3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
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
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
들도 많으나)
6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
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
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
느니라.
7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
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으므
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
라.
8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
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
지 아니하니라.
9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
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
하라.
10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2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
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
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
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제 9 장

사역자의 자기 부인

1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
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
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
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
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
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3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4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
냐?
5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
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6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7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
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
냐? 누가 양 떼를 먹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8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
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하느냐?
9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
해 염려하시느냐?
10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
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
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
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12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
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
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
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
이라.
13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
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
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
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
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
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
이 해 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
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
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
라.
16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
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
게 화가 있으리로다!
17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
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18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
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
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
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

19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
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21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
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
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
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
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우승하려고 분투함

24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25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26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
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
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27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
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 10 장

구약의 불순종 사례들

1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
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2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
에게로 침례를 받고
3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4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
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
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의 많
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
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
라.
6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
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
하게 하려 함이라.
7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
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
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
라.
8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
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리
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
하지 말자.
10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불
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
하지 말라.
11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
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12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
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지니라.
13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
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
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
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14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15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
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
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
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18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
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
여하는 자가 아니냐?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
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20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
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
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
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
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22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
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 주지는 아니하나니
24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라.
25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
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26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27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
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
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
라.
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29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
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
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
해 비방을 받으리요?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
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
리도 주지 말되
33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제 11 장

1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
라.

여자들의 머리를 덮는 문제

2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
들을 전해 준 대로 그것들을 지키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
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
리는 하나님이시니라.
4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
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5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

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6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
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
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
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
되었나니
10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
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
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
느냐?
15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
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
니라.
16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라

17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
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
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18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19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
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20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21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
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22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
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
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
노라.

주의 만찬 제정
(마26:26－29; 막14:22－25;
눅22:14－23)

23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
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
사
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
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
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5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
라.
26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
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
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
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
리로다.
28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29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30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
다.
31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
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3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
라.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
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제 12 장

영적 선물

1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
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
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4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5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6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
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
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
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10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
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
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11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
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몸 안의 많은 지체

12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
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
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
체*이니라.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
하느냐?
16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
하느냐?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19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20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
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21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
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
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23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
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24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
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
으니
25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
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6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27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
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
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
라.
29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
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
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
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
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31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
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
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제 13 장

1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
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
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요,
3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
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
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
며
5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를 기뻐하며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
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
니라.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
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
으로 대언하나
10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
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11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
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
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
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13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제 14 장

대언과 타언어 선물

1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
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2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
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3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
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4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5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
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
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
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타언어는 반드시 통역되어야 함

6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
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
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7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
이 소리를 낼 때에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피리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
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9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
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10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
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
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12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
에 열심이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13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
지니
14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
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라.
15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
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
면서 노래하리라.
16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찬
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네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17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
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18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
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
치리라.

타언어는 불신자를 위한 표적임

20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
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
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21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다른 언
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
라, 하였으니
22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

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
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
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
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
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고 전하리라.

교회 안에서의 질서

26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
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27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
님께 말할 것이니라.
29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
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
요,
30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
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31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
이 위로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32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33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
평의 창시자시니라.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

34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
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
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
을 받았느니라.
35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
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
스러운 일이니라.
36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37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
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
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38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39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
을 막지 말라.
40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제 15 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1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
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
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
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
느니라.
3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5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에
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중의 대다수
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
들은 잠들었느니라.
7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
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
으며*
8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
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9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
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
하되
1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매 너희가 그렇
게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12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
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
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
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
느니라.
14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
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
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
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
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
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16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
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
니하셨느니라.
17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
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
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18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19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
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
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23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
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24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
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
께 넘겨 드리실 때라.
25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26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
이니라.
27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28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 당할 때
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
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부활을 부인할 때의 결과

29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
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

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30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
험 속에 서 있느냐?
31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서 가진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
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대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
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
자.
33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34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
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
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함

35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37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
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38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
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
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39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
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
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40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41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
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
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
도다.
42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
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
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43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
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
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44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
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45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
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6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47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48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
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49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
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의 최후 승리

5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
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
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
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
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
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

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
이 성취되리라.
55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
님께 감사하노라.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
가 아느니라.

제 16 장

성도들을 위한 모금

1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
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
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
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3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
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
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4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
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개인적인 계획

5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이제 너희
에게 가서
6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
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
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8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
에 머물고자 함은
9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10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
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
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
니라.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
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12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되 지금은 그
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
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마지막 권면

13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
라.
14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지니라.
15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
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
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
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
노니
16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
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
게 복종하라.
17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
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
였나니
18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
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
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
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20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
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21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

하노라.
22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
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
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
라. 아멘.

¶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
내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고 린 도 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6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편지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고린도전서 참조
주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의 연합에서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목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며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를 보였는데 이것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로 가려던 이전의 계획과 다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크게 근심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 진술하게 편지를 썼다. 여기에는 사도의 인간적 연약함, 영적 능력, 뜨거운 사랑, 상처받은 감정, 책망, 겸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성장을 위한 바람 등이 강한 호소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고린도후서는 13장, 257절, 6,04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장(불멸의 약속)
핵심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4:5)
핵심 단어: 자랑, 핵심 구: "사도의 표적"(12:12),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주님(3:5), 영적 교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
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난 중의 위로

3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
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4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
라.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
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
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
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
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
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7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
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8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9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

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
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10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
뢰하노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
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
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
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방문 연기 사유

12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
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13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
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
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
이니 곧
14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15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
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 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17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
하여 예, 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8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
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
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21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
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22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
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23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24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
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
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제 2 장

용서 촉구

1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3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
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
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4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
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5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
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
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6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7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
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
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
까 염려하노라.
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
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9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10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
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
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
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11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
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12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매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되
13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
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
도니아로 들어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
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니
16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
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
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
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
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 3 장

그리스도의 서신

1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
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
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
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2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
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
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 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
나
5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
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에게서 나느니라.
6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
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
을 주느니라.

새 상속 언약의 영광

7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
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
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 의
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10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
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11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
진대 남아 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12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
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13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
으니 이는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
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
나
15 이 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
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
지리라.
17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
가 있느니라.
18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제 4 장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2 오히려 감추어 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
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 하
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
니라.
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
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
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6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
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7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
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9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
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
하고
10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
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
라.
11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
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
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
느니라.
13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
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으므
로 또한 말하노라.
14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
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15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
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16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
는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
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18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
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
하니라.

제 5 장

부활의 확증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
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2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
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
를 간절히 원하노니
3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5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
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
니
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
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8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
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9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
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
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
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
하노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
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
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
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
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
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
니라.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
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
니라.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
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8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
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
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
게 맡기셨느니라.
20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 6 장

바울의 사역의 특징

1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
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
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3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
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4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
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5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6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
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
하며
8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며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
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리스도인의 분리

11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
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12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
졌느니라.
13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
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
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
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
겠느냐?
15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
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
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
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7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
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제 7 장

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
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

2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
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
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3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
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
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
다.
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
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
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
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7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
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
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
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8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
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
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9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
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
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
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
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
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11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
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
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
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
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
이로다.

디도의 기쁨

13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
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
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14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
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
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
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도다.
15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
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
라.
16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
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제 8 장

풍성한 재정적 선물

1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
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
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4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
노라.
5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
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
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
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에도 풍성할지니라.
8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
려고 말하노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
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
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
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
라 열심히 하였나니
11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
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
니라.
12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
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3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
는 것이 아니요,
14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
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15 이것은 기록된바, 많이 거둔 자
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
라.

유대 성도들을 위한 모금

16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7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
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갔느니라.
18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
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19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
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
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20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
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21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
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
비하노라.
22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
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였거니

와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하므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이니라.
23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使
者)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
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
라.

제 9 장

재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

1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
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
를 아가야는 일 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
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3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
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확신 있게 자
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5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
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
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헌금의 원리

6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
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
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
라.
7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
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
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
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이것은 기록된바, 그가 널리 *재
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
과 같으니라.
10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
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
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
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12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
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
라.
13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
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
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고
14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
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
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15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
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제 10 장

영적 전쟁

1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

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
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
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
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2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
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
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
하노라.
3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
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5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
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
게 하며
6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
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
노라.

바울의 사도직 변호

7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
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
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대 이
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8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
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
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
럽지 아니하리니
9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
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
게 하려 함이라.
10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
다, 하는도다.
11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할지니
곧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
가 어떠함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라.
12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 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
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
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3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
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
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
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
라.
14 우리는 마치 너희에게 다다르
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리
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
에게도 이르렀느니라.
15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
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
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
를 바라노니
16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
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
이라.
17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18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
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제 11 장

바울의 염려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
납하라.
2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
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
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

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
기 때문이라.
3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
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
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
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
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

5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
노라.
6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
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
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
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
였느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삯을 받아 그들을 강탈
하였노라.
9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
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
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
였고 또 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
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11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
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
서 아시느니라.
12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
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
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 버리려 함이
라.
13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
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
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
니라.
15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
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
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못해 하는 자랑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
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
일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17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리석
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
며 말하노라.
18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
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우므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20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
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
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너희 얼굴
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서
든지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
거니와) 나도 담대하니라.
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
냐? 나도 그러하며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26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
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
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
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27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28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
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
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
타하지 아니하느냐?
30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
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31 영원무궁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
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
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
를 지켰으나
33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
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
노라.

제 12 장

바울의 셋째 하늘 환상

1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
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
들로 나아가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
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
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
니라.
5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
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
라.
6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
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바울의 육체의 가시

7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
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
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
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
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
니
9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
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
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
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
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
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
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
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사도의 표적들

11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
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
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
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
라.
12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
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
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
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
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바울의 교회 사랑

14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
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 두지 아니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
라.
15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
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16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
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
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의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
더냐?
18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
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
냐?
19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
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20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
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
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색욕을 회개
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제 13 장

마지막 권면과 인사

1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
이 확증되리라.
2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
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
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
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
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
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시며 우리
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5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
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
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
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
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
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

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
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
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
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
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
라.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
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1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
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
리라.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
하라.
13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
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
멘.

¶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갈 라 디 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서 유래되었다(1:1-2). 바울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디모데와 함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행16:6).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변덕이 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와 행위를 섞는 어리석은 일을 하려 하였다.
주제: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복음, 내용: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는 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와서 율법의 의식 법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으며(5:2; 6:12) 또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던졌다(1:1-12). 이에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고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묘사해서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에서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 선언서 혹은 대헌장'이라 할 수 있다. 루터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큰 영감과 위로를 받았다.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 3,08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 오직 믿음만이 칭의와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됨을 보여 주는 것
핵심 장: 3장(믿음에 의한 칭의), 핵심 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2:16)
핵심 단어: 자유, 핵심 구: "자유 안에 굳게 서라."(5:1)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1:4; 5:1)
영적 교훈: "자유와 권능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오라."

제 1 장

1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
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
아) 사도가 된 바울은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
노니*
3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
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
기를 원하노라. 아멘.
6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
를 받을지어다.
10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
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
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도로 부름 받음

11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
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
라.
12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13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
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14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
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
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
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17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
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
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18 그 뒤 삼 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
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와 함께 십오 일을 지냈으나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20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
로다.
21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22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
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3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24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제 2 장

복음의 변호

1 그 뒤 십사 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
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
렘에 올라갔노라.
2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
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
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달음질하는 것
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
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5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
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같이 여
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
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
는 것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 주지 아니하였느
니라.

7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
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8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
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9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
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
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
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10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11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
렀을 때에 그가 책망 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
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13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
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14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
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
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
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17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
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
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
느니라.
19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
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
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
이 죽으셨느니라.

제 3 장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
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
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
게 하더냐?
2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
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
으로 받았느냐?
3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
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4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
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5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
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6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
니라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
지어다.
8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
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
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
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
께 복을 받느니라.
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
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
니라.
11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
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12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
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
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
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
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
니라.
14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불변하는 약속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
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
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16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
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
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
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
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
셨느니라.

율법의 목적

19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
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20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
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
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22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
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
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
라.

아들과 상속자

23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
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
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
라.
24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25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
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
도다.
26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
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
들이 되었나니
27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
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
자니라.

제 4 장

1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
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2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
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3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
였느니라.
4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
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
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
나니
5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
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
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
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바울의 염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
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9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 당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
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
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
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
을 선포하였노라.
14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
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
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
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
다.
15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
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
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
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는도다.
18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
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19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20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
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두 언약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

니하느냐?
22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
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
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
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23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
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
았느니라.
24 그것들은 풍유니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 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
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
라.
27 기록된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
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
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28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29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
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
이 무어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
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
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
운 자의 아이니라.

제 5 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1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
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
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
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3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
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5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
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
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9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10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
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11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
리라.
12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
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
로 서로를 섬기라.
14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
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15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16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
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
라.
18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
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
정함과 색욕과
20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
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21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
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
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
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과 선함과 믿음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
적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
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26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
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
니라.

제 6 장

서로의 짐을 지라

1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
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2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
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4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
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
니
5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6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7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8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
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
명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
하신 때에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
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
라.

십자가만을 자랑함

11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
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
다.
12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
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
13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
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
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14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

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16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
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
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
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에 베 소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며 동서 무역이 활발해서 윤택했고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행19:1－8). 이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대인들도 더러 있었다. 바울은 사역을 잘 완수하였으나(행19; 20:17－38) 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주제: 교회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마땅한 행위, 목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고 사도는 자신이 회심시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굳건히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나 신전을 늘 접하던 그곳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이 모퉁잇돌이 되는 건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중요함을 보여 줄 필요를 느낀 사도는 건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잘 묘사한다(2:19－22). 에베소서는 은혜,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과 용서, 효능이 넘치는 은혜의 능력에 의한 회심,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의 신비, 성도들의 생활 등과 같이 중요한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에베소서는 6장, 155절, 3,02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핵심 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1:3)
핵심 단어: 충만함(3:19; 4:13; 5:18)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2:6)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1:22; 5:23)
영적 교훈: “삶의 충만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라.”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
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
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
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4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셨으며
5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
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
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
도다.

8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
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
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10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
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
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
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
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12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
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
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

15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
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16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
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
고
18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
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
이 얼마나 풍성하며
19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21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
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22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
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제 2 장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음

1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
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
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
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
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
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
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
느니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7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라.
10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
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
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됨

11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
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
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
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
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13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
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15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
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16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
심이라.
17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
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
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18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
*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
나니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
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20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
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시나
니
21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
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
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
니라.

제 3 장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신비

1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
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말하노니*
2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3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
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4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5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
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
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
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7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
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8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
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

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
데 선포하게 하고
9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
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
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
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
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1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
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
이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

14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15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
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
니*
16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
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
락하시며
17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
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19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
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
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20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21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
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
노라. 아멘.

제 4 장

하나 됨 안에서 걸으라

1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2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
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3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5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
며
6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영적인 선물

7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
느니라.
9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
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
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

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
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
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
니
14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
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
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
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
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
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새 사람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
한 것을 행하였으되
20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
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
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
침을 받았으니*
23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
게 되라.
24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5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
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
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26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
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
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
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29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
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
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
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
신 것 같이 하라.

제 5 장

사랑 안에서 걸으라

1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
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3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
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4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
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

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
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
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
도 받지 못하느니라.
6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
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
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
하나니
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
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
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서 걸으라.
9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10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
인지 입증하라.
11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
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
라.
12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
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
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지혜 안에서 걸으라

15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
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16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
니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
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9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
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20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2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
로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22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
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
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
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
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
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
라.
26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
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
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
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29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
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
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
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
라.
31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
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
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
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
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
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제 6 장

부모와 자녀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3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하게 하려 함이라.
4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
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
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인과 종

5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
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
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
하여
7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
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
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9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
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
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
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10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11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
주를 입으라.
12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
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
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
니라.
13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
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
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15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
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
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19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
요,
21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
게 알리리라.
22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
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
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
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 립 보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실질적인 기독교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빌립보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교회를 설립하였다(행16:11-40).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었으며 유대인들도 더러 있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일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앞섰다. 사도는 후에 이곳을 두 번 더 방문하였다(행20:1-2, 6).
주제: 우리의 생명, 본, 목표,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목적: 신자의 경험이 외부 상황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신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빌립보 교회에는 가난하고 핍박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논쟁에 빠지려 하는 사람들과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가 돌아갈 때에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 편지에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사도의 애정과 로마 감옥에서의 그의 행적이 묘사되어 있다. 그들이 자기를 격려하고 지원한 것에 감사하며 사도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의 핍박을 보면서 소망을 주고 또 모세와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접목시키려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준다. 빌립보서는 4장, 104절, 2,18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성도들의 본이신 그리스도), 핵심 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2:5), 핵심 단어: 기쁨 , 핵심 구: "항상 주를 기뻐하라."(4:4)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신 주님(4:13), 영적 교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
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
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감사와 간구

3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4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
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5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
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
노라.
7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
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
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
한 자들이니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
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
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
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10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
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선포함

12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
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
노라.
13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14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의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
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5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
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16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
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17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
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
구하고 겉치레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
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
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19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
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21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22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
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
니
23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
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
라.
25 이같이 확신하므로 너희의 믿
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
니
26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
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
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7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
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마
음으로 함께 싸우며
28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
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
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
님에게서 났느니라.
29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
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
니
30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
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제 2 장

겸손을 통해 하나 될 것을 촉구함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2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3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
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4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
라.

그리스도의 겸손

5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6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
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10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
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
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
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
라.
13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
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라.
14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
이 할지니
15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
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
로 빛나며
16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
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17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
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
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
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디모데를 칭찬함

19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
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
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20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
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21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
지 아니하되
22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
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23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
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24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함

25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
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
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
노라.
26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
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27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
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
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느니라.
29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
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30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
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
라.

제 3 장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
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
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을 조심
하라.
3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
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
라.
4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
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5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
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8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
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
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라.
10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11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목표를 향해 질주함

12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
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
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
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
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
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15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성도들의 생활 방식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
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
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
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

라.
19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
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20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
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
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
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
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
라.

제 4 장

권면

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
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2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
두게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
라.
3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네게도 간절
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
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
느니라.
4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
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
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7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
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
라.
9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리라.

빌립보 사람들의 후한 선물

10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
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
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지 아니
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
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
노라.
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
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
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
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
니라.
16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17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
를 바라노라.
18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
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

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19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
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20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
라.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
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
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
들이 문안하느니라.
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
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골 로 새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2). 골로새는 부루기아의 평범한 도시였으나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아 이곳의 교회는 믿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1:4–7). 아마도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한 결과 에바브라 등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1:19),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도는 골로새의 에바브라 목사의 방문을 통해 그곳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았고 또 오네시모에 관하여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글을 써야 했으므로 이 서신과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두기고를 통해 그곳으로 보내었다. 사도는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할례, 신비주의, 금욕을 통한 구원, 천사 숭배 등의 잘못된 풍습과 가르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을 담은 본 서신을 기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됨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1:18).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 충분하심, 우월성을 다루며 2장은 거짓 교사들을 향한 변증을 담고 있고 3, 4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기도 요청을 담고 있다. 골로새서는 4장, 95절, 1,97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내주하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2:9), 핵심 단어: 충만함
핵심 구: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
영적 교훈: “그리스도 곧 만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
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
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
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4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
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5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
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7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
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
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
요,
8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 준 자니라.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9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
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10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
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서 자라나고
11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
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
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12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를 원하였노라.
13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
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
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
다.
15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16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
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
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
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17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
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
아 존재하느니라.
18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
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룸

19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
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
니라.
21 한 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
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22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
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사역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
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
이니라.
26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
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
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27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28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
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
자 함이니라.
29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
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제 2 장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2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
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
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
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3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
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
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
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7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
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8 어떤 사람이 철학(哲學)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
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
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9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
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10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11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12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
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13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
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
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
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5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
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
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
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17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
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
느니라.
18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
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
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20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
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
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規例)들에 복종하
느냐?
21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
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
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
리들에 따른 것이라.
23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
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제 3 장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
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
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3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
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
느니라.
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
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7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
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8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
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9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
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11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
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
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
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13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
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
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
께 노래하고
17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
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인 가정

18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
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19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
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
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
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
려하노라.

주인과 종

22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
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
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
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23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
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
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
스도를 섬기느니라.
25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
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
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제 4 장

1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
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권면

2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3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
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
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
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4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5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
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6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
야 할지 알게 되리라.
7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
게 밝히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8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
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
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
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
라.
10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
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
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
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
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12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
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
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
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13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
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14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
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
라.
16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
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
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
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18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
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
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
노라. 아멘.

¶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
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데 살 로 니 가 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3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며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설립했으며(행17:1－10)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함으로 박해를 받았다(행17:7). 사도 또한 그 일로 인해 결국 도시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
주제: 진노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목적: 성도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내용: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 왔으며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호한 뒤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 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델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였는데 이 교회는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순전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그는 그들의 선택, 성령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등을 가르쳤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 89절, 1,83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4장(휴거), 핵심 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1:10), 핵심 단어: 그리스도의 오심,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시 오신다.”

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
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
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본

2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
께 감사드림은
3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
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
문이니
4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5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
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
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
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
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

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
라.
9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
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
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
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
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제 2 장

바울의 사역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
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
이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
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
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
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4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
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
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
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
님께서 증인이시니라.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
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
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
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
였고
7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
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
라.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
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
희 중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
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
노라.
10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
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
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
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
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
였노니
12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13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
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
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
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14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
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
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
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
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16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
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 원함

17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
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
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18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
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
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
희의 관(冠)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이니라.

제 3 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

1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3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
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
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
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5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
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6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
게 가져왔으니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
를 받았노라.
8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10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
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
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
라.

교회를 위한 기도

11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
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
기를 원하며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
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13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제 4 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1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
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2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
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4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6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
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
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
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
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8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
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
하느니라.
9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
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10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
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
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
이 하고
11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
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

13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
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
하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
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
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
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
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
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라.
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
로하라.

제 5 장

주의 날

1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
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
가 없나니
2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
고 말할 그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
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
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
이 피하지 못하리라.
4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5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
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
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
자.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
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8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
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
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도록 정하셨느니라.
10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
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
라.
11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
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권면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
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
계하는 자들을 알고
13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
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14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
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15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20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21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
을 굳게 붙들라.
22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23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
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
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
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
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
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
라.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들에게 인사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
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 주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데 살 로 니 가 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4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
수신자, 이름: 데살로니가전서 참조
주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목적: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의 관계를 바로 알려 주는 것
내용: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사도는 이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 먼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주고 주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며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때의 세상 풍조 등을 잘 보여 준다.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 47절, 1,02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그리스도의 날과 죄의 사람)
핵심 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2:13)
핵심 단어: 기다리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후서의 그리스도: 속히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깨어서 일하라."

제 1 장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
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에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
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
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4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
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
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
노라.
5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
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
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6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
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
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8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
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9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
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

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
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11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
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12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 2 장

주의 재림 상황

1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
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
에게 간청하노니
2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
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
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
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4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
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
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
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5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6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7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
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8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9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
들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
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
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라.
11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
을 믿게 하시리니
12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굳건히 서라

13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
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
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14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
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
느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
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16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
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
기를 원하노라.

제 3 장

기도 요청

1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
게 되고
2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
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
라.
3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
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4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
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
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
라.

게으름에 대한 경고

6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
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
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7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
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
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
였고
8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
였으며 너희 중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
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9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
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
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
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11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
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
다 하는도다.
12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
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
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13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
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14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
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15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
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16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
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17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
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
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디 모 데 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디모데에게서 유래되었다(1:2).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다(행14:5-6).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기독교로 회심하여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왔다가 사역을 위해 그에게 할례를 주고 그를 데리고 떠났다.
주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가르침과 행동, 목적: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안내와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게 하는 것
내용: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를 사역자로 남겨 두고 떠났으며 후에 이 젊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조언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글을 기록하였다. 사도는 그에게 자기의 교리와 생활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사도는 교회의 유일한 두 직분인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 가르치고 과부를 돌보며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목사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도는 목사들을 위한 모델로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성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디모데전서는 6장, 113절, 2,24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율법주의와 거짓 가르침을 책망함), 핵심 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3:15)
핵심 단어: 명하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영적 교훈: “복음을 수호하라.”

제 1 장

1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
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은
2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
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
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
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라.

다른 교리는 없다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
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
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
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
지 못하게 하며
4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
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
지니라.
5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
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8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

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9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
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10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
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
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
졌느니라*.
11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
음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
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
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13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
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
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
도록 풍성하였도다.
15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
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
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
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16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
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
니라.
17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
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
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
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
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중에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
하게 하려 함이라.

제 2 장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1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
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2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
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
라.
3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니라.
4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라.
5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
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6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
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7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
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
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
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

8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
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

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
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10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
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11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
용히 배울지니라.
12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14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
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
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제 3 장

감독의 자격

1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
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
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3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
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
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
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
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야 할 것이며
5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
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6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
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
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집사의 자격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
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9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10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
하게 할지니라.
11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
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
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
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지니라.
13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
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14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노라.
15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
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
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의 기둥과 터니라.
16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
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
을 받으셨느니라.

제 4 장

말세의 징조
1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
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
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
데
2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
이라.
3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
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4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
도 없나니
5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
6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
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
라.
7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
며 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
련하라.
8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
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9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
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10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
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11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12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
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13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
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14 네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
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네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15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네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
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
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제 5 장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
1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
제처럼 대하고
2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
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
럼 대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
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
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6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었느니라.
7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 받
을 것이 없게 하라.
8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9 육십 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
로서

10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
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혹은 고난 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
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11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
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
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12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
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
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14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
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16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
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
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로들을 존경하라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
니라.

18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
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20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
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
게 하라.

21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와 선택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
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
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
라.

22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
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네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23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
을 조금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
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
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25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
라.

제 6 장

주인을 존경하라

1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
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
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
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
치고 권면하라.

오류와 탐욕

3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
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
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
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
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5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
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
라.

6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

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
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
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9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
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10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
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선한 고백

11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
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
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13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
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14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
라.
15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
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 받으
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
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16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
노라. 아멘.

부자들에 대한 권면

17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18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
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
이 나누어 주게 하라.
19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
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
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거짓 과학에 대한 경고

20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
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
을 지키라.
21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
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
멘.

¶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브루기아 파카티아나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 라오디게아에서 써서 보내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디 모 데 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이름: 디모데전서 참조, 주제: 말세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위,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여 주는 것
내용: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 주고 디모데가 자기를 방문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할 것을 촉구하며 복음을 위해 늘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쳤다. 또한 말세에 있을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의 특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끝으로 그가 속히 로마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했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사적인 서신으로서 25명의 인물이 이 안에서 언급된다. 서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도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어둡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승리와(4:17) 죽음을 앞둔 사도 자신의 확신에 찬 소망이 담겨 있다(4:6－8). 디모데후서는 4장, 83절, 1,66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신자의 배도의 근원), 핵심 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2:15), 핵심 단어: 명하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자(4:1)
영적 교훈: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제 1 장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
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은
2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
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의 믿음과 유산

3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4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5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
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
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
노라.
6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
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
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
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8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
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
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
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10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
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
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

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12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
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
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
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1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
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네가 알거니
와 그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
니라.
16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
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였으며
17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
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
느니라.
18 주께서 그 날에 그가 주의 긍휼
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
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
한 자가 되고
2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
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4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
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
게 하려 함이라.
5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6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7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
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네게 깨달음
을 주시기 원하노라.
8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
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
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9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선택 받은 자들
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
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11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
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12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
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
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
리라.
13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14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
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
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6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

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17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중에 후메내오와 빌레
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
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
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
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
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
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
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20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21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
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
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
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들을 피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것들
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4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
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
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
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26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제 3 장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1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
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
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
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
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
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4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
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
에게서 돌아서라.
6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
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
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7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8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
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
라.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
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
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10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
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
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 냈는
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 내셨느니
라.
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13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14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
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
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
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
지게 하려 함이라.

제 4 장

복음을 선포하라
1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
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
니
2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3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
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4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
라.
6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8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
(冠)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
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 주시리라.

부탁과 경계의 말
9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10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
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
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
마디아로 갔으며
11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
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
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
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
라.
15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
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
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께 기도하노라.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
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
에서 구출되었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
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

보로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
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
겨 두었노라.
21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불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
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네게 인사하
느니라.
2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
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
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디 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디도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디도에게서 유래되었다(1:4). 디도는 바울이 초기에 회심시킨 사람으로 공통된 믿음을 따라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사람이다. 디도는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 같은 크레테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다. 주제: 성도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
목적: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는 것
내용: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크레테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행2:5, 11). 사도는 크레테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보내어 모든 일을 정돈하고 모든 도시에 장로 곧 목사를 임명하게 하였다. 디도서에서 사도는 목사의 자격과 교회가 목사를 선임하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 주며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그들의 이단 교리를 부수고 또 율법에 관한 논쟁으로 발생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피하라고 조언을 준다. 끝으로 사도는 크레테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해 말한다. 디도서는 3장, 46절, 89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교리와 행위를 위한 지침 사항)
핵심 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1:5), 핵심 단어: 유익한 것,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디도서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3:4, 6)
영적 교훈: "모든 일을 정돈하고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제 1 장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
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
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2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
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3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
내셨느니라.
4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
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
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
를 원하노라.

장로 곧 감독의 임명과 자격

5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
에 남겨 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
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
게 하려 함이니라.
6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
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
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8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
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
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
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10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
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
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11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
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
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
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12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
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
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14 유대인들의 꾸며 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
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라.
15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
럽혀져 있느니라.
16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
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
라.

제 2 장

건전한 교회 성도들의 태도

1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2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
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
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3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
는 자가 되게 하라.
4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
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
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5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
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
리라.
6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
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7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
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8 비난 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
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
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9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
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
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게
하며
10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
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

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
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
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
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
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
셨느니라.

14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
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
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라.
15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
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
기지 못하게 하라.

제 3 장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라

1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
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
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
게 하라.
3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
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4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
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
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
심으로 하셨고
6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7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
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
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
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
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
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
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10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
에 거절하라.
11 네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
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부탁과 인사

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
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
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
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3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
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
한 것이 없게 하라.
14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
요한 용도를 채워 주기 위해 선한 행위
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게 문안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
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
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
라. 아멘.

¶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
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
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내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빌 레 몬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개인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빌레몬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빌레몬에게서 유래되었다(1:1, 4). '사랑이 많은 자'를 뜻하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재산이 많았으며 압비아와 아킵보가 그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2).
주제: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 목적: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
내용: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의 복음 선포로 회심하였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가 그를 친절히 대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삼분의 일 이상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자기의 협력자로 두고 싶었으나 먼저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도는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간곡하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한다. 빌레몬서는 1장, 25절, 430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16), 핵심 단어: 받아들이라,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시는 주님
영적 교훈: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

1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
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2 우리가 사랑하는 압비아와 우리
의 동료 군사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
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4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5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은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
여 듣기 때문이라.
6 *또 내가 그리함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
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
라.
7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
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
리는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오네시모를 위한 청원

8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네게 명할
수도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네게 간청
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10 내가 결박(結縛) 중에 낳은 나
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
하노라.
11 그가 지나간 때에는 네게 무익
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므
로
12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
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13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14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
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15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
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16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
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
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18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19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
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 외에 네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
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20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
므로 네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을 아노라.
22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 확신하
노라.
2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
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네게 문안하
며
24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
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
멘.

¶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
네시모 편에 보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 브 리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6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같은 저자가 기록한 히브리서는 동일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 선포한다. 주제: 유대교의 인물이나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 주고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 내용: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대인 교사들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 하였다. 이에 사도는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가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의 모든 희생물보다 우월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도는 율법의 신비를 아는 것과 그 안의 의식 법들이 제정된 목적과 용례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실체가 옴으로써 완전히 폐기된 것 등을 논리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사도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사도는 구약시대 영웅들의 믿음 열전을 보여 주며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지만 히브리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히브리서는 13장, 303절, 6,89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9, 11장(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핵심 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1:3), 핵심 단어: 더 나은(13회), 단 한 번(9회), 하늘(15회), 핵심 구: "더 나은 상속 언약", 히브리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제 1 장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

1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
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
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
셨느니라.
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
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
라.
4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
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
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
이라.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

5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의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
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
게 경배하라, 하시고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
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
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
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8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
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笏)은 의의 홀이니이
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
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10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11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12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
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
는 동일하시고 주의 햇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13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의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
는 영들이 아니냐?

제 2 장

큰 구원을 멸시하지 말라

1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
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려 함이라.
2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
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3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
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
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4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
언하셨느니라.

아들이 천사들보다 낮게 됨

5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
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6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를 찾아오시나이까?
7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
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
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8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
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
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9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
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
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
려 하심이라.

아들이 천사들보다 낮게 된 이유

10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
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
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
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
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
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13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
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
라.
14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
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
이라.
16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
다.
17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
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
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18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
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
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제 3 장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

1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
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2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
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3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4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5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
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
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7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
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
든
8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
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9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
하여 입증하고 사십 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
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11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
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
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12 형제들아, 너희 중의 어떤 사람
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
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13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
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의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14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
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광야에서 믿음 없이 행한 자들

15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16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
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17 그러면 사십 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
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
냐?
18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
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
니한 자들이 아니냐?
19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제 4 장

안식의 약속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
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
노라.
2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
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
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3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
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
라.
4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
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
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5 또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
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
지 못하였으므로
7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
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
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
다.
8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
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10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
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의도를 분별함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
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
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
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13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
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위대하신 대제사장

14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
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
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
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
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
라.

제 5 장

대제사장의 자격

1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
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
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2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
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
라.
3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
니라.
4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
라.

영원한 대제사장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
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
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되게 하셨느니라*.
6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
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
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7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
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
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
셨느니라.
8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
기를 배우사
9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
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10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
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12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
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
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13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
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
니라.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
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제 6 장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
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2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
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
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
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6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
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
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7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
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
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

와
8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
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9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
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 준 너희
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
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11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
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12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약속

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셨을 때에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
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
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16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
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
니라.
17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
을 더욱 풍성히 보여 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써 확증하셨나니
18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
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20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
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제 7 장

의와 화평의 왕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
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
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2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십분의 일
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
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3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
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
라.
4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
함도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
사장 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
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
라 그들에게서 십일조를 취하라는 명
령을 받으나
6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7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
라.
8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십일
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 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9 또 나는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십일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10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다른 제사장의 필요성

11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
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
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
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12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
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3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
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14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
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
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15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 더
분명하도다.
16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17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
장이라, 하시느니라.
18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
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
하여졌도다.
19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
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
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새 제사장의 위대함

20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
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21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
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
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
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
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24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
라.
25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
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26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
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
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
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
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27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
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
셨기 때문이라.
28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
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무궁
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
으로 삼느니라.

제 8 장

새 제사장 체계에서의 섬김

1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
편에 앉아 계시며
2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
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
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4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
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
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5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
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 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
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6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
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
시니라.

새 언약

7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
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
와
8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
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
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
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
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
노라.
10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
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1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
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12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
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
라, 하시느니라.
13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
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
은 곧 사라지리라.

제 9 장

땅의 성소

1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
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2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 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3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
소라 불리느니라.
4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
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
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었
으며
5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매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
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7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
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8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
여 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라.

9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
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
며
10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
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
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하늘의 성막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
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을 통해 *오셔서*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3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
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
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15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
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
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 중재자의 죽음의 필요성

16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17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
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18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
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19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
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
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
였고
21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
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함

23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
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
로 하여야 할지니라.
24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
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
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25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
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26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
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
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
라.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
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
니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
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제 10 장

짐승의 희생은 불완전함

1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

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
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
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
느냐?
3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
니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

5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
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
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6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
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7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
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
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8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
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
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라.
9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
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
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
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함

11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
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
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
와
12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의 오른편에 앉으사
13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
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라.
14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
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
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15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16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
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
라, 하신 뒤에
17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
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
셨느니라.
18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
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
니라.

굳건히 서라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
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
는데
20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
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22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
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23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
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
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6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
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
하고
27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28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
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
라.
30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
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
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32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
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이전
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33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
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
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34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
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35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
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
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
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37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
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
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
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게 속하느니라.

제 11 장

믿음의 정의

1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
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
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
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
라.

율법 이전: 창세 초기의 믿음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
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
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
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
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
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
라.
6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

어야 하느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
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
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
었느니라.

율법 이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
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
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9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
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
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
으니
10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
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
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1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
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
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
하였기 때문이라.
12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
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13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
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
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
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14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
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15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16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
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율법 이전: 족장들의 믿음

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
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
라.
18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9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
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
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20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
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
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
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
라.

율법 이후: 모세의 믿음

23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
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였느니라.
24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
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
는 것을 거절하고
25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
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26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27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
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
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28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
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
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
고

율법 이후: 믿음의 사람들

30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
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31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
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
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
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33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
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
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
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
치기도 하며
35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36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
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37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
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
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38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
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
니라.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관계

39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
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40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12 장

믿음의 경주

1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
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
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
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3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
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
려 함이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
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5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
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
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7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
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
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8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
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
요 아들이 아니니라.

9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
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
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10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
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
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
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
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
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영적 활력을 회복하라

12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
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
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
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
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16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
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
게 하려 함이라.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
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
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영광스러운 무리들

18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
과 어둠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
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20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
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21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
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23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
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24 새 언약(言約)의 중재자이신 예
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
라.
25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
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
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
리로다.
26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
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
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27 또, 아직 한 번 더, 라는 이 말씀
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 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
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
여 주나니
28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
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
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
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
시니라.

제 13 장

권면과 지시
1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2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
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3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
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4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
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
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5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
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
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
니하리라, 하노라.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
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
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
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
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
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11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
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
르나니
1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
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
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
라.
13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14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15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
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
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
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
라.
16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
라.
17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
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
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
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기도 요청
18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
라.
19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
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20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2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
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
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
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23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24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5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야고보의 일반서신

야 고 보 서

기록자: 야고보, 기록 시기: 주후 45년경, 성격: 실제적인 교훈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유래되었다(1:1).
주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과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2:14),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특성을 보여 주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것
내용: 야고보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친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적인 생활지침서이다.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권면한다. 또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악한 행습을 지적하고 그들의 위선을 비판한다. 그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증하며 그래서 어떤 이는 야고보서를 신약성경의 잠언이라 부른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야고보서는 5장, 108절, 2,30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믿음의 시험), 핵심 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2:26), 핵심 단어: 행위
핵심 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영적 교훈: "삶에서 믿음을 입증하라."

제 1 장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에게 인사하노라.

시험의 유익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3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
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4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
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
시리라.
6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
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7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9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
진 것을 기뻐하고
10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
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11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
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

12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

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
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의 관(冠)을 받으리라.
13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
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
을 받나니
15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
라.
16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
을 범하지 말라.
17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
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18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
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요건

19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
기는 더디 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
하라.
20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
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
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24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
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25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
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26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
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27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
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
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
니라.

제 2 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
올 때에
3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
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4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
느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
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
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
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
셨느냐?
6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
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
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
냐?
8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
와
9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
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
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
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
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
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13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
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14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
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
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
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
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
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
냐?
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
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18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
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
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19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
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
느니라.
20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
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
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
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
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
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
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24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
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
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25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
하였느냐?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제 3 장

허를 조심하라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
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2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
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
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
라.
3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4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
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
라.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6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
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7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8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
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9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
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을 저주하느니라.
10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
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11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
을 내느냐?
12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
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
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13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
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
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
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
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
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
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
라.
17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
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18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
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제 4 장

바르게 구하라

1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
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
니하느냐?
2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
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
기 때문이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
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
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5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
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
각하느냐?
6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
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
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
느니라, 하시느니라.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
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에게서 도망하리라.
8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
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
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
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9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
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
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
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

시리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
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
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
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12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
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
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
하는 너는 누구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13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
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14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
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
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15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
나
16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17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
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제 5 장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1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
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2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
은 좀먹었으며
3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
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 쳐서
숨겨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
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
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
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
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
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
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
오고 있느니라.
9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
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10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
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
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
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
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
라.
12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
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것
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기도

13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
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
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

할지어다.
14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
을 용서받으리라.
16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
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
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
라.
19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20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베드로의 첫째 일반서신

베 드 로 전 서

기록자: 베드로,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일반서신
수신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베드로에게서 유래되었다(1:1).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그의 성으로 조그만 돌을 뜻한다(요1:42). 그는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며 겁이 많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양들을 맡은 이후로(요21:15-18)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주제: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길
목적: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임할 때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내용: 로마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불 같은 시험을 당했다. 그때에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녔고 이에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베드로는 먼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의 은혜를 말하고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다. 베드로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하는 베드로전서는 5장, 105절, 2,47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확신과 약속), 핵심 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1:6-7), 핵심 단어: 고난을 받다(15회)
핵심 구: "순례자와 나그네",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어린양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귀중하시다."(2:7)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상속 유업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5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6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7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8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9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라.
10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
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
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
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
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
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
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
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
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거룩하라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
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
어다.
14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
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
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16 기록된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17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
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
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
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
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
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로 된 것이니라.
20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
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
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21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
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2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
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
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23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라.
2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
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
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제 2 장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

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
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
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
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5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
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
다.
6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
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
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
7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
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
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되었나니 그
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
니라.
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
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
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
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
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세상에서 바르게 살라

11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
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
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12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
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
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14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
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15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
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
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
라.
16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
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17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
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
을 존경하라.
18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
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들에게도 그리하라.
19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20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
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
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본

21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
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2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
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
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
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
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
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
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

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제 3 장

남편과 아내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
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
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2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땋고 금으
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
니라.
5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
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
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
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
라.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
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
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음

8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바르게 행하라.
9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
게 하려 함이니라.
10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
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
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
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11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
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
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13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
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
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
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
하지도 말며
15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
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
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
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
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
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1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
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
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
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19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
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
하셨는데
20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
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
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
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21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22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
니라.

제 4 장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
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2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3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
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
에게 족하도다.
4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
과 함께 달음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
며 너희를 비방하나
5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계 보고
를 하리라.
6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
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
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7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
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
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
으리라.
9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10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
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
라.
11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
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
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
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
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
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
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
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
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
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15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
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라.
16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
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라.
17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
지막은 어떠하겠느냐?
18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

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제 5 장

장로들을 향한 권면

1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
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3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
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
의 관(冠)을 받으리라.

젊은이들을 위한 권면

5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
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
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
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
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
라.
7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
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
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
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
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
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
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11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
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2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노 편에 내가 간
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
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13 너희와 함께 선택 받은 바빌론
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
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의 둘째 일반서신

베 드 로 후 서

기록자: 베드로, 기록 시기: 주후 66년경, 성격: 일반서신, 수신자, 이름: 베드로전서 참조, 주제: 마지막 일들 – 영원한 왕국, 재림, 사악한 자들의 심판, 주의 날,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게 하는 것(3:18)
내용: 이 서신은 베드로의 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성도들이 은혜와 영적 지식에서 자랄 것을 촉구하고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경고를 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소망을 말해 주고 성도들이 믿는 바를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권면한다. 베드로후서는 3장, 61절, 1,553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핵심 절: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3:2), 핵심 단어: 아는 것, 핵심 구: "하나님을 아는 것"(1:2)
베드로후서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3:18)
영적 교훈: "명령을 명심하고 자라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
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
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
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
다.
4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
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
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
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라

5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
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8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
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9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
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
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11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
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
라.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함

12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
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
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
라.
13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
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

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15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
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16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
에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17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
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
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
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
광을 받으셨느니라.
18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
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
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
는 것이니라.
20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21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
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
니라.

제 2 장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
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
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
오리라.
2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
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
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
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
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5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
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
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6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
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
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8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
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9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10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
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
와
11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
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
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
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13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므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
과 흠이요,
14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
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
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15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
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
였으나
16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들임

17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
나니
18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꾀어내느니
라.
19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
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20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
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
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21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
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
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22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
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제 3 장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
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2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
려 함이라.
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
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
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
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
라, 하리니
5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
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
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
느니라.
6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
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
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
라.
8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
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
시느니라.

주의 날
10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
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
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1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
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
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
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12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
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
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
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굳건히 서라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
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
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
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
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
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
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
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
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
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
도록 주의하라.
18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
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의 첫째 일반서신

요 한 일 서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일반서신
수신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이름: 요한복음 참조
주제: 하나님의 가족,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 줌으로써(1:3)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5:11–13)
내용: 만년의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내 어린 자녀'라고 부른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는 성도의 기쁨을 강조한다. 특히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영지주의가 널리 파급되었으므로 그는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교리적인 안내 지침을 준다(4:1–2). 그는 성도들 안에 죄가 없다는 것과 성도들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강하게 정죄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를 강하게 논박한다(5:7). 요한일서는 5장, 105절, 2,51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장(이기는 믿음), 핵심 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5:13), 핵심 단어: 교제
핵심 구: "우리가 말하면", 요한일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5:20)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제 1 장

생명의 말씀

1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
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2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
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
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
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4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제

5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
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6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
니라.
7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
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8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
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
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
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
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
라.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

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
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 2 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시험하는 방법

1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
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
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
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라.
3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
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
가 아느니라.
4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
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6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
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7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
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
라.
8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
니라.
9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
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11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
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성도들의 영적 상태

12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
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
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
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14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
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
지 아니하니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서 나느니라.
17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
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마지막 때의 속임수

18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
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
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
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
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
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
이니라.
20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
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
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
라.
22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
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
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
지 안에 거하리라.
25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
라.
26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
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
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
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

28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
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게 하려 함이라.
29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
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
서 난 줄을 아느니라.

제 3 장

서로 사랑하라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
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
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4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
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니라.
5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
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6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도 못하였느니라.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7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
며
8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
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9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
을 수 없느니라.
10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
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
하지 아니하느니라.
11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
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12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
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13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
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
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
라.
15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
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
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라

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
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
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
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
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20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
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
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
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22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
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23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
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24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
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
라.

제 4 장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
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
왔기 때문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
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
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
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4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
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
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
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봄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
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
이시기 때문이라.
9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
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1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
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
에 사랑이 있느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2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
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13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4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
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
하노니
15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
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
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
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
라.
18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
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
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라.
20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
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
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
할 수 있으리요?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제 5 장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

1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
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
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
니
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
니라.
4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
라.
5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증언은 확실함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
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
느니라.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
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
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
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는 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
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
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
가 믿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확신

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
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16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
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
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
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
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
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
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
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18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
키므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19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20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
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
시니라.
21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
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요한의 둘째 서신

요 한 이 서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가족 서신
수신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인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 이름: 요한복음 참조
주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목적: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내용: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고한다. 요한이서는 1장, 13절, 29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6)
핵심 단어: 사랑하라, 핵심 구: "교리에 거하라."
요한이서의 그리스도: 진리(1, 2), 영적 교훈: "진리를 보존하라."

1 장로는 선택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2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
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
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진리 안에서 걸으라

4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
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5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네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네게 간청하노라.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7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
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
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
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
스도니라.
8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
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
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9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
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10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
라.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
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
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
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
이라.
13 너의 선택 받은 자매의 자녀들
이 네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요한의 셋째 서신

요 한 삼 서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개인적인 서신
수신자: 가이오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 이름: 요한복음 참조, 주제: 겸손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임을 보여 주고 사역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 내용: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보내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을 지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를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 요한삼서는 1장, 14절, 29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4), 핵심 단어: 진리, 핵심 구: "선한 것을 따르라.", 요한삼서의 그리스도: 합당한 이름을 지니신 주님(7),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1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3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
노라.
4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이 없도다.

가이오를 칭찬함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
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
하리라.
7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
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9 내가 교회(敎會)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
니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
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
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
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
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
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
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
니라.
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
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
라.
13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네게는 잉
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14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
라. 네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
하라.

유다의 일반서신

유 다 서

기록자: 유다, 기록 시기: 주후 67년경, 성격: 일반서신, 수신자: 하나님의 모든 성도,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유다에게서 유래되었다(1).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주제: 배도의 때에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목적: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하는 것
내용: 유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구원에 관하여 기록하려 했으나 성령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원했다. 그래서 유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구약성경의 배도의 예를 보여 준다. 그는 짧은 서신에서 삼위일체, 구약성경의 확실성,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그의 권능,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유다서는 1장, 25절, 60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24)
핵심 단어: 보존되다, 핵심 구: "힘써 싸우라."(3), 유다서의 그리스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25),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위해 싸우라

3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
를 느꼈노니
4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定罪)를 받도록 옛적
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
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
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라.

과거의 배도한 자들

5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
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
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
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
데
7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
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
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
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8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
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
하는도다.
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10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11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
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
하였도다.
12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
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13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14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
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
께 오시나니
15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
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
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
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앞으로 있을 배도자들

17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19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
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20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
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
리라.
22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
쌍히 여기고
23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
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
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24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
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
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25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
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요 한 계 시 록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성격: 예언
수신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
이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기록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 주었다.
주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요5:22, 27)
목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탄의 최종 종착지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 주는 것
내용: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의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또 미지근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 이 책은 또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성취를 보여 주고 특히 창세기와 함께 완전하게 진리의 사이클을 구성한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면서 (1:19) 먼저 그리스도의 환상(1장), 교회의 심판(2–3장),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난기(4–19장), 천년왕국 (20:1–6),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20:7–15),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21–22장)을 차례대로 기록한다.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 11,95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9장(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1:19)
핵심 단어: 이기다(2:7, 11, 17, 26; 3:5, 12, 21),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다(요일5:5)
핵심 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2:7), 계시록의 그리스도: 살아 계셔서 승리하시는 주님(1:18), 영적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라."(1:3)

제 1 장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 주시니
2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3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일곱 교회에 인사함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
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
멘.
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
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
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
라.

사람의 아들의 환상

9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
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
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
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10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
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12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13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
르고 계시더라.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15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
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
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17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
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
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
요 마지막이니
18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
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
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19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
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20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
라.

제 2 장

첫 사랑을 잃은 교회

1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
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
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3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
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5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
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
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
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
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
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핍박 받는 교회

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있는 이가 이것들
을 말하노라.
9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
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
을 아노라.
10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의 어
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
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
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
리라.

타협하는 교회

12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3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
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
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
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
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16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
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
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
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패한 교회

18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
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들을 말하노라.
19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
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
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
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21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
하지 아니하였도다.
22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
며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
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24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
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25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26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
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27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
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
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
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
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
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제 3 장

죽은 교회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
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
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
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2 깨어서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
였나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
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
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
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
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
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5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신실한 교회

7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
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
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
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8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
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
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
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
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열심을 잃은 교회

14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
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
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
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
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
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
니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
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
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
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
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
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
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
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제 4 장

하늘의 왕좌

1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
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2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3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
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4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
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5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
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
님의 일곱 영이라.
6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
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
라.
7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
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
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8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
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
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
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
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9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10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
(冠)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11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
었나이다, 하더라.

제 5 장

어린양이 책을 취함

1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2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
냐? 하되
3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
다보지 못하더라.
4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
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5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이르
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
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
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
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
라.
7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
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
라.
8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金甁)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
들의 기도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
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
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
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1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
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
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
라.
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
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
라.

제 6 장

일곱 봉인 심판

1 내가 보매 어린양께서 그 봉인들
중의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의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
라.
2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3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4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
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5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
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
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
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일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
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7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
되, 와서 보라, 하더라.
8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
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
더라. 그들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
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9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

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
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
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
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
더라.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
더라.
12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
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
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
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
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16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
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
를 숨기라.
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
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제 7 장

하나님의 인(印)을 받는 유대인들

1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내가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
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
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
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
라.
5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
가 만 이천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
가 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
된 자가 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8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이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

9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
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
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10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
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11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
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
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
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응답하

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
서 왔느냐? 하매
14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
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
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16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
하리니
17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양
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 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제 8 장

일곱째 봉인

1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2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4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
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
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5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 심판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며
9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지더라.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
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11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
라. 그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삼분의 일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13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
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제 9 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
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2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
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3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4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5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
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6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
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
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
에는 금과 같은 관(冠)이 있으며 그것
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9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
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
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
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
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없는 구덩
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
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는 아폴리
온이니라.
12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
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
둔 네 천사를 풀어 주라, 하더라.
15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16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이억
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
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
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
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
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
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
라.
20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
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
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
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21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
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
하더라.

제 10 장

힘센 천사와 작은 책

1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
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
둥 같더라.
2 그가 펴 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
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
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4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
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6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
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7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 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
에
9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
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
라, 하니라.
10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
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
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
더라.

제 11 장

두 증인

1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
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
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
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4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5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
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
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6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
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
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
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
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
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에 바닥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
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8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
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
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
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
다.
10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
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
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
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시므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
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
이 임하더라.
12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
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

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
라보더라.
13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의 칠천 명이 죽었
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나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됨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
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
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
니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
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
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18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
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
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
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
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
라.
19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 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 12 장

여자와 사내아이와 용

1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관이 있더라.
2 그녀가 아이를 배어 해산의 고통
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고 진통을 겪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관이 있으며
4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
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5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
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
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
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

7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
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
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
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
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
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났도다.
11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
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
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
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여자를 핍박함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
15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
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
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
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
라.

제 13 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
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
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
게 주었더라.
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의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
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
더라.
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
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
더라.
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
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
았으므로
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
다.
10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
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1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
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13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
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14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
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15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
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
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
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
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제 14 장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
1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양
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2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
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3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
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
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외
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
들이니라. 이들은 어린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 잘못이 없도다.

세 천사의 선포
6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
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
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
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
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
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
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
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
이라, 하더라.
9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10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
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
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
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12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
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
라, 하더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
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
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땅을 수확함
14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

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
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
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
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
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18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
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
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
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
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
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
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
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
나 퍼졌더라.

제 15 장

일곱 병 심판의 도입부

1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
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2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
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
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
롭고 참되나이다.
4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
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
로 모든 민족들이 나아와 주 앞에 경배
하리이다, 하더라.
5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
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7 네 짐승들 중의 하나가 영원무궁
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金瓶)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8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제 16 장

일곱 병 심판

1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
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2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데가 생기더
라.
3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
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4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
들이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
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6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
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
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
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
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
라.
8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9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
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
리지 아니하더라.
10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
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11 또 자기의 아픔과 헌데로 인하
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
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
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14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
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
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
더라.
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
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
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
다.
16 그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17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
에 쏟아 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
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
루어졌도다, 하더라.
18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
더라.
19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
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
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
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20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21 또 무게가 각각 일 달란트나 되
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
라.

제 17 장

음녀와 짐승

1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의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2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3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
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4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
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5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
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와 짐승의 정체

6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
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
며 이상히 여기니
7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
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
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일곱 머리
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
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
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9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10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
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12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
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
서 권능을 받느니라.
13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
라.
14 이들이 어린양과 전쟁을 하려니
와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
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
더라.
15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
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
라.
16 네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
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
라.

제 18 장

큰 바빌론의 몰락

1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
지더라.
2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
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
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
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3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
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
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
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
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
하셨느니라.
6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
게 채워 주라.
7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
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
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
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
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8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
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
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
라.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애도

9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
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10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
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11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
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
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
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
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
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13 육계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
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
과 사람들의 혼이라.
14 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네게
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
이 네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
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15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
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16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17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
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
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
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18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
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
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
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
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
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20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
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
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바빌론의 최종 운명

21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
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 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
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
든지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
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
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
이었으며 네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24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제 19 장

하늘이 바빌론의 심판을 기뻐함

1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
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
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
셨도다, 하더라.
3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
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
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
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
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
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
을 예비하였도다.
8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
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
라, 하더라.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
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10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
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
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
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
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재림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
니라.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
더라.
13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
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
씀이라 불리느니라.
14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
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
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
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16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
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짐승과 그의 군대의 패망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
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2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
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제 20 장

1000년 왕국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2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
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
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4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
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
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
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
하리로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최종 패망

7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8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
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
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흰 왕좌 심판

11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
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
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13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
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14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
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
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제 21 장

만물이 새롭게 됨

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
이더라.

2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
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3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
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
리라.
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
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
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6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7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
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
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
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
라.

새 예루살렘

9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주리라, 하고
10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
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11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
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
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
라.
12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
스라엘의 자손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
들이니라.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14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
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5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
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
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
와 높이가 같으니라.
17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
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18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
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
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
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
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
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
한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영광

22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
문이라.
23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
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
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체이시기 때문이
라.
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
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5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
하리라.
26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
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
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 22 장

생명수의 강

1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
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
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
라.
2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
라.
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
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
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5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
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
하리로다.

때가 가깝다

6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
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
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8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
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9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
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
더라.
10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
가 가까우니라.
1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
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예수님의 증언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
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
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
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
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
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

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
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수를 취하라.

말씀 변개에 대한 경고

18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
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
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
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끝 –